

論 一 統 主 民



院 所
一 統 研 修
土 一
國 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국 민 교 육 헌 장 ◇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 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농림화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서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한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통치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 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目 次 —

I. 民族文化論	5
第1章. 民族의 形成	7
第2章. 民族意識의 國家主義	14
第3章. 近代的 國家主義	22
第4章. 近代文化의 繼承	30
第5章. 外來文化의 受容	37
第6章. 傳統社會의 價值觀	45
II. 民主主義論	55
第1章. 民主主義의 本質	57
第2章. 民主的 制度의 過程	73
第3章. 民主的 生活樣式	85
第4章. 民主主義의 土着化	96
III. 勝共論	103
第1章. 共產主義 定義의 基本概念	105
第2章. 共產主義의 變遷의 矛盾	121
第3章. 共產國家의 現實	133
IV. 北韓實情	147
第1章. 政治·外交	149

第2章. 經 濟.....	153
第3章. 社 會.....	158
第4章. 軍 事.....	163

V. 北傀 對南戰略171

第1章. 北傀의 赤化統一 戰略.....	173
第2章. 北傀의 對南工作 樣相의 變遷過程	186

VI. 心理戰.....197

第1章. 心理戰이란.....	199
第2章. 心理戰 活動	200
第3章. 北傀 心理戰	202
第4章. 韓國 心理戰	211
第5章. 結 論	216

VII. 國防思想217

—「이스라엘」國防體制—

第1章. 序 論.....	219
第2章. 「이스라엘」軍의 背景	220
第3章. 「이스라엘」의 戰略 概念.....	222
第4章. 軍編成 概念	225
第5章. 教育訓練 및 士氣.....	227
第6章. 軍需 및 武器體制.....	229
第7章. 豫備軍 및 動員制度.....	232
第8章. 6日戰爭의 教訓.....	235
第8章. 結 論.....	237

VIII. 民主·共產 對決論241

第1章. 民主·共產 對決의 起源	243
-------------------------	-----

第2章. 北傀의 挑戰	251
第3章. 民主·共產 對決의 展望	264

IX. 統一을 위한 使命

第1章. 韓國分斷과 統一의 要請	279
第2章. 우리의 統一政策과 使命	290

I. 民族文化論

第1章 民族의 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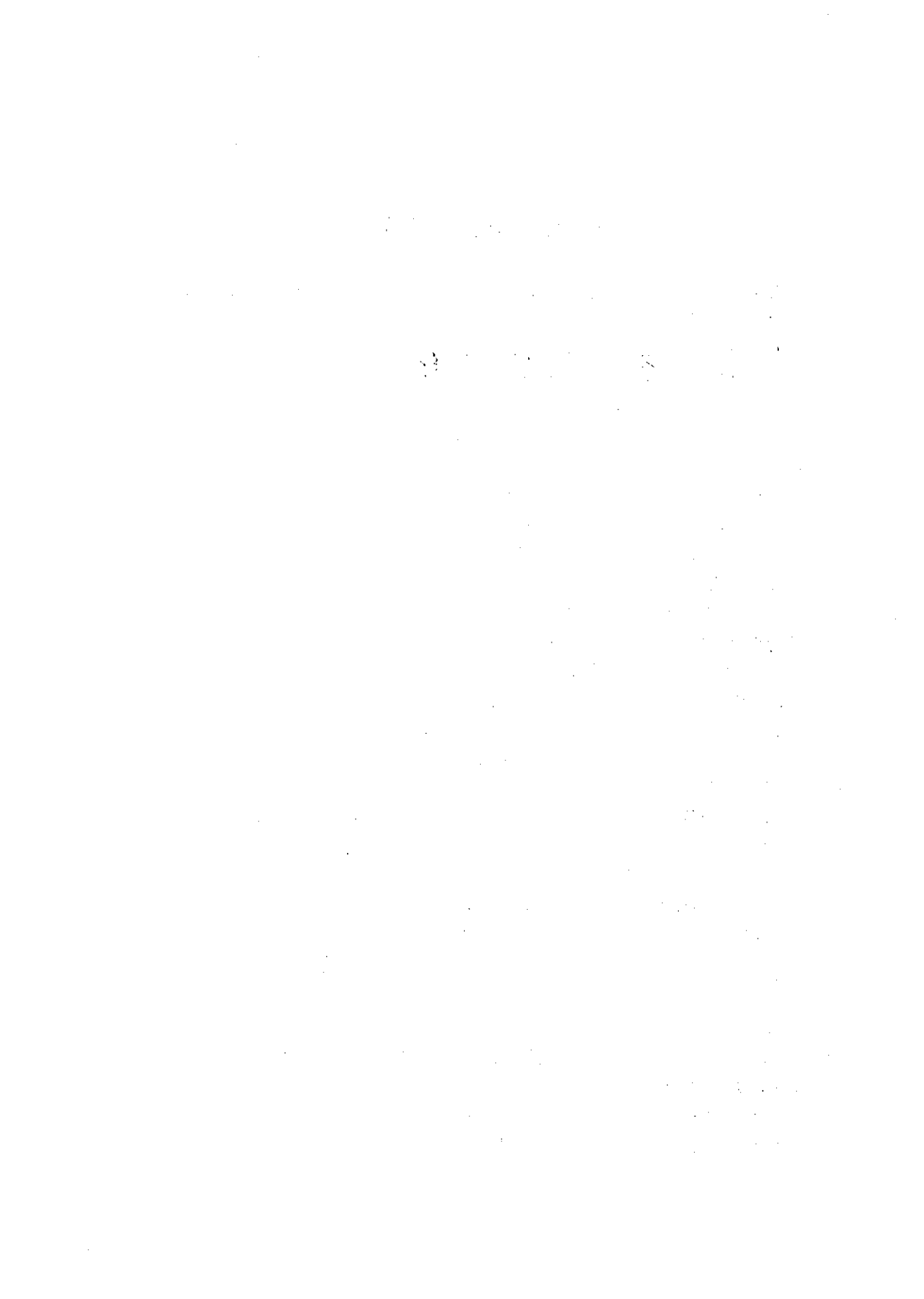
第2章 民族意識과 國家主義

第3章 近代的 國家主義

第4章 民族文化의 繼承

第5章 外來文化의 受容

第6章 傳統社會의 價值觀



第1章 民族의 形成

民族과 國家는 概念上 반드시 一致되는 것은 아니다. 元來 民族이란 血緣的 單位의 集團을 指稱하는 것으로 점차 文化共同體로 化한 單位集團이고, 國家는 單純히 政治的 意味에서 使用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概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그 形成過程에서 부터 民族과 國家는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었고 또 生成發展도 그러 하였다. 이른바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國家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오랜 歷史를 지켜온 나라는 더욱 드물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 民族은 곧 國民이요 또 國家의 立場에서도 우리는 서로 同族이라는 精神的 紐帶가 鞏固하다.

영어의 Nationalism은 우리 말의 國民主義, 國家主義, 民族主義등 여러 가지로 翻譯이 된다. 「유럽」의 19世紀 Nationism은 우리의 民族主義 概念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 H. Carr는 「유럽」의 近代 Nationalism의 發展을 3段階로 認定하고 17·18世紀의 第1段階에서는 支配者 自身과 國家를 同一視하고, 第2段階에서는 國家가 理論的으로만 國民과 同一視되고 실은 政權을 잡은 新興 中間階級의 것이었으며, 20世紀의 第3段階에 와서 國民大衆이 國策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 自己의 利益을 國家의 利益과 意識的으로 同一視하기 始作하였다고 論述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300年 걸린 近代化 過程이 「아시아」에서는 數十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시아」各國은 제각기 다른 形態이기는 하지만 抵抗을 받고 있다고 하는 見解가 많다. 이러한 見解는 「유럽」의 國民主義와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특히 單一民族國家들의 民族意識을 混沌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民族을 國家와 同義語나 다름 없이 使用하는 곳에서는 個人的 倫理와 國民의 倫理를 一致시키려는 意識的인 努力이 덜 必要하였을 것도 豫想된다. 結果的으로 個別 意識이나 個性 伸張에 支障이 있었지만 國民意識은 「유럽」에 比하여 훨씬 앞서 發達되었다는 點도 認定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歷史에서는 個人的 役割보다 民族意識이라는 力量이 國運을 지켜온 來歷을 호홉할 수 있을 程度로 中樞的인 推進力이 되어왔다. 언제나 民衆속에서 自發的으로 일어나는 傳統的인 國家意識은 單一民族으로 構成된 國民들이 가진 民族과 國家의 同一視라고 할 것이다.

1. 民族의 概念

民族에 대한 定義는 多樣하여 民族學, 文化人類學 및 社會學의 各 學問사이에서도 좀처럼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民族에 대한 概念規定은 民族의 本質을 基礎로 하여 그 統一形成을 서두르기 위한 多樣化的 克服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民族을 論함에 있어서 그 前提가 되는 概念規定은 대체로 두 가지 側面이 있다. 하나는 主觀的인 要素로서 說明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客觀的인 要素속에서 求하는 길이다.

8 民族文化論

主觀的 要素說은 民族의 本質을 規定하는 要素가 精神, 感情, 意識, 意志등의 心理的 契機라고 보는 것이며 民族感情 또는 民族意識에 의해서 說明된다. 특히 主觀的 要素說에서는 民族의 本能的 價値形態가 酵母的 要素가 되어 民族感情을 發散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價値形態를 民族의 本質이라고 規定한다.

이에 대하여, 客觀的 要素說에서는 歷史的 事實을 中心으로 血緣, 地域 및 社會的 行爲로서의 言語, 文化, 運命등의 共同體로서 民族을 說明하고자 한다. 이것을 다시 自然的 要素와 社會的 要素로 區分하는 사람도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言語, 地域, 經濟生活 및 文化의 共通性 속에 나타나는 心理狀態의 共通性을 基礎로 하여 歷史적으로 構成된 鞏固한 共同體”라는 定義를 使用하고 있어 客觀的 要素說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民族의 概念이 主觀과 客觀의 兩者擇一로 說明되어지지 않는다. 客觀的 立場에 선다는 共產主義者들은 生物學的 概念에 따르는 血緣共同體나 種族觀念은 認定하지 않고 있다. 물론 種族과 人種에 있어 明白한 區分이 可能的 것은 아니지만 民族이 種族的 限界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 人種的 限界를 超越할 수 없는 것을 보아서도 民族의 血緣性은 無視할 수 없다.

民族의 始源的 所在은 血緣이다. 文化는 地緣이 血緣과 싸워 이것을 때 나타난다. 血緣의 必然性을 超越한 곳에 文化가 일어나고, 이에 의하여 民族의 歷史가 만들어진다. 歷史는 民族이 血緣위에 다 文化變容을 不斷히 쌓아 올리므로서 民族의 文化的 創造活動을 왕성하게 만들고, 동시에 血緣과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러나 한 쪽에서 血緣은 文化를 血緣 쪽으로 還元시키려는 作用을 하며, 文化는 血緣위에서 이를 넘어서는 이른바 土養化運動을 일으킨다. 이 관계를 血緣과 文化의 相互關係 作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民族의 歷史關係에의 適用을 可能케 한다.

血緣과 文化의 相互作用이 歷史속에서 連續的 反復을 이루는 사이에, 自生的으로 變容하면서 서로 同化하여 나가는 人間의 歷史的 社會的 生存集團을 民族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定義는 民族이 血緣共同體, 地緣共同體, 文化共同體의 性格을 띠우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歷史的 運命共同體가 된다는 客觀的 要因說에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人類의 歷史나 여러 國家들의 樣相에서 볼 때 民族이 반드시 客觀的 要素에만 依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여러 新生國家들은 民族主義 理念을 「이데올로기」化하려는 努力을 하고 있다. 民族이란 國家와의 관계에서 “歷史적으로 보면 國家는 民族의 前提이다. 民族이 國家를 만든 것이 아니라 國家가 民族을 만든 것이다”라는 「파아카아」(Perker)의 理論에 따라 國家는 部族國家, 民族國家, 複合 民族國家등 性格이 다른 相互關係를 成立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新生國家는 世界 第2次 大戰 이후 民族을 形成하는 過程에 있는 나라도 있다. 이들은 運命共同體로서의 民族主義를 맨 앞에 내걸고 民族과 國家의 同化運動을 일으키고 있다. 民族은 生成集團, 基礎社會이고 國家는 組織集團, 利益社會라는 社會學的 解釋 밑에 血緣的 文化力, 歷史的 文化力 및 社會的 文化力의 反復媒介 相互作用으로 民族과 國家는 同化를 일으키면서 基礎社會에서 利益社會로 옮겨간다.

따라서 新生國家에서는 이러한 民族의 概念을 國民國家 形成에 理念의 바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他民族의 支配로 부터 獨立하여 國民國家를 形成한다든지, 政治的 分裂을 止揚하고 國民의 統一을 達成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民族主義는 必要하고 適切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成立한 新生國家가 國民의 團結을 도모코자 할 경우 全國民을 奮發시키고 그 精力을 이에 集約시키는 意味에서 民族主義가 必要한 境遇가 많다.

民族主義로 向하는 民族의 進路나 民族과 國家의 關係는 客觀的이기 보다 客觀的 要素를 主觀化시키는 傾向을 띠우고 있다. 現實的으로 民族이란 客觀性보다는 主觀性을 가진 民族感情이나 民族意識에 더 많이 期待하여 온 事實은 歷史上에서도 많은 證據를 찾을 수 있다. 國家가 危機에 處했을 때 일어난 民族意識의 發露는 義兵과 같은 具體的 舉事로 나타났는 바, 이것은 客觀的 要因이기 보다는 主觀的 要因化한 民族의 概念의 昇華였다고 보는 것이다. 民族의 概念은 이러한 見地에서 主觀的 要素와 客觀的 要素가 造化를 이루는 가운데 國家觀의 同化運動을 통하여 意識構造를 變用 創造해 나가는 歷史的 過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民族의 形成 基盤

人間은 原始段階에서 부터 群棲生存을 하였다. 이 集團은 血緣關係로 뭉쳐 있었으며 일정한 種族的 單位를 이루었다.

韓國民族은 「몽고로이드」에 屬하는 一派로 人種學上 「통구스」族이지만 漢人, 蒙古人, 滿洲人 및 日本人등 他 人種의 要素가 包含되어 있는 複合體는 아니다. 韓民族의 根幹的 要素를 “藝貓”이라고 指摘하는 이도 있으나, 言語學上으로 보나 考古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韓民族은 言語, 衣服, 制度, 刑政등에 있어 이미 先史時代부터 民族의 單一構成을 可能케 하는 要素를 지니고 있었다.

韓國史에서 韓民族의 生活相이 남겨진 時代를 遡及해 올라가면 新石器時代이다. 물론 그 以前의 遺物도 發掘되어 가고 있으나 현 韓民族의 祖上으로 浮刻시킬 수 있는 上限線은 現在 新石器時代(BC 3,000年頃)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이 時代의 社會的 單位는 氏族이었고 따라서 血緣中心 社會이며, 史家들은 이 氏族들이 自然物과의 親近關係를 믿는 「토템」(totem)氏族이라고 전해준다. 氏族社會는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고 生産, 宗教, 戰爭등에 관한 重大한 決定은 氏族會議를 통하여 決定하였으며, 氏族長은 選舉에 의해 選出되었고, 共同體에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경우 언제나 물러나야 하는 責任을 지고 있었다.

최초로 政治社會가 成立된 代表的 國家는 大同江流域의 古朝鮮이다. 古朝鮮이 곰(熊) 「토템」氏族으로 隣近 氏族과의 血緣關係를 맺어가며 勢力을 넓힐 수 있었던 힘은 靑銅器文化가 遼河流域을 통하여 鴨綠江 中流를 거쳐 들어온 까닭이다. 「시베리아」의 「네르친스크」地方의 것과도 連結이 있는 靑銅器 文化는 中國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키라이」文化와의 接觸을 통하여 들어온 것이며 이로써 古朝鮮은 土器, 靑銅器를 사용하면서 丘陵地帶에서 農業生活로 들어갔다. 이미 古朝鮮은 民族을 넘어 部族社會가 形成되었고 政治組織도 氏族統合의 族長보다는 강력한 支配勢力이 탄생하였다. 그 證據로서는 支石墓가 있다. 支石墓의 主人公인 部族長은 이미 代表者가 아니라 支配者의 性格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어 일어나게 된 扶餘, 高句麗, 沃沮, 濊貊등도 부족사회로 진전하였다.

部族長級에 속하는 많은 勢力家들이 각처에 散在해 있으면서 이들은 제각기 조그마한 規模에서나 마 原始的인 國家組織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을 家父長的 部族社會라고 부르고 있다. 部族은 氏族共同體에서 親共同體에로의 分化, 家父長族의 成長등의 社會變化에 相應하여 일어난다. 이들은 檀君神話型的 社會構造를 形成하여 「토템」信仰, 太陽崇拜, 汎神論, 天君思想, 巫覡信仰, 政權一致 등의 要素를 複合的으로 存續시켰다.

B. C. 3, 4세기의 鐵器文化의 導入은 새로운 經濟的, 社會的 革命을 일으켜 農具의 發達에 의한 生産力의 增加, 發達된 中國文化의 影響등과 더불어 政治的 軍事的인 새 挑戰을 받는다. 즉 衛滿朝鮮, 漢의 郡縣 設置와 이에 對抗하는 部族國家群의 聯盟體的인 變容過程 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北方에 일어난 部族聯盟體로서의 扶餘가 遼東의 東進勢力을 沮止하고 있는 사이에 高句麗는 家父長的 權力的 成長으로 部族國家의 性格을 굳히고, 夫餘 및 中國의 軍事的 壓力을 克服하고 後漢의 虛를 질러 漢의 郡縣과 接境하더니, A. D. 4세기에는 이를 완전히 몰아내기에 이르렀다. 沃沮, 濊, 三韓등에도 金屬文化는 속속 導入되어 이들도 部族國家의 履行過程을 서두르고 있었다.

鐵器文化는 部族社會가 聯盟體로 뭉치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血緣的 紐帶에서 地緣的인 性格으로 옮겨가는 데 拍車를 가하였다. 多數의 部族이 夫餘, 高句麗, 濊貊, 三韓등의 聯盟體로 뭉치면서 다시 部族國家 形態(三國——高句麗, 百濟, 新羅)로 옮겨가는 과정은 部族의 檀君神話型에서 三國의 始祖神話型으로의 移行을 이룬다. A. D. 1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高句麗는 가장 먼저 國家的 면모를 갖추는데 成功하였다.

高句麗는 部族社會 時代부터 部族聯盟 形成의 典型的인 部族間의 解體分化를 이루어 王(聯盟長)을 선거하였고, 政教分離, 宗廟祭祀의 宗廟建立 등 高句麗의 始祖神話의 理念을 建國神話로 變質시켜 檀君의 氏族型 神話에서의 進一步를 나타내었다. 百濟와 新羅도 시기는 늦으나마 이와 비슷한 始祖神話에서 國家形態의 政治體制로의 履行을 보여 주고 있다.

三國時代는 이러한 의미에서 部族聯盟을 基盤으로 地方勢力을 吸收한 國家形態를 갖추었으므로 部族國家라고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파인킨스」가 部族國家, 民族國家 및 複合 民族國家를 區分한 것을 보면 三國時代는 이 部族國家의 性格과 매우 近似한 것을 認知할 수 있다. 部族國家의 社會的 특징으로서는 家父長制의 族長들의 貴族化, 私有財產의 등장, 下戶의 選舉權 喪失, 血緣共同體의 崩壞, 專門的 軍隊 登場, 身分制의 分化(骨品등)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治에 있어서는 合坐制度에 의한 貴族聯合的인 性格으로서 和尙, 南堂등의 故事는 部族社會의 遺制와 國家的 統治形態의 折衷型이 아니었던가 한다.

三國은 서로 制度, 風習이 같으면서도 同一種族 間에 國家意識을 달리하였다. 百濟는 高句麗의 一派로 自認하였으나 新羅는 南方系를 포함한 部族聯盟體이어서 三姓交替와 같이 聯盟體的 政治形態를 4세기頃까지 持續하였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國家意識을 높이기 위하여 佛敎를 導入시켜 國內思想을 統一 安定시키고, 國史 撰찬으로 同族意識을 강조하였으며, 花郎(新羅) 烏堂(高句麗)과 같은 精

神的, 軍事的, 教育的인 組織을 통하여 三國統一의 基盤을 닦았다. 競爭的인 學問, 宗教, 藝術의 發達이나 즐기찬 4, 5, 6세기에 걸친 3國間의 衝突은 未久에 나타날 三國統一이라는 民族形成으로의 바탕을 이룩하기 위한 前哨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民族統一(第 1 期)

新羅가 高句麗와 百濟를 統一하고 民族國家를 形成한 것은 가장 큰 歷史的 事實의 하나였다. 5, 6세기의 3국은 자기 民族統一의 宿願을 가지고 있었음이 거의 確實하다. 高句麗는 이미 4세기에 學校를 세워 國家的 人材를 길렀고, 長壽王의 南下政策에 따라 扁堂이 地方에 더 盛行하였다. 이것은 忠, 孝, 信등의 道德을 敎訓으로 쓰는 教育機關인 뿐 아니라 軍事面에서도 重要性을 지니며, 國民 皆兵制의 原則에 선 軍事組織에 副應하여 靑年들의 訓練도 담당한 村落의 自治의 共同體의 文化的 中樞였다.

花郎制度가 宗教的, 軍事的, 教育的 性格을 띤 集團으로 新羅의 統一과 對外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였던 것은 國民 周知의 事實이나 高句麗의 扁堂과 新羅의 花郎은 貴族軍의 補充을 目的으로 하는 靑年團體로서 氏族社會의 未成年集團이라는 共同體的 遺制를 사용한 共通點이 있다. 즉 扁堂에 모여 經典을 읽어 忠·孝·信을 익히고 花郎들이 世俗五戒를 받들어 人間修養의 龜鑑으로 삼았다는 점은 三國이 同一 文化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三國이 서로 融合할 수 있는 基底는 다른 곳에도 많다. 忠으로 表示되는 專制王權과의 協力과 服屬은 이미 新羅에서 骨品制가 성립되어 選民的 意味의 身分觀念에다가 加味된 貴族階級의 敎養이었다. 즉 忠은 花郎이나 扁堂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價値觀으로서 이들은 忠을 媒介로 하여 支配階級의 身分을 維持할 수 있다는 條件이 保障된 狀況을 말한다. 또한 王室이나 貴族階級의 領土慾, 權力慾, 地位慾등의 鬭爭的인 利益追求는 民族觀念이 排除된 듯 하지만 結果的으로는 民族統一에의 促進劑가 되었던 것이다. 新羅의 對唐外交를 民族的 見地에서 섭섭히 여긴다거나, 滿洲의 領土를 拋棄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支配階級의 立場에서는 統一을 위한 치열한 競爭이었음을 알 수 있다.

660년의 百濟공격과 667년의 高句麗에의 進軍으로 三國을 統一한 新羅는 百濟와 高句麗의 復興運動을 鎮壓한 뒤에 百濟에 남아있는 唐軍을 構築하는데 6년간(671~676)이라는 戰爭을 겪었다. 新羅는 高句麗나 百濟의 경우처럼 植民地 待遇를 받는 結果가 되려는 三國統一 過程에서 民族의 責任을 지고 泗沘城을 되찾고 安東都護部를 平壤에서 滿洲地方으로 逐出하는데 成功하였다. 新羅의 三國統一은 高句麗와 百濟를 滅亡시킨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 唐軍을 驅土에서 몰아냄으로써 비로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였다고 볼 수 있다. 漢의 郡縣設置못지 않게 民族의 危機를 당하였던 新羅는 唐의 壓力을 排除하고 政治的 獨立을 지키는 가운데 統一-사업을 完遂하여 갔다. 이것은 이미 三國이 同一-文化圈에 속해 있으면서 單一-民族 形成의 基盤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可能하였던 것이다.

4. 民族意識의 擡頭(第 2 期)

新羅의 政治的 統一과 民族國家 形成이 곧 民族意識의 發生을 말하여 주는 것은 못된다. 적어도 三

國은 5, 6世紀동안 서로 다른 政治生活을 이어왔고 同一文化圈이라 하더라도 各己 特性있는 樣相으로 發展하여 왔던 것이다. 統一新羅는 舊高句麗와 舊百濟의 遊民을 糾合하기 위하여 政治制度에는 물론 軍事, 經濟, 文化에 이르기 까지 各己 特性을 살리면서도 融合할 수 있는데 努力을 傾注하였다. 景德王代(42~64)에는 統一新羅의 文化가 絶頂期에 達하는 時期여서 鄉歌, 佛國寺, 石窟庵등 이 時代의 代表的 文化財를 남기었으나 三國統一 後 100년도 지나지 않아 新羅는 混亂속에 달려 들어가게 되었다.

즉 骨品貴族制의 矛盾, 葛藤과 地方의 豪族의 勢力增大로 階級の 變動이 일어나고, 政治體制는 專制的이던 聖骨貴族이 몰락하고 貴族聯立의 方向으로 바뀌게 되었다. 新羅 下代의 150년간은 이러한 混亂에서 部族國家의 諸要素의 解體過程을 거치고 새 時代로의 轉換을 서두르고 있었다. 下層階級이나 地方勢力의 中央進出등 種래에 없던 社會變革이 일어나고, 後三國의 定立과 競爭을 거쳐 高麗王建의 建國(918)과 再統一로 一段落 짓게 된다.

高麗時代는 新羅社會를 繼承하면서 그 傳統過程을 順調롭게 處理하고 傳統속에서 새로운 社會秩序를 蒐集하는 時期로서, 自己能力을 自覺하면서 歷史的 課題를 遂行하여 나가는 民族史의 經驗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重要한 時代이다. 高麗時代의 獨創性和 自主性은 비단 政治面에서 뿐 아니라 文化面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高麗의 建國은 마치 新羅 民族統一의 再確認과 같은 過程을 밟아왔으나 實際 內面에 있어서는 新羅보다는 높은 次元의 政治意識으로 發展하였다. 新羅의 專制王權은 貴族의 忠誠으로 成立되었으나 이의 달리 高麗時代는 金哲俊이 指摘한 바와 같이 “王室의인 「이데올로기」와 國家的 「이데올로기」를 區分할 수 있을 정도로 文化水準이 높은 基盤위에 形成 되었다”는 特徵을 찾을 수 있다. 太祖王建은 子孫들에게 <十訓要>를 남기었는데, 여기서 宗教的 色彩를 除外하면 自主精神으로 一貫된 것이다. <十訓要>가 비록 豪族의 하나로 自認하는 王氏一家의 安全維持策으로 남긴 家訓이기는 하나 自主的인 民族觀이 나타나 있음은 後世에 繼承된 高麗의 對外政策과 符合되는 理念이다.

高麗時代를 一貫한 北進政策은 거란, 女眞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對 宋關係에 있어서 特記할 만한 業績을 남기었다. 이러한 業績에는 花郎精神의 後裔라고 보는 高麗 武士들이 매우 크게 貢獻하여, 民族의 運命을 지켜나갔다.

光宗의 建元稱帝나 崔承老의 時務策은 高麗王朝가 貴族政治로 옮겨가기 위한 基盤을 튼튼히 하여 주었으며, 또한 中國式 官制를 模倣하면서도 그 運營은 高麗의 特性을 살리는데 置重하였던 점은 이러한 高麗時代의 民族觀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여 준다.

즉 高麗時代는 民族을 意識하고 그것을 前提로 國家를 建立하려는 기운이 싹틀 시대이다. 高麗社會가 內治, 外治에 일단 安定을 얻자 貴族社會의 安逸한 生活에 젖어 對外政策에 금이가기 시작하자, 對內的인 結果를 위한 思想的 支柱로서 잠잠했던 檀君神話가 關心의 對象으로 再登場하여 國家危機에 對應하였고, 그 結果 <三國遺事>나 그밖의 史學에 收錄되었던 것이다. 한편 花郎을 欽慕하는 妙淸이 中央貴族에 抗拒하여 平壤遷都를 主張하다 失敗하자 軍事를 일으키고 國號를 大爲, 年號

를 天開, 軍隊名을 天遣忠義軍이라 하였으니, 그 名稱등에서도 王室을 對象으로하는 忠義가 아니라 民族에의 忠誠임을 窺知할 수가 있다.

檀君神話로서 團結을 圖謀하고 民族意識을 鼓吹한 高麗時代는 新羅의 政治的 統一을 바탕으로 하여, 精神的 즐거움을 세우는 役割을 하였다. 大陸의 不安定은 自主의인 民族路線을 지키기에 좋은 機會였으므로 10~13世紀까지는 新羅文化 위에 高麗의 文化를 育成하면서 民族文化의 創意性을 活字, 高麗磁器, 大藏經등에 쏟아 낼 수 있었다.

武臣亂을 契機로 새로운 社會變革이 일어났는데 崔氏政權이 獨走할 무렵의 蒙古侵入은 高麗의 民族意識에 대한 새로운 挑戰이고 큰 試鍊이었다. 蒙古에의 抗爭, 日本 征伐, 政治干涉등의 抑壓을 받으면서도 三別抄, 恭愍王의 排元政策은 民族意識이 싹튼 知識人들의 呼應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士大夫의 進出은 高麗의 氣風에 刷新을 가져왔고 蒙古支配의 桎梏를 벗어나고 紊亂된 舊制度를 改革하자는 麗末의 新進勢力으로 나타났다.

5. 民族文化의 結實(第 3 期)

新羅의 政治的 統一에 의하여 單一民族으로 民族國家를 建立하고 高麗時代에 民族意識이 擡頭했음과, 이에 따르는 歷史的 過程을 앞에서 보았다. 高麗 末期에서 李朝 初期에 이르는 時期는 民族形成의 內的, 外的인 充實을 매듭짓는 過程이라고 본다. 血緣과 文化의 相互關係 作用은 오랜 歲月을 두고 不斷히 繼續되어 왔다. 이 歷史속에서 새 文化는 血緣意識이 바탕이 되어 政治와 文化를 이끌고 다시 血緣으로 還元하는 反復作用을 하였다. 14.5 世紀는 이러한 民族形成에 理念과 形態를 同時에 露出시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時代로 次元을 높여주고 있다.

麗末 恭愍王의 雙城 收復, 東寧府 逐出에서 李朝 世宗大王의 四郡六鎮까지의 努力은 民族的 士氣가 세워진 것을 意味하며, 이것은 王室交替에 不問하고 連綿히 繼承된 民族的 課題의 達成이다. “政治的 版圖와 種族的 混合에 있어서 最終的인 線을 그어 地緣關係를 完成하고 다시 歷史的 文化的으로 오늘의 韓民族의 典型을 이루어” 놓았다는 점에서 民族形成의 完成이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李朝 初期는 韓國의 政治意識을 特性짓기 위한 努力에 있어서, 表面上 專制君主體制를 내세우면서도 都評議使司, 議政府, 備邊司등의 機關을 設置하여 王의 獨走를 막는 制限의 機能을 미리 構想하였는데, 이는 西洋의 絶對君主위에 오는 暴力革命을 事前에 豫知한 것이고, 申聞鼓도 民意의 暢達을 위한 意圖에서 設置되었다는 점에서 民主的 要素를 지니고 있다.

世宗祖의 集賢殿은 儒敎主義的 社會規範의 一般化가 時間을 要하는 것임에 對備하여 이 課題를 遂行하기 위한 人材養成과 「아이디어」의 摸索 手段으로 設置된 것이고, 한글의 創製는 民族文化의 烽火였다. 科學과 技術의 發達은 西歐의 文藝復興에 못지않은 成果였고 成字時부터 着手한 經國大典의 編纂은 法治國家로 變貌하는 民族國家의 指針이었다.

16世紀末 17世紀初에 일어난 2個의 外侵에서 民族意識은 여지없이 發揮되었고, 수 많은 義兵, 僧

兵이 自發적으로 나타나서 歷代 名將과 더불어 祖國을 守護하였다. 이것은 民族意識이 國家意識과 同一視되어 버린 民族觀念의 昇華라고 보아야 한다.

三學士의 勇氣

孝宗의 北伐計劃, 白頭山의 定界碑는 新興國家인 淸과의 對決에서 나타난 民族意識으로서, 이는 教科書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까지 檀君神話로 民族意識을 注入하던 李朝 儒生들의 敎育方針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李朝 時代를 事大主義에 흐른 時代라고 하여 非難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비록 韓半島의 地政的 要因이나 大陸에 비하여 武力的 劣勢가 있었다 할지라도 韓國이 항상 武力에 대한 事大主義的 態度를 취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韓國에 대한 武力的 壓力은 漢族보다는 北方民族이 더 甚하였지만 韓國은 從來 그들에게 敵對感情을 가지고 대하였다. 一部에서는 武力의 壓力과 妥協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자결, 文臣들의 對蒙古 態度, 明에 대한 李成桂 一派의 경우가 그 例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對外政策은 그들이 國內의 對立狀態를 外勢를 利用하여 解決하려는 데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러한 現狀의 原因은 차라리 國內의 勢力對立에서 찾는 것이 實際에 適合한 것이다.

이러한 屈服을 곧 事大主義라고 부르고, 이것을 마치 韓國史를 一貫하는 法則인 것같이 보는 것은 概念의 混沌이 빚어낸 過誤이다.

李朝 初期의 事大主義는 異民族의 武力的 所産이기 보다는 先進文化에 대한 憧憬心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國에 대한 慕華思想이 原因이 되어 그 憧憬이 지나치다 中期 이후에 自己卑下를 일으키게 된 것이며, 李朝 貴族은 文化創造에 대한 自信을 잃은 나머지 慕華思想에 빠져버린 것이다.

李朝의 歷史를 事大性, 半島性, 附隨性에 의하여 說明하려는 日帝의 御用學者의 解釋은 排擊하여야 하며, 특히 植民地의 劣等意識에서 助長된 先進國에 대한 過剩 숭배도 이러한 部類에 속하는 것임을 明記해야 할 것이다.

第 2 章 民族意識과 國家主義

앞 章에서는 民族이란 무엇이며, 우리 民族의 形成過程은 어떠하였는가를 주로 客觀的 要素들에 의하여 살펴보았다. 韓民族이 血緣과 文化의 相互關係作用으로 文化共同體로 까지 進展하였으나, 一步 더 前進하여 運命共同體로 가는 過程까지 本章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現代 市民社會 내지는 國民國家 形成 이전에도 民族이 可能상태로서 存在했다고 하면 民族意識도 潜在的으로 그 안에서 成長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認定할 수 있다. 高麗時代에 表出된 여러 가지 現象은 民族意識의 萌芽가 이미 1, 2, 3世紀에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었다. 民族意識은 社會的 人間關係에서가 아니라 自然的 條件과 生活文化등의 基盤위에서 培養되어 갈 수 있는 것이므로 主觀的인 意味의 民族形成은 自然發生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한편 國家主義는 國民主義와 國家主義로 區分하여 說明하여야 할 것이다. 國家主義가 國家權力을

中心으로 한 限定된 領域에 있어서의 政治原理라고 한다면 國民主義 내지 民族主義는 이 領域의 外部에 대한 政治原理이다. Ma Barrés는 國民主義를 規定하여 “어떠한 問題이건 「프랑스」와 關聯하여 解決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國民主義는 國民의 利益을 優先으로 生覺하여 自國民의 民族精神이 他國民의 그 것보다 優越함을 내세워, 다른 國民에게 政治的, 文化的 支配를 強要하는 政治原理라고 政治學에서는 規定한다. 따라서 國民主義가 排他性을 더욱 強化하면 國粹主義나 「쇼비니즘」(Chauvinism) 또는 侵略的 愛國主義(Jingoism)가 될 憂慮가 있다.

國家란 밖으로 外敵을 防禦하고 안으로는 治安을 確保하여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서, 그 存在形態는 東西古今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① 部族國家, 單一 民族國家, 複合 民族國家, ② 單一國家, 聯邦國家 ③ 君主國家, 貴族國家, 民主國家, ④ 家長國家, 國民國家, ⑤ 獨裁國家, 全體主義 國家, 自由主義 國家 ⑥ 專制國家, 法制國家 ⑦ 一黨國家, 兩黨國家, 群小政黨國家 ⑧ 夜警國家, 福祉國家 이러한 分類는 반드시 普遍化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韓國史가 大體로 어떠한 國家形態를 거쳐왔는가를 判斷하기에는 足하리라고 생각한다.

本章에서는 韓國人의 民族意識이 어찌서 그다지 強力하게 成長하였는가, 그리고 그 特性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韓國의 政治形態나 國家觀과 어떻게 接觸하였는가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1. 韓國人의 民族意識

어느 日本人 學者는 “韓國史에 있어서 現代 韓國人의 民族意識은 日本人과는 比較도 안될 程度로 강한 것이다. 그것이 直接的으로는 日本의 植民地 支配의 結果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單純히 그것만이 아니라 韓國史의 오랜 發展過程이 오늘의 韓國人을 만든 것이다”라고 韓國人의 民族性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民族意識이 강하다는 文一平은 民族思想을 “朝鮮心”이라 表現(p. 21—22)하고, 世宗의 訓民正音은 民衆의 文字이기에 朝鮮心의 發露라고 極口 讚揚하였다. 그는 이어서 “個人이나 民族이나 오늘날 처음 생긴 것이 아니요, 個人이 出生하는 그 날부터, 民族이 成立하는 그 날부터 이미 있기는 있으나 個性의 尊貴에 눈을 뜨게 된다는지 民族的 利害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그네들 중에 어떤 이는 一步 더 나아가서 社會를 發見하게 되었고 또 最初로 民衆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社會運動이 생기며 民衆運動이 생기며 무슨 일이든지 社會化를 부르짖고 民衆化를 부르짖게 되었다.”

그의 民族의 개념은 近代國家主義와 同一視된 것으로서 이미 政治를 超越한 主觀的 要素로서의 民族을 意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는 “民族의 鑄造者는 傳統이요, 民族性의 基本은 感情”이라고 說破한 「뮤어」(R. muir)의 民族感情이 成立되고 있는 것이다. 民族의 鑄造者로서의 傳統은 人間들 사이에 現實로서 存在하는 강한 親和力의 信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可能形態는 傳統속에 潛在해 있다. 例를 들면, 戰時에는 이 可能形態가 民族意識을 낳고 意識에의 자극으로 感情이 되고 民族은 客觀的 事實이 主觀的 事實을 刺戟하여 意識을 客觀化시킴으로서 感情을 表面시킨다. 이것이 즉

民族感情이라는 것이다. 感情은 非常時에 激動하고, 平和時에는 平穩하고 冷靜하다. 그러므로 感情形式만 가지고 民族을 說明하거나 觀察할 수는 없는 일이다.

近代 民族主義의 發祥은 다른 「아시아」 地域에서와 마찬가지로 西歐勢力의 進出과 더불어 싹텃고 日本 帝國主義의 侵略과 함께 成長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持論은 韓國人의 民族意識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다르고, 韓國民族의 形成過程이 越南이나 泰國과는 다르다는 分析이 없이 數十年의 政治形態만을 比較할 때 생기는 解釋이다. 韓國人이 自己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남의 나라와 다른 것은 民族形成 過程이 남의 나라와 다른 것과 陰刻—陽刻의 關係에 있음을 알아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韓國人의 民族性이 뚜렷하게 指摘할 만한 固有性이 있는것도 아니다. 金泰午는 韓國人의 長點으로 潔白, 寬容, 忍耐, 讓步精神, 平和愛護, 民主思想, 正義感, 人道, 自由獨立, 愛國心, 民族意識, 民族正氣, 統一精神, 獨創性, 藝術性, 勇敢性, 團結性이라고 지적하고 短點으로는 事大思想, 保守性, 優柔不斷, 現實主義, 諦念, 停滯性, 偏狹性, 官尊民卑, 忍從, 非社會性, 黨派性, 中傷謀略, 虛榮, 依他心, 公德心이라고 指摘하였다. 이러한 內容은 모두가 國民性을 善惡에 基準하여 指摘한 것이다. 그러나 善과 惡의 區分은 서로 相殺되는 矛盾이 있다. 즉 自由獨立이라는 長點과 依他心, 事大主義가 共存할 수는 없는 것이며, 讓步와 民主의 價値가 黨派性, 官尊民卑를 驅逐하기에 充分하다.

安白山은 祖先崇拜, 組織의 精神, 禮節, 淳厚多情, 平和學文, 實際主義, 人道主義를 長點으로 보고 團結力, 創作力, 獨立性의 貧弱을 短點으로 列擧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民族性의 把握이 主觀의 이고 論理的이라는데 問題가 있는 듯하다. 韓國人의 民族觀은 이러한 感情의인 主觀性만이 아니고 客觀의 事實이 뒷받침되는 民族意識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 國家意識의 發生

第1章에서 新羅가 三國을 政治的으로 統一은 하였으나, 그들이 지녔던 別個의 集團意識은 單一民族 國家의 形成에도 不拘하고 급속히 民族意識의 成長으로 나타나지는 못하였음을 보았다. 三國이 人種的, 文化的으로 同一系統이었으나 部族國家라는 境界가 民族意識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은 血緣共同體 意識도 文化共同體 意識도 歷史的 過程을 通하여 考察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統一新羅는 우선 王權의 強化를 서두르고 王妃族인 葛文王의 存在를 弱화시킴으로써 眞骨에 의한 專制主義를 促進시켰다. 貴族들에게 食邑, 賜田등을 준 것은 骨品貴族에게 忠誠과 바꾼 것이고, 職田制를 두고 祿邑을 점차 폐지함으로써 貴族들의 土地와 人間에 대한 直接的인 支配를 制限하였다. 統一新羅는 이러한 家長國家 또는 家產國家의 形態를 취하는 專制主義를 試圖하였으며, 이것은 中央集權이나 土地國有制의 觀念을 發生시켜 韓國政治史에서 오래 持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專制性에서 벗어나려는 努力은 이미 新羅下代에 있어서 豪族의 勢力擡頭와 오랜 叛亂의 계속으로 新羅가 混亂에 빠지는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實踐은 高麗初에 들어서

이루어지기 始作한다.

高麗의 光宗은 豪族出身을 排擊하고 科擧에 合格한 新進學者들과 結托하여 果敢한 政策을 遂行하였으나 儒敎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光宗이 즉자 新羅의 六頭品 出身인 崔致遠 系列의 儒學者들이 主導的 役割을 하였고, 代表의 人物은 崔承老였다. 그의 時務策은 儒敎로서 政治理念을 삼는 것이나 王室專制의 確立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貴族들의 共同支配體制의 安定을 強調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麗初의 豪族과 이미 中央으로 進出한 세 貴族들이 그들의 相互聯合과 相互牽制體制를 樹立하는데 儒敎의 政治理念이 必要하였고, 骨品制度가 무너진 뒤에 일어난 政治空白狀態를 메우는 機能을 가지는 것이다.

貴族의 經濟的 基盤인 土地는 名分上의 國有制와는 달리 世襲되는 種目이 많았다. 功蔭田은 勿論 軍人田, 營 밭田, 寺院田 등이 사실상 私有地였고, 貴族과 寺刹의 利殖行爲로 富의 蓄積이 可能하였다.

이러한 集權的 貴族努力에 의한 權力體制는 統一新羅 時代人들이 形成하지 못한 國家意識을 남겨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의 첫 머리에는 北界防備策이 지적되었고, 둘째가 抑佛政策이요, 셋째는 王室의 經費減少를 建議하고 있다. 이 중 많은 部分이 王의 政治에 대한 忠告로 볼 수 있으며 專制性을 弱화시키려는 意圖가 보인다. 崔承老는 다시 中國文化를 받아들이는 態度에도 言及하여 “中國文化를 崇尚한다고 하나 儒敎정신은 취하지 않고, 中國 선비(쌍기)를 禮로서 맞아들인다 하나 中國의 賢才를 얻지 못하였다”고 이를 비난하였다. <高麗史節要>에는 江東六州를 다시 찾은 徐熙와 李知白에 대하여 記錄하기를 “이때 王이 中國의 風習을 崇尚하였지만 國民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음을 李知白등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 儒敎者인 그들이 中國制度의 無批判的 導入에 叛旗를 들었던 事實이다.

高麗의 統治體制를 흔히 門閥貴族에 의한 政治라고 表現하고 專制的 性格이 新羅에 比하여 弱化되었음도 對內的으로 是認하는 듯하다. 高麗 初期의 光宗, 崔承老, 徐熙, 姜邯贊, 尹瓘 등의 史實은 高麗가 對外的으로 挑戰을 받음으로서 國家意識이 鮮트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 바탕에 民族意識이 깔려있는지의 興否는 確實치 않으나 新羅 統一時代에 比하면 거세게 받는 外勢에 대하여 白國意識이 鮮트게 되었음을 否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國家意識은 民族意識과 同一視되는 交叉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政治的 國家意識이라고 할 수 있으며 民族感情이 非常時에 刺戟을 받은 現象으로 解釋하여 두는데 不過하다고 본다.

3. 神話에 대한 認識

柳洪烈은 高麗時代가 檀君神話의 創造者임을 斷定하였다. 그 事實如否는 고사하고라도 高麗時代에 檀君神話가 始祖神話, 建國神話로서의 意義를 크게 가지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檀君은 建國의 始祖인 個人으로서가 아니라 原始社會의 信仰에 근거를 둔 宗教的 司祭長으로 理解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固有한 精神的 要素를 찾아 내려한 民族史學者 六堂은 不咸(不咸)이란 말에 표시된 光明崇拜나 太陽崇拜와 관련시켜 東北「아시아」文化圈은 不咸文化圈이라 이름짓고 그 中

心地를 古朝鮮에 두었다.

또한 곰(熊) 神話는 北方아시아에 널리 分布되어 있는 類型으로 檀君神話와 비슷한 점이 많음을指摘한 金廷鶴은 滿洲地方에서 山嶽係와 結合된 信仰이 있음을 보아 檀君神話는 「알타이」語(Kami)에서 起源한 神·酋長(간, 검, 금)과 同義語라고 말한다. 王儉(검) 居世干(간) 尼師今(금) 등을 古代語에서 大(長) 光(明)을 나타내는 뜻으로 南北에 걸쳐 분포되어 있느니만치 비단 北方만의 것이 아니라 韓半島 全域에 걸친 原始信仰에 關聯된 表現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檀君神話を 經濟學的 見地에서 分析한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檀君神話의 題材로 쓰인 自然的 環境도 高山森林地帶이어서 原始人의 祭祀와 關係가 있다. ② 題材에 나타나는 마늘과 썩으로 미루어 食用植物의 栽培가 庭園에서 田園으로 나간 文明期의 人口에 到達한 狀態이다. ③ 熊과 虎의 穴居는 女系酋長과 男系酋長의 並存이다. 檀君의 出生은 男系酋長의 確立을 말한다. ④ 檀君王儉의 稱號는 다른 文化民族의 경우와 같이 支配階級에 대한 尊號이다. ⑤ 檀君은 特定 人格者는 아니고 原始貴族인 男系酋長의 呼稱이다.

이러한 唯物論의 見解는 神話學에 대한 沒理解에서 온 誤謬가 섞여 있음은 勿論이다.

高麗時代와 檀君神話を 連結지워 보는 더 큰 理由는 檀君과 天婁, 그리고 高朱蒙의 血緣關係를 이름으로써 古朝鮮과 部族國家들을 同一 血統위에 올려놓았던 事實에 注目하기 때문이다. 高麗는 高句麗를 再認識하고 그들이 始祖 檀君과의 連結위에서 古朝鮮—扶餘—高句麗—秦封—高麗의 連綿을 意識하려는 <三國遺事>와 <帝王韻記>의 著者と 箕子—馬韓—新羅—高麗의 系列을 세우려던 <三國史記>의 筆致가 어느 程度 相反되어 있음을 窺知할 수 있다. 圖齊의 表現을 빌리면 前者는 郎家의 後裔로서 自主的인 路線을 걷는 것이오, 後者는 事大性이 짝트는 儒家의 그릇된 處事라고 꾸짖었다. 아마도 金富軾이 檀君記事를 보았으면서 納得이 가지 않아 除外하였으리라는 推測(金裁元)이 옳은 지도 모르겠다.

高朱蒙神話와 檀君神話を 연결시키는 또하나의 근거는 太陽崇拜 思想의 共通性이다. 六堂의 <不成文化論>에서도 약간 言及하였지만 東明王(朱蒙)神話, 朴赫居世의 卵生神話에도 太陽이 結付되어 있다. 朴(박), 弗矩內등이 모두 光明을 뜻하는 것이며 檀君神話는 神話속의 始祖로서도의 系統도 차지했다는 것은 高麗時代가 더 한층 神話에 대한 認識이 높아진 時期임을 證明하는 事實이다. 高朱蒙神話는 廣開土王婢文에서도 <帝王韻記>와 같은 內容이 發見될으므로 高麗人들의 創作이 아니었음이 明白하여졌으므로 檀君神話의 來歷도 더 오래된 것인지도 모른다.

儒敎的 支配를 받았던 李朝社會에서도 檀君神話에 대한 崇拜가 줄어들 것이 아니다. 太宗 12년에는 檀君이 우리나라 始祖임을 認識하고 平壤에 있는 箕子廟에 合祀했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보아 國祖로서의 檀君에 대한 崇拜의 度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강병길). 우리 民族의 歷史的 獨立性을 強調하는 底意에서 나온 檀君에 대한 敎育은 <童蒙先習>에까지 收錄되어 어린 時節부터 徹底했으니 前章에서 지적한 民族文化 形成의 完成期인 李朝初期와 時代的으로 附合된다는 것도 偶然한 일은 아니다.

李朝初期의 民族意識은 世宗朝에서 기틀을 잡은듯 하다. 따지고 보면 實學派의 源流는 世宗의 業蹟에 많은 部分을 찾을 수 있으니 農學, 歷學, 醫學등은 두드러진 例이다. 檀君神話가 <八道地理志>에서 다시 <世宗實錄地理志>에 수록되었고, 集賢殿의 古典研究와 한글創製는 그 後身인 六典詳定所에 계승되어 <經國大典>을 낳았으니, 이것은 모두가 國家意識에 民族意識이 作用하여 同一視 過程을 걸게되는 主要한 事例라고 할 것이다.

4. 儒學의 國家意識

高麗末에 朱子學이 들어와서 朝鮮時代의 政治理念으로 터전을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鄭道傳의 抑佛崇儒策은 舊貴族의 勢力基盤인 寺院을 政治에서 몰아내고 田土를 沒收하여 財政을 정비하자는데 直接的 動機가 있었다.

朱子學은 宋代에 地方族인 遼·金과의 對決과 긴장속에서 形成된 思想이며 그와 같은 形勢에 對應하여 君主體制의 強化가 必要하였던 時代의 產物이다. 儒學의 理想은 “修正治人”에 있으므로 이러한 뜻에서 朱子는 四學中에 大學을 第1로 있게 하고 論語를 第2에 두었다. 論語는 大學之道를 어떻게 實踐하는 가를 具體的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孟子가 第3으로 오고 綜合的인 中庸이 끝이다. 四學의 位置設定이 宋代 學問의 性格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經書의 概念規定이 時代思潮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宋代에도 儒學의 當面과제는 佛敎와의 對立 克服이다. 朱子는 大學을 孔子의 가르침의 骨格으로 삼고 이것을 三綱領과 八條目으로 나누었다. 三綱領이란 明明德, 新民, 上至善이라 하고 八條目은 平天下, 齊家, 修身, 正心, 誠意, 致知, 格物이라 하여 이 說明으로 儒敎의 大綱을 가르쳤다. 朱子學이 正統論, 大義名分論등에서 政治의 性格이 強하게 풍기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朝鮮의 儒敎者들은 理氣論의 形而上學을 주로 研究하였다. 이것을 특히 性理學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朱子學의 形而上學만을 가지고 李朝儒學을 論하기는 어렵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朱子의 八條目중에서는 平天下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 宋學이 政治意識과 깊은 關聯이 있음은 여기서도 分明하지만 高麗末의 鄭夢周, 李再는 大義名分에 몸을 바쳤고 鄭道傳, 權近은 大儒이기도 하지만 學問(斥佛論)과 政治를 兼行한 사람이다. 李朝初에 金宗直의 孝悌忠信을 信條로 삼는 것이나, 死六臣, 生六臣의 節義는 그들의 政治意識이나 國家觀이 儒學에 의해 武裝된 君主體制였음을 알 수 있다.

儒學의 政治理念을 實踐에 옮겨 보려한 것은 趙光祖를 領袖로 하는 經治主義學派가 최초라고 할 것이다. 젊어서 발탁된 趙光祖는 中宗의 信念을 얻어 崇道學, 正人心, 法聖賢, 興經法의 說로서 王道를 가르치고 鄉約을 장려하여 百姓들에게 孝親敬長의 風俗을 길러주었다. 그의 過激한 政策은 反對派에 의하여 挫折되었으나 그 周邊에 있던 新進學者들이 一齊히 淘汰당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經治學派는 賢君政治를 이상으로 하는 王道政治를 내세우고 王을 堯舜으로 만들고 民을 潤澤하자 한다는 信條를 실천에 옮겨보려한 것이다.

다음에 일어난 性理學派는 存養과 窮理의 二大목표를 가지고 宇宙論(理氣說) 倫理學(天人合德)을 연구하였다. 徐敬德, 李滉, 李珥 등은 대체로 政治나 國家에 대하여 言及한 것이 적다. 佛敎의 挑戰이 사라진 李朝中期는 마음껏 形而上學에 몰두할 수 있는 時期였는지도 모른다. 退溪는 백성들이 주리지 않고 굶지 않을 정도로 衣食이 해결되어야 道義가 행하여질 것이라고 하여 政治와 經濟가 道義의 根本이 됨을 가르쳤다. 政界進出이 빈번하였던 栗谷도 民은 以食爲天이니 만큼 無食無民이요 無民則無國이라 하여 民生問題부터 해결하고 나서 敎育도 가능하며 그래야 國家의 存立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大體로 儒學은 國家意識보다는 經道를 가르친 支配層을 위한 倫理와 哲學이었다고 볼 수 있다. 栗谷은 五性을 仁·義·禮·智·信 七情을 喜·怒·哀·懼·愛·惡·欲으로 보고 있으니만치 經治主義學派에 비하면 政治面에서 消極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朝鮮 朱子學의 歸決은 禮學이었다. “天理의 節文과 人事의 儀則을 말하는 것이니(玄相允), 사물의 言行이 자연의 理에 부합되게 하여 人生相互의 애경을 극진히 하라는 뜻이다. 李朝 後期에 冠婚喪祭나 吉凶尊賓旅와 저게는 視聽言動과 坐臥行住에 일정한 방식과 절차를 가리는 일은 個人의 수양과 가정倫理에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것은 또한 宋時烈을 代表로 하여 이조후기에 대두된 黨爭의 原因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朱子學에서의 忠誠은 義理라고 力說되는 만큼 權力에 強要된 服從이 아니라 自發的인 順從이었다. 따라서 權力은 倫理로 뒷받침되어 있고 倫理는 權力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儒敎倫理의 生活浸透은 철저한 것이었다. 壬辰倭亂때 의병의 興기는 孝와 忠을 一致시키므로써 곧 행동화될 수 있었다. 義兵대장 高敬命은 격문을 돌려 평소에 배운 儒學의 大義는 子息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아우가 형을 도우라고 하였다. 이게 善을 숨쳐 善에 따르자고 의쳤다. 守門前의 道義를 몸소 실천하는 儒生이 끊이지 않는 義學에 倭將들도 놀랐던 것이다. 그 밖에도 數 많은 義兵이 倭亂이나 日帝末에 나타났으니 儒學의 영향은 國家意識의 基底를 이루는 精神의 支柱의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實學派의 國家意識

지금까지 實學에 대하여 두가지 方向의 定義를 내리고 있다. 하나는, 朝鮮後期에 新學風을 일으킨 一群의 學者들의 思想內容으로 보는 見解와 다른 하나는, 實學은 改革論을 부르짖는 批判精神으로서 性理學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態度이다.

어떻게 간에 實學은 종래의 朱子學에 缺如되기 쉬웠던 多方面의 知識을 吸收하였고 그 중에서도 民族主義의 國家觀을 찾으려 한 그 점이 本章과 關聯이 있다. 近來에 와서 “韓國學”이 提唱되고 그 歷史的인 源流를 더듬어 올라가면 朝鮮後期의 一群의 改革儒學者들에 焦點이 集中될 것이다. 舊韓末의 張志淵 등의 廣文社, 日政初 崔南善 등의 朝鮮光文會, 1930年代 鄭寅普 등의 新朝鮮社에서 古典刊行을 서 두를 때 實學이 유달리 高潮된 것도 그들의 民族主義의 色彩와 實學의 理念에 符合되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며, 實學에 대하여 性理學과 區分하여 새로운 概念을 부여한 것도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新學風의 特徵을 “實事求是” 또는 “利用厚生”등 여러 가지로 잡아 보았지만 대개는 例外 없이 “自我의 覺醒” “自我의 再樹立”등의 표현으로(p.162) 近代的 民族主義 概念과 連結시키고 있다. 사실상 舊漢末의 朴泳孝, 金玉均등 開化派들도 이러한 實學思想의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實學의 탄생은 다분히 政治와 社會現象을 改革하기 위하여 政權에 關係하지 못한 南人側이 主動이 되었다는 것이 通說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들의 學問研究 대상이 政治, 經濟뿐 아니라 經學, 地理學, 自然科學, 農學, 史學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고, 그들은 朱子學者이면서 修正治人이나 窮理보다는 實證的 方法과 現實的인 內容을 對象으로 택하였다.

李睟光의 百科辭典式 知識의 정리나, 金瑬의 歷學, 韓百松의 地理등은 이미 實學의 先驅的 역할이 있었다. 柳馨遠에 이르러 體系있는 實學이 나왔으며, 安鼎福의 歷史敘述 地理, 金石文의 農學등으로 發展하여 丁若鏞에 이르러 集大成된다. 政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奎章閣을 세우고 <法典>의 정비와 編纂, <秋管志(判例集)>, <度支志>, <農學>등 수많은 書籍을 刊行하였다. 이러한 業績中에서도 民族主義를 이끌어내는 自我意識을 주는데 貢獻한 것은 특히 歷史學과 文學이었다.

過去를 遡上하여 民族의 걸어온 歷程을 細密히 觀察하고 興亡盛衰의 原因을 理解하기 위하여 歷史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獨自的인 觀點에서 韓國史를 再構成하여 보겠다는 노력이 보인다. 李瀾의 <三韓正統論>은 朱子學의 影響을 받으면서도 中國의 歷史와 韓國史를 對比시키고, 檀君의 建國후 箕子가 그의 正當한 後繼者임을 인정하고 箕準이 衛滿을 피해서 南遷했으나, 거기서 다시 馬韓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이어갔으므로 馬韓이 正統이라고 主張한다. 國史에 一定한 系統을 세우려하는 것은 漢의 郡縣設置로 인하여 韓國史가 一時 中斷되는 것 같이 敘述해온 것에 대한 批判이다. 安鼎福은 <東史綱目>에서 <東國通鑑>에 衛滿朝鮮이 檀君 및 箕子시대와 더불어 三朝鮮으로 取扱되는 不當性을 지적하고 衛滿대신 馬韓을 正統으로 할 것을 主張하고 檀君과 箕子의 事實性을 강조하여 歷史時代의 上限에 올려 놓았다.

北學派라고 불리는 一群의 學者들은 實學이 農村을 土嚔로 經世致用의 學問으로 나간데 비하여 都市의 분위기 속에서 商工業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商品의 流通이나 生産器具의 發展을 주장하는 北學派들도 現實改革이라는 焦點에는 다를 바 없고 儒生들의 生活이나 社會構造에 대하여서도 날카로운 批判을 加하고 있다. 朴趾源은 그 중 대표적 인물로서 <兩班傳>, <許生傳>등 小說을 통하여 兩班들의 無爲徒食을 공격하고, 耕作과 生産에 중사하기를 권유했으며 職業觀, 身分制에 대한 새로운 價値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實學派의 民族主義의 色彩는 그것이 朱子學의 테두리안에 있건 밖에 있건간에 朱子學에서 흘러 내려온 政治理念과 民族의 價値觀이 새 時代에 맞게 表現된 것이다. 이 시대에 <春香傳>, <沈滄傳>등의 庶民文學이 流行하였던가, 美術에 있어서도 白磁의 一般化나 風俗圖를 많이 素材로 삼은 蕙園, 檀園의 出現은 自我意識과 民族主義의 새 時代思潮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人間과 動物과의 差異를 三綱五倫의 有無에서가 아니라 技術의 有無에서 찾아보려는 丁若鏞의 進步觀은 人間의 技藝가 時代의 下降에 따라 向上發展되어 감을 認識하는 歷史的 認識으로서, 近代 民族主義는 이러

한 세 시대의 認識과 未來에 대한 自信과 더불어 이미 18세기말에 싹트고 있었다.

第3章 近代的 國家主義

民族主義와 國家主義가 同化되는 氣運을 實學派의 움직임에서 보아온 바 있으나 金玉均등의 開化 운동은 實學派의 末期에 속하는 崔漢綺, 金正浩등으로부터 不過 10여년 뒤에 나타났고 徐載弼의 獨立協會의 탄생도 甲申政變으로 부터 10年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다. 19세기 前半의 實學과 19세기 후반의 近代化 過程은 直結되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開化思想은 儒學의 延長이나 改革이 아니고 外來思想 즉 新學問의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인 이상 開化思想이 實學의 繼承者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韓國人이 傳統위에 서서 文化受容을 하게 되는 경우 傳統的 價値觀가운데서 무엇이 主體的으로 作用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은 必要한 課題일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생각되는 實學과 甲申政變은 潛在的이었으나 實學이 開化의 원동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p. 163)

한편 東學思想은 既存의 宗教나 思想을 부정하고 本源의인 人間倫理의 回復을 希求하면서 純全히 傳統的 價値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大衆의 呼應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西學에 대한 反撥이 民族主義의 方向으로 이끌게 하였다. 舊秩序에 대한 否定은 새로운 社會思想을 낳고 下層階級을 代辯하는 倫理的 저항을 試圖하였으나 開化思想과는 全然 反對의 手段으로 傳統에 挑戰하였다.

한편 獨立協會는 開化思想을 계승하고 새 時代로의 轉換의 焦點을 民權運動에다 두었다. 이것은 開化와 東學의 調和속에서 民族的 自主獨立을 내세우니 結果的으로 東學과 같은 抗日路線으로 歸着되고 만 것이다.

舊韓國이 國際무대에 進出하여 強大國들 사이에서 當惑하고 있을 무렵에 領土의 侵略을 피하는 日本에 抗拒한 勢力은 儒生, 東學, 獨立協會등의 民族的 自主獨立에 눈이 뜬 近代의 民族主義者들이었다. 近代化의 문턱에서 領土의 防衛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 歷史的 悲運속에서 祖上들이 어떤 過程을 밟았나 하는것은 民族의 傳統과 價値觀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國土守保를 위한 鬭爭

歷史는 平和와 戰亂의 兩面이 交替되는 것이다. 平和時에는 政治, 經濟가 안정되고 文學, 藝術등이 꽃을 피우며 外來文化의 導入과 受容이 傳統과의 葛藤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土着化 되어 간다. 外民族과의 對立과 戰爭이나 內部的인 反亂이 歷史의 發展을 沮止하는 경우도 있으나 外勢의 挑戰이 反對로 民族意識을 고취 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比較的 外國에 대한 侵略性이 적었던 農耕民型的 平和愛好族인 韓民族이지만 外勢의 攻擊대상이 된 많은 經驗을 가지고 있다. 半島的 條件과 中國과 日本사이의 文化橋梁의 役割로 밀접한 外交關係를 가지면서도 時時로 변하는 情勢는 자주 敵對關係로 變化시켰다. 表面的으로는 韓民族의 對外

抗爭史는 統一新羅때 부터 나타난 것 같으나 潜在的으로는 그 이전부터 發生하고 있었다. 이미 古朝鮮 後期에 遼東과의 衝突이 시작되었고 扶餘와 高句麗는 韓半島의 防波堤구실을 하여 주었다. 三國時代의 魏·晉과의 關係에 있어서나 隨와의 戰爭에서 潜在的인 民族意識이 發動하였다. 嚴密한 의의의 同族意識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漢族과의 識別은 可能하였던 것이라 생각한다.

對外抗爭의 歷史를 反復할 때마다 國土守護의 主體勢力은 國家權力에 寄生하는 支配層이 아니라 有事時에는 大衆과 兵士들이 自發的으로 隊列에 참여하는 傳統을 가지고 있다. 新羅의 郎徒들, 尹瓘의 別技軍, 高麗의 三別抄·壬辰亂때의 義兵, 東學軍, 舊韓末의 義兵등은 代表的 사례이다. 이들의 構成員은 貴族, 僧侶, 農民은 물론 賤民階級까지 包含하는 汎國民의 隊列이다. 어느 時代나 軍隊組織이 있었지만 國難을 당하였을 때에는 民族이 總動員되어서 防衛의 主體를 이루었다는 것은 日帝 36年을 除外하고는 오랜 歷史를 通하여 獨立을 維持할 수 있었던 基本力量이 아닐 수 없다. 遼, 金, 元, 淸에게 支配當하였던 中國의 쓰라린 歷史가 韓國에는 甚하지 않았고 單一民族에 單一國家로서 오랜 國民國家를 이루어 온 例도 世界에서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나 「로마」도 수백년 동안 他民族의 支配를 받거나 여러 나라의 植民地로 分割당했고 英國이나 「프랑스」가 國民國家를 이룬 것은 不過 500년이 넘지 않는다. 이러한 歷史的 背景에 比하여 韓國史가 걸어온 길은 祖上들이 意識的으로 努力한 結果로서 比較的 順調로운 것이었다.

日帝時代에 日本의 御用學者들에 의하여 韓國史가 暗黑史로 표현되기 시작한 以來, 우리民族은 自國의 傳統에 대한 劣等意識을 강요당했고 우리의 國民性 마저 否定的으로 說明하기에 이르렀다. 外侮이 적었던 日本이지만 그들의 즐거찬 內亂의 連續으로 인하여 武士國이라는 好戰民族을 낳았고, 4000年來로 萬里長城 以北의 外族과의 鬪爭史로 一貫한 中國등과 比較한다면 韓國의 外交史와 對外抗爭史는 日帝植民地 史觀이 說明한 그대로는 아니다. 그 까닭은 抗爭의 主體가 民族이라는 點에 있음을 分明히 하여 두어야겠다.

2. 開化思想

그러나 20세기 初에 들어서서 韓國史에 汚點을 남긴 것 만은 틀림없다. 그 淵源을 찾기에선 近代 民族主義의 擱頭와 挫折過程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開化思想”은 舊韓末에 있어서 進保的인 思想이었다. 그 發生時期는 1870年代였고, 그 뒤 3, 40年間 韓國의 政治, 經濟, 文化 全般을 支配하였다. 開化思想의 內容을 따져보면 적어도 3段階로 變遷發展되어 온 것 같다. 우선 첫 段階는 1870年代로서 “開化”는 “開國”과 같은 概念으로 사용되고 海外에 대한 知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開化思想으로 看做되었으며, 둘째 段階는 1880年代로 소위 外國技術을 받아들여 나라의 富強을 이룩해 보겠다는 思想이었다. 마지막 세 段階는 1890年代와 1900年代로 國家의 獨立과 國民의 權利를 主張하여 獨立協會와 같은 活動이 가장 두드러진 開化思想의 發露였다. 그러므로 開化思想은 概念的으로 單一하게 把握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①p. 19)

第一段階의 開國期는 大院君이 儒生들과 閔氏勢力에 의하여 政權에서 물러난 1873年을 起點으로

하여 急速度로 가까워진 閔氏系와 日本사이에 丙子修好條約을 맺는 1875년에 시작하는 것이다. 日本은 名目上 貿易港을 요구한 듯 보였으나 釜山, 仁川, 元山の 3港이 開放되면 이것을 海軍基地로 이용할 속셈이었다. 世界情勢에 어두운 韓國에 不平等條約을 강요하여 治外法權까지 획득한 日本은 政府가 開化에 關心을 기울임을 보자 現代式 軍隊 養成을 口實로 日人敎官을 파견하고 行政機構도 改革하였다.

이러한 情勢변동을 지켜보던 淸國은 從來의 애매한 態度를 버리고 鮮은 宗主國의 자세로 나오면서 干涉을 加重하여 왔다. 新興 日本을 往來한 使節이 急速한 發展相을 보고 하루 速히 自強을 꾀하는 意見과 斥倭, 斥洋을 고집하는 保守勢力이 對立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淸國과 日本, 그리고 內部에서의 大院君과 閔妃一派의 反目は 여러 갈래로 어지러운 問題를 內包한채 일단 開化派—日本—閔氏系의 線에서 開港까지 이끌어 나갔다.

1880年 修信使로 日本에 갔던 金宏集이 가지고 온 駐日 淸國 外交官이 쓴 <朝鮮策略>에는 西洋의 技術(鑛山, 軍備等)을 배워야 하고 新中國, 結日本, 聯差那하라는 內容이 骨子이다. 當時 日本에는 “文明開化” 中國에는 “自強”이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었다. 朝洋策略은 自強의 說明서와 같은 것인데 韓國도 이 開化나 自強의 물결이 들어왔다. 그러나 1882年の 壬午軍亂의 勃發은 新式 軍隊組織에 대한 첫 反撥이다. 大院君이 淸에 拉致되어 軍亂은 수습되고 危機一髮의 淸·日의 軍事충돌은 피하였으나 淸의 干涉은 날로 심하여지고 歐美 外國은 경쟁적으로 접근하여 美·英·獨·伊·露와 電擊的 通商條約을 맺었다. 韓國의 自主的 立場은 다시 흔들렸다. 壬午軍亂으로 開化運動은 첫 試練에 부딪혔으나 다시 1年뒤에는 高宗의 敎書로서 나라의 政치를 새로 해야겠다는 것을 여러번 闡明하였다. <承政院日記>에는 1832年 8月 軍亂이 진압된 이후 12월말까지 무려 100여명이 上疏를 바치고, 王의 改革政治 즉, 時弊를 除去하는 方策 20條에 대한 呼應을 하였고 王은 일일이 批答을 내리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중 17名은 開化思想家였다는 것이었고 그 建議內容은 開化關係 書籍 刊行, 外國語 敎書, 外國人 技師 採用, 知識과 技術習得의 訓練院 設置, 炭鑛의 採掘, 商會所와 國立銀行 設置, 火輪船의 建造와 軍港設置 등이다. (①p. 37)

甲申政變(1884)은 開化獨立黨의 失敗로 끝났다. 淸의 干涉을 물리치고 더 急히 開化에 다름질치고자 하는 過激派들에게 缺陷이 있었다. (p. 665) 近代國家의 形成을 위한 革命이나 改革의 主體가 平民階級이어야 하는데 開化獨立黨은 民衆들의 國民的 自覺의 程度를 參照하지 못하였다. 兩班出身의 一部 知識人만의 行動이 革命으로 발전될 수는 없었다. 다음에는 革命이나 政權의 전복에는 뚜렷한 大義名分이 있어야 하고 確고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革命이나 美國의 獨立이 自由, 平等에 대한 國民意識을 계몽하는 데 오랜 時日과 精力을 쏟았음을 몰랐다. 더구나 그 計劃을 外勢에 依存하였다는 사실은 決定的으로 失敗한 原因이 된다. 당시는 여러 나라와의 條約 締結時期임에도 不拘하고 日本밖에는 視野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國際的 知識이 너무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1

그러나 그 失敗가 決코 無意味한 것도 아니었으니 그들은 實로 近代 國家主義의 先驅者들이었다. 王朝末期의 이 나라에서 政治的으로 “國民平等의 權”을 내세워 民主主義의 變모를 찾고 自主獨立의

改革을 試圖해 본 人士가 있다면 그들이 最初이다. (②p. 566)

3. 東學 運動

西洋의 文物이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도견으로 나타난 것은 儒生의 保守的 傾向과 다른 하나는 大衆들의 傳統的인 精神構造를 大變하였다고 볼 수 있는 東學이다. 崔濟愚가 道를 天道라 하고 學을 東學이라 하여, 德을 天下에 퍼고 蒼生을 廣濟한다는 「슬로간」을 내건 것은 1860年代의 近代化 물결이 한창이던 時期이다.

李朝末葉의 政治가 부패하고 사회가 절망상태에 빠져 民憂가 도처에서 일어날 즈음 外勢가 밀려와 國土와 資源을 蠶食하려 들 사태에서도 朝廷은 財政의 궁핍에도 收取가 심하고 政治的 보복으로 해가 저무는 상태였다. 겉으로 보기에 太平을 누리던 1880年代에 西洋文物이 들어와 電信, 電線의 화려한 發達도 있었으나 大衆의 生活은 여전하니 “古道가 衰하고 西教가 이 機會를 타고 일어나 國運이 危殆롭다. 나는 上帝의 神府를 받았다. 그러므로 내教를 믿으면 疾苦를 免하고 天壽를 다할 수 있다. 西教는 나라를 빼앗고 백성을 멸하는 邪教이다”라는 布德文을 낸 崔濟愚는 民族意識위에서 發現된 思想家이다. 그는 “儒·佛·仙 3教를 배우고 이를 折衷 調和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勇氣는 天主教의 殉教精神에서 자극된 바 크다고 할 것이다.”(22)

東學은 朝鮮王朝의 封建的 兩班支配 社會가 對內, 對外的으로 파탄의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舊秩序의 終末과 새 時代의 到來를 豫言하고 나섰다. 모든 既存 宗教, 信仰, 思想을 否定하는 정신은 흡사 「양상 레짐」(舊制度)을 부정한 啓蒙主義者들의 그것과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教訓類에서 既存 宗教를 否定하고 정감록도 反對한다. 文人이나 地位門閥도 否定하고 이러한 頹廢풍조는 堯舜之治를 가지고도 救濟할 수 없다고 하여, 東學은 오로지 本源的인 人間倫理의 回復을 요구하여 內的·外的 狀況을 극복하려 하였다. 「르네상스」의 人間復歸나 「프로테스탄트」의 傳統에의 反抗이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東學의 基本思想은 東洋古代의 道德觀과 그 기반을 둔 非世俗的인 倫理의 體行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超人의 倫理로서 傳統的인 聖人君子의 觀念에서 벗어나 民衆 各自에 대한 英雄倫理를 요구한다. 그것은 農民의 立場과 거이 다름없이 된 賤班階層에 의해서 唱道되어, 그렇듯 不遇한 身分階層을 代辯하는 倫理的 抵抗이다. (p. 69)이것은 「프랑스」혁명의 新興「부르조아지」와는 다른 國民的 自覺이고 個人的 覺醒이다. 그러기 위하여 東學은 大衆의 知的 水準을 올리기에 노력하였다.

東學은 또한 民衆生存의 教導뿐 아니라 國家의 運命에 대해서도 使命感을 감지한데서 近代 國家主義의 使徒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甲申政變이 一部 兩班出身의 知識人들에 의하여 擧事한데 비하여, 東學은 民衆의 呼應을 불러 일으키고 政治的 극난을 意識하면서 民衆과 國家를 구제하려는 氣로 發展하였다. 一種의 革命的 氣質과 民族主義의 性格이 東學亂에서 具體的으로 나타난다.

1894年の 東學亂은 30年の 布教를 통하여 民衆에게 近代意識을 고취시킨데 基盤을 두고 있기 때문에 大衆과 호흡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점은 甲申政變과는 또 다른 性格을 갖고있는 것이다. 政局

의 不安定, 外國勢力的 浸透와 蠶食, 無秩序한 外來文化 導入으로 國家와 民生을 염려하던 大衆에게 政府의 東學에 대한 압력이 오히려 저항을 招來했다. 自主性이 강한 東學에 滿, 日은 위기를 느꼈고 政府는 그들의 改革論을 두려워 하였다. 全琿準의 蜂起에서 내세운 要求條件은 近代化의 精神을 담은 것으로서, 朝廷으로서는 對內·對外정세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難題였고 淸日戰爭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淸日의 角逐과 그 解決을 促進시킨 歷史의 추진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東學당이 내걸은 要求條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東學徒와 政府사이의 誤解를 풀고 庶政에 協力할 것.
2. 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調査해서 嚴罰에 處할 것.
3. 橫暴한 富豪들을 處罰할 것.
4. 不良한 儒林과 兩班들을 團束할 것.
5. 奴婢의 文帛를 태워 없앨 것.
6. 賤民의 待遇를 改善하고, 白丁이 머리에 쓰는 대갓을 없앨 것.
7. 젊은 寡婦의 再婚을 許可할 것.
8. 理由없는 雜稅를 모두 廢止할 것.
9. 官吏를 採用함에 있어 文闕을 打破하고 人才를 登用할 것.
10. 日本人과 內通하는 者를 嚴格하게 다스릴 것.
11. 公債나 私債나 지나간 것은 모두 免除할 것.
12. 土地를 均等하게 分配하여 耕作케 할 것.

20萬의 被害者를 낸 東學亂은 孫秉熙에 의하여 1905년에 天道教라는 이름으로 宗團을 세우니 이러한 民族主義的 改革精神은 다시 3·1運動에서 새로운 樣相으로 나타나게 된다.

東學黨의 布告文

民은 國家의 根本이다. 根本이 衰削하면 國家는 殘弱해지는 것이다. 輔國安民의 方策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鄉第를 베풀어 오직 홀로 穩坐할 方策만 꾀하고 헛되이 國祿을 없애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우리들은 비록 在野의 遺民이나 君土를 먹고 君衣를 입고 있으니, 國家의 危亡을 앉아서 볼 수는 없다. 八路가 同心하고 億兆가 詢議하여 이제 義旗를 들어 輔國安民으로서 死生의 盟誓로 삼는다. 今日의 光景이 비록 놀라운 일에 屬하나 결코 恐動하지 말라, 각기 民衆을 平安히 하고 昇平한 歲月을 함께 祝하며 聖化를 모두 누리게 되면 千萬 幸甚일까 한다.

4. 獨立協會

淸日戰爭이 끝난후 韓國은 다시 露西亞와 日本의 경쟁 마당으로 변하였다. 아직도 가지지 않은 政局의 不安은 日本의 內政干涉에 의하여 急速度로 進行되는 開化運動이 日本에의 從屬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行政이나 經濟制의 改革에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나 軍事力의 整備에는 생경하였고, 擴張에는 反對를 하였으니 新武器의 供給이나 兵力의 增強은 곤란하였다. 閔妃系에 대

한 強力한 威脅의 存在였던 大院君이 日本에 의하여 除去되었으나 三國干涉에 의한 「러시아」의 세력은 확대되었다. 이를 感知한 閔妃系는 다시 親日系의 朴泳孝一派를 除去하려고 親露政策을 씀으로서 乙未事件이 일어나 閔妃는 죽을 당하니 바로 淸日戰爭의 이듬해이다.

日本의 干涉에서 떠나려는 것은 朝廷에서도 한 가지였다. 「러시아」를 위시한 미국, 영국의 세력과 협조하면서 大韓帝國을 세우고 自主性을 표방하게 되자, 日本은 교활하게도 政治性을 排除한 商業戰術로 나와 韓半島에서의 勢力扶植을 도모하였다.

이 무렵에 나타난 獨立協會는 특히 西洋의 自由主義 思想을 배운 새 知識층이 主動이 되었다는 점이다. 日本에서 開化를 얻어 오고, 中國에서 自強을 배운 李朝末에서 韓國의 傳統思想위에 선 東學의 提唱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西歐式 民權運動이 싹트게 된 것이다. 徐載弼은 甲申政變이 失敗한 뒤 美國에 亡命하였던 開化思想家였다. 이들의 사상은 理論的이고 文化的이어서 처음에는 政府閣僚까지 이에 호응하였고 滿, 日, 露와 대결하는 美國勢力(西歐를 代表하는)과의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傳統社會의 民權의 意義가 賢君 아래에서 “恒産” “安集”하는 儒敎의 理念에 立脚한 것이라면 獨立協會의 民權의 概念은 西歐의 近代的인 民權思想과 同質의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近代的 意味에서의 民權의 一般의 概念은 國民의 權利, 國民의 身體와 財産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權利, 國民이 政治에 參與하는 權利 그리고 國民으로서의 人間의 權利를 말한다.

우리 社會에 最初로 登場한 近代的 性格을 띤 政治集團이 있다면 그것은 獨立協會이다. 우리 民族에게 自主獨立 思想과 自由民主主義 思想을 고취하기 위하여 民衆을 계몽해야 할 時代的 要求에 따라 創設된 것이다. 1896년에 歸國한 徐載弼은 그들의 첫번째 事業으로 新聞을 刊行하여 國文專用의 大衆을 위한 言論을 通해 自由獨立과 民權의 確立을 부르짖었다. 이어 獨立協會의 組織으로 民權運動을 展開시켜 民衆을 啓蒙시키는 한편, 萬民共同會나 廣民共同會등을 열어 政府에 대한 建議내지 抗爭을 하는 두 가지 形態의 運動을 폈다.

獨立新聞을 통하여 가장 먼저 提唱한 것은 新敎育 運動이요, 다음이 女權伸長이다. 敎育費의 增加, 技術敎育의 強調, 敎育方法의 刷新, 女性의 敎育등이 主要骨子인 獨立協會의 論調는 大衆의 呼應을 받았다. 한편 講演會와 公開討論會를 통하여 近代的 政治活動을 위한 準備期間 또는 訓練期間으로 삼았고 西洋의 「제퍼슨」, 「존 록크」, 「루소」, 「몽테스큐」의 思想을 소개하여 “百姓의 權利와 義務” “政府의 起源과 本質” 등을 의뤘다. 會議進行法과 集會의 節次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萬國議會 通用規則〉을 번역하여 一般에게 普及하기도 하였다. 衆議에 따라 決定한다는 것은 會員들에게 놀라운이며 同時에 喜悅이 아닐 수 없다. 討論題目도 “머리를 깎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같이 日常生活의 문제에서 素材를 골랐고 차차 政治意識으로 옮겨갔다.

“百姓은 모두 天賦의 權利를 가지고 있으며 그 權利는 不可讓의 權利라 하고, 國家의 進歩는 民權의 程度에 있다”고 역설한 獨立新聞은 다시 “愛國하는 길은 자기 직분에 充實하고, 나라의 政治와 法律에 順從하며 忠君愛國하는 것이 百姓의 道理”라고 하였으며, 民權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愛國하는 길은 자기 직분에 充實하고 나라의 政治와 法律에 順從하여 忠君

愛國하는 것이 百姓의 道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民權의 基本이 되는 人權의 保障, 自由權, 人權尊重에 대한 계몽에 옮기고, 급기야는 國富策, 民權의 行使, 非違官吏에 대한 규탄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특히 1896年 4月 14日 獨立新聞은 論說에서 政治學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였으며 外國처럼 우리 나라도 近代政治學을 배워 管理의 잘못을 百姓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한 選舉權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一連의 國民의 政治參與로서 일단 계몽단계는 끝나고 政府鬭爭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獨立協會의 「슬로건」은 忠君愛國과 利國傳民이다. 國民이 바라고 있는 것을 요약하여 1) 百姓의 生命, 財產 保護 2) 그 裁判을 받는 權利 3) 判決前에는 罪人으로 다스리지 말 것 4) 24時間 以內에 裁判할 것 5) 被捕者가 즉시 裁判을 請求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高官 彈劾運動, 內閣 彈劾運動, 萬民共同會 開催, 議會設置 運動들을 서둘렀다. 非政治團體로 출발한 獨立協會가 民權운동에 實効를 거두기 시작하자 徐載弼의 추방과 정부의 탄압으로 나왔다. 그후 다시 尹치호를 총추원의 부의장으로 임명하는 회유책을 쓰고 官民大會를 열어 다음 6개조항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다.

1. 外國人에 依附하지 않고 官民이 同心協力하여 軍制實權을 공공하게 할 것.
2. 鑛山·鐵道·煤岩·森林 및 借款·借兵 그리고 政府와 外國과의 사이의 條約에 관한 件은 各部大臣과 中樞院議長이 合同裁可한 것이 아니면 施行하지 못한다.
3. 財政은 度支部가 전적으로 관장하고 다른 官府와 個人會社는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결산은 國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4. 중대한 犯罪는 公開裁判에 부치되 自服후에야 施行할 수 있다.
5. 勅任官은 皇帝陛下가 政府에 諮問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任命 한다.
6. 제반 章程을 만들어서 實施한다.

이와 같은 建議는 獨立協會의 운동이 民權에 대한 啓蒙에서 부터 政府에 대한 近代化 促進의 役割까지도 담당하고 나섰으며 三權分立, 主權在民, 人權尊重, 言論集會의 自由, 教育 및 宗教活動 등多方面에 걸쳐 近代思想을 실천에 옮기려하였다. 皇國協會의 방해나 舊勢力의 반대로 成功하지는 못하였으나 民衆과 더불어 호응하려던 獨立協會의活躍은 19세기末로서는 매우 先進的이라고 할 것이다.

5. 抗日鬭爭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의 10年間은 겉으로 泰平하면서 속으로 苦痛을 받는 受難의 시초였다. 乙未事變에서 비롯한 日本의 노골적인 干涉과 만행부터 「러시아」와의 對戰에서 뜻하지 않은 勝利를 거두자(1905) 日本은 植地地化의 野望을 굳히고 나섰다. 1910年 國恥를 당할 때까지는 民族의 抗爭이나 3·1운동에 이르는 계속적인 투쟁은 韓民族이 오랜 時日을 두고 쌓아올린 民族感情의 擧族的 폭발이었다.

그 主動勢力을 크게 나누어보면 儒生을 中心으로한 儒生들, 東學을 信奉하는 敎徒, 近代意識에 싹튼 知識人, 基督教의 영향을 받은 靑年 그리고 오랜 傳統에서 民族을 意識한 大衆들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儒生들의 抗日鬪爭史를 보면 閔妃 弑害事件, 斷髮令 등의 事件이 일어났을 때마다 各地에서 義兵이 일어났고 乙巳條約 때에는 各處에서 헤아릴 수 없는 義兵이 출현하였다. 婦女子들도 돌을 나르며 어린이들은 음식을 날라 이를 탄압하는 倭兵을 각처에서 쳐부수니 「게릴라」戰과 같은 것이었다. 密使事件 후 7條約이 成立되어 合併에 一步 다가서고 軍隊가 解散되자, 다시 義兵이 일어나 交戰이 976回, 義兵 31,405名, 戰死者 3,908, 負傷 367로 우리側(大韓青年史)記錄에 있으나 日本側發表에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義兵의 戰死 17,779名, 負傷者 3,701名으로 더 많은 義兵과 良民이 학살되었던 것이다. 이 主動勢力의 主流은 儒生에서 東學으로 다시 近代 民族主義者 내지 國民大衆으로 波及되어 그 數가 增加한 것이다.

더구나 乙巳條約 이후에는 學生·商人·元老大臣·農民등이 參與하고 元老大臣의 殉國은 鄭蒙周의 殉死를 느끼게까지 한다. 崔益鉉은 儒學속의 民族主義를 行動으로 表示한 사람이다. 더우기 乙巳條約후 開化와 保守의 對立이 없이 王室에서 一般民衆에 이르기까지 이에 가담하니 文字 그대로 民族의 鬪爭史이다. 王室에서는 密使를 海牙에 보내고 儒生은 13道 代表가 모여 各國會館에 乙巳條約의 不當性을 지적한 公函을 보냈다. 都市의 青年들은 新教育을 받은者, 基督教에서 西歐教養을 지닌者들이 抗日運動의 새로운 方向을 잡고 1905년에 서울 新興寺에서 모인 聖學會, 간친會에는 200여 명이 加入하여 抗日鬪爭에 나섰다. 當時 美國의 태도는 韓國에 不利한 것이었으나 宣教師들 만은 抗日運動의 溫床이 된 教會를 보호 격려하여 주었다.

當時의 言論은 國民의 意思를 대변하여 주었고 皇城新聞에 실린 有名한 張志淵의 論說 “是日也放聲大哭”은 乙巳條約 직후에 全國民의 心情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參政大臣을 꾸짖고 檀箕以來 4千年의 國民精神이 하루 밤사이 사라졌음을 痛嘆하고 婦人層이나 酒店老嫗의 例를 들어 男性의 분기를 호소하였다. 帝國新聞, 大韓每日新報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條約反對輿論을 地方에 傳하여 抗日運動을 더욱 촉발시키고 閔泳煥·趙秉世의 自決소식은 더욱 國民感情을 격화시켜 路邊演說과 日軍警에의 投石으로 맞섰다.

抗日結社로서의 基督青年會, 憲政研究會, 自新會, 自強會, 開進教育會, 西友會등을 들 수 있고 個中에는 秘密決死隊도 있었다. 統監府 設置후 彈壓의 加重은 더욱 분개심을 일으켜 서울뿐 아니라 平壤은 聖經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행세를 못한다는 정도로 基督教化하고 民會, 自強會, 青年會, 西友會, 商業會議所는 基督教徒 中心의 抗日團體였다. 安昌浩의 日製商品 不買運動과 같이 抗日運動의 主體는 全國民이었고 各界 各層이 樣相을 달리한 抗爭을 벌이었으나 大體로 啓蒙, 上疏, 公函, 通文, 言論등의 消極의 方法과 義兵, 結社, 殉死, 義士들의 單獨鬪爭등의 積極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元老大臣, 儒生, 學生, 宗敎人, 言論人, 商人, 農民 모두가 近代的 民族主義 國家觀이 日帝侵略으로 一時에 表面化한 것이다.

韓末의 抗日鬪爭은 合併당한 후에 敎育에서의 民族意識 強化정책, 私立學校의 大量續出, 啓蒙事業, 宗教活動, 言論의 活動등으로 3·1운동으로 繼承된다. 3·1운동은 다시 光州學生운동과 같은 學生운동,

臨時政府와 같은 海外活動, 新幹會와 같은 學會 活動, 語學會 活動, 創氏 反對, 紳士參拜 反對, 獨立軍의 活動등으로 줄기차게 이어져간 것이다.

第 4 章 民族文化의 繼承

文化가 무엇이냐는 質問에 대하여서는 實로 多樣한 答辨을 하고 있다. 文化人類學의 發達은 文化의 概念을 人間의 生活 全體 卽, 經濟라는 下層부터 政治, 道德, 科學이라는 社會的 次元을 거쳐 精神的, 藝術的 次元에 까지 擴大시키고 있다.

따라서 民族文化란 무엇이냐는 問題는 간단히 定義를 내릴 수 없는 立場에 서게 된다. 或者는 民族이 가진 文化를 말하고 또 다른 이는 固有文化를 즐겨 찾으며 民族文化의 限界를 규정짓고 있다. 一般的으로 民族文化는 歷史를 거쳐오면서 蓄積되어 온 文化的 業績을 指稱한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 韓國文化라는 말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대체로 民族文化의 傳統하면 보수성과 결부되어 생각되어져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民族文化의 繼承이 잘 못하면 편협된 排他主義나 國粹主義로 흐르기 쉽고 또 復古主義나 過去指向的 人性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民族文化論이 言及되어왔던 것에 原因이 있다.

특히 傳統文化라고 하면 더 懷古의이고 낡은 印象을 풍긴다. 日帝의 敎育을 받았던 사람들은 韓國文化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여 民族에서 取해야 할 點을 認定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기가 傳統的 價値에 의하여 行動하고 있다는 것을 自覺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傳統은 우리가 意識하든 못하든 民族의 思考方式과 行動規範에 作用하고 있는 것이기에 傳統을 단순히 因習이나 風俗이라고 생각하는 誤解를 없애야 한다. 過去에서 부더 내려오는 文化現象이 後世에까지 계승되었으면 民族의 價値觀이 이를 容納한 것이므로 文化的 價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느모로 보아 後世의 批判을 거쳐 새 時代에 適應力을 가지고 創造내지 變革되어 받아들여진 것이다. 固定不變의 傳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後世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통에 文化的 價値가 없었던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 文化價値가 現在는 사라졌다 해도 그 當時에는 妥當性이 있었다고 認定하면서 考察하는 것도 客觀的인 態度임을 알아야겠다.

民族文化를 美化하려 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傳統에 대하여 無條件 否定하는 態度 역시 그렇다. 그러한 觀念으로서의 眞正한 創意性은 發揮될 수 없다. 民族文化의 傳統을 歷史속에서 즉 時間的 變化와 더불어 理解한다는 것은 現在와 未來를 方向짓는 데도 도움이 된다.

1. 固有文化論

어느 民族을 論하고 固有文化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東洋사람들의 民族感情과 符合되는 것이어서 西洋에서 보다는 자주 論議되는 것 같다. 「유럽」은 거의 한 文化圈에 속하고 血緣의으로 보아

도 雜婚이 심하여 몇 나라를 除外하고는 民族文化를 관심에 두지 않는듯 하다.

固有文化를 否定하는 사람의 理論도 比較的 分명한 점이 있다.

애초부터 있었던 文化를 固有文化라고 한다면 우리는 固有文化를 原始時代에 우리 先民들이 발견한 衣·食·住 生活文化의 風土의 樣式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당시의 衣·食·住 文化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固有文化는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②p. 161) 만일 原始時代에서 부터 오늘 날까지 不變한 文化를 固有文化라고 한다면 그러한 文化는 存在하지 않음은 勿論이다.

그러나 固有文化를 狹義의 民族文化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一般的으로 他民族에 없는 文化를 가지고 固有文化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反駁은 이렇하다.

祖上이 남겨 놓은 文化를 民族文化라고 규정할 수는 있어도 古代의 遺産 自體만을 가지고 民族文化라고 할 수는 없다. 한글, 金屬活字, 거북선과 같은 形態文化의 發明品이나 「잉카」帝國, 「이질트」 등의 遺跡을 볼때 신기로움이나 異國의 거리감을 느끼게하는 것이 民族文化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固有文化라는 것이 있다면 過去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 他民族에게는 있을 수 없는 文化 現象 또는 要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③p. 301)

한편 固有文化는 있을 수 있다는 論者들은 大部分 固有文化와 民族文化를 거의 同義語로 사용하고 있다. 가령 民族文化가 一般文化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固有文化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金屬活字, 거북선, 測雨器의 발명은 文化民族으로서의 氣概를 보여준 자랑거리이며 衣·食·住의 獨特性이나 古代의 歌舞를 즐기는 風習은 中國人들도 놀라던 것으로 民族生活의 풍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③p. 289)

文化의 獨自性을 인정한 李基白은 한글, 巫俗, 和臼, 花郎, 世俗五戒등도 佛敎나 儒敎의 영향이 아니고 韓國人 固有의 文化도 있을 수 있음을 示唆하였으며 또 만일 民族文化가 普遍的인 아니고 보다 民族特有的인 것이어야 한다면 普遍的인 原始文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後代에서 더 찾도록 해야 할 것이며 普遍的인 것을 特殊하게 만든 要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自明한 論理的 歸結이라고 하였다.

民族의 固有文化를 否定하는 사람은 他民族에 없는 新形態만을 가지고 固有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肯定하는 立場은 民族마다 環境과 歷史가 다르므로 特有的 文化性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要는 固有文化, 民族文化, 韓國文化의 概念을 어떻게 定義짓느냐에 따라 다르다. 文化를 知識이나 藝術등의 特殊分野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狹義의 文化에서 人間性 一般의 表現이며 자극에 대한 人間의 生活反應이라고 까지 넓은 뜻으로 본다면 否定論者와 肯定論者를 굳이 對立시킬 必要는 없을 것 같다. 李箕永은 “우리民族의 文化的 創造의 노력이 佛敎를 알고난 後부터 더욱 활발해 졌고 또 그러한 努力의 깊이가 가장 현저하게 아로새겨진 것이 佛敎的 眞理의 實踐과 理解의 過程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否定하려 한다면 그것은 歷史的 眞實에 대한 誇張치한 欺瞞이 된다. 韓國의 佛敎는 民族文化의 傳統을 形成해 오는 過程에 深奧하게 到達된 世界性과 더불어 風土性을 들어나게

했다”(④p. 114)고 말함으로써 文化에 一般性和 特殊性이 兩立된다는 論調를 펴면서 佛敎가 韓國 固有의 宗教는 아니지만 韓國 佛敎에는 民族文化의 固有性을 간직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

民族文化의 個性을 認定하려는 생각은 종래 國粹主義者들이 民族의 優越性和 비슷하게 固有文化論을 내세웠던 것과는 性質이 다르다. 民族文化라는 것은 言語, 慣習, 制度가 文化의 共同體로서 長期間 傳承되어 오는 사이에 外來文化의 受容, 同化도 있었고 試行錯誤도 거듭하면서 自然的 環境의 影響을 받아 이에 應戰하는 사이에 共通된 生活感情이 생겨나서 民族의 體臭를 풍기게 된 것을 일컬음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固有性을 固有文化라고 指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文化란 흔히 現在를 가르치는 뜻으로 사용되며 民族文化의 現在性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이를 究明할 必要가 있을 때 韓國文化라는 어휘가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民族文化와 韓國文化는 거의 混用하는 경우가 많다.

要컨대 民族文化는 形象化된 것만을 論할 수 없고 創造精神 그 自體도 포함되는 것이며, 民族文化의 主體性은 單一한 것이 아니라 多樣的한 것이어서 그것은 結合된 單一概念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民族文化는 歷史性위에서 그 發展過程을 機能的으로 把握해야 할 것이다.

2. 韓國文化의 特性

民族文化의 育成은 民族을 意識하는데 必要한 情緒的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중요시 된다. 따라서 民族文化의 이해없이는 바른 國家觀이 나올 수 없다. 또한 民族文化의 育成은 곧 韓國의 未來와 直結되어 있다는데 더 큰 意義가 있다. 19세기 후반의 外來文物의 輸入은 傳統的 價値觀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兩大陣營으로 分裂되었으며 이 分裂은 國運을 기울게 하는 原因의 하나가 되었다. 또한 解放後 無批判의 新思潮의 多量吸收로 인하여 國民性에 二重的인 性格이 주어졌다. 自由도 享有하는 것이 아니면서 입으로만 부르짖는 體質化되지 못한 民主主義속에서 살게되었고 物質文明이 發達도 안되면서 黃金萬能으로 흐르는 등의 不條理가 나타난 것은 價値觀의 混雜에서 온 것이 分明하다. 傳統的인 價値觀과 새 文化와의 統合은 이와 같이 創造의 前提가 되는 것이기에 舊韓末의 對立이나 解放後의 無條件 吸收의 두 가지가 모두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舊韓末에는 佛敎가 韓國의 價値의 全體가 아닌에도 不拘하고 儒生들이 守舊派를 대표했고 獨立黨은 日本에 主로 依存한 것이 잘못이었다. 뒤에 固有性을 지닌 東學이 나왔고 美國의 影響이 강한 기독교, 獨立協會등이 나타나서 不過 半世紀 동안에 西洋이 300年 동안 겪은 歷史를 一時에 經驗해야 했던 苦役을 치루었다. 解放後에는 美國 一邊倒의 文化導入으로 政治, 經濟는 勿論 思想, 宗教, 敎育, 學問의 方法 심지어 映畫의 輸入까지도 美國一色으로 韓國은 또 한번 陣痛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럽」과 新大陸은 같은 時期에 民權意識을 土藪로한 政治理論을 세우고 「유럽」은 자기의 傳統과 調和시켜 나갔지만 新大陸에서는 封建의 秩序의 破壞를 必要로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民主體制로 들어가면서 聯邦制, 共和制, 直接選舉, 地方自治등 비교적 創意性있게 民主政治의 實驗室 구실을 할 수 있었다. 近來에 와서 美國文化는 서서히 「유럽」으로 逆流해 들어가고 있음에 바

주어 韓國은 너무나도 빠른 移植過程이었음은 反省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基本的인 誤謬를 지적한다면 36年 間의 짧지 않은 日本統治로 말미암아 日帝時 日本統治와 敎育의 영향을 받았다는 事實이다. 그 영향은 첫째로, 民族文化의 傳承이 中斷되었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日本의 民族文化에 대한 惡宣傳이 奏効하였다는 점이다. 現在 壯年層 知識人이나 그 후의 敎育을 받은 青年層은 아직도 民族文化에 대한 認識이 薄弱하다. 近來 韓國學의 必要를 高唱하였으나 統合的 接近을 시도하는 學者는 많지 않다. 여러 사람들이 日帝時의 文化를 民族文化의 傳統으로 誤認하는 事例가 있는가 하면 前近代의이고 버려야 할 短點은 李朝時代의 遺風이라고 생각하는 따위는 이러한 部類에 屬한다.

不幸히도 여기서 民族文化의 特殊性이나 韓國文化의 性格을 또박 또박 指摘할 수는 없다. 그러나 韓國文化가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原始文化에서 출발하여 다듬어져 내려오는 사이에 나타난 文化的 要素를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韓國文化는 單一民族에 의하여 오래 이끌려 왔기 때문에 비교적 共通된 心理가 作用하고 있어 文化上의 큰 差를 일으키지 않았다. 더구나 外國의 長期支配가 外國과 같이 여러번 反復되었다면 韓國文化의 形像은 오늘과 같은 것이 아닐 것이다.

둘째로, 韓民族은 外來文化를 土着化시키는데 탁월한 力量을 보여 주었다. 새로운 文化가 들어와서 在來文化를 배척하는 경우에도 融和(佛敎導入의 경우)가 아니면 漸進的 姿勢(儒學導入의 경우)를 취하였다. 天主敎의 경우는 政治 外交關係의 희생이 되었으나 改新敎는 비교적 順調로웠던 것을 기억한다.

셋째로, 韓國文化는 農業的 性格이 多分히 오래 持續되었다. 經濟는 勿論 政治意識이나 文化의 發達에도 自然的이고 牧歌的이며 樂天的 氣風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商業資本이 나타나고 19세기 物質文明이 밀려와도 韓民族의 心理에는 田園的인 것이 支配하였다는 뜻이다.

넷째로, 韓國文化는 大衆과 呼吸하는 性向을 띠우고 있다. 文化의 主體가 貴族에만 限定되기 쉬운 中世에 있어서 宗敎, 藝術, 禮法(倫理思想) 등이 大衆과 遊離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特性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韓國文化는 直接的인 人間關係 즉 家庭倫理를 기초로 하여 國家意識으로 擴大되었다. 新羅의 骨品, 高麗의 門閥, 李朝의 家譜등은 古來로 家庭倫理의 擴大로 國家나 民族의 諸事象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는, 韓國文化는 精神史에서 宗敎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巫俗信仰(仙敎), 佛敎, 儒敎, 天道敎, 「그리스도」敎등이 時代를 支配하는 것 같으면서 韓國文化를 育成하는데 思想的 支柱가 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諸特性에 一般性을 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의 民族性이 어떻든가의 論爭보다는 文化의 特性을 찾는 것이 韓國의 傳統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까닭에 이러한

諸要素를 羅列해 보았다.

3. 各時代의 文化相

民族文化의 路程은 긴 것이다. 三國以來 우리들에게 남겨준 文化的 遺産에 담겨져 있는 民族의 文化的 創造力은 여러 면에서 獨自性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各時代를 거쳐 오늘 날에 이른 過程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三國 時代

紀元 1世紀부터 7世紀 前半까지를 三國時代로 보면, 이 시대에 이미 民族文化가 싹이 트고 있었다. 民族意識은 아직 形成되지 않아 三國이 서로 다른 國家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文化面에서 共通된 點이 있었고 民族文化, 單一文化로 昇華시킬 준비를 서두르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三國의 文化的 共通性은 佛敎와 漢字의 導入, 國史의 編纂, 歌舞의 發達, 祖上崇拜의 風習 등에서 具體적으로 나타난다.

高句麗, 百濟, 新羅의 順으로 佛敎가 받아들여졌고, 이 順序는 三國이 古代 國家의 組織을 가다듬었던 勢力構築의 順序와 같다는 점에서 佛敎의 導入이 國內思想의 統一에 貢獻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倫理思想은 古代國家가 血緣社會의 崩壞라는 위태로운 상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精神의 食糧이었다. 新羅의 後進性 脫皮가 佛敎와 在來思想과의 調和에서 이루어진 花郎道의 確立으로 可能하였음은 좋은 例이다.

漢字의 使用은 意思疏通 手段으로서의 表記方法의 채택이고 文字는 共同體 成員間의 同意를 求하는 主要한 媒介體이다. 文學이 發達하여 百姓에게 思想注入이 可能하여지므로 王權의 強化를 促進시키고 國史의 編纂은 國家意識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三國이 경쟁적으로 國史編纂에 착수하였음은 王權과 國家의 威信을 과시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三國이 같은 時期에 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事實이 비슷한 風土와 傳統위에서 佛敎를 導入함으로써 이루어 놓은 새 國家意識에서 나온 것이다. 佛敎와 더불어 儒學이 들어왔으나 佛敎보다도 抵抗없이 傳統과 融合되어 들어갔다. 특히 高句麗는 일찍 佛敎와 더불어 儒學을 받아들여 忠·孝·信이 國民에게 권장되었고 이것을 傳統的인 思想과 잘 調和시켰다.

祖上崇拜가 原始時代부터 내려오는 風習中에서 으뜸가는 것의 하나였으며 三國의 墳墓形式이나 葬儀節次는 儒敎의 影響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傳統的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厚葬의 風習은 우리에게 地下博物館을 남겨 주었으며 李朝에 繼承되어 禮學과 結合한 傳統的 價値였다. 三國의 藝術은 主로 佛敎關係와 石造美術을 남겨 주었다. 壁畫나 出土品에서 나온 遺物에서는 三國의 生活風習이 너무나도 恰似함을 보여준다. 狩獵, 詩歌, 歌舞를 즐겼다 함은 이미 原始社會에서 비롯하였다 함이 外國史書에도 나와 있을 정도이다.

한편 三國의 文化에도 特徵을 各己 具有하고 있었다. 高句麗의 古墳은 崇嚴한 美를 가지면서 堅固性, 勇躍性, 潔白性을 表現하고 있으나, 百濟의 塔은 優美한 牧樣이 卓越하여 雄大한 構造와 華麗

한 彩色으로 貴族의 奢侈文化를 지녔으며, 新羅의 美術은 曲線美라고 할만치 彫刻에 뛰어난 등 서로 다른 特性을 나타내었다.

2) 統一新羅 時代

統一新羅 300餘年은 民族文化를 하나로 集大成한 時期이다. 佛敎가 三國에 共通된 宗敎인 까닭에 民族을 融合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護國思想이 佛敎에 나타난 것은 民族統一에 앞장서려는 意圖에서라고 본다. 高僧은 中國, 印度에까지 遍歷하였으며 國內에서도 義湘이나 元曉등이 새로운 宗派를 開創하였다. 이미 佛敎는 外來 宗敎가 아니고 新羅化되고 民族과 同居하는 宗敎였다.

統一新羅는 三國 文化의 特長을 받아 들여 百濟의 優雅한 맛과 高句麗의 雄大 장엄한 風을 吸收하고 新羅의 섬세하고도 정교한 手法을 살려 釋迦塔과 多寶塔의 兩立性을 이루어 놓았다. 佛國寺의 雄大함과 石窟庵의 藝術性 등은 三國文化를 結合한 위에 세워진 圓熟美라 할 것이다.

이 속에서도 新羅人의 獨創性은 조금도 鈍化되지 않았다. 石塔이나 石彫刻에서도 木彫美를 방불케 하는 우수한 技術은 他 民族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石窟庵의 建造와 彫刻은 멀리 「유렵」, 印度, 唐의 影響을 받은 것이면서도 唐佛이 가지지 못하는 精神的인 美(新倫)가 깃들고 있다. 그 속에는 無影塔의 傳說에 비치는 것과 같은 精誠과 努力이 숨어 있다. 鄉歌나 吏讀文 또는 가야금, 거문고의 發明이라는 創造力도 간과할 수 없는 文化的 力量이다. 이것은 한글創製, <春香傳>, 測雨器, 거북신을 날게한 原動力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高麗 時代

11세기에서 14세기에 이르는 400年間 高麗는 民族統一의 基盤을 공고히 하려고 前半期를 政治 經濟의 基盤을 세우는데 消費했다. 田柴科, 科擧制度, 敎育制度, 外交政策등 貴族政治 體制를 確立시켰고 佛敎를 基底로 하고 儒學을 敎育內容으로 하는 官學, 私學을 發達시켰다.

高麗時代의 民族文化는 高麗磁器, 大藏經, 金屬活字로 表現되고 있다. 燃燈, 八關會는 이미 新羅 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으로 古來의 信仰에 外來 宗敎가 加味되어 儀式化된 것이며 高麗시대에는 그 經濟的 부담이 國家財政을 위태롭게 할 정도였다. 高麗磁器는 宋磁의 影響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全然 다른 것이다. 翡色을 내는 色彩는 그 類例가 없고 그 形態도 瓶, 壺, 盞, 주전자, 접시, 硯滴, 水盆, 筆筒, 香爐, 茶罐, 花瓶, 花盆등 各종의 것이며 그 무늬도 菊花, 蓮實, 蓮花, 松梅, 竹筒, 차피, 앵무, 원앙, 鳳凰, 토끼, 원숭이, 거북이, 龍, 獅子, 물고기등 여러가지 動植物을 본따 만든 것이다.

특히 象嵌法을 雲鶴, 蒲柳, 水禽, 牡丹, 菊花, 松, 梅, 瓢, 포도, 蓮花, 唐草, 寶相花등의 文格이 있다. 靑磁는 實用品이기 보다 奢侈品이었다. 그러므로 건강한 美라기 보다는 섬세하고 연약한 美였다. 貴族들의 無와 靜寂에 대한 동경이 잠겨어 있고 現實의 世界를 넘어 精神的 世界를 그리워하는 哀愁가 깃들여 있으나 한편 韓國民族의 대표적 情緒인 “구수한 멋”이 있음은 民族文化로 내세울 만한 世界的 文化財이다.

後期에 일어난 說話文學은 神話, 傳說, 逸話, 詩話등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李仁老, 李奎報, 李齊

賢등이 유명하다. 그들 중 李奎報는 〈東明王篇〉이란 長篇 叙事詩를 지은 목적을 “天下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본래 聖人의 都임을 알게 하려고 할 따름이니라”고 宣稱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가 蒙古와는 比較도 안되는 오랜 歷史와 전통을 지닌 文化民族임을 자랑한 것이다.

〈三國史記〉, 〈三國遺事〉, 〈帝王韻記〉와 같은 歷史叙述과 長歌라는 民衆文學이 鄉歌의 後身으로 民族과 더불어 成長한 업적이다.

金屬活字가 西洋보다 빨랐다는 것은 印刷가 發達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秘書省, 修書院등의 도서관, 藏書閣을 구비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土活字, 아교活字, 陶器活字에 鈔銅活字로 發展시켜 組版印刷까지 이끌어 가서 李朝時代의 活字印刷를 활발하게 만든 기초가 고려에 있었다.

4) 朝鮮 時代

新羅, 高麗의 傳統文化위에 民族文化를 確立시킨 朝鮮時代에는 政治理念의 定立과 制度의 整備, 言語文字의 民族化, 科學文明의 發足, 法典의 集大成, 實用的 學問의 提唱등이 나타났다.

初期에 儒敎를 政治理念으로 받아들인 것은 佛敎로서 統治手段으로 삼기에는 不足함을 感知했고 德治主義를 내세우는 反面에 그들 새 勢力이 政治的 地位를 確立하기 위해서였다. 儒學의 影響은 議政府 六曹과 司憲府, 弘文館, 司諫院등의 言論 文筆機關 및 承政院 義禁府등의 集權의인 王權을 강화시켰다. 李朝初期의 文化가 다분히 士大夫 中心의 兩班文化였고 政治的 安定을 위한 文化였음은 고려初期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制度의 整備를 佛敎思想을 基幹으로 古代를 繼承할 貴族政治 體制로 이끈데 比하여 朝鮮은 儒敎理念밑에 官僚政治 體制로 바꾸어 科擧制의 強化, 開國功臣의 排除로 貴族政治 體制의 再現 防止, 私兵의 혁파 등으로 兵權을 集中시켰다. 太宗은 歷史를 政治의 표본으로 삼아 〈太祖實錄〉부터 편찬을 서둘러 그 외에 〈國朝實鑑〉, 〈高麗史〉, 〈高節史節要〉, 〈東國通鑑〉을 편찬한다. 〈八道地理志〉와 〈東國輿地勝覽〉은 政治에 必要的인 자료를 얻기 위함이고 歷史는 政治의 교과서 구실을 하였다. 〈治平要覽〉, 〈國朝五禮儀〉, 〈三綱行實〉은 政治, 儀式, 倫理의 規範을 정하여 民族文化의 첫 出發로서 政治的 安定에 힘쓰는 方法이 高麗보다 매우 進步된 형태로 나타났다.

유명한 世宗朝에 이르면 政治的, 制度的 生活規範의인 設定이 土臺가 잡히고 2次的으로 民族文化의 創造로 들어간다. 이미 政治文化도 前時代에 比하여 進步하였음을 考察하였으나 文字와 科學은 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1446년의 한글 頒布는 執權 半世紀만에 政局을 安定시킨 다음 國民의 敎化가 必要함을 느낀 탓이다.

兩班貴族들의 學問獨占慾을 거슬렀으므로 이를 배격하는 사태도 일어났으나 한글은 民族史에 영 원히 남을 業績이고 世宗은 많은 서적을 國文으로 번역 發刊하여 民族文化 向上에 貢獻하였다.

科學과 技術에 있어서도 世宗의 業績은 偉大하다. 〈農事直說〉, 〈四時纂要〉는 농업기술 書籍으로 傑作이 있고 曆學, 測雨器 發明 그 밖의 天文器械의 제작 보급은 하나의 科學에 끄치지 않고 國家 經濟에 큰 보탬을 주는 實用的인 것이다. 또한 醫學은 科學發達의 하나이며, 鑄字의 普及은 印刷術

을 더욱 普及시켰고 國學에 이르기까지 民族文化는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李朝初期는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民族文化의 成熟期로서 中期 이후의 文化發達에 기틀이 되었다. 그 代表的인 것의 하나인 李朝의 靑華白磁를 例로 들어 본다. 白磁는 고려의 靑磁에 比하여 器形도 자유롭고 종류도 다양하다. 表面의 紋彩는 하나의 文人畫를 보는듯 자못 詩趣가 있다. (④p. 222) 또한 소박하고 순수하여 韓國의 自然에 살고 있는 陶工들이 가진 潛在的 才分이 뜻하지 않은 調和의 美를 만들어 낸 것이다. 靑磁가 貴族의이고, 靜的이며, 來世의인데 比하여 白磁는 大衆의이며, 動的이고, 實用的이고, 現實的이라는데 特色이 있다.

이와 같은 獨特性은 文學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詩調에 나타난 自然의 동경과 生活感情의 表現手法이나 庶民文學에 나타난 풍부한 素材, 그리고 <松江歌辭>에 보이는 44調의 散文形式이 그것이며 <春香傳>에까지 影響을 주어 大衆化되었다. 다시 後期에 이르러 燕岩의 文學에서 強烈한 傳統의 反抗과 創造를 느낀다. <兩班傳>, <許生傳>, <虎叱>에서 그는 새 時代를 豫知하고 傳統文化를 取捨選擇하는데 과감하였다. 儒學者인 동시에 文學者이며 또 思想家였던 그가 李朝를 새 時代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은 經濟科學의 立場에서의 丁若鏞과 雙璧을 이루는 것으로 「보카치오」와 「루소」에 대비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美術에 있어서는 後期에 이르러 民族의 覺醒이 일어났다. 從來의 山水畫나 花鳥畫에 反旗를 들고 <발가는 농부>, <술과는 女人>, <씨름꾼> 등 現實生活을 題材로한 風俗圖를 대담하게 그린 檀園과 憲園은 書畫의 模倣主義에서 벗어나서 民族의 描寫로 옮겨갔다. 朝鮮이 朱子學을 위시하여 中國의 影響을 받아오는데 대한 경각심을 울려주고 民族藝術을 回復하면서 다시 固有의 業을 찾아보겠다는 創意性이 역력하다.

4) 民族文化의 創造

民族文化는 단순히 傳統文化로 지켜온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不斷한 創造過程에 의하여 成立되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民族文化가 無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傳統과 外來文化의 刺戟 및 統合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高麗磁器의 翡色은 蒙古의 침략앞에 당황하던 高麗 貴族이 精神的 安定을 희구하는 念願이 깃드려 있으면서 新羅 土器와 彫刻의 傳統을 이어 받았기 때문이요, 거북선은 倭敵격퇴의 信念에다 世宗 以來의 技術發達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칫하면 韓國文化의 淵源은 中國에서 찾으려던 생각을 가졌었으나 韓國의 自然과 傳統에서 울어나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民族文化란 바로 創造精神을 바탕으로 한 努力의 結晶인 뿐이다.

文化發展의 速度를 人爲的으로 조절하고 취사선택하는 것은 民族文化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外來文化 受容의 態度와 韓國의 傳統의 價値觀이 무엇인가를 認識하는데 달려있다.

第 5 章 外來文化의 受容

固有文化와 民族文化는 文化의 主體가 같은 民族이므로 同義語로 사용할 수 있다는 說을 받아들

인다면 民族文化와 外來文化가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밝힐 段階에 온 것 같다.

古來로 韓國의 歷史는 中國大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佛敎, 儒敎가 모두 中國에서 들어왔다. 政治體制나 經濟體制가 中國史와 비슷한 經路를 거쳐왔다고 하여 在來學者 특히 日本의 御用學者들은 韓國文化의 震源地를 中國에서 찾으려는 習性에 젖어 있었다. 中國文化도 우리測에서 보면 外來文化이지만 그것이 漢族의 固有文化가 아닌 것도 많다. 中國과 같은 複合의인 種族은 民族觀念을 構成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角度에서 극복해야 할 歷史的 試練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單一民族은 中國文化를 무조건 섭취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優位性이 인정되는 文化에 대해서만 開放的이었다. 거기에는 漢族의 滿洲族이나 凶奴族에 대한 경계심과 같은 것은 없었다. 文化의 傳播은 征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接觸에 의한 變化過程을 낳게 하는 것이 政治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자칫하면 文化에서 外面으로 나타난 顯在的 文化만을 취급하고 그것을 物的 證據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밑에 감추어 젖거나 가려진채 나타나지 않는 潛在的 文化(overt culture)에 대하여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外來文化와의 접촉은 民族의 社會心理나 價値觀에 의한 선택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傳統과의 相關關係의 解明없이 一方으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外來文化라고 規定해 버리는 것은 合理的이 아니다. 外國文化 중에서 들어왔다가도 배척받은 것이나, 쉽게 받아들여진 것에는 큰 差異가 있다. 衣·食·住와 같은 日常生活의 樣式은 民族이 지닌 強力한 傳統의 하나이다. 外來文化의 우월성을 인정한다고 生活樣式이 쉽게 받아들여져서 文化變容을 일으키기는 어려운가 하면 男性의 服裝과 같이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들여지는 外來文化의 영향도 있다.

外來文化와 民族文化와의 力學關係는 끌고 이 끌리는 索引力과 그 외에도 相補的인 作用을 하면서 선택적인 過程을 거쳐 統合하여 들어간다. 近代 以前의 文化중에 貴族에게 獨占되었다고 하여 民族文化임을 否定하려는 것은 偏見이다. 中世紀에 階級社會가 아니었던 곳은 別로 없다. 古代的인 것의 오랜 持續으로 未開族이라 불리우고 近代化가 늦어지면 封建社會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歷史를 進化論의 立場에서만 내다보던 19세기 思想의 遺風이다. 各 民族은 그 나름대로의 主體的인 文化의 創造과정을 거쳐왔다. 그것은 自體內에서의 發展과 外來文化의 吸收 同化可能한 것과의 融合을 통하여 不斷한 改造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1. 文化變容 理論

文化란 社會成員에 의하여 學習되고 分化되고 다시 다음 世代로 轉換되는 生活樣式이며 그 안에는 技術, 經濟, 社會組織, 政治, 宗教, 言語등을 포함한다. 文化의 變化는 內部的이나 外部的 要因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內部的 要因은 社會 또는 民族內部에서 일어나는 發明과 發見, 技術의 變化, 人口의 增減등이 있고 外部的 要因에 의한 變化에는 文化要素의 傳播나 異文化와의 接觸에서 일어나고 있다.

文化變容(acculturation)이란 文化의 變化나 어떤 다른 개념과도 다르고 단지 두개의 문화가 접촉할 때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쪽의 文化의 體系에 變化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外部的 要因으로서의 文化理論에는 傳播論이 있다. 모든 文化는 未開族에 있어서도 不斷히 變化하는 狀態에 있으며 새로운 文化的의 添加는 發明 또는 傳播에 의하여 일어난다. 傳播에 있어서는 受容者側의 文化的의 態度가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萬若 모든 人間集團이 他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노력으로 發展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 進歩의 속도도 느리고, 어떤 社會도 오늘날 舊石器時代를 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라고 한 「린튼」(Linton)의 말은 人類文化的의 發展에 있어서 傳播가 얼마나 중요한 役割을 하여 왔는가를 강조한 것이다.

文化傳播는 새로운 文化要素를 그 社會에 紹介하여 주면 그 社會가 受容시키고 그 受容된 文化要素가 既存文化속에 統合되는 과정을 밟는다. 따라서 文化傳播는 起源地點에 近接한 社會나 民族에 의하여 受容되고 自然環境이나 既存文化的의 樣相에 따라 서로 다른 速度로 不規則的으로 傳播한다. 새 文化要素가 他域에 들어가면 그 要素에 變化가 일어나서 다른 方向의 發展이 일어난다. 「위슬라」(Wisler)는 “이러한 文化的의 分布는 同一의 形態, 即 同心圓的이고 그 配列은 어디서나 그 文化要素를 보다 單純한 形態쪽이 더 넓은 分布를 가지고, 보다 高度의 特殊化한 形態가 가장 적은 分布範圍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文化人類) 「크로바」(Craeber)는 대개의 경우 傳播된 文化財는 여러가지 要素를 包含시키고 있어 文獻과 記事가 없어도 傳播되었음을 안다. 그러나 때로는 큰 複合體내지 體系의 斷片만이 傳播하는 경우도 있다. 即 體系全體로서 受容된 것이 아니라 그 斷片만이 受容되어 現在의 體系속에 吸收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對의 경우도 있다. 即 全體의 型이나 體系는 傳播하는데 별로 抵抗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體系의 具體的 內容의 傳播에는 困難點이 따른다는 경우이다. 그때 複合體 내지 體系의 理念은 받아들이지만 그 內容은 受容者側에서 스스로 發展시키는 경우를 刺戟傳播(Stimulus Diffusion)라고 한다.

이 理論으로 미루어 보면 中國文化的의 韓國傳播는 刺戟傳播의 性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生産手段이나 歷史的 進展이 비슷한 韓·中 兩國사이에서 文化體系는 抵抗을 받지 않아도 順調롭게 傳播되지만 內容의 發展은 韓國이 主體的으로 이루어 나간 例가 政治制度, 科擧制度, 中央集權 體制, 佛敎, 儒敎등에 걸쳐 여실히 보인다. 邊太燮은 高麗의 官制를 論하면서 “唐制가 宋制의 影響을 받아 그 外形을 받아 두었으나 그 운영은 全體 獨自的인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은 바로 刺戟傳播를 말하는 것이다. 反對로 日本이 三國以來 韓國文化나 中國文化를 받아들인 것은 斷片的인 것이 많았다. 漢文, 佛敎의 宗派등 複合體나 體系보다는 具體的 內容을 그대로 受容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傳播理論을 誤解하여 韓國文化的의 起源을 모두 中國에서 찾으려는 誤解가 생긴다.

새 文化要素와 舊 文化가 接觸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文化的의 變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受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受容의 條件에 따라 決定된다. 적어도 要求(motive)와 文化的의 適合性이 없으면 體系이건 部分이건 受容되지 않는다. 受容된 文化要素나 文化型이 文化體系에 統合되면 既存要素가 가지고 있던 意味나 機能이 受容된다. 모든 文化 要素나 文化型은 그것이 屬해 있는 文化體系속에 特定한 意味와 機能을 가지고 다른 文化 諸要素와 關連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統合過程에서 다른 文化體系속에 吸引되기 위하여 새 意味와 機能을 가져야 한다. 「루에부로」 「인디안」의

假面舞가 豊作, 降雨의 祈願의 意味와 機能에서 「나바호 인디언」에 受容된 뒤 治療의 儀禮로 변하고 다시 「아파치 인디언」에서 少女 成年式 舞蹈으로 變容한 例와 같다. 佛敎는 四性의 平等을 論하였으나 韓國에 와서 身分別로 더 強化 시켰으며, 朱子學은 忠孝의 一致를 부르짖는 尊皇攘夷思想에서 李朝의 形而上學 一邊倒와 禮學으로 變容한 것도 그것을 설명하여 준다.

이와 같이 새 文化要素가 統合되어 종래의 文化體系에 變容이 생겨나면 지금까지의 文化體系가 解體(disintegration)되기 시작한다. 解體는 急激한 경우와 완만한 경우가 있으나 언젠가든 解體現象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다. 萬一 文化變容이 武力이나 強制性을 띠우면 激化된 解體가 일어난다. 金屬文化의 輸入으로 部族國家 成立이 촉진되고 血緣共同體가 崩壞되는 것은 완만한 例이고 日本 勢力에 의한 近代化의 促進등은 激化된 解體過程으로 볼 것이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創造過程이다. 電氣가 들어와서 촛불이 사라지고 自動車가 생겨 人力車가 자취를 감추었으나 촛불이나 人力車에 이어왔던 文化要素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남는다. 가정안에는 고무신이 남아있고, 양복점 주인도 실낱에는 韓服을 입는다. 이 창조과정은 再體制化(reorganization) 또는 再解釋(reinterpret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受容된 要素에 傳統的 文化의 意味가 주어져서 傳統的 要素나 類型에 變化를 일으킨다. 佛敎가 巫俗과 統合된 것은 「멕시코」의 土俗神과 「카톨릭」이 融合된 것과 같은 現象이다. 이 創造過程은 文化變容이 단순한 模倣이 아니고 選擇的 過程이며 過去(傳統)에 의한 統制를 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러한 文化變容이 順調롭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民族에 따라 더 感受性이 빠른 部分이 있고 拒否하는 要素가 있다. 이것을 “文化的 焦點”이라고 부르는 바 미국의 經濟, 인도의 哲學, 古代 「로오마」의 政治組織, 濠洲 原住民의 社會組織등 그 社會에 共通된 中心的 同心體이다. 이러한 文化的 焦點은 民族에 따라 또는 時代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文化變容의 逆機能이라고 할 만한 反動現象도 일어난다. 異質文化의 受容이 하나의 壓力이 되어 既存 文化體系에 不均衡을 가져올 때 이 不均衡을 回復시키려는 動作이 일어난다. 文化 解體過程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復元力은 더 강해진다. 萬一 지나치면 復元力은 잃고 既存文化는 崩壞되어 버리고 反對로 解體가 너무 적거나 復元力이 약하면 反動現象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反動現象을 土着運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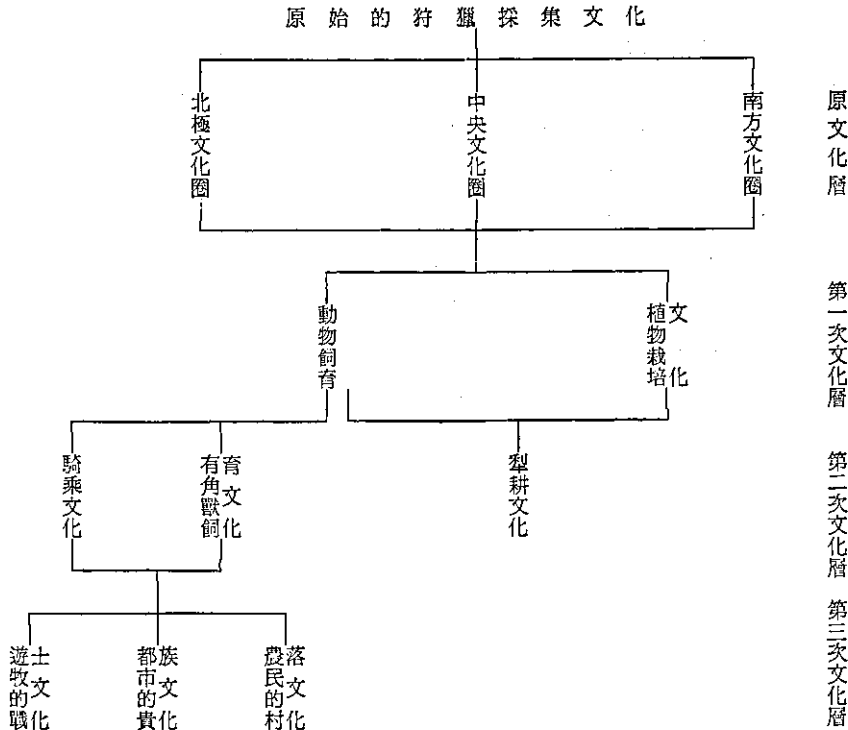
土着運動이란 文化變容이 적당한 程度의 解體로 再調整 과정에 일어나는 不均衡에서 생긴 欲求不滿이나 긴장을 既存 體制로 回復시키려는 力動的 作用이다. 西洋文物의 導入에 대한 東學의 興起, 日本의 陽曆過歲 強要의 餘波로서의 陰曆過歲의 存續, 美國式 民主主義에 대한 批判, 物質文明의 急速한 發展에 대한 人間回復의 부르짖음 등은 社會나 民族의 歷史가 새로운 文化現象이나 體系에서 받는 緊張과 不均衡에서 復元力을 作用시킨 例다. 그러므로 그 양상은 保守的 경향을 띠우고 나타난다.

2. 文化受容의 經路

以上과 같이 간단한 文化受容이 理論적 背景에서 보면 外來文化와 傳統文化의 語源的 說明이 아

니다. 文化現象 自體 안에서 民族文化의 歷史性을 糾明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의 進化論者들은 文學의 發達에서 그림文字→象形文字→「알파벨」의 諸段階를 假想했다. 그러나 현재의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림文字에서 직접 「알파벨」으로 直行하였다는 것은 未開, 野蠻에서 文化에의 履行過程 만을 歷史속에서 보아오던 進化論者들의 失策이다. 「모르간」(morgan)과 같이 單系的 進化를 내세운 사람도 있으나 「타이라」(Tyler)는 多系的 樣相을 강조하여 文化가 어느 民族에나 同一한 段階를 밟는 것이 아님을 말했다. 勿論 그들이 文化發展의 法則性을 찾으려는데 貢獻한 것이기는 하지만 普遍的인 一般化가 쉽게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趙芝薰은 “韓國文化는 「시베리아」文化에서 요람기를 보내고 漢文化圈에서 배우고 인도 文化圈에서 成熟한 셈이 된다고 하였다(②pp. 32—33). 文化圈이라함은 民族들의 文化를 區分하는 分類法으로서 여러가지 方法이 있다. 그러나 대개가 一方의이어서 그 基準을 잡기가 어렵다. 文化圈의 歷史家 「슈미트」 「P. W. Schmidt」의 文化圈說과 世界史의 概要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歷史와 文化圈의 關係는 一般化시키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產業形態나 宗教, 婚姻 等の 社會的 習俗이 서로 文化變容을 일으켜가면서 次元을 높여가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異說이 없는 것 같다. 앞의 「슈미트」의 圖說에 따르면 韓民族이 간단히 「시베리아」文化圈에 屬하였다든가 漢文化圈에 屬하였다는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文化圈이라는 것이 強力한 文化의 影響이라든가 文化의 震源地를 周邊民族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傳播論的 解釋으로 一貫한다면 文化의 解釋은 그릇된 方向으로 갈 위험

성이 없지 않다. 文化에는 普遍性和 特殊性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民族的, 時代的, 地域的 特殊性은 文化의 變化 양상에 따라 성립되는 歷史性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民族文化는 곧 民族史를 말하는 것이기에 民族文化의 特殊性을 찾는 일이 된다. 宗教가 가진 一般性이 佛敎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며 佛敎가 韓半島에 들어와서 어떤 性格으로 변화하느냐는 것은 歷史性和 時代性, 風土性의 문제이다. 이와 같이 文化가 文化圈 理論이나 傳播 理論의 偏重된 해석을 삼가면서 一般性, 普遍性和 乖離되지 않는 民族文化의 特殊性을 찾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본다.

韓民族의 異文化와 접촉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性格도 약간씩 다르다. 이것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中央文化線 — 中國文化

民族文化의 知性的 內容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中國文化는 南滿洲와 海路를 거쳐 일찍부터 韓半島와 접촉하였다. 金屬 文化期에 이르면서 더 활발해진 中國文化 접촉은 漢의 武力征服으로 樂浪文化에 漢文化 移植을 急速度로 促進시켰다. 그러나 다른 部族國家나 古代國家들은 서서히 中國文化와 접촉하면서 文化變化를 일으켜 나갔다. 특히 三國時代에 漢字의 使用, 佛敎의 盛行은 三國文化의 主動이었고 이로서 國史編纂, 吏讀文 發明, 鄉歌記錄 등의 業績을 남기었다. 이러한 中國文化의 流入은 다시 日本으로 波及하는 文化의 移動相을 보여 주었다.

高麗, 李朝를 통하여서도 政治制度, 宗教, 學問 등에 知的 要素의 공급을 위하여 中國과 不斷히 접촉하였음은 中國文化의 優位性을 인정한 것으로 다른 「아시아」 諸國들과 같은 現象이었다. 그러나 中國文化와의 접촉을 中國文化의 영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樂浪文化는 政治的, 武力的 支配를 同伴한 것이지만 그 밖에는 中國文化에 隸屬된 적이 없다. 漢字, 宗教, 藝術 등의 모든 文化現象에서 中國의 模倣에 그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蒙古의 武力的 侵攻과 占據에서는 오히려 高麗風을 배워갔고, 壬辰, 丙子의 兩大 國亂에도 民族文化는 그들에게 破壞됨이 없었다. 특히 日本은 壬辰亂에서 韓國民族의 民性을 直接 배워간 흔적이 많다.

日本의 御用學者나 事大主義를 그릇 해석하던 國內學者 一部가 韓國文化의 根源을 中國에서 찾으려고 한 것은 李朝의 그릇된 遺風이었다. 文化의 傳播는 곧 模倣이 아니고 文化受容은 一種의 選擇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高麗磁器를 보고 곧 宋磁를 聯想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大典會通>을 明律과 關聯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람은 <訓蒙字會>의 文化發祥을 中國에서 求하지 못하여 默殺해 버리거나 測兩器의 發明이나 <醫方類聚>를 唐·宋에서 源祖를 찾으려 古籍을 뒤적이는 態度로 一貫하여 왔던 것이다.

中國文化가 民族文化의 知性을 도와주는 데 커다란 役割을 하여준 것을 否定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中國文化의 知性面이 곧 우리民族의 知性으로 化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土着化시켰으며 어떤 反動現象을 招來했으며 다시 再統合 과정에는 무엇으로 變質되었는가에 대한 考察이 있어야 할 것이다. 文化가 機能的인 것이기에 한 文化要素가 한 要素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文化에까지 事大主義의 해석을 無意識 中에 내리는 일은 없어야

있다.

② 西方「아시아」線—藝術文化

주로 印度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오는 文化的 접촉상을 말한다. 西方「아시아」와의 文化적 접촉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직접적인 것은 그 지방에까지 遍歷하여 그 곳의 文化를 배운다든가 海上貿易이나 蒙古를 경유하여 접촉하는 경우이고, 간접적인 것은 中國의 唐·宋·明을 거쳐서 접촉하는 경우를 말한다. 佛敎의 경우는 이 두가지 접촉 경로를 모두 밟았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서 직접적인 교섭은 매우 감소되었던 것이다.

三國時代 美術은 특히 이러한 文化受容의 좋은 例였다. 「간다라」美術의 영향이 新羅의 佛敎 藝術 등에 남아있고 건축양식의 一部가 高麗건축에서 엿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韓國의 풍부한 石材와 佛敎熱, 建築樣式의 傳統인 雄大性등이 이 文化的 受容條件으로 미리 具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西方「아시아」文化는 이러한 면에서 藝術文化에 受容條件이 갖추어진 것이라면, 現代에 西歐文明의 急激한 流入에 따라 民族文化의 再認識이 近來에 高潮되어 가고 있는 것은 再統合을 위한 一種의 反動現象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③ 北方文化線—生活文化

古代의 出土品에서 보면 이른바 「시베리아」 文化圈과의 접촉 결과라고 볼 수 있는 裝身具와 같은 것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例를 들면 櫛目絞土器, 이러한 系統의 文化로서 주로 水邊 生活者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이다. 사냥, 고기잡이 採集등에 의존하던 시대부터 地方文化와의 접촉이 있었는데 韓國固有의 住居양식인 온돌은 이들의 創作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現在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北方文化와 有關한 것으로는 家畜, 巫俗信仰등이 있어 中國文化와 佛敎등과의 접촉이 생기기 前까지 韓民族과 接觸을 가지고 있었던 文化的 主流였다. 思考方式이나 生活樣式에 있어서 中國文化와 全혀 關聯이 없고 非西歐인 것이 大部分은 北方文化와의 文化접촉에서 受容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墳墓樣式이나 先祖崇尚과 같은 內容은 民族文化로서 성장하기 위해 北方文化와의 접촉 속에서 創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海洋文化線

이 方面에는 前近代에서의 접촉과 現代의 文化受容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8세기까지는 韓民族이 南方文化와의 접촉이 많지 않은것으로 보고 주로 北方文化나 中國文化의 受容關係만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미 新羅의 傳說속에 南方과의 접촉이 明示되어 있고 動植物의 제배만 하더라도 닭, 쌀, 등이 南端에서 부터 사육 제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高麗시대에 이르러 琉球등 南蠻과의 교섭이 빈번했던 것도 이미 前時代의 開拓에 기인한 것이다 보아도 좋을 것이며 海流關係로 우연히 漂着된 西洋人들도 있었다.

現代에 이르러 日本文化의 逆輸入은 西歐文化 受容에 한발 앞선 日本의 文化的 침투이다. 이에 대하여 贊成과 反對의 兩論이 在來 派黨勢力과 結付되어 政治問題化 하였으며 급기야 日本의 武力強奪로 나왔다. 이것은 有史以來 처음있는 일로서 韓民族이 보다 더 保守性向을 강하게 굳히는 要因이

되었다. 日本이 西歐文化를 등에 업고 손에 무기를 든 자세는 韓民族에게 西歐文明에 대한 印象을 그릇치게 만들었다.

解放이 되자 西歐文化의 本據地의 文明이 直輸入되기 시작하자 防波堤가 무너지듯 新舊의 交替가 急速度로 이루어졌다. 특히 美國文化가 主動이 되어 움직이는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상처되는 文化要素가 韓國에 들어오자 日帝時代와는 달리 反動現象이 일어나지 않고 無批判의 受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결과적으로 韓民族은 가치관의 갈등을 일으키고 近代化된 制度和 傳統的인 意識構造 사이의 間隙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지속되었다. 근래에 나타난 民族意識의 고조와 價値觀 研究는 文化受容에 있어서의 順調로운 統合과 再組織을 꿈꾸는 作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有史以來 없던 國土分斷으로 北韓땅이 共產勢力의 支配下에 놓이게 되자 北韓의 同胞들은 異質의인 社會體制 속에서 民族의 전통과는 遊離된 갈등을 獨裁에 의하여 목살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民族이 志向하는 價値創造의 方向을 提示하여 주기 위하여서도 傳統的 價値와 새로운 價値와의 효율적인 統合은 시급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外來文化의 受容狀態

韓國人の 「휴머니즘」은 佛敎와 儒敎의 가치관을 土俗宗敎와 融合시키는데 아무런 혼란도 일으키지 않았다. 古代나 中世의 貴族社會에 있어서는 아래로 부터의 文化受容과 위로부터의 文化受容이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宗敎의 경우와 같이 위로부터의 수용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어도 民族全體로 波及되는 데는 별로 저항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대로 民主主義와 같이 經濟나 政治의 次元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저항이 없어도, 精神面이나 哲學에서의 三次元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심한 반발을 일으킨다. 또한 生活 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와 傳統과의 融合에 限界性을 두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例도 있다.

이러한 가치의 선택은 옛부터 전통의 傳承에 있다. 新羅(다른 三國도 그러했지만)는 佛敎가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確信이 서게 되자 이 宗敎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元曉, 義天, 知訥 등은 모두 民族의 歷史的 現實에 適合한 理論을 세우기에 노력한 인물들이다. 花郎道는 佛敎가 固有한 土俗信仰과 融合하여 再統合을 이룬 創造的 文化이다. 國民倫理로 昇華된 花郎道는 모방도 輸入品도 아니고 또 순전히 傳統的인 것이 아니라 時代的 要請에 適合한 新羅인들이 文化受容과 더불어 創造한 代表的인 精神文化이다. 花郎道는 佛敎와 儒敎와도 관계없이 高麗에 계승되어 徐熙, 강감찬, 河洪振, 妙滿, 三別抄, 恭愍王, 世宗, 南怡, 이순신 기타 의병들에게 계승되었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이 花郎道를 의식하고 行動한 것은 아니다.

朝鮮時代의 儒敎만 하더라도 밖으로 부터 強要된 것이 아니라 안으로 부터의 要求에 의한 것이었다. 즉 스스로 선택한 儒敎는 政治理念으로서의 儒學의 儒學의 優越性을 확신하게 되자 佛敎 대신 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受容상태를 宗敎的 次元으로 해석하던 종래의 學者들이 있어 마치 李朝의 佛敎가 王朝交替와 더불어 消滅되어간 것 처럼 오류를 범하였다. 信仰과 統治를 區分하려는 朝

鮮王朝의 판단이 택한 것이 儒佛交替를 성립시켰다. 朝鮮時代의 儒敎는 宋學에 추종한 것이 아니라 四端七情論과 같은 哲學의 이론을 啓發하였다. 禮學의 發達로 인한 家族倫理는 한국의 傳統의인 要求를 充足시켜 주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例는 官制나 그밖의 口分田, 白丁등의 경우에도 名稱은 비슷하지만 그 機能이 中國과 全然 다른 것임을 알아야겠다.

藝術, 文學에 있어서는 文化受容의 상태가 더더면서 獨自의이고 創造의임을 보여준다. 美術, 彫刻, 工藝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固有性을 잃지 않았음은 佛像이나 裝身具등에 여실히 나타난다. 이것은 貴族曆의 受容이 앞섰을 경우에도 一般民衆이 이에 呼應하지 않을 때 傳播力을 잃고 民族의 전통과 융합되지 않는 拒否상태로 나타났음을 말함이다.

第 6 章 傳統社會의 價値觀

過去를 現在의 母體로 생각하는 見解와 過去는 낡은 것으로 다시 再生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두개의 潮流는 歷史觀을 形成하는 態度의 基本要素이다. 傳統社會에 대한 認識의 必要性은 文化를 하나의 學習結果로 보고 그 안에도 模倣과 創造의 過程이 있어야 可能한 것이므로 現在는 過去를 母體로 하는 것이라는 立場에 同調하는 側의 辯이다. 模倣은 傳統의 傳承과 異文化의 受容의 두가지가 있다. 文化受容에 대하여서는 이미 前章에서 論及하였기에 여기서는 傳承에 관한 問題와 創造過程에 대하여서만 言及하기로 한다.

優位性을 갖는 外來文化의 模倣이 文化創造의 主體인가 아니면 傳統의인 文化傳承이 主導의 役割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雙方이 理由를 갖고 있으나 一般의인 法則이란 찾기 어렵다. 때로는 異文化의 보다 더 강한 영향을 받을때 대개는 傳統위에 異文化가 同化되는 두개의 調和가 바람직하다. 다만 文化價値를 意識하지 못하는 時代와 事件이 歷史를 잘못 이끌어 나갈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여 傳統의 價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韓國의 傳統이 어떤 性格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韓國文化의 特性이나 韓國人의 價値觀이 무엇인지를 具體的으로 指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오랜 歷史가 現在에 이르기까지 異文化와 접촉하면서 異文化 受容에 있어 선택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준 要素가 곧 傳統의 價値觀이라고 볼 수 있다. 길으로 나타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뒤에 숨어서 韓國文化를 育成시켜준 精神的 構造를 말함이다. 어느 것에나 價値觀이 作用하지 않는 것이 없다. 政治經濟를 비롯하여 人間의 모든 行動을 規制하고 있는것은 바로 價値觀이며 民族의 共通의인 意識構造가 있다면 그것은 民族의 價値觀을 形成하는 바탕이라고 할 것이다.

價値觀은 不變의 것이 아니다. 時代에 따라 個人에 따라 (集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一般的(普通的) 價値는 여기서 論外로 하고 韓民族이 가진 集團의 價値가 과연 어떤 形態로 자라왔는가를 찾아 봄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價値觀의 創造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자는 것이 本章의 目的이다. 韓國

人的 價値觀을 규정짓는 거대한 사업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價値觀을 究明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일이다.

1. 民族性 問題

民族性이라 함은 他民族에 대한 自民族의 生活에 있어서 항상 共同意識을 갖는 精神的, 文化的인 要素들이다. 民族性이라는 말 자체가 相對的이기 때문에 民族의 特殊性을 지적하는 것이다.

近代에 와서 六堂, 春園이후 民族性的의 論議가 韓國人들의 커다란 관심거리로 되어 왔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民族의 長短點을 識別하고 고쳐 나가자는데 目的이 있었다. 傳統的 倫理에 의하여 韓民族을 審判하자자는 것은 祖國을 빼앗긴 民族의 反省과 改造를 위한 民族性 論議였다. 民族文化의 再認識과 民族의 結束을 원하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應당 있어야 할 過程이었다.

日帝末期에서 解放을 맞이하면서도 民族性에 대한 論議가 시들지는 않았으나 加速度로 自民族에 대한 自身을 상실하는 상태로 올라갔다. “葉錢”이라는 自虐的인 表現이 그것의 한 例이다. 오랜 外國支配에서 깨어나 보니 美國과 같은 超強大國이 눈앞에 나타남으로써 自身의 위치가 너무나 초라함을 느낀 自嘲의 辯이다. 4半世紀를 통하여 韓國史를 가르쳐 왔으나 自民族에 대한 긍지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였고 근래에 와서 自主性이니 主體性을 부르짖게 되었으나 그것도 口頭禪일 뿐 民族의 生活內面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自嘲의인 心性에서 希望의인 자세로 옮겨놓을 수 있는 근거를 歷史에서나 民族心理에서 찾아주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金泰午는 그의 <韓國, 韓國人>에서 三國以來의 韓國人의 性格을 歷史的으로 分析 綜合하여 長點과 短點을 지적하면서 短點을 버리고 長點을 기르자고 하였다.

長點：潔白性, 寬容性, 忍耐性, 仁善聰明, 好讓不爭, 平和愛好, 民本思想, 正義人道, 自由獨立,

愛國心, 民族意識, 民族正義, 統一精神, 獨創性, 藝術性, 勇敢性, 積極性, 團結性 등

短點：事大思想, 保守性, 消極性, 優柔不斷, 現實主義的, 滯念的, 停滯的, 偏狹性, 官尊民卑, 忍從的, 非社會性, 退嬰枯息, 黨派心, 中傷謀略, 虛榮心, 依他心, 公德心 등

그러나 이러한 分析은 一般的 價値이지 韓國民族이 지녀야 할 集團(民族)의 가치는 아니다. 平和愛好를 안된다 하고 諦念을 長點으로 아는 民族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相互 矛盾된 것은 우리 민족의 長點은 積極성이오, 단점은 消極性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個人的 特性에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되 民族史에 나타난 事例를 綜合하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짓는 것은 모순된 論理이다. 이러한 分類는 종래 民族性을 善惡判斷으로 斷定지으려던 方法論의 不當性을 남겨둔 前時代的 觀念이다. 그러나 無視 못할 것은 이러한 方法에서 나온 民族性論이 教育者들의 두뇌를 支配하고 있다면 새 世代에 덕혀들어 갈 理가 없다.

尹泰林은 그의 著書 <韓國人의 性格> 第3章에서 現時點에서 본 韓國人의 思考方式을

① 지나친 感受性

- ② 過去에의 執着
- ③ 權威主義
- ④ 體面
- ⑤ 功利的

의 다섯 가지로 說明하고 있다.

그는 序論에서 우리 민족성의 長·短點을 그대로 기술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의 思考 및 行動이 歷史의 變遷에 따라 어떻게 變容되고 어떻게 調和하였는가를 살피면서 民族中興의 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는 '四色黨爭'이니 당파 싸움이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어느 특수한 계급층의 특수 狀況에서 일어난 것이지 民衆全體의 習性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일정한 階級에 限定되었던 것은 普遍的으로 論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수 階級의 과오로 異民族의 침략을 받았더라도 백성은 그들을 '되놈', '왜놈'으로 表示하였듯이 그들은 壓制者에 대한 屈從을 거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自尊心과 獨立心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民族性 대신 思考方式은 하나의 文化的 所産으로 보고 그 綜合體系로 多元的으로 考察하여 그 根源을 따져보려고 하였다. 多樣性속에서 統一性을 찾으려는 方法은 그 說明內容이 어떨든 간에 進歩한 것이다. 예를 들면 權威主義로 說明함에 있어서 權威主義가 橫行하는 理由는 劣等感, 無力感, 個人의 無意味,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들을 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에 불만을 품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스스로 이러한 劣等感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p229)라고 말한 것은 앞서 지적한 長·短點을 分類하여 民族性을 論함에 長과 短이 矛盾되는 現象을 心理學的으로 補充하여 주고 있다.

吳天錫은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을 논하면서 民主主義를 沮害하는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遠因과 近因으로 나누어 說明하였다.

즉 遠因으로는

- ① 전용적 權威主義
- ② 좁은 社會觀
- ③ 官僚主義的 思想
- ④ 保守主義

近因으로는

- ① 民主主義에 대한 信念의 박약성
- ② 그릇된 民主主義 解釋
- ③ 觀念的 民主主義
- ④ 民主思想에 투철한 指導層의 결여
- ⑤ 民族的 受難
- ⑥ 貧困

⑦ 民族主義와 民主主義 對立

⑧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能率의 緊要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여러개의 民族性 論議는 民族性이 어떤 것이냐를 斷定지우고 그 改造를 원하던 方法에서 부터 民族의 性格이 多元의임을 알고 그 統一性을 추구하면서 그 本質을 파헤치고자 하는 方向으로 옮겨 감으로서 보다 適用度가 높은 抽象을 찾아 보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悲觀的 民族性論 批判

李朝 500年史와 日帝侵略史에서 받은 충격에서인지 政治面에서는 事大主義, 經濟面에서는 後進性, 社會面에서는 派黨性, 宗教에서는 「샤머니즘」, 信仰 科學에서는 落後性, 藝術에서는 保守性등을 들어 韓國民族의 展望에 悲觀的 見解를 일삼아 온지 오래이다.

近來에 와서 여러 學者들이 否定的 態度에서 부터 점차 肯定的인 姿勢로 옮겨 가면서 歷史를 直視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所謂 植民地 史觀에서 벗어나서 韓國의 歷史를 새로운 眼目으로 考察하는 學風이 생겨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悲觀論이 대두한 것은 近代化의 물결이 西歐化 現象과 併行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근대에 와서 傳統社會에 대한 評價는 西歐社會의 發展이나 日本의 現在와 比較하는 것으로 치우치고 있다. 물론 近代學問의 方法이 日本에서 배운 것이기는 하지만 韓國을 停滯的 社會의 하나로 규정 한 것도 日本의 西歐文明에 대한 劣等意識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李基白은 그의 著書 <民族과 歷史>속에서 民族의 自我認識을 돕는 立場에서 事大主義 政策에 대한 史學者의인 解明을 내고 停滯論的 解釋에 一針을 加하였다. 事實上 事大主義라는 用語는 너무나 여러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地理的 條件으로 事大主義가 不可避하였다는 宿命論, 中國의 지나친 文化崇尚에서 온다는 慕華說, 政治 外交의 한 手段에 不過하다는 政策說, 韓國史 全體로 통하여 事大主義 물결이 흐르고 있다는 觀念論, 外的 條件에 對應하는 階級的 態度라고 보는 制限論 등의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근대에 와서 事大主義를 國史用語로 사용하는 것을 不適當 하다고 내세울만한 理由를 여러 각도로 論議하고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後進性 問題에 있어서도 基本的 태도는 서로 恰似하다. 低開發이란 말과 거의 同義語로 사용되고 있으나 後進性和 低開發은 같은 것은 아니다. 低開發은 開發이 안되고 있다는 뜻이고 後進性은 뒤떨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意味가 萬一 未開 野蠻과 文明으로 區分하던것에 代替되는 개념이라면 커다란 오해가 생길 것이다. 近代에 들어와서 經濟的인 富裕國은 「스페인」에서 출발하여 荷蘭을 거쳐 英國으로 가더니 美國이 先頭로 달리고 있다. 不過 數三世紀의 變化를 가지고 文明國과 野蠻을 區分하던 식으로 開發國과 低開發國이나 後進國이나 先進國을 論하는 것은 歷史性이 약하다. 이미 「아시아」적 停滯性 理論의 근거가 허물어져 가고 韓國에도 17世紀에는 資本主義 發芽가 있었음을 論하고 있는 이즈음 西歐社會의 發展類型을 尺度로 評價하는 그 自體가 後進的인 是를 두말할 나위도 없다.

韓國史에서의 後進性은 科學이나 技術의 進步를 論하자는 것이 아니고 後進性을 克服하는 過程에

문제가 있다. 韓國人의 科學이나 技術에 관한 態度 내지는 經濟意識이 어떠한가와 現代가 원하는 克服過程과의 一致點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方策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은 社會性에서의 黨派性이나 文化 藝術部門의 保守性, 守舊의 態度에 대하여서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3. 韓國人의 政治觀

韓國民族의 政治意識은 時代가 진전함에 따라 점차로 擴大되어 갔다. 古代에는 王族을 중심으로 血緣的 紐帶가 存續하므로써 身分制가 고정된 이른바 骨品制와 같은 것이 있어 政治參與를 制限하고 있었다. 高麗時代에 이르면 貴族의 隊列로서 門閥이 있는 者는 누구누가 政治에 가담할 수 있었다. 그 외는 특히 왕실과의 通婚이던가 아니면 승려가 되는 길이 선택되었다. 朝鮮時代에 이르면 兩班階級의 數的 증가로 인하여 兩班들은 自體防衛를 위하여 스스로 自己淘汰 과정(서열의 차별)을 꾀하였고 엄격한 科擧制로서 政治參與의 길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변천은 韓國史에서 政治參與의 人口가 時代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西洋의 近代 政治史는 중세의 암흑시대에서 고대의 부활을 부르짖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한국인의 정치의식은 원래 王에 대한 信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가 정치참여의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갔기 때문에 外見上으로는 정체적이면서도 서서히 진보하여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忠과 孝의 一致는 한국정치 사상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家長을 대하는 식으로 王을 받들고 家庭倫理를 國民의 道理로 擴大시킨 까닭에 나라(國)는 곧 집(家)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王에게 기대하는 것은 勇者도 智도 아니요 哲人 바로 그 것이었고 賢君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崔忠獻의 權力이 王을 交替시킬 수 있어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은 崔忠獻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高麗人의 정치의식이 압력을 받은 것이다. 李成桂의 革命에서 겪은 苦難中의 最大의 難事는 遷都까지 不可避하였던 民心의 수습이었다.

조선시대 500年 동안 파란 많은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傳統的 價値觀과 大義名分論이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에게 맡겨준 결과가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상소문으로 이를 호소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民亂이란 행동으로 나왔다. 19세기의 東學革命에서 그들이 내세운 강령에도 “忠孝濃會 濟世安民”이라고 표시되어 그들의 政治觀이 革命이기 보다 改革에 있었음을 나타내어 주었다. 우리나라 民權運動의 선구자인 獨立協會의 계몽은 이나라에 民主主義 도입의 선구였고, 일제의 억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近代化의 물결은 中斷되지 않았을 것이다.

韓國史에서는 주로 知識인들이 정치 또는 사회참여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知識人의 범위를 어디다 한정시키느냐 혹은 貴族이기에 학문이나 예술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反論이 있을 수 있지만 西洋에 比하면 勇猛있는 자 보다는 知的으로 존경받는 자를 더 登用하였던 것만은 確實하다.

고대에 있어서 最初의 지식인은 僧侶이었다. 「그리스」의 哲人이 한낱 市中の 知者로 머무른데 比

하여 佛徒들은 일찌기 政治에 참여하여 많은 功을 세웠다. 그러한 뒤에는 異次頓의 죽임과 같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있으나 高麗의 義天, 朝鮮의 休정 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朝鮮의 儒學者들은 더 政治와 긴밀하였다. 鄭道傳이 代表의 人物로서 麗末부터 文人 學者들의 政界進出이 있더니 集賢殿 學士들은 大學 登用되었고 李珣로서 最高峰을 이룬다. 儒者들은 民本思想과 王道政治를 내걸고 政治 綱領으로 상황과 大同法, 均役法을 마련하고 大司諫등의 기능을 수행한 것도 儒者들의 주요 과제였다.

近代에 이르러 批判的 態度를 취했다고 할 수 있는 實學派 學者들이나 開化를 주장한 金玉均, 朴泳孝, 洪永植, 俞吉潁, 徐載弼 등은 유능한 지식인들이오 舊韓의 義兵들도 대부분 知識人들을 中心으로 뭉치었다. 이러한 知識人의 政治참여는 日帝를 기점으로 退步하고 學者들에 消極的 態度로 바꾸어지는 習慣을 만들어내었다. 知識人이 現實에서 逃避하게 된것은 朝鮮時代의 유행이 아니라 日帝下의 탄압에서 象牙塔이라는 도피처를 제공해준 西洋의 學者나 教育制度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인의 정치관은 西洋이나 日本의 典型的 封建制의 영향에서 急速度로 轉換한 그것과도 다르고 中國이 數次에 걸쳐 異民族에게 長期間 占據당했던 歷史를 가진 결과 얻어진 哲學과도 다른 것이다. 現代의 民主主義로 가는 途中에서 철저히 後退당한 日帝時代를 제외하면 점진적이거나 진보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現代 民主主義의 도입으로 制度上의 급격한 변화와 主權在民의 眞正한 行動化를 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시간여유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信賴하는 政治라는 傳統的 政治觀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一面도 남아 있음을 자각하여 새로운 價値創造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人間關係

많은 學者들이 지적하듯이 韓國人의 個性發見은 不足한 것이 歷史속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自我抹殺은 儒敎의 영향으로서 儒敎의 人間觀이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人格者로 보는 것이 아니라 縱的 關係에서 본 不平等한 差別의 人間關係이다. 그 곳에는 개성이 뚜렷한 자아의 존재를 인정함이 없고 양반과 상노,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 아버지와 자식과의 상하·지배·복종관계를 가지고 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自我의 개념이 발생할 수가 없다.

儒敎에서 말하는 理想的 人間型은 君者이다. 君者의 가장 중요한 요수는 德이다. 君者가 갖추어야 할 도덕은 내면적이기 보다 儀式的인 규범을 지키는데 더 치중하였다. 君者不器의 사상은 人間을 社會的 無能者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고 讀書的인 교양을 높이기만 하였다. 手足을 놀리는 일, 利潤을 쫓는 일은 일체 거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儒敎的인 人間關係가 곧 韓國民族의 전부이고 代表的인 것은 아니다. 朝鮮時代의 社會規則을 말하기에 앞서 그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켜 朝鮮時代를 이해할 必要가 있다. 儒敎的 人間關係는 封建社會 規則으로 그 時代에 適合한 것으로 이룩된 文化이지만 그 以前에도 韓國의 民族文化속에 또 다른 社會規則이 있었던 것이다.

新羅의 世俗五戒는 역사에 표시된 최초의 社會規則이다. 1. 事君以忠 2. 事親以孝 3. 交友以信

4. 臨戰無退 5. 殺生有擇의 忠, 孝, 信, 勇, 愛의 다섯 要素는 國家意識, 社會意識, 宗教意識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어 儒敎의 理念이 지배하기 이전의 國民敎育의 指標라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다만 佛敎의 影響을 받았으면서도 전통적 價値觀과의 融合을 指摘할 수 있는 교훈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五倫이 나타난 1. 君臣有義 2. 父子有親 3. 夫婦有別 4. 長幼有序 5. 朋友有信의 다섯 德目을 내세웠다. 여기서의 義, 親, 別, 序, 信의 特色은 國家意識 以外에는 家庭倫理가 지배적이라는 새로운 현상이다. 個別은 世俗五戒에 比하여 減少되는데 反하여 家庭成員으로서의 自我를 強調하고 있다. 올고(義), 사랑하며(親), 책임수행과 분수를 지키며(別), 가르치고 배우며(序), 믿음(信)을 가지고 사귀라는 귀절은 모두가 縱的關係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世界觀의 縮少는 보이지만 本質面에 있어서 橫的關係를 否定하는 뜻은 아니다. 後世에 이르러 支配層에 더 有利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縱的關係로 偏重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세분한 것이 이원구의 九道라 할 것이다. 父道慈, 子道孝, 兄道友, 弟道恭, 友道心, 妻道順, 夫道和, 臣道忠, 君道仁의 아홉가지는 人倫의 基本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어버이를 例를 들어 본다고 하면, 自息을 양육하되 보답하기를 기대하지 않음이 자연의 정상이오, 수고하였지만 자랑하지 않음도 자연의 현상이오, 가르칠 때 두렵게하여 정을 상하게 함은 정상이 아니오, 혼계하되 쫓지 않는 일이 없음을 하늘이 만물을 용납함이라 설명하였다. 九道는 兩班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平民層의 지침으로 엮은 것으로서 禮學에서 말하는 儀式的 規定에는 별로 언급이 없는 倫理의 大本이다.

이 세가지는 時代가 다르고 時間이 흐르면서 家庭倫理를 더 강조한 것이 눈에 띄이지만, 이것은 점차로 직접적인 人間關係의 도야를 강조하고 그 개념의 확대로서의 社會와 國家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禮節이라는 눈에 보이는 德目이 人間行動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으로 세대간의 간격을 좁히고 계급사이의 충돌을 통제하는 작용을 맡겼다. 社會的 身分을 불명의 실마리로 삼기보다는 禮節과 依賴로서 조절하여 社會秩序를 유지하는 것은 西洋의 주종관계에서 土地의 대여와 충성을 교환하는 합리적 질서 유지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좁은 世界觀 이었지만 家庭倫理의 보편화는 조상숭배라는 전통적 價値觀과 부합하여 이루어 놓은 조선시대의 文化창조였다는 일만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鄉約에서 보여준 相互扶助 精神은 社會意識이 약했던 시대에 필요했던 文化要素로서 大家族制하에서 共同體의 社會構造라는 전통적 요소의 유산이다. 家族成員은 共同體 意識으로 단결하고, 이 大家族의 연장이 곧 民族을 설립시킨다는 혈연적 문화이며 혈연과 문화와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인의 同族意識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강할 수 밖에 없다. 개성의 상실이라는 희생위에 세워진 民族의식이기에 한국인의 民族意識은 政治的, 經濟的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文化現狀이라고 보고 싶다. 血緣社會에서 부터 思想, 感情, 趣味, 年齡, 生産 및 消費등의 生活樣式이 공통된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조직이 가능하였던 諸集團이 契라는 형태로 발전된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유희, 오락, 제사 등의 행사를 위하여 契員들은 상호부조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를 더 발전시

킨것이 조선시대의 鄉約이다. 趙光祖가 정책화시킨 鄉約의 내용의 주요골자는 1. 德業相勸 2. 過失相規 3. 禮俗相交 4. 愚維相恤이었다. 鄉約이 관리의 후원을 얻지 못하여 후기에는 시들어졌으나 유교적 사회규범을 지방 교화에 까지 확대시킨 것은 가족윤리와 국가윤리에 다리를 놓고자 하는 의도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9. 創造的 價値

이 이외에도 韓國人의 價値觀을 설명할 焦點은 얼마든지 있다. 宗教觀에 있어서도 在來宗教와 新宗教는 큰 마찰없이 共存하였으며, 朝鮮의 斥佛도 政治·經濟的 權力構造에서 佛敎를 추방하는데 限界를 두고 歷代 政策은 一般信仰으로서의 佛敎를 保護하는 方向으로 나갔다. 韓國人의 心理나 經濟觀도 價値觀에서 除外할 수 없는 內容이다.

價値에는 知的 價値, 道德的 價値, 美的 價値, 社會的 價値, 宗教的 價値, 生命的 價値등의 部類가 있다. 또 이것을 다시 分類하면 固有價値와 道具價値로 나눌 수 있다. 固有價値는 그 自身을 위하여 존중되고 그 자신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지만 手段의 價値(道具)는 다른 價値를 實現하기 위하여 존중된다. 따라서 道具的 價値는 派生的인 것으로 固有價値에서 유도되는 것이다. 건강이라는 價値에 위생이나 의학은 道具的 價値가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積極的인 價値와는 달리 否定的 價値가 있다. 이 兩面은 時代나 社會가 요청하는 價値基準과 合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決定된다. 즉 이와 맞으면 積極的을 떠우고 規範과 맞지 않으면 否定的 價値가 된다. 그러나 價値基準의 모체가 되는 規範도 하나의 價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規範的 價値는 요청된 기준이고 規範에 의하여 評價된 價値는 다음 次元의 것이다. 評價된 價値는 다음 것을 創造하는 모체가 된다.

評價된 價値는 歷史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歷史에서는 現實의 不安을 느끼는 것이다. 完全을 向한 未來에의 意志가 일어나서 現實에 대한 否定的 價値와 人間集團이 理想으로 내거는 積極的 價値와의 對立의 連結이 곧 歷史이다. 歷史認識은 價値概念의 導入이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며 歷史像속에서 本質的인 것과 非本質的인 것을 決定짓는 價値通念은 事件의 선택에도 나타난다. 歷史敘述에도 이러한 價値論的 條件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客觀이라고 評價하는 主觀과의 사이에서 成立되는 價値이기엔 個人的 特殊性에 無關한 主觀이 더 價値에 가까운지도 모른다.

價値概念이 個人에서 떠나면 곧 普遍化되는 것도 아니다. 普遍的 價値는 萬人에게 共通的인 肯定을 원한다. 健康이 疾病 보다는 좋다는 普遍的 價値는 個人이나 集團에 依存하지 않아도 된다. 歷史는 個人, 集團, 普遍的인 세 部類의 價値를 모두 包含하고 있다. 歷史의 經過속에서 不斷히 變遷하는 것은 主觀과 客觀의 對立關係를 克服하려는 意志, 또는 主觀과 客觀사이에 더 높은 障壁을 세우려는 우리들의 意志가 目的으로 하는 그 內容이다. 그러나 그 對立을 克服하려는 意志가 그 內容에 積極的 價値를 認定하고, 한편 障壁을 쌓아 올리려는 意志가 그 內容에 否定的 價値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不變이오 內容의 變遷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傳統이란 原始에서 이미 창조된 것이고, 社會에서 認定을 받는 것만이 人間行爲가 계속됨으로서 習慣化된 것을 말한다. 歷史에서 明滅하는 傳統은 그 시대의 價値가 積極的인 價値로 인정하여 주었을 경우를 말한다. 그 強度에 따라 傳統의 강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習慣化 되어 가면 차차 歷史의 身體속에 融和되어 버리고 客觀的으로 形態化하고 主觀을 超越한다. 傳統에 대한 새로운 挑戰이 나타나서 否定的 價値가 나타나기까지는 傳統을 意識하지 못하는 行動이 계속될 뿐이다. 새로운 挑戰은 外來文化의 受容일 경우도 있고 自體內的 創造일 수가 있다. 逆說的으로 말하면 積極的 價値에 대한 意識보다는 否定的 價値의 意識이 傳統을 더욱 빛나게 한다는 뜻이 된다. 즉 創造만이 전통을 살리는 唯一한 길이 된다는 것은 傳統이 새로운 形態로 復活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의 儒敎는 이미 政治理念으로서 高麗의 崔承老에서 淵源을 찾을 수 있다. 恭愍王은 民族主義色彩가 강한 君主로서 國家危機를 佛徒의 知慧와 民族의 意志로 克服하게 하였으나 李成桂가 이를 成功하고 世宗朝에 完成되었다. 儒敎的 理念은 士禍, 黨爭과 같은 도전을 받으면서 發展하여 나간다. 萬一 그 안에 創造過程이 없었다면 朝鮮의 儒敎라는 傳統은 빛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17, 8세기의 實學의 創造過程도 世宗朝의 科學과 學問의 發達에서 傳統속에 積極的인 價値를 보았고 外來文化의 受容에서 否定的 價値를 찾아 결과적으로 전통의 沈滯를 克服함으로써 그것을 빛내어준 것이다.

文化創造는 傳統의 價値의 肯定과 否定위에 成立되는 것이다.

Ⅱ. 民主主義論

第1章 民主主義의 本質

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2. 理念具現을 위한 基本條件

第2章 民主的 制度와 過程

1.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
2. 民主的 政治制度와 經濟體制
3. 政治 過程과 個人의 参政

第3章 民主的 生活 樣式

1. 生活 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2. 民主的 人性과 態度
3. 葛藤의 建設的 解決

第4章 民主主義의 土着化

第1章 民主主義의 本質

民主主義의 本質은 民主主義의 理念的 바탕이 되고 있는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과 그 信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만든 統治制度와의 統合으로 規定된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全 輪廓을 簡潔하게 理解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먼저 民主主義가 成立되는 理念的 本質을 糾明하고, 다음 章에 信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만든 諸般 制度의 要旨를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民主主義는 하나의 믿음으로 出發한다. 그 믿음이란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이다. 民主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에 最高의 價値를 賦與하고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자 하는 理念的 目標을 갖는다. 이러한 民主主義가 成立되는 理念的 바탕을 糾明하는 問題를 本章의 처음에 取扱하고, 다음에 信念을 具現하기 爲한 必要不可缺한 基本的인 條件을 檢討하고 마지막으로 民主主義의 理念 具現을 爲한 個人의 義務와 責任 등을 밝히려 한다.

1.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民主主義는 하나의 信念을 實現시키고자 始作된 思想이며, 지금도 繼續해서 그 信念을 實現시키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 信念이란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믿음이다. 人間의 尊嚴性을 믿는 信念이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理念的 바탕이며 이 理念的 바탕 위에 民主主義와 關聯된 모든 下位價値, 概念, 理論, 制度 등 民主主義의 온갖 類型이 成立되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와 關聯된 重要한 概念인 自由와 平等도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을 實現시키기 爲한 基本條件이며, 여러 類型의 民主的 政治 制度, 法律, 自由經濟體制 등도 結局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을 높이고 人間의 基本權利를 保障하고 더욱 伸張하기 爲하여 만든 制度인 것이다.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基本的인 理念的 바탕과 信念을 具現하기 爲한 手段 乃至 條件과의 區分과 그 關係를 明確히 理解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本質과 諸 形態를 理解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民主主義”는 西方 文明史 全體를 通하여 여러가지 意味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民主主義의 發達史의 考察은 뒤에 따로 取扱할 것이다) 變함 없이 흘러온 理念的 바탕은 사람의 價値를 向上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理念的 바탕은 變함이 없었으나 理念이 갖는 뜻의 精化 乃至 深化와 그 理念의 具現을 爲한 條件의 改善을 爲해서 繼續的인 努力을 傾注해 왔다. 따라서 信念을 具現하기 爲한 手段 乃至 條件이라는 政治形態, 經濟體制 등의 制度는 時代에 따라 或은 文化的, 社會的, 與件을 달리하는 社會나 國家에 따라 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民主主義의 바탕이 되는 理念과 그 信念을 實現하기 爲한 條件과를 混沌하게 되면 혼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現實 悲觀論이나 過激한 極端的인 改革論에 빠지기 쉽다. 民主主義는 完全無缺하게 完成된 既成品이 아니며 繼續的인 努力을 通해 가꾸어 完成시켜 가는 것임을 理解하여야 한다.

民主主義도 그 바탕되는 理念을 重視할 뿐 아니라 그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過程 乃至 條件을 또한 重要視하기 때문에 民主主義의 定義를 規定함에 있어서 政府形態나 經濟體制 或은 社會生活의 原理 等の 諸 條件을 除外하거나 疎忽히 取扱하지 않는다. 여기에 紹介하는 民主主義의 定義에로 理念과 그 理念을 具現하는 條件의 兩側面을 同時에 強調하는 뜻을 찾아 볼 수 있다.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을 具現하기 爲한 社會生活의 原理 乃至 政府形態를 民主主義라고 定義한다.”¹⁾

여기에 紹介한 定義를 解釋함에 留意해야 할 點은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理念的 바탕과 그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條件과의 區分이다.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理念的 바탕은 人間의 尊嚴性을 믿는 信念이며 나아가 民主主義가 指向하는 理念 乃至 中核의 目的은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에 對한 信念을 具現하고 人間 各自의 固有의 自我를 最大限으로 實現하기 爲한 것이다. 그리고 이 定義에서 明示한 社會生活의 原理 乃至 政府形態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手段 乃至 條件이다. 이렇게 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爲한 條件과의 結合으로 民主主義의 本質은 規定된다. 다시 말하면 民主主義의 本質은 人間 個人의 價値와 尊嚴性을 믿는 信念과 그 信念을 實現하기 爲하여 만든 統治 制度의 條件과의 結合으로 規定되는 것이다.²⁾

民主主義의 本質은 그 바탕되는 理念과 그 理念具現을 爲한 條件과의 結合으로 構成되는 것임을 事전에 周知하고 本章에서는 먼저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理念的 바탕인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을 說明하는 問題를 取扱하고 있음에 留意해 주기 바란다.

民主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에 最高의 價値를 賦與하고, 다른 모든 價値나 制度는 그 最高의 價値를 尊重하고 實現하기 爲한 手段으로 생각한다. 人間의 尊嚴性을 最高의 價値로 여긴다는 뜻은 人間을 무엇보다 가장 所重히 여긴다는 말이다.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고 人間을 目的으로서 待接하며, 어떠한 다른 目的을 爲해 人間을 手段으로 使用하기를 許容하지 않는다는 信念이 人間의 尊嚴性을 믿는 基本的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을 所重히 여긴다고 해서 人間을 神主처럼 모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眞意는 個人이 갖는 固有의 個性을 尊重히 여기고 그가 가진 能力과 成長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도록 밖으로 부터의 無理한 拘束이나 抑壓 그리고 制裁를 加함이 없는 自由로운 風土와 機會를 提供하여 各個人으로 하여금 그에게 가장 滿足스럽고 價値있는 活動과 生活을 통해 各者의 最善我實現을 可能하도록 모든 與件을 保障해 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間의 基本權利의 保障은 人間의 尊嚴性을 믿고 그 信念을 實現시켜야 한다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의 具現을 爲해서는 必要不可缺한 條件이 되는 것이다.

1) 이 정의는 Harold D. Casswell, B. E. Lippineoff, Thomas Mann 등의 정의를 종합 검토하여 내린 Henry B. Mayo의 정의이다. H. B. Mayo,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260—263.

2)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ed.) *Democracy Confronts Communism in World Affairs* Univ. of South Caroliana Press, 1964 p. 401

人間의 尊嚴性이라는 意味를 위에 더 繼續해서 說明할 것이나, 먼저 民主主義가 서고 있는 理念的 바탕인 基本價値와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와의 關聯性을 簡略히 糾明해 보기로 한다.

個性 尊重, 最善我實現을 爲한 自決의 能力에 對한 信念, 成長, 可能性에 對한 信念, 理性的이고 善한 人間의 本性에 對한 信念, 知性 優位에 對한 信念, 眞理의 相對性的 優位에 對한 信念, 人間의 目的性에 對한 信念 등이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의 代表的인 例이다³⁾ 이들 價値 以外에도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들을 더 細分化하여 指摘할 수 있을 것이나, 大部分의 것이 이들 價値의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提示한 價値나 그밖에 指摘될 수 있는 價値는 民主主義의 基本價値인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을 바탕으로 派生된 下位價値들임을 理解하고 이들 下位價値와 基本 理念과의 關係를 理解해야 할 것이 要望된다.

이미 說明한 바 있드시 民主主義는 人間을 가장 貴重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人間이 갖는 固有的 個性을 尊重히 여기고 人間을 目的으로 삼으며 어떠한 다른 目的을 爲해서도 人間을 手段으로 使用하기를 許容하지 않는다. 또한 人間은 善한 本性和 理性을 가진 存在로 믿으며, 個人은 自己 나름의 潛在可能性을 發達시킬 能力과 自己 나름의 最善我實現을 위한 自決의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個人 스스로 最善의 自我를 成長시켜 自己 나름의 判斷에 依한 價値있는 幸福한 生活을 開拓할 수 있도록 個人의 自由로운 成長과 思考, 그리고 活動을 許容하고 獎勵하려는 것이 民主主義 生活原理로 되어 있다.

民主主義는 또한 個人의 知性和 理性을 높이 評價하고 繼續적인 發展을 可能케 하는 創意的인 眞理의 探索과 科學的 問題解決을 獎勵하여 知的活動의 自由를 勸獎한다. 따라서 眞理의 絕對性을 否認하며 眞理의 相對性을 優位에 둔다.

이렇게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는 民主主義의 基本的 理念인 人間尊重 思想을 基般으로 形成된 것이며 이들 下位價値들도 民主主義의 本質을 보다 具體적으로 規定하는 價値들임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의 尊嚴性에 關한 意義를 더 具體적으로 밝히기 前에 여기서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느냐 않느냐의 如何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本質的 差異를 比較해 보기로 한다.

民主主義는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人間을 모든 것의 優位에 두는 目的으로서 所重히 여기는 反面 共產主義는 人間을 所重히 여기지 않으며, 人間을 小數人의 主張인 Ideology의 達成을 爲해 手段으로 使用한다. 共產國家에서의 個人은 小數 執權者의 主張에 따라 죽고 사는 附屬物에 지나지 않는다. 小數人으로 構成된 共產黨이나 執權者들이 흔히 내세우는 目的은 國家的 或은 全體의 利益이라고 하지만 其實은 내세우는 名分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全體의 利益이란 小數 執權者들이 願하는 利益이며, 그들이 願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온 國民을 手段으로 總動員하여 使用하고 있어 國民은 그들 小數人의 執權者를 爲해 犧牲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國家에서 國民 個人은

3) Pounds, R.L. & J.R. Bryner, *The Schoo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 424-427.

黨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움직이는 종의 구실만을 擔當하게 되며, 人間 個人이 主人으로서의 待接과 尊敬을 받기를 願할 수 없으며, 나아가 個人 各者의 價値에 따른 幸福을 追求하기 爲해서 或은 個人 스스로의 判斷에 依한 思考와 活動, 그리고 生活을 할 수 있는 自由를 願할 수 없게 된다.

共產國家에서는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지 않을 뿐 아니라 民主主義가 갖는 下位價値를 전혀 許容하지 않는다. 個性을 認定하지 않고 個人의 知性的 活動 亦是 統制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主張을 絕對의 眞理라고 固執하기 때문에 個人의 知性的, 創意的, 活動을 許容하는 것은 그들의 主張을 批判할 危險性이 있게 된다. 따라서 個人의 思考와 活動, 그리고 生活을 抑壓하고 그들의 主張에 追從하는 사람만을 높이 評價한다. 個性을 尊重하지 않고 個人의 理性的 思考와 活動을 許容하지 않으며 個人의 價値判斷에 依한 幸福追求를 爲한 自由를 許容하지 않는 處事는 根本的으로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지 않는 理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間尊重의 意義는 平等이라는 概念에서도 強調되어 있다. “人間은 同等하게 태어났고 同等하게 待遇를 받을 權利를 갖는 것이며 그 權利는 어느 누구도 侵害할 수 없는 絕對不可侵의 것으로 民主主義는 믿는다. 人間의 尊嚴性이란 個人의 人種, 文化, 背景, 所屬하는 集團이나 社會階層, 經濟的 或은 社會的 地位, 容貌, 性別, 性格, 能力, 學力, 興味, 信仰 等の 差異에도 不拘하고 平等한 價値를 지닌 存在者로 個人을 認定하고 尊重하는 信念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各個人은 그의 固有 本分대로 또는 그가 願하는 대로 最大限의 自我實現을 成就하고 幸福을 追求하며, 그가 屬하는 社會의 發展을 爲하여 各自의 獨特한 方法과 能力으로 貢獻하고 參與하는데 기쁨을 느낄 權利를 個人은 누구나 所有하고 있음을 認定하고 尊重하는 信念을 意味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信念은 自由와 더불어 民主主義의 바탕이 되는 生活原理인 平等의 概念에 反映된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人間의 값을 높이기 爲한 信念인 것이다.

人間尊重의 思想은 現代의 心理學的인 觀點으로도 重要視하고 있다. “人間行動에 關한 現代科學은 人間尊重의 思想이 한 個人의 健全한 成長에 얼마나 重要的 意味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社會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서도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라는 事實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人間 個人은 創意的 成長力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潛在的 成長可能性의 最大限의 開發과 發達은 外部로 부터의 無理한 拘束이나 抑壓이 加해지지 않을 때 可能한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個人의 潛在的 成長可能性에 對한 信念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도 一致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民主教育의 基本 理念이기도 하다.

個人 固有의 創意的 成長可能性을 가지고 태어나는 人間이 그의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發達시키기 爲한 自我實現의 過程에 必要한 與件은 自由로운 表現과 活動을 保障하고 勸獎하는 社會的 與件인 것이다.

4) 吳天錫, 民主主義의 참된 모습.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8). pp. 67-88

5) 이영덕, “民主主義의 基本價値와 民主市民의 資質” 韓國의 民主的 發展과 成人教育의 課題(中央教育研究所 1966), pp. 23-28.

여기서 뜻하는 社會的 與件이란 家庭을 包含하는 모든 對人關係 樣式과 制度等을 意味하는 것이다. 人間 有機體의 生理的 欲求가 그 有機體의 維持와 成長을 爲해 充足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個人的 健全한 情緒的, 知的, 社會的 成長과 發達을 爲해서 여러가지 心理的, 社會的, 欲求의 充足도 必要한 것이다.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心理的, 社會的 欲求들 中에도 가장 重要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愛情, 他人으로 부터의 認定感, 尊敬感, 成就感, 恐怖感으로부터의 自由 等이며 이러한 基本的인 欲求를 充足하지 못하고 繼續的인 挫折에 부딪치게 된다면 人間이 지니는 成長可能性의 健全한 發達은 沮止된다. 最大限의 自己實現을 爲한 人間의 基本欲求의 適切한 充足과 表現, 그리고 그 充足과 表現을 爲한 自由로운 活動은 人間에게 賦與된 基本權利로 믿으며 이러한 人間의 基本權利는 어느 누구에 依해서도 抑壓되거나 侵害될 수 없는 것으로 民主主義는 믿는 것이다.

個人的 自由로운 自己實現의 機會를 抑壓하거나 剝奪하는 專制主義의 社會나 共產獨裁主義 社會는 個人的 發達可能性을 抑壓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結局 그 社會全體의 弱화 乃至 破壞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個人的 尊嚴성과 自由와 權利를 默殺하고 侵害하고 抑壓한 社會나 國家는 運命이 길지 못했고 個個 市民의 權利를 蹂躪하고 抑壓한 專制的 君主로서 끝끝내 榮光스러운 勝利와 尊敬을 받은 자가 없음은 歷史的 事實이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2. 理念具現을 爲한 基本條件

人間의 尊嚴성에 最高의 價値를 賦與하고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자 하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必要不可缺한 條件으로서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權等의 概念을 重要視하고 있음을 앞에서 이미 示唆한 바 있다.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權과 個人的 社會的 責任 等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條件이며 民主主義의 生活原理이다.⁶⁾ 따라서 “人間의 尊嚴성에 對한 信念”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한말로 規定한 것이라면 自由와 平等, 그리고 人權과 責任 等은 民主主義의 本質을 보다 具體的으로 規定하는 概念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自由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의 尊嚴성에 對한 信念을 具現하고 最善我實現을 可能케 함에 必要한 基本權利 中의 하나이다. 밖으로 부터의 不當한 拘束이나 制裁를 받음이 없이 自己의 意思를 表示하고 行動으로 옮기고, 個人이 願하는 生活과 幸福을 追求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獎勵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가장 重要한 生活原理인 것이다.

人間이 自己의 尊嚴성을 認定받고 自己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滿足스러운 生活을 할 수 있으려면 健康, 教育, 經濟的 安定 等도 必要한 條件이기는 하나 가장 重要한 條件은 自由이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소리는 自由없는 종과 奴隸 或은 짐승과 같은 生活에서 脫皮하여 人間으로서의 待接과 尊敬을 받고 自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을 賦與받기를 願한 生命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실상 自由없이 人間의 尊嚴성이 保障될 수도 없고 最善我實現도 不可能하다.

自由라는 概念을 여러 觀點에서 定義지을 수 있고 또한 觀點에 따라 여러種類로 分類할 수도 있

6) Morley, F. (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a Free Society* (Princeton, N. J.: D. Van Nostrand, 1963)

다. 여기서 모든 種類의 定義와 分類를 다 紹介할 수는 없고 다만 重要하다고 生覺되는 몇 가지의 定義와 分類를 紹介하기로 한다.

흔히 引用되는 定義는 消極的인 意味의 定義이다. 自由의 消極的인 意味의 定義란 外部로부터의 不當한 拘束이나 統制에서 解放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消極的 解釋에 依한 自由는 個人的 思考, 意思表示 行動等を 不當하게 拘束하는 外部 上位者의 權威를 否定하고 抗拒하는 意味를 갖는다.⁷⁾ 그러나 보다 積極的인 意味의 定義는 여러가지 可能性에서 自意에 따라 選擇하는 思考와 行動을 뜻한다. 여기에 指摘한 可能性이란 뜻도 外部의 어느 누가 規定해 주는 것이 아니라 個人이 意識하고, 해서 필만한 일을 말하는 것이며 그 中에서 어느 것을 擇할 것이냐를 個人 스스로가 決定할 수 있고 또 決定해야 한다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積極的 意味의 自由에는 責任이 強調된다. 自己가 選擇하고 行한 일에는 그 結果 如何를 막론하고 自己가 責任적야 한다는 뜻이 積極的 意味의 自由에 包含된다.

眞正한 意味의 自由는 外部로 부터 받을 수 있는 不當한 抑壓과 統制를 排除하는 消極的 自由보다 個人이 行하고자 하는 行動을 意識하면서 決定하고 選擇하는 積極的 自由를 뜻한다. 그러나 社會生活에서 實質的 意味를 갖는 自由의 問題는 外部의 不當한 拘束을 排除하는 問題이며 이러한 消極的인 意味의 自由의 保障없이 積極的 意味의 自由의 行事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뜻에서 積極的 自由를 勸獎하면서 消極的 自由를 保障하려는 意圖가 制度에 反映되고 있는 것이다.

廣範한 意味로 解釋하면 個人이 願하는 대로 行動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外部로부터의 어떠한 拘束이나 統制를 排除한다는 뜻이겠으나, 이러한 無制限의 自由는 共同生活을 하는 社會에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이러한 無制限의 自由는 남의 自由를 拘束하는 無秩序란 無政府狀態를 招來하는 原因이 될 것이다. 이러한 無政府狀態에서는 弱肉強食의 極限의 事態가 惹起될 것이며 萬人들 사이에 서로가 鬪爭하는 混亂한 戰爭狀態를 免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社會와는 關係없는 私的인 行動다시 말하면 他人에게 어떠한 影響을 미치지 않는 範圍 안에서 個人的 行動은 無制限의 自由가 許容될 수 있을 것이나 他人에게 影響을 미치는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은 無制限의 自由가 許容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論議의 對象이 되고 民主社會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主로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의 自由이다.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의 自由도 보는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할 수 있겠으나 흔히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의 셋으로 區分한다.⁸⁾ 이러한 分類는 보아서도 알 수 있 다시피 社會生活의 重要한 領域을 大別한 分類라 할 수 있다.

市民的 自由란 主權의 主體者로서의 國民個人이 누리는 基本權의 自由를 意味한다. 現代 民主國家들이 憲法에 規定하고 있는 國民의 基本權들은 平等權, 自由權, 生活權, 政治權, 受益權 등이

7) Ebenstein, W. and others *American Democracy in World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1967) pp. 221-222.

8) Ernest Barker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London, 1967, pp. 146-147, 차기벽 “민주주의의 확립”, 박종홍, 유달영(역) 국민윤리(서울: 삼화출판사, 1970) pp. 156-162.

며⁹⁾ 그중 自由權에 屬하는 基本權이 위에 分類한 基本的 自由의 範圍에 主로 該當된다.

基本權으로서의 市民的 自由도 크게 세 가지로 分類된다. 卽 生命, 健康, 移動에 對한 威脅이나 損傷으로부터의 自由와 不當한 拘束, 審問, 處罰, 體刑으로 부터의 自由를 意味하는 身體的 自由, 良心, 信仰, 思想, 言論, 出版, 結社의 自由를 意味하는 精神的 自由, 그리고 個人的 財產을 保護하고 契約行爲나 財產處分을 自由로이 할 수 있게 하는 財產權의 自由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미 指摘한 바 있듯이 自由 及至 基本權의 分類는 보는 觀點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自由라는 概念에서 強調되는 意味는 個人 自身の 最善을 이룩할 수 있는 自由 卽 自由로이 成長하고 生活할 수 있는 自由이다. 이러한 自由의 意義를 살리기 爲하여 現代 民主國家들이 取하는 두가지 觀點은 이렇하다. 卽 人間의 尊嚴性을 保障하기 爲하여 許容해야 할 基本的인 自由를 規定하고 이것을 國家權力의 侵害로부터 保障해야 한다는 觀點과, 國民이 人間다운 社會生活을 한다는 것을 人間이 갖는 基本權利 中의 하나라고 보고 이를 國家權力으로써 積極的으로 保障해야 한다는 觀點이 그것이다. 前者를 爲해서는 國家의 權力을 制限시키고 後者를 爲해서는 國家의 權力을 擴大시켜 積極的으로 關與시키는 方向을 現代 民主國家들은 取하고 있다. 前者를 自由權의 基本權이라 하고 後者를 生活權의 基本權이라 하여 分離하여 規定하고 있다.

以上에서 分類 提示한 現代 民主國家의 法을 保護하고 獎勵하는 自由 乃至 基本權의 重要한 骨子를 要約 提示 하면 다음과 같다.

가. 基本權의 自由

- 1) 自由로운 私生活을 할 수 있는 權利
- 2) 信仰을 自意로 選擇할 수 있는 權利(信仰 및 宗教의 自由)
- 3) 自由롭게 居住할 수 있는 權利(居住 및 移轉의 自由)
- 4) 自由로운 意思表示와 出版을 할 수 있는 權利(言論 및 出版의 自由)
- 5) 平和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權利(集會 및 結社의 自由)
- 6) 職業을 自由로이 選擇할 수 있는 權利(職業選擇의 自由)
- 7) 私有財產을 所有할 수 있는 權利(財產權의 自由)

나. 生活權의 基本權

- 8) 敎育을 받을 수 있는 權利
- 9) 自由로이 勞動할 수 있는 權利와 勞動者의 團結權, 團體交涉權, 團體行動權
- 10)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다. 政治的 自由

- 11) 自由選舉와 秘密投票를 行使할 수 있는 權利
- 12) 公務員選舉權과 公務擔任權

9) 文鴻柱, 憲法要論(서울: 法文社, 1968), pp. 94—95.

라. 經濟的 自由

- 13) 自由競爭을 通하여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權利
- 14) 契約을 自由로 이 締結할 수 있는 權利
- 15) 勞使間에 正當한 調整을 할 수 있는 權利

마. 基本權 保障을 爲한 基本權

- 16) 不當한 壓迫에 對한 呼訴를 할 수 있는 權利(請願權)
- 17) 犯法者의 正當한 法的 節次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18) 政府로부터 正當한 保護와 審判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

自然法的 國家契約說에 대한 自由主義思想은 人間의 自由를 超國家的 權利라고 主張하여 國家權力으로부터 自由를 獲得하는데 그 基礎를 이루었으나 現代 民主國家들은 國家의 모든 權力이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解釋하기 때문에 自由의 超國家的 解釋은 無意味하게 되었다. 自由權의 規定의 歷史的 背景은 어떠한 現代의 民主國家들은 自由를 基本權으로 規定하고, 이를 國家權力의 侵害로부터 保護하려 한다. 이러한 自由權의 規定은 憲法에 明示하는 것이 普通이나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의 自由도 尊重되어야 한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에 符合되는 信念이며, 自由의 統制나 制限은 반드시 法에 依해야 한다고 民主國家들은 解釋하고 있는 것이다.¹⁰⁾

以上에 列擧한 自由 乃至 基本權은 거의 다 社會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良心, 信仰, 思想 등의 自由와 같은 內面的 或은 他人과 比較的 無關한 私의 自由는 그러한 私的인 自由가 外部로 表明되고, 組織되고, 그리고 行動으로 옮겨지게 될 때 社會的 意味를 갖게되며 社會的 問題가 된다. 따라서 民主國家에서도 問題가 되고, 自由는 結局 그것이 外部로 表明되고 組織되는 言論의 自由와 結社의 自由의 問題에 集中된다. 여기에 主로 크게 問題되는 自由 乃至 基本權에 關해서만 添加해 두기로 한다.

言論의 自由는 民主的 生活過程과 政治過程에 있어서 必要不可缺한 條件이다. 모든 市民 個人이 自己의 意思를 自由롭게 表明할 수 없는 곳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이 實現될 수 없다. 어느 特定人의 意見이 옳고 그릇됨을 몇몇 小數人이 判斷하지 않고 國民 스스로의 判斷에 依하여 國民多數의 支持를 얻는 意見을 尊重한다. 多數의 支持를 얻는 意見이 반드시 옳고 眞理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어느 特定人의 意見을 옳은 것으로 받아 들임으로서 犯할 수 있는 잘못을 避하고 모든 個人의 意見을 尊重하는 뜻에서 民主主義는 多數가 支持하는 意見을 暫定的이나마 옳은 意見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個人의 意見을 尊重하고 言論의 自由를 許容함에 있어 民主主義가 가진 信念은 이렇다. 卽 人間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意見中에서 가장 옳고 옳은 意見은 言論의 自由가 保障되고 獎勵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참된 意見은 많은 사람의 同意와 支持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참되고 多數의 支持를 얻는 意見은 오래동안 살아남을 것이라 믿는다.

良心, 信仰, 思想 등의 內心的 自由도 그것이 外面的으로 表現되는 言論 및 出版의 自由없이는 保障

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結局 言論 및 出版의 自由는 精神的 自由를 保障하는 基本 要件이 되는 것이며 國民의 意見에 依한 國家意思의 決定을 尊重하는 民主主義는 言論 및 出版의 自由를 保障함이 없이는 成立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言論의 自由도 民主主義의 理念을 實現하는 基本 條件이며 民主主義의 存立을 決定하는 基本 條件이라고 말할 수 있다.

言論 및 出版의 自由가 個人的인 權利에 該當되는 것이라면 集會 및 結社의 自由는 集團의 性格을 갖는 權利에 該當된다. 集會 및 結社의 自由는 社會 成員들이 그들의 個人的인 意見을 좀 더 積極的이고 效果的으로 社會 或은 政府에 反映시키기 爲한 手段의 구실을 한다. 여기에서 말한 集會란 一定한 共同目標을 爲해 모인 一時的 會合을 뜻하는 것이며 結社란 一定한 共同目的과 意思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繼續性을 갖는 團體를 組織하는 것을 意味한다.

個人的 意思는 社會的으로 實現되고 政府에 反映될 可能性이 稀薄하기 때문에 個人들이 갖는 같은 意思를 效果的으로 反映할 수 있게 하기 爲해서는 個人들의 意思에 따라 團體를 組織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獎勵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는 社會的 方法인 것이다.

言論, 出版 그리고 集會와 結社의 自由 以外에 基本的 自由에 屬하는 居住 및 移轉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財産權의 自由 등은 現代 民主國家에서 別로 큰 社會的 問題를 惹起시킴이 없이 保障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基本的인 人權 乃至 自由도 共產國家에서는 許容되지 않고 있다는 事實에 留意해야 한다. 居住의 自由도, 職業選擇의 自由도 그리고 私有財産을 갖는 自由도 共產主義에서는 許容하지 않는다. 私有財産을 所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他人이 規定하고 指示 乃至 命令에 依하여 일하고 居住하게 되는 奴隸와 같은 삶을 維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共產國家의 現實이다. 이러한 곳에 個人的 意思가 尊重될 수 없고 人權 乃至 自由가 許容되거나 保障될 수 없으며 人間의 尊嚴性이 認定될 수 없다.

앞서 說明한 바 있듯이 基本權的 自由는 人間이 갖는 天賦不可讓의 人權으로 規定되고 國家權力이나 外部의 다른 어떠한 權力的 侵害로부터 保障되어야 하는 것으로 現代 民主國家들은 믿고 있다. 이러한 外部로부터의 侵害나 拘束에서 自由로워야 하는 消極的인 自由의 解釋에서 보다 積極的인 自由의 解釋으로 生活權의 基本權을 添加하고 있는 것이다. 즉 萬人이 다 人間다운 生活를 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 國家權力이 積極的으로 關與하여 萬人에게 敎育의 旗幟를 均等히 한다든지 基本的인 生活與件을 改善해 주는 方向으로 現代 民主國家들이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努力의 理念的 바탕은 自由의 擴大로 因하여 惹起되는 機會의 偏重과 富의 偏重을 是正하기 爲하여 萬人에게 自我實現을 可能케 하는 基本與件으로 敎育을 받을 權利, 勞動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爲한 勞動者의 團體交涉權 등을 認定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自由權과 生活權은 서로 對立되는 關係에 있게 된다. 自由權을 擴大하면 基本的인 生活權이 輕視되고 生活權을 實現하기 爲해 國家權力이 積極的으로 關與하면 自由權을 弱화시킬 憂慮가 있게 된다.

이러한 對立되는 關係는 自由權과 生活權과의 關係에서 뿐 아니라 보다 次元 높은 問題로 自由와 平等과의 關係에서 비롯된다.

自由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主義의 理念이나 目標이 아니며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통한 各者의 幸福한 生活를 營爲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主義가 指向하는 目的이며 이 理念的 目的을 實現하기 爲한 必要不可缺한 手段 乃至 條件으로 自由와 平等을 重要視하고 있음은 앞서 指摘한 바 있다. 따라서 自由라는 條件의 具現만으로 民主主義의 理念이 實現될 可能性이 稀薄해지자 平等이라는 條件의 具現을 強調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 平等이라는 概念이 갖는 意味를 다시 吟味할 必要가 있게 된다.

自由는 어느 特定人이 갖는 所有物은 아니다. 萬人이 같은 程度의 自由를 賦與받아야 하며, 같은 程度의 自由를 行使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平等이란 個人이 차지하는 社會的, 經濟的 職位 如何를 莫論하고 또는 人種, 文化的, 教育的, 背景 性別의 差異 없이 同等한 人間으로서의 價値와 尊嚴性을 認定받고 같은 對遇를 받는다는 뜻이다. 自由 亦是 萬人에게 같은 程度로 許容하고 獎勵해야 할 것이 平等의 概念에 包含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自由와 平等의 두 概念은 서로 相衝하는 面을 가지고 있음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萬若 自由를 絶對化하여 無制限의 自由를 追求한다면 他人의 自由를 侵害할 憂慮가 있게 된다. 無制限의 自由는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서로의 自由를 侵害하는 無秩序한 弱肉強食의 競爭의 混亂을 招來할 것이고 이러한 곳에 平等은 保障될 수 없게 된다. 平等을 또한 絶對視하여 個人差를 無視하고 外部의 強壓的인 힘으로 個人의 모든 活動과 生活를 똑같이 規定하려 한다면 個人의 自由를 拘束하는 結果가 된다. 이와 같은 自由와 平等의 相衝的 現象은 그것을 各己 絶對視할 때 일어나는 現象이나 實際的인 面에서 自由와 平等을 調和시키는데 있어서 多少의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뒤에 取扱될 自由와 統制에 關한 問題에서 自由와 平等의 關係에 對해서 다시 論及될 것이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要旨는 理解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自由와 平等은 民主主義의 最高 理念은 아니며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 個人의 最善我實現을 可能케 하는 民主主義의 最高 理念을 具現키 爲한 手段 乃至 條件이기 때문에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의 어느 하나를 絶對視하지 않으며 萬人이 다 各者의 最善을 이룩하고 各者의 自由로운 選擇에 依한 보람있는 生活를 營爲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自由와 平等을 適切히 調和시키는 問題를 現代 民主國家들은 深重히 取扱하고 있는 것이다. 平等을 保障하기 爲한 國家權力의 關與는 自由權의 積極的인 保障을 爲해서도 不可避하다는 解釋도 可能하나 基本權으로 認定하는 生活權의 保障을 爲해 必要한 措處라고 解釋하는 것이 보다 支配的이다. 그러나 生活權을 保障하기 爲한 國家權力의 關與는 自由權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만 許容된다.

政治的 自由는 國民이 國家意思의 形成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權利를 뜻하는 것이며 이를 흔히 參政權 或은 政治權이라고도 부른다. 參政權은 國家權力의 侵害로부터의 保障을 追求하는 自由權의 基本權과 國家權力의 關與에 依하여 保護되는 生活權과는 달리 國家權力에 直接 參與하는 積極的 權利이다. 이렇게 參政權은 모든 國家의 權力은 國民에 依하여 形成된다는 主權在民의 民主的 政治原則을 具現하는 根源이 된다. 國家權力에 直接參與하는 權利라고 해서 國民이 모두 統治權을 行使

할 수 있게 하는 것은不可能한 일이며 現代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方法은 國民이 代表를 選出하여 그들 代表로 하여금 國家權力을 代行케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뜻하는 狹義의 參政權은 代表를 選出하는 選舉權과 또한 國民 스스로 代表의 資格을 얻게 되는 被選舉權을 意味한다. 前者를 公務員 選舉權이라고도 하고, 後者를 公務擔任權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뜻하는 公務員이란 國會議員과 大統領을 爲始한 모든 行政公務員 그리고 司法官을 包含한다.

公務員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包含하는 參政權은 過去에 있었던 專制政治나 君主政治下에서는 國民에게 賦與되지 못했으며 特殊한 身分階層에 屬하는 小數人에게만 賦與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民主國家에서는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參政權을 附與하여 “主權在民”과 國民에 依한 政治의 信念을 具現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國家意思를 國民 스스로 決定하고 國家權力의 形成과 運營에 國民이 參與하여 國民이 國家의 主人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政治的 自由와 參政權의 行使에 關해서는 다음 章에서 取扱할 民主的 制度와 過程에서 다시 論議하게 될 것이다.

經濟的 自由를 廣範圍하게 解釋하면 모든 經濟活動의 自由를 意味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 解釋하면, 私有財産의 所有權과 處分權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自由競爭을 통한 利益追求權, 自由 契約締結權, 勞使間의 協商權, 勞動者의 團體交涉權, 私有財産 所有權 등을 넓은 意味의 經濟的 自由에 包含시킬 수 있을 것이나, 主로 問題되는 것은 私有財産의 所有權과 處分權이다. 後者를 흔히 財産權이라고 規定하고 이 財産權을 基本權의 自由權에 屬하는 것으로 分類한다.

基本權의 自由權으로서의 財産權이란 모든 個人이 自己의 財産을 神聖不可侵한 權利로 所有하고, 個人이 所有하는 財産을 個人의 意思에 따라 自由로이 處分할 수 있는 權利를 意味한다. 이렇게 神聖不可侵한 權利로 規定한 基本權의 自由權에 屬하는 所有權 乃至 財産權은 法律에 依하여 公共必要를 爲하여 明白히 要求되는 것이 認定되고, 또 正當한 補償이 支拂될 條件이 아니면 어느 누구에 依해서도 剝奪될 수 없는 것이다. 人間이 自己의 勞動을 통하여 만들어낸 生産物이나 勞動을 통하여 獲得된 經濟的 價値가 있는 物件은 그 個人에 所屬되는 財産이며 그 財産에 對한 權利는 어느 누구도 侵犯할 수 없는 權利라고 規定하여 身體的 自由와 精神的 自由와 마찬가지로 基本權의 自由權으로 認定하는 것이다.

經濟的 自由는 이러한 所有權 乃至 財産權에 局限되지 않고 生活權의 基本權으로 規定한 勤勞權, 勞動者의 團體交涉權, 自由競爭을 통한 利益追求權, 契約締結의 自由 등으로 擴大되어 經濟活動 原理가 되었으며 이는 結局 資本主義의 經濟를 急速度로 發展시키게 된 原動力으로 作用하게 된 것이다. 經濟的 自由의 問題는 다음 章인 ‘民主的 制度와 過程’에서 다시 取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基本權 保障을 爲한 基本權의 意義를 簡略히 說明하려 한다. 지금까지指摘한 모든 基本權 즉 自由權, 生活權, 政治權, 財産權을 保障하기 爲해서는 다른 方法과 節次가 要求된다. 國家權力 以外の 個人 乃至 團體에 依하여 不當하게 個人이 享有하는 基本權을 侵害 當했을 때 이를 呼訴할 수 있는 權利는 基本權을 保障하기 爲한 基本權에 屬한다. 이러한 基本權 中には 請願權, 正

當한 裁判을 받을 權利, 損害賠償請求權 等이 있으며 이러한 基本權을 흔히 受益權이라고도 한다. 國民의 基本權이 外部로부터 不當하게 侵犯當하거나 또는 侵犯當할 憂慮가 있을 때 이를 救濟하고 保護할 수 있는 法的 措處는 모든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기 爲한 必要한 基本的 條件이 된다. 이러한 保障없이 다른 基本權의 行使는 事實上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犯法者라 하더라도 正當한 法的 節次에 依하여 事實이 糾明되고, 正當한 罰이 宣告되기까지는 身體의 自由는 保障된다. 이러한 모든 法的 措處는 人間의 尊嚴성과 人間의 基本權利를 保護하기 爲한 것임은 否認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必要不可缺한 條件이며 生活原理인 自由와 平等 그리고 基本權은 最大限으로 許容되고 獎勵되어야 하는 問題를 지금까지 論했다. 여기에서 民主市民으로서의 個人이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져야할 責任과 義務의 問題는 取扱되지 못했다. 民主市民으로서의 個人이 지는 責任과 義務도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必要 不可缺한 條件이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自由와 平等, 그리고 基本權을 最大限으로 許容하고 獎勵해야 겠지만 社會的 意味를 갖는 自由는 無制限으로 許容될 수 없게 된다. 또한 民主主義의 社會에서는 個人에게 正當한 自由와 權利를 賦與함과 同時에 圓滿한 共同生活과 社會的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義務와 責任을 賦與하게 되는 것이다.

極端的이고 無制限의 自由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破壞하는 結果가 되고 無秩序한 無政府的인 混亂한 社會를 惹起하는 結果가 된다. 特定人에 주어지는 極端的인 自由는 다른 個人의 自由와 權利를 侵害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個人은 누구나 같은 程度의 自由와 平等 그리고 權利를 保障해야 한다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民主的 生活原理이기 때문에 어느 特定人에게만 無制限의 自由와 權利를 賦與할 수 없는 것이다.

人間은 他人과 어울려 서로 影響을 미치게 되는 共同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個人의 自由에는 限界가 있게 마련이다. 個人 各々が 自己 나름으로의 無制限의 自由를 追求하려들면 結局 서로의 自由를 侵害하게 되고 나아가 弱肉強食하는 無秩序한 社會를 招來하고 社會의 安全과 秩序는 破壞될 것이기 때문에 國家는 法에 依하여 個人의 自由를 制限하고 統制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해야 할 點은 自由의 制限은 어디까지나 社會의 安全과 秩序를 維持하고 모든 國民 個人에게 같은 程度의 自由를 保障하기 爲하여 取해지는 必要한 最小限의 措置에 局限되어야 하며 결코 個人이 當然히 享有해야 할 基本權을 抑壓하거나 剝奪하는 範圍에까지 自由의 制限이 擴大될 수는 없다는 點이다.

萬人의 自由와 人權을 保護하고 社會의 秩序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加하는 自由의 制限은 이미 指摘한 바 있듯이 他人의 自由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에 局限된다. 社會的 意味를 갖는 行動에 限해서만 制限과 統制를 加하게 되는 것이 民主主義의 社會에 있어서의 統制의 原則이다. 社會의 秩序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不可避하게 統制를 加하지 않을 수 없는 問題가

흔히 論議의 對象이 되는 것은 言論의 自由에 對한 統制, 結社의 自由에 對한 統制, 그리고 經濟的 活動에 對한 統制 等に 關한 것이다.

言論의 自由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基本的인 要件이며, 이를 自由權의 基本權의 하나로 規定하고 있다는 點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言論의 自由가 지나쳐 他人의 尊嚴性을 損傷한다든가, 社會의 秩序와 安全을 破壞한다든가 社會의 美風을 더럽힌다든가, 또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積極的으로 否認하여 民主主義의 社會制度의 存立을 危殆롭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萬人의 自由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個人的 自由를 制限 혹은 統制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結社의 自由에 對한 統制도 組織의 結果로나 團體가 組織된 힘으로 個人이나 다른 團體의 權益을 侵害하거나 또는 民主的 秩序를 攪亂 乃至 否認할 때에는 不可避하게 加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經濟的 自由 亦是 個人的 財產權을 保護하는 消極的 目的 以外에 보다 積極的인 保護를 爲한 目的으로서 萬人이 人間으로서의 完成을 圖謀할 수 있는 基本的 要件을 保障하기 爲하여 어느 程度의 統制는 不可避한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生活權의 基本權을 保障하기 爲하여 國家權力의 積極的인 參與가 要請되고 있음을 앞서 說明한 바 있다. 擴大된 自由를 土壤로 絶頂에 達한 自由競爭은 機會의 不均等과 貧富의 差를 擴大시켜 놓게 되어 基本的인 生活을 爲한 物質的 諸條件을 갖추지 못한 者는 人間다운 生活을 開拓할 可能性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基本的인 生活條件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完成을 期待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사람의 數가 많아질 境遇 民主主義의 理念具現은 口號에만 끝이게 될 憂慮마저 있게 된 것이다. 이에 萬人이 人間으로서의 完成을 圖謀하게 한다는 民主主義의 目的을 具現하기 爲하여 國家權力의 積極的인 介入이 要請되었던 것이며 人間다운 生活을 開拓할 수 있는 基本的인 諸條件을 保障하기 爲한 計劃을 政府가 樹立하고 이 計劃의 推進을 爲한 經濟活動의 統制는 不可避한 措置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言論의 自由, 結社의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를 어느 程度 統制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를 簡略히 說明했으나 實際로 統制하는 方法과 程度에는 어려운 問題가 隨伴된다. 더욱이 어느 程度로 自由를 許容하고 어느 程度로 統制를 加하는 것이 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을 損傷하지 않고 萬人을 爲한 保護措處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判斷하는 基準의 設定이 크게 問題된다. 善意의 目的을 爲한 統制라 하더라도 이를 惡用하여 不當하게 國民을 抑壓할 可能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惡用의 可能性을 排除하기 爲하여 正當한 法的 節次에 依하여 自由를 統制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民主國家에서 擇하고 있는 統制의 方法이다.

言論 및 結社의 自由를 統制하기 爲하여 民主國家들이 使用하고 있는 方法을 두가지로 分類하여 생각할 수 있다.¹¹⁾ 그 하나는 言論, 出版, 結社의 自由를 事前에 制限하는 法的 規制와, 다른 하나는 法에 規定한 制限을 違反한 사람이나 集團에 加하는 法的 制裁이다. 集會나 出版의 許可를 事前에 正當한 節次를 거쳐 政府로부터 받게 하는 措處는 前者에 屬하는 統制方法이며, 法的 制限을 違反한 言行에 對해서 罰을 加하는 것은 後者에 屬하는 統制方法이다. 事前統制 方法과 事後處罰 方

11) Ebenstein, et al. *op. cit.*, p. 225.

法中 前者의 方法이 自由를 不當하게 抑壓할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解釋하여 政府에 그 統制의 限界를 嚴格히 規定해 주도록 措處하고 있다. 事前統制는 그 方法 如何에 따라 自由의 實現을 事前에 封鎖해 버릴 可能性이 있게 되나 事後處罰의 方法은 正當한 法的 節次를 거쳐 그 違法性如何를 公開的으로 판가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自由가 不當하게 抑壓되거나 不當한 處罰을 받게 될 可能性은 적게 된다.

言論, 出版, 結社의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의 範圍와 限界는 法律에 具體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더 以上の 詳論은 避하나 個人의 自由에 統制를 加하게 되는 根本 趣旨은 民主市民으로서 充分히 理解하고 있어야 한다. 個人은 自己의 自由와 權利를 主張할 수 있음과 同時에 他人의 自由와 權利를 尊重하고 國家의 秩序와 安全을 爲한 責任과 義務를 지니고 있다는 事實을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家가 萬人이 같은 程度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기 爲하여 個人에게 賦課하는 責任과 義務를 다 할 것은 물론 民主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해 民主市民으로서의 個人이 스스로 實踐해야 할 社會的 責任 亦是 크다. 民主主義는 하나의 完成된 理念이나 制度가 아니며 國民 個人 스스로의 勞力에 依하여 가꾸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主義 理念具現을 爲하여 個人에게 賦課되는 責任은 더욱 큰 것이다. 共產國家와 같은 專制主義 乃至 獨裁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個人은 獨裁者의 指示나 命令에 追從하는 것이 義務이고 責任일 것이나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個人은 스스로의 判斷에 依한 自決的 勞力을 尊重히 여기기 때문에 個人이 지는 責任과 義務는 더욱 莫重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¹²⁾ 여기에 個人이 自覺하고 實踐하도록 努力해야 할 社會的 責任의 例를 提示해 둔다.

- 1) 尊嚴性과 價値를 가진 人間으로서의 自己自身에 充實하고 最善의 實現을 爲해 努力해야 한다.
- 2) 社會의 道德的 規範에 벗어나는 行動을 삼가해야 한다.
- 3) 個人이 지닌 潛在能力과 技術을 最大限으로 發展시켜 그 個人의 幸福한 生活을 追求함은 물론 그의 모든 才能을 社會的으로 有用하게 使用하여 社會福祉 增進에 貢獻할 수 있도록 最大限의 勞力을 傾注해야 한다.
- 4) 個人은 自己의 自由와 權限을 行使함에 있어 他人의 正當한 自由와 權利를 侵害하지 않고 社會의 秩序와 福祉를 損傷함이 없고 또한 國家의 安全을 危脅하지 않도록 自制하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
- 5) 國家의 非常時에 國家의 安全을 爲해 個人에게 賦課되는 責任과 義務를 遂行함에 積極 協力해야 한다.
- 6) 民主主義의 實現過程에 있어 個人間 或은 集團間에 協同과 競爭은 不可避한 것이나 正當한 方法에 依한 善意의 競爭을 擇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 7) 社會事情에 精通하고 社會正義의 實現을 爲해 貢獻할 義務와 責任에 充實해야 한다.

12) Becker, Carl,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American way of Life*, New York: Knopf, 1945.

3. 理念具現을 爲한 努力

人類史全體를 통하여 끊임없이 繼續된 思想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人間의 價値를 높이고자 하는 人間尊重 思想이다. 人間尊重 思想을 그 理念的 바탕으로 하는 民主主義는 短時日 內에 小數人의 勞力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오랜 歷史를 통하여 數 많은 사람의 努力과 鬪爭으로 가꾸어지고 키워진 것이다. 여기에 그 努力의 자취를 簡略하게 살펴보면 民主主義라는 꽃을 가꾸어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한 國民 스스로의 繼續的인 努力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다시 마음 속 깊이 새겨보기로 한다.

사람의 價値를 높인다는 것이 事實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過去에 있었던 人類의 生活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 人類가 社會나 國家를 形成하여 共同生活을 하기 始作하면서 共同生活에 必要한 秩序를 確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 秩序를 어떻게 確立하는냐에 따라 個人은 無視되기도 하고 그 秩序維持를 爲한 道具로서 使用되기도 했다. 人間尊重 思想이 덜 發達되었던 時代의 社會에서는 힘이 弱한 者と 地位가 낮은 者는 힘이 센 사람과 地位가 높은 사람의 種 노릇을 免치 못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팔고 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對人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社會秩序가 當然한 것으로 생각하던 時代가 오래 繼續되었으나 人間의 知的 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人間이 奴隸나 종으로 或은 物件으로 取扱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人間은 人間으로서의 待接을 누구나 같이 받고자 하는 人間尊重 思想이 서서히 淸快히 始作했던 것이다. 이러한 人間尊重 思想이 正確히 언제 어느 누구에 依해서 始作되었는지는 알 수 없을 것이나 暴惡하게 힘이 센 사람과 地位가 높은 사람에게서 시달림을 받은 者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記錄이 남은 以前에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든 始作된 人間尊重 思想은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에 부딪쳐 한동안 屈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大衆의 마음에 點火되어 꺼질 줄 모르는 聖火로서 은 人類의 마음에 타오르게 된 것이며, 때로는 무서운 힘으로 暴發되기도 했던 것이다.

民主主義(Democracy: 國民을 뜻하는 Demos와 支配를 뜻하는 Kratein을 합친 用語로서 “國民의 支配”를 意味하는 것)라는 用語를 紀元前 5世紀에 希臘의 歷史家 「헤로도토스」(Herodotus)가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世紀에 와서 그 概念이 眞摯하게 論議되고 널리 알려지게 된 事實만으로도 人間尊重 思想을 그 理念的 바탕으로 하는 民主主義의 具現이 얼마나 오랜 試鍊을 거쳤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國民에 依한 統治體制를 처음으로 갖춘 것으로 記錄上에 알려진 나라는 古代 希臘의 都市國家中의 하나인 「아테네」이나 希臘에서도 가장 不利한 地理的 條件을 가진 「아테네」에서는 몇몇 思想的, 政治的 指導者(Pericles Solon, Herodotus Cleisthenes 등)¹³⁾의 先導와 大衆의 呼應에 依하여 그 當時의 支配的 統治體制인 君主制와 貴族制를 打破하고 市民 大多數의 參政을 許容하는 代議的 統治體制를

13) Brinton, C. and others, *A History of Civiliz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0 梁秉祐外三人譯, 世界文化史, (上) (서울: 乙酉文化社, 1971), pp.90~98.

樹立했던 것이다. 市民多數가 野外廣場에 모여 行政權을 擔當할 代表를 選出하고, 法을 制定하는 民會를 構成하고, 犯法者에 對한 刑을 決定하는 등 國家 意思의 決定과 行使에 直接 參與했던 것이다. 實際에 있어 參政하는 市民의 數는 制限되어 있었으나, 그 當時 희랍의 다른 都市國家들이 擇한 君主制나 貴族制에 比하면 「아테네」의 統治體制는 卓越한 民主制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當時의 僭主政治 : (Tyranny)를 表面的으로 非難하고 法の 尊重을 強調하여 市民多數의 參政을 勸獎한 點 등으로 보아 「아테네」의 統治體制는 民主主義 理念의 出現을 爲한 礎를 構築하는 貢獻을 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희랍時代 以後 人間尊重 思想의 發達에 크게 貢獻한 事件은 西紀 初에 있었던 「로마」法の 制定이다. 善과 公正을 期한다는 法の 精神을 確立한 點도 重要하지만, 國家權力을 拘束하는 法的 規定은 물론 市民의 權利를 明白히 하고 奴隸의 救濟策을 法에 挿入한 點等은 人間尊重 思想의 發達에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된 것으로 解釋된다. 더욱기 「키케로」(Cicero)에 의하여 完成된 모든 法에 우선된 自然法의 制定은 民主主義 發達史에 크게 貢獻한 事件이라 아니할 수 없다. 人爲的으로 制定되는 모든 實定法의 理念法源으로 看做되는 自然法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는 普遍妥當한 規範을 意味하는 것으로 그 內容의 規定에 있어서는 ‘自然’의 뜻의 解釋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키케로」가 規定한 自然法에는 人間에게 賦與되는 自然權을 最初로 明白히 하고 이 自然權은 누구에 依해서도 否定될 수 없는 것이라 宣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自然法 思想은 中世의 代表的 神學者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依하여 더욱 具體化되어 基督敎의 自然法 思想으로 擡頭되었고, 뒤이어 17世紀에 이르러 「그로티우스」(Hugo Grotius), 「홉스」(Hobbs), 「로크」(Locke), 그리고 「루소」(Rousseau) 등의 思想家에 依하여 人間의 本能을 自然으로 規定하는 經驗的 自然法을 土臺로 社會契約說이 發達되었던 것이며, 나아가 人間의 理性을 自然의 概念으로 說明하는 理性的 自然法을 「칸트」(Immanuel Kant)가 完成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思想的 背景이 人間尊重 思想을 發達시키게 된 바탕이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一聯의 思想的 發展에도 不拘하고 中世紀는 大體로 民主思想이 자랄 수 있는 風土는 되지 못했다. 이시기 동안 強力한 힘으로 統治體制를 갖춘 封建制度下에 一部 貴族 乃至 王族이 모든 權限을 獨占하고 있었으며 大衆은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身세를 면치 못했다. 이 時代를 가리켜 歷史家들은 暗黑時代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條件下에서도 點火된 民主主義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繼續되어 간혹 큰 爆로 化하여 世界 人類의 耳目을 끌기도 했다.

1215年 英國에 있었던 大憲章 (Magna Carta)의 制定이 그 한 例이며 이 大憲章의 制定으로 因하여 英國, 美國의 權利가 크게 伸張되었던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人權思想과 自由思想의 發達에 큰 刺戟劑가 되었던 것이다. 이 大憲章에 人間의 讓渡할 수 없는 權利라든지 또는 人間이 나면서부터 自由롭고 平等하는 것에 對한 言及은 없었으나 많은 部間의 權利를 國民에게 認定하게 되어 이로부터 英國國民의 權利가 점차 擴大된 것은 事實이며 뒤이어 1295년에는 所謂 ‘模範 國會’라는 것이 構成되어 國民들이 國政에 參與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⁴⁾.

民主主義를 渴望하는 불길은 中世 暗照時代동안 꺼지지 않는 않았으나 크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려 있었으나 여러가지 事件을 치루게 된 中世 末葉에 다시 크게 타오르기 始作했다. 人間尊重과 自由를 追求하는 불길이 14世紀 伊太利를 中心으로 일어난 「르네상스」運動 (文藝復興運動)을 通하여 크게 번졌다. 처음에는 이 運動이 伊太利에서 일어났으나 점차 그 勢力이 擴大되어 「유럽」 여러 나라로 번져 걸잡을 수 없는 힘으로 그 威勢를 보였다. 「르네상스」(Renaissance)를 우리는 文藝復興 運動이라 命名하지만 그 以上の 뜻으로 그 當時 支配的이던 封建制度와 基督敎會가 갖던 모든 權利를 否定하고 人間性을 甦았으려는 運動이었고 묵은 傳統과 굳어진 權威에 反抗하고 사람의 價値를 높으려는 努力에서 始作된 運動이었던 것이다¹⁴⁾.

오래 동안 傳統과 權威에 늘려 피지 못한 大衆의 知的 活動이 이러한 運動으로 因하여 活發해지기 始作하여 文藝部門에는 물론 科學 技術의 發達이 크게 促進되었다. 科學的 思考 方式의 發達은 過去에 믿었던 眞理를 再檢討하게 되었고 知識의 普及을 促進하게 되어 自由思想의 불길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타오르기 始作한 불길은 여러 곳에 번져 16世紀 獨逸을 中心으로 宗教改革 思想을 불러 이르켰고, 繼續해서 17世紀 英國의 民權運動, 18世紀 啓蒙運動, 美國의 獨立運動과 1776年의 美國의 獨立宣言, 1789年의 佛蘭西 革命等 巨大한 힘으로 暴發되어 막을 수 없는 勢力으로 擴張된 것이다. 이러한 勢力의 結晶體로서 1948年 12월에 48個國이 「유엔」總會에 모여 世界人權宣言을 採擇 公表하게 된 것이다. 이 世界人權宣言에 明示된 人間의 基本權利의 要旨는 本章의 두번째 章에 紹介된 內容과 거의 같다.

人間의 價値를 높이기 爲하여 始作된 民主主義는 그 展開過程을 簡略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의 험한 길을 걸어 끊임없이 人類의 마음에 傳達된 것이며 國民의 스스로의 努力에 依하여 가꾸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課題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人間의 價値를 높인다는 것이 끝이 있을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民主主義는 어느 限界線까지를 理想的인 狀態로 假定하지 않으며 언제나 보다 나은 狀態로 指向하기 爲하여 努力하는 過程을 重要視한다. 過去에도 그러했듯이 民主主義는 어느 特定人에 依하여 完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國民 스스로의 努力으로 가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主義 理念의 實現 如否는 國民 스스로의 努力 如何에 달려 있음을 自覺하고 참된 民主社會 建設을 爲해 各者가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分明히 하여 實踐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各者 自己의 價値를 높이는 일이고 나아가 民主社會를 建設하는 일이 된다.

第 2 章 民主的 制度와 過程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모든 政治 및 經濟制度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實現하기 爲하여

14) 梁秉祐外三人譯, 世界文化史(上), Ibid, pp. 421—426

15) 吳天錫, 前揭書, pp. 27—29

만든 實際의 統治體制라고 하는 點과 또한 民主主義의 本質은 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을 認는 信念과 그 信念을 實現하기 爲한 統治體制와의 兩側面에 依해서 規定된다고 하는 點을 前章에서 指摘한 바 있다.

民主主義는 理念을 重要視 할 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그 理念을 實現하기 爲한 方法과 過程을 또한 重要視 한다. 理念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理念을 實現하는 方法과 過程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 어긋나는 것이면 民主主義의 뜻은 喪失되는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民主主義의 死活的인 問題는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制度와 그 制度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있다.

本章에서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만든 政治 및 經濟制度, 그리고 그 制度의 運營過程을 概觀하고 나아가 이러한 制度의 運營過程에 參與하는 個人 및 團體의 役割을 分析 論議할 것이나 이에 앞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一致되는 民主政治의 理念的 바탕을 먼저 論議하려 한다.

1.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手段과 方法인 制度는 多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들 制度가 세워진 바탕되는 理念은 變化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따라서 現代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여러 類型의 制度를 理解하기 爲해서는 制度들이 세워진 바탕되는 理念을 먼저 理解함이 要望된다.

모든 類型의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基本 理念인 人間的 價値와 尊嚴性을 認는 信念을 具現하기 爲한 것임은 附言의 餘地가 없는 것이나 이 基本的인 理念은 比단 政治制度에서 뿐아니라 社會의 모든 制度와 生活樣式에서도 具現되어야 하는 가장 基本的으로 바탕되는 理念인 것이다. 따라서 政治制度를 樹立함에 있어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一致되는 보다 具體的인 政治理念의 挑出이 必要하게 된다. 여기에 먼저 모든 民主의 政治制度의 基盤이 되고 있는 理念的 (想定)을 要約 提示하고¹⁾ 이들 下位理念과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의 關係를 밝힐 것이다.

- 1) 人間은 自己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自治的 能力을 가지고 있다.
- 2) 國家의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오며 國民에게 歸屬된다.
- 3) 公務員은 國民公僕으로서의 責任을 갖는다.
- 4) 國民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正當한 法的節次에 依하여 政府를 改編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갖는다.
- 5) 政府는 社會福祉를 增進시켜야 할 義務와 責任을 진다.
- 6) 政府는 사람의 恣意에 依해서가 아니라 法에 依하여 運營되어야 한다.

여기에 提示한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一致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民主主義의 政治領域에 解當되는 下位理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理念的 想定中에서도 가장 基本的인 것은 第一 처음에 提示한 國民 個人的 政治的 能力에 對한 信念과 主權在民에 對한 信念이다.

1) The Citizenship Education Projec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 *When men are Free: Premises of American Liberty*, (New York: Houghton Mifflin, 1955).

民主主義는 國民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을 믿고 이를 더욱 伸張시켜 國民 個人的 最善我實現을 可能하게 하려는 것이 民主主義의 理念的 目的이다. 이러한 理念과 理念的 目的에 符合되는 統治體制인 政府는 國民 스스로에 依한 政府라야 할 것이다. 國民에 依한 政府의 樹立은 國民 個人的 自治의 能力을 믿지 않고는 不可能하다.

民主主義는 國民 個人的 自治의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 스스로의 힘과 努力에 依하여 樹立 運營되는 政治形態를 國民을 爲한 가장 좋은 政治가 될 것을 믿고 또 바라는 것이다. 흔히 民主政治의 定義로서, 「國民의 國民에 依한, 그리고 國民을 爲한 政治」라고 規定한다. 이 定義 中에도 民主主義의 政治的 理念의 核心을 表現한 句節은 「國民에 依한 政治」인 것이다.

政治의 形態가 形式上 「國民의, 政治」이고 表明上 「國民을 爲한 政治」라도 그것이 「國民에 依한 政治」가 아니면 民主政治라고는 할 수 없다. 共產主義의 全體主義 政治나 君主主義의 專制政治도 그들은 「國民의, 그리고 國民을 爲한 政治」라고 表面的으로 主張하지만 그러한 類型의 政治는 「國民에 依한 政治」가 아니기 때문에 民主政治라고는 할 수 없다. 萬一 國民의 自治의 政府와 國民을 爲한 좋은 政府中 擇一 하라고 하면 民主主義는 外部나 一部 特殊層의 사람에 依해서 決定되는 完成된 政府보다 未完成된 政府라도 國民에 依해서 決定되는 國民의 自治의 政府를 擇할 것이다.

民主政治는 모든 政治的 權力이 國民에게 있음을 믿는다. 즉 主權在民에 對한 信念이 民主政治의 特性이다. 모든 政治的 權力은 國民에 依해서 決定되며, 國民에게 歸屬되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의 意思에 依해서 政治를 樹立하고 또 國民의 必要에 따라 正當한 法的 節次에 依해서 既存의 政府를 改革하고 變化시킬 수 있는 權限을 國民이 갖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實現하기 위하여 以上에 例示한 政治的 信念을 土臺로 國家의 統治體制를 確立하게 된 것이 오늘날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政治制度인 것이다. 國民의 自治의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의 自治의 政府가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理想的 政府形態일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國民 모두가 行政府를 運營한다는 것은 不可能 하다. 따라서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方法은 最大限으로 國民의 參與를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政府를 運營할 사람을 選出하여 그로 하여금 權利를 代行하게 하는 것이며 國民 모두가 直接 立法할 수 없기 때문에 立法者를 選出하여 그들로 하여금 立法의 權利를 代行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國民으로부터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者들이 그 權限을 濫用하거나 惡用하여 도리어 國民의 自由를 拘束하는 危險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前章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權限을 委任받은 代表者들이 저지를 수 있는 危險性을 排除하기 위하여 國民에게 政治的 自由를 許容하고 保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民에게 주어진 選舉權으로 政權을 交替시킬 權限을 國民이 確保하고 있으며, 이러한 權限으로서 國民은 政府의 權力濫用을 牽制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政府는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을 代行함에 있어 國民의 意思를 最大限으로 反映시켜 個人的 福祉는 물론 社會福祉를 增進시켜야 할 義務와 責任을 지게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政府를 運營할 사람이 그 個人的 恣意에 따라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權限을 惡用할 可能性이 있

기 때문에 國民의 權限을 代行하는 方法과 節次를 法으로 規定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政府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法에 의해서 運營되는 點이 民主政治의 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強調해 두고 싶은 點은 上述한 民主政治의 理念的 上程은 人間의 價値와 尊嚴性을 믿는 信念과 人間의 價値를 모든 制度보다 優位에 두려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서 挑出된 것이라는 點이다. 뒤에 論議될 民主主義의 自由經濟體制의 바탕이 되는 經濟的 理念도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個人的 '幸福追求'를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勸獎하려는 經濟活動의 基本原理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에 대한 信念과 個人的 最善我實現과 一致되는 것이다. 民主的 政治制度의 基本原理가 個人的 自治的 能力을 믿는 信念에 그 基盤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經濟體制의 基本原理도 個人이 自己의 幸福追求를 하는 能力과 努力을 믿는 信念에 두고 個人的 經濟活動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保障하려 한다.

個人的 幸福은 外部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個人 스스로의 主觀的 判斷과 努力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임을 民主主義는 믿으며, 바람직한 生活을 위해 必要로 하는 精神的 物質的 手段을 獲得함에 要求되는 能力과 努力을 個人이 所持하고 있음을 民主主義는 믿기 때문에 個人에게 自由스러운 經濟活動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獎勵하려는 것이 自由經濟의 基本理念인 것이다. 前章에서 紹介한 '經濟的 自由'에서 明示한 여러 項目의 基本精神도 結局 個人的 '幸福追求'에 대한 信念에 그 基盤을 두고 있으며 民主社會에서의 經濟活動에 대한 法의 規定도 이러한 信念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民主的 政治制度와 經濟體制

앞서 여러번 指摘한 바와 같이 現代의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政治制度나 經濟體制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하여 만든 手段과 方法인 것이다. 따라서 이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方法과 手段은 多様할 수 있으며, 時代에 따라 文化的 背景과 社會的 與件을 달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時代에 따라 달리 나타난 政治形態나 經濟體制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없고 또한 나라마다 다른 여러 類型의 制度를 다 檢討할 수 없다. 다만 現代의 여러 나라들이 擇하고 있는 共通의인 類型의 政治制度와 經濟體制의 特性을 概觀하면서 이들 制度들이 民主主義의 基本 理念과 앞서 提示한 民主政治의 理念的 想定과 어떠한 關聯性을 갖는가를 밝히는 點에 強調를 두려한다. 그리고 便宜上 政治制度를 먼저 取扱하고 經濟體制에 關해서 뒤에 論議하기로 한다.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가장 理想的인 政治制度는 國民에 依한 自治的 政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 그러한 形態의 政治制度는 不可能하다는 點을 앞서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國民의 自治的 能力을 믿기 때문에 「國民에 依한 政治」라야 한다는 理念을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理念을 現實적으로 實現 가능한 方法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國民 모두가 行政府를 運用할 수 없기 때문에 政府를 運用할 사람을 選出하여 그들에게 國民의 權限을 委任하고 있으며 또한 國民이 選出한 代表에게 立法의 權限을 委任하고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政治制度는 이와 같이 國民이 國家權力을 行使할 指導者를 選出하는 方式과 이 方式

에 따라 選出된 指導者가 權力을 行使하는 方式을 法으로 規定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民主的 政治 方式은 全國民의 意思가 可能한 限 잘 反映되도록 하려는 制度로 具體化된다. 立憲制度, 代議制度, 三權分立制度, 選舉制度, 複數政黨制度 등이 國民의 意思가 잘 反映되고 實踐되도록 하기 위한 制度의 例다. 民主主義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위한 方法으로 採擇되는 制度의 形態는 多樣할 수 있다. 事實上 先進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制度는 各己 다르다.

立憲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政治制度의 本質的 特徵이라 할 수 있을 程度로 重要視 여겨지고 있으나 成文化된 憲法의 存在 如否로 民主的 혹은 非民主的 國家를 判가름할 수는 없다²⁾. 先進 民主 國家의 하나인 英國의 境遇 成文化된 憲法은 없으며 共產獨裁의인 소련은 成文化된 憲法을 가지고 있다. 英國은 成文化된 憲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立憲政治 制度를 가지고 있으며 憲法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은 各種 法令, 司法判例, 貫例의 綜合인 것이다. 소련은 憲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憲法이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는 制度를 規定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憲法이 立憲政治制度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憲法에 따른 統治體制를 樹立하는 것이 立憲政治이며, 立憲政治의 基本的 精神은 從前의 小數 特殊層의 「人間에 依한 政府」에 「法에 依한 政府」를 代置함으로써 國家를 統治함에 있어 人間的 自意의 濫用을 制限하고 國民 모두의 意思를 充分히 反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立憲政治는 民主的 政治制度로의 必要條件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立憲主義를 民主主義와 同一視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立憲主義 國家라고 해서 반드시 民主主義 國家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憲法의 有無로 民主的 혹은 非民主的 國家를 判가름할 수는 없고 憲法의 內容 如何로 民主的 혹은 非民主的 國家를 判가름하게 된다³⁾. 政府의 權力을 制限하고 國民의 基本權利를 規定하고 그 밖에 모든 節次와 制度를 規定한 憲法의 內容에 따라 政府가 樹立되고 運營될 때 이를 立憲 民主政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立憲 民主主義는 國民의 意思가 表明되고 反映될 수 있게 하는 制度를 必要로 한다. 「國民에 依한 政府」를 實現하기 爲하여 近代 民主國家들이 擇하고 있는 政治制度는 政府를 運用할 사람을 選出하고 그들 代表에게 權力을 委任하는 間接民主政治 乃至 代議政治의 方式인 것이다.

代議政府는 國民의 選舉를 通하여 그들의 代表者를 選出하고 代表로 하여금 社會 乃至 國家의 意思를 決定, 執行하게 하는 政治制度이다. 따라서 代議政治의 中核은 國會인 것이다. 國民은 選舉를 通하여 立法者인 國會議員을 選出하고 그들에게 立法의 權限을 委任하고 있는 意味에서 國會가 代議政治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도 역시 國民의 選舉에 依하여 選出된 代表者이기 때문에 政府도 代議的 性格을 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國會와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은 同等한 地位에 있으면서 權力을 서로 牽制하게 된다.

2)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in World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1967). pp. 119-120.

3) Loewonstein, Karl,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Chicago: 1965), pp. 148-149)

民主主義의 國家에서의 政治制度는 實質的으로 國家의 權力을 制限하기 爲한 것으로 三權分立의 根本的인 意義 바로 權力의 集中을 避하기 爲한 方法으로 採擇된 制度이다. 君主나 獨裁者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權力을 掌握한 者는 그것을 濫用하게 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國家의 權力을 立法權, 行政權 그리고 司法權의 셋으로 分立시키고 이를 各各 獨立機關에 賦與하여 서로 牽制하여 權力의 濫用을 防止하고 權力의 均形을 維持하고 있다.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의 政治制度에는 小數人의 自意에 따른 權力의 濫用을 防止하기 爲한 立憲制度와, 國民의 意思를 効率的으로 反映시킬 수 있는 代議制度, 그리고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고 代表에게 주어진 權力을 서로 牽制하고 補完하기 爲한 三權分立制度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 基本理念과 政治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方法으로서의 制度와, 政治技術은 國家의 特殊事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立法權이 주어진 立法府도 單院制를 擇하고 있는 民主國家도 있으면 兩院制를 擇하고 있는 國家도 있다. 行政府 역시 나라마다 다른 形態를 擇하고 있다.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오랜 歷史를 통하여 다듬어진 이들 制度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效果的으로 具現할 수 있는 現存하는 모든 制度中 最上의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修正과 補完이 必要치 않는 絶對的인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 나라의 實情에 따라 多樣한 形態의 制度와 政治技術의 活用이 必要하고 繼續 修正과 補完이 必要할 것으로 믿는 것이 民主政治의 特性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기 爲한 效果的인 制度의 樹立도 重要하지만 이들 制度를 어떻게 效果的으로 運用할 것이냐의 問題에 關해서는 다음의 節에서 取扱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에 立脚한 政治의 理念과 그 理念들을 가장 效果的으로 具現하기 爲해 만들어진 現存의 政治制度들에 關해서만 極히 簡略히 概觀한 것이다.

政治의 自由와 經濟의 自由는 같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을 土臺로 하고 있어 서로 分離될 수 없는 性質인 것과 마찬가지로 政治制度와 經濟體制도 서로 分離될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民主主義의 理念 具現을 爲한 方法으로 發達되어 온 것이나 便宜上 여기에 經濟體制를 따로 分離해서 論議하기로 한 것이다.

民主國家의 經濟體制는 흔히 資本主義 經濟體制로 알려져 있으며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基本原理은 自由經濟에 두고 있다. 自由經濟의 基本精神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個人의 幸福追求를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勸獎하는 經濟活動의 基本原理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앞서 指摘한 바 있다. 民主的 政治制度의 基本的 原理도 個人의 自治의 能力에 그 基盤을 두고 있는 바와 같이 經濟體制의 基本原理로 個人이 自己의 幸福追求를 爲한 能力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이를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勸獎하려는 理念에 그 基盤을 둔다. 이렇게 個人으로 하여금 自由스러운 經濟活動을 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獎勵하려는 것이 自由經濟의 基本理念이며 이러한 理念은 個人으로 하여금 經濟活動에의 意慾을 鼓吹시켜 個人이 갖는 能力과 努力을 最大限으로 活用케 하여 個人의 幸福 追求를 爲해서는 물론, 民主主義는 國家의 經濟의 成長을 促進케 될 것이라는 假定을 믿는다.

人間은 外部的 強要에 依하여 일에 臨하게 될 때와 스스로의 幸福追求를 爲하여 일에 臨하는 境遇에 따라 意慾과 努力에는 큰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個人의 幸福 追求를 爲한 能力과 努力을 믿어 個人에게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許容하는 民主國家와 勞動을 強要하는 共產獨裁國家와의 經濟成長에서의 差異는 長期的으로 볼 때 큰 差異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러한 豫想을 立證하는 實例를 여러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⁴⁾.

自然資源이 豊富하지 못한 與件을 가진 「스웨덴」(Sweden)이나 「노르웨이」(Norway) 같은 나라는 民主的 自由經濟體制의 採擇과 그의 效果의인 活用に 따라 높은 水準의 經濟生活을 發展시킬 수 있었던 代表的인 나라의 例라고 할 수 있다. 自由主義의 經濟體制下에 國家의 經濟的 成長이 促進된 것이라는 例는 第2次 世界大戰 後의 西獨과 日本의 境遇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나라에 있어서 歷史上 過去에 있었던 專制主義的 政治體制에서 보다 大戰後에 擇한 民主的 政治制度와 自由經濟體制하에 그들의 經濟成長은 ‘奇蹟’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促進된 事實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나라의 ‘經濟的 奇蹟’은 偶然한 奇蹟은 아니며 大戰後 그들이 擇한 民主的 政治制度와 自由經濟體制의 基盤으로 이루어진 結果라고 보아 妥當하며 學者들도 그같이 말하고 있다.

民主的 政治制度나 自由經濟體制는 個人의 福祉向上과 經濟成長을 促進할 수 있는 制度的 與件을 提供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이들 制度 自體가 個人의 福祉나 經濟成長을 保障하지는 못한다. 經濟成長은 다른 많은 要因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活動의 自由의 保障만으로 經濟成長이 促進되리라고 保障을 할 수는 없다. 人口의 增加, 宗教, 人生觀과 世界觀 그리고 自然觀 等の 價値觀, 일에 對한 態度, 教育 등이 經濟成長에 作用하는 重要한 要因이며, 經濟體制나 政治的 制度란 으로는 經濟成長을 促進할 수 없게 된다.

政治的 民主主義 制度를 가진 印度의 經濟成長이 보잘 것 없게 된 까닭은 制度에 있기보다 많은 人口, 現世 否定的 消極的 宗教觀과 人生觀 等の 價値觀과 일에 對한 消極的 態度 等に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많은 學者들이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例로 보아 民主的 政治制度와 自由經濟 體制가 經濟成長을 爲해 有利할 것이라는 假定은 같은 與件下에 個人으로 하여금 強制勞動을 強要했을 때와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許容하고 獎勵했을 때 어느 것이 經濟的 意慾과 活動을 더 크게 促進하게 될 것이냐로 立證될 問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個人의 幸福은 個人 스스로의 判斷에 依하여 規定되며 幸福追求를 爲한 個人의 能力과 努力을 믿어 個人의 自律的 經濟活動을 許容하고 獎勵하는 民主主義의 理念의 優越性은 個人의 尊嚴性과 自律性을 無視하고 外部的 強要에 따라 活動하게 하는 共產獨裁의 것에 比하며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는 點은 의심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前章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基本的 自由는 크게 分類하여 市民的 自由, 政治的 自由, 그리고 經濟的 自由의 셋으로 나누어 진다. 이들 自由는 領域에 있어서 分類된 것이며 基本的인 理念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民主主義의 基本 理念에서 이미 說明한 바 있다.

4) Ebenstein(1967), *op. cit.*, pp. 86—90.

다만 여기서 좀 더 說明해 둘 것은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自由와의 關係에 關한 것이다.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自由는 서로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發達된다. 그러나 하나의 自由가 다른 自由를 決定하는 그러한 關係를 갖는 것이라고는 斷定지을 수는 없지만 民主國家들의 發達過程에서 立證된 바와 같이 經濟的 自由는 政治的 自由를 強化補完케 하고 또한 政治的 自由는 經濟的 自由를 強化補完하는 그러한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發展되어 온 것이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原因이고 結果라는 그러한 關係를 成立시킬 수는 없지만 두 自由는 같은 理念과 價値, 그리고 態度 등에 基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密接한 相補的 關係를 가지면서 發達되는 것이다. 그 같은 基盤이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인 「人間的 尊嚴性」과 「最善我的 實現」에 對한 信念인 것이다. 이를 다시 經濟的인 意味로 풀이하면 個人은 自己의 幸福追求를 爲해 무엇이 自己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獲得하기 爲한 能力과 努力을 밀는 것이 自由經濟의 基本原理인 것이다. 따라서 經濟活動에 對한 法의 規定도 結局 이러한 基本原則에 따라 派生된다.

經濟的 自由란 모든 個人이 自己의 願에 따라 일하고, 그 結果로 얻은 所得은 누구도 侵害할 수 없는 權利며, 그 財産을 自己의 意思에 따라 마음대로 處分할 수 있는 自由를 意味하는 것이다. 個人에게 自己가 努力하여 얻게된 財産에 對한 所有權을 保障해 주고 이에 對한 貯蓄, 交換 및 自由로운 處分을 認定할 때, 그 個人은 일에 對한 보람과 幸福追求에 對한 보람을 갖게 되고 安定된 生活의 基盤위에 自己의 能力을 마음껏 發揮, 最善我的 實現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個人의 財産權이나 私有財産權의 保障은 營利 追求의 自由에 基盤을 둔 經濟活動의 基本原理가 되었고, 資本主義의 經濟를 急速히 發展시켜 온 것이다. 前章에서도 簡略히 指摘한 바 있지만, 經濟的 自由의 뜻을 理解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우리의 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經濟活動의 自由와 私有財産權을 要約 提示하던 다음과 같다⁵⁾.

- ① 正當한 法的 節次없이 個人의 私有 財産을 侵害할 수 없다.
- ② 犯罪에 對한 處罰의 境遇 以外에는 個人을 強制勞動시킬 수 없다.
- ③ 正當한 補償없이 個人의 財産을 共有로 使用할 수 없다.
- ④ 國民의 合意(國會議員 大多數에 依하여 決定되는) 없이 稅金을 賦課할 수 없다. 이들 私有財産權은 다음과 같은 內容들을 包含한다.

가. 私有 財産權 :

- ① 個人은 土地, 家屋, 財産, 貨幣를 自由로이 所有하고 使用할 수 있다.
- ② 個人은 自然資源과 生産手段을 自由로이 所有할 수 있다.
- ③ 個人이 自己의 財産을 그가 自由로이 擇한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 ④ 個人은 公衆衛生, 安全, 秩序, 公益等 共公福祉를 侵害하는 일에 그의 財産을 使用할 수 없다는 것등이 그 主要 內容이다.

나. 個人事業의 特權 :

- ① 個人은 自由로운 選擇에 依해 事業을 始作할 수 있으며, 또한 自由로히 利潤을 追求할 수 있다.
- ② 個人은 法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에서 勞動者를 雇傭하고 指示 監督할 수 있으며 必要에 따라 雇傭人을 解雇할 수 있다.
- ③ 個人은 自己의 自由로운 選擇에 依하여 貯蓄하고 消費하고, 또한 投資할 수 있다.
- ④ 個人은 雙方의 合意에 따라 自由로히 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 ⑤ 個人은 自己의 生覺이나 發明에 對하여 特許 및 出版權의 保障에 依하여 利益을 追求할 수 있다.

다. 個人勞動의 特權 :

- ① 個人은 自由로운 選擇에 依하여 職業을 가지고 勞動할 수 있다.
- ② 個人은 自由로운 選擇에 依하여 가졌던 職業을 포기할 수 있다.
- ③ 個人은 그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勞動組合에 加入할 수 있다.

라. 經濟的 組織과 團體의 權限 및 責任

- ① 使用主나 勞動者는 自由로운 方法에 依하여 그들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組織을 形成할 수 있다.
- ② 勞動組合이나 企業協會는 그들의 團體運營을 爲해 基金을 모을 수 있다.
- ③ 勞動組合은 勞動者의 代表를 通하여 使用主와 勞動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爲하여 仲裁할 수 있다.
- ④ 勞動組合은 平和의인 方法에 依하여 爭議 또는 罷業할 수 있다.
- ⑤ 使用主나 勞動者는 그들의 組織된 權力으로 賣買을 拘束할 수 없다.
- ⑥ 使用主나 勞動者는 國家의 安全, 秩序를 紊亂케 하는 일에 그들의 組織된 權力을 行使할 수 없다.

3. 政治過程과 個人의 參政

民主主義는 그 指向하는 理念을 重要視 할 뿐만 아니라 그 理念을 實現하기 爲한 方法과 過程을 重要視한다고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民主政治의 成敗는 民主主義 理念을 效果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制度와 그 制度의 運營過程 如何에 달려있다. 制度의 樹立에 있어서도 民主主義의 理念을 가장 效果的으로 實現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核心的 要旨였음을 여러번 強調한 바 있으나 制度의 運營過程에도 항상 民主主義의 理念을 實現하기 爲한 運營의 妙味가 要請된다. 制度의 運營如何에 따라 그 制度의 設立趣旨를 效果的으로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수도 있게 되며 制度의 效果的인 運用如何에 따라 民主의 理念이 實現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制度의 運營過程과 個人 및 集團의 參政問題를 取扱하게 될 本節에서는 選舉, 國民의 意思를 形成하는 輿論, 政黨, 多數決의 原理, 利益團體 등의 參政過程과 個人 및 集團의 參政에의 責任 等에 關

해서 論議할 것이다.

民主政治의 基本信念은 國民個人的 自治의 能力을 믿는데 있으며 尙部로부터 주어진 혹은 小數人에 의하여 完成된 좋은 政治보다 未完成된 自治의 政治를 더욱 所重히 여기며 또한 國民에 의한 政治가 民主政治의 本質의 特性이라는 點 等을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近代 民主國家가 擇하고 있는 國民 權利行使 方法은 國民의 直接的 行使가 아니라 權力을 代表에 委任하는 代議政治制度인 것이다. 이렇게 國民의 自治의 權利를 代表에게 委任하고 있기 때문에 國民의 權力을 委任받은 立法府의 議員이나 行政府의 首班이 國民의 意思를 어느 程度 反映시키느냐가 民主政治의 成敗를 左右하는 가장 核心的인 問題가 되는 것이다.

國民의 意思나 權力을 委任하게 될 代表者를 選出하는 方法이 곧 選舉인 것이다. 選舉制度는 그 存在有無보다 國民의 多樣한 意思를 가장 效果的으로 集約 表示하여 代表를 選出하느냐의 選舉過程이 더욱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國民의 意思를 個別的으로 政府에 反映시킬 수 없고 國民의 意思가 組織化될 때 가장 效果있게 政府에 反映된다. 國民의 意思를 組織化하여 政府에 反映케 하는 役割을 擔當하는 團體가 政黨인 것이다. 이렇게 國民의 多樣한 意思를 統合하고 이를 政府에 反映케 하는 役割은 政黨이 擔當하는 것이기 때문에 政黨은 代議政治制度의 實際 運營過程에 있어서 核心的 役割을 擔當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國民의 意思는 多樣하고 또 그 多樣성을 勸獎하는 것이 民主政治의 本質이기 때문에 選舉에 國民의 選擇 範圍가 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르기 위하여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複數政黨 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複數政黨 制度가 民主政治의 必要條件으로 要求되는 까닭은 多樣한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고 國民의 選擇의 範圍를 擴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共產國家에서 볼 수 있는 一黨制 國家의 選舉는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기 위한 代議的 性格을 가지기 보다 政府의 獨裁性을 隱蔽해 주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政黨은 國民의 意思를 統合하고 이를 政府에 反映케 하는 일을 擔當하고 있기 때문에 政黨은 社會와 國家 國民과 政府의 사이를 이어주는 調整者 乃至 仲裁者의 役割을 한다. 따라서 政黨은 具體的으로 國家政策에 依據해야 할 基本綱領과 이를 遂行할 義務들을 有權者에게 提供한다.

民主政治에 있어서의 代議制度는 國民의 意思의 多樣성에 基盤을 둔 複數政黨과 國民 스스로의 自由意思에 맞는 政黨의 綱領과 指導者를 選擇하는 選舉를 통해서 實現된다. 그리고 國民이 定期的으로 實施되는 選舉를 통해서 政權을 交替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國民이 政府를 統制 乃至 牽制할 수 있게 된다.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代議政府는 國民의 意思를 最大限으로 反映하고 政府에 賦與된 責任과 義務를 國民에게 對해서지는 政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義務와 責任을 政府가 어느 程度 잘 遂行하느냐를 國民이 지켜보고 統制 乃至 牽制하는 實質的인 方法은 選舉를 통해 政權의 交替를 할 수 있는 權限이 國民에게 保有되어 있는 境遇에만 可能하다. 共產國家와 같은 一黨制 國家의 選舉에 있어서는 이러한 政權交替의 權限이 國民에게 實際로 주어지지 않다. 民主國家의 代議政

治를 運營하는 基本原理는 國民의 意思를 代辯하고 國民의 權利를 代行할 代表를 選出하는 代表의 原理와 多樣한 國民의 意思를 統合하여 國家意思를 決定하는 多數決의 原理가 그 主軸을 이룬다⁶⁾.

代表의 原理란 多樣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하고 統合하고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을 意味하는 것이며 多數決의 原理는 多樣하고 相異한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는 過程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原理는 國民의 意思를 統合하여 이를 效果的으로 政治에 反映하기 爲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國民이 갖는 意思나 主張은 多樣하고 서로 相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統合하여 國家意思로 決定하기 爲해서는 多數의 意見과 主張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多數의 意見과 主張에 따라 國家意思를 決定한다 하더라도 결코 小數의 意見이 完全히 無視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意味에서 小數의 意見이 尊重되는 것이 民主國家에 있어서 하나의 特色인 것이다.

國民 各者의 意見이 多數의 意見으로 造成되기 爲해서는 討論을 통한 輿論의 造成過程이 必要하게 되며 討論의 過程을 통해서만이 서로의 相異한 意見과 主張이 交換되고 說得과 妥協, 理解와 諒解를 통해 合意가 이루어져 나아가 全體의 意思를 形成하게 된다. 따라서 討論은 民主的 政治過程에 必要不可缺한 要件이 되는 것이며 重要的 教育的 過程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討論은 國民 스스로가 서로의 意見을 交換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教育的 過程인 同時에 이를 通하여 多數의 意見을 形成해 가는 民主的 過程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形成되는 多數의 意見은 質的 優位性이 支配하는 새로운 意味의 意思로서 所重히 여겨져야 하는 것이다.

討論은 多數決의 過程에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는 過程이며 討論過程의 性格에 따라 多數決은 民主的일 수도 있고 非民主的일 수도 있게 된다. 討論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어서의 多數決은 도리어 獨裁나 小數支配를 偽裝하는 節次에 不過하게 된다.

共產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多數決은 討論의 過程을 거치지 않는 一黨制인 共產黨의 獨裁를 偽裝하기 爲한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

國民의 多樣한 意思를 集約하고 國家意思로서 政府의 施策에 反映하는 役割을 擔當하는 多數 政黨은 民主國家에서 許用되고 獎勵되지만 政黨만으로는 國民의 多樣한 意思를 總網羅하기에 어려운 點도 많다. 여기에 民主國家에서는 多樣한 利益團體들이 생기게 된다. 이들 利益團體들은 共通된 利益을 追求하기 爲하여 組織을 糾合하고, 政府의 政策에 그들의 利益을 反映하기 爲하여 集團의 行動을 取하게 된다.

政黨과 政治의 利益團體는 國民의 意思와 利益을 政府에 反映하는 機能的 測面에서 볼 때 서로 類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政黨은 代表者의 選出에 主된 觀心을 갖는 反面, 利益의 團體는 政策에 主된 觀心을 갖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⁷⁾.

民主國家에서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기 때문에 共通된 利害關係를 가진

6) 차기벽 “민주주의의 확립” 박종홍, 유달령(편), 국민윤리(상), (서울 삼화출판사, 1970) PP 147-151.

7) Ebenstein, op city PP 374-391

사람들이 모여 團體를 組織하고 그들의 利益을 保護하고 더욱 伸張시키기 爲하여 政策에 그들의 主張을 反映하도록 集團의 努力을 하게 된다. 그들의 主張을 公開적으로 表明하고 다른 相異한 利害關係를 갖는 集團과 討議하여 多數의 支持를 얻기 爲하여 組織的인 活動을 展開한다.

共產獨裁國家에서는 國民의 多様な 利益追求를 許容하지 않으며 따라서 多様な 利益團體의 構成을 統制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國家가 提示하는 單一 目的(單一的 利益)을 追求하기 爲하여 國民을 總動員시키는 일이 單一 政黨인 共產黨의 權限이며 義務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國家의 單一的 利益과 相異한 利益追求를 爲한 團體의 形成을 許容하지 않는다. 共產 獨裁 國家에서도 名目上的 利益團體가 存在하기는 하나 그들이 擔當하는 役割에 있어 民主國家의 것과 큰 差異가 있다. 民主國家의 利益團體는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政府에 反映시키는 役割을 擔當하는데 反하여 獨裁國家에서의 利益團體는 國家와 黨의 施策을 國民에게 波及케 하는 役割만을 擔當한다. 다시 말하면 獨裁國家의 利益團體는 獨裁者 乃至 政府의 傀儡노릇을 하기 마련이며, 國民의 편에서 있기라기보다 政府의 편에서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多様な 利益團體들로서 勞動組合, 婦人會, 宗教團體, 各種 資源團體, 醫師會, 藥師會, 藝術人 團體 등을 例로 들 수 있으며 이들은 主로 職種別로 그들의 利益을 保護하고 伸張시키기 爲하여 政府에 對해서 壓力과 統制를 加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理由로 利益團體가 흔히 壓力團體라고도 불리어 진다.

이미 示唆한 바와 같이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政治的 過程을 圓滑히 遂行하기 爲해서는 個人 乃至 集團이 져야 할 責任과 義務가 重視된다. 여기서 取扱하고자 하는 마지막 問題로 個人 乃至 集團이 民主的인 政治的 過程을 圓滑히 하기 爲하여 遂行해야 할 責任問題를 簡潔히 糾明해 보기로 한다.

첫째, 國民 各者は 社會的 問題와 그 問題解決을 爲해 取해지는 政策 등에 關해서 깊은 關心을 갖고 보다 正確한 理解를 하도록 繼續 努力해야 할 責任을 갖는다. 國民이 社會問題와 그 問題解決을 爲해 취해지는 公的措處에 전혀 無關心하여 아무런 意見을 提示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正確한 情報에 따른 理解의 基반에서 意見을 提示하지 못하면 國民의 意思에 依한 政治過程의 運營은 不可能해질 것이다. 社會問題에 關한 國民의 意思가 正當한 것이 되기 爲해서는 우선 社會問題에 關한 正確한 情報에 準한 意思라야 할 것이다.

民主政治의 原理인 「國民에 依한 政治」를 效果的으로 實現하기 爲해서는 國民의 意思가 效果的으로 反映되느냐의 問題에 앞서 그 意思가 어느 程度 正確하고 正當한 것이냐가 問題된다.

앞서 指摘한 바 있듯이 民主主義는 外部에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特定 小數人에 依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國民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國民의 意思가 反映되지 않는 그리고, 國民이 參與하지 아니하는 制度나 制度의 運用도 허울만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되며 따라서 民主主義의 理念 具現은 期待하기 어렵게 된다.

民主主義가 國民 스스로가 가꾸어 만들어 가는 것에 意義가 있는 것이라면 民主政治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나가느냐의 問題는 어느 特定人에 對한 責任이라기 보다 國民 各者에 그 責任이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國民 各者는 自己의 意見과 主張을 正當한 方法으로 表現하고 그 意見들을 集約하여 國民의 權利를 委任한 代表들에게 傳達하고 그들 代表들을 通하여 國民의 요구를 規定에 反映하도록 하는 責任을 진다. 첫번째의 問題가 意見을 提示하기 以前의 問題라면 이 둘째번의 問題는 意見을 提示하고 그 意思를 反映케 하는 것에 關係되는 問題이다.

셋째, 個人의 意見을 提示하고 集團的인 意思를 集約하기 爲하여 民主的인 合意의 過程이 重視되며, 個人은 合意된 多數의 意見을 따라야 하고, 多數는 小數의 意見을 所重히 여기는 責任과 美德을 가져야 한다.

넷째, 國民 各者는 政治的 權力을 委任할 代表를 選出하는 選舉에 積極 參與할 責任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國民 個人은 國家的인 非常時에 政府가 指示하는 바에 따라 國民의 義務를 忠實히 履行하고 協調하는 責任을 져야 한다. 國家的인 非常時라 함은 國家의 안전과 存立을 危殆롭게 하는 戰爭과 같은 非常時가 惹起된 狀態를 意味하며 이러한 事態가 發生했을 때는 個人의 理解關係에 앞서 國家의 安危를 爲해 法이 規定한 바에 따라 國民의 義務를 遂行해야 할 責任을 優先的으로 移行해야 한다.

여섯째, 個人과 集團은 法을 遵守하고 不合理함을 是正할 必要가 있을 때 法이 定한 正當한 節次와 方法에 따라야 할 責任을 져야 한다. 民主國家에 있어서 個人의 意思와 行動을 尊重하되 不當한 行動을 容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個人 및 集團의 行爲의 不當性은 正當한 法的 節次에 依하여 規制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徵이다.

第3章 民主的 生活樣式

民主主義는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政治나 經濟가 國民의 生活에 미치는 影響이 크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論할 때 흔히 政治樣式과 經濟樣式에 結付시켜 그 뜻을 밝히려 하게 된다.

그러나 政治나 經濟는 社會生活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民主主義를 政治形態나 經濟體制만으로 解釋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一部分만을 보는 結果가 된다. 민주주의는 生活原理이며 이 原理가 모든 生活樣式에 具體化됨으로써 民主主義의 理念이 具現될 수 있는 것이다.

本章에서는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를 理解하기 爲하여 먼저 民主社會의 性格을 糾明하고 다음에 個人的 次元에서 民主의 人性과 態度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葛藤의 所在과 그 解決過程에 關해서 論議하기로 한다.

1.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

政治 및 經濟制度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統治體制인 것이나 이들 制度는 國民 個個人이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할 것이라는 前提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萬一 國民 個個人이 民主的 生活原理에 따라 行動하지 않는다면 體制나 制度가 아무리 民主的인 것이라 해도 허울만의 것이지 眞正한 意味의 民主社會를 發展시킬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社會體制는 사람이 實際에 있어서 어떠한 行動을 해야 할 것이라는 規定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規定만으로는 不充分한 것이며 規定에 따라 사람이 實際로 行動하게 될 때 그 體制는 名實 共히 善體制가 된다.

形式的인 政治體制나 制度는 民主的이면서 實際 生活樣式은 極히 非民主的인 나라가 있다.

共和國이라는 이름과 民主的 理念을 담은 憲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獨裁政治가 進行되고 있는 나라를 中南美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또한 民主的 生活樣式이 支配的인 나라인 英國, 美國, 「네델란드」 등은 각기 다른 形態의 政治制度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民主主義의 理念에 맞는 社會生活을 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로 미루어 보아 政治制度만으로 民主主義의 本質을 糾明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形式的 制度보다 生活樣式이 民主主義의 死活(전경)을 決定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民主的 政治制度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統治措置에 不過한 것이며 그 自體가 民主的 社會生活을 保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民主的 社會生活을 하느냐 않느냐는 國民이 어떻게 生覺하고 行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國民 個個人이 民主的 思考와 行動을 하고 民主主義 이념이 國民의 全體 生活樣式에 反影될 때 비로소 眞正한 意味의 民主社會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뜻이 政治制度에 局限되어 解釋되지 않고 範圍를 넓혀 國民의 生活樣式으로 解釋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民主主義의 理念이 國民의 生活全體를 이끄는 原理가 되고 信條가 되어야 한다는 意味이며, 그 生活原理가 個人의 思考와 行動에 具體的으로 反影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念이 具現될 수 있는 生活樣式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觀點이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은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과 最善我的 實現에 있음을 첫 章에서 指摘한 바 있다. 生活樣式으로서의 民主主義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사람을 보는 觀點과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를 規定하는 人間關係 原理인 것이다.

사람이 他人을 對하는 態度에 따라 社會의 生活은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貴重한 것이며 사람의 價値는 어떠한 다른 價値와도 바꿀 수 없는 至上의 價値라고 생각하면 사람에 對한 態度나 待偶가 달라질 것이다.

民主主義는 사람의 價値를 가장 重要한 價値로 生覺하는 人間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程度의 重要性을 갖는다는 同等한 人權을 尊重하는 價値를 높이 評價하는 것이다.

社會階層이 낮다고 사람을 賤視하거나, 女子라고 無視하거나, 어린이를 어른의 附屬物로 생각하거

나, 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거나 하면, 이러한 곳에 人權의 尊重이라든가 사람의 尊嚴性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곳에는 民主社會가 이룩될 수 없다.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社會는 무엇보다도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自由와 平等을 基礎으로 하는 社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民主主義의 理念을 具現할 수 있는 民主社會의 特性을 좀더 具體的으로 糾明해 볼 필요가 있다.

그 特性을 몇 가지로 分類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¹⁾

- ① 사람의 能力을 믿는 社會
- ② 個性을 尊重하는 社會
- ③ 多元社會
- ④ 自律的 活動이 尊重되는 社會
- ⑤ 知性優位의 社會
- ⑥ 科學的 實驗을 통한 創意的 問題解決을 尊重하는 社會
- ⑦ 協議와 協同의 社會
- ⑧ 多數와 小數가 다같이 尊重되는 社會
- ⑨ 公共의 福祉를 爲하는 社會
- ⑩ 公開社會
- ⑪ 法이 다스리는 社會
- ⑫ 進步的인 社會

여기에서 指摘한 民主社會의 特性은 民主主義 基本理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民主主義는 하나의 基本的인 믿음으로 出發하고 있다는 點을 거듭 指摘한 바 있다. 그 믿음이란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信念인 것이다. 이와 關聯된 理念으로 個人의 最善我的 實現을 爲한 能力, 個人의 自治의 能力, 個人의 幸福追求를 爲한 能力을 民主主義는 믿는 것이다. 이러한 信念위에 民主社會는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에 留意해야 할 點은 人間, 사람, 個人 等으로 表現된 概念의 解釋이다.

여기서 意味하는 사람은 特殊한 몇몇 個人을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意味한다는 點이다.

特殊한 個人의 能力만을 보고 그 사람에게 萬人의 運命을 맡겨 그 사람의 命숨에만 服從하는 集團이나 社會는 民主的일 수 없다. 社會的인 身分如何를 묻지 않고 個人을 누구나 같은 사람으로 尊重하고 個人이 갖는 能力을 尊重하고 믿는 社會가 民主社會의 特性이기 때문에 民主社會는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個性을 尊重하게 된다. 獨裁社會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 같기를 바란다. 獨裁者는 그의 個人的인 理念이나 慾望을 達成하기 爲하여 모든 國民을 利用하러 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모든 國民이 생각하고 行動하기를 願하며, 또 強要하게 된다. 個人이 願하는 데

1) 吳天錫,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8), PP. 89~109.

로 생각하고 行動하게 許容하면 獨裁者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워 지게 되고 獨裁社會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獨裁社會에서는 個人的 思考와 行動에 自由를 許容하지 않는다. 獨裁社會에서 個性을 갖는다는 것은 異端으로 取扱되며, 그러한 社會에서는 個性이 尊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크게 罰을 받게 된다.

民主社會에서 個性이 尊重되는 까닭은 사람의 尊嚴性을 所重히 여기며 個人的 能力을 믿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點에서 選擇이 可能하고 보다 나은 것을 選擇하는데서 進歩가 있을 수 있다는 生活原理는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一致되는 생각이다.

民主社會에서는 個性을 尊重하여 只 뿐 아니라 個性을 獎勵한다. 各 個人이 갖는 潛在能力을 最大限으로 成長시킬 수 있도록 條件을 마련해 주고 그 成長에 必要한 刺戟을 줌으로써 個人은 지닌 바 能力과 才質을 發揮하여 滿足스러운 生活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社會는 이와 같은 個人的 努力의 總和로 進歩, 發展될 수 있다는 信念을 民主社會는 믿고 있는 것이다.

民主社會는 個性을 尊重하기 때문에 個人的 思考와 行動의 多樣性을 許容하고 獎勵한다. 思考와 行動의 劃一性을 強要하는 獨裁社會에 비해 個人마다 다를 수 있는 人生觀과 價値觀에 따라 生覺하고 行動할 수 있도록 自律性과 多樣性을 許容하고 獎勵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性이다.

個性의 尊重은 사람의 尊嚴性을 所重히 하는 社會에 있어 當然한 일이며 따라서 個人的 自律性과 多樣性을 許容하고 獎勵하는 것도 個人的 最善我的 實現을 믿고 獎勵하는 社會에 있어서 當然한 일이다. 獨裁者의 命令에 盲目的인 服從만을 必要로 하는 獨裁社會에 있어서는 個性의 尊重, 個人的 自律性, 社會의 多樣性은 危險한 特性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이들 特性을 歡迎하고 獎勵한다.

또한 獨裁社會에서 危險視하는 것은 個人的 知性이다. 國民 個個人的 知성과 理性은 獨裁者의 權力을 弱和시킬 憂慮가 있기 때문에 獨裁社會에서는 個人的 知性的 活動의 機會를 주지 않는다. 獨裁國家는 特殊한 個人的 獨裁의 힘에 依하여 다스려지는 社會라고 할 수 있다. 民主社會는 自由롭고 自律적인 知性的 活動과 探究에 依하여 個人的 生活을 福되게 할뿐 아니라, 眞理를 追求하는 바른길이며, 또한 社會가 發展하고 豊裕해지는 手段임을 굳게 믿고 있다. 知성을 通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며 疑心을 解消하게 되고 다른 意見을 討議하여 意見의 總和를 可能하게 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徵이다. 人間의 知성과 經驗의 重要性을 믿기 때문에 眞理의 絕對性을 否認하고 眞理로 變化할 수 있는 것이며 人間의 知성에 依하여 恒時 檢討되어질 수 있는 暫定的인 意義를 갖는 것으로 民主主義는 믿는다. 따라서 科學的 思考와 科學的 問題解決을 尊重히 여긴다. 問題를 小數人의 自意나 힘으로 혹은 感情으로 解決하지 않고 知성을 動員하는 科學的 思考로 解決하려는 民主的 問題 解決의 方法을 取한다. 科學的 思考를 위해서는 健全한 疑心과 懷疑는 必須的이다. 既存하는 眞理에 對해서 疑心을 가져보고 檢討하여 보다 나은 眞理를 探索하는 態度를 民主主義 社會는 獎勵한다. 獨裁主義 社會에서는 眞理의 絕對性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眞理에 對해서 어느 누구도 疑心을 갖도록 許容하지 않으며 個人的 知性的 探索을 否認한다. 科學的 思考는 問題解決을 爲한 最善의 方

法이며 眞理를 探究하는 最善의 方法임을 民主社會는 믿고 個人의 知性과 科學的 思考를 獎勵하는 것이다.²⁾

民主社會는 어느 特定人의 意見이나 能力을 믿기보다 萬人의 意見과 能力을 다같이 尊重하고 믿는다. 따라서 多樣한 意見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許容하고 獎勵한다.

獨裁社會에서는 한 意見만이 尊重되고 強要되지만 民主社會에서는 萬人의 意見이 다같이 尊重된다. 民主國家에서는 한 사람이나 몇몇 個人의 意見이 곧 法이나 命令이 되지 못하며 어느 意見이나 公衆의 輿論에 依하여 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個人의 意見은 討議와 協議에 依하여 옳고 그름이 가려지고 옳은 意見만이 많은 사람의 支持를 받게 되며 이러한 옳은 意見이 國民의 意思로서 集約되어 政策的으로 받아 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意思決定 過程은 政治的 過程에서 說明한 바 있다. 個人의 意見은 물론 少數의 意見을 尊重하면서 協議와 討議를 거쳐 集約된 多數의 意見에 따라 國家의 政策으로 或은 法으로 規定되며 이렇게 規定된 多數의 意見에 따르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性인 것이다. 여기에서 法이 다스리는 社會의 公共福祉를 爲하는 民主社會의 特性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法은 萬人에 있어 意見의 總和이며 個人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爲한 最善의 方法이다. 民主社會의 最終의 目標은 社會를 構成하는 모든 사람의 福祉를 最大限으로 增進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어느 特定人의 意見에 따르기 보다 萬人의 意見에 따라 生活原理를 規定하게 된다.

個人의 幸福이 무엇이나를 個人 自身이 가장 잘 알 수 있드시 國民의 幸福이 무엇이나도 國民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民主社會는 믿는다. 이러한 國民의 能力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意見總和로서 國家를 다스리는 것이 法治國家의 特性이며, 法은 公共의 福祉와 社會的 秩序 및 安全을 圖謀 個人의 最善我의 實現을 可能케 하기 爲한 最善의 方法인 것이다.

獨裁國家는 獨裁者 個人의 意見이 곧 法이요, 權力이기 때문에 國民의 意見이 反映될 수 없고 萬人의 意見總和로 이루어지는 “法”이 必要없다. 獨裁國家는 特殊 個人의 사람에 依하여 다스려지는 社會이나 民主國家는 法에 依하여 다스려지는 社會이며, 法은 萬人의 利益과 權利를 保護하고 公共의 福祉를 增進시키기 爲하여 萬人의 意見總和로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獨裁國家의 特性이 閉鎖的이고 固定的이라면 民主國家의 特性은 公開的이고 開放的이며 進歩的이다. 民主國家에 있어서 모든 政策決定 過程에 國民의 意思가 反映되어야 하기 때문에 社會에서 或은 政府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國民이 알아야 한다.

社會에서 或은 政府에서 이루어지는 좋고 나쁜 모든 것을 國民이 알고 있음으로써 올바른 意見을 提示할 수 있게 된다. 이를 爲하여 民主社會에서는 萬人이 볼 수 있는 公開的인 廣場에서 모든 일을 遂行하고 또 意圖的으로 國民에게 公開하여 理解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믿고 있다.

民主社會의 特性으로 公開的이고 開放的이며 또한 流動的이고 進歩的이라는 意味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社會 乃至 國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萬人이 보고 알 수 있게 문

2) Cantril, *Ho Human Nature and Political Systems*, (New Brunswick, N.Y.: Rutgers Univ. Press, 1961)

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와國民의 여러 다른意見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의 것이公開的이란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公開的이란 의미에는流動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階層에서 다른階層으로, 한職業에서 다른職業으로, 한團體에서 다른團體로, 혹은 한宗教에서 다른宗教로個人的趣味와能力和理想에 따라自由로 옮겨갈 수 있는自由를意味하는 것도公開的 혹은開放的이라는 뜻에 포함된다.

또한民主主義는 사람의能力을 믿고 그가無限히發展할 수 있는可能性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社會亦是繼續發展進步할 수 있을 것이라는可能性을 믿고努力하는 것이다.民主主義는完成된 것이나固定된 것이 아니라理想을實現해 가는過程에 있음을 믿고 보다 나은來日을爲해繼續努力하고 있다. 우리가 갖는社會에 많은矛盾과缺點 그리고問題가 있음을 알지만失望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能力을 믿기 때문이며 서로協同하여努力하면社會는發展하고進步하게 될 것이라는希望을 가지고民主主義의理想具現을爲해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2. 民主의 人性和 態度

民主主義는外部에서 주어지는物件이나制度和 같은形式的인 허울만의體制가 아니며 사람이生覺하고行動하는生活原理라고 하는點을 여러번反復한 바 있다.前節에서는社會的 水準에서의民主的 生活原理를論했다면本節에서는個人的 水準에서의民主的 生活原理를論하게 되는 셈이다.

民主主義 理論에 밝은 사람이民主的 制度를 갖춘組織에서 사람을 대하여行動할 때極히非民主的인 態度로行動하게 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보게된다. 이러한例는制度의運營이나對人關係가 이루어지는過程에 있어서個人이 갖는人性和 態度 여하가 그民主性 如何를決定하는重要한 要素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民主主義는個人的 尊嚴性和 能力을 믿는精神的 터전 위에 서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民主主義의發展 如何하는個人的 人性(Personality) 特性에 依存되는 바 크다³⁾.個人이自己의 存在를 實하게 여기고,自己의 能力을 믿고,他人도自己와 마찬가지로尊重되며,他人의 權益을 侵害하지 않는範圍에서自己의 最善我 實現을 위해 努力하게 될 때民主主義의 實現 可能性은 始作되는 것이다.

個人이自己의 存在價値나 能力을 믿지 않고他人에 依存하려 하거나 아니면反對로自己의 能力만을 過信하여他人을 無視하고 支配하려 한다면民主的 生活은 不可能할 것이며, 이러한個人에 의해서運營되는民主的 體制나 制度는 허울만의 것으로民主的 生活原理가 支配되는 制度는 못 될 것이다.

民主主義는外部에서 주어지는完成된 物件이 아니며個個人이 스스로 생각하고行動하면서도가꾸어 가는生活原理이기 때문에民主主義의發展의 程度는結局個人的 民主的 人性發達の 程度에

3)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260-278.

의하여 決定된다. 이렇게 民主主義의 育成과 發展을 위해 個人이 갖는 心理的 特性이 차지하는 比重은 크다.

個人의 人性特性이 多様하고 그들 特性에 關한 概念이 多様하기 때문에 分類하기에 따라 수 많은 特性들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나 흔히 指摘되는 重要한 特性만을 要略 提示하기로 한다.

- ① 獨立心
- ② 自律的 態度
- ③ 他人에 대한 尊敬心
- ④ 異見에 대한 尊重
- ⑤ 妥協과 協同心
- ⑥ 實驗的 態度
- ⑦ 開放性
- ⑧ 集團知에 대한 信念
- ⑨ 積極的 社會參與 態度
- ⑩ 社會的 責任感

民主的 人性特性 中 가장 重要한 特性은 獨立성과 自律性이다⁴⁾. 個人이 自身の 存在價値와 能力을 믿지 못하고 他人에 依存하여 그의 命令과 指示에 따라 行動한다면 個人의 尊嚴성과 能力에 對한 概念의 土臺위에 세워지는 民主主義는 그 意義를 잃게 될 것이다.

個人이 自己의 存在價値를 認識하고 自力으로 運命을 決定하려는 獨自의이고 自律的인 認識을 喪失하고 있다면 그러한 個人들이 모인 社會는 몇몇 少數人의 權位가 支配하는 特制社會를 築치 못할 것이다.

獨立心과 自律的 態度를 다른 類似한 概念으로 풀어 說明할 수도 있을 것이다. 自己自身の 存在價値를 認定하는 自尊心, 自信感, 自決的 能力, 自治的 能力에 對한 肯定的 態度 등은 모두 獨立心과 自律的 態度와 類似한 概念들이다.

이들 概念들이 갖는 共通的인 意義는 個人이 자기에 對한 意義 있는 일을 스스로 찾고 그 일을 自力으로 解決하려 하며 스스로 決定하려는 意慾과 自信을 意味하는 것이다.

共產主義 國家를 包含하는 獨裁國家에는 國民의 自律的 行動을 許容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個人의 自律的 行動은 그들의 獨裁性을 해치는 要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國民 大衆은 無知無能하여 몇몇 獨裁者의 指導 없이는 國民을 잘 살게 할 수 없는 것으로 獨裁者는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國民을 愚衆이라 보며 民主國家에서는 國民의 意思를 높이 評價하기 때문에 이를 衆知라고 한다.

民主社會에서는 個人이 자기의 幸福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그 幸福을 追求하기 위해 外部에 對한 干涉이나 拘束을 받지 않고 스스로 問題를 解決해 갈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個人의 自律性을 最大限으로 許容하고 獎勵하는 것이다. 自律性에 對한 社會的, 國家的

4) Adorno, T. W. and other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of Row, 1950).

保障과 獎勵에도 不拘하고 個人이 스스로 自律的 行動을 拒絶한다면 그는 結코 民主的 人性 資質을 育成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民主社會의 育成과 發展에 貢獻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自己 스스로 自縛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社會나 國家는 個人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獎勵하는 責任을 져야 하겠지만 個人 역시 스스로 自律性을 育成시켜야 할 責任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民主主義는 育成되고 發展되는 것이다.

個人은 自己自身の 存在가치와 能力을 所重히 여기고 그의 能力을 向上 시키기 위해 繼續的 努力을 해야겠지만 他人의 存在價値를 所重히 여기는 態度를 가져야 하는 것도 重要하다. 어느 特定人의 存在價値와 能力을 더 所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意義를 갖고 사는 貴重한 存在로 여기며 能力을 認定하는 것이 民主社會의 特徵이다.

따라서 남의 意見을 尊重히 여기고 그 意見이 비록 自己의 意見과 다른 異見이라 할지라도 尊重히 여겨야 하며 他人의 異見을 理解하고 妥協하여 共同의 目標을 위해 協同하는 態度가 民主社會에서 要請된다. 모든 사람의 意見을 尊重히 여기기 때문에 民主社會에서도 意見의 多樣性을 許容하게 된다. 이러한 多樣한 意見에서 새로운 創意的 意見이 나올 수 있고 發展과 進歩가 있을 수 있다고 民主主義는 믿는 것이다.

眞理라는 것은 暫定的이며 變化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民主主義가 信奉하는 眞理觀이다. 이러한 眞理觀을 信奉하는 民主主義는 언제나 새로운 그리고 보다 나은 生活樣式을 찾고 改善하는 努力을 높이 評價한다. 이러한 眞理觀과 生活觀이 個人에게 要求하는 것은 智慧와 實驗的 態度이다.

既存의 眞理와 理念, 價値觀 그리고 生活樣式 등에 疑問을 가지고 批判하고 理性과 科學的 方法을 動員하여 檢討하고 實驗하여 生活을 改善하려는 努力과 態度를 民主主義는 높이 評價하는 것이다.

專制主義 社會에서의 獨裁者는 個人의 理性과 經驗 그리고 批判的, 實驗的 態度에 대한 信念을 拒否한다. 그 까닭은 眞理는 要旨不動한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들이 信奉하는 眞理는 不變하는 固定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 眞理에 疑問을 품거나 批判을 加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으며 그들이 信奉하는 眞理만을 國民에게 強要하게 된다. 이러한 곳에 個人의 理性과 實驗的 態度가 許容될 수 없고 盲目的인 追從만이 높이 評價된다.

開放的 社會는 民主社會의 特性 中の 하나임을 앞서 指摘한 바 있다. 이러한 社會的 水準에서의 特性 뿐 아니라 個人의 人性的 特徵으로서의 開放性을 民主主義는 要求한다. 하나의 獨單的인 眞理에만 執着되고 다른 眞理에는 눈을 감는 閉鎖的인 마음 가짐이나 自己의 主張만이 옳은 것이고 남의 主張은 잘못된 것으로 判斷하는 閉鎖的인 態度는 改善과 進歩 그리고 妥協과 協同을 높이 評價하는 民主社會의 建設을 沮害하는 要素가 된다. 自己가 옳다고 생각하는 主張도 繼續 檢討하고 修正하려는 雅量이 必要하며 남의 主張을 받아 들이면서 또한 檢討하고 보다 나은 것의 創造를 위해 妥協과 協同하는 마음 가짐을 民主主義는 높이 評價한다. 이러한 節次를 通하여 形成되는 集團知를 높이 評價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態度(繼續 檢討되고 修正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假定하면서)가 重要하다.

民主社會는 個個人的 意思를 所重히 여기며 이들 意見이 모든 社會 過程에 反映되기를 願하고 있다. 民主社會에서 個人的 意思를 尊重하고 이를 最大限으로 反映케 하려 해도 個人이 積極的인 態度로 意思를 提供하고 모든 社會的 活動에 參與하는 行動을 게을리 한다면 參與된 民主社會는 建設될 수 없게 된다.

民主社會의 進歩와 發達은 結局 個人들의 積極的인 參與에 의하여 可能해지는 것이다. 社會的 活動에 積極性을 갖는 態度가 個人에게 要請되며 이러한 要請은 個人的 生活向上을 위해서도 必要的인 것이며, 社會的 發展을 위해서도 必要的인 것이다.

社會的 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는 態度는 個人이 가져야 하는 社會的 責任의 하나이다. 個人은 自己的 要求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그 努力에 必要的인 活動을 自由로히 行할 수 있는 權利와 自由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같은 權利와 自由를 가지고 있음을 認識해야 하며, 따라서 民主社會에서 個人에게 許容하는 自由와 權利는 他人의 것을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認定된다.

누구나 같은 程度의 自由와 權利를 享有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의 秩序와 安全을 保護하기 爲한 社會的 責任을 個人은 져야하며, 社會福祉를 向上시킬 責任과 民主主義의 育成과 發展을 爲한 責任,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發展을 爲한 個人的 責任은 民主社會에서 重要視된다.

民主社會에서 最大限의 自由와 權利를 個人에게 賦與하고 있는 바와 같이 賦與 받은 自由와 權利의 遂行에 따른 責任도 結局 個人이 져야 하는 것이다.

3. 葛藤의 建設的 解決

民主主義는 完全無缺하게 만들어진 既成品이 아니며 가꾸어 나가는 未來 完成的인 理念임을 앞서 여러 차례 指摘한 바 있다. 完成品이 아니기 때문에 問題와 葛藤이 全혀 없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社會나 國家가 民主化해 갈수록 도리어 더 많은 複雜한 問題들이 惹起될 것으로 짐작된다. 民主社會에서는 問題를 隱蔽하지 않고 도리어 問題를 찾아 밝히고 이를 建設的으로 解決하려는 努力을 더욱 價値 있는 일로 생각한다.

問題와 葛藤이 惹起될 수 있는 素材를 밝히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民主國家들 中에도 歷史的, 文化的 背景이 다르고 社會的, 經濟的, 地理的 與件이 다르기 때문에 國家마다 特殊한 問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解決 過程에 使用되는 方法도 特殊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問題들을 總網羅하며 分析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일이다. 그러나 民主社會이기 때문에 갖는 共通된 問題와 葛藤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個性의 尊重과 個人的 意思를 尊重하는데서 생기는 問題와 葛藤이다. 사람은 各己 다른 個性을 가지고 있으며 各己 다른 意見과 主張을 갖게 된다. 個人的 意思와 主張이 다르기 때문에 個人間에 或은 集團間에 摩擦과 葛藤이 있게 되며 그들 葛藤의 解消 過程에서 때로는 言爭과 極端的인 鬭爭도 있게 된다.

그러한 民主社會에서는 個性의 伸張과 多樣한 個人的 意思와 主張을 保障함에 따라 惹起되는 問

題 때문에 그 解決過程에 多少의 混亂과 摩擦이 있을 것이나 長期的인 眼目으로 이들 混亂과 摩擦은 進歩와 發展을 促進하게 되는 活力素로 看做된다.

물론 이들 問題들이 저절로 解決될 것이라는 極端的인 樂觀을 民主社會에서는 갖지 않는다. 問題의 建設的인 解決을 爲한 努力을 勸獎한다. 民主主義는 個人的 價値와 能力을 믿기 때문에 個人間 또는 集團間에 생기는 葛藤과 摩擦은 結局 個人乃至 集團들의 努力에 依하여 建設的으로 解決될 것으로 믿고 問題의 建設的인 解決을 爲해 끝까지 努力할 것을 勸獎하는 것이다⁵⁾.

個人的 意思와 主張이 社會的 混亂과 摩擦을 惹起시키는 것이라 憂慮하여 이를 抑壓하는 獨裁國家에서 보다 混亂과 摩擦을 무릅쓰고라도 個人的 意思와 主張을 勸獎하는 民主國家는 個人的 尊嚴性에 對한 信念으로 더 큰 冒險을 敢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歷史的 事實이 立證하고 있듯이 이같은 冒險이 失敗하지 않고 發展과 進歩를 爲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個人的 知性을 믿고 相異한 個人들의 意見을 尊重하는 民主社會는 個人的 知性을 無視하고 個人的 相異한 意見들을 許容하지 않는 共產獨裁社會보다 더 發展할 수 있음을 믿고 發展에 對해 樂觀視하며 發展을 위해 더욱 積極的인 姿勢를 取하기를 民主主義는 勸獎한다. 民主主義가 取하는 發展에 對한 積極的인 態度란 個人的 意見을 許容하지 않고 問題를 隱蔽하려고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기보다 發展을 爲해 必要로 하는 問題의 發掘과 그 解決을 爲한 一時的인 葛藤과 混亂을 두려워 하여 後懷하지 않고 寬容과 妥協으로 打開하려는 積極的인 努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밖에 民主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共通된 問題로서는 自由와 平等 그리고 自由와 統制와의 調和 問題,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自由競爭으로 因하여 惹起되는 問題(機會의 不均等, 貧富의 隔差, 勞使間의 妥協 등의 問題), 다스리는 者와 다스림을 받는 者의 關係 問題, 政治的, 經濟的 制度의 運營過程에서 생기는 問題點 등을 指摘할 수 있다. 自由를 許容하기 때문에 競爭을 하게 되고, 그 競爭으로 因하여 모든 活動領域에 隔差를 남게하며, 그러한 廢端을 없애자니 結果的으로 自由를 拘束하게 된다. 平等을 保障하자니 自由를 拘束해야 하고, 自由를 許容하자니 平等이 多少 沮害되는 어려운 問題가 提起된다. 곧 自由와 平等間에 調和를 維持하는 問題가 오늘날 民主國家들이 當面한 問題이긴 하나 民主社會에서의 平等은 '相對的인 平等'을 意味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調和의 美德을 찾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民主國家들이 擇하는 方向은 어느程度의 統制를 加하면서 平等을 維持 하려하고 있다. 平等을 爲한 自由의 統制는 萬人的 自由를 保障하기 爲한 必要의 水準에서 加해지는 것이며 人間的 基本權을 侵害하는 水準에서의 統制는 法律의 規定에 依하지 않고는 許容되기 어려운 것이다.

個人間 또는 集團間에 생기는 問題와 葛藤의 種類가 어떠한 것이건 間에 이를 抑壓하게 되면 一時的으로 또는 尙으로는 安定이 維持 되는듯 보이나 葛藤의 程度는 더 커질 가능성이 많아지며 葛藤은 참을 수 있는 限界를 넘어 나중에는 收拾이 어려울 程度로 問題가 커지게 된다. 民主社會에서는 個個人들이 갖는 不滿과 葛藤을 抑壓하지 않고 이를 發散할 수 있는 機會를 開放하고 있기 때문

5) Stanton, A.H. and S.E. Perry (eds), *Personality and Political Crisis*, (New York: Free Press, 1951).

에 그 葛藤을 平和的으로 解消하도록 하며 問題를 建設的으로 解決하도록 勸獎하고 있다.

言論의 自由, 批判의 自由 등은 意思의 自由로운 表示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不滿과 葛藤을 自然스럽게 解消할 수 있도록 하는 方法의 하나로도 볼 수 있으며, 民主社會에서 言論의 自由와 批判의 自由를 認定하는 것은 言論의 自由를 抑壓함으로써 惹起되는 恐怖와 疑惑, 不信이 漫然하기 쉬운 獨裁社會의 不合理性을 未然에 防止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國民 個人이 갖는 葛藤의 建設的 解決은 곧 社會問題의 解決에 直結된다고 볼 때 葛藤의 建設的 解決을 前提로한 民主社會의 優秀性을 더욱 切感케 한다.

이미指摘한 바 있듯이 國民 個人이 自己의 意思와 主張을 自由롭게 表明할 수 없이 言論을 拘束하는 곳에서는 民主主義가 實現될 수 없다. 言論이 拘束되는 곳에 民主主義가 實現될 수 없을 뿐 아니라 發展과 進歩 또한 있을 수 없게 된다. 人間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意見과 眞理中에 가장 좋은 意見과 眞理는 모든 國民이 各己 自己의 意見과 主張을 自由롭게 表示하고 討論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民主主義는 國民의 意思와 主張을 充分히 表現케 하고 그들 意見들이 討論 過程에서 檢討되고 修正되어 多數의 支持를 받게 되는 意見을 選擇하여 이를 國家의 總意로서 政策에 反映한다. 이렇게 國民 個人의 意思를 集約하는 輿論 形成 過程과 輿論의 政策에의 反映過程이 곧 前述한 民主主義의 過程인 것이다.

民主社會에서 多少의 混亂과 摩擦을 豫想하면서도 個人의 意思와 主張을 尊重하고 討論 過程을 거쳐 多數의 支持를 받게 되는 意思를 選擇하는 節次를 밟게 되는 것은 民主主義가 信奉하는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信念 때문이며, 나아가 모든 國民이 意見을 自由로히 發表할 수 있게 함으로서 創意的 意見과 眞理에 가까운 意見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며, 또한 討論過程에서 選擇된 많고 多樣한 참된 意見이 社會의 進歩와 發達을 促進하는 原動力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前章에서 民主主義의 眞理觀을 論한 바 있지만 數世紀를 거쳐 發展하여 온 오늘의 民主主義도 아직 未完成的인 것으로 보고 繼續 發展시켜 나가는 過程을 重要視 하는 것처럼 眞理도 언제나 變化될 수 있는 流動的인 것으로 보고 보다 나은 眞理를 探究하기 爲해 繼續 努力하는 過程을 重要視 한다. 따라서 우리가 當面하는 모든 生活 領域에서 아직 改善되어야 할 問題가 많은 것으로 보고 繼續 問題를 發掘하고 이들 問題를 科學的인 方法으로 實驗하여 改善해 가는 創意的 問題 解決 過程을 民主社會는 높이 評價하고, 이러한 科學的, 實驗的, 創意的 態度를 勸獎하는 것이다. 問題에 臨하는 이러한 創意的 態度를 勸獎할 때 生活은 改善되고 進歩 發達하게 될 것이라고 民主主義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信念을 가진 民主社會에서 個人의 意思와 主張을 尊重하고 이로 因해서 惹起될 수 있는 混亂과 葛藤은 一時的인 것이며 未來에 언젠가 될 참된 意見의 導出을 爲해 거쳐야 할 陣痛으로 알고 甘受하며 보다 더 참된 眞理의 產出과 福祉國家를 建設하기 爲해 繼續 努力하는 過程을 重要視 여기는 것이다.

獨裁社會는 모든 生活과 文化를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固定된 眞理에 隸屬시키고 束縛하는데

反하여 民主社會는 多様な 思考와 行動 그리고 生活樣式과 文化活動을 個人的 創意的 活動으로서 可能케 하며 許容하고 있다. 따라서 한 색으로 統一된 獨裁社會가 安定되어 보이며 다스리기에는 쉬울지 모르나 그러한 곳에 個人的 創意的 意見이 反映될 수 없고 進歩와 發展을 期待하기 어렵다. 그러나 多様性을 前提로 한 民主社會는 複雜하고 混亂스러우며 다스리기 어려울지는 모르나 個性과 創意的 意思가 正當하고 建設的인 方法으로 國政에 反映되어 보다 밝은 社會를 指向하게 되면서 進歩와 發展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第4章 民主主義의 土着化

民主主義는 西歐 政治 傳統의 산물로서 數 世紀를 통하여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가꾸고 키워온 思想이다. 그러나 西歐의 어느 先進 民主主義 國家라도 完全 無缺하게 完成된 民主主義를 實現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重要한 理由는 앞서 여러번 指摘한 바 있듯이, 民主主義의 本質이 어느 限界를 갖는 完成的인 것이 아니고 계속 가꾸고 키워가는 未來 完成的인 理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實際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는 언제나 程度를 나타내는 概念으로 解釋된다. 이렇게 民主主義는 어느 限界에서 完成될 수 없는 無限히 發展될 수 있는 未來 完成的인 理念이기 때문에 그 理念의 實現을 위해서, 그리고 그 理念 實現을 위한 여러가지 與件을 改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努力해야 할 것이 要望되는 것이다.

數세기를 거쳐 民主主義를 다듬고 가꾸어 온 西歐의 先進 民主主義의 國家들도 그들이 갖는 非民主的 要素를 除去하면서 民主主義의 理念을 實現할 수 있는 與件의 改善을 위해 계속적으로 努力하고 있는 事實에 비추어 보면 西歐式 民主主義 樣式을 移植하기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實情은 悲觀的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大韓民國·民主主義의 앞날을 막연히 未來에만 依託하는 지나친 樂觀的 見解만을 가지고 傍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民主主義의 理念을 믿고 그 理念을 되도록 빠른 時日내에 實現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民主主義를 意圖的이고 計劃的으로 우리의 모든 生活領域에 土着化시킬 것이냐의 問題解決에 우리의 모든 努力을 集中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 더우기 民主主義는 外部의 어느 他人이나 나라가 만들어 남에게 傳達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民主主義는 우리의 손으로 가꾸고 키워야 그 眞正한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文化的 傳統이 과연 民主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와 民主주의의 定着을 阻害하는 우리의 文化的 社會的 要因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제이다.

새로운 歷史의 創造와 建設은 반드시 가꾸고 길러온 文化的 傳統과 遺産의 傳承을 前提로 한다.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없는 바와 같이 새로운 歷史의 創造 역시 傳統의 基盤없이 되는 것이 아니

다. 傳統的 基盤이 새로운 歷史의 創造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前提로 보아 民主主義를 受容할 수 있는 우리의 文化的 傳統을 밝히고 어떠한 傳統的 要素가 民主主義를 移植하여 成長하게 함에 阻害하는 것이 되는지를 밝히는 課題는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위한 중요한 作業이 된다.

흔히 우리는 民主主義를 西歐의 政治的 傳統의 產物로 여겨 우리에게는 消化되기 힘든 아주 生소한 思想으로 生覺한다. 물론 民主主義 思想은 일찌기 西歐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그 理念을 實現하기 위한 모든 制度的 條件을 西歐의 여러 나라에서 먼저 整備하기 시작한 것은 事實이며 過去에 우리 나라에서 民主主義가 발달되지 못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民主主義의 思想과 實際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동안 임금을 主權者로 하는 專制主義 形式의 統治體制가 계속되었지만, 政治는 百姓을 爲主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思想이 언제나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國民」의, 그리고 「國民에 의한 政治」는 못되었지만 「國民을 위한 政治」는 계속 強調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물론 民主的 政治理念은 國民을 위한 政治를 重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國民에 依한 政治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民主的 政治形態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실제로 現代의 民主主義的 政治形態를 갖춘 機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三國時代에 있었던 新羅의 和尙, 高句麗의 群公會議, 그리고 百濟의 國相選舉등의 制度가 마련되어 백성의 영혼을 묻고, 百姓의 政治干與를 許容한 일이 있었다. 李朝時代에 와서도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公論의 重要性이 지적되고 民意를 政治에 反映시키려는 意圖와 努力이 斷片的이었기는 하나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韓國의인 思想이나 制度도 西洋에서 발달한 民主主義 思想과 制度와 相通하는 점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西歐에 서의 民主主義 思想은 깊이 뿌리를 박고 널리 퍼져, 여러 領域의 實際生活에 實現되었던 것에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民主主義의 思想은 극히 斷片的이고 間歇的인 것으로서 實際生活에 그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고 계속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더욱이 孝와 忠의 社會的 政治的 倫理觀에서 볼 수 있듯이, 百姓을 忠誠의 義務로 國家에 從屬시키려는 傳統的 政治 理念이 크게 支配하여 間歇的으로 나타난 民主的 思想이 자라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孝와 忠의 倫理觀을 土臺로 하는 政治的 權威主義는 民主主義 理念과 완전히 相衝되는 意味를 지닌 것은 아닐지 모른다. 兩者가 追求하는 目標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孝와 忠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政治的 權威主義는 上位者의 倫理的 優越性을 前提로한 것으로서, 上位者가 倫理的 優越性을 지니게 될 때, 下位者는 利害關係를 따지는 契約主義에 있어서 보다 더 자유롭게 자기의 德性을 키울 수도 있게 된다.

우리의 傳統的인 孝와 忠의 倫理觀을 土臺로 하는 權威主義를 植民地的 權威主義로 變質하게 한 것이 日帝의 統治였다. 解放 이후에도 日帝의 統治下에서 배운 植民地的 權威主義를 벗어나지 못하고 官尊 思想을 이어 받아 民主主義의 成長을 크게 阻害하게 된 것이다. 非民主的인 日本의 帝國主義가 우리를 오래 支配하여 우리의 국민은 民主적 訓練을 스스로 가질 機會를 얻지 못한 것이 民主

主義의 理念과 制度의 土着化를 阻害하게된 더욱 큰 原因이 된 것이다.

그러나 日帝의 가진 野慾과 蠻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文化的 傳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그들의 文化, 政治등 모든 生活樣式 그대로를 우리의 땅에 移植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으나 우리의 主體性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要求에 同化되지는 않았다. 비단 日帝 때 뿐 아니라 外來文化를 受容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主體性을 維持해 왔던 것이다. 佛敎를 받아들이며서도 이를 消化시켜 우리의 精神的 바탕을 더욱 鞏固히 한 것이 新羅의 花郎道 精神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外國의 文化의 影響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도 外來文化에 吸收 同化된 적은 없으며 外來文化를 吸收融化시켜 우리 固有의 文化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民主主義 思想이 비록 西歐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임에 있어, 우리 固有의 文化에 吸收시켜 우리의 것으로 創造할 수 있는 傳統的 바탕은 되어 있다. 北傀가 共產主義 理論을 移植하기 위하여 우리의 傳統的 文化를 抹殺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民主主義를 導入하는 우리로서는 할 必要가 없다. 그 까닭은 共產主義는 우리의 傳統과 相衝하는 面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具體的인 理由를 밝히는 問題는 ‘우리의 傳統文化’에서 取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再論을 피한다.

우리의 傳統이 民主主義와 相衝되는 矛盾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民主主義가 저절로 우리 땅에 移植되고 成長 發達될 것으로 期待할 수는 없다. 우리는 民主主義를 이땅에 심어 갖가지 華麗한 꽃을 피우게 하고 結實을 맺게하기 위해서는 不利한 條件을 更正하고 民主주의의 발달을 阻害하는 要素들을 除去하면서 여러가지 條件을 改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個人的 次元에서 民主的 心性的 中核은 自律性과 責任性에 있고 國家的 次元에서의 民主的 特性은 民衆의 參政과 國民意思의 政治에의 反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民主주의의 理念을 實現할 수 있는 制度의 樹立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나 制度의 運營過程과 民主적 態度, 그리고 모든 社會生活面에서의 民主的 特性을 形成하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새로운 價値觀을 受容하여 社會적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는 制度의 變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理念이 개인의 心理的 構造에 뿌리를 내려 社會생활의 모든 면에 널리 퍼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變化를 위해서는 敎育의 힘이 크게 要請된다. 敎育의 作用없이 개인의 心理的 特性을 變化시킬 수 없고 개인의 變化 없이 社會의 變革 또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敎育은 學校라는 組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家庭을 포함하는 모든 社會의 機關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어 計劃的인 敎育의 試圖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對人關係가 權威主義의이어서 民主的 態度的 育成을 어렵게 하고 있다. 極端的인 예를 들면, 民主主義를 極히 非民主主義의 方法으로 敎育하려는 矛盾을 우리는 過去에 가져왔다. 非 民主的인 態度를 가지고 他人을 대하는 限, 他人에게 民主적 태도를 갖도록 要求할 수 없는 바와 같이, 民主主義的 思考와 行動을 敎育하는 父母나 敎師가 비민주적 사고와 行動을 하는 限, 彼 敎育者에게 民主적 태도가 育成되길 바랄 수는 없게된다. 彼 敎育者를 대하는 태도가 民主적이라야 한다는 뜻은 그를 사람으로 尊敬

하고 그의 意見을 尊重한다는 말이다. 어떠한 人性 特性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立場에서 充分히 說明한 바 있다. 이러한 特性들을 教育을 통해서 個人에게 심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土着化를 위해 가장 중요한 課題인 것이다.

민주주의 理念의 實現을 阻害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은 無知이다. 개인이 자기에게 賦與된 自由와 權利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個人과 國家와의 關係, 개인의 參政의 意義등을 모른다고 하면, 국가를 개인에게 歸屬시키려는 민주주의의 意圖는 실현될 수 없다. 無知에서의 解放은 民主主義 理念 실현을 위한 基礎가 된다. 그러기에 民主國家에서는 教育을 重要視 한다. 그러나 民主教育은 개인의 能力을 啓發하여 개인 나름의 特性을 伸張시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劃一의 人間性을 갖도록 強要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歷史의 傳統, 個人의 心性, 그리고 教育등이 민주주의의 발달을 阻害 내지 促進하는 重要한 要素들임을 簡略히 지적하려 했다. 이들 要素 이외에 또한 중요한 條件은 社會, 經濟的 條件이다. 개인적으로 民主의 特性을 갖게하여 이를 社會적으로 充分히 發揮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社會 經濟的 條件의 뒷 받침이 必要하게 된다. 개인에게 어느 程度의 經濟力이 없이는 教育도 自我實現의 機會도 갖질 수가 없게 되며, 政治過程에 參與하는 餘力도 없게 된다. 民衆의 힘이 成長하여 政治에 積極 關與하려면 어느 程度의 經濟力이 뒤 따라야 하는 것이다.

民主主義의 理念에 符合되는 經濟體制는 自由經濟體制이다. 自由經濟體制를 흔히 資本主義 經濟體制라 불리어 지고 있다는 예를 前章에서 설명한 바 있다. 自由經濟活動의 許容으로 경제적 競爭이 熾烈해져 결과적으로 貧富의 格差를 넓히게 되었다. 민주주의 발달을 위한 基本的 條件으로 私經濟力의 育成이 必要할 뿐 아니라, 分配의 公正이 또한 필요해진다. 우리의 경우 경제력이 아직도 高度의 産業化를 이룩하지 못한 段階에 있어, 産業化를 통한 私經濟力을 育成하는 일에 모든 餘力을 總動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이념이 具現될 수 있는 水準의 經濟力을 育成하기에는 더한 時日이 要할 것이다.

貧困은 無知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實現을 阻害하는 중요한 要素가 된다. 貧困에서 脫皮하여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는 意慾은 높아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도 一部 指導者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를 期待하는 것은 벌써 그 自體가 非 民主的이다. 개인 모두가 自發的으로 그리고 自力으로 개인의 經濟的 生活를 改善하여 發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各界各層의 指導者는 獨自의 힘으로 大衆을 위해 經濟的 條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大衆으로 하여금 스스로 노력하도록 刺戟하고 善導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指摘하려한 要旨을 簡略히 要約하면, 민주주의를 우리의 마음과 社會, 그리고 國家에 定着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의 傳統文化와 相衝되지 않고, 이를 우리의 傳統에 吸收시켜 우리의 것으로 創造 發展시킬 수 있다는 自信을 갖게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無知를 退治하고 국민 個人이 민주적으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特性을 갖게 하는 教育을 強化하고, 貧困에서 벗어나 各自가 願하는 滿足스러운 生活와 最善我實現을 가능하게

하는 經濟的 條件을 改善하는 일 등이 優先 重要하다.

이러한 일들을 遂行함에 時日이 요할 것이며 汎國民的인 教育的 努力이 絶대로 要請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理念이 指示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知性과 能力, 그리고 努力을 받고, 이들이 싹트기를 기다리면서 가꾸고 키우는 忍耐와 努力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하루 밤사이에 實現될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西歐의 민주국가들이 가꾸고 키운 것을 그대로 移植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傳統에 吸收시켜 충분히 融和시키려면 오랜 시일이 要할것으로 알고 참고 견디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이 民主主義를 發展시키는 올바른 道를 鎔心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오천석, 民主主義의 참된 모습 서울: 現代教育總書 出版社 1968 (IV, "民主社會의 性格" pp 89~112)
- (2) 오병헌 (譯), 20世紀의 政府와 政治, 思想界社, 1962.
- (3) 차기벽, 第二節 "民主主義의 제도와 실제" 박종홍·유달영 (편) 國民倫理, 三和出版社.
- (4) 오천석, 民主主義의 참된 모습, 서울: 現代教育總書 出版社, 1968. ("民主主義의 바탕되는 이념" pp. 67~88)
- (5) 이극찬, (譯) 市民政府論 (*The Second Treaties of Government*)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0.
- (6) 차기벽, 第三章 "民主主義의 確立" 박종홍 유달영 (編) 國民 倫理" 서울: 三和出版社, 1970. pp. 125~140.
- (7) Becker, Carl L. *Moder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 Press, 1942.
- (8) Cohen. Carl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 (9) Dewey, John, *A Common Fai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34.
- (10)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7 (Chapter 1. "democracy as a system of values" pp. 3~33)
- (11) Laslitt, P. (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1956.
- (12)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Two" the Problem of defining democracy". pp. 21~34)
- (13) Po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conomics* (3rd. ed.) 2vols., London. Routledye and Keyon Paul, 1957.
- (14) Rejai, M.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Atherton Press, 1967.
- (15) Barker, E. *Principles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67.
- (16) Coker, Francis W(ed) *Democracy, Liberty and Property*, New York: The MacMillan. 1942.
- (17)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 (18) Hook. S, *Political Power and Personal Freedom*, New York: Criterion Books, 1959.
- (19) Pounds, R. L. & J. R. Bryner, *The Socia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 424~427.
- (20) Becker, Carl,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the American Way of Life*. New York: Knopf, 1945,
- (21) N. E. A., *The Education of Free Men in a Democracy*, Washingto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41.
- (22) Applely, Paul, *Policy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Alabama: Univ, of Alabama Press, 1949.
- (23) Backer, E. *Reflections on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 Press, 1953.
- (24) Ebenstein, W. et. al,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7.
- (25) Holcombe, Arthur N. *The Constitutional System*. Chicago: Scott. Foresman, 1964.
- (26) Hyneman. C. S. *Bureaucracy in a Democracy*.
- (27) New York.: Harper & Row. 1950.
Mayo, H. B. *An Introduction to Democratic 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0.
- (28) Pounds, R. L. and J. R. Bryner, *The School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1959. pp. 424~42.
- (29) Pritchett C. H. *The American Constitution*, New York: Me Graw-Hill, 1959.

- (30) Stein, Harold (ed)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2.
- (31) Berman, D. *In Congress Assembled: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Government*, New York: Macmillan, 1964.
- (32) Davies. F. C. *Human Nature in Politics*, New York: Wiley, 1963.
- (33) Duvezer. M.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New York: Wiley. 1956.
- (34) Key V. O. gr.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6.
- (35) Key V. O. gr. *Politics, Partie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Crowell, 1964.
- (36) Lane. R. E. *Political Life* New York: Freepress. 1959.
- (37) Lazarsfeld. Paul F. and others,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s his mind.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48.
- (38) Milbrath. L. W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1965.
- (39) Schramm W.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s*, Urbana, Ill: Univ. of Illinois Press. 1965.
- (40) Truman. D. *The Governmental Process*, New York: Knopf, 1951.
- (41) Zeigler, H. *Interest Groups in American Societ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4.
- (42) Anderson, J. E. *Politics and the Economy*, Boston: Little, Brown, 1966.
- (43) Arnold, T. W, *The Folklore of Capital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1937.
- (44) Beard, C. A. *The Economic Basis of Politics*, New York: Knopf. 1922.
- (45) Brundage, P. L. *The price of prosperity*, Garden City, N. Y: Doubleday. 1962.
- (46)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2.
- (47) Schattschneid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42.
- (48) Shonfield. A. *Modern Capitalism: The Changing 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Pow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65.
- (49) Alexander, F. *Our Age of Unreason*. Philadelphia: Lippincott. 1942.
- (50) Barbu. Z. *Democracy and Dictatorship*, New York: Grove Press, 1956.
- (51) Ebenstein, W. *Today's Isms: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Seced. Englewood Cliffs, N. R.: Prentice-Hall, 1967.
- (52) Pennock. J. R. *Liberal Democracy: It's Merits and Prospect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50.
- (53) Perkins, D. *The American way* Cornell Univ Press, 1957.
- (54) Yang. C. F. *Chinese Communist Society*. Cambridge. Mas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1965.
- (55) Adorno, T. W. and others,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50.
- (56) Cantril, H, *Human Nature and Political Systems*, New Brunswick, N. Y. Rutgers Univ. Press. 1961.
- (57) Davies. James C. *Human Nature in Politics*, New York: Wiley, 1963.
- (58) Lasswell, Harold D. *Power and Personality*, New York: Norton, 1948.
- (59) Stauton, Alfred. H., and S. E. Perry (eds.)
Personality and Political Crisis, New York: Free press, 1951.
- (60) Wallas G. *Human Nature in Politics*, London: Constable. 1908.
- (61) Anderson W. A. *The Nation and the States: Rivals or Partners*,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55.
- (62) Berlin, I. *Two Concepts of Liber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9.
- (63) Chase, Harold W. *Security and Liberty: The Problem of Native Communist, 1947--1955*.
- (64) Dollard, John and others *Frustration and New York*: Doubleday, 1955.
- (65) De Grazia. A. (ed.) *Grass Roots Private Welfa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57.
- (66) Heilbroner, R. L, *The Limits of American Capitalism* New York: Harper & Row, 1966.
- (67) Phelps, Edmund S. (ed.) *Private Wants and Public Needs*, New York: Norton, 1962.
- (68) Roche, John P. *The Quest for the Dream*, New York: Macmillan, 1963.
- (69) Seligman, Ben B. (ed.) *Poverty as a Public Issue*, New York: Free press 1965.
- (70) Strausz-Hupe. R. and others, *Protracted Conflict*, New York: Harper & Row. 1963.

Ⅲ. 勝 共 論

第 1 章 共產主義의 定義와 基本概念

1. 定 義
2. 「마르크스」主義의 歷史的 背景
3. 基本概念
4. 全體主義의 「이데올로기」

第 2 章 共產主義의 變遷과 矛盾

1. 共產主義의 分派作用
2. 「소비에트」共產主義
3. 毛澤東 思想(戰術的 側面)

第 3 章 共產國家의 現實

1. 政治現實
2. 社會現實
3. 北傀의 現實

第1章 共產主義의 定義와 基本概念

共產主義에 대한 理解는 두 가지 側面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는 그 理論的인 面에서 矛盾性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實際的인 面에서 非倫理性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章에서는 歷史的 理論으로서 共產主義의 基本概念을 主로 설명한다.

本章은 네 部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共產主義의 定義라는 제목 아래 共產主義라는 單語의 뜻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단어의 定義보다는 共產主義의 理論的 紹介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共產主義 理論이 발생하게 된 歷史的 背景을 다루고 있다. 다른 모든 社會理論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주장된 共產主義도 時代的 產物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던 19세기 西歐의 社會的 背景에 대한 理解가 필요하다. 그러나 時代的 背景에 대한 고찰은 당시의 社會·經濟的인 與件과 共產主義 理論의 발생과의 必然的인 因果關係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부분은, 본장의 가장 核心的인 部分으로서 共產主義의 基本概念을 설명하고 그 개념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周知하다 싶이 共產主義의 基本概念은 哲學理論, 政治理論, 經濟理論으로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唯物 辨證法」,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暴力 革命論」, 「階級國家論」, 「剩餘價值論」 및 「勞動價值說」에 입각한 「資本主義 沒落論」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네째 부분은, 共產主義가 20세기에 들어와서 全體主義 國家의 「이데올로기」로 轉落되어 獨裁를 위한 敎理로 이용되고 있는 비극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共產主義는 科學的인 眞理인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로서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共產主義가 全體主義 共產黨의 「이데올로기」로 變質된 것은 하나의 理想으로서의 共產主義가 영원히 소멸한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르크스」나 「엔겔스」가 예측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었던 것도 아닌 것이다. 全體主義의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는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背信이 아닐 수 없다.

1. 定 義

오늘날 共產主義는 주로 「레닌」(Lenin)에 의하여 수정된 「마르크스」主義(Marxism)를 의미하는 말(用語)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불리우는 世界觀과 一致한다. 그러나 하나의 理想으로서의 共產主義는 「플라톤」(Platon)이 그의 〈共和國〉(Republic)에서 저 유명한 理想國(Utopia)에 착안했을 당시 그러니까 西歐 정치사상의 始發點에까지 소급된다.

近 二千餘年동안 西歐의 文明은 모든 人間이 平等하다는 哲學 내지 종교와 그 人間을 主人과 노예로 나누었던 경제제도와의 矛盾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矛盾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또한 私有財産이라는 經濟제도에서 발생한다고 믿었던 人間の 不平等을 제

거하기 위하여 社會秩序의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19세기의 思想家 「칼·마르크스」(Karl marx)에 와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는 現存하는 不平等한 社會秩序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社會秩序를 改革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의 哲學體系를 수립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人間의 궁극적인 救援이 科學에 의하여 保障된다는 改革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에는 社會秩序에 대한 明確한 分析이라던지 혹은 그 秩序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人間의 役割에 대한 이해가 缺如되었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기의 社會思想家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대부분 人間이 본래 合理的인 存在이지만 「邪惡한 政治制度」(Political Institutions)로 말미암아 墮落해 버렸다는 信念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政治制度를 除去한 新념을 創造해 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흥한 후 가장 큰 大衆運動으로 등장하는데 成功하였다.

古典的 理論에 의하면 共產主義는 私有財產制度를 폐지하고 일체의 生産, 交換, 分配手段의 社會化를 성취함으로써 階級없는 사회의 창조를 주장하는 世界觀이다. 社會構成體로서의 공산사회는 奴隸制, 封建制, 資本制와 달라서 生産手段이 사회전체의 所有로 되며 階級的 搾取나 階級的 對立이 소멸되어 勤勞者의 협력과 相互扶助에 입각한 協同社會이며, 여기에서는 民族國家도 消滅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社會는 資本主義 社會가 발전함에 따라 階級鬭爭이 激化되고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階級이 革命的 勝利를 거두어 그들의 獨裁를 樹立·強化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經濟秩序를 뒤집어 있는 革命과 이러한 공산사회의 樹立사이에는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라는 過渡期가 필연적으로 存在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過渡期에 그들이 놓여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例컨대 蘇聯은 그들의 體制를 社會主義體制라고 부르며, 결코 共產主義의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蘇聯의 國號가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 聯邦인 것에서 명백하다.

共產社會의 基準은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응하여 分配한다』는 原則인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his needs) 이러한 평등은 「마르크스」가 指摘한 바와 같이 『能力에 따라 일하고 勞動에 응하여 分配한다』는 原則(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의 支配를 받는 社會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그 실현이 不可能하다. 그리하여 「마르크스」 자신도 計劃경제의 過渡期를 공산주의의 初期 現象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지만① 많은 경우에 그러한 過渡期를 社會主義라고 불렀다.¹¹

그러나 그가 1847년에 共產主義者 同盟을 結成한 것은 「루이·블랑」(Louis Blanc)의 「社會黨」과 구별하기 위해서였고 1848년의 선언을 「共產黨 宣言」이라고 한 것도 當時 「社會主義」란 말이 空想

주 ① 그 예는 1875년에 著述된 「마르크스」의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에서 發見된다. 이 책의 原名은 「Rand-glossen zum Programm der deutschen Arbeiter-Partei」인데 1891년 「엔겔스」(Engels)에 의하여 最初로 出刊되었다.

的 理想主義(Utopianism)와 結合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區別하기 위해서였다.

「레닌」과 「스탈린」(Stalin)은 「마르크스」를 좇아서 자본주의의 沒落위에 건설되어야 할 새로운 秩序를 社會主義라고 불렀다. ② 그런데 社會主義나 共產主義라는 用語는 그들이 追求하는 目的에 관한 限 서로 交換하여 使用해도 무방하다. 이 둘의 本질은 生産手段이 共同社會(Community)에 屬 歸되는 것이다.

그러나 共同社會에 의한 生産手段의 規制는 事實상 不可能하기 때문에 國家가 대신하여 生産手段을 管理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公共의 所有制(Public ownership)는 實質적으로 國家 資本主義(State Capitalism)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같이 共產主義와 社會主義는 궁극적으로 追求하는 目標가 동일하며 양자의 差異는 目標보다는 手段에 있어서 발견된다. 社會主義者들은 民主的 方式에 의하여 그들의 體制를 維持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共產主義者들은 이를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콤무니스트」(Communist)라는 말은 「共產黨」(Communist Party)을 「社會黨」(Socialist Party)이나 「社會民主黨」(Social Democratic Party)과 區別하기 위하여 使用된다. 그 黨員들은 스스로 「共產主義者」(Communists)라고 自處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勞動運動에 있어서 社會民主主義의 系列이 아닌 共產主義의 系列에 속하고 있음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③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人間들은 存在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어디서도 공산주의가 實現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이나 中共의 社會主義도 그들이 그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國家資本主義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며, 國家의 消滅이란지 혹은 사람들이 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일하고 강제가 必要치 아니하다는 共產社會에 대한 論議는 단지 神話에 지나지 아니한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信條는 지난 世紀 「마르크스」와 「엔겔스」(Engels)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금 세기에 들어와서 「레닌」과 「스탈린」 혹은 毛澤東에 의하여 變化된 社會的 條件에 알맞게 解釋된 理論 및 實踐體系다. 그러므로 精確하게는 이것을 「마르크스」主義——「레닌」主義——「스탈린」主義——「毛澤東思想」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命名法의 문제가 아니라 共產主義 혹은 「마르크스」主義의 背後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共產主義는 빈곤과 邪惡한 社會條件으로 부터 生成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共產主義의 魅力을 느끼는 部類의 人間이 社

주 ② 1936年 12월에 公表된 「소련 憲法」은 共產主義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소비에트」聯邦을 「勞動者와 農民의 社會主義的 國家」(A Socialist State of workers and peasants)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社會主義者들이 오늘날 蘇聯의 정치 및 政治體制를 社會主義體制라고 아니하고 있는 것은 注意를 要한다.

③ 政治用語로서 「콤무니스트」라는 말은 「레닌」에 의하여 經濟된 「공산당」을 創設한다. 그것은 1898년에 指稱된 「러시아 社會主義 民主 勞動黨」(The Russian Socialist Democratic Labor Party)이 發展된 것이다. 1903年 이 政黨은 소위 「볼셰비키」(Bolshevik)라고 불리우던 多數派와 「멘셰비키」(Menshevik)라고 불리우던 少數派로 나뉘어 졌다. 이 兩者는 共히 「칼·마르크스」가 主張했던 社會主義를 追求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레닌」의 指導아래 「볼셰비키」는 소규모의 秘密團體를 形成하고, 急激하고 暴力的인 方法에 의한 政府의 顛覆을 위해 鬪爭했다. 여기에 반하여 「멘셰비키」는 西歐의 社會民主黨과 類似한 性格을 갖고 選舉, 勞動組合, 大規模의 公開政黨을 통하여 比較的 合法的이고 漸進的인 方法으로 社會主義를 成就할 것을 目標로 했다. 1918年 「레닌」은 「멘셰비키」派의 政策에 不滿을 품고, 그의 「볼셰비키」派에게 「共產黨」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후 즉시 共產主義者들은 모든 反對 政黨의 彈壓을 始作했던 것이다.

會의 極貧者가 아니며 오히려 보다 나은 賃金을 지급받는 熟練 勞動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大衆이 資本主義體制의 病弊와 非人間性을 별안간 발견했기 때문에 爆發된 것도 아니며 공장노동의 獨占에서 基因된 것도 아니다. ④

왜냐하면 共產主義는 本質的으로 「人民大衆의 運動」(Popular movement)으로서가 아니라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認定했듯이 「브르쥬아」運動(Bourgeois movement)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공산주의가 강력한 운동으로 擴大된 것은 그것이 社會의 貧民層보다는 知識階層과 부유한 노동자에게 보다 큰 魅力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信奉者에게는 그것이 現實과 그 現實의 일부로서의 人間에 대한 완벽한 說明을 提供하고, 또 人生에 어떠한 目標意識을 賦與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宗教的 價値를 지니고 있다. 共產主義는 宗教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할 命題에 呼訴하고 있는데, 宗教는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認定함에 반하여, 共產主義는 그 基本的 敎理가 科學에 의하여 保障된다고 主張하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어떠한 「主義」도 반드시 獨斷的인 敎理로부터 出發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만일 敎理 자체가 疑心 視 되고 흔들린다면 그 「主義」는 根據를 잃게 된다. 그러나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는 어떤 敎理가 아니고 行動의 指針이기 때문이다.²⁾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理論을 文字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항상 그것이 변화되는 條件에 適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主張한다. ⑤

共產主義는 哲學, 經濟, 政治 및 社會에 관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學說에 基礎를 둔 世界觀(Weltanschauung)이기 때문에 共產主義는 全體로서 考察되어야 하며, 그 일부분의 어떤 要素를 별도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떤 요소만을 抽出해 내고 다른 요소를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 體制에 대한 知識이 없이 共產主義者들의 活動을 理解하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을 注意해야 된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에 대한 完전한 理解를 위하여는 그들의 思想的인 敎理는 물론 實踐的 行動綱領과 그들의 現實에 대한 體系的인 考察이 必要할 줄로 생각된다.

2. 「마르크스」主義의 歷史的 背景

19세기 初에 주장되었던 여러 갈래의 社會主義 學說과 같이 「마르크스」主義도 西歐의 産業資本主

주 ④ 人類的 歷史를 볼때 大衆의 利益은 時代를 거듭함에 따라서 國家에 의하여 보다 많이 保護되는 方向으로 움직여 왔고, 工場勞動者들도 그들의 生活水準이 威脅받고 있지 않다는 安定感속에서 그들의 日常 業務에 대하여 反對를 한다는 것은 妥當하지 못한 見解이다.

⑤ 「레닌」자신도 「마르크스」主義를 修正한 것은 물론이지만 「스탈린」도 1939年 蘇聯共產黨 第18次 全黨大會에서 黨員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마르크스」나 「엔겔스」 혹은 심지어 「레닌」에게서조차 그 解答을 發見할 것을 期待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黨員의 임무는 일반적인 共產主義의 原則에 벗어나지 않는 範圍內에서 그를 스스로가 일하는 것 임을 強調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後述하는 바와같이 毛澤東에 와서도 同一하다. 毛澤東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현실에 맞게 「創造的으로 適用」 하였으며 「마르크스」의 理論의 盲目的인 追從을 禁忌視하였다.

義의 發展과 더불어 발생한 經濟的, 社會的 矛盾속에서 胚胎되었다. 1848年 獨逸의 한 신문인이 있던 29歲의 「칸·마르크스」는 「프리드리히·엥겔스」(Friedrich Engels)의 도움을 얻어 「共產黨宣言」(Communist manifesto)을 發表하였다. 그들은 이 宣言이 全 歐洲에 있어서 革命을 誘發시킬 것을 기대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權力을 획득하고, 資本家로 부터 工場을 빼앗고, 모든 財産이 국가에 歸屬되는 階級없는 社會가 건설될 것을 希望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私有財産의 廢止라는 한줄로 要約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方法은 아래와 같이 要約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노동자)가 잃을것이라고는 쇠사슬 밖에 없다. 그들은 勝利할 世界를 갖고 있다. 世界의 勞動者여, 몽쳐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했던 예언은 20세기에 와서 전혀 豫見하지 못했던 「러시아」(Russia)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이 共產黨宣言을 발표했던 당시 西歐는 확실히 革命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다.

가. 時代的 背景

1840年代에는 政治와 産業에 있어서의 革命이 동시에 進行되고 있었다. 人類의 歷史上 가장 위대한 變革이었던 産業革命은 이미 18세기부터 英國에서 始作하여 全歐洲로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産業化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면서, 많은 大衆에게 貧困과 不幸을 가져오기도 했다.

産業革命이 일어나기 以前, 數 世紀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祖上이 살고있던 村落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世代를 거듭하면서 子息은 父代의 職業을 傳承하였었다. 그러나 1769年 「아크라이트」(Rechard Arkwigh)가 발명한 紡織機와 「제임스 왓트」(James Watt)의 蒸氣機關은 英國의 農村生活를 崩壞시켰는데 家內에 紡織機械를 갖고 있던 소규모의 手工業者들은 「만체스터」(Manchester)와 같은 큰 도시의 紡織工場으로 몰리게 되었다.

「왓트」의 蒸氣機關은 철도를 可能케 하였고 따라서 農村生活의 孤立은 終結을 告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都市로 移住하였고, 또 한편 共有地를 私有地化 하는 法令(Enclosure Acts)에 의하여 農民들은 失鄉民이 되었다. 이러한 法令들은 小作農民의 희생위에 貴族이나 시골 地主의 勢力을 넓히었던 것이다. 반면에 都市로 移住한 農民과 手工業者들은 都市의 貧民階層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이 살고 있던 生活環境이란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想像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 노동조건은 極惡하고 賃金은 最低生活을 유지하기에도 不足하였으니,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父母를 쫓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産業革命으로 利得을 본 새로운 支配계급은 革命이 初期에 가져온 폐해를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西歐에는 人民에 의한 정부라는 觀念이 거의 알려지지 아니했고, 오직 英國만이 비교적 광범위한 大衆參與에 기초를 둔 의회정치를 발전시켰는데, 이 議會는 1844年에 公表된 「工場法」과 같은 一連의 법률로서 産業革命이 가져온 社會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1848年 政治的 革命은 드디어 暴發하고 말았다. 西歐의 産業化는 絶對君主가 百姓들에 의하여 몰락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마르크스」가 革命을 선동하는 宣言書를 發表했을때 西歐의 人民들

은 基本權이나 立憲政府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1848年 全 歐洲는 「제퍼슨」(Jefferson)이 「美國獨立宣言」에서 주장했던 生命, 自由, 幸福의 追求와 같은 不可讓의 權利에 대한 要求를 들끓고 있었으니, 美國의 발전을 西歐의 政治的 變化에 대한 主要한 刺戟劑였다. 뿐만 아니라 佛蘭西革命은 더욱 重要한 役割을 하였으니, 비록 革命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革命이 政治 내지 社會的 變化를 가져오는 效果인 方法이 되는 희망을 歐洲人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帝國의 反動的 宰相이었던 「메테르니히」(Metternich)는 「헝가리」人 및 기타의 民族들을 抑壓하였고 「러시아」의 皇帝 「니콜라이」 1世(Tsar Nicholas I. 1825—1855)의 治下에서 農民들의 生活은 노예의 그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프러시아」의 「프레데릭·윌리엄」 4世(Frederick William IV) 역시 個人의 自由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獨裁君主였다.

「루이·필립」(Louis Philippe)의 佛蘭서는 비교적 自由主義的 立憲政治 아래 있었으나 여기에도 工場制度는 歐洲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노동자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드디어 1848年 「파리」의 人民들은 무능한 「루이·필립」의 政府를 무너뜨리고 그들은 政權을 奪取했다. 그들은 노동자 대표 4名을 포함한 11名으로 구성된 임시政府를 수립하였으니, 이것으로 佛蘭西 第2共和國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革命이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를 風靡하였다. 노동자들은 伯林에서 防柵을 치고 政府에 對항하였으며 「프레데릭·윌리엄」 4世는 폭동의 犧牲者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強要되었다. 「이태리」에서는 「맛찌니」(Mazzini)라고 불리우던 人民의 영웅이 등장하여 「로마」共和國의 支配者가 되었으며, 「헝가리」의 「루이·코수트」(Louis Kossuth)는 皇帝 「페르디난트」 1世(Ferdinand I)의 下野를 強要했다. 歐羅巴의 大國 가운데 1848 年에 조용했던 나라는 公業이 가장 발달했던 英國과 가장 落後했던 「러시아」였다.

그러나 이러한 諸革命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1年이 못가서 이러한 革命운동들은 失敗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革命을 進압하려 했던 支配者들은 새로운 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獨裁자들로 再登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的, 政治的 變혁을 동경하던 歐洲人에게 革命의 물결은 그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共產黨宣言」을 發表한 것은 이와같이 자극적인 環境에서 였는데, 宣言의 文句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강렬하게 울려했던 것이다.

나. 「칼·마르크스」⁴⁾의 生涯

「칼·마르크스」의 一生은 19세기와 20세기의 共產主義가 內包하고 있는 矛盾을 反映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1818年 독일의 「트리에르」(Trier)에서 出生했다. 그의 祖上은 代代로 유대교회 의 목사였으나, 아버지는 法律家였고 상당히 부유했다. 「마르크스」가 여섯살이 되었을 때 그의 家族은 新敎로 改宗했고 「마르크스」도 「프로테스탄트」로 洗禮를 받았으나, 그는 곧 宗教를 不信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회 의 목사의 子孫이란 것은 두가지 의미에서 重要性을 갖는다. 첫째로 그는 유대교회 의 傳統으로부터 그의 독특한 權威에 대한 意識을 추출해 냈고, 둘째로는 유대교 思想에서 重要하

게 취급되는 「메시아」的 요소가 「마르크스」에게 影響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사상은 來世觀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現世에 있어서 平和와 幸福의 追求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⁵⁾

「마르크스」는 神聖同盟의 反動세력이 西歐를 풍미하던 시절에 자랐다. 당시 독일에서는 自由主義 운동이 활발하였고 이 운동의 주요 人物은 「하인리히·하이네」(Heinrich Heine)와 「루드비히·비르너」(Ludwig Börne) 등의 젊은 詩人이었다. 이 운동은 마침내 佛蘭西의 六月革命을 刺戟했던 것이다. 1830年代 후반 「헤겔」學派의 少壯學徒들은 急進的인 傾向을 띄게 되었는데, 「마르크스」는 伯林大學에서 法律과 哲學을 工夫하고 있을때 이들과의 접촉은 시작되었다. 그는 「헤겔」學派에서 가장 年少했지만, 그는 단연 뛰어났다. 특히 1841年 그의 學位論文에서 「마르크스」가 必要한 것은 理念이나 空虛한 가설이 아니고, 道徳적으로 明白한 生活方式이라고 한것은 「헤겔」에 대한 一種의 批判이었고, 「헤겔」의 保守的 觀念論에 대한 반발이었다.

「마르크스」는 「스피노자」(Spinoza), 「라이프니츠」(Leibniz), 「홀」(Hume)의 影響을 받아 民主主義의 實證的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특히 「스피노자」의 影響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自由와 必要와의 調和를 발견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가 「헤겔」의 形而上學的 國家觀을 반박하고 나설 때, 그는 合理的인 倫理를 그 자신의 社會學的이고, 革命的인 敎理와 統合시킬 수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치철학과 觀念論을 무조건 否定하게 되었다. 그러나 「헤겔」의 辨證法만은 계속하여 「마르크스」의 哲學體系의 基礎를 形成하였다.

「마르크스」가 民主主義에 관하여 과격한 見解를 갖게 된 것은 영국, 佛蘭서, 미국의 革命的 影響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歷史的 事件으로부터 民主主義가 필연적으로 共產社會에서 실현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유주의자에서 共產主義者로 轉向되어 가는 동안, 「마르크스」는 「스피노자」와 「포이에르바흐」(Feuerbach), 「상·시몽」(Saint Simon)과 「바뵈프」(Babeuf), 「토마스·해밀턴」(Thomas Hamilton)과 「토쾨빌」(Toqueville), 「와이트링」(Weitling)과 「프루동」(Proudhon), 「오웬」(Owen)과 「프리에르」(Fourier)의 影響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이들의 影響은 「스미스」(Smith)나 「리카도」(Ricardo)의 그것을 훨씬 凌駕했던 것이다.

1841年 「예나」(Jena) 대학에서 博士學位를 받자, 「마르크스」는 곧 「Neve Rheinische Zeitung」이라는 急進的인 신문의 편집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과격한 論調로 말미암아 신문은 폐간되고, 1843年 그는 亡命生活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마르크스」는 유명한 귀족의 딸과 結婚을 하였다. 「예니·마르크스」(Jenny marx)는 七남매를 낳았으나 넷은 어려서 죽고, 「예니」는 貧困과 亡命生活 속에서 「마르크스」의 충실한 伴侶자였다.

파리에서 亡命生活을 하는 동안 「마르크스」는 「프리드리히·엔겔스」를 만났는데, 後者は 「마르크스」의 一生의 친구였고, 財政的 後援者였고, 「共產黨宣言」의 공동 저자가 된 것이다. 사실 이 두 사람은 1847年에 당시 독일의 秘密團體인 「青年 共產主義者 聯盟」(Young Communist's League)의 宣言文을 作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宣言文을 1848年 「파리」에서 配布했다. 「마르크스」는 逮捕되었으나 곧 無罪로 釋放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결국 佛蘭西 官憲에 의하여 追放되었으며, 그는 다시 영국으로 亡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 그는 大英博物館의 조용한 雰囲気 속에서 30餘年동안 저작생활을 계속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느라고 生計를 동한시 하였다 하며 家族은 飢餓에 허덕이었다고 한다. ①

이러한 家庭의 悲劇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그의 필생의 力作인 <資本論>(Das Kapital)이 世界를 변화시킬 것을 確信했다. 「마르크스」는 뛰어난 재질의 소유자였지만, 實生活의 智慧는 없었으며, 「엔겔스」의 도움이 없었던들 그의 著作은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했을지 모른다.

<資本論>의 첫째 卷만이 「마르크스」의 生前에 出版되었다. 이 冊은 1867년에 出版되었는데, 그 反應은 충격적이었다. 「資本論」은 難解한 독일어로 쓰여졌음에도 不拘하고 政治적으로 不安한 歐洲의 노동운동과 攪亂의 씨를 심게 된 것이다.

1871년의 「파리 공문」(Paris Commune)이 失敗하자 「마르크스」는 佛蘭西의 內亂(The Civil War in France)이란 「팜프레트」를 執筆했다.

그러나 「공문」의 失敗와 「第一인터내셔널」(The First Communist International)②의 失敗는 「마르크스」를 失望시켰고 드디어 1883년 3月 그는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資本論>의 마지막 두권은 「마르크스」의 死後에 「엔겔스」에 의하여 編輯되어 出版되었다.

3. 基本 概念

社會主義와 마찬가지로 共產主義의 사상도 소위 「칼·마르크스」에 의하여 창시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人類의 歷史를 통하여 哲人들은 幸福과 福祉가 모든 人間에게 公平히 나뉘어진 사회의 창조를 모색하였다. 人間에 있어서 富의 分配問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著述에서도 논의되었고 聖經에도 普及되어 있다. 1516년에 출간된 「토마스·모어」(Thomas more)의 <理想國(Utopia)>에는 財產이 共同으로 소유되는 假想的이지만 完全한 社會가 기술되었다. 19세기 초엽 佛蘭西의 哲學者 「상·시몽」(Saint-Simon)과 「샤르르·프리에르」(Charles Fourier)는 空想的 理想社會를 주장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재화의 생산이 社會全體에 의하여 管理되고 그것의 分配도 어떤 衡平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美國과 佛蘭西에서 「프리에르」의 影響을 받은 사람들이 소규모의 理想鄉의 社會를 건설한 일도 있었다. ③ 그러나 이러한 企圖는 失敗하고 말았으니 그것은 人間

주 ① 사실 「마르크스」의 子女 가운데 하나는 營養失調로 죽었다고 하며, 나머지 子女들은 오직 친구의 도움으로 살리었다고 한다.

② 「第一인터내셔널」은 1864년 「國際勞動者協會」(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의 創立으로 시작된 共產主義 組織이다. 「마르크스」는 이 組織의 執行委員으로 初期에 活躍하였었다. 그러나 「第一인터내셔널」은 1872년 「마르크스」와 無政府主義者 「바쿠닌」(Bakunin)의 對立으로 崩壞되기 시작하다가 1876년에 해산되었다.

③ 이러한 理想鄉의 한 예는 영국의 社會主義者 「로버트·오웬」(Robert Owen)이 美國 「인디애나」州의 「뉴·하모니」(New Harmony)란 곳에 設立한 것이다. 美國의 小說家였던 「나다니엘·호오든」(Nathaniel Hawthorne)도 「뉴·잉글랜드」의 「부르크·팜」(Brook Farm)이란 곳에 理想的 村落을 만들어 實驗한 적이 있었다.

이 스스로의 主人이 되고 싶어하고 自身の 財産을 所有하고 싶어하는 欲望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小規模의 理想社會를 비웃고 새로운 社會의 건립을 위하여는 완전한 사회적 변혁이 必要하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主義의 基本 概念은 哲學觀, 經濟理論, 政治理論의 세 側面에서 考察 할 수 있다. 哲學 觀으로서 「마르크스」主義의 基本 概念은 「辨證法的 唯物史觀」이며 경제이론으로서는 勞動價值說 및 剩餘價值에 근거한 「資本主義 沒落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政治理論으로서는 「프롤레타리아 獨 裁論」「暴力革命論」「階級國家論」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러한 理論 은 모두 「마르크스」에 의하여 창시된 것은 아니고 「마르크스」는 다만 여러 사람의 思想을 綜合하여 새로운 體系를 樹立한데 지나지 않는다.

가. 哲學觀

「마르크스」의 哲學觀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독일의 哲學者인 「헤겔」(Georg W. F. Hegel)에 대하여 먼저 考察할 必要가 있다. 「헤겔」思想의 핵심은 그가 辨證法(Dialectic)이라고 부르던 기술적인 哲 學用語에서 시작한다. 「헤겔」의 辨證法에 의하면 모든 歷史, 思想, 存在의 원동력은 충돌 혹은 矛盾이라고 한다.

「헤겔」은 우주에 존재하는 萬物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 은 등장한다고 보았다. 하나의 概念(Thesis, 哲學用語로는 「即自」란 表現을 쓴다)은 이것으로 부터 발전된 다른 概念(Anti-thesis, 혹은 「對自」)과 맹렬히 충돌된다. 이 충돌로부터 두 概念의 좋은 要素를 포함하는 새로운 結合(Synthesis)이 이루어진다. 이 結合이 다시 하나의 概念으로 발전되고, 그것은 또 다른 概念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하여 이와 같은 正概念과 反概念의 충돌과 투쟁에 의하여 合概念이 생성됨으로써 世界는 보다 完全하게 발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理論을 人間에게 적용시켰을 때 「헤겔」은 「精神」(Geist)이란 것 을 생각해 냈다. 그에 의하면 人間이 「精神」 自體가 實在라는 事實을 認識함에 따라 그들의 本性 과 충돌하는 것이 다름아닌 人間의 歷史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방법이 옳다고 했으나 그것은 그 적용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 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그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精神(意識)이 아니라 오히려 世界——물질 적 환경과 이에 적용하는 방식——가 人間生活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社會의 諸制度가 人間이 가지고 있는 眞理나 正義에 대한 觀念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는데, 「마르크스」는 그 反對라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社會의 모든 法律, 政治, 宗教, 道德 등 은 그 社會의 구성원이 물질적 상품을 만들고 交換하는 樣式으로부터 발전된다고 한다. 이것이 「唯 物辨證法」이라고 불리우는 「마르크스」의 哲學觀이다. ②

주 ② 「唯物辨證法」을 歷史에 대하여 適用하면 「唯物史觀」이 된다. 말하자면 財貨와 用役의 生産과 交換이 社 會의 모든 制度 및 歷史의 發展의 기초가 된다는 主張이 唯物史觀이다. 「마르크스」는 물론 經濟的 要素만 이 歷史를 만드는 데 있어 唯一한 要素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經濟的 要素가 가장 중요한 下部構造 (Unterbau)를 形成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基礎를 둔 上部構造(Überbau)라고 한다.

나. 經濟理論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은 勞動階級과 所有主와의 충돌이 不可避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共產黨宣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人間의 歷史는 階級투쟁의 歷史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과거의 모든 時代에 노동계급은 所有階級과 투쟁해 왔다. 奴隸는 主人과, 封建農奴는 領主와 더불어 투쟁해 왔고, 18세기에 와서 산업자본주의가 발흥함에 따라 工場勞動者는 資本所有主와 투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內在的인 矛盾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自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그 자체로 惡한 體制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資本家들을 當時의 偉大한 革命家라고 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封建主義의 殘在를 없애버린 세력이 바로 資本家이며, 농민들을 農村生活의 愚昧로부터 解放시킨 것이 資本家이며, 都市를 발달시키고 後進社會를 開發시킨 것이 資本家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자본가(브르쥬아)가 생산수단을 間斷없이 革命化하지 아니하고는 存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것은 바로 生産關係의 革命化이며 따라서 社會의 모든 關係의 革命化를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자멸을 초래하는 것은 이러한 社會의 ‘必然的인’ 革命化에 基因한다는 것이다.

「勞動價値說」의 諸原則은 이미 古典的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마르크스」는 이 「勞動價値說」을 그의 경제이론의 礎石으로 삼았다. 그는 「勞動價値說」로부터 「剩餘價値」라고 부르는 개념을 추출해 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商品의 價値는 그 商品에 투하된 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자본가가 어떤 商品을 팔므로써 利潤을 남긴다고 假定할 때, 어디서 資本家の 利潤이 생기는 것인가?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이윤이 「剩餘價値」에서 나온다고 한다. 말하자면 자본가는 그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勞動의 價値는 그것이 價値를 생산해 내는데 드는 費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工場制度아래서 노동자는 資本家가 定한 量의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기가 필요한 量의 가치를 넘어서 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렇게 超過된 量의 노동이 자본가에게 剩餘價値를 提供한다고 했다. ③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剩餘價値를 추구한다고 생각지는 아니했으나 자본주의 經濟體制에서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현대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이 경제분석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勞動價値說」은 인간의 노동력과 기술단을 生産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土地나 資本과 같이 중요한 非人間的인 生産要素의 費用을 計算해 낼 도리가 없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을 따른다면, 工場 所有主는 무제한의 노동력을 擄取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자본가는 서로 競爭을 하게 마련이고 競爭을 하기 위해서

주 ③ 例컨대 한 勞動者가 一週에 5,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리고 그만큼 量의 가치는 30時間만 일하면 벌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마르크스」의 生存當時 勞動者는 가장 많이는 週當 84時間까지 일을 해야했고, 따라서 資本家는 54時間의 일의 量이 生産해 내는 價値의 利得을 본다는 것이다.

는 生産手段을 擴大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자본가는 보다 많은 노동자를 雇傭하여야 하며, 결국은 자본가 상호간에는 노동자의 쟁탈이 不可避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貨金은 상승되고,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된다. 이와같이 상승되는 貨金을 막기 위하여 자본가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機械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서 노동자는 失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勞動力만이 모든 價値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의 必要性을 감소시킨다면, 그만큼 그의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資本家は 다른 경쟁자보다 앞섬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勞動力을 節約하는 기계에 더욱 投資를 增加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利潤率은 계속 下落되고, 상품의 가격도 下落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機械에 희생된 노동자들은 상품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사회의 소비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資本家は 低廉한 價格으로 상품을 投賣(Dumping)하지 않을 수 없다. 投賣가 계속됨에 따라 小規模의 資本家は 倒産하게 되거나, 아니면 大資本家에 흡수되어 결국은 少數의 大資本家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危機가 반복되는 동안,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던 공장노동자는 자본가에 對抗하기 위하여 團體를 結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貨幣와 機械와 勞動者團體의 거대한 결합에 의한 經濟體制다. 그런데 所有權이 少數의 손에 집중되어 노동자와의 對立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가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生産樣式이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對立은 資本主義가 갖는 최대의 약점이다. 「마르크스」는 만약 노동자가 少數의 資本家로부터 所有權을 뺏는다면, 생산과정은 完全히 合理的으로 된 것이며, 惡循環의 危機는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革命은 必然的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을 유발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쳐 자본주의는 沒落한다고 豫言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 革命이라고 했다. 노동자의 단결은 처음에는 임금의 維持와 搾取에 대한 抵抗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는 곧 모든 生産手段가운데 최대의 生産力은 革命階級 자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生産력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변증법적 발전이 정치질서에 있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다. 政治 理論

社會의 支配階級인 資本家が 노동자의 暴力革命에 의하여 沒落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理論은 그후 많이 誤用되었기 때문에 注意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政府는 노동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警察力’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다수의 노동자가 소수의 자본가를 支配하는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나 暴力革命이 社會의 矛盾과 여기서 발생하는 壓迫의 諸要素를 제거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強壓的인 것은 아니다. 사실 국가는 곧 ‘消滅’하고 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國家란 「마르크스」에 의하면 우세한 경제력의 반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도 階級鬭爭의 일부인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우세한 경제력의 조직된 彈壓의 手段이기 때문에, 그것이 沒落한 후 自然히 消滅

된다는 것이다.⁴⁾

그리하여 사람들은 善에 대한 潛在的 能力을 개발하고, 藝術과 詩와 美에 대한 本能을 發展시키게 되며,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應하여 分配하는』 黃金律이 적용되는 새로운 社會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라. 「마르크스」主義와 그 批判

「마르크스」의 思想體系는 방대하고, 여러갈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批判도 간단하지 않다. 우선 「마르크스」의 哲學觀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唯物史觀을 보자. 人間의 歷史의 발전에 관한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經濟的 要素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사실 歷史哲學에 대한 根本的인 誤解에 起因한다. 경제적인 관계가 人間의 모든 思想과 行動을 결정지우는 要素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지나친 一般化내지 단순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④ 뿐만아니라 「唯物辨證法」에 의하여 人間의 歷史가 발전한다는 「唯物史觀」은 科學的 法則위에 놓여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歷史를 하나의 정밀과학으로 보는 誤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可能했던 주장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그 自身이 未來의 발전을 豫測하였지만, 그 豫測이 不當하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歷史學者는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資本論」에는 그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는 歷史的 例示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唯物史觀」이 올바른 理論이란 증명도 없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唯物史觀」이 自明한 진리로서 證明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假定 자체가 그릇된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은 상품생산에 투하된 勞動量만이 商品의 價値를 決定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不當한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自明한 일이다. 「케인즈」(J. M. Keynes)가 指摘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은 현대 社會에 적용될 수 없는 낡은 理論인 것이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필연적 沒落論은 오늘날 많은 資本主義 國家가 社會立法이나 제한된 計劃經濟를 채택함으로써 스스로의 弱點을 改善하여 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마르크스」의 死後, 數十年이 지난후, 그의 제자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자비로운 獨裁 및 責任과 報酬의 完全한 분배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언을 뒤집어 버렸다. 사실 이들은 「마르크스」가 예견하지 못했던 악독한 獨裁를 만들어 내었으니, 政府가 消滅하기는 커녕 점점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政治權力은 소수의 손에 集中되게 되었다.

階級的 擄取의 도구가 국가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은 社會속에 非經濟的이며 非強制的인 要素들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看過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國家가 消滅하여 버린다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支配하는 社會의 現實

주 ④ 「마르크스」以前에 歷史에 대한 解釋에는 (1) 宗教를 중심으로 歷史를 解釋하던 方法 (2) 政治的 事件과 人物을 中心으로 歷史를 解釋하던 方法 (3) 英雄의 業績을 中心으로 歷史를 解釋하던 方法(T. Carlyle 에 와서 유행했다) (4) 觀念(ideas)의 影響을 통하여 歷史를 보던 方法(Hegel)등이 流行하였다.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經濟關係를 중요시한 점에서 長點이 없는 바도 아니나, 이러한 一面에 대한 지나친 強調은 「마르크스」以前에 流行하던 史觀과 同一한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을 보면 그 妥當 如何를 알 수 있다. 사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獨裁期間을 비교적 짧게 잡았으며, 그 期間동안에 國家가 存在하지 아니하는 共産主義 社會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없는 共産主義 社會란 存在하지도 아니하며 永遠히 存在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그들이 政治權力을 획득했을 때, 그들이 당면할 문제에 관하여 深刻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階級的 差別과 勞動者의 擄取를 없애지 아니하고 새로운 寡頭制를 창설함으로써 노동자는 무력한 被支配階級으로 轉落했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공산국가에서 노동자의 독재는 한낱 神話에 지나지 않으며, 國家의 필요에 個人을 무자비하게 服從시키는 힘의 정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가 필연적이라고 主張했던 노동자의 革命도 사실은 必然的인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生涯末期 단 하나의 人民蜂起는 1871년의 「파리콤문」(Paris Commune)뿐이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파리」市와 그 政府를 잡으나 그들의 手中에 넣었다. 그동안 「콤문」은 수백의 良民을 학살했다. 소「유럽」이 이와같은 사건을 嫌惡와 恐怖로 注視하고 있을때 「마르크스」는 「國際勞動者協會(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의 이름으로 「파리콤문」을 支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부분의 「마르크스」의 理論은 옳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다. 그는 고도로 산업화된 西歐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예언은 여기에서 적중하지 아니했다. 資本家는 革命的 發生없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改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고, 「마르크스」의 예언은 그 否當性을 노출했다. 共産主義革命이 소련과 中國에서 成就되었지만 이 두 나라에는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었다. 더구나 소련과 中國에 있어서 共産主義의 革命은 「마르크스」가豫見했던 것처럼 「必然的인 歷史의 發展」에 의한 것이 아니라 少數의 狂信者의 故意的 行動에 의한 것이었고 그 結果도 비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과는 다른 이유에서 「마르크스」가 人類의 記憶에 남을 人物이란 것은 再言을 요하지 아니한다. 「마르크스」가 後世에 남긴 하나의 업적은 歷史를 보는 방법에서 발견된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어떻게 財貨를 생산하고, 生活을 영위해 나가느냐 하는 점에서 社會를 관찰하고 分析한 그의 方法은 西歐思想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자신의 洞察과 睿智가 人間을 해방시킬줄로 믿었고, 人間을 노예화 시키리라고는 생각지 아니 하였다. 공산국가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弟子들이 무자비한 獨裁를 만드는데, 그의 理論을 사용한 것은 歷史의 「아이르니」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全體主義의 「이데올로기」

社會經濟적인 철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際革命 運動으로서 共産主義는 獨持한 性格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人間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解決策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歷史上的 다른 敎理와 유사하다. 그리하여 공산주의는 그 基礎的 假說이 행동의 信念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論理的으로 妥當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敎理들은 追從者를 이끌어 그것의 目的을 위하여 심혈을 바치게 하는 魅力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敎理가 表現화 된다면 모든 人間에게 보다 나은 生活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유토피아」에 대한 約束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産業時代를 포함하는 歷史的 발전단계에서 모든 문제를 科學的 述語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공산주의는 民族이나 其他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모든 人間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공할 全體主義 敎理로서 등장했다. 공산주의의 追從者들은 그들이 人間의 行動과 動機를 이해하고 따라서 그들만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전의 背後推進力을 이해한다고 설부되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理論的 假說을 行動의 信條로 믿고 있으며 그들의 約束의 根據나 그 基礎를 檢討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의 理論的인 謬謬를 정확히 把握하여야 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목표와 全體主義의 支配와의 모순된 關係를 알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이와같이 全體主義的인 「이데올로기」로 昇臨한 그 性格을 考察하기 위하여는 現代 全體主義의 一般的인 特徵에 대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가. 現代의 全體主義

오늘날의 全體主義는 未來에 대한 約束을 保障하는 理想主義的인 理念을 방패로 하여 政治權力의 正當性을 合理化시키는 獨裁의 한 形態이다. ① 그런데 이러한 獨裁의 形態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學者들의 意見이 나뉘어지고 있다. 어떤 학자는 全體主義가 資本主義라고 불리는 근대 産業사회의 一部 特徵이 논리적으로 展開된 것이라고 하며,⁷⁾ 또 어떤 학자는 民主主義가 平凡한 人間에게는 지나치게 負擔을 주기 때문에^② 그들은 自然히 全體主義的인 獨裁로 轉向하게 되었다고 한다.^③

어떤 학자는 全體主義의 起源에 대하여 積極的인 見解를 表明하기도 하고,^④ 또 어떤 학자는 그것에 대하여 完全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事實 全體主義의 起源에 관하여는 原始的인 性惡

주 ① 全體主義(Totalitarianism)의 定義에 관하여 學者들의 見解가 반드시 一致하고 있지 않다. 어떤 학자는 全體主義가 20세기의 特有物이라고 主張하고 그 歷史性을 否定한다. 예컨대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 教授는 다음과 같은 여섯개의 特徵이 結合되어 오늘날의 全體主義를 形成하고 있다 한다. 即, 單一大衆政黨官制 「이데올로기」, 黨에 의한 經濟手段의 統制, 大衆通信手段의 統制, 효율적인 軍隊의 統制 및 「테로」적 警察의 存在가 必然的이라고 하며, 社會統制의 全體性을 追求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完全統制」에 必要한 軍隊나 警察같은 統制手段은 技術의 發達을 前提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技術의 發達을 前提로 하는 점에서 現代의 全體主義는 前近代的인 絶對軍主나 專制君主에 의한 獨裁와 區別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接近法에는 여러가지 難點이 있다. 예컨대 産業化가 시작되지 아니한 많은 發展途上國家의 政府가 「強制와 彈壓」의 手段을 使用하는 경우는 비록 이러한 政權들이 「프리드리히」교수가 말하는 전체주의의 特徵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完全統制」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技術的 基礎」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權들은 오히려 技術의 近代化를 促進키 위하여 完全統制의 手段을 使用한다.

그리하여 「배링톤·무어」(Barrington Moore) 教授는 全體主義의 強制 혹은 彈壓的 性格에 着眼하여 中央集權의 全體主義와 分權의 혹은 大衆의 全體主義를 區別할 뿐이고, 20세기의 特有한 統治形態는 아니라고 한다. 最近에는 全體主義를 단순히 政權을 維持하기 위한 統制의 方法으로 理解되기도 한다. (John H. Kautsky).

② 民主主義가 지나친 負擔이라는 뜻은 그것이 人間의 合理性, 道德性, 自由, 平等, 自律性, 進歩를 成就하는 能力들을 基本前提로 하기 때문에 平凡한 人間이 이러한 前提를 滿足시키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說로부터 現代의 道德的 危機論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論議되었다.¹⁰⁾ 그러나 學者들은 全體主義的 獨裁의 特色에 관하여는 一般的으로 一致하고 있다.¹¹⁾

첫째로, 全體主義는 예외없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官製의 敎理로서 모든 人民의 믿음을 강요하고, 人間存在의 諸側面을 說明할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필연적으로 革命的인 性格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全體主義의 지도자는 이와 같은 官製 「이데올로기」의 創始者가 아니면 權威的인 解釋者인 것이 보통이다.

둘째는, 全體主義의 政權은 上下組織(hierarchy)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組織은 莫強의 權力을 가진 指導者에 의하여 統治된다. 그들은 흔히 大衆出身이며 (「레닌」만은 예외다), 支配정당과 全人民을 그들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리하여 全體主義의 지도자는 이러한 점에서 大衆으로부터 먼 傳統的 君主와 區別된다.

셋째로, 全體主義는 흔히 정당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그것은 全體主義의 「이데올로기」를 世俗的인 宗教로 믿는 狂信的이고 獻身的이고, 충성스런 소수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黨은 政府의 官僚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政府의 官僚를 지배하고 있다. 黨員들도 그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大衆出身인 것이 보통이다.

네째로, 全體主義는 大衆統制의 수단으로서 暴力과 恐怖를 사용한다. 暴力은 그 자신이 目的으로 看做되고, 恐怖는 宣傳과 병행하여 추구되기도 한다.

다섯째로 全體主義의 독재자는 思想統制을 위한 技術的 무기를 사용하고, 그러기 위하여 모든 통신 및 선전수단을 독점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행동과 信仰體系에 대신하여 새로운 價値指向的인 思想統制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全體主義는 傳統的 獨裁와 다르며 通信手段의 中央集權化는 人格形成의 造作을 위하여도 쓰여진다.

여섯째로, 全體主義 政府는 物理的인 힘을 또한 獨占하고 있다. 과거에는 被壓迫 人民은 적은 물리적인 힘으로도 獨裁者에 대항하는 革命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全體主義 政府는 強力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大衆蜂起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1956年の 「헝가리」(Hungary) 반란과 1968年 「체코슬로바키아」事件을 연상하면 현대 全體主義 國家가 物理的인 힘을 獨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곱째로, 全體主義는 中央集權的인 經濟統制을 특색으로 한다. 산업혁명 후 각국의 정부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보다 干涉的이기 때문에, 中央集權的인 경제의 統制는 사실상 程度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에 의한 경제생활의 統制는 산업혁명 후 技術의 발달이 초래한 世界的인 現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누가 이러한 統制를 지시하고, 어떠한 형태의 統制이냐를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全體主義 國家에서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만이 이러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동계의 정도도 自由民主主義 國家의 그것보다 훨씬 완벽한 것이 특징이다.

여덟째로, 全體主義는 「大衆」에 의존을 그 특징으로 한다. 全體主義는 大衆階級 (예를들면 「프롤레타리아」)만의 존재를 인정하며, 傳統的인 階級秩序를 容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全體主義은 大衆民主主義(Mass democracy)와 현대적인 技術의 背景이 없이는 그 發生이 불가하다는 「프리드리히」敎授의 主張은 妥當하다 할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全體主義의 特色은 그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를 들 수 있다. 大衆은 政府나 黨의 선전을 이해할 정도의 敎育은 받아야 되지만, 政府나 黨을 批判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全體主義의 지도자들은 지식계급과 그들의 合理主義를 嫌惡하고 彈壓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의 制度를 하나의 敎理(이데올로기)안에 집어 넣으려는 전체주의자의 노력은 결국 對內的인 탄압과 對外的인 好戰性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矛盾된 支配體制가 많은 추종자를 얻어왔다는 사실은 역사의 逆說的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공산주의와 全體主義 「이데올로기」

「레닌」을 영도자로 하는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1917年10月 革命으로 政治權力을 획득하자 「마르크스」主義를 社會主義와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를 위한 지침서로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당면했던 여러가지 문제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것은 물론 「마르크스」나 「엔겔스」가 그들이 執權했을 때 당면할 여러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解答을 제시하지 아니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蘇聯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執權적후에 「마르크스」의 理論은 여러가지 觀點에서 분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獨裁者로 등장하면서, 그는 「마르크스」主義에 관한 일체의 논쟁에 썩기를 박았다. 그는 그 자신의 見解 및 解釋만이 모든 공산주의 정당(혹은 사회)에 妥當한 敎理임을 강조했다. 「스탈린」의 이러한 主張은 「레닌」의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核心的 內容은 아래와 같다.

「마르크스」主義는 科學的인 眞理인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 공산당만이 완전한 科學的인 洞察力을 갖고 노동자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黨에 충성스런 者만이 「프롤레타리아」에 충성할 수 있고, 歷史의 發展과 步調를 같이할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있는 者다. 黨과 矛盾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던지 진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蘇聯에서 公認된 敎理는 공산국가의 정책과 사회구조를 「프롤레타리아」의 獨裁와 사회주의 건설에 종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서 정당화한다.¹³⁾

여기에서 「마르크스」主義는 사실상 「마르크스」가 표현한 自由와 平等의 가치를 무시하는 政權을 완벽하게 擁護하는 國家論으로 轉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理論을 이와같이 保守的이고 權威主義的인 敎理로 변형시킨 것은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轉換시키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蘇聯에서는 여기에 「共產主義로의 轉換」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添附되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期待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企圖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사회가 중요한 變化를 겪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想起하면, 그와같은 사실은 「마르크스」主義的 理念에 있어서 「유토피아」의 消滅을 뜻하는 것이다.

현재의 共產主義 理念은 「프롤레타리아」革命的 傳播를 위한 「프로그램」을 內包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先進 産業社會의 勞動者들을 刺戟하고 있지는 못해도, 共產主義 運動은 植民勢力이나 弱小國家

에 浸透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機能에 關하여 많은 論議가 있었다. 어떤 學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모든 共産主義 思想, 行動, 制度의 指針이 되는 根本이라 하며, 다른 學者들은 그것이 政策의 變化에 쉽게 適應하는 現實合理化를 위한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이러한 두 主張은 비록 서로 矛盾되기는 하지만 모두 妥當한 面이 없지 않은 것이다.

「레닌」과 그의 後繼者에 의하여 修正된 「마르크스」主義의 「이데올로기」는 共産主義 革命을 실현한 革命家들을 鼓吹시켰고, 共産主義 政權과 制度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共産主義者가 政權을 獲得한 후 「이데올로기」는 合理化의 手段으로 轉落되고 말았지만, 그것은 政治의 言語로 남아있어, 政治的 指導者의 通信手段일 뿐더러 倫理的 自己意識을 위한 概念的 構造를 意味했던 것이다.

- 1)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69), p. 26.
- 2) *Ibid.*, p. 29.
- 3)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4).
- 4) 「마르크스」의 傳記로 代表的인 것은 Franz Mehring, *Karl Marx: The Story of His Life* (London: Allen and Unwin, 1948); Isaiah Berlin, *Karl Marx: His Life and Environment*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5) Carew Hunt, *Op. cit.*, p. 32.
- 6) V. I. Lenin, *The Teachings of Karl Marx*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30). p. 31.
- 7) Carl J. Friedrich and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1). p. 3.
- 8) Guy Stanton Ford (ed.), *Dictatorship in the Modern Worl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39).
- 9)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d.; New York: Meridian Books, 1960).
- 10) Friedrich and Brzezinski, *op. cit.*, pp. 6-7.
- 11) 여기서 說明하는 全體主義의 特色은 Carlton Clymer Rodee, *et al.*,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67), pp. 50-54에 의존했다. 또 Herbert J. Spiro, "Totalitarianis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6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68), pp. 108-111을 참조하라.
- 12) Friedrich and Brzezinski, *op. cit.*, pp. 12. 13.
- 13) Alfred G. Meyer, "Marx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0, pp. 43-44.

第 2 章 共産主義의 變遷과 矛盾

오늘날 共産主義는 共産主義 國家의 數보다 더 많다. 이 말은 共産主義 理論이 主張하는 사람에 따라 各各 다르다는 뜻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主唱한 共産主義가 理論적으로 完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豫測하지 못했던 歷史의 發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共産主義 革命이 러시아에서 成功하기 이전에 이미 共産主義는 그 內在的인 矛盾으로 인하여 그 理論的인 分裂을 거듭했고, 蘇聯에서 共産主義가 成功한 후, 後進農業國인 中國에서 異端的인 共産主義 革命이 또 한 成功했다. 本章은 共産主義의 變遷과 矛盾을 理論上의 分派作用, 「소비에트」 共産主義 및 中國

共産主義의 順序로 나누어 考察한다.

첫째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共産主義는 19세기末에서 20세기 初에 이르면서 理論上의 分裂을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른슈타인」의 修正主義派, 「카우츠키」의 正統派, 「로자·룩셈부르크」의 左派가 그것이며, 「레닌」도 左派에 속했다. 그러나 이들 상호간의 理論的인 對立은 바로 共産主義의 矛盾을 나타낸 것이었다.

둘째로, 「소비에트」 共産主義의 變遷을 考察한다. 「레닌」에 의하여 成功된 蘇聯의 共産主義는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中대한 修正이며 「레닌」은 共産主義 理論을 政治權力의 獲得과 維持의 手段으로 사용했다. 「스탈린」에 이르러 蘇聯의 共産主義는 「일국사회주의(一國社會主義)」로 변질되었으며, 工業化를 達成하기 위한 完全統制의 理論的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스탈린」의 死後, 소련의 共産主義는 「호루시초프」의 時代를 거쳐 變遷을 거듭했지만, 全體主義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産主義의 重要性은 繼續 強調되고 있다.

셋째로, 오늘날 共産主義 國家로 蘇聯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中國의 共産主義를 고찰한다. 中國 共産主義는 그 지도자인 毛澤東의 戰術思想에 의하여 成功했기 때문에 주로 「毛澤東思想」의 進술적인 측면을 說明하는데 그친다. 「毛澤東思想」의 重要性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에서 發見되지만, 中共이 自己네 革命「모델」이 世界的인 妥當性을 갖고 있다고 主張하는 外交戰略面에서도 발견된다.

1. 共産主義의 分派作用

오늘 날의 共産主義가 「레닌」에 의하여 수정된 「마르크스」主義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히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불리운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레닌」에 의한 「마르크스」主義의 修正은 「레닌」이 「러시아」革命에 成功하여 강력한 全體主義的 獨裁國家를 건설하고, 世界 共産主義 運動에 많은 影響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레닌」主義가 「마르크스」主義를 완벽하게 對峙할 수 있을 만큼 理論的 優秀性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마르크스」主義는 「레닌」主義의 등장 이전에 이미 여러 分派로 나뉘이게 되었으니,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의 修正主義派, 「카우츠키」(Karl Kautsky)의 正統派와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左派가 그 代表的인 것이었다. 「마르크스」主義가 이와 같이 多樣한 分派로 發展한 것은 「마르크스」의 理論이 많은 矛盾을 內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分派作用이 擡頭된 時代的 背景은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共産黨宣言」을 發表하던 당시와 현저하게 달랐다는 事實도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主義가 「구라파」의 勞動運動의 主要 敎條로 받아들여졌지만 具體的인 戰略의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위한 條件이 成熟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異見이 대립되었고, 이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相異한 解釋이 나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도 完全히 解決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一次大戰 이전 「마르크스」主義에 관한 論爭은 戰略이나 組織問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마르크

스」主義의 非現實性에서 出發했다. 經濟的 繁榮의 擴大와 立憲政府의 搥頭는 危機와 貧困이 深化되리라는 「마르크스」의 豫言을 뒤집어 버린 結果를 낳았고, 「共産黨宣言」이 주장한 革命的 口號가 19세기 말의 政治的, 社會的, 혹은 經濟的 現實에 適合하지 아니 한데서 「마르크스」主義는 分派作用을 거듭했었다.

가. 「베른슈타인」

「베른슈타인」(1850—1932)에 의하여 대표되는 修正主義는 그가 1899년에 出刊한 「社會主義의 前提와 社會民主主義의 課題」(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¹⁾에서 各國의 社會黨은 産業社會에서 발생한 새로운 變化를 認定하고 黨은 社會改革(Social reform)에 專念하여야 된다고 主張한 것에서 출발했다.

「베른슈타인」의 主張은 大분히 政治性이 濃厚한 것이었으나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論爭은 주로 理論的인 側面에서 行해 졌다. 그는 資本主義 體制 아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점점 더 擡取되고 있으며 資本主義의 危機는 그 體制의 沒落을 가져 오리라는 「마르크스」의 理論을 批判하고, 大衆消費와 勞動者의 實收入의 增大에 의하여 生産量을 增加 시킴으로써 資本主義는 沒落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사실 그는 「마르크스」의 理論에 따라 資本主義 體制가 階級의 對立을 招來하리라고는 믿었지만 少數의 企業家에 의한 資本獨占은 中産階級에 의하여 沮止되고, 資本의 集中이 적어도 「서비스」 産業에 있어서는 可能하다는 事實을 指摘함으로써, 勞動者와 資本家가 對立되는 兩極化보다는 社會의 多分化를 主張하였다.²⁾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價値說에 反對하고, 經濟的 要素가 歷史의 發展過程을 一方的으로 決定한다는 「唯物史觀」을 否認했다. ① 그는 生産力이나 生産關係와 등동한 非經濟的 要素의 重要性을 認定하였으니, 그의 이러한 견해는 소위 「부르조아 社會學」(bourgeois sociology)의 橋梁役割을 하게 된 것이다. 그의 견해는 「막스·韋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主義(protestantism)에 관하여 記述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②

「마르크스」에 의하면 勞動者에게는 祖國이 없다. 따라서 勞動者들은 다만 그들의 階級에만 속한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은 勞動者에게 參政權이 주어진 事實을 指摘하고, 이것은 그들이 國家에 대한 一定的 義務를 지는 것이라고 보았다.³⁾ 또한 그는 「마르크스」의 經濟的 決定論을 拋棄하고 「칸트」(Kant)의 倫理觀을 받아 들임으로써 社會主義의 鬭爭의 正當性은 當爲의 문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社會主義는 變化의 法則에 대한 科學的 分析이기 보다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 ① 「베른슈타인」은 1872年 「獨逸社會民主黨(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에 加入하고, 黨의 柏林支部에서 활약했었다. 그러나 政府의 彈壓으로 英國으로 亡命한후 「엥겔스」의 影響으로 共産主義者가 되었다. 英國에 머무르는 동안 「페이비안 協會」(the Fabian Society)의 影響을 받아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派와 訣別하게 되었던 것이다.

② 社會學에서 「唯物史觀」의 洞察力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베른슈타인」의 影響이었다. 여기에 관하여는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Talcott Parsous (London: Allen and Unwin, 1930), pp.91—92

修正主義로 불리워진 「베른슈타인」의 見解는 당시 獨逸社會民主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오늘날 西獨의 社會民主黨은 「베른슈타인」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카우츠키」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派는 「칼·카우츠키」(1854—1938)에 의하여 領導되였었다.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의 影響으로 「마르크스」主義者가 되었으며 1881年엔 「마르크스」와 「엔겔스」를 만났다. 그러나 「베른슈타인」과는 달리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를 固守했다.

「카우츠키」는 帝國主義와 農業의 發達에 관한 理論을 展開한 初期의 共產主義者였다. 그는 帝國主義가 產業資本主義의 產物이 아니라 近代社會에 殘存하고 있는 產業社會의 形成 以前의 貴族主義的인 要素의 產物이라고 했다. ③

그는 이러한 요소를 有史 이전에 까지 遡及하여 發見하려 하였는데, 農業社會에 대한 遊牧民의 征服은 無制限 領土的 膨脹을 目標로 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카우츠키」는 19세기 말에 있어서 大企業이 小企業을 吸收하는 一般的 傾向을 否認하였다. 다만 大企業은 小企業보다 生産性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에 大企業의 合作化를 內容으로하는 社會主義的인 「프로그람」을 主張했고, 個人은 모두 이러한 「合作社」(Cooperatives)에 加入할 것을 期待했다.

「베른슈타인」이 「獨逸社會民主黨」의 「革命的」敎理를 攻擊하였을때, 「카우츠키」는 正統的 「마르크스」主義의 代辯者가 되었으며 改革的인 實踐과 革命的인 目標을 主張했다. 이러한 「프로그람」은 獨逸의 社會黨과 기타 歐洲의 社會黨의 統合에 寄與하게 되었던 것이다.

「카우츠키」는 修正主義者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가 議會民主主義를 통해서만 成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修正主義者와는 달리 獨逸에 있어서 民主主義가 平和的인 方法으로 實現되리라고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革命的」戰略④을 主張했던 것이다. ④

「카우츠키」를 중심으로한 「마르크스」主義의 正統派는 비록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했으나, 資本主義의 將來에 대한 「마르크스」의 悲觀的 豫言과 「唯物史觀」을 信奉했다. 그들은 「階級鬭爭論」과 따라서 革命의 不可避性을 認定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革命은 繼續的인 暴動이 아니라 革命을 위한 社會的 條件의 成熟을 土臺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民主主義의 爭取를 위하여 勞動階級の 政治的 組織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正統派들은 당시 獨逸의 帝政을 지지하는 「브르조아」政黨과의 妥協을 拒否했지만, 그들의 行動은 그들의 理論과 거리가 멀었고, 점차로 修正主義的인 色彩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카우츠키」自身도 獨逸政府의 社會立法을 거의 支持하게 되었었다. ⑤

주 ③ 이것은 「루돌프·힐퍼딩」(Rudolf Hilferding)과 「레닌」의 「帝國主義論」과는 다르며 오히려 「슈페터」(Schumpeter)의 그것과 유사하다.

④ 여기서 「革命的」이라는 말은 Revolutionary라는 뜻인데, 이것은 Insurrectionary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러시아」革命이 成功한 후, 「카우츠키」는 少數의 暴力的인 行動에 의하여 後進國에 社會主義를 導入하는 것은 진정한 意味의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背信이라고 非難했다.

다. 「로자·록셈부르크」

「로자·록셈부르크(1870—1919)」는 초기에는 「카우츠키」와 더불어 「베른슈타인」의 修正主義를 批判하고 社會主義 運動의 必然的인 목표는 政治權力の 奪取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10年을 전후하여 「록셈부르크」는 革命的 經驗, 특히 政治적 「스트라이크」에 관한 見解의 차이로 「카우츠키」의 正統派로 부터 分離되어 「마르크스」주의의 左派를 형성하였다. 「록셈부르크」는 과격한 革命的 大衆의 「스트라이크」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黨의 革命 물격대적 役割에 의하여 誘導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과격한 견해는 黨이 노동자들의 必然的인 政權의 획득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았던 「카우츠키」와 對立이 되었던 것이다.

1907年부터 「록셈부르크」는 獨逸 社會民主黨을 위하여 講演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基礎로하여 有名한 「資本蓄積論」을 출간하였다. 이 冊은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經濟成長의 조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經濟理論分野에 기여한 바가 크다.

「록셈부르크」에 의하면 순수한 資本主義는 그 자신의 발전의 유지에 적합한 모든 條件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자본가적 생산이 살수있는 길은 非資本家的 領域에의 浸透인데, 여기에는 後進國과 資本主義 社會의 非資本家的 영역을 包含한다. 이러한 침투는 자본의 蓄積으로 인하여 가능한데, 한편 자본주의 社會의 需要는 格증하는 財貨의 供給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록셈부르크」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있을때, 자본주의의 弱點은 무기의 生産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무기는 國內의 資本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植民地에서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帝國主義에 있어서는 국가의 關稅와 稅金政策은 經濟發展에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록셈부르크」는 自由무역이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삶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본축적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 「마르크스」를 비난했다. 말하자면 그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발생과 私的資本의 축적에만 관련시켜 歷史的條件을 보았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록셈부르크」는 資本主義와 資本主義가 발생하지 아니한 社會상태와의 관계는 국제적인 緊張과 충돌의 元천으로 보았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沒落過程이 겪는 전쟁과 社會革命을 초래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⁵⁾

「록셈부르크」의 <資本蓄積論>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理論的인 貢獻을 하였지만, 「마르크스」주의의 左派도 現實問題에 있어서, 특히 組織問題를 둘러싸고 分裂을 하게 되었는데 그 代表的인 例가 「록셈부르크」와 「레닌」의 對立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⑥

2. 「소비에트」 共産主義

소련 共産主義의 기원과 本質에 관하여는 그것이 傳統的인 「러시아」의 專制가 현대적 형태로 나

주 ⑥ 흥미로운 것은 「록셈부르크」 역시 「볼셰비키」의 정책에 反對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러시아」革命後의 政治體制가 大衆에 의한 獨裁가 아니고, 大衆을 抑壓하는 獨裁라고 非難하였으며, 「볼셰비키」의 土地政策과 少數民族에 대한 政策을 비난했다.

타난 것이라는 見解와 古典의 「마르크스」主義의 革命的 要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과거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이 對立되어 있다. 사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理論과 불란서의 「자코뱅」主義(Jacobanism)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러시아」적 環境의 特殊性을 고려한다면 兩者의 見解는 모두 妥當한 점이 없지 않다.⁶⁾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는 하나의 獨立된 政治運動으로서 1879年 소위 「나로드닉」운동(Narodnik movement)^①의 分裂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分裂의 主동자였던 「게오르기·프레하노프」(G. Plekhanov)는 그들의 敎理를 傳播하기 위해서 宣傳과 煽動을 主要한 武器로 삼았는데, 「테러」를 일삼던 反對派와 對立되었었다.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의 鼻祖라고 불리우는 「프레하노프」는 革命의 原動力으로서의 農民의 役割을 重要視 하였었다. 그러나 農民은 그들의 宣傳과 煽動, 혹은 심지어 「테러」에도 아무런 反應을 보이지 못했으며, 한편 19세기말부터 서서히 勃興하기 시작한 工業은 「프레하노프」로 하여금 자신의 見解를 再檢討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이 일어나는 工場勞動者에게 未來의 革命에 대한 希望을 걸었다. 말하자면 「프레하노프」는 「포퓰리스트」(Populist)에서 「마르크스」主義者가 된 것이다. 1883年 「프레하노프」를 中心으로한 革命家들은 「러시아」의 「마르크스」主義 團體를 組織하였는데, 「레닌」은 이 團體의 影響을 받았던 것이다.

가. 「레닌」時代

1903年 「러시아 社會主義 民主勞動黨」(Russian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은 黨組織에 관한 問題로 分裂하게 되었다.^② 「마르토프」(Martov)를 中心으로 하는 少數派는 黨이 廣範圍한 大衆의 參與를 必要로 하는 公開政黨이어야 된다고 主張하고, 「러시아」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成就是 資本主義의 發展과 勞動者階級의 成長에 달린 만큼, 그것은 먼 未來의 일이라고 믿었다. 이에 반하여 「레닌」의 多數派는 政黨이 勞動者의 前衛를 擔當할 少數의 嚴選된 幹部로서 組織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社會主義 革命은 「永久革命」이어야 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레닌」自身の 見해도 상당한 變化를 겪었다. 그는 「러시아」가 社會主義 革命에 到達하기 앞서 「부르조아」民主主義的 段階를 거쳐야 된다는 正統的인 二段階의 革命論으로 부터 出發했다. 그러나 「레닌」은 「렌세비키」(少數派)라는 달리 「부르조아」自由主義者들을 背反하고, 勞動者와 農民의 團結을 呼訴했었다.

1905年의 革命이 絶頂에 達하였을 때, 「레닌」은 이와 같은 두 段階의 革命論이 하나로 壓縮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트로츠키」(Tortsky)의 見解와 同一한 것이었다. 1917年의 革命에 의하여 政權을 獲得하자, 「레닌」의 새로운 革命論은 世界的인 脚光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立場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레닌」의 革命은 이미 그 先行條件으로서 工業의 發達, 大衆的인 勞動者 階級의 誕生,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의 完遂가 要求되지 아니했다.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理論이 「레닌」에 의하여 後進社會에 있어서 革命遂行에 適合하게 修正

주 ① 「나로드닉」은 「Populists」를 의미하며 이 運動은 1870年代에 시작되었다. 이들은 農民의 解放을 目標로 하는 農民革命을 부르짖고, 資本主義의 害毒에 물들지 않은 社會主義 秩序를 建設하려 했다.

② 「러시아 社會主義 民主勞動黨」은 1898年 9名의 「마르크스」主義者에 의하여 創黨되었다.

거었던 것이다. 이제는 工業의 後進性은 革命의 障礙로 부터 革命의 機會로 轉換되었으므로,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라는 概念은 多數의 武器로 부터 少數의 道具로 轉落되었던 것이다.

1902年 「레닌」은 職業的 革命家의 組織을 위한 著述을 發表했다. 여기에는 共產主義의 組織에 관한 다음과 같은 概念이 要約되어 있다. 먼저 自發性에 대한 問題로서 『外部의 指導力이 없이는 勞動者 階級이 그들의 眞正한 利益을 찾아 社會主義를 위한 革命的 鬭爭을 追求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勞動者階級은 歷史的 法則을 알고 있는 『少數의 革命的 前衛에 의하여 指導되어야 하며, 革命的 前衛는 職業的 革命家로 構成된 黨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團體도 자기네 政黨과는 權力에 대한 競爭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權力의 獨占에 대한 概念이다. ③

이와 같은 「레닌」의 革命的 組織에 관한 理論은 「볼셰비키」政黨의 強韌性의 基礎가 되었다. 그리하여 1917年 10月 革命으로 權力을 獲得하게 되자, 「레닌」은 組織의 優秀性과 「러시아」 社會에 있어서 축적된 不滿을 교묘히 利用하여 黨의 獨裁를 強化할 수 있었다. ④

「레닌」에 의하면 大衆의 利益의 最終的인 保壘는 共產黨이다. 이것은 一黨獨裁가 必然的이고, 政治的인 敵의 撲滅을 위한 秘密警察의 使用이 必然的이라는 論理的 結論을 誘發시킨다. 그리하여 「레닌」은 反對黨의 自由를 빼앗고, 社會의 모든 組織은 獨占黨(共產黨)의 意思를 媒介할 뿐,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獨白性을 否認했다.

나. 「스탈린」時代

一黨國家로부터 黨內的 獨裁를 建設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이것은 물론 「스탈린」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黨組織에 관한 超集中的 思想은 이미 「레닌」에 의하여 그 基礎가 設立된 것이다. 「트로츠키」는 1904年에 다음과 같이 豫言했다. 「레닌」의 計劃에 따르면 黨은 勞動者 階級의 地位를 뺏을 것이며, 黨組織은 黨의 地位를 뺏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 獨裁者가 黨組織을 뺏을 것이라고 했다.⁷⁾

「트로츠키」의 豫言은 「스탈린」에 와서 的中되었다. 「스탈린」은 「레닌」이 죽은후 「트로츠키」, 「카메네프」(Kamenev), 「지노비에프」(Zinoviev), 「부카린」(Bukbarin), 「툼스키」(Tomski), 「리코프」(Rykov) 등의 政敵을 차례로 肅清하고 黨의 最高 實力者로 登場했지만, 그의 肅清은 「볼셰비키」黨

③ 이러한 思想은 「What Is to Be Done?」이란 著述에서 주장되었는데 이것이 「레닌」主義를 「마르크스」主義로부터 區別하게 하는 要素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레닌」은 어디까지나 革命家였고, 抽象的인 思想家는 아니었다. 여기서 「레닌」의 主要 著作을 一瞥하면, 우선 가장 重要的인 初期의 著作은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Russia* (1899)이다. 이것은 「러시아」에 있어서 農民의 役割에 관한 「나로드닉」의 概念에 있어서 誤謬를 指摘한 것으로서, 「레닌」은 農民이 이미 統一된 大衆이 아니고 資本家의 農民과 「프롤레타리아」적 農民으로 分裂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1916)은 帝國主義가 資本主義의 破滅을 가져 오리라는 科學的인 豫見을 주장한 것으로서, 그 理由는 帝國主義가 「世界革命」의 客觀的 條件을 만들고, 社會主義 革命의 前夜를 意味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 외에 *State and Revolution* (1917)등이 主要한 著述로 꼽을 수 있다.

④ 「마르크스」는 歷史의 흐름이 個個의 事件을 決定지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닌」은 狂的 強迫觀念에 사로잡힌 한 人間이 歷史를 變化시킬 수 있다는 것을 立證했다. 「마르크스」는 歷史的 必然的인 흐름이 勞動者들의 執權을 自然的으로 招來하리라고 믿었으나, 「레닌」은 「마르크스」의 理論이 無慈悲한 少數에게 權力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立證했다.

內에서만 限하지 아니했다. 「호루시초프」가 1956年 「第20次 蘇聯 共產黨大會」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1930年代 「스탈린」의 피의 肅清은 數千名에 달했다고 한다.⁸⁾

이와같이 「스탈린」이 英強의 獨裁者로서 그 地位를 鞏固히 하면서, 그 自身의 意思가 黨의 運營 原則으로 登場했고, 黨의 機構는 그의 意思에 服從하는 道具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스탈린」의 獨裁는 그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를 反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 「러시아」의 後進性을 克服하려는 「레닌」과 「스탈린」의 熱望이 專制的인 方法에의 依存을 必要로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불세비키」가 權力을 획득했을 당시 「러시아」는 初期의 産業社會로 突入하고 있던 農業國이었다. 一部의 「불세비키」사이에는 「러시아」의 後進性이 社會主義 革命을 不可能하게 하리라는 두려움도 불려 일으켰지만, 「스탈린」과 「레닌」은 獨裁的이고 全體主義的인 方法으로 後進社會를 近代化하는 것이 共產主義의 任務라고 믿었던 것이다.

1921年에서 1927年 사이에 實踐되었던 「新經濟計劃」(NEP)과 1928년부터 始作된 「5個年計劃」은 이와 같은 獨재자의 信念이 反映된 政策이었다. 「新經濟政策」期間 소련은 相當한 工業의 成長을 이룩했으나, 工業部門의 繼續的인 膨脹을 위하여 投資資本을 蓄積하는데 困難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工業資本의 蓄積을 위하여 集團農場制度를 實施하였으며 그 結果 莫大한 農民의 犧牲만을 招來하였던 것이다.

「스탈린」의 시대는 教條보다 實踐이 強調된 時代였다. 革命政黨으로 부터 支配政黨으로 「불세비키」가 變質된 것은 「레닌」主義 (혹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國家의 「이데올로기」로 되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의 主要한 任務는 黨지도력의 決定을 說明하고, 合理化하고, 擁護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스탈린」의 理論的 主張은 作用的 「이데올로기」의 宣言의에 아무 것도 아니다.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과의 論爭에서 「스탈린」이 主張한 社會主義 建設에 관한 理論은 소련의 富強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또한 外勢의 危險에 對抗하기 위하여 「소비에트」의 愛國心을 確認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國家가 燒滅할 수 있기 전에는 더욱 強盛해야 된다고 主張하였는데, 이것은 「소비에트」 社會를 再編成하는데 있어서 國家機構의 役割을 強調한 것이었다. 또한 共產主義에 다가올 수록 階級의 敵을 더욱 危險視한 그의 主張도 역시 피의 肅清의 正當化 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⁹⁾

다. 「스탈린」 이후

1953年 「스탈린」의 죽음은 「소비에트」 共產主義에 있어서 새로운 時代의 出現을 意味한다. 이 시대는 「호루시초프」의 時代로 부를 수 있겠는데, 그것은 一種의 「合理的 全體主義」 體制의 時代였다. 「호루시초프」는 全體主義的 權力의 實體를 保有하면서, 經濟와 行政統制를 合理化하고, 「스탈린」 時代의 「테러」를 緩和하고, 政權에 대한 大衆의 支持를 넓히기 위하여 福祉改革을 斷行했다.

⁸⁾ 「스탈린」의 理論的 主張은 소위 「一國社會主義」(Socialism in one country)의 概念인데, 이것은 世界共產化라는 「마르크스·레닌」의 主張과 矛盾되는 것은 아니다. 「스탈린」이 共產主義의 勝利를 위한 革命의 不可避性을 否認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革命을 指導하기 위한 強力한 「소비에트」 體制를 먼저 強調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호루시초프」는 「스탈린」과 달리 黨을 그의 支配에 있어서 第一의 道具로 삼았다. 말하자면 「레닌」의 運營方式을 黨內에 復活시켰던 것이다. 「호루시초프」가 이와 같이 黨의 機構를 利用하게 된 것은 「스탈린」時代의 超集中의 權力構造가 점차로 複雜해 가는 經濟의 合理的 管理에 不適合하다는 事實을 發見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호루시초프」는 超集中화된 權力構造의 分散을 試圖하였다. 그러나 黨의 機能은 여전히 그의 意思執行을 위하여 存在하였고, 自由는 認定되지 아니하였다.

「호루시초프」는 「스탈린」時代에 있었던 大規模의 彈壓을 多少 緩和했다. 「호루시초프」는 그 自身이 人民들과 친근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努力했고, 共産主義 建設에 있어서 大衆의 積極의 參與를 強調했다. 그리하여 「호루시초프」에 와서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는 「全人民의 國家」라는 概念으로 代치되었고, 「프롤레타리아」의 政黨은 全人民의 政黨으로 代치되었다. 사실 「호루시초프」는 共産主義의 建設段階에 돌입하는 여러가지 理論을 整理했던 것인데, 특히 1961年 黨의 「프로그램」에서 國家가 소멸함에 따라 國家機關을 점차 自治團體로 代치할 것을 약속했었다.⁹⁾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行政機能에 있어서 보다 많은 大衆參與를 強調했지만, 그것은 물론 黨의 嚴格한 指導下에 實現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共産主義의 段階에 있어서도 黨의 소멸은 결코 그들이 豫想하거나 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 밝혀졌다.

「호루시초프」治下의 소련은 한 동안 工業과 宇宙開發에 있어서 刮目할 成長을 보였으나, 그의 執行末期 工業의 成長은 遲延되고, 農業政策의 失敗로 食糧難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西伯林으로부터 西方側 勢力을 逐出하려던 企圖의 失敗, 「큐바」의 「미사일」事件, 中·蘇紛爭의 激化, 東歐에서 소련의 影響力의 減退 및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一般의인 弱화등은 「호루시초프」의 權威를 점차 失墜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執權初期의 業績과 「反스탈린」運動에도 不拘하고, 「호루시초프」는 1964年 10月 權座에서 밀려 났으며, 그를 이어 새로운 集團指導體가 登場했던 것이다.

3. 毛澤東 思想(戰術的 側面)

여러 가지 意味에서 毛澤東이 이끄는 中國共産黨의 勝利는 共産主義에 의하여 일찌기 爭取된 勝利 가운데 가장 注目할 事件이었다. 毛澤東의 勝利는 그 自體로도 驚異的이지만 「國際共産主義」運動의 強化란 點에서도 그 意義는 至大하다. 그러나 「毛澤東思想」의 成功은 한 때 同質性이 強調되던 共産陣營 內部에 混亂과 分裂을 招來하였던 것이다.

「毛澤東思想」에는 「마르크스」의 理論보다는 「레닌」의 敎訓이 더 잘 反映되어 있다. 특히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後進社會에서 매력적으로 받아 들여졌지만 毛澤東은 「프롤레타리아」와 民主主義와의 結合으로 帝國主義 勢力을 打破할 수 있다는 「레닌」의 至論을 받아들여 그것을 後進農業社會인 中國의 現實에 成功의으로 適用시켰다. 또한 「레닌」의 組織理論에 따라서 毛澤東은 精銳화된 共産黨을 이끄는 데 成功했다. 이러한 意味에서 毛澤東의 主要著作이 비록 오늘 날의

⑨ 「호루시초프」의 후계자인 「브레즈네프」(Brezhnev)와 「코시긴」(Kosygin)은 「스탈린」의 「이미지」(image)를 復活시키고, 「호루시초프」의 外交政策을 踏襲하고 있지만, 그들은 「스탈린」主義者도 아니며 「호루시초프」主義者도 아니다. 그들은 管理的 指導者(managerial leaders)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릴라」전쟁에 指導의 影響力을 주어왔지만 毛澤東은 결코 創造的인 理論家는 아닌 것이다. 다만 2次世界大戰 後 많은 共產政權이 外勢에 의하여 樹立되었음에 반하여 中國共產黨의 勝利는 獨自의 이고 土着的인 要素에 依存했다는 점에서 毛澤東의 獨創性을 認定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中國共產黨의 勝利를 낳게한 毛澤東의 革命戰略단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中國의 共產主義 革命은 「軍事的인 大衆蜂起」(militarized mass insurrection)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것은 計劃된 大衆의 革命戰爭이란 점에서 다른 革命과 區別된다. 「軍事的인 大衆蜂起」는 人民大衆에 의하여 遂行되지만, 여기에는 革命幹部의 指導가 必須的이다. 그들의 目的은 革命戰爭에 의한 政權의 爭取에 있으나, 革命의 理念은 주로 民族主義的인 것에 特色이 있다. 그리고 「軍事的인 大衆蜂起」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는 어떻게 하여 脆弱한 革命軍隊가 職業的으로 訓練된 政府의 正規軍을 격파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毛澤東의 解答은 그의 「人民戰爭理論」이었다¹¹⁾

1927年 第1次 國共合作이 分裂된 後 中國 共產主義者들은 「코민테른」의 政策을 不信하게 되었다.¹²⁾ 그리고 毛澤東이 領導하는 小規模의 革命軍은 湖南과 江西省사이의 山間僻地로 逃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들은 中國에 있어서 社會主義革命을 再檢討하기 始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위 「井崗山 鬪爭」을 통하여 毛澤東의 革命戰術은 徐徐히 孕胎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1928年경부터 中國共產黨의 勢力은 점차로 擴大되기 시작하여 江西省을 根據로 하는 獨立된 地域의 支配가 可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1年 소위 「中華소비에트共和國」을 宣布하기에 이르렀다. 이시기에 毛澤東의 基本戰略은 共產黨의 軍事化였다. 毛澤東의 軍隊는 비록 蔣介石의 第5次 掃共作戰에 의하여 陝西省으로 逃走行進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¹³⁾ 江西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게릴라」戰術은 4次에 걸친 國民黨軍의 攻擊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1936年 毛澤東은 共產革命을 可能케한 「人民戰爭戰術」을 創案하였다. 이것이 「軍事的인 大衆蜂起」에 있어서 核心的 要素다. 「人民戰爭」은 共產主義者의 活動이 政治的인 것에서 軍事的인 것으로의 轉換을 意味한다. 그리고 軍事的 行動의 原則은 「게릴라」戰術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게릴라」戰術만 가지고 「人民戰爭」을

주 ① 「스칼라피노」(R. A. Scalapino)教授는 中國에 있어서 共產主義 革命을 다섯개의 段階로 나누고 있다. 그 첫 段階는, 黨의 出現이다. 이 黨의 本質은 물론 「프롤레타리아」의 前衛의 性格에 있다. 또한 黨의 組織은 「레닌」의 組織方式에 따라 構成되었으며, 「民主的 集中制」의 原則이 支配되었다. 둘째 段階는, 黨의 基盤을 擴大하는 것이다. 그것은 社會를 「人民」과 「人民의 敵」으로 兩分하고, 이 양자간의 矛盾을 解決하기 위하여 「브르조아」적 民主主義 革命을 標榜하고 民族主義에 呼訴하는 段階이다. 셋째 段階는, 執政黨에 대한 挑戰이다. 執政黨에 대한 挑戰은 共產黨의 勢力의 強化를 必須的 條件으로 하였으며, 이것의 成功은 네째 段階인 「人民戰爭」으로 發展하게 되며, 「人民戰爭」의 勝利는 다섯째 段階인 「人民民主主義」의 宣布로 革命을 일단락짓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人民戰爭」의 理論은 5단계의 革命과정에서 그 한 段階를 形成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Robert A. Scalapino (e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5), pp. 16—22.

② 1920年 7月 「코민테른」 第2次대회에서 「레닌」은 植民地 및 被壓迫民族의 解放에 關하여 第1단계로 統一戰線을 根幹으로 하는 民族主義運動을 展開하고, 이것이 성공한 후 第2단계로서 共產革命을 展開하라고 지시했다. 中國의 共產主義者들은 1921年 創黨이 후 이와같은 「코민테른」의 指示를 맹목적으로 좇았던 것이다.

③ 蔣介石은 1930年 10月부터 掃共戰을 시작하였으나 第4次에 이르기까지 失敗하였고, 1934年의 第5次 掃共戰에 성공하여 毛澤東의 紅軍을 敗走시킬 수가 있었다. 1年이나 걸린 敗走行進을 「大西遷」 혹은 「長征」이라고 부른다.

勝利로 이끌 수는 없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段階의 戰術이 必要한 것이다.¹¹⁾

첫째로, 「軍事的인 大衆蜂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要素는 共產黨을 支持하는 人民을 動員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毛澤東은 이미 1934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革命戰爭은 大衆의 戰爭이다. 그것은 大衆動員의 手段을 通하고 大衆에 依存함으로서만 遂行될 수 있다.”¹²⁾ “지난 50餘년간 革命의 敎訓은 무엇인가? 基本的으로 그것은 人民大衆을 깨우치는 것이다. 우리는 全人民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勞働者와 農民大衆을 動員함으로서만 帝國主義와 封建主義를 打倒할 수 있다.”¹³⁾ “「게릴라」戰은 本質的으로 大衆으로부터 誘導되고, 大衆에 의하여 支持되기 때문에, 大衆의 協助와 同調를 얻지 못하는 限, 그것은 存在할 수도 없고 勝利할 수도 없다.”¹⁴⁾ 이와 같이 國民黨 軍隊의 技術的 優秀性에 대한 毛澤東의 戰術은 國民黨에 敵愾心을 품은 大衆을 動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大衆의 動員은 現實的으로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革命政黨이 大衆의 支持를 얻기 위하여는 廣範圍한 「이미올로지」적 宣傳이 必要했던 것이다. 中國共產主義者들은 大衆에 대한 呼訴를 土地改革에 대한 約束과 抗日戰爭에 있어서 愛國心을 통하여 시도했다. 土地改革에 대한 約束은 그 自體로서 成功的인 것은 아니었으나, 1937年 이후 日本의 侵略은 毛澤東에게 切好의 機會를 가져왔다. 政治的으로 계몽되지 아니했던 大衆들이 日本의 侵略에 의하여 깨기 始作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共產主義者들은 農村人民의 民族主義를 교묘히 利用하여 農民大衆을 成功的으로 動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動員된 人民의 組織이 중요하다. 毛澤東의 戰略에 의하면 組織은 動員을 補完한다. 그리하여 黨과 軍 幹部는 人民을 大衆團體로 조직했는데 이것은 軍隊를 도우고 大衆에게 政治的 參與意識을 鼓吹시켰던 것이다. 黨組織의 主要任務의 하나는 大衆에게 政治的 敎育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組織의 마지막 段階는 領土的 據點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據點이 커지고 強化되면서, 그들은 正規 「게릴라」의 下部構造를 형성하여 食糧 기타의 補給을 擔當하고, 人的資源의 供給源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黨이 領導하는 大規模의 革命軍의 養成이 必要하다. 이 軍隊는 江西「소비에트」의 紅軍幹部에 의하여 訓練되었고, 嚴格한 規律과 地方人民과의 友好關係의 유지에 힘썼다. 좋은 軍民關係는 사실상 革命戰略의 要素를 이루는 것이었다. 좋은 軍民關係를 維持하기 위하여 毛澤東은 「三大紀律」 및 「八項注意」를 창안해 냈던 것이다. ④ 요컨대 軍民關係의 改善이야말로 궁극적으로 大衆의 支持를 얻는 手段이라고 毛澤東은 믿었던 것이다.

주 ④ 이것은 1928年 「井崗山」時期에 제정되었으나 1947年 10월에 그 內容이 바뀌어 새로이 강조되었다. 새로운 三大紀律은 ① 一切의 行動은 指揮에 따른다. ② 大衆들의 물건을 한개의 바늘, 한가닥의 실이라도 갖지 않는다. ③ 一切의 鹵獲은 나라에 바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八項注意는 ① 말은 부드럽게 한다. ② 물건을 公平하게 사고 판다. ③ 빌린 물건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④ 물건을 깨트렸으면 賠償하여야 한다. ⑤ 사람을 때리고 욕하지 않는다. ⑥ 耕作物을 損傷하지 않는다. ⑦ 婦女子를 戲弄하지 않는다. ⑧ 捕虜를 虐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60年 5月, 中共軍은 새로운 「三八作風」의 紀律을 선포했으나 이것도 毛澤東이 抗戰時代에 강조한 것이었다. 그 內容은 堅實하고 正確한 政治方向, 艱苦素朴한 工作氣風, 敏捷하고 機動性 있는 戰略戰術의 세키절과 團結, 緊張, 嚴肅, 活潑의 여덟 글자로 構成되어 있다.

네째로, 軍事的 行動은 「게릴라」戰術을 쫓아야 한다. 軍事에 관한 毛澤東의 思想을 一瞥하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信念이 나타난다. 卽 軍事的인 鬪爭 外에는 革命的 成功에 到達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게릴라」戰術도 大衆의 支持를 절대 必要로 하고 있다. 毛澤東은 「게릴라」를 물고기에 比喩하고, 大衆을 물에 比喩했다. 그렇기 때문에 政治的 氣溫이 適當하다면 물고기는 비록 數에 있어서 劣勢이더라도 繁榮할 수 있다고 믿었다.¹⁵⁾ 毛澤東의 「게릴라」戰術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敵이 進擊하면 後退하고, 敵이 停止하면 攪亂하고, 敵이 疲困하면 攻擊하고, 敵이 後退하면 追擊한다』로 要約된다. ⑤

그러나 毛澤東에 의하면 「게릴라」戰術은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다. 「게릴라」戰術은 항시 一時的 性格을 지닌 것이다. 그러므로 「게릴라」戰術의 다음에는 必然的으로 「持久戰」이 登場하게 마련인데, 이것이 「人民戰爭理論」의 마지막 段階인 것이다. 毛澤東은 「革命戰爭」의 勝利를 위하여는 長期的인 戰鬪에 依存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게릴라」戰鬪는 소모적인 持久戰爭을 통하여 敵을 弱化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1948년에 이르러 國民黨의 正規軍과 共產黨의 革命軍사이의 均衡이 이루어지자, 革命軍은 점차로 大規模의 機動作戰을 통하여 正規戰을 占領하게 되었으며 共產黨은 마침내 中國大陸을 占據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毛澤東의 軍事思想에 관하여 陳伯達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게릴라」전쟁은 戰爭의 結果를 決定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것은 아니다. 마지막의 勝利는 正規戰에 의해서 얻어져야 된다. 그러나 中國의 革命戰爭에 있어서 正規戰의 局面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不規則한 「게릴라」戰鬪의 結果로 나타난 것이다.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革命的 힘의 一般的인 팽창의 法則인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다섯개의 원칙이 毛澤東의 「人民戰爭戰略」의 核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人民戰爭」理論의 完全한 형태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進술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心理戰이라던가 連合戰術등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다섯개의 원칙이 毛澤東의 革命戰術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毛澤東의 「革命戰術」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理論的 公認은 아닌 것이며, 後進農業社會인 中國의 現實을 勘案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實踐의 適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中國 共產主義자들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普遍的 眞理」로 간주하고, 毛澤東의 「革命戰術」로서 대표되는 「毛澤東思想」은 「實踐的 眞理」 혹은 「實踐的 이데올로기」로 구별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毛澤東의 「革命戰術」은 「人民戰爭」의 勝利 후에 到來하는 「社會主義 革命」의 建設단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그의 이른바 「大衆動員」은 社會主義 建設의 手段으로 쓰여졌으며, 大衆動員이 가장 잘 象徵的으로 나타난 것은 1958년에 出帆했던 「大躍進 運動」에서였다. 이 時期에 中共指導者들은 落後된 中共의 經濟力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大衆의 勞動力을 科學과 機械에 代置시키려고 노력하였

주 ⑤ 이것은 흔히 十六字戰術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漢字로 「敵進我退, 敵據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의 十六字로 表現되기 때문이다.

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이 비극적인 失敗로 끝나고 만 것은 大衆動員의 限界性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로 增大해가는 國內의인 不滿, 경제적 실패, 中·蘇紛爭의 激化에도 불구하고, 毛澤東이 이끄는 中國의 共産黨이 「아시아」의 到處에서 직접적인 위협으로 登場하였으며, 많은 低開發國家들에게 「폭력적 革命」의 根源을 마련해 주는 무서운 全體主義 國家를 수립할 수 있었다. 中共의 이와 같은 성공은 毛澤東의 革命戰術의 밑바닥에 있는 「大衆路線」이라고 불리는 大衆動員의 實踐의 倫理가 결국은 一黨獨裁를 可能케한 完全統制의 手段으로서 교묘히 利用되는 所以에 기인한다.

- 1) 이 책은 *Evolutionary Socialism: A Criticism and Affirmation*이란 제목으로 영국에서도 출판되었다 (1909).
- 2) Christian Gneuss, "Eduard Bernste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II Vol.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68), p. 68.
- 3)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1969), p. 153.
- 4) John H. Kautsky, "Karl Kautsk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8, pp. 356—357.
- 5) Tadeusz Kowalik, "Rosa Luxemburg",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9. pp. 496—497.
- 6)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7) 이것은 그의 *Our Political Tasks; Tactical and Organizational Questions* (1904)에서 였다 한다. Isaac Deutscher, *The Prophet Armed: Trotsky, 1879—192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참조. 또한 Carew Hunt, *op. cit.*, p. 186.
- 8) Nikita Khrushchev, *Khrushchev Speak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3).
- 9) N. S. Khrushchev,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 to the 22nd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Cross-Currents Press, 1961).
- 10) Chalmers Johnson, *Revolution and the Social System* (Stanford: Hoover Institution Studier, 1964), pp. 57—68.
- 11) Chalmers Johnson, "Building a Communist Nation in China," in Robert A. Scalapino (ed.),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s Cliffs: Prentice-Hall, 1965), pp. 49—53.
- 12) *Ibid.*, p. 50에서 再引用.
- 13) *Ibid.*
- 14) *Ibid.*
- 15) Samuel B. Griffith, "Introduction", in Mas Tse-tung, *On the Guerrilla Warfare*, trans. S. B. Griffith (New York: Praeger, 1961), p. 7.
- 16) Johnson, *loc. cit.*, p. 52에서 再引用.

第 3 章 共産國家의 現實

本章은 共産國家의 現實을 把握하기 위하여 政治 및 社會現實을 各各 說明하고 우리의 自由와 安保에 威脅이 되고 있는 北傀의 現實을 마지막으로 考察한다.

첫째 부분은, 共産國家에 있어서 一黨獨裁란 側面에서 政治現實을 分析한다. 共産國家에 있어서 黨은 唯一한 合法政黨으로서 모든 國家權力을 獨占하고 完全統制(Total control)와 完全動員(Total

mobilization)의 정치를 요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黨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위한 黨이 아니며,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黨이 아니며, 少數의 支配「엘리트」의 政治權力을 위하여만 存在한다. 또 共產主義 國家의 政治現實은 對內的으로는 「테러」(공포)정치, 對外的으로는 好戰의 팽창주의로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부분은, 共產主義 國家의 社會現實이다. 自由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平等을 누리지 못하는, 말하자면 基本權의 保障이 완전히 박탈된 共產國家의 社會現實은 암흑 바로 그것이다. 文化, 藝術의 部面에서 自由로운 창작활동이 許容되지 아니하며 모든 文化的, 藝術의 활동도 黨의 지시 아래 黨과 政府의 선전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 대부분, 共產社會는 급격한 公營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을 달성기 위하여 國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個人의 私生活도 희생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째 부분은, 北傀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2次대전이 끝난후 北傀 共產集團의 수립에서 시작하여 北傀集團의 성격과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파헤친다. 또한 북傀의 武力赤化 政策에 근거한 侵略挑發이 우연한 戰略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暴力의 役割에 대한 共產理論을 설명하고, 끝으로 여러 면에서 볼수 있는 北韓社會의 비참한 현실을 고찰한다.

1. 政治現實

세계의 모든 共產國家의 政治現實을 一律적으로 論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全體主義의 一黨獨裁國家란 점에서 共通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共產國家의 政治現實은 무엇보다도 共產黨에 의한 獨裁라는 견지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共產國家에 있어서 黨은 모든 國家權力을 獨占하고 있다. 黨에 의한 國家權力의 特點은 각 共產國家의 歷史의 發展段階에 있어서도 差異가 있고 「文化革命」(1966—1968) 당시 中共에서 볼수 있었던 것과 같이 黨이 一時的으로 崩壞되어 그 技能이 마비되었던 예외적인 현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共產國家의 共產黨은 初期의 少數 혁명적 擘모가들의 團體로 부터 高度로 훈련되고, 강화된 支配「엘리트」의 政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의 前衛로 부터 國家權力을 獨占行事하는 政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당에 의한 權力的 獨占은 실질적으로 黨의 中央機關에 의한 것이다. 大部分의 共產國家의 黨은 「政治局」(politburo)이라는 最高 決定機關을 갖고 있으며 一切의 權力은 여기에 集中되어 있다. 따라서 共產社會에 있어서 權力이라는 것은 이 「政治局」으로 부터 추출되는 것인데 그것은 黨과 國家의 「피라미드」를 통하여 언제나 下向적으로 움직인다. 黨의 決定은 모든 法律, 公共의 政策, 심지어 個人의 私生活까지를 지배하고 있다. 共產黨은 노동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1917年 당시 소련에서 볼수 있었던 것과 같이 勞動者 大衆이 지배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教育의 普及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의 指導와 統制는 完化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共產國家의 실정이다. 만약에 支配者와 被支配者사이의 教育의 缺(gap)이 점차로 줄어들었다면 共產指導者들은 「엘리트」에 의한 支配를 正當化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특히 「마

르크스·레닌主義가 種族, 民族, 文化의 平等을 標榜하고, 階級없는 社會와 自發적 協同과 人間에 의한 人間의 착취의 抹殺을 目標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共産黨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黨指導者는 大衆으로부터 배운다는 倫理的 命題에도 불구하고, 黨의 專橫은 계속되고 있다.

各國의 共産黨은 그 性格上 排他的 이기 때문에 黨員이 될 수 있는 節次는 各々다. ① 또한 黨員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支配「엘리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支配「엘리트」가 아닌 一般黨員의 역할은 黨의 「엘리트」와 非黨員인 一般大衆과를 連結시켜 주는데 그친다.

大部分의 共産國家에 있어서 黨의 組織은 政府의 組織과 밀접한 關聯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黨은 各單位의 政府機構를 效率적으로 統制하고 있다. 말하자면 黨조직은 社會의 全 組織에도 浸透하고 있는 것이다. 黨은 그 政策에 대한 社會로부터의 反對를 許容하고 있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黨지도자의 결정도 黨內的 反對를 許容하지 아니한다. 黨의 要職을 갖고 있는 者들은 흔히 行政府의 要職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莫強한 權力을 누리고 있으며, 支配「엘리트」를 形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共産國家에 있어서 黨은 「民主的 集中制」라는 原則②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다. 理論上 「民主的 集中制」는 黨의 幹部들이 黨원에 의하여 選出되고, 또 모든 決定은 民主的인 方式에 의하여 討論된 후 決定된다는 것이다. ③ 그러나 일단 決定이 採擇되면 누구도 이에 대한 批判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黨은 이것을 執行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民主的 集中制」는 實質적으로 黨內的 民主主義를 死文化시켰으며, 黨 幹部 역시 진정한 意味의 選舉過程을 통하여 選出되지 아니한다.

물론 形式的인 선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指導者에 의하여 任命된 것을 承認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黨의 要職을 맡은 幹部들의 임기도 이론상 制限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制限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黨의 幹部들은 그들 스스로가 進退를 결정할 뿐이고, 外部的인 혹은 제도상의 壓力을 받지 않는다. 다만 權力투쟁 과정에서 沒落하여 사퇴가 強要된다거나 숙청의 對象이 되는 수는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高級幹部의 경우이고, 下級幹部는 고 級간부의 意思에 따라 그 정치적 生命이 左右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黨의 요직의 繼承도 法律이나 慣習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黨內的 權力투쟁의 結果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結果는

주 ① 黨員이 되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소련에서는 한동안 특정의 직업을 소유한 자만이 黨에 加入할 자격이 있었으나, 오늘 날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人民에게 加入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黨원의 과반수는 노동자여야 된다는 원칙도 이제는 포기되고, 1966年 第23次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행한 「브레즈네프」의 보고를 보면 노동자는 全黨員의 37.8%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또한 黨원의 數도 발표되었는데 12,741,000명이었다고 하며, 당시 소련의 人口 2억3천2백만에 비하면 6%弱의 數字였다. 그러나 1956年の 黨員數 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數字였다.

② 이것은 「레닌」의 조직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③ 그러나 一般的으로 討論의 경우에도 그것이 派閥의 근거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許容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中共의 경우를 보면 黨內的 討論은 意見集團(opinion group)사이에만 가능하고 단일 이것이 파벌로서의 성격을 띠면 그 討論은 中止된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은 이러한 意見集團사이의 討論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최고 지도자 1인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탈린」시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주 나타났다.

사실 당원 자신들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레닌」의 死後 「스탈린」과 「트로츠키」와의 權力鬭爭이라든가④ 「스탈린」의 死後 「마렌코프」(Malenkov), 「불가닌」(Bulganin), 「호루시초프」등의 權力鬭爭은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다. ⑤ 또 中共에 있어서도 毛澤東의 후계를 둘러싸고 심각한 權力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이 文化革命을 통하여 밝혀졌다. ⑥

이와 같이 엄격한 당의 訓練에도 불구하고, 各國의 共產黨은 거의 언제나 內部的 權力투쟁이나 理念鬭爭을 일삼아 왔다. 1921年以後 소련은 黨內의 파벌형성을 금지하여 왔고, 指導層에 위협이 되는 당원들의 조직은 가혹한 彈壓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黨派와 內部的 權力투쟁이 계속된 것은 지도자 계승이나 權力의 이양에 관한 合理的 결차의 결여에서 자연적으로, 發生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一黨獨裁國家의 필연적인 脆弱性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共產黨內部的 의견의 차이는 大部分의 경우 전략적인 問題이거나 혹은 相對派를 肅清하기 위하여 한 당파가 造作하는 때 나타난다. 사실 共產主義자들은 黨內의 분열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적어도 外部世界에 대하여는 自己네들이 항상 團結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權力이나 特權의 面에서 본다면, 各國의 共產黨員들은 「舊體制」(ancienregime)의 귀족들의 그것과 比較할 수 있다. 그들은 自己네 국가의 保存 및 팽창을 위하여 헌신적인 努力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의 派閥이 그들 자신의 運命의 派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相當數의 黨員은 共產主義라는 이념에 狂的으로 심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生命維持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고, 改革이나 政策의 변경을 主唱하는 사람들은 黨의 高位幹部뿐인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국가의 모든 條件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理念的인 열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共產國家의 共產黨은 당의 支配「엘리트」가 아닌 분자들에 관한 한 「레닌」의 革命的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와는 거의 共通點이 없고, 黨은 특권계급으로 構成된 組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全體主義의 一黨國家의 필연적인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黨은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 發見되는 政黨과는 質的 差異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產黨에 의한 獨裁는 共產國家의 政治現實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그들의 憲法

주 ④ 1923年 「스탈린」은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와 손을 잡고, 「트로츠키」가 「레닌」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 「레닌」은 遺言으로 「스탈린」을 黨의 총서기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으나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트로츠키」의 제거에 성공한 후 1925年 「카메네프」와 「지노비에프」를 다시 숙청하였으니, 이번에는 黨의 우익세력의 도움으로서 였다. 그러나 그후 「부하린」등의 우익세력도 숙청하고 名實共히 一人 獨裁體制를 구축했던 것이다.

⑤ 「스탈린」이 1953년에 죽자 「헤닌」의 死後와 마찬가지로 集團지도체제가 생겼다. 「마렌코프」는 「스탈린」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까닭에 首相과 黨의 「第一書記」職을 겸임함으로써 最高實力者로 등장하려 하였으나 集團지도체의 반발로 黨書記職을 「호루시초프」에게 양보했던 것이다. 1955年 2月 集團지도체는 「마렌코프」를 首相職에서 사임시키고 「불가닌」을 등용하였으나, 결국은 「호루시초프」에게 물러나고 말았다.

⑥ 文化革命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毛澤東과 劉少奇의 權力투쟁이 1950年代末부터 심각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中共의 경우가 소련의 例와 다른 것은 前자에 있어서는 權力투쟁자체도 중요하지만 政策의 對立이 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毛澤東과 劉少奇의 투쟁은 根本的으로 社會主義 建設에 대한 理念的인 差異에서 출발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은 형식적으로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名目上의 保障에 지나지 아니하고 共産黨은 個人의 自由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文化, 敎育, 宗教, 經濟, 通信등의 생활의 모든 面에 당과 당의 敎條가 浸透되어 있다. 共産主義 國家는 自由世界와의 思想的 競爭을 회피하고 國民의 알 權利를 制限하고 있는데 이 點에서 共産國家는 「파시스트」(Fascist) 政黨과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共産主義의 政治現實은 당의 支配를 永續化하기 위한 對內的인 恐怖政治인 것이다.

2. 社會現實

共産主義 社會는 專制主義 社會의 標本으로서 黨이 지배하는 政府의 엄격한 統制와 감독 아래 조직되고, 運營되고 있다. 黨은 소위 共産社會라는 「유토피아」의 達成을 위하여 모든 個人과 集團의 원천적인 忠誠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共産主義 社會는 自由民主主義 社會와 같은 多元社會(pluralist society)는 아니다. 그러므로 社會의 모든 集團의 獨自性이나 自律性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社會의 모든 自律的인 團體와 制度는 파괴되었던가, 아니면 黨과 政府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다.

共産主義 社會는 공산당에 의하여 選出되고 감독을 받는 行政管理, 科學者, 技術者, 軍隊나 警察의 高級幹部와 일부 言論人으로 構成된 「엘리트」의 支配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民主的 選舉民들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있는 自由民主主義 社會의 「엘리트」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며, 그들은 全體主義的인 黨의 獨裁를 強化하고 永久化하기 위한 黨의 侍女로서만 存在하는 것이다. 그들은 黨의 최고 決定機關에만 責任을 지고, 一切의 사회단체는 自由民主的인 多元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勢力均衡의 役割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政策에 있어서 意見의 차이는 「엘리트」사이의 黨派的인 鬪爭에 의하여만 秘密裡에 해결되고, 그들만이 모든 分野의 표준을 세우며 行動에 대한 規則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權力獨占에 대한 도전은 무자비하게 彈壓을 받으며, 反對思想은 진압되고 또 社會는 外部世界의 影響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黨과 政府의 監督은 宗教活動으로부터 文學, 美術, 音樂등의 모든 藝術分野에 까지 미치고 있고 따라서 예술적 활동도 共産黨의 指導階級의 目標에 따르게 되어 있다. 「대스·콤」과 같은 大衆통신수단도 黨과 政府에 의하여 強力하게 統制되어 있다. 사실 共産國家에 있어서 「대스·콤」의 수단인 新聞, 通信, 放送등의 일체가 國營인 것이며, 따라서 그 數에 있어서도 지극히 制限되어 있다.

自由로운 예술활동이나 知識人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共産社會의 一般的인 특색이지만, 이것은 이들 社會의 反知性的인 態度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스탈린」時代에도 「호루시초프」時代에도 同一하게 나타났으며, 毛澤東 治下의 中共에서도 그러했다. ① 共産社會에서는 大衆이 政府나

주 ① 毛澤東은 특히 1956년에 소위 「百花齊放, 百家爭鳴」政策을 채택하고 發表했다. 이것은 社會主義的인 改造가 成功的으로 進行되고, 國營經濟의 우수성이 확고해 졌다는 신념아래, 文藝 및 學術部門에도 自由化政策이 필요하다고 主張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社會主義的인 工業化에 必要한 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學術論爭이 活潑하여야 된다고 強調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自由化政策은 오히려 毛澤東의 政權과 政策에 대한 批判을 활발하게 하였던 結果를 招來하였으니, 이에 當황한 毛澤東은 翌年 「反右派鬪爭」이라는 美名下에 自由化運動을 다시 탄압했던 것이다.

黨의 宣傳과 政策을 이해 할 만큼 敎育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宣傳과 政策 혹은 그 기초가 되는 共產主義 理念에 대한 批判을 할 만큼 大衆들이 啓蒙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은 反知性的인 政策을 실시하고 藝術活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②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國民의 自由로운 宗教活動이 禁止되어 있다. 「칼·마르크스」는 일찌기 宗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宗教는 不幸에 억눌린 人間의 한숨이요, 無情한 世界에 대한 感傷이요, 靈魂없는 狀態의 靈魂이다. 宗教는 民衆의 阿片이다. 「마르크스」는 敎會가 확립된 不正義을 公고히 한다고 비난하고 宗教의 害毒성을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共產主義라는 ‘科學的’ 眞理에 의하여 人間社會를 說明할 수 있고, 그것이 歷史의 法則인 만큼, 非科學的인 宗教의 沒價値性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無神論에 대한 敎育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師範學校에서 哲學과 歷史를 전공하는 學生들은 無神論의 歷史의 背景과 이에 관한 諸理論에 대한 特別한 科目을 履修해야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國家에서 宗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增加하고 있다.

예컨대 1950年代에 소련의 浸禮敎人(Baptists)의 數는 50萬에서 100萬으로 늘었으며, 신학자인 「알렉산더·오시포프」(Alexander Osipov)에 의하면 소련의 많은 지역에서 約 50%의 아이들이 洗禮를 받는다고 한다. 成人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宗教의 이 아니지만 慣習에 따라 그들의 子女에게 洗禮를 받게 한다고 한다. 특히 農村에서는 宗教的 活動이 強하고 「러시아」 正敎는 政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識者들 사이에 不信이 되고 있다.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基本權 가운데 하나인 移住의 自由가 가장 組織的으로 制限되고 있다. 政治的 意見을 달리하는 者들은 集團勞動 收容所로 보내기도 하지만, 一般市民들도 政府의 許可없이 移住가 自由롭지 못하다. 특히 소련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都市로의 移轉이 禁止되어 있다. 國外旅行은 극히 제한된 「엘리트」에게만 許容되고 一般的으로 移民도 禁止되고 있다. 예컨대 共產國家의 市民이 移民을 希望하는 때는 그것은 國家에 대한 不忠誠의 증거로 간주된다. ③

그러므로 만약 共產國家의 市民들이 合法的으로 그들의 나라를 떠날 權利가 있다면 想像할 수 없는 많은 數의 市民들이 國外로 떠났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東·西獨의 관계를 보자. ” 1950년에

주 ② 共產國家의 宗主國이던 소련에서의 藝術活動에 대한 제약은 西方세계에 잘 알려졌다. 「파스테르나크」(Pasternak)와 「솔제니친」(Solzhenitsyn)에 대한 탄압은 그 대표적 예다. 「파스테르나크」는 <醫師지바코>로 노벨文學賞에 지명되었으나 그 受賞이 許容되지 아니했고, 作品의 出版도 물론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에 대한 背信者로 낙인이 찍혀 고독한 生涯를 보냈다. 「솔제니친」도 <이반·메니소비치의 生涯의 어느 하루>라는 小說만 소련에서 출간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의 作品들은 모두 西方세계에서 출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솔제니친」은 作家로서의 收入은 몰수당하였고, 活動의 自由마저 박탈당했던 것이다. 또 많은 소련의 作家들은 西方側으로 망명했다. 「쿠즈네초프」(Kuznetsov)가 1969年 英國으로 망명한 것은 예술활동이 不自由한 소련의 사회를 떠난 좋은 예다.

③ 1969年 소련의 한 라디오 기술자가 그의 家族과 더불어 「이스라엘」로 移民을 가겠다고 政府當局에 請願한 적이 있었다. 그는 國家에 대한 모독죄로 3년간 懲役刑을 받았다. 그러므로 國외의 移民은 正當한 節次를 통하여는 不可能하고, 모험심이 많은 一部の 市民만이 不法的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不法망명은 「스탈린」時代에는 死刑까지 받을 수 있는 反逆罪였다. 오늘날 이 형벌은 좀 완화되었으나, 망명에 실패한 者들을 아직도 強制勞動所에 보내고 있다.

서 1961年 사이에는 共產東獨으로부터 西獨으로의 망명이 비교적 쉬웠는데, 東獨市民의 約 1/4인 4百萬이나 되는 東獨인이 西獨으로 탈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1年 東獨政府는 西獨으로의 탈출을 단호하게 禁止하였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1961年 부터 1969年 사이에 125,000명이 西獨으로 탈출하였고, 탈출에 실패한 數百名은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④

共產主義 國家에서 教育은 教條의 目的을 위해서가 아닌, 技術習得에 限定되고 있다. 靑少年에 대한 黨의 감독은 특히 철저하며, 그들은 大部分이 「靑少年 共產主義 團體」(Communist Youth League 등)에 加入이 强요되고 共產主義 理念에 대한 注入式的 教育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高等教育을 받는다는 것은 支配「엘리트」의 子女에게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教育의 機會가 均등하게 分配되지 못한 것이 共產主義 國家의 또하나의 社會現實이다.

共產主義 國家에서 黨과 政府는 個人的 私生活까지 통제 간섭하고 있다. 소련이나 中共 등의 農民들은 主로 國營農場이나, 集團農場, 혹은 「人民公社」에서 살도록 强要되고, 政府는 이들의 私有財產을 認定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財產은 農場이나 「公社」아니면 國家의 財產으로 看做되고 있다. 이들은 一定한 量의 노동을 集團生活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 一般市民이 노리는 家庭生活까지도 威脅을 받고 있다. 요컨대 黨指導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을 위해서 個人的 自由가 犧牲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 農業의 集團化(collectivization)는 「스탈린」에 의하여 始作되었는데, 그는 농업의 集團化가 農業生産量을 增大 시키리라 믿었고, 이것은 곧 工業部門의 成長을 위한 자본축적의 手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强요된 農業政策은 오히려 逆效果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소련에서 農業의 集團化는 資本蓄積의 手段이 되기는 커녕 食糧問題도 충분히 解決하지 못했으며 소련 共產主義의 최대의 失敗는 農業政策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生産量의 增大를 目標로 했던 農業의 集團化는 오히려 生産量의 감소를 超來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中共의 「人民公社」의 失敗에서도 발견된다.

그러하여 오늘날 一部の 有力한 소련의 經濟學者는 個人的 經濟的 活動의 自由를 擴大시킴으로써 生産에 대한 자극을 誘引하자고 主張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共產主義 經濟體制의 矛盾을 指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⑤

共產國家의 이와 같은 社會的 現實의 諸 모순은 東歐 共產國家의 性格변화에서 특히 顯著하게 나타난다. 東歐의 여러 共產國家는 2次大戰 이후 「스탈린」式的 全體主義 獨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全體主義的 탄압에 對抗하여 自由를 위한 鬭爭을 해 왔던

주 ④ 1961年 東獨政府는 東柏林과 西柏林사이에 벽을 쌓고, 가시철망과 地雷를 장치하여, 東獨인의 망명을 금지시켰다. 이 柏林의 벽은 그후 人間自由의 상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⑤ 中共은 1958年 여름 農業의 集團化인 「人民公社」制度를 실시하였으나 곧 失敗하고, 이와같이 파격한 社會主義 경제정책을 完化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人民公社」는 남아있다.

⑥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에프세이·리베르만」(Evsei Liberman)이다. 그는 中央集權의 計劃經濟體制의 代替한 改革案을 제시한 것으로 有名하다.

것이다. 물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티토」가 民族主義의 共產主義를 표방하여 소련의 衛星國家의 地位에서 독립한 예이지만, 그는 集團農場을 해산하고 政治的 및 經濟的 自由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의 自由化에도 限界가 있으니 言論, 出版이 制限받고 있고 共產黨 이외의 政黨이 容許되고 있지 않다. 3)

1953년의 東部獨逸의 폭동, 1956년의 「폴란드」의 폭동과 1960年代에 들어서서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自由化 運動은 바로 共產主義 社會의 矛盾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폴란드」, 東獨,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러한 自由化 運動이 소련의 彈壓으로 인하여 失敗하였으나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의 共產主義는 國民에게 상당한 自由를 許容하고 個人의 私的 經濟活動을 獎勵하는 方向으로 움직여 온 것은 特記할 일이다.

3. 北傀의 現實

「朝鮮勞動黨」은 오늘날 北傀의 실질적인 統治組織體로서 北韓社會의 모든 分野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北韓社會에 「스탈린」主義를 도입하는데 成功했다. 2次世界大戰 直後 소련 占領軍의 앞잡이였던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漸次로 고도로 혼련되고 一元的인 共產政權을 樹立하는데 成功하였으며 政治, 經濟, 軍事에 있어서 그 힘을 鞏固히 하면서 大韓民國에 대한 武力侵略을 挑發하여 왔다.

2次大戰이 끝날 무렵 韓半島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세력은 보잘 것 없었다. 1918년부터 1945年 사이에 共產主義의 同調者나 攪亂者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日本官憲은 共產主義의 組織的인 運動을 效率적으로 封鎖하였었다. 그러나 8.15解放과 더불어 韓半島에 있어서 共產主義 革命은 外勢에 의하여 成就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소련군이 北緯 38度線 以北을 占領했던 悲劇的인 事件에서 始作된다. 오늘날 北傀의 指導者들은 1945年 10월에 北韓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의 目的은 소련의 占領任務를 도우고 필경은 그들 자신의 共產主義 政權을 수립하기 위해서 였다.

北韓占領 初期에 소련 당국은 당시 33歲의 金日成을 「民族의 英雄」으로 가장시켜 따라서 「가장 適格의 共產主義 指導者」로 내세웠다. 金日成은 滿洲를 중심으로 抗日運動에 종사하다가 1940年代 初에 日本軍의 攻撃을 받고 소련으로 亡命했다는데 그는 거기에서 軍事教育을 받고 1945년에 北韓에 도착하였을 때는 소련군의 소좌였다고 한다.

1948년까지 軍政을 實施하던 소련 당국은 金日成을 利用하기도 하였지만 한편 새로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共產黨의 최고 地位를 맡김으로서 金日成의 出世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조선공산당 北朝鮮分局」의 「第一書記(책임비서)」가 되었는데 北韓에 있던 모든 共產主義者들은 1945年 10월에 이 「北朝鮮分局」의 지휘아래 再組織되었던 것이다. 1946年 2月 金日成은 다시 「北朝鮮 임시 人民委員會」의 議長이 되었으며 延安에서 돌아온 指導者들로 구성된 「新民黨」이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에 흡수되어 1946年 7月 「北朝鮮勞動黨」으로 改稱되었을때 副黨首의 地位에 오르게 되었다. 1948年 9月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창설과 더불어 金日成은 首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다음해 6月 「北朝鮮勞動黨」이 「南朝鮮勞動黨」과 합쳐서 「朝鮮勞動黨」이 창건되면서 金日成은 名實共に 最高의 지도자로 나타났다. 「南朝鮮勞動黨」은 남한에 殘留하던 共産主義者 및 기타 左翼分者들의 집합체였는데 이들을 1949年 初에 北韓으로 탈출하여 金日成의 밑으로 들어갔다.

北傀의 「朝鮮勞動黨」은 急速히 팽창하였다. 1946年 6月 「北朝鮮勞動黨」이 창설되었을 당시 黨員은 36萬6千名이었고 1948年 3月에 이르러 70萬名으로 늘어났다. 1952年 末에는 100萬이 되었다 한다. 1961年 8月 「朝鮮勞動黨」의 黨員은 候補黨員과 합쳐서 150萬에 가까웠으니 人口에 比한 黨원의 數는 다른 共産國家에 比하여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의 初期의 執權당시 北韓의 政權은 소련의 完全한 支配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動亂의 勃發과 더불어 中共軍이 진주하게 되자 金日成은 소련의 지배를 점차 배격하면서 國內의 政治的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金日成이 그 자신의 지도력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는 「스탈린」의 수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의 權力을 競爭의인 「그룹」(Group)과 나누어 행사하다가 그들의 利用가치가 소멸되면 黨에서 숙청하고 그 자신에게 忠誠이 強한 側近만을 기용하는 것이다. 金日成의 權力을 公고화 하기 위한 숙청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金日成은 韓國動亂 당시 소련의 영향력을 排除하기 위하여 새로이 加入한 黨원에게 反蘇 感情은 고취시켰다. 그것은 물론 소련이 韓國動亂에 적극적인 지원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지만 金日成의 이러한 造作의 背後에는 中共의 도움이 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北韓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소련 출신의 共産主義者들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다.

둘째로, 金日成은 韓國動亂 末期에 「南勞黨」출신의 共産主義者들을 대거 肅清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人物이 朴憲永이었다①

셋째로, 1958年 中共軍이 北韓에서 철수하자 金日成은 그의 對立세력이던 소위「延安派」(中國出身)의 지도자들과 親蘇共産主義者의 마지막 잔류를 숙청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세차레에 걸친 대 숙청으로 金日成은 反對勢力(혹은 잠재적인 경쟁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完全한 一人獨裁體制를 強化하였는데 이와 같은 金日成의 숙청은 「스탈린」의 그것과 방불한 것이다. 오늘날 北傀의 지도자들은 1945年 以前에 金日成과 같이 滿洲에서 활약하던 共産主義者들이며 1966年 10月 以後 北傀의 「노동黨 秘書局」의 「政治委員」은 예외없이 滿洲出身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그런데 金日成의 一人獨裁體制는 黨의 高위 간부는 물론 末端黨員에 이르기까지 綿延적인 不安狀態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것은 「스탈린」적 恐怖政治의 綿延적 산물인데 이와 같은 不安狀態와 공포 분위기를 除去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國土分斷이라는 政治的 條件을 강조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南北統一이 성취되기까지는 一般大衆은 물론 黨의 간부까지도 과중한 軍備負擔, 經濟節約 내지 각종의 통제를 참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自身의 一黨 독재를 통일을 위하여 참고

주 ① 朴憲永은 「國內派」 공산주의자의 종수격이었던 者로 金日成 밑에서 副首相 및 外相등의 要職을 맡았었다. 「國內派」의 대부분은 1953年 한국전쟁의 休職지후에 숙청되었으나 朴憲永은 1955年 12月에 처형되었다.

② 이들은 흔히 「金日成 게릴라派」라고 부른다.

統一을 위하여 힘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正當化 시키고 있다.

그러나 國土統一의 具體的 方案으로서 「民族解放 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라는 「南朝鮮革命論」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革命수행에 있어서 모든 共產主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暴力革命을 강조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은 「南朝鮮 人民자신의 투쟁」임을 내세우면서 北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것은 直接的인 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傀의 侵略挑發 行爲도 이러한 金日成의 戰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北傀가 1966年 10月 以後 軍事戰略의 4大原則(「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隊의 現代化」, 「군대의 幹部化」)을 계속 강조하면서 경제건설과 군사력의 배양에 온갖힘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武力侵略의 의사를 암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0年 11月 5次 勞動黨大會에서 軍事戰略 問題를 취급한 것도 武力 赤化統一의 政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그러던 北傀의 社會現實은 어떠한가?

첫째로, 北韓에서는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一切 인정되고 있지 않다. 모든 生産手段은 「協同化」라는 美名아래 勞動黨에 귀속되어 있다. 1953年 韓國動亂이 끝날 무렵 북괴의 經濟事情은 말할 수 없이 低調하였다. 工業施設은 거의 다 파괴되고 식량은 不足되고 消費材는 품귀했다. 그리하여 북괴의 일부 지도자들은 均衡된 經濟回復을 주장하면서 大衆의 긴급한 생활난을 해결하는 온건한 정책을 구상했다. 그러나 金日成을 포함한 黨의 과격파는 이와 같은 온건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大衆의 희생은 指導者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아래 대중의 「愛國의 犧牲」을 강요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戰爭에 의하여 파괴된 工業, 敎育, 文化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大衆의 勞動力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스탈린」의 方式의 工業化 政策을 채택하면서 輕工業과 農業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重工業에 重點을 두는 새로운 中央集權의 計劃경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1954年에서 1956年사이의 「三個年計劃」, 1957年에서 1961年사이의 「五個年計劃」, 1961年에서 1970年사이에 3個年延長의 「七個年計劃」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經濟計劃의 특징은 집중적인 資本投資는 重工業에 두고 輕工業과 農業에는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大衆의 생활수준은 生存만을 위한 최저의 그것에 머물렀던 것이다. 消費材의 生産은 1958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되었으며 農民들도 그들의 農産物의 극히 一部分을 소비하도록 統制되었던 것이다. 農業의 集團化는 工業投資를 위한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였지만 農民들에게는 工業資本의 증대를 위한 強制貯蓄이 강요되었다. 농업合作社를 통한 農業의 集團化는 1958年에 이르러 北韓의 全地域에서 완수되었는데 이로서 生産手段의 私有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로, 北韓의 人民들은 이러한 集團主義 體制에 묶여 있음으로 職業의 選擇, 女子敎育, 居住地 移轉의 自由가 없으며 個人의 自由는 各種의 組織에 의하여 統制되고 있다. 말하자면 人民들의 基

주 ③ 5次 노동당대회에서 「秘書局」 政治委員會 正委員 11名中 3名이 大韓民國사정에 정통한 者라는 사실을 주목할 必要가 있다. 첫째는 吳振宇란者도 현재 「北傀軍總參謀長」, 둘째는 徐哲로 이는 「海外工作費」, 셋째는 金仲麟으로 「對南工作總費」이다. 이러한 者들이 權力의 核에 加擔한 것은 그들의 對南工作의 方向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本權의 거의 全部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社會인 것이다. 所謂 北傀의 憲法에 의하면 人民의 基本權은 形式的으로 規定되어 있지만 北傀가 말하는 人民이란 階級的이고 排他的 意味內容을 지닌 것으로서 黨의 命令에 忠실한 共產主義者라고 할지라도 일단 黨의 領導의 地位로부터 추출되면 人民의 敵으로 낙인을 찍히게 된다. 하물며 政治적으로 무력한 大衆의 基本權은 말할 것도 없다.

세째로, 北韓社會는 不平等한 分배로 이루어진 階級社會이다. 「各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分配하는」 共產主義의 分配方式이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衣·食·住를 비롯한 생활의 모든 面에서 隔差가 顯著한 階級社會인 것이다. 이러한 階級社會도 「프롤레타리아」와 農民들의 優位가 認定되는 社會가 아니라 勞動黨 기타 政治權力機關에 從事하는 支配階級만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말하자면 少數 共產黨指導層을 위한 階級社會인 것이다.

네째로, 다른 共產主義 國家와 마찬가지로 北韓의 共產黨은 政治·經濟·社會·教育·文化·藝術의 모든 面을 嚴格히 統制하고 있으며, 行政, 司法, 檢察, 軍事保安에 이르는 모든 國家機關은 물론 最高 主權機關이라는 「最高人民會議」까지도 黨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黨에게 責任을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社會의 모든 制度, 生活樣式, 人間關係까지 黨의 組織에 의하여 調整되며 造作되는 閉鎖 社會이며, 黨 이외의 어떠한 集團의 自律性도 認定되지 아니하는 完全한 一元社會인 것이다.

다섯째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武力統一政策을 위하여 北傀는 戰爭準備와 戰時體制를 維持하고 언제나 全國民을 動員할 수 있는 強制組織의 社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北傀를 軍事組織的인 社會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특징은 말 할것도 없이 完全統制와 完全動員인 것이다.

여섯째로, 北韓社會는 金日成의 偶像化의 맹목적인 迷信이 強要되는 社會이다. 그 社會는 強制力에 基礎를 둔, 다시 말하면 政治的 權力的 正當性이 缺如된 社會이기 때문에 金日成의 個人숭배가 정당성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한 欺瞞手段으로 선전되고 注入式的 教育이 強要되는 社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金日成의 思想을 「唯一思想」이라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普遍的 진리를 北韓사회에 맞게 適應시킨 獨創의 思想임을 강조하고 있다.

- 1) William J. Miller, *The Meaning of Communism* (Morristown, N.J.: Silver Burdett Co., 1963) p.134.
- 2) William Ebenstein, *Today's Isms* (Six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0), pp. 89—90.
- 3) Milovan Djilas *The Unperfect Society: Beyond the New Clas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9).
- 4)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Tactics goals, and Achievement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5), pp. 115—116.
- 5) *Ibid.*, pp.120—123.

參 考 文 獻

- (1) 徐南源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刊, 1966.
- (2)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 (3) 金俊燁, 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二卷, 서울: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1969.
- (4)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서울: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 (5) 朴東雲, 「北韓統治機構論」. 서울: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1964.
- (6) 金相浹, 「毛澤東思想」
- (7) Paige, Glenn D. "North Korea and the Emulation of Russian and Chinese Behavior," in A. Doak Barnett

- (ed.). *Communist Strategies in Asia* (New York: Praeger, 1963), pp. 228—261.
- (8) Rudolph, Philip. *Nor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9.
- (9) Scalapino, Robert A. (ed.). *North Korea Today*. New York: Praeger, 1963.
- (10)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11)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12) Whiting, Allen &. *China's Political System*. 2nd revise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0.
- (13) Dallin, D.G. *The Changing World of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6.
- (14) Kulski, W.W. *The Soviet Regime*. rev,ed.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59.
- (15) Schapiro, Leonard.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66.
- (16) Schapiro, Leonar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 (17) Brumberg, Abraham (ed). *Russia Under Khrushchev: An Anthology*. New York: Praeger. pp.223—262 and 539—553.
- (18) Inkeles, Alex, and Baver, Raymond. *The Soviet Citizen: Daily Life in a Totalitarian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19) Djilas, Milovan. *The Unperfect Society: Beyond the New Clas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9.
- (20) Fisher, George. *Soviet System and Modern Society*. New York: Atherton, 1968.
- (21) Schwarz, Harry. *Prague's 200 Days: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Czechoslovakia*. New York: Praeger, 1968.
- (22) Brzezinski, Zbigniew K. *The Permanent Purge: Politics in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23) Gurian, Waldeman. *Bolshevism: An Introduction to Soviet Communism*. South Bend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52.
- (24) Kelsen, Hans. *The Political Theory of Bolshevism: A Critical Stu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8.
- (25) Shub, David. *Lenin*.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48.
- (26) Fisher, Louis. *The Life of Lenin*. New York Harper, 1964.
- (27) Trotsky, Leon. *The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Translated by Max Eastman. 3vol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28) Wolfe, Bertram D. *Three Who made a Revolution: A Biographical History*, 4th ed. revised. New York: Dial Press, 1964.
- (29) Brumberg, Abraham (ed). *Russia Under Khrushchev*. New York: Praeger, 1963.
- (30) Deutscher, Isaac.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9.
- (31) Moore, Barrington Jr. *Soviet Politics—The Dilemma of Power: The Role of Ideas in Social Chan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32) Trotsky, Leon. *Stalin: An Appraisal of the Man and His Influence*.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6.
- (33) Wolfe, Bertram D. *Khrushchev and Stalins Ghost*. New York: Praeger, 1957.
- (34) Scalapino, Robert A.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5, pp. 1—81.
- (35) Johnson, Chalmers A.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1945*.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2.
- (36) Lewis, John W.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 (37) Lewis, John W. *Major Doctrines of Communist China*. New York: W.W. Norton and Co, 1964.
- (38) London, Kurt (ed). *Unity and Contradiction: Major Aspects of Sino-Soviet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62.
- (39) Mac Farguhar, Roderick. *The Hundred Flowers Campaign and the Chinese Intellectuals*.
- (40) Mu, Fu-sheng. *The Wiling of the Hundred Flowers: The Chinese Intelligentsia Under Mao*. New

- York: Praeger, 1962.
- (41) Schram, Stuart.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2nd ed. revised. New York: Praeger, 1969.
- (42) Schram, Stuart. *Mao Tse-tung*.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6.
- (43) Snow, Edgar. *The Other Side of the River*.
- (44) Zagoria, Donald S.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2.
- (45) Schwartz, Benjamin.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1.
- (46) Cohen, Arthur A.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47) Brandt, Conrad, Benjamin Schwartz, and John K. Fairbank.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New York: Atheneum, 1966.
- (48) Brandt, Conrad. *Stalin's Failure i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 (49) Ch'en, Jerome. *Mao and the Chinese Revolu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50) Chiang, Kai-shek. *Soviet Russia in China*.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7.
- (51)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2nd enlarge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52) Schurmann, Franz, and Schell, Orville. *The China Reader*. Vol. II: *Republican China*. Vol. III: *Communist China*. New York: Vintage Books, 1967.
- (53) Ebenstein, William. *Today's Isms*. 6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Chap. I.
- (54) Hunt, R. N. Carew.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Fifth ed. revised. London: Pelican Books, 1963. New York: Macmillan, 1960. 3rd ed. revised. New York: Random House, 1964.
- (55) Gyorgy, Andrew, and Blackwoods, George D. *Ideologies in World Affairs*. Waltham, Mass. Blaisdell Publishing Co. 1967. Chapters 3, 4.
- (56) Gyorgy, Andrew. *Communism in Perspective*. Boston: Allyn & Bacon, 1964.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57) Durkheim, Emil. *Socialism and Saint-Simon*. Yellow Springs, Ohio: Antioch Press, 1958.
- (58) Lipson, Leslie. *The Democratic Civi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59) Owen, Robert. *A New View of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48.
- (60) Rostow, W.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61)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1962.
- (62) Mayo Henry B. *Introduction to Marxist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29—62.
- (63) Feuer, Lewis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 Doubleday Anchor, 1959.
- (64) Hook, Sidney. *Reason, Social Myth and Dialectic*. New York: Humanities Press, 1940.
- (65) Marcuse, Herbert. *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 (66) Plamenatz, John. *German Marxism and Russian Communism*. London and New York:
- (67) Tucker, Robert C.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1.
- (68) Daniels, Robert V.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2 vols. New York: Vintage Books, 1962.
- (69) Ulam, Adams B. *The Unfinished Revolution: An Essay on the Sources of Influence of Marxism and Communism*. New York: Random House, 1960.
- (70) Wolfe, Bertram D. *Marxism: 100 years in the Life of a Doctrine*. New York: The Dial Press, 1965.
- (71) Cohen, Carl (ed.). *Communism, Fascism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 (72) Beer, M. *The General History of Socialism and Social Struggle*. 2 vols.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7.
- (73) Hook, Sidney. *Marx and Marxist*. Princeton: Van Nostrand, 1955.
- (74) Papper, Karl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3rd ed. 2 vols. London: Routledge and Paul Kegan, 1957.
- (75) Talmon, J. L. *The Rise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Praeger, 1960.
- (76) Wilson, Edmund. *To the Finland Station*.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3.

- (77)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emocracy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1961.
- (78)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 (79) Almond, Gabriel A. *The Appeals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4.
- (80) Aron, Raymond.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London: Secker and Warburg, 1957.
- (81)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57.
- (82) Ebenstein, William. *Totalitarianism: New Perspectives*. New York: Holt, and Winston, 1962.
- (83) Friedrich, Carl J. (ed.).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84) Nettl, John. P. *Rosa Luxemburg*. 2vols.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85) Luxemburg, Rosa.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64.
- (86) Kautsky, Karl.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4.
- (87) Barnett, A. Doak. *Communist China and Asia*.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60. pp. 1-37 and 65-86
- (88) Tang, Peter S.H. *Communist China Today*. 2nd ed. Vol. I Washington: Research Institute on the Sino-Soviet Bloc, 1961. pp. 71-123. 1967.

IV. 北 韓 實 情

第1章 政治·外交

第2章 經 濟

第3章 社 會

第4章 軍 事

第1章 政治·外交

1. 立法機關

北傀 憲法은 「最高 人民會議」을 「最高 主權 機關」이라고 規定하고, 「最高 人民會議」을 構成하는 「代議員」은 “모든 代議 機關은 「里 人民會議」로 부터 「最高 人民會議」에 이르기까지 人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選舉된다”는 北傀 憲法 第3條에 依據하여 「一般·平等·直接·秘密 選舉」에 의해서 選出된다고 하며, 그들의 任期는 4年이다.

그러나 任期中에 「代議員」이 死亡했다 하더라도 補選 制度에 依한 補充 制度는 없다.

贊·反의 如否가 即刻 드러나는 公開 投票와 다른 없는 投票 方式과 共產黨이 任命하는 것이나 다른 없는 單一 候補制에 의한 選舉 制度는 自由民主主義의 그것과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으며, 制限·差等·公開 選舉라고 밖에 볼 수 없다.

「最高 人民會議」의 活動上의 特徵은 立法府로서의 3大 權限 即 立法權, 豫算 審議權, 國政 監查權 中에서 다만 立法權과 豫算 審議權만 形式的으로 行使할 수 있고, 國政 監查權은 갖지 못한다.

이것은 黨 「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와 「內閣」의 「國家 檢閱省」과 그 隸下 機關만이 갖는다.

法案의 審議와 採擇도 黨의 路線과 指令에 따라 左右되며, 소련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單純多數의 公開 投票로써 法案의 採擇이 決定되는 議事 規定에서 黨의 指導를 確實하게 保障한다.

다시 말하면, 舉手로써 公開的으로 法令을 採擇하는 「最高 人民會議」은 어디까지나 黨의 指導와 監督을 받는 補助 機構에 不遇하며, 그 立法 機能의 民主的 主權性의 如否에 關해서는 論及의 餘地 조차 없다.

이와 같이 公開的으로 採擇된 法令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武器로서 階級의 敵을 鎮壓하고, 人民大衆을 社會主義 建設에로 組織 動員하여 勞動黨 周圍에 全 勤勞大衆을 굳게 集結시켜, 他們을 敎育시키는 데 커다란 創造的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

2. 行政機關

北傀 行政 體系의 中央集權體는 「內閣」이고, 道 單位 以下の 執行 機關은 各級 「人民委員會」이다.

「內閣」은 「最高 人民會議」 및 「常任委員會」에 對해서만 責任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에 從屬되어 있다.

「最高 人民會議」의 主要 業務는 「內閣」의 活動 報告를 接受하고 이에 대한 支持와 喝采를 보내거나 또는 立法 形式으로 이를 合理化하는 것이다.

北傀 憲法 第55條에 依하면 「內閣」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① 對外 關係의 全般的 指導 및 外國과의 條約 締結
- ② 對外 貿易의 管理
- ③ 地方 主權機關의 指導
- ④ 貨幣 및 信用 制度의 組織

- ⑤ 豫算의 編成 및 國家豫算과 地方豫算에 들어오는 租稅와 收入 編成
- ⑥ 國有産業, 商業機關, 農村, 經濟機關 및 運輸·遞信機關의 指導
- ⑦ 社會 秩序의 維持, 國家의 利益 保護 및 公民의 權利 保障에 關한 對策의 樹立
- ⑧ 土地·資源·山林 및 河海의 利用에 關한 基本原則의 樹立
- ⑨ 敎育·文化·科學·藝術 및 保健에 關한 指導
- ⑩ 人民의 經濟 및 文化生活 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한 政治的·經濟的·社會的 對策의 樹立
- ⑪ 「人民軍」 編成에 關한 指導와 高級 將官의 任免
- ⑫ 副相, 主要 産業機關의 責任者 및 大學總長의 任免 等이다.

「內閣」은 憲法上 最高 執行機關인 따름이지만 人民代表 機構에서 制定한 法令과 改令, 그리고 經濟計劃 및 豫算 等이 「內閣」의 施策이나 業績과 단 한번도 「最高 人民會議」에서 異議에 逢着한 事例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內閣」은 「最高 人民會議」에 대하여 優位에 있음이 分明하다.

3. 司法機關

北傀 憲法 第83條에는 「裁判所는 選舉에 의해서 이것을 構成한다」라고 規定되어 있으며, 「最高 裁判所」 判事는 「最高 人民會議」에서, 道·市·郡 裁判所 判事는 各已 該當 「人民委員會」에서 選舉하는 것이다.

그러나 共產主義 社會에 있어서 「人民會議」의 代議員은 모두가 共產主義 狂信者이기 때문에, 이들이 選出하는 判事나 參審員도 熱誠인 共產主義者가 아닐 수 없다.

北韓에서 判事나 參審員이 될 수 있는 사람은 熱烈한 共產主義者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裁判所란 “共產政策의 敵에 대한 끊임없는 革命的 警戒心を 勤勞者에게 注入시키고 社會主義的 合法性, 生活의 規則性을 違反하지 못하도록 人民에게 가르치는 것”을 使命으로 하기 때문에, 法律에 關한 專門의 知識이나 素養보다도 共產主義的 黨性和 忠誠心이 裁判所의 構成員으로서의 必須的 要件이 되기 때문이다.

北傀의 司法機構는 事業의 運用 및 幹部 要員의 人選 等 모든 면에서 黨과 「內閣」에 隸屬되어, 北傀 憲法 第6章이 規定한 裁判 및 檢察業務의 獨立이란 口號에 不過하다.

4. 外 交

北傀 憲法 第37條에는 “國內·國外政策에 關한 基本原則의 樹立은 「最高 人民會議」의 權限에 屬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며, 第49條에서는 「最高 人民會議 常任委員會」가 外交 分野에서 擔當하여야 할 任務를 規定하고 있다. 即

- ① 外國과의 條約의 批准 및 廢棄
- ②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나 公使의 任命·召喚
- ③ 外國使節의 信任狀 接受 等이다.

그러나 오늘 날까지 「最高 人民會議」가 外交政策 樹立에 있어 「最高 政策決定 機關」으로서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한 例는 한번도 없었다.

「最高人民會議」는單純히「內閣」에서提出한外交政策에拍手로써滿場一致의贊成을表示하거나이를追認하는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外交政策도 다른政策과 마찬가지로黨에서決定되는 것이며,「黨政治委員會」가外交政策決定의最高機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黨에서決定된外交政策은 곧「內閣」으로示達되어實施에 옮겨진다.

따라서北傀外交의實際業務는「內閣首相」이管掌하게 되어있다.

「內閣」의首相은黨의最高責任者인「總秘書」이며黨「政治委員會」責任者인金日成이兼任하고 있으므로,事實은政策의樹立과執行이 처음부터一人獨拔로서一貫한다고 보는 것이妥當하다.

5. 黨(勞動黨)

憲法上으로는北傀의最高主權機關은「最高人民會議」이며, 그것은立法代議機關으로서最高權力을行使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의實際機能은黨이行使할 뿐,「最高人民會議」는勞動黨의諸般決定이나意思를事後承認 또는公告宣傳하는데 그치고 있다.

條文上으로는立法·行政·司法機關을分立시키고 있으나, 모든實權은法規의最終解釋者이며政策의決定者이자 그執行의監督者인勞動黨, 더具體적으로는「勞動黨中央委員會 政治委員會」와「秘書局」이掌握한다.

따라서北傀의最高立法機關은事實上黨(勞動黨)이라고 보아야 한다.

「스탈린」은“오직「프롤레타리아트」의黨,共產主義者들의黨만이「프롤레타리아」獨裁體制 안에서基本的인指導者의役割을遂行할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例컨데「프롤레타리아」獨裁의나라인우리소련에서黨의指導의役割의最高的表現으로認定하여야 할 것은어떠한重要的政治的 또는組織的의問題도,黨의指導의指示가 없이는「소비에트」와 그 밖의大衆團體들이決定하지 못한다는事實이다. 이러한意味에서「프롤레타리아트」의獨裁란基本的인指導的力量으로서의黨의獨裁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黨이共產主義國家나政府의主力이며, 모든 것의推進力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共產黨의基本的인指導的役割과權力核心體로서의機能論을北傀도 그대로導入適用하고 있음이分明하다.

金日成은 말하기를“우리黨은勞動階級과其他勤勞人民을領導하여社會主義와共產主義를建設하는戰鬪的組織입니다. 또는우리黨은朝鮮에서階級鬪爭과革命을領導하는唯一한黨입니다.「프롤레타리아」獨裁는社會主義革命에敵對되는一切의反革命的要素를徹底히鎮壓하며,勤勞人民의利益과革命의利益을擁護하는勞動階級の強力한武器입니다”라고 하였다.

金日成의 이와 같은 말은勞動黨規約에도明示되었다.

이러한規定에 따라,勞動黨과金日成은‘空虛한制度’에不遇한「最高人民會議」를 만들었고,「內閣」과「最高裁判所」를配置·運用하고 있으며, 다시「職業總同盟」,「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社勞育), 「農業 勤勞者同盟」·「文學·藝術 總同盟」等等 70餘個의 外廓團體를 組織하여 黨의 傳導 帶로서 黨의 政策路線을 北韓 同胞들로 하여금 實踐케 하고있다.

그러면 果然 어떤 사람들이 어떤 組織을 通하여 이처럼 「어떠한 法律에도 拘束되지 않는 權力」을 黨의 이름으로 行使하고 있는가?

勞動黨 規約에 依하면 黨의 最高 機關은 4年 또는 그 以上の 時日을 두고 열리는 黨 大會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形式論이고, 實質的으로는 黨 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委員會」이다.

그러나 黨 「中央委員會」도 規約上 每 6個月에 한번씩 召集하기로 되어 있고, 黨 「中央委員會 總會」(全員會議)의 休會期間 中에는 「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이 黨의 모든 事業을 代行한다.

5次 黨 大會 以後에 構成된 黨 「政治委員會」는 金日成을 비롯한 最高 幹部級 7名의 委員과 4名의 候補委員으로 되어 있다.

「秘書局」은 「政治委員會」에서 決定된 政策을 黨 및 社會團體 機構를 通해 執行하는 곳이다.

黨內에서의 金日成의 職責은 이 「秘書局」의 이른바 「總秘書」인데, 그것은 소련共産黨의 第1書記나 中共의 黨 主席에 該當하며 過去에는 「黨 中央委員會 委員長」이라고 했었다.

「秘書局」은 5次 黨大會에서 「總秘書」 外에 各部門을 擔當하는 秘書 9名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中 金日成의 實弟, 金英柱는 政治委員 兼 組織擔當 秘書이다.

各部門 擔當 秘書 9名은 全員이 「政治委員會」 委員 또는 候補委員이며, 金英柱가 擔當한 組織秘書는 人事行政權까지 가진다.

이와 같이 北傀의 權力構造는 制度上으로는 「最高 人民會議」가 形式上 「內閣」을 組織하여, 「最高 裁判所」의 判事들을 選舉하고, 「檢察總長」을 任命함으로써 「最高 主權機關」으로 三權 分立制를 排除하고, 行政府와 司法府에 該當하는 「內閣」과 「最高 裁判所」 그리고 「最高 檢察所」까지 統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 領導下에 三權이 黨 中央機關에 集中되어 있으며, 內外 政策의 全般이 이의 頂上部를 構成하는 金日成 以下 10名 內外의 小集團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이다.

「레닌」은 “議會 制度가 없이 民主主義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勞動者의 票를 모으기 爲한 選舉 用語로서가 아니라면 議會制度 없는 民主主義를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였다.

「레닌」이 構想한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爲한 統治 機構는 첫째, 國家 權力의 組織原理로서의 議會主義의 止揚, 둘째, 國民的 統一의 組織 原理로서의 中央集權制라는 두 가지 基本的 原理에 立脚한 것인데, 그는 이러한 原理를 소련의 「소비에트」 體制에 現實적으로 適用시켰던 것이다.

東 구라과 共産國家를 비롯하여 中共의 統治機構도 이러한 두 가지 基本 原理를 適用하고 있으며, 北傀의 경우에도 例外일 수가 없다.

어느 共産國家와 마찬가지로 北傀에서도 黨은 超憲法的인 機構이며, 「黨은 即 國家」로 되어 있다.

第2章 經 濟

1. 經濟制度

北傀의 經濟制度는 다음의 두 가지 特徵을 가진다. 卽

첫째로, 生産手段의 公有 및 共有에 立脚하여 모든 勤勞者들은 黨의 意思에 따라 共同勞力에 의한 共同分配의 原則으로 經濟活動과 社會生活에 捲리어 들어간다는 것.

둘째로, 北傀 經濟(生産量·品種·價格·勞動力의 需給·信用制度 其他)는 中央 計劃機構에서 樹立한 生産計劃과 指示에 따라 運營 및 分配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소련에서는 1917年 革命을 成就한 直後 곧 主要 產業과 土地를 國有化했거니와, 金日成 一黨도 解放 直後 부터 主要 產業의 國有化와 土地改革을 主張했는데, 1946年 3月 23日 金日成은 이른바 「20個條 政綱」을 發表한 가운데서 그 第9項에서는 工場·運輸機關·銀行·鑛山·山林은 國有化하고, 第11項에서는 無償沒收, 無償分配의 原則下에 土地改革을 實施하여 灌溉施設은 國家가 管理 할 것을 主張하였다.

金日成 一派는 소련 進駐軍을 背景으로 이른바 「政綱」의 實踐에 着手하였다.

「4大 民主改革」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4大 民主改革」 가운데서 私有財產制 撤廢라는 「마르크스」의 理念을 具現시키고자 한 措置는 「土地 改革令」과 「重要 產業 國有化令」이다.

그리고 終局的으로 「마르크스」의 生産手段의 社會化 理念을 實現시킨 것은 1958年 8月の 이른바 「社會主義 經濟形態의 完成」이라는 것이다.

1946年 3月 5日字로 發表된 「土地 改革令」은 土地를 無償沒收하여 無償分配함으로써 政治的으로 는 農村地域에서 地主를 逐出 破産시켜 그의 影響力을 除去하고 共產黨의 政治基盤을 이 地域에 構築하는 한편, 經濟的으로는 封建的인 小作制度를 打破하고 小生産者的인 農業을 장차 集團化·企業化하기 爲한 것이었다.

「土地改革」으로 北傀는 100萬餘 町步를 沒收하여, 그 중 98萬餘 町步를 72萬餘 農戶에 分配했다고 한다.

1946年 8月 10日字로 北傀는 產業·運輸·遞信機關들을 國有化한다는 法令을 發表했다.

그것이 卽 「產業·交通·運輸·遞信·銀行 等の 國有化에 關한 法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產業部門을 社會化 함으로써 이번에는 都市에 있는 모든 資本家들을 破産시키고, 그들의 社會的 影響力을 除去하는 同時에 勞動者 事務員들 속에 共產黨의 政治的 基盤을 構築함으로써 同年 6月 24日字로 發布한 「勞動法令」의 實效性을 政治 및 經濟的인 側面에서 補完하여, 나아가서는 장차 計劃經濟를 實施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北傀에 있는 產業 施設의 90% 以上과 地下·水力 및 山林 資源의 全部가 國有化 되고, 最大限 10餘名의 從業員이 일하는 中·小規模의 精米所·製材所·製粉所·木工所·鐵工所 各

은 것만이 個人 經營으로 남게 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던 중 北傀는 1947年 12月 6日 갑자기 貨幣改革을 斷行하였다.

貨幣改革에 對한 北傀의 公式的인 宣傳은

첫째, 發券銀行이 北韓에 없기 때문에 經濟에 對한 金融面에서의 計劃과 統制가 不可能하므로 이것을 하기 爲한 것이고,

둘째, 南韓으로 부터 流入되는 紙幣로 말미암은 戰略物資의 逃避와 「인프레」를 防止함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單獨으로 한 貨幣改革의 理由중 몇 분지¹ 밖에 되지 않고, 이보다 더 큰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였음은 公開된 秘密이다.

첫째, 38線을 통한 南北間의 往來를 經濟的인 面에서도 遮斷함으로써 38線을 境界로 하여 두 個의 韓國으로 分割하는 同時에, 北韓 同胞들을 鐵의 帳幕속에 가두기 爲한 것이며,

둘째, 소련 占領軍이 發行한 軍票를 回收함으로써 그들의 掠奪 痕蹟을 없애버리는 것이며,

셋째, 都市와 農村의 大商人, 高利貸金業者, 現金 所持者들을 破産시키고 共產黨의 勢力基盤을 強化하기 爲한 것이며,

넷째, 無償으로 回收 掠奪한 「朝鮮銀行卷」을 南勞黨에 大量 提供함으로써 그들의 破壞 活動을 側面에서 支援하기 爲한 것이었다.

이 貨幣政策을 契機로 北傀는 1948년부터 本格的으로 計劃經濟를 實施하는 한편, 總生産額의 10%도 못되는 中小企業가와 其他 個人商人의 活動을 漸次 抑壓하고 抹殺하여 共產主義 理念을 實現코자 하였다.

6.25 事變의 挑發과 그 因果로 破綻된 經濟狀態는 金日成 一黨에게 아직 얼마간 남아있는 個人 商工業者와 零落한 大部分의 農民들의 私의 經濟活動을 攻擊하고 撲滅시키는 絶好의 機會를 주었다.

金日成은 休戰 直後에 “漸次 個人 農民 經理를 協同化해야 한다”고 하면서 農業을 集團化할 方針을 明白히 밝혔던 것이다.

果然 北傀는 1954年 겨울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 惡名 높은 「食糧革命」으로 모든 農民을 破産시켜 零落시킨 다음 協同農場 組織에 着手하였고, 個人 商工業者들에 對한 壓迫을 加重했다.

이러한 壓迫은 反 金日成 「쿠데타」 陰謀事件(反黨 宗派 事件——延安派 事件)에 뒤이은 恐怖의 「中央黨 集中指導制」라는 肅清運動과 併行하여 더욱 加重되었다.

이리하여 1957年 末頃에 이르러서는 一部 大都市를 除外하고 地方의 小都市에서는 1個 郡에 10名 內外의 行商人이 남았을 뿐, 其他의 商工人들은 거의 轉職하였는데, 아직 都市에 一部 남아있는 마지막 商人들을 없애기 爲하여 簡單한 行政的 措置를 取했다.

即 北傀는 1957年 10月 30日字 所謂 「內閣 決定」 第104號로써 「個人 商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促進」시키기 爲해 1958年 1月 1日 以後 個人의 商行爲를 一切 禁止함으로써, 여기에 個人商業을 完全히 抹殺했던 것이다.

北傀는 1958年 8月末을 期하여 所謂「社會主義 經理形態」가 完成되었다고 宣言했다.

이것은 生産手段에 對한 私有制 撤廢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것은 中共에서 1958年 5월에 始作된 所謂「社會主義 總路線」이나 「大躍進運動」과 같은 것으로 評價되는데, 여하튼 이 「社會主義 經理形態」로 말미암아 다음의 세 가지 事實이 實現된 것만은 틀림없다. 卽

첫째, 政治的으로 볼 때 「友黨」을 없애고 勞動黨 一黨 獨裁 體制를 完成했다는 것과,

둘째, 經濟的으로는 生産手段의 私有制와 個人的 商業活動이 廢止되었다는 것,

셋째, 社會的으로는 所謂 共產主義的 生活樣式이 確立되어 모든 人間은 自由를 剝奪 當하고 「生産하는 動物」로 되었다는 것이다.

2. 經濟政策

北傀는 經濟 發展과 그 成果가 미치는 優先 順位를

첫째가, 重工業 發展이고

둘째가, 輕工業과 農業의 同時 發展이며

셋째가, 이러한 產業의 發展 結果로서 住民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것으로 그 차례를 決定하였다. 事實 北傀는 이 順位대로 經濟政策을 實施했고, 또 여기로부터 몇 가지 特徵的인 經濟政策이 實施되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北傀가 重工業 發展에만 置重하고 輕工業이나 農業은 比較的 소홀히 한다는 것은 「人民經濟 7個年 計劃」에 대한 最初의 基本建設 投資計劃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北傀는 7個年 計劃 期間中에 70億원을 投資키로 하되, 그 중 生産的 建設에 81%, 非生産的 建設에 19%를 各各 投下키로 하였다.

그런데 生産的 建設投資 가운데서 重工業 部門에는 무려 54%를 投資하고, 反面에 輕工業에는 18%, 農業에는 15% 그리고 運輸·遞信 部門에는 12%를 겨우 投下키로 한 것이다.

輕工業과 農業 部門에 對한 投資額을 합쳐도 重工業 部門 投資額의 겨우 절반을 좀 넘을 形便이었다는 것은 重工業 置重을 端的으로 表示하고 있다.

그런데 北傀가 1970年 11월에 公式發表한 바에 의하면, 3년간 延長 實現된 7個年 計劃의 基本建設 投資額은 모두 約 87億 6,500萬원인데, 그 중 輕工業과 農業의 投資額을 합쳐도 重工業 投資額의 48.3%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北傀가 侵略政策의 追求로서 1961年 부터 1969年 사이에 投下했다는 軍事建設費 80億원과 對比하면 不過 34.4%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北傀는 休戰 直後부터 重工業, 그 중에서도 機械製作工業 發展에 크게 注力해 왔다.

北傀는 「5個年 計劃」 過程에서 첫째는 無色 金屬工業, 둘째는 動力資源, 셋째는 化學工業, 넷째는 鑛業과 有色金屬을 發展시켜야 하며, 다섯째는 建材工業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 모든 것을 發展시키는 것을 結局 經濟 各部門의 發展을 爲하여 「機械工業」을 가장 重要하게 發展시키는데 歸結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機械工業 發展에 最優先權을 賦與해야 한다는 것을 明白히 했다.

北傀는 機械製作工業 發展에 優先權을 주었지만, 問題는 어떤 部門의 機械製作을 發展시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即, 平和産業이나 兵器工業 部門이나 하는 問題이다.

北傀는 GNP나 工業 總生産額 乃至 機械製作工業에서 軍需品 生産이 차지하는 比率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正確하게 發表하지는 않았지만 적지않은 部分을 차지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基本建設 總投資額이 87.6億원인데 대해 公式 發表된 軍事費 投下額만도 이와 거의 비슷한 80億원이라는 事實에 注目하게 되기 때문이다.

北傀가 이렇게 莫大한 軍事費를 地下洞窟이나 海岸 砲陣地의 施設 따위에만 投下한 것이 아니라 그런 部門의 投資額은 오히려 적고, 殆半의 資金이 軍需工場의 建設과 軍需品 生産에 投資되었으리라는 推測이 어렵지 않다.

만일 「降仙 製鋼所」가 大口徑 砲身製作의 第1次 加工을 하고 있는 것처럼, 一般 機械工場들이 附隨的으로 軍需品을 生産 또는 加工하기 爲해 投下한 施設費와 生産費까지 合한다면 軍事費는 北傀가 發表한 金額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 것은 疑心할 바 없다. 왜냐하면 이런 施設 및 生産費는 軍事費에 計上하지 않는 것을 北傀는 通例로 하기 때문이다.

北傀는 經濟狀態가 困難함에도 不拘하고 이미 6.25事變 전에 自體的으로 兵器工場을 創設 運營했으며, 6.25 期間中에도 軍需工場만은 建設 運營하여 1951年 여름부터는 各處의 地下에 機械工場을 設置하여 戰時 軍需品 生産의 保障은 물론 軍需産業 發展의 土臺를 마련했다.

軍需産業의 繼續的인 發展政策은 그 후에도 固守되었다. 특히 「四大 軍事路線」을 내놓으면서 軍事力 強化를 위해 「人民經濟 計劃에 支障을 주는 限이 있더라도 軍事力을 強化할 것」을 決意하고 人的 및 物的 資源의 많은 部門을 軍事建設과 軍需産業 發展에 돌렸다.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면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 政策을 追求하자면 必然的으로 最大限으로 資本을 蓄積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또한 最大限으로 消費를 抑制하고 極限的인 擴大再生産을 期해야 한다.

이러한 大規模 投資를 爲한 資本이 어디서 捻出되는 것인가를 알아보면

1953年 8월에 開催되었던 勞動黨 第6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資金確保策에 對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浪費와 좀쳐 먹는 現象과의 鬭爭

둘째, 輕工業 發展에 依한 利潤 增大

셋째, 商業을 통한 利潤 增大

넷째, 外貨의 獲得과 그의 節約 鬭爭

金日成이 이러한 資本 蓄積의 源泉論 乃至 方法論에서 意識的으로 言及치 않은 것은 農民 搾取를 통한 資本 蓄積 方法이다.

「밀르반·질라스」가 「共產主義者들은 一定한 經濟部門(主로 重工業 部門을 意味한다)에 集中 投資

를 하기 위해 그 資本을 資本家나 大地主로부터 奪取하여 國有化한 農場으로 부터의 所得만으로는 메꿀 수 없기 때문에 全的으로 低賃金을 주고 또 強制的인 農產物 收買制를 통해 農民들로부터 收奪한 것으로 매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指摘했듯이, 北傀도 바로 그렇게 하고있다.

이것은 北韓의 農民이 協同農場에 加入 當하여 共同努力에 의한 共同 分配原則으로 일한지 이미 10餘年이 經過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收入이 勞働者나 事務員 보다 훨씬 未達된 收入에서 人間 以下の 生活를 強要 當하고 있는 것으로도 證明된다.

3. 經營方式

資本의 社會的 蓄積이 黨과 權力機關에 集中된 北傀에서도 소련이나 其他 衛星國家들과 마찬가지로 唯一한 中央集權的인 計劃에 依하여 經濟가 運營된다.

即 社會的 生産 過程에서 傀儡 集團은 모든 生産과 消費를 結合시켜 그것을 計劃하고 統制한다.

달리 말하면' 北傀는 各 生産 單位에 對한 詳細한 課題의 指定과 所得의 分配 및 消費를 一元的으로 指導한다.

그들의 理論에 依하면, 이런 方式은 生産手段이 이른바 全人民의 및 協同的 所有로 되어있는 社會主義的 條件에서는 經濟的 計劃的, 均衡的 發展法則의 要求에 알맞는 것이며, 따라서 經濟의 急速한 發展과 人民 生活의 不斷한 向上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의 運營 方法과 이에 相應한 計劃化의 方式이 오늘과 같은 經濟的 社會的 發展과 複雜한 時代에서는 經濟的 均衡的이며 急速度的인 生産 成長을 保障하지 못하여, 生産과 需要間의 調和를 計劃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生産者와 行政機關 사이의 矛盾 對立을 解消시킬 수 없다는 事實이 이미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그리고 東구라과 諸國의 經濟 運營에서 露呈된 바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1948년부터 農業集團化의 中止와 外國 貿易을 包含한 雇傭者 5名 限度的 私企業體 運營의 許可, 그리고 西方側 接近에 의한 借款 및 無償 援助의 導入과 貿易擴大 政策으로써 窒息 狀態에 있던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의 活路를 찾았고, 소련은 「티베르만」의 學說을 받아들여 1965年 9月부터 資本主義的 經營方法인 利潤方式을 輕工業 部門에 適用함으로써 沈滯된 生産에 活力素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北傀는 「유고슬라비아」나 소련의 經濟 運營方式을 「修正主義」라고 排擊하고 있다.

金日成이 소련이나 東구라과 諸國과 마찬가지로 經濟의 自由化나 資本主義的인 經營方式을 沈滯된 北韓의 經濟 運營에 導入하고 適用하는데 反對한 것은, 그것이 나빠서라기 보다 이것을 導入함으로써 北韓에 政治的 自由化 運動을 誘發시키는 契機를 만들어 주어, 從局的으로는 金日成과 共產黨의 獨裁制度를 打到케 할 것이라는 憂慮 때문에 그것을 禁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리하여 1959年 以來 舊態依然하게 이른바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 「靑山里 方法」, 「大安事業 體係」나 「千里馬 運動」 따위만을 찾으면서 企業 管理 運營에 별로 進展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些少한 部門에 대한 것까지도 中央集權主義的으로 計劃化하는 制度的 矛盾에서 露呈된 한 가지

實例는, 「호루시초프」가 1959年 美國 大統領의 招請으로 訪美하여 「볼펜」의 有用性·簡便性을 痛感하고 歸國後 그의 直時 生産과 補給을 命命한에서 찾게 된다.

「호루시초프」는 自己가 「볼펜」 生産을 命命한 後 늦어도 1個月 以內에 大量生産될 것으로 期待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오기 까지에는 1年이라는 긴 時間이 所要되었다.

왜나하면 關係機關(經濟省과 財政省 및 工場이 세워질 地方의 機關)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複雜한 計劃 및 協調 節次를 長時間에 걸쳐서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北傀에서는 소련에서의 「볼펜」 生産의 實例 보다 더 典型的인 實例가 많다는 것이, 모든 會議에서 金日成 自身이 部下들을 꾸짖고 있는에서 暴露되고 있다.

第3章 社 會

1. 教育體系

「레닌」은 “學校 分野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資本家 階級을 打到하기 爲한 鬪爭과 다를 것이 없다. 生活에서 遊離된 學校란 虛僞이고 僞善이라고 우리들은 公公然히 聲明한다.

모든 學校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講義의 「이데올로기」的 政治的 方向이다. 教育은 「이데올로기」의 教育과 政治가 不可分의으로 統合하여 「이데올로기」的 原理가 教師로 하여금 社會主義 社會의 要求에 適應시킬 수 있는 教育을 實施하도록 義務를 지게하는 것이다.”라고 教育의 政治性을 主張한 바 있다.

이러한 말들은 共產主義者들의 教育觀 乃至 教育目的을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即 共產主義者들은 어디까지나 「共產主義의 役軍을 大量生産」하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教育目的의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또 教育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鬪爭의 手段의 하나로 規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所謂 社會主義 國家 建設을 위한 勞動과 學習의 結合이라는 이름 아래 靑少年들의 勞動力에 重大한 關心을 돌리고 있다.

北傀는 靑少年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붉은 思想」으로 武裝시키는 것이 教育의 第1義的 目的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 黨과 人民은 自己의 未來, 自己의 希望인 後代들을 多方面으로 發展된 社會主義- 共產主義의 建設者로 教育·教養할 榮耀로운 事業을 人民敎員들에게 委任하고 있다. 黨은 우리 敎員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붉은 思想으로 武裝시키며, 「부르쥬아」 反動思想에 對한 非妥協的인 精神으로 教養하고 있으며, 黨의 思想으로 武裝하고 黨의 목소리로써 靑少年들을 「붉은 戰士」로 育成하는 것이 敎員들의 第1義的 任務다. 敎員들이란 單純한 知識의 傳達者가 아니라 共產主義 思想의 普及者이며, 文化·教育事業과 社會·政治事業을 꾸준히 遂行하는 政治 活動家인 우리 黨의 붉은 宣傳員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에서 學生이나 一般 市民이 받는 教育이란 共產主義의 從僕으로서 具備하여야 할 思想教育

이 아니면 北傀 經濟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技術을 연마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에서는 '教育의 根本 理念이 個個人的 個性을 發展시키고 自由로운 思索力과 情緒를 培養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共產主義의 人間 形成에 있다.'고 내세운다.

換言하면 '共產黨의 窮極的 目的 達成에 必要한 共產主義의 世界觀과 知的·肉體의 能力을 所有한 者를 養成하는 데 있다'고 하며, 金日成도 靑少年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붉은 思想으로 武裝시키는 것이 教育의 目標라는 것을 明白하게 밝힌 바 있다.

北傀의 教育方式이 學科나 技術教育 보다도 思想教育·勤勞動員·軍事訓練에 置重하여, 被教育者를 一定한 定型(Stereotype) 即 共產主義의 人間像으로 만드는데 置重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北傀의 教育體系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即

첫째, 基本 教育體系

둘째, 成人들에 對한 文盲退治 乃至는 補修教育을 위한 成人 教育體系.

셋째, 各級學校 教員 養成을 위한 師範 教育體系.

넷째, 特殊한 素質을 가진 者들의 特技 向上을 위한 特殊 教育體系가 그 것이다.

이러한 內容의 教育體系를 基幹으로 하여 各級學校가 階層的으로 運用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數次에 걸친 改編이 있었다.

가. 改編前 教育體系

人民學校——4年

初級中學——3年

高級中學——3年

大 學——4年~5年

研 究 院——4年

나. 改編後 教育體系(1959年)

基本 教育體系

人 民 學 校——4年

中 學 校——3年

技 術 學 校——2年

高等技術學校——3年

大 學——4年~5年

研 究 院——4年

師範 教育體系

教育幹部學校——教員 再教育機關

教員大學——3年~4年

成人 教育體系

勤勞者學校——2年

勤勞者中學校——3年

夜間技術學校——2年

通信·夜間大學——4年~5年

特殊 教育體系

體育學校——4年

外國語學校——11年

藝術系學校——11年

다. 現行 教育體系(1967年)

一般教育和 基礎 技術教育을 配合하여 教育和 生産勞動을 密接히 統合시킬 目的으로 滿 7歲 부터 16歲 까지의 全 學年 兒童을 對象으로 「9年制 技術義務教育」 體系를 만들었으며, 이에 關連하여 改編된 部分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學校는 3年制 初級中學校와 2年制 技術學校를 統合하여 5年制로 改編했으며,

둘째, 中學 卒業者를 받아들여 中學 一般教育을 實施하는 第2段階의 中等教育機關으로 2年制 高等學校를 新設했으며,

셋째, 2年制의 既存 高等技術學校는 3~4年制로 改編했으며,

네째, 勞動者를 爲한 工場 高等技術學校와 通信學校는 3~4年制로 하며, 2年制의 工場 技術學校는 廢止했고

다섯째, 5年制 中學 卒業者를 받아들여 幼稚園 敎養員을 養成하는 3年制 高等 師範學校를 新設하고, 人民學校 敎員은 4年制 敎員大學에서, 中·高等學校 및 高等 技術學校 敎員은 4~5年制 師範大學에서 養成하도록 했고

여섯째, 技能工을 養成하기 위해 中學 卒業者를 받아들이는 1~2年制 技能工 學校를 新設했다.

2. 教育 內容

北韓에서는 人民學校에 入學하기가 무섭게 金日成의 偶像化 및 個人 崇拜를 위한 教育을 強行하여 所謂 社會主義 制度의 優越性에 대한 偏頗的인 知識을 注入시킨다.

그러한 教育 過程에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南韓과 北韓」·「過去와 現在의 生活」等이 歪曲되어 被教育者에게 比較 傳達된다.

또한 學童들은 全然 體驗하지 못한 「地主」나 「帝國主義의 暴惡性」을 머슴살이 하던 古老들의 이야기를 通하여 認識하게 함으로써 憎惡心을 喚起시킨다.

社會科學은 특히 共產主義의 人間化 事業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으며, 「革命家庭」·「共產主義의 主見」等이 共產主義의 制度의 優越性을 強調하는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

더우기 國語는 人文 社會科學 中에서도 가장 重要視되며, 이는 最近 教育時間이 增加된 事實로도 立證된다.

大體로 人民學校 課程은 社會主義, 愛國主義 敎養, 「黨」과 金日成에 對한 忠誠心을 길러주는데 根本 目的이 있다.

그 實例로서 共產主義 道德과 國語의 第1課에서는 金日成에 對한 이야기를 取扱하고 있는데 그것은 金日成이 어떠한 사람이며, 그의 훌륭한 性品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誘導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人民學校 1~2學年 課程에서 取扱하는 階級敎養 內容은 所謂 反帝思想 敎養 即 地主 資本家를 憎惡하고 그 制度를 排擊하는 思想을 注入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例를 들면, 1學年 國語에 있는 「여우 이야기」, 2學年 國語에 있는 「여우와 두루미」, 「욕심 많은 개」 등의 內容을 通하여 개와 여우와 같은 人間을 憎惡하여 그러한 型의 人間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識別 할 수 있는 基準을 가르쳐 준다.

또 1學年 共產主義 道德에서 「어린이에 對한 地主의 蠻行」, 「우리 父母들을 못살게 굴던 者는 地主이다」, 「慾心장이 地主는 人民들의 힘에 依하여 죽어버렸다」, 「우리 동무들을 죽인 者는 美國사람이다」 등의 그릇된 概念을 扶植하여 「敵의 概念」을 形象化시킨다.

2學年 下半期에 이르러서는 共產主義 道德의 「지난 날을 잊지말자」라던가, 노래 敎材인 「당장 나가라」 등을 가지고 「資本主義 制度」와 「地主」에 對한 基本的이고 一般的인 表象을 길러주고 敵을 憎惡하는 精神 培養과 革命的 階級意識을 드높혀 준다.

이러한 教育 方式은 비단 共產主義 道德이나 國語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算數에서도 徹底하게 適用되고 있다.

例를 들면 “金동무 할아버지는 1年을 農事하여 102가마니를 地主에게 빼앗겼다. 水稅는 肥料代 보다 6가마니가 더 많고, 小作料는 肥料代 보다 12가마니가 적었다. 各各 몇 가마니씩 물었겠는가?”라고 問題를 提起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階級 意識을 注入시키고 있다.

이러한 教育 內容은 비단 人民學校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上級學校에 進學하여도 基本原理에는 變化가 없으며, 다만 教育의 素材가 各級學校 水準에 따라 다르게 取扱되고 있을 따름이다.

3. 日常生活

共產主義 經濟 體制下에서는 生産과 消費 需要와 供給이 共產黨에 依하여 中央集權의으로 統制되기 때문에 勞動도 中央集權의으로 統制된다.

投入되는 모든 勞動力은 各個人의 能力이나 選擇에 依해서가 아니라 北傀가 追求하는 目的에 依하여 또한 中央에서 決定된 計劃에 依하여 組織化 된다.

오늘날 北傀는 總人口가 1,300餘萬에 지나지 않는다는 不利한 條件下에서 심지어 「60 靑春, 90 回甲」이라는 美名下에 老人들과 人民學校 兒童들 까지도 隨時로 勞力動員에 參加시키고 있다.

北韓 住民을 徹底하게 統制하고 모든 勞動力을 組織的으로 動員하기 위하여 北傀는 各種 組織體 卽 黨組織을 비롯하여 「職盟」·「農勤盟」(農業 勤勞者 同盟)·「社勞靑」·「女盟」·「少年團」等に 男女 老少를 加入시켜 한 사람의 勞動力을 所屬 組織體를 通하여 二重 三重으로 動員하는 手法을 驅使 하고 있다.

1958年 9月의 所謂「全國 生産革新者 大會」에서 金日成은 “集團의 勞動과 知慧에 依한 勞動 革新 運動을 더욱 廣範히 展開하여 勞動 生産 能率을 最高度로 높여야 한다”고 指令하였다.

이것이 楔機가 되어 所謂「千里馬 運動」이 展開되었는데, 그 후 이것을 深化시켜 所謂「셋별 보기 運動」·「빈손 退治 運動」·「열두 바닥 긁기 運動」·「허리 안짜기 運動」·「한 짐 더지기 運動」·「한 손갈 덜 먹기 運動」·「국 안먹기 運動」等 해괴한 이름의 갖가지 運動을 이룩하였다.

不足한 勞動力 充足을 爲하여 人口 增加에 拍車를 加하는 한편, 在日 僑胞의 北送까지 劃策하게 되었고, 고된 重勞動에서 오는 住民들의 不滿을 解消시키기 위하여 高度의 緊張感을 造成하여 마치 全面 戰爭이라도 臨迫한 것처럼 極度の 耐乏과 忍耐을 促求하여 왔다.

北傀는 金日成 獨裁 體制를 強化하고 일단 有事時에 對備하기 위하여 北韓 住民을 金日成 追從者와 中間層 및 自由民主主義 信奉者等 세가지 階層으로 區分하고, 平壤等 主要 都市에는 「追從者」를 난 남기고 自由民主主義 信奉者들은 山間 僻地로 내쫓아, 大의인 人口 移動을 斷行했다.

그러한 措置에 따라 惹起될지도 모르는 住民들의 不滿과 思想的 動搖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1966年 4月부터 69년까지에 恐怖의 「住民 再登錄 事業」을 일제히 實施한 바 있다.

卽 北傀는 읍리에 2~3名의 安全軍官(秘密 警察)을 常住시키고, 該當 地域의 「黨委員會」로 부터 補助員 까지 配當 받아, 6~7名이 한 組가 되어 대대적인 成分 調査를 實施한 바, 그 調査 對象者는 3代까지 거슬러 올라가 祖父母의 出身 成分과 直系 八寸 그리고 傍系 四寸의 成分까지 露出당하고 말았다.

北傀의 이러한 一連의 措置는 戰爭에 對備하여 이른바 「깊이 숨어있는 敵」을 徹底히 索出하여 戰爭 力量을 再配置하자는 底意에서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狀況下에서 北韓 住民들의 生活相은 悲慘할 수 밖에 없다.

金日成은 “나라의 福利 增進에 對한 配慮——이것은 勞動 階級の 國家 活動의 最高峯이다. 우리 가 社會主義의 共產主義를 建設하기 위하여 鬭爭하는 目的도 結局은 모든 人民의 物質的 文化 需要를 圓滿히 充足시키며 富裕하고 文明한 生活을 保障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한 바 있고, 1969年度 歲出入 豫算에 關한 「財政的」 報告에서도 “人民들의 生活 向上을 自己活動의 最高 原則으로 삼고 있는 우리 「黨」과 「政府」에서는 經濟建設과 軍事建設을 同時에 힘있게 밀고 나가는 어려운 條件에서도 人民生活에 對한 「黨」과 首領의 크나큰 配慮를 實現하기 위하여 莫大한 國家資金을 支出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北傀는 北韓 住民의 物質文化 水準의 向上은 고사하고 人間으로서의 基本 生活에 必要한 衣·食·住問題조차도 제대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北韓 住民들의 不滿은 더욱

累積되어 눈에 안보이는 罷業活動이 늘어나고 生産品의 質도 粗雜하게 되었다.

北韓의 社會構造는 徹底한 集團主義 原則에 立脚하고 있다.

生産手段의 個人所有가 認定되지 않고 集團主義 原則 위에 있는 北韓 社會에 있어서 價値의 配分이 極度로 偏頗的인 것은 조금도 異常할 것이 없다.

北韓에도 「새로운 階級」이 形成되고 있다. 元來 共產主義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말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勞動階級の 獨裁를 말한다면, 北傀가 共產主義를 指向하는 限, 勞動階級の 獨裁 體制를 이룩하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그러나 北傀의 獨裁 體制는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勞動 階級の 獨裁라기 보다는 金日成의 個人 獨裁 體制로 되어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個人 獨裁 體制에 忠誠하는 階層이 이른바 「새로운 階級」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 北韓의 現實이다.

이것을 端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唯一思想 體系」를 高唱하는 金日成의 偶像化論이며, 北韓 住民들에게 強要되는 衣·食·住 生活의 現況이다.

北韓의 社會 構造는 共產黨을 上部 階層으로 하고 勞動者·事務員·協同農場員이 下向의 階層 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金日成이 말한 「社會主義 體制의 確立」이란 企業家·商人·自由人 其他 多元的인 社會 階層이 抹殺된 狀態를 意味한다.

外部 社會에서 隔離되고 閉鎖된 環境과 一切의 異質의 要素의 介在를 否定하는 社會 體制 속에서 平均 成年 男女 2~3名中 1名 꼴인 共產黨員의 監視와 統制下에 黨路線의 強行에 動員되고 있는 北韓 同胞의 處地와 北韓의 實情은 너무나 深刻한 現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觀點을 달리할 때, 北韓의 支配機構·經濟構造·社會體制는 外見上의 硬直 性에도 不拘하고 不治의 脆弱性과 通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金日成의 所謂 「自主路線」도 따지고 보면 스스로의 脆弱性을 隱蔽하기 爲한 하나의 「체스추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第4章 軍 事

1. 軍事政策

北傀의 當面한 軍事政策은

첫째, 政治 第一 主義的인 思想의 強化

둘째, 「四大 軍事路線」遂行을 위한 權力構造의 改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軍事政策은 勞動黨 政策에 依한 것으로서 北傀軍은 勞動黨 乃至 金日成을 守護하는 武裝力으로서 「黨」 政策을 守護하는 黨軍이다.

金日成은 政治 思想 事業의 重要性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軍事力を 強化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人民軍隊와 全體 人民을 政治 思想的으로 튼튼히 準備시켜야 한다.”

우리의 軍隊는 革命軍隊이며 따라서 그 威力을 強化하는 基本은 그 軍人들을 政治 思想的으로 武裝시키는 것이다.

軍隊안에 있는 「黨」組織들과 「社勞靑」組織은 軍人들 속에 政治 思想 事業을 日常的으로 強力히 展開하여 그들에게 人民軍隊의 崇高한 使命을 徹底히 認識시키며 그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우리 黨의 政治的 思想으로 即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不屈의 革命精神으로 튼튼히 武裝시켜야 하겠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말은 政治 第一主義 思想 即 戰爭의 形態 또는 兵器의 優劣 如否를 莫論하고 戰爭勝利의 窮極의 要素가 人民의 政治 思想性에 있다는 것을 強調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思想을 金日成이 特히 強調하는 理由는 그가 共產主義者라는데도 起因하지만, 6.25 動亂의 쓰라린 經驗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解釋된다.

6.25 南侵의 敗北 原因에 대해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指摘한 바 있다.

첫째, 美國과 같은 強大한 國家와 싸운다는 條件下에서 豫備隊의 準備가 너무나 不足했고, 苦難을 克服할 수 있는 諸般 準備가 不足했다.

둘째, 人民軍 및 幹部들이 年少하기 때문에 苦難을 克服하기 위한 組織性이 微弱했고 指揮 能力이 없었다.

셋째, 軍紀가 弱했다.

네째, 戰爭 勝利의 첫째 條件이 敵兵力의 殲滅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敵을 分散케 하였고, 이들에게 時間的 餘裕를 주어 再編成을 可能케 했다.

다섯째, 優秀한 空軍과 海軍 및 砲火를 가진 敵과 싸운다는 特殊한 條件을 減소한 戰術 運用을 期하지 못했다.

여섯째, 敵 後方에서의 遊擊戰 展開가 優秀한 敵의 機能力을 破壞하는 가장 有效한 手段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展開하지 못했다.

일곱째, 後方 補給活動이 充分히 組織되지 못했다.

여덟째, 部隊內의 政治活動이 高度로 展開되지 못했으며, 革命的 愛國 思想教育이 不充分했다.

아홉째, 高位 指揮官과 「黨」 組織者들의 指揮能力 및 組織力이 不足했다.

이러한 金日成 自身の 이른바 自我批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北傀軍은 教條主義的으로 短期 速戰 速決을 爲主로한 戰略概念 下의 情勢 變化에 相應함이 없이 또한 自身の 準備도 없이 南侵을 敢行하여 敗北를 自招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쨌든 政治 思想的 基礎위에서 만이 비로소 不敗의 軍事力을 키워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勞動黨은 1961年 9月 4次 黨大會 때 規約을 改正하면서 北傀軍을 正式 「勞動黨의 武裝力」이라고 明文化하는 한편, 「黨 中央委員會」 直屬으로 「軍黨 委員會」를 두기로한 다음, 將兵들에게 對한 政治 思想 事業強化에 血眼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이 事業을 繼續 強化해 나갈 것으로 본다.

金日成은 「四大 軍事路線」에 대해서 “「全軍의 幹部化」와 「全軍의 現代化」는 一定한 數의 常備軍을 百方으로 強化하여 革命的 戰取物을 믿음직하게 保衛하면서 社會主義 建設을 成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게 하며, 일단 有事時에는 常備軍을 核心으로 軍事力을 急速히 늘릴 수 있게하는 가장 正當하고 賢明한 方針이라고 말하고, 「全人民의 武裝化」와 「全國의 要塞化」는 部門間에 差異가 없고, 地上과 空中, 海上等 넓은 空間에서 進行되는 立體的인 現代戰에 맞게 軍事力을 強化함으로써 어떤 形態로 어느 곳을 侵入해 오든지 堅固한 要塞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싸울 수 있게하는 軍事體系”라고 말했다. 이 「四大 軍事路線」을 分析해 보면,

첫째, 「全人民의 武裝化」는 “黨 周圍에 굳게 뭉친 人民들 自身の 힘으로 우리의 社會主義 祖國을 侵略으로부터 保衛하기 위하여 人民軍隊와 함께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全體 勤勞者들을 政治 思想的으로 軍事技術的으로 武裝시키는 것이다. 武裝 鬭爭을 비롯한 모든 革命 鬭爭에서 決定的 役割을 하는 것은 人民大衆이다. 그러므로 人民大衆을 積極的으로 組織 動員하여 그들을 武裝시키는 것은 祖國의 防衛와 戰爭 行爲에 믿음직한 擔保로 된다”는 그들의 말과 같이, 北韓 全 住民을 共產主義 革命의 戰鬭要員으로 武裝시켜 有事時에 動員할 수 있는 補充兵力을 確保하는 등 戰鬭部隊로 轉用 하려는 意圖가 숨어 있는 것이다.

둘째, 「全國의 要塞化」는 北傀가 1962年 以後 今日에 이르기 까지 經濟 成長의 鈍化를 무릅쓰고 全力을 傾注한 部門이라고 말할 수 있다.

北傀는 戰時에 「中央産業」이 消滅된 後 最少限의 後方 工業을 爲해서 地方工業을 育成할 것과 全國을 難攻不落의 要塞로 轉變시켜야 한다고 軍事 路線을 밝힌 바 있다.

이는 經濟에 關係없이 最大限의 戰爭 物資를 確保하고 戰爭으로 인한 被害를 最少限으로 縮小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全國土 要塞化」의 軍事的 性格은 在來式 一線型 防衛로 부터 據點에 依據한 地域 防禦로 移轉하여 防禦縱深을 더욱 깊게 強化함으로써 高性能 武器의 集中攻擊에 의한 主抵抗線의 突破를 阻止하고 廣大한 地域을 密度가 적은 兵力으로 막아 내려는 心算이기도 하다.

셋째, 「全軍의 幹部化」란 모든 軍人이 次上級 地位의 任務를 遂行할 指揮 能力을 賦與하는 것 即 分隊長은 小隊長, 小隊長은 中隊長의 能力을 지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指揮官의 指揮 能力 向上을 表面的인 目的으로 하나, 더욱 重要的 것은 北傀軍의 戰鬭力의 質的 向上을 期하자는 것이며, 特히 現役 士兵을 分隊長으로 하고, 이어 訓練된 「勞農 赤衛隊」를 現役に 編入하여 正規軍을 急速히 擴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路線을 推進하고 있는 것은 亦是 6.25 動亂時의 쓰라린 經驗에서 나왔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넷째, 「軍隊의 現代化」란 裝備의 現代化를 意味하며 現代戰에 必要한 各種 裝備의 急速한 導入과 함께 武器 體系에 있어서도 現代式 共用火器와 在來式 小火器의 改良을 並行함으로써 全面 南侵에는 勿論. 遊擊戰에 對備하고자 하는 것이다.

2. 軍事機構

北傀 憲法 第100條에 規定된 바 北傀軍의 使命은 ‘祖國의 自主權과 人民의 自由를 擁護’ 하는 것인

데, 이와 같은 目的 達成을 爲해서 軍事機構가 設置되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의 憲法 第55條 11項에 의하면 北傀軍 編成에 관한 指導와 高級將官의 任命權은 內閣에 委任되어 絕對的인 黨의 統制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勞動黨의 統制下에 있는 北傀軍은 「人民軍」이라는 單一 呼稱下에 組織되고 그 戰鬥力은 步兵 部隊를 基幹으로 하는 地上軍의 各 兵科 部隊를 主體로 陸·海·空軍의 軍種으로 區分되어 있으며, 우리와 같은 海兵隊는 가지고 있지 않다.

北傀軍의 構成上 特徵은 地上軍에 있어서 砲兵과 機甲의 二個 兵科가 獨立司令部를 設置하여 隸下 部隊에 대한 作戰 訓練의 指揮權을 行使하고 있는데 反하여 陸軍 司令部는 그러한 權限이 없고 다만 行政的 支援業務만을 間接的으로 遂行하는 行政 本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步兵을 中心으로 하는 全 地上 戰鬥力은 所謂 「民族保衛省 總參謀部」에 의하여 直接 指揮되고 있다.

이러한 構成 形態를 가진 北傀軍은 陸軍이라는 뚜렷한 概念이 없이 單一軍으로 步兵을 骨幹으로 하여 砲兵·機甲·海軍 및 空軍 等の 各 兵種과 軍種으로 되어 있다.

即 北傀軍은 世界 各國이 一般的으로 採擇하고 있는 三軍 分立主義를 採擇하는 것이 아니라, 砲兵 및 機甲 兵種을 軍種과 同等하게 取扱하여 戰鬥力을 形成하는 單一 統合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바 이 單一 統合主義 體制의 用兵上의 利點은 兵力을 效率的으로 集中 運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體制를 가지고 있는 北傀軍의 統帥權은 그 所在가 北傀 憲法 第32條에 規定되어 있다. 이 에 의하면 「最高 人民會議」은 「最高 主權 機關」이라고 規定되어 있으며, 이는 北傀의 軍事 機構에 대한 最高 統帥權이 「最高 人民會議」에 있음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形式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最高 人民會議」라는 것은 勞動黨의 政策施行을 위하여 表面에 내세워진 機構에 지나지 않으며 實際的인 모든 權限은 勞動黨에 歸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事實上的 統帥權은 「勞動黨 中央委員會」 特히 「政治委員會」와 「軍事委員會」에 있으며, 具體的으로는 黨의 「總秘書」이며 北傀軍 「最高 司令官」인 金日成이 掌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統帥權은 平時와 戰時로 區分되어 行使된다. 平時에는 「最高 人民會議 常任委員會」(事實 上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立案된 軍事 政策을 「內閣首相」이 「民族保衛相」을 通하여 이를 執行 하며, 「民族保衛相」은 「總參謀長」을 通해서 軍政 및 軍令權을 行使한다.

이에 대하여 戰時에는 「軍事委員會」에서 黨이 設定한 軍事 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며, 「最高 司令官」을 通하여 直接 軍政 및 軍令權이 行使된다.

따라서 北傀軍 「最高 司令官」인 金日成이 軍에 대한 모든 權限을 集中 掌握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社會 安全省」傘下에 있는 各級 部隊와 鐵道 警察隊 및 準 軍事部隊까지 完全히 管掌하고 있다.

3. 軍事能力

北傀 地上軍은 5個 集團軍, 19個 師團, 5個 旅團과 이를 支援하는 砲兵 및 機械化 司令部 隸下에

網羅된 34萬餘 兵力으로 形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主要 裝備는 半自動式 「시모노프」小銃(AK 步銃)의 個人 基本 火器와 各種 迫擊砲, 高射砲, 「로켓」砲, 自走砲 및 戰車들로 武裝되어 있다.

이것은 休戰 當時에 比하면 兵力上으로나 裝備上으로나 매우 增強된 數字이다.

이들은 前方 投入部隊과 後方 增援部隊로 區分되는데, 前方 投入部隊는 155마일 戰線 一帶의 坑道化된 防衛陣地에 配置되어, 重火器로써 火網을 構成하고, 各 地下 洞窟은 中隊 單位의 人員과 補給品을 收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局地的인 核武器 戰爭 狀況下에서도 戰鬪를 繼續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춘 狀態이다.

한편 後方 增援部隊는 平壤과 元山을 連結하는 一帶와 東西 海岸地帶에 據點 防禦形式으로 配置되어 短時日內에 前方地域에 投入이 可能토록 位置하고 있다.

이렇게 縱深한 部隊 配置는 有事時의 各種 狀況에 直刻 對處할 수 있는 融通性을 保有한 措置라고 볼 수 있으며, 特히 獨立 作戰이 可能한 機甲 部隊를 西部 地域에 重點을 두고 配置하고 있는 것은, 이 地域의 戰略的 條件을 考慮한 結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北傀 地上軍은 「붉은旗 中隊 運動」을 통한 共產主義 思想 敎育을 強化하는 한편, 62년까지는 師團單位의 步戰砲 合同訓練을 하더니, 63년부터는 各種 狀況下에 여러 地域에서 軍團級 以上 單位의 陸·海·空軍 合同訓練을 實施하였다.

뿐만 아니라, 67年 6月에는 10日間에 걸쳐서 「總軍事 競演大會」가 軍의 戰鬪 裝備와 強化를 目的으로 대대적으로 實施된 바 있다.

이와는 別途로 地上軍은 65年 부터 67年 사이에 冬期 遊擊戰術 習得을 目的으로 師團 規模의 冬季 機動訓練을 實施한 바 있으며, 最近에는 原子戰에 對備한 接近 攻擊 作戰訓練과 坑道 防禦 및 密閉 訓練, 有事時 我軍 主要施設을 攻擊하기 爲한 夜間 襲擊 訓練等 多樣한 訓練을 實施하고 있다.

北傀는 韓半島에서 全面戰爭 또는 局地的 制限戰爭과 非正規戰을 同時에 遂行할 수 있는 戰力을 保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海軍은 4個 基地의 1萬餘 兵力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總參謀長」 隸下에 있는 「海軍司令官」의 指揮 統制下에 있다.

그리고 魚雷艇 및 快速艇과 潛水艦을 主軸으로 裝備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小型 快速艇을 主軸은 裝備로 하는 것은, 奇襲 攻擊과 海上 補給路의 攪亂을 企圖해서이다.

오늘날 北傀 海軍은 沿岸 警備를 主로 하던 從來의 局地 作戰과 더불어 南韓의 海岸 侵透에 臨할 수 있는 艦艇體系를 갖추기 위한 勞力을 繼續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北傀는 海岸 防禦用 誘導彈 基地의 增設과 新型 武器로 裝備한 各種 警備艦의 增強과 더불어, 東海地域에 새로 魚雷戰隊를 編成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北傀가 主로 東海岸에 海軍力을 增強하는 理由는 防禦的인 態勢를 갖추는 것과 併行하

여, 漸次 攻擊의 態勢로 轉換하는 同時에 中共과의 密着政策을 維持함으로써 西海上에서의 戰鬥力을 中共에 委任하는 反面, 對蘇 關係의 不調和, 韓國 및 日本의 強大化에 따른 東海 防禦의 必要性이 加重된데 비추어, 앞으로 東海上에서의 單獨 戰鬥力을 保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奇襲 攻擊도 加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겠다는 侵略의 野慾의 表現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上海 海岸의 條件과 機雷戰에 影響을 주는 海流 및 干滿의 差 等 여러 가지 條件이 西海에 比하여 東海가 良好하다는 것도 한가지 條件으로 된다.

戰術 訓練面에서 61년까지는 機雷敷設, 對空射擊, 對艦射擊 等 防禦作戰에 置重하였으나, 62~63년에는 防禦作戰과 攻擊訓練을 併行하여 왔으며, 65~67년에는 潛水艦에 의한 對艦 攻擊 訓練 및 攻擊的 機雷敷設 訓練을 包含한 特殊訓練의 回數가 急激히 增加되었고, 特히 訓練時間의 50%는 夜間에 實施되고 있다.

北傀 海岸訓練 가운데서 注目할 만한 것은 62年 以後 實施해 온 海上 上陸作戰이다. 即 北傀는 62年 以來 東西 海岸 一帶에서 해마다 師團 規模의 上陸作戰을 展開했다. 이는 我軍의 上陸 豫想 地域에 대한 그들의 海岸 防禦態勢를 點檢하는 한편, 그들의 上陸戰 能力을 試驗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傀 空軍은 「總參謀長」 指揮下의 「空軍 司令官」의 指揮 統制를 받는 4個의 戰鬥機 師團을 主軸으로, 爆擊機·偵察機聯隊 等 兵力 約 4萬과 各種 航空機, 그리고 若干의 「미사일」로 構成되어 있다.

이는 그들이 6.25 當時 制空權을 完全히 빼앗긴 狀態에서 體驗한 敗北의 쓰라린 經驗을 土蠶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空軍力 增強에 全力을 傾注해 온 結果로서, 이제는 質과 量에 있어서 모두 強力한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으며, 一時에 보다 많은 航空機를 奇襲攻擊을 위하여 發動시킬 수 있는 態勢를 갖추고 있다.

北傀는 1960年代에 소위 「經濟建設과 軍事建設」의 併進政策으로 速攻과 奇襲에 有利한 裝備를 導入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四大 軍事路線」을 追求하면서 產業의 軍需工業化 및 戰時體制化에 힘쓴 結果, 各種 武器와 軍裝備를 自體 生産하게 되었으며, 한편 遊擊戰과 山岳戰을 위한 輕步兵部隊의 創設과 訓練으로 攻防 能力을 兼備한 正規戰과 遊擊戰의 配合體制를 完備하는 데 注力해 오기는 했지만, 金日成 一黨과 北傀軍 指揮者들의 意圖나 希望과는 달리, 極甚한 勞動과 訓練·嚴重한 監視制·成分에 따르는 待遇와 進級制度·黨과 指導者들의 橫暴·不滿足한 給食과 醫療施設·不充分的 休暇制度·長期服務 等에서 오는 不平不滿을 많이 품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北傀는 休戰 以後 地下黨 組織의 再建을 目標로 對南工作을 展開하여 오다가, 66年 以後부터는 보다 積極的인 暴力的 對南 工作으로 戰術的 方向을 바꾸었다.

66年 10월에 召集된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合法·非合法, 暴力·非暴力 等 各種 鬪爭 方法을 配合하라”고 強力히 指示한 바 있다. 이 指示에 따라 暴力 優先主義에서 武裝 「게릴라」 工作要員의 代대적 南派를 企圖하게 되었다.

67년에 連續적으로 發生한 列車 爆破事件과 良民 虐殺事件은 바로 이 戰術의 初步的 形態였으며,

68年 1月 21日 31名組의 武裝共匪 靑瓦臺 襲擊 陰謀의 失敗와, 同年 11月 蔚珍, 三陟 地域에 120名組의 武裝共匪가 侵透한 事件은 이 戰術의 本格的인 形態였다.

1.21 事態가 비록 靑瓦臺 襲擊에는 失敗하였다 할지라도, 서울 中心部까지 武裝共匪를 潛入시킬 수 있었다는 事實에 自信을 얻은 金日成은, 68年 9月 그들의 記念式 席上에서 “南朝鮮 共產化 鬭爭은 主權을 奪取하기 위한 鬭爭과 密接히 結合되어야 하며, 主權을 奪取하기 위해서는 오직 暴力的 方法만이 勝利할 수 있으며, 오늘 南朝鮮의 現實은 政權 奪取을 위한 人民들의 鬭爭에서 暴力的 方法이 要求되는 時期”라고 豪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情勢 判斷에 基礎하여 北傀는 本格的인 非正規戰의 展開를 위해 各種 對南工作 部隊를 編成하게 되었다.

現在 北傀는 情勢 變化에 따라 恒時 動員 可能하도록 各 集團軍에 輕步兵 聯隊를, 各 戰鬪 師團에 是 輕步兵 大隊를 編成하여, 遊擊 要員의 特別 訓練과 養成에 注力하고 있으며, 北傀軍 및 勞農赤衛隊의 遊擊戰 訓練도 이와 併行하여 強化하고 있다.

1970年 現在 北傀의 非正規軍 能力은 大體로, 浸透 兵力 1萬餘名과 支援 兵力 近 2萬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從前부터 遊擊戰 訓練을 繼續해 온 北傀軍 第17 獨立旅團과, 各 集團軍과 戰鬪 師團에 創設된 輕步兵 聯隊와 大隊 兵力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南韓 赤化를 위한 基本 計劃인 所謂「民主 基地化」路線等 「三大 力量 強化」가 70年代 中에 매듭 지어질 것으로 期待하면서, 「四大 軍事路線」을 實踐해 온 北傀는, 全 人民의 武裝化를 서둘러 이미 正規軍과 다른 140萬의 「勞農赤衛隊」를 武裝시켰다.

이들에게는 69年初에 AK步銃과 舊式 多發銃等 個人 火器 支給을 全部 끝냈으며, 各種 砲射擊 訓練까지 마치는 等 高度의 軍事 訓練을 實施하고, 農村에 있는 赤衛隊에까지 87m/m 對空砲, 迫擊砲等 重火器가 支給되고 있다.

「全人民의 武裝化」를 有事時에 正規軍으로 改編하기 위한 準備로 볼 때, 이와 關連된 措置가 「黨 幹部의 軍隊化」와 「軍의 幹部化」이다.

이는 平時에 軍의 指揮官으로 질러 놓았다가 有事時에 勞農赤衛隊에 配置하여 赤衛隊를 그대로 正規軍으로 改編하여 戰場에 投入하기 위한 事前 準備임에 틀림이 없다.

「四大 軍事 路線」 가운데 北韓 全域을 戰爭터로 만든 全 國土의 要塞化는 거의 目標을 達成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休戰線 一帶에 沿한 坑道 構築을 비롯하여 各種 戰略產業 施設이 地下에 들어 갔으며, 東西 海岸에 따른 坑道는 「콩크리트」로 完成하고, 一部 海岸에는 射程距離 數 十km의 「미사일」이 裝備되어 있는 程度이다.

北傀가 每年 100萬屯씩 都合 300萬屯의 食糧을 包含한 各種 物資 및 裝備과 軍需產業 施設을 地下에 保存하려는 것은, 金日成이 또 다른 武力 南侵에서 失敗하는 極限 狀況을 認定한데서 나온 計劃이라고 볼 수 있다.

V. 北傀 對南戰略

第1章 北傀의 赤化統一 戰略

1. 統一戰略의 段階

第2章 北傀 對南工作 樣相의 變遷過程

1. 北傀의 對南基本政策

2. 工作樣相의 概況 및 變遷時期 區分(段階)

3. 段階別 工作의 特徵

4. 最近의 北傀 對南工作 樣相

第1章 北傀의 赤化統一 戰略

1. 統一戰略의 段階

가. 標榜과 戰略의 差異

(1) 統一原則

北傀는 外交 및 宣傳의 次元에서 그들의 統一原則이 自主, 民主, 平和의 세 가지로 要約된다고 主張해 왔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의 底意를 露出시키는 黨大會 決定書를 비롯한 黨內 文獻에 表現된 統一原則은 소위 南朝鮮에서의 革命 그 하나 뿐이다.

예컨대 前者의 「카터고리」에 속하는 呼訴로서는 金日成이 「워싱턴」에 있는 소위 朝鮮問題研究所長 金龍中에게 보낸 1965年 1月 5日字 回答 書翰을 들 수 있다. 그 書翰에서 金日成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恒常 우리 民族의 內部問題인 統一問題를 어떠한 干涉 또는 外勢의 干涉도 없이 自立原則에서 民主主義的으로 平和的 解決을 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出發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또 “一般的이고 平等한 秘密投票의 方法에 의한 南北總選舉를 實施한다면 各界 各層의 人民 大衆의 總意를 充分히 反映하는 統一의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할 수 있을 것”이라고 附言하기도 했다. 다만 “南北 總選舉는 外國 軍隊를 撤去시키고 온갖 干涉을 排除하는 同時에 政黨活動의 完全한 自由와 人民大衆의 自由 權리가 充分히 保障되는 條件이 必須的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現實과 北傀 共產黨(朝鮮共產黨)의 實踐이 金日成이 말한 條件形式으로 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는 美國이나 日本에 居住해 온 사람보다도 直接的인 體驗을 갖고 있는 北韓住民과 韓國 國民들은 切實히 알고 있다. 北傀의 共產統治體系가 남아빠진 「스탈린」主義的 個人崇拜와 가장 무자비한 恐怖政治로 特徵지어진다는 事實은 金日成 自身の 黨內 「라이벌」이던 朴憲永과 金料奉 등의 慘酷한 運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긴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즉 共產主義들의 眞意를 드러내는 黨內 文獻에서는 統一原則이 繼續 革命이라는 말로써 풀이되고 있다. 1961年 9月 18日字로 그들의 第4次 黨大會에서 修正 採擇한 소위 「朝鮮 勞動黨 規約」의 前文을 보아도 그 點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즉 <朝鮮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國主義 革命, 反封建的 革命,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北에서는 社會主義 建設을 하고, 南에서는 革命을 하는 것이 그들의 當面 目的이다. 同時에 그들의 第4次 黨大會 決定書에 나타난 統一戰略은

첫째, 南韓에서의 共產地下黨 組織

둘째, 反美 救國統一戰線의 結成 및 奪權鬭爭

셋째,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통한 共產化 統一의 實現이라는 段階的 統一戰略을

強調하고 있다. 그 후의 黨內 文獻도 줄곧 이러한 點을 強調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北傀의 外交的 「제스처」나 大衆相對의 呼訴는 그들의 黨內 戰略과 明白히 區別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呼訴와 戰略 사이에는 目的指向성과 效果測定面에서 表裏一致의 關聯性이 發見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물론 그 모든 경우에 指定時間의 環境 條件에 대한 打算이 反映되어 있다.

(2) 소위 「北傀 勞動黨 規約」

勞動黨의 當面目標은 北韓地域에 徹底한 社會主義 社會를 樹立하고, 漸次的으로 韓半島 全域에 걸쳐 소위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 그리고 民主主義 革命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最終的으로 韓半島에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이라고 明示하였다.

이와 같이 北傀 勞動黨의 當面的인 것과 最終的인 段階의 目的을 設定한 것은 韓半島가 分斷되어 있다는 現實과 緊密한 聯關을 맺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分斷狀態를 어떠한 手段으로 終熄시키느냐 하는 方法論을 提起하고 있기도 하다. 즉 北傀는 韓半島의 分斷을 「마르크스」, 「레닌」의 階級鬭爭과 世界革命의 理論으로 說明하고 있으며, 이러한 觀點은 統一問題 全般에 걸쳐서 民族의 利害關係에 앞서서 「이데올로기」의 側面을 보다 強하게 作用시키고 있다.

이 結果 北傀가 願하고 있는 統一政府의 形態는 오직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政治, 社會體制의 保障이라는 制限된 意味를 內包하고 있으며, 따라서 實사 韓民族의 自由意思에 의한 餘他の 政治, 社會體制라 할지라도 쉽사리 北傀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北傀는 統一實現 過程에 있어서 原則上 妥協이라는 觀念 그 自體를 否定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妥協이라는 觀念 그것은 때때로 利害關係가 전혀 다른 階層과 함께 共通的인 打擊對象을 孤立시키거나 制壓하기 위한 戰術的인 手段으로서 活用되고 있다. 이것이 곧 北傀의 統一戰線 戰術의 基本的인 目的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戰術的 側面은 解放이후 오늘 날까지 北傀가 提示한 統一方案의 內容에 있어서 徹底히 作用하여 왔다.

즉 이러한 事實은 “만약 南韓의 民族 「부르조아지」가 우리들의 社會主義 建設을 그만 두어야만 統一戰線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統一戰線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날 南韓人民들과 統一戰線을 하는 것은 社會主義 革命을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達成함으로써 우리가 目的하는 社會主義 建設을 全國적으로 實現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소위 金日成의 發言에서 直接 느낄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北傀가 提示한 모든 統一方案은 其實 韓民族의 統一實現을 위하여 誠實한 態度에서 提起된 解決方案이 아니라 韓半島 全域에 共產主義 體制를 確立할 目的아래 能動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戰略 戰術的인 口號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多樣한 口號는 共產化 統一을 促進시킨다는 하나의 目的 意識이 恒常 作用하고 있으며 그 可能的인 情勢與件 造成에 커다란 意義를 두고 있었다. 大體로 北傀가 韓半島의 赤化가 可能하다고 判斷할 수 있는 情勢與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側面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北韓地域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徹底한 共產主義體制로 굳혀 놓고 一次的으로는 韓半

島를 共產化할 수 있는 基地로 만든다는 것과, 이것이 實現된 然後 漸進的으로 極東을 赤化할 수 있는 共產革命의 輸出 基地化 하는데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北傀는 소위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東方 哨所라는 點을 恒常 強調하고 있다.

둘째로, 南韓地域에서는 소위 統一戰線戰術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廣範한 階層을 一旦 하나의 攻擊目標에 接近시키고 漸進的으로 소위 反革命 階層을 除去하여 容共的인 政治力量이 擴大, 強化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세째로, 國際情勢 全般에 걸쳐서는 소위 國際 共產主義 運動이 最高潮에 達하게 되고 全般的으로 共產陣營이 優位性을 確保해야 한다는데 있다. 즉 이러한 세 가지의 對內·外的 要因이 結合된 時期가 바로 赤化統一이 實現될 수 있는 適期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要件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執拗한 努力을 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傀는 赤化統一을 實現하는데 必要한 手段을 두 가지 側面에서 同時에 찾고 있다. 즉 그것은 戰爭手段에 依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平和의 手段에 依存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觀點은 統一問題를 둘러싼 對內·外的 情勢의 全般的 趨勢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傀는 戰爭手段에 依存할 수 있는 時期를 <美國이 全世界에 걸쳐서 全面的인 侵略戰爭을 挑發했을 때>라는 一定한 時期性에 限定시켜 놓고 있으며, 이러한 全面戰爭 以外的 時期에는 平和的인 手段을 戰略的 口號로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平和的인 戰略體制는 嚴密히 몇 가지 問題에 있어서 明白한 定義를 賦與할 必要가 있다. 즉 北傀의 統一路線에 있어서 平和的인 戰略概念은 南北韓의 平和的인 共存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韓國이 現在까지 <帝國主義的 殖民地羈絆>에서 離脫하지 못하였다는 觀點에서 <民族解放運動>이라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이와 關聯하여 北傀의 戰爭觀과 平和的인 統一戰略은 다음과 같은 制限性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注目되고 있다. 즉 北傀는 “우리黨의 平和統一 路線은 無原則的인 平和”를 主張하고 <正義的 戰爭>이거나 <不正義的 戰爭>이거나 戰爭 全般을 拒否하는 「부르조아」平和主義와는 完全히 다르다. 또한 그것은 平和의 共存政策과도 아무런 共通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平和的 共存이라는 것은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의 相互關係에 關한 問題인 것이며 우리黨의 平和統一 政策은 우리民族 自體의 內部問題로서 <朝鮮革命> 遂行에 關한 方途와 關聯된 問題이다. (北傀 國立出版社 發行, 理論과 實踐 P. 258) 이와 같이 北傀는 비록 平和的인 統一戰略을 내세우면서도 民族解放 鬪爭이라는 名目下에 武力的 統一의 側面을 否定하지 않고 있으며 恒常 戰爭과 平和라는 二重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北傀가 平和的인 統一口號를 前面으로 強力하게 提示할 수록 內面的으로는 武力強化 問題도 相對的으로 強化하고 있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며 또한 民族解放鬪爭이라는 戰爭 可能性을 模索하고 있다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다. 이와 같은 基本的 立場은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發言에서 明白히 立證되고 있다. 즉 “黨과 政府가 平和的 統一의 「슬로간」을 높이 들면 들수록 人民軍隊는 自身의 戰鬥力을 보다 強化하고 思想的 準備를 보다 堅固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 人民軍隊의 戰鬥力이 弱화된다면 平和的 談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金日成選集 第5卷 P. 341)라고 하고있다. 이와 같이 北傀는 赤化統一 以外的 어떠한 統一도 否定하면서 그들의 窮極的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戰爭과 平和라는 두가

지 手段을 同時에 包容하는 戰略 原則을 驅使하고 있다. 그러므로 表面的으로 北傀는 外勢干涉을 排除한 民族의 自由的 統一原則을 내세우고 이와 關聯된 多様な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着眼點을 열두에 두면서 北傀의 統一方案史를 標榜과 底意를 對照하는 가운데 整理 檢討하려고 한다. 共產主義者들의 統一問題에 관한 言動과 策謀의 歷史를 더듬어 보는 것은 그들의 生理를 把握하는데 必須的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現在 進行中인 事態속에 趨勢를 概括해 보는 考察과 더불어 未來의 豫測을 蓋然的으로 나마 可能케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 民主基地에서 부터 傀儡集團으로의 形成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그 標榜上의 統一原則으로 첫째, 自主의 解決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歷史를 回顧해 보면 그 主張은 1947年 내지 1948年에 비로소 本格化됐으며 그 以前의 狀況은 判異했다는 事實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解放 當年 1945年 12月의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이른바 信託統治 方案이 策定되었을 무렵 이에 대한 北傀의 對應姿勢는 어느모로 보나 自由와는 距離가 멀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會合한 美·英·蘇外相들은 <朝鮮臨時政府> 構成을 援助할 目的으로 于先 該 適當한 方案을 案出하기 爲하여 當時 南朝鮮 美國管轄區와 北朝鮮 소련管轄區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를 設置하되, 委員會는 提案作成을 爲해 韓國의 民主主義的 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議할 것이며 <最高 5年 期限의 4個國 後見에 協約을 作成>하도록 豫見했었다. (1945年 12月 27日字) 이에 대하여 南韓 各地에서는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이 韓國人의 自主, 獨立精神에 違背되는 點을 指彈하는 大規模의 反託運動이 展開되었다. 그러나 北傀의 共產主義者들은 소련의 意思에 順從하려는 데서 그 곳에 번진 反託運動을 가혹하게 彈壓하였다. 한편 南韓의 共產主義者들은 最初의 反託運動에 加擔하다가 北傀의 贊託方針을 보자 態度를 突變하여 三相會議決定에 재빨리 順從하는 길을 택하였다.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 20日부터 서울에서 閉幕되었으나 結果的으로 是 아무런 成果도 達成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1947年 6月 26日에 이르러 소련側은 突然 共委席上에서 <1948年 初에 兩國 軍隊를 韓國으로부터 撤去시키고 韓國問題의 解決을 韓國人 自體에게 맡기자>는 趣旨의 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이 時期부터 北傀의 統一方案에는 하나의 轉換期가 到來하였는데 그것은 이른바 自主解決의 主張이었다. 元來 解放直後부터 北韓地域에 進入한 소련軍과 그곳 共產主義者들이 追求해 온 政策은 統一이 아닌 民主基地化 路線이었다. 이미 解放 4個月 후인 1945年 12月 17日 소위 朝鮮 共產黨 北朝鮮分局 中央 第3次 擴大執行委員會는 <北朝鮮을 統一的 民主獨立 國家建設을 爲한 強力한 政治 經濟 文化的 民主基地>로 轉換시킬 것을 決議한 바 있었다. 金日成은 “民主基地의 強化는 祖國統一의 決定的 擔保이다. 民主基地 強化에 대한 國號는 우리祖國이 統一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民主基地 路線은 두말할 것도 없이 소련 統制 部分에 衛星國을 確立하고 그 傀儡國家를 그 나라의 殘餘部分에 대한 支配權 確立을 爲한 作戰基地로서 利用하려는 共產化 政策의 表現이었다. 그리고 소련軍 庇護下에 1946年 7月 22日 平壤에서 結成된 소위 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戰線은 그 基本課業의 第1項에서 <朝鮮에 관한 「모스크바」 三相會議 決定을 徹底하게 實行하고, 韓國에서 長久한 日本統治의 惡毒한 結果를 肅清하는 同

時에 民主主義의 自由의 發展과 朝鮮獨立 및 國家發展을 保障한다>고 했으며 第2項에서는 <朝鮮解放後 人民의 創意로 組織된 眞正한 人民政權 機關인 人民委員會를 強化 發展시킨다>고 했다. 이와 같이 그들은 1946年頃부터 그 民主基地 建設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 轉換은 時期性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南北對比를 打算한 結果라고 判斷된다. 첫째는, 北傀의 武裝이 당시 韓國軍보다 앞서 있었다는 事實이다. 소련軍은 이미 1946年부터 保安部 訓練 등의 名目으로 將校養成을 서둘러 오다가 드디어 傀儡軍 創設의 一段落을 지였을 무렵이었다. 이에 비해 南韓에서는 武裝力量의 準備가 未備했던 것이 事實이었다. 둘째는, 소련軍政이 北韓에서 實施해온 間接統治로 말미암아 그동안 行政經驗을 쌓은 人民委員會의 統治力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1946年 2月 8日 發足한 臨時 人民委員會는 1947年 1月 27日을 기해 ‘臨時’ 字를 빼어버린 소위 北朝鮮人民委員會로 發展하게 되었다. 이와 배를 같이하여 소위 民主改革을 통해 反共人士들의 社會的, 經濟的 基盤을 송두리채 剝奪하고 있었으므로 政權 鞏固化 作業도 一段落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南韓의 경우는 美軍政廳의 直接的인 統治方法으로 因하여 韓國人 自身의 政治的, 行政的 組織이 瓦解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소련과 北傀側은 1947年에 軍事, 政治, 經濟面의 打算 끝에 그 時點에서 韓國問題를 自體解決에 맡기는 경우 共產側이 有利할 것으로 誤判했었다. 共產側 實力行使 底意가 明白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企圖를 制禦하고자 美國은 1947年 10月 17日字로 韓國問題를 「유엔」 第2次總會에 上程 移管하였다. 그리고 同年 11月 14日 「유엔」 第2次總會는 마침내 信託統治를 거치지 않는 韓國獨立과 「유엔」 監視下의 南北韓總選舉를 통한 韓國統一을 43對 0으로 決議하기에 이르렀다. 이 決議에 따라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이 1948年 1月 8日부터 入國하기 始作하였는데, 소련과 北傀는 1月 23日字로 委員團의 入北을 正式 拒否해 왔다. 結局 可能的 地域 즉 南韓단의 總選舉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자 南韓內의 中間派 政治人들은 民族分裂을 憂慮한다는 名分下에 單選 反對運動을 이르고 이 氣運을 奇貨로 南北協商을 呼訴해 왔다. ※ 南北協商에 관하여는 제1장 南勞黨 活動의 考察에서 言及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採擇된 聲明書 內容만을 記述하겠다.

(1) 南北朝鮮 諸政黨 社會團體 共同聲明書(1948年 4月 30日字)

韓國 單獨選舉를 反對하는 全朝鮮 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에 뒤이어 平壤市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4月 30日에 南北朝鮮 諸政黨 및 社會團體 指導者들의 協議가 進行되었다. 이 協議會에서 南韓 單獨選舉를 破綻시키는 問題와 함께 採擇된 兩國軍隊 撤收問題와 그 撤收實施 後에 當面하는 諸問題에 관하여 討議하였다. 이 協議會에서는 上程된 諸問題를 討議한 結果 指導者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諸問題에 대하여 協議가 成立되었다.

(가) 소련이 提議한 바와 같이 우리 疆土로부터 外國軍隊를 즉시 同時에 撤去하는 것은 우리 祖國에 造成된 現 情勢下에서 朝鮮問題를 解決하는 가장 正當하고 唯一한 方法이다. 日帝가 우리 祖國 疆土에서 驅逐된 이후 우리 朝鮮人民들은 自己 힘으로 外國의 干涉없이 우리 問題를 能히 解決할 수 있도록 長成되었으며 우리 祖國에는 이를 解決할 수 있는 準備된 幹部들이 多數있다.

(나) 南北 諸政黨 社會團體 指導者들은 우리 疆土에서 外國軍隊가 撤去한 以後에 內戰이 勃發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하며 또한 그들은 統一에 대한 朝鮮人民의 志望에 背馳되는 어떠한 無秩序의 發生도 容許하지 않을 것이다.

(다) 外國軍隊가 撤去한 이후에 諸政黨들의 共同名義로 全朝鮮政治會議를 召集하여 朝鮮人民의 各界 各層을 代表하는 民主主義 臨時政府가 즉시 樹立될 것이며 國家와 政權과 經濟, 文化生活의 一體責任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政府는 그 첫 課業으로서 一般的 直接的 平等的 秘密投票에 의하여 統一的 朝鮮 立法機關 選舉를 實施할 것이며, 選出된 立法機關은 朝鮮憲法을 制定하며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할 것이다.

(라) 本 聲明書에 署名한 政黨 社會團體들은 南朝鮮 單獨選舉의 結果를 결코 承認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러한 選舉에 의하여 樹立하려는 單獨政府를 결코 承認하지 않을 것이고 支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外國軍隊를 同時 撤去시키면 自己力量으로 모든 問題를 解決하고 南韓選舉를 反對한다는 데 集約시켰다. 그러나 한달도 못되어 南韓에서는 유엔 監視下에 總選舉가 實施되었고 이어서 5月 31日의 制憲國會의 開院, 7月 17日의 制憲을 거쳐 8月 15日에는 大韓民國政府樹立이 宣布되었다. 이와 같이 北傀 主導下에 마련된 南北協商會議의 4·30宣言에 表現된 統一方案은 北傀 民主化 基地의 相對的인 強力性을 前提로 한데서 立案되었다. 南北協商 직후 平壤에서는 5·1節 閱兵式이 舉行되었던 바, 그때 이미 戰車와 重砲를 가진 傀儡軍이 行進하고 있었다. 傀儡軍은 當時에 벌써 約 2年間의 集團訓練을 쌓고 있었으며 兵力은 15萬으로 推算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南韓에서는 美軍이 撤收할 경우, 그 軍事力은 거의 空白狀態를 띠기 어려웠던 것이며 그點을 北傀가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觀察할 수 있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은 單選 非難運動을 통해 南北分裂의 責任을 南韓에 轉嫁시키고 나서 그들 自身の 集團樹立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1948年 8月 25日에는 이른바 南北 總選舉가 造作되었고 9月 2日에는 朝鮮 最高人民會議를 召集하였으며 9月 8日의 憲法 採擇을 거쳐 그 翌日인 9月 9日을 期해 소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樹立>을 宣布하였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北傀의 다음 課題는 ① 南韓에서의 美軍撤收 促求와 ② 「게릴라」 活動을 통한 政府 顛覆工作 및 武力統一 準備로 集中되었다. 1949年 6月 25日 소위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이 結成되었는데 그 綱領은 第1條에서 美軍撤收와 「유엔」委員團 解體를 主張했고 第2條에서는 <反逆者들을 反對하여 祖國의 統一을 急速히 達成하기 위한 鬭爭에 人民들의 總力量을 動員한다>고 했다. 또 祖統 宣言書는 <平和的 統一事業을 朝鮮人民이 自己手에 들어 쥐고 우리人民 自體로 반드시 實踐하자>고 했으며 <立法機關 選舉는 1949年 9월에 實施하자고 하였다. <人民抗爭과 鬮지산 運動 鎮壓에 參與했던 者들에게는 軍隊에 服務하는 것을 禁止하며 彈壓을 煽動한 者들과 組織한 者들은 處罰할 것>이라고 豪言壯談했지만 그들의 「스케줄」은 허황한 情勢判斷에 不過했던 것임이 곧 明白히 되었다.

다. 共產挑發에 의한 武力統一 方案의 實驗

武力 南侵의 해인 1950년에 이르자 北傀의 統一攻勢는 진박감을 더하게 되었다. 1950年 6月 7日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擴大會議는 그 決定書에서 <8月 5일부터 8日까지의 사이에 總選舉를 實施한다>고 自信을 披瀝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總選舉에서 選出된 最高 立法機關의

會議을 8月 15日 서울에서 召集>한다고 까지 했다. 소위 南朝鮮 勞動黨의 地下工作 및 人民 遊擊活動에 대한 誇張報告를 輕率하게 믿었던지, 혹은 武力南侵 前夜에 南北 共產主義者들의 士氣를 막판에 昂揚시키려 했던 것인지 그들의 極言의 바탕은 아직 分明치 않다. 南侵을 約 1週日 앞둔 1950年 6月 19日에는 北傀의 소위 最高 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名義로 韓國의 國會에 대하여 색다른 平和統一 方案이 提起되어 왔다. 그 內容은 最高人民會議와 韓國의 國會를 合同하여 單一한 全朝鮮 立法機關으로서 召集하는 方法으로 統一을 實現하자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北傀의 最高 人民會議는 애당초 그 構造原理로 보나 實際機能으로 보나 우리의 國會와는 本質적으로 다른 統治機關이다. 우선 原理面에서 그것은 三權分立의 前提를 否定하고 있으며 또 基本權 保障, 言論自由, 複數政黨 制度를 外面하고 있다. 機能面으로 말하면 그것은 代表的 機能에서 自由로운 選舉로 登場한 것이 아니며, 審議的 機能으로 볼때에, 共產黨의 事前決定을 박수갈채리에 全적으로 追從하는 御用道具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6·19提案은 武力南侵計劃이 現實的 日程에 올랐을 무렵에 共產主義者들이 構想해 낸 政治的 煙幕에 不過했음이 곧 判明되었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武力 不法南侵을 敢行함으로써 北傀의 平和統一 底意는 萬天下에 暴露되고 말았다. 그런데 韓國戰爭에서 北傀軍이 鴨綠江線까지 敗退하는 마당에 1950年 10月 25日부터는 소위 中國人民 支援軍이 投入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中共軍 服裝을 한 소련軍의 防空部隊가 北韓 各地에 進入하였다. 이어서 1951年 6月 23日 「유엔」소련代表인 「말리크」가 돌연 韓國休戰 談判 開始를 提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狀況은 北方 三角關係를 確認케 하였으나 1962년부터 表面化한 中·소紛爭의 深刻化로 오늘날의 現實은 判異하겠음 되어 있다. 어쨌든 韓國 休戰協定은 1953年 7月 27日에 締結되었고 共產側이 挑發했던 韓國戰爭의 實驗結果는 그들에게도 武力統一 方案의 虛妄性을 일단 證明해 준 것으로 看做되었다. 休戰協定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등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高級 政治會談 召集을 豫見하고 있었다.

라. 戰後復舊 期間의 統一政策

韓國 統一問題를 「유엔」밖에서 다룬 大規模의 國際會議인 「제네바」政治會議는 1954年 4月 26日부터 約 4個月間에 걸쳐 開催되었으나 아무런 合意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共產黨은 當面 急先務로서 民主基地 再建을 위한 戰後復舊에 重要的 관심이 있었을 뿐이며 平和統一에 관해서는 具體的인 誠意表明이 없었다. 그들은 「제네바」會談을 政治宣傳 舞臺化하려 했던 것이며 會談 數日前인 4月 20日字로 最高人民會議는 戰後 人民經濟 復舊發展 3個年計劃에 관한 法令을 採擇하고 있었다. (1) 南日 北傀 外務相 演說에 表現된 平和統一 方案(1954年 7月 27日字) (가)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政府와 大韓民國 政府에 다음과 같이 勸告한다.

1) 全 朝鮮 住民의 自由로운 意思表示의 基礎위에서 朝鮮의 統一政府를 形成할 國會의 總選舉를 實施할 것.

2) 朝鮮國會의 自由 總選舉를 準備 實施하여 南北朝鮮 間에 經濟 및 文化的 接近에 대한 緊急한 措置를 取하기 위하여 朝人共 最高人民會議와 大韓民國 國會에 의하여 각각 選出된 南北 朝鮮代表로서 全朝鮮委員會를 組織할 것. 이 委員會는 南北朝鮮의 가장 큰 民主主義的 社會團體의 代表들도

包含되어야 한다.

3) 全朝鮮委員會의 當面한 課業中의 하나는 外國干涉과 地方政權 當面 및 「테러 그룹」들의 選舉民들에 대한 壓力을 除外하는 自由雰圍氣에서 實施할 수 있는 選舉의 眞實한 民主主義的 性格을 保障하는 總選舉法 草案을 準備하는 것임을 豫見하고 있다. 委員會는 또한 朝鮮住民에게 그들의 政治的 見解, 性別, 宗教 및 民族別을 不問하고 立法機關에 立候補者들을 推薦할 自由를 保障할 必要한 對策들을 取해야 한다.

4) 朝鮮의 民族的 統一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條件들을 지워줌에 重要한 一步로 되는 朝鮮의 經濟 復舊에 도움을 주고 朝鮮人民의 物質的 福利를 向上시키며 民族文化를 保障 發展시킬 目的으로 全朝鮮委員會는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과 大韓民國 間에 經濟的 및 文化的 交流 즉 通商, 財政會計, 運輸, 住民의 通行, 思想의 自由, 文化·科學交流 기타를 好轉的으로 發展시킬 計劃을 直接 取할 것, (나) 6個月의 期間內에 朝鮮 地域으로부터 일체 外國武力의 撤去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것, (다) 極東에서 平和維持에 가장 觀心이 큰 當該 國家들 側으로부터 朝鮮의 平和的 發展을 保障하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朝鮮을 單一 獨立國家로 平和的으로 統一시킨 課業의 急速한 解決에 도움이 될 條件을 지워줄 必要性을 認定할 것. 南 日의 이와같은 提案은 애당초 自由陣營側이 받아 들이려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것같은 宣傳의 「게스추어」로 看做되었다. 즉 첫째, 그의 全朝鮮委員會 構想은 人口面의 格差를 度外視한 南北 對策의 主張인 同時에 民主主義的 社會團體를 云謂함으로써 美·소 共委時代의 소련側 말썽을 再演하려는 意圖을 內包하고 있었으며 둘째, 外國의 不干涉으로 유엔을 逐出하려는 底意라고 解釋되었고 그들만이 北方에 隣接한 共產大國들의 影響을 一般的으로 驅使하려는 打算이 있으며 셋째, 自由雰圍氣의 要求란 北傀로서는 沒廉恥한 主張으로서 當時에 北韓을 翫 쓴 것은 史上有來없는 恐怖 雰圍氣였다는 點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戰爭直後의 交流란 非現實的인 問題로서 이것은 地下黨 再建意圖의 方向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다섯째, 6個月 期限內의 外軍撤收는 50년에 가까운 經驗이 證明했듯이 戰爭再發의 危險性을 內包했으며 이 경우에 北傀는 소련 中共이 隣接國家라는 利點을 罣두어 둔 것으로 觀察되었다. 드디어 大韓民國을 包含한 參戰 16個國은 共產側의 無誠意한 宣傳의 主張을 더 以上 傾聽할 必要를 느끼지 않게 됨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共同 聲明書를 發表하였으며 結局「제네바」會談은 決裂되고 말았다. 自由陣營 參戰國들은 統一된 民主韓國을 樹立할 수 있는 基本原則으로서 첫째, 「유엔」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爲해 調査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充分하고도 正當한 모든 權限이 賦與되어 있다는 點. 둘째, 統一 獨立 民主韓國樹立을 目的으로 한 國會議員 選出方法은 「유엔」監視下에 土着人口 比例 南北總選舉를 하여야 한다는 點을 再確認하였다. 그리고 「유엔」 第9次 總會는 1954年 11月 11日字로 參戰 16個國의 報告書를 承認하고 유엔이 韓國問題에서 추구하는 目的은 代議政體下의 統一 獨立 民主韓國을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하고 同 地域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있다고 確認하였다. 한편 北傀側은 休戰 直後부터 소위 戰後 <人民經濟 復舊 發展>이 當面課業으로 提起되어 이어서 當장에 統一에 對한 積極的 意慾은 없으면서도 將來를 내다보려는 心理作戰 效果를 노리는데서 間歇的인 平和統一 攻勢를

展開해 왔다. 1954年 6月 22日字의 祖國統一 民主主義 戰線 中央委員會 第38次 會談 呼訴文도 朝鮮 사람끼리 自己 內政을 平和의 方法 즉 協商과 會談의 方法으로 解決하자고 主張하고 나서 계속 努力할 것을 다짐하는 程度로 끝났다. 1956年에 이르러 北傀는 戰後 人民經濟 復舊 發展 3個年計劃을 完了하고 第1次 5個年計劃을 策定 했는데, 이 時期부터 그들의 平和統一 攻勢는 漸次로 活氣를 띠기 시작하였다.

(2) 朝鮮 勞動黨 第三次大會 決定書에 나타난 統一方案 (1956年 4月 29日字) (가) 南半部에서의 黨이 當面한 鬭爭口號의 하나는 住民들의 民主主義的 權利를 爭取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 決定書는 統一戰略을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이라고 前提하고 있다. (나) 統一戰線을 結成하기 위하여 계속 鬭爭하여야 한다. (다) 南北間의 接觸과 統一問題에 이르기까지 討議할 常設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主張한다. (라)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停戰을 鞏固化한 平和에로 發展 轉換시키며 美國 軍隊를 비롯한 其他 外國軍隊를 撤收시키고, 南北韓 政府가 參加하는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國際會議가 召集되므로 諸般 條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積極 努力할 것이다. 當時에 있어서 北傀는 革命을 基本戰略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前提條件을 造成하려고 애쓰는 데서 딱 平和的인 「뉘앙스」를 感觸케 하였다. 北傀는 마치 民主的 權利의 保障이 있고 그것이 南韓에서만 缺如된 양으로 表現한 것은 容共 政黨活動의 自由를 保障하라는 要求나 다름없으며, 또한 南韓內에서 <民主> 要求를 圍繞한 紛糾가 發展할 것을 期待한 것 같다. 停戰을 鞏固化한 平和에도 發展시킨다는 것은 후에 第4次 黨大會 때에도 發見되지 않은 要旨로서 北傀의 當時 속셈이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舊 自由黨 政權의 北進統一 主張을 孤立化시키려는 打算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國際會議를 召集하자고 한 것은 自由的 解決主張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지 그 당시에는 하등 밝혀진 바 없었다. 當時 李承晩 大統領의 北進統一 내지 南韓단의 總選舉 實施 主張에 대한 懷疑論이 점고하는 마당에서 北傀側은 平和統一 主張을 專賣特許인 양 되풀이 할 수 있었다. 그들은 1958年 2月 5日字로 이른바 4個項 統一方案을 提示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南北에 와있는 外國軍隊의 同時撤收, 둘째, 中立國監視下의 全國 總選舉, 參戰國 自由友邦들의 主張인 「유엔」監視下의 土着 人口比例 南北 總選舉에 對峙시켜 中立國 監視下에 地域對等 南北 總選舉를 내 세웠다. 셋째, 南北間의 經濟, 文化, 書信交流 넷째, 南北軍隊의 減縮 이어서 2月 15日字로 발표된 中共首相 周恩來와 金日成의 共同聲明書는 同年(1958年)末까지 소위 中共 支援軍을 北韓에서 完全히 撤收시킨다고 했으며, 그것은 實踐에 옮겨 졌지만 일단 有事時에 中共軍의 迅速한 再介入 可能性은 國境이 隣接해 있다는 事情의 想起 하나만으로도 足한 것이었다. 中共 志願軍은 10月 26日 鴨綠江을 일단 渡下하였다고 하는데, 28日 平壤에서 유엔軍의 즉시 撤收를 要求하는 소위 政府聲明이라는 것이 發表되었다.

다. 4·19以後의 聯邦制 統一方案

韓國情勢는 不幸하게도 第4代 正·副統領 選舉를 앞두고 國民의 支持에 自身을 잃고 舊自由黨 政權의 不正選舉 劃策說로 어수선 하였다. 드디어 3·15 馬山義舉를 契機로 4·19가 到來하였다. 그러나

4·19 義舉의 참된 精神은 民主主義를 바로잡고 共產主義를 打倒하라는 主口號에서 明白하였다. 北傀는 4·19에 즈음하여 南韓地域의 一時的 混亂을 赤化工作에 利用하고자 광분하였고, 또한 4·19義舉 自體가 北傀側의 影響下에 惹起된 것 처럼 國內外에 印象을 줌으로써 北傀는 自身の 聲望을 高潮시키려고 試圖하였으나, 그 어느 한가지의 試圖였던 間에 南韓內에 있어서의 北傀地下黨이 存在하지 못하였다는데서 完全히 水泡로 돌아갔다. 當時 소위 朝鮮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發表한 <南朝鮮에 造成된 現事態에 關聯한 呼訴文> (1960年 4月 21日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지만 그 宣傳效果는 全然 空虛하였다. 즉 <南朝鮮 一帶에 非常戒嚴令이 宣布되고, 社會秩序는 極度の 混亂에 빠졌다. … 美帝의 南朝鮮 獨占이 南朝鮮에서 누가 政權을 잡아도 造成된 深刻한 政治的 危機와 經濟的 破局은 수습할 수 없다. 北半部에 依支하지 않고서는 여지없이 破産된 南朝鮮經濟를 復舊할 수 없으며 極度に 達한 南朝鮮人民들의 悲慘한 生活處地를 改善할 수 없다. 南北이 모여 앉아 하루 速히 協商하자…… 平和統一은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이 全體 朝鮮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의한 南北朝鮮 總選舉를 通하여 實現되어야 한다. 이러한 呼訴文은 두말할 것도 없이 素朴한 黨外大衆을 眩惑시키려는 宣傳的 文獻에 不過하였다. 北傀의 眞意는 그들의 黨內文獻 특히 勞動黨 中央委員會 理論機關紙인 《勤勞者》(1960年 第5號)에 系統的으로 풀이 되고 있다. 그 要旨는 그들이 말하는 <4月 人民蜂起>가 <美帝와 李承晩集團을 反對하는 鬭爭>이어야 함에도 큰 成果를 올리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理由는 <黨에 의한 社會主義的, 階級意識의 鼓吹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들은 地下黨의 消滅을 嚮嘆하면서 <指導者의 缺如와 組織性 意識性의 微弱>으로 말미암아 人民抗爭이 아직 革命的 進出에 까지 發展 못한 <責任>은 黨組織을 敵에게 넘겨주고 完全히 破壞하였다는 朴愼求, 李承燁 등에게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높은 段階에의 鬭爭>을 再開하기 위하여 <基本群衆의 각성과 鬭爭에 있어서의 大衆의 組織性 意識性>이 要求된다고 하였는 바, 再言하면 <革命 先行條件으로서 地下共產黨 再建의 必要性>을 力說한 것이다. 이어서 소위 北傀 政治權의 內閣首相이며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委員長인 金日成은 8·15解放 15週年 慶祝大會 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平和統一 方案을 提示하였다. (가)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實施할 것. (나) 아직 南朝鮮 當局이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즉 南朝鮮에 存在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 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朝鮮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다) 萬一 上記 提案들을 南朝鮮 政府 當局이 同意치 않는다면 南北朝鮮 實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순전한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 것. (라) 南北朝鮮 文化 使節의 來往과 科學, 文化, 藝術, 體育 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를 다시 한번 提案한다. (마) 南朝鮮에서 美軍의 撤去를 要求하며 南北朝鮮 軍隊를 각각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少할 것을 提案한다. (사) 以上の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會議할 수 있기를 提案한다. 金日成의 이와 같은 提案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聯邦制의 主張과 그에 따르는 소위 <最高 民族委員會> 構成에 관한 提議라 할 것이다. 黨의 統一原則으로 革命을 念頭

에 두면서 聯邦制가 만약에 받아들여 진다면 그것은 共產革命의 보다 더 順調로운 條件 形成이라고 看做했다. 이와 같은 소위 聯邦制 統一方案에는 그 自體로서도 奸巧한 陰謀와 矛盾을 허다히 內包하고 있었다. 第1項에서 外國干涉을 排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現段階에서는 戰犯 集團인 北傀側으로 하여금 扶雜과 暴力的 發動時에 牽制나 監視를 免除받게 하는 結果를 招來할 뿐이다. 또한 自由選舉를 主張하였는 바, 北傀가 그토록 誠意가 있다면 南北 總選舉에 앞서 우선 北傀의 現行選舉에서나마 自由 雰圍氣를 保障하고 惡名 높은 單一 立候補制 또는 黑白函 投票制를 걷어 치워야 할 것이다. 第2項에서는 聯邦制를 云謂하였지만 兩極의 2個의 政治制度가 하나의 聯邦內에 和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反面, 相互間에 數百萬의 犧牲者를 내기한 戰爭犯罪 集團과의 소위 最高 民族委員會 構成도 語不成說이다. 北傀는 共產破壞 活動과 革命的 對南工作의 새로운 機會와 새로운 進行을 企圖한데 不過했다. 기타 提案으로 보더라도 最少한 北傀에서의 6·25戰犯 集團의 退去와 金日成과 「스타린」主義制의 內部變化를 우선 先行條件으로 하지 않는 限 首肯될 수 없다. 同年 11月 22日에는 소위 最高人民會議 第2期 第8次會議가 金日成의 提案을 되풀이 하였다. 北傀 共產黨 獨裁體制下에서는 各種 機構團體에서 내놓는 여러가지 呼訴는 結局 根源的으로 보아 共產黨 決議에서 일어나오는 千遍一律式 反復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參考事項으로서는 北傀側 文獻을 考察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그룹」을 對象으로 하여 論述되었는가의 與否부터 檢討할 必要가 있다. 예를들어 一般大衆이나 外交舞臺가 對象일 경우에는 共產黨의 眞意를 좀처럼 反映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共產主義者들 自體 內部에서 思想武裝 내지는 戰鬪指針으로 論述된 黨內文獻이라야 비로소 北傀의 眞意를 分析 把握할 수 있게 된다.

바. 5·16 以後의 三段階 統一戰略

4·19義擧의 成功은 韓國에서 民主主義의 價値意識을 昂揚 普遍化하는데 크게 寄與하였고 官僚主義 統治方式과 이른바 賤民思想을 拂拭하는데도 적지 않은 作用을 이룩해 놓았다. 그러나 그 反面에 義擧時에 街頭進出 및 抗議의 主役이 되다시피한 一部學生의 無分別한 過剩行動과 「테모」萬能思想을 誘發한 듯한 印象도 없지 않았다. 個中에는 自由와 放恣의 分別이 모호한 듯한 脫線도 觀察되었는데, 同年의 7·29總選을 거쳐 새로 執權한 舊民主黨 政治人들은 秩序의 維持와 改革의 推進에서 가끔 腐敗無能의 評判을 自招하면서도 派爭에 寧日이 없는 듯한 非難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기야 當時의 指導的 政治人들은 民主主義의 原理를 내세우는데는 그후에 급급하지 않았으나 民主政治 運營의 社會 經濟的 基盤인 中產階層의 安定된 主軸勢力으로써의 健在를 缺如한 處地였다. 거기에서 韓國에서는 國內政治에 대한 幻滅이 곧 統一運動으로 噴出口를 찾기 쉬운 社會 心理的 傾向이 두드러져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相當數의 革新 政治人들과 一部學生 및 言論人 中에는 中立的·容共的·反美的이라고 指目되기도 하였던 非現實的 統一運動을 벌였던 바, 結局은 國內의 「엘리트」들이 事態의 歸趨를 날카롭게 注視하는데 이르렀다. 마침내 1961年 5月 16日에 軍事革命이 到來하였다. 그 革命公約의 第1項은 <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號에만 그친 反共態勢를 再整備 強化한다>고 했으며 第5項에서는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한다>고 다짐하였다. 勝共實力 培養을 위한 經濟建設, 民主的 主體力量的 形成, 國際地位의 向上 등은 切迫한 課題라고 생각되었다. 當時 北傀는 5.16革命에 의하여 軍事政府가 樹立되자 當初에는 事態의 真相조차 제대로 把握 못할만치 당황했었다. 그러나 5月 16日 午前中에 平壤放送에서는 革命을 鼓舞的인 것으로 報道하다가 새 政權이 反張勉(民主黨政權 當時 國務總理)의이며 同時에 그 以上の 反共的인 것을 알게된 下午부터는 가장 혹독한 非難을 퍼붓기 시작했다. 北傀는 韓國에 反共的 軍事政府가 樹立되었으니 北進이 우려된다고 크게 驚愕하였다. 그후 遑急하게 「모스크바」를 訪問한 金日成은 7月 6日字로 소련과 더불어 軍事同盟 條約을 締結하였다. <友如協力 및 互相協助條件>이라는 이름을 가진 條約의 第1條에는 <兩 締結國의 一方이 어떤 國家, 또 國家聯合으로부터 軍事攻擊을 받아 戰爭狀態에 들어간 경우 他方은 즉각 그가 保有하는 모든 手段을 가지고 軍事的 또는 그밖의 援助를 賦與할 것인 바>라고 했다. 이 締結은 10年을 期限으로 하되 期間滿了 1年前에 條約廢棄에 관한 希望이 表明되지 않을 경우에 5年을 더 延長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호루시초프」 소련 首相은 條約 締結日의 演說을 통해 <南朝鮮의 事變은 그 나라에서의 公然한 軍事「靑島」獨裁의 樹立이 朝鮮半島의 情勢를 加一층 激化시켰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고 強調하였다. 그후 곧 이어 金日成은 北京을 訪問하고 類以한 軍事同盟 條約을 締結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그 有効期間이 無期限으로 되어있다. 소련은 될수록 빨리 <프리 핸드>로 될 것을 願하는데 비해 中共은 韓半島 情勢에 보다 더 切實한 關心을 表明하면서 北傀에게 보다 많은 善心을 베푼 것이었다. 물론 金日成의 그와 같은 軍事同盟 條約締結은 얼핏보아 神經過敏的인 恐怖心理로 因한 情勢判斷의 誤謬의 表現같기도 하지만 어찌는 北傀가 勞動黨 第1次 黨大會 宣言文에서 다짐했던 바를 스스로 背信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1956年 4月 28日字의 소위 朝鮮 勞動黨 第3次大會 宣言文은 <우리祖國의 如何한 一部分도 外國과의 軍事同盟에 誘引되어서는 안되며 外國勢力에 의한 隸屬狀態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1961년에 이르러 그들은 自己 스스로의 約束을 自己行動으로 背反하였다. 休戰線 北方에서 三角 軍事同盟이 締結된 2個月 후인 1961年 9月 11日에 소위 朝鮮 勞動黨 第4次大會가 開幕되었다. 이때 北傀는 첫째, 軍事同盟 締結로 因한 安心感 둘째, 소위 5個年 經濟計劃을 完遂하고 7個年計劃으로 進入하게 된 마당에서의 經濟建設面의 相對的인 自信心을 가졌던 모양이며, 또한 對南工作에서는 從前과 같은 右和의 偽裝이 通用되지 않는다는 것을 判斷하여 強硬一邊倒의 統一政策을 前面에 내 세웠다. (1) 勞動黨 第4次大會 決定書에 나타난 統一戰略 (1961年 9月 17日) (가) <南朝鮮 人民들이 民族解放 民主主義革命에서 勝利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指針으로 하여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廣範한 勤勞大衆의 利益을 代表하는 革命的 黨을 가져야 한다> (나) <南朝鮮에서 勞動者, 農民, 都市 小「부르조아지」, 青年, 學生, 知識人 그리고 民族「부르조아지」를 包含하는 廣範한 反美救國 統一戰線을 結成하는 것이 緊要하다> (다) 이리하여 自主的 平和 統一의 旗幟 밑에 南朝鮮의 모든 愛國的 民主主義的 力量을 集結시켜야 하며 이 力量과 北朝鮮의 愛國的 社會主義的 力量과의 團合을 이룩하여야 한다> 北傀의 共產主義者들은 이때부터 첫째, 南韓에서의 地下黨 組織의 擴大, 둘째, 地下黨을 核心으로 反美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權鬭爭 셋째, 南北

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거치는 赤化統一의 實現이라는 소위 <3段階 統一戰略>을 세웠는 바 이와 같은 戰略은 現今에도 變함이 없다. 金日成은 1965年 4月 14日 「인도네시아」訪問中 그 當時에 全盛을 자랑하던 PKI 分子들을 앞에 놓고 國際共產主義者들에게의 PR을 念頭에 두고 「알티 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 政治學 講演을 한 바 있었는데, 그 때에도 統一原則을 革命으로 풀이하면서 3段階 戰略을 되풀이 하였다. 이어서 金日成은 1966年 10月 5日에 平壤에서 開幕된 소위 <朝鮮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역시 똑같은 3段階 戰略을 反復해 強調하였다. 그후 1968年 1月 21日 金新朝 一黨의 共匪 서울侵入과, 同 23日 美艦 「프에볼로」號 拉致事件등의 一連의 事態는 北傀가 이 3段階 戰略의 促成에 얼마나 燥急하고 있는지를 露出시키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이와 같은 暴力 革命 方式의 統一戰略에 대하여서는 北傀 共產主義者들 間에도 懷疑論이 적지 않았다. 그 懷疑論은 첫째, 南北平和 共存論 둘째, 中立化 統一論으로 表現되었는 바, 金日成은 이들을 無慈悲한 속칭으로 다스렸지만 그러한 氣運은 將次 어느 한 時期에 이르러 金日成 集團에 抗拒하는 反體制 運動이 展開될 것이 豫測된다. 金日成 傘下의 勞動黨 幹部 金會日은 南北共存論을 가르켜 革命에 대한 背信이라고 하였다. 金日成 自身은 <北半部에서나 革命을 하고 우리끼리나 살자고 생각>하는 것은 <自殺이나 마찬가지>라고 排擊하였다. 또한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機關紙 《青年生活》의 1958年 5月號에서는 <反黨 反革命分子>들이 <우리나라를 中立國으로 만들려는 反逆의 策動들을 敢行>하였다고 非難하였다. 이렇듯 金日成의 革命的 統一戰略이 그들의 黨內에서조차 非現實의인 것이라고 批判되고 있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價値가 있다. 北傀의 金日成 集團體制는 中·蘇紛糾에 즈음한 中共 傾斜期를 前後하여 허울좋은 主體思想을 提唱(55年이후)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動搖는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團結 崩壞期에 不可避의인 現象이라고 觀察할 수 있다. 그것과 아울러 赤化統一 戰略이 거듭 挫折되어 日益 北傀 金日成 體制는 本格的인 內部變化가 到來할 것으로 展望된다. 여기에서 參考로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나타난 統一方案의 要旨를 記述하겠다.

2.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나타난 統一方案(1961年 9月 17日)

(가) 祖國의 平和統一은 美軍을 撤去시키고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없이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韓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하는 方法으로 實施되어야 한다. (나) 總選舉를 앞두고 반드시 人民大衆의 民主主義의 權利와 自由가 保障되어야 한다. (다) 總選舉에 앞서 반드시 南北朝鮮의 모든 政黨 社會團體들과 個別의 人士들이 全朝鮮 어느 地域에서나 政治活動을 進行할 完全한 自由를 가져야 한다. (라) 總選舉는 반드시 一般的이고 平等的이어야 하며 投票의 秘密을 徹底히 保障하는 民主主義의 選舉가 되어야 한다. (마)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필기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過去, 여하한 階級的 處地, 社會的 地位, 政見과 信仰의 如何를 不問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소위 北傀의 統一方案에서 注目되는 것은 平和統一이라는 하나의 目標에 모든 階層을 한 곳으로 묶어 보려는 統一戰線術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를 莫論하고 赤化過程에서 가장 重要하게 提起되는 問題가 바로 統一戰線 技術이기 때문이다.

第 2 章 北傀 對南工作 樣相의 變遷過程

1. 北傀의 對南 基本政策

가. 基本目標

- (1) 共產化 革命 南北統一
- (2) 소위 北傀 勞動黨規約

1961年 9月 18日자로 第4次 黨大會에서 修正 採擇된 소위 朝鮮勞動黨 規約의 前文에는 <朝鮮勞動黨의 當面 目的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 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示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北에서는 社會主義 建設을 하고 南에서는 革命을 하는 것이 北傀의 當面 目標이다. 同時에 그들의 第4次 黨大會 決定書에 나타난 統一戰略은

첫째, 南韓에서의 共產地下黨의 組織

둘째, 反美救國統一戰線의 結成 및 奪權鬭爭

셋째,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통한 共產化 統一의 實現이라는 段階的 統一戰略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그 後의 黨內文獻도 全く 이러한 點을 強調하고 있다.

나. 南韓革命의 性格

北傀는 南韓革命의 性格을 다음의 세 가지로 規定하고 있다.

- (1) 反帝國主義 革命
- (2) 反封建主義 革命
- (3) 人民民主主義 革命

다. 革命戰略

(1) 民主基地化 路線

8.15解放 直後부터 北韓地域에 進入한 소련軍과 그 地域 共產主義者들이 追求해 온 政策은 統一이 아닌 <民主基地化 路線>이었다. 이미 解放 4個月 후인 1945年 12月 17日 소위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中央 第3次 擴大執行委員會는 <北朝鮮을 統一的 民主獨立國家 建設을 위한 強力한 政治 經濟, 文化的 民主基地>로 轉換시킬 것을 決議한 바 있다. 金日成은 “民主基地의 強化는 祖國統一의 決定的 擔保이다. 民主基地 強化에 대한 口號는 우리 祖國이 統一될 때 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民主基地化 路線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소련軍 統制地域에 共產衛星國을 먼저 樹立하고 그

傀儡政權을 그 나라의 殘餘部分에 대한 支配權 確立의 作戰(革命) 基地로 利用하려는 共產化 政策인 것이다. 즉 北韓地域을 政治·經濟·軍事的으로 철저한 共產主義體制로 굳혀 놓고 一次의으로는 韓半島를 共產化할 수 있는 革命基地로 만든 후, 이것이 實現된 然後에 漸進的으로 極東을 赤化할 수 있는 共產革命的 輸出基地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北傀는 소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東方 哨所>라는 點을 항상 強調하고 있다.

(2) 國際的 優位性 確保(外交攻勢 強化)

北傀는 共產主義國家 陣營과 中立 國家 또는 一部 自由陣營 國家와의 유대를 公고히 하여 國際社會속에서 韓國보다 優位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外交攻勢를 強化하고, 또한 國際社會 全般에 걸쳐서는 소위 國際共產主義運動이 最高潮에 達하게 되고 全般的으로 共產陣營이 優位性을 確保함으로써 北傀는 國際的인 支援勢力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다.

(3) 決定的 時期 造成

北傀가 決定的 時期로 規定하는 것은,

첫째, 南韓內에 反政府的인 氣運이 造成되고 親共的인 色彩의 氣運이 감돌거나 그런 氣運이 폭발했을 때,

둘째, 北傀의 南韓赤化를 위한 自體內의 政治·經濟·軍事的 力量이 強化되고 南韓의 反政府的 運動을 支援할 수 있을 때,

셋째, 國際共產主義 勢力이 強化된 反面 自由世界의 힘이 北傀의 南韓侵略을 즉각 沮止시키는 措置를 取하지 못할 환경에 있을 때 등의 條件이다.

이러한 理論에 입각하여 北傀가 南韓에서 決定的인 時期를 造成하는데 있어서는 南韓地域에서 이른바 統一戰線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 광범한 階層을 일단 하나의 攻擊目標에 接近시키고 漸進的으로 소위 反革命階層을 除去하여 容共的인 政治力量이 擴大 強化됨으로써 北傀와의 직접적인 聯合戰線을 形成하려는 戰術을 쓰고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은 세 가지의 對內外的 要因이 結合된 時期가 바로 赤化統一이 實現될 수 있는 適期로 보고 있는 北傀는 이러한 要件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緊요한 努力을 加하고 있다.

이와같이 北傀는 赤化統一을 實現하는데 必要的인 手段을 두 가지 側面에서 同時에 찾고 있다. 即 그것은 戰爭手段에 依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平和的手段에 依存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觀點은 統一問題를 둘러싼 對內外的 情勢의 全般的 趨勢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다.

라. 對南戰術(形態)

北傀의 對南工作戰術은 다음의 세 가지로 集約된다.

- (1) 地下黨工作
- (2) 心理戰工作
- (3) 遊擊工作

2. 工作樣相의 概況 및 變遷時期 區分(段階)

가. 概 況

1945年 8月 15日 解放 후 金日成을 魁首로 하는 北傀集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南韓地域까지 併合 赤化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고, 地下黨組織과 「게릴라」 南派 등의 지속적인 對南攻勢를 취하고 있다. 最初에는 南韓地域이라는 緣故關係를 생각하여 주로 南勞黨을 中心으로 即 北勞黨의 前衛黨으로 對南工作을 展開하였으나 金日成은 6.25의 敗戰 責任을 영등하게 南勞黨에 전가시켜 그들을 全面的으로 肅清하는 殘虐한 手法을 썼다.

그後 金日成 一派는 이른바 民主(共産)基地 路線을 再確認하고 여기에 따른 韓國의 赤化를 企圖하는 그들의 野望을 버리지 않고, 再次 南韓에 北勞黨系를 主軸으로 하는 地下黨을 組織하기에 바빴다.

한편 軍需工場 특히 兵器生産에 狂奔하여 經濟·軍事力 強化 併進政策 遂行에 總動員한 金日成은 어느 정도 兵器生産 展望이 밝아지자 다시 武力南侵의 野慾이 생기어 對南工作을 가일층 強化하는 한편 1959年 부터는 모든 部分을 戰時體制로 整備하고 正規軍 外에 勞農赤衛隊 등 豫備軍까지 訓練시키기에 이르렀다.

4.19가 일어나고 한때 政局이 어수선 해지자, 金日成 一黨은 금시에 赤化統一이라도 達成되는 듯이 南韓地域을 統轄할 人的構成까지 서둘렀고 平和統一 攻勢를 強化하여 聯邦制案을 提議하는 등의 「제스츄어」까지 썼다.

그러나 5.16軍事革命이 일어나자 이에 당황한 金日成 一黨은 一切의 平和攻勢를 버리고 武力強化에 全력을 기울여 戰爭準備를 다해 왔다.

그러나 越南戰 支援의 餘裕까지 保有한 第三共和國의 實力에 制壓되었음은 물론 經濟가 高度로 成長되어 가는 韓國에 共産主義의 뿌리를 播種하는 것은 어려운 問題라고 豫側하고, 1968년에 들어 서면서 本格的으로 武裝共匪 南派 등 暴力戰術로 對南 積極攻勢를 취하였으나, 一元화된 強力한 組織과 南韓 國民들의 高潮된 反共思想과 防諜觀念으로 그들의 暴力戰術이 失敗로 돌아가자 1969년부터는 暴力戰術을 一時 後退시켜 地下黨工作으로 轉換되었다.

나. 工作樣相의 變遷時期 區分(段階)

지난 半世紀에 걸친 北傀의 악랄한 對南工作의 발자취를 그들의 主觀的, 客觀的인 側面을 配合하여 設定한 方向과 戰術的 面에 主眼을 두고 더듬어 볼때, 그것은 南韓情勢를 客觀的 基本的인 要件으로 하고 여기에 北傀 自體內에서의 要因들을 主觀的 附隨的으로 한 것이었다고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南韓情勢의 變遷過程에 適應시킨 北傀의 對南工作戰術의 變化關係를 段階別로 區分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第1段階 : 8.15解放부터 6.25南侵 前까지

이 期間은 武力侵攻 準備時期로서 南勞黨을 支援하여 <人民抗爭>을 造成하였다.

(2) 第2段階 : 6.25 動亂부터 1953年 休戰까지

이 期間은 戰爭挑發 時期로서 主攻掩護를 위한 第2戰線을 形成하려는데 있었다.

(3) 第3段階 : 休戰 後부터 4. 19前까지

이 期間은 平和統一攻勢의 時期로서 <平和統一方案> 提唱, 南北協商, 交流 등을 主張하였다.

(4) 第4段階 : 4. 19後부터 5. 16前까지

이 期間은 革命力量 造成時期로서 4. 19 義學의 高潮된 革命氣運 便乘, 共產革命의 遂行企圖, 地下黨 組織이 없음을 痛嘆 自我批判한 때이다.

(5) 第5段階 : 5. 16 後부터 1971年度까지

이 期間은 1971年까지 決定的 時期造成을 目標로 探索工作을 한 時期이다.

現在 北傀는 平和統一宣傳 手法의 無望性을 認識하고 決定的 時期 造成을 促進하는 手段으로서 그들의 暴力戰術 轉換에 의한 遊擊戰의 試圖와 地下黨 指導部의 形成을 企圖하고 있다.

3. 段階別 工作의 特徵

가. 第1段階 工作의 特徵(8. 15~6. 25)

(1) 工作의 特徵 및 失敗 原因

(가) 工作의 特徵

첫째, 6. 25 直前까지의 北傀의 對南工作은 兩面 作戰을 遂行한 것이었다. 即

① 地下黨工作을 劃策하여 決定的 時期를 造成하는 것.

② 遊擊戰을 敢行하기 위한 幹部를 養成하여 現地(南韓)에서의 活動을 指導케 한 것 이와 같은 兩面 作戰을 遂行하기 위하여 現地에서의 地下黨 工作을 南勞黨이 위주가 되어 遂行토록 하였고, 北傀는 遊擊戰 工作을 위한 幹部의 養成 南派 등으로 南勞黨의 活動을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支援하였다.

이와 같은 作戰은 北傀가 南勞黨을 前衛黨으로 利用한 것으로서 南北 勞動黨의 聯合工作 戰術이 었다.

둘째, 北傀는 南勞黨의 勢力擴張을 견제하기 위하여 北勞黨의 自體勢力을 扶植하기 위한 政治工作을 遂行하는 한편 南勞黨과는 別途로 獨自의인 對南 諜報工作을 敢行하였다.

세째, 北傀는 南侵準備를 위한 遊擊活動을 強化하는 한편 遊擊隊와 地下黨 組織과의 聯合戰線 形成을 試圖 하였다.

(나) 工作의 失敗 原因

첫째, 北傀는 南北勞動黨의 宗派性 때문에 南勞黨 系列(朴憲永)의 勢力和 南韓의 反共勢力에 대해 兩面 作戰을 敢行해야 했던 條件.

둘째, 上記와 같은 金日成 系列의 底意를 看破치 못한 朴憲永의 南勞黨 系列은 後日 金日成이 批判했듯이 共產主義運動의 發展過程(勞農階級의 共產主義的 敎養)을 度外視하고 自體力量을 考慮치 않은 無謀한 鬪爭을 本位로 한 自派勢力 擴大만을 劃策하였기 때문에 大衆的인 支持獲得에 失敗하였다.

세째, 이와 같은 <宗派鬪爭의 利害關係로 因하여, 南勞黨은 大衆이 要求하지 않은 武裝鬪爭 蜂

起 및 暴動을 早期에 強要함으로써 反共陣營의 強壓 口實을 合法化시켜 주는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大衆의 離脫뿐만 아니라 地下組織 自體도 全滅狀態에 놓이게 되자 北傀는 對南工作에 의한 赤化를 斷念하고 最後 手段인 武力南侵에 呼訴하게 되었다.

네째, 遊擊戰 失敗의 原因

- ① 北傀의 遊擊戰은 毛澤東 戰術을 模倣하였으나 傳統的인 士氣가 全無하였다는 點.
- ② 北傀의 非人道的 蠻行에 시달리던 靑壯年 避難民들이 北傀의 實態를 暴露하는 同時에 그들 自身은 國家에 대한 義務感 以上の 信條的인 使命感으로 自進하여 共匪 討伐에 臨했다는 點.
- ③ 共匪들의 良民虐殺, 掠奪, 放火, 破壞活動 등으로 大衆의 呼應을 獲得하지 못했다는 點.
- ④ 國軍에게 對抗할 만한 能力을 維持하지 못하였고 食糧 등의 補給品이 不足하여 長期戰을 持續할 수 없었다는 點.
- ⑤ 地形의 狹少, 寒暑의 差가 極甚하여 越冬準備의 困難과 地形條件이 不利하였다는 點.
- ⑥ 共匪들은 共產主義者가 아니던 無條件 叛逆者, 親日派로 宣傳하였기 때문에 國民들의 支持를 받을 수 없었다는 點.
- ⑦ 南派된 共匪들의 大部分이 北傀와의 權力鬭爭에서 脱落된 南韓出身者들이었기 때문에 歸順 또는 身分露出이 많았다는 點.

北傀도 이와 같은 失敗를 自認하면서 <開戰 當時의 敵(我軍을 稱함) 後方에 約 3,000名의 工作員(遊擊隊員, 非武裝 暴徒, 間諜 등)이 侵透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蜂起 및 暴動을 惹起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我方(傀備軍을 稱함)의 後方에서 暴動이 惹起되었으니, 이것은 政治的 失敗의 가장 큰 問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第2段階 工作의 特徵(6.25~休戰)

(1) 工作의 特徵 및 失敗 原因

(가) 工作의 特徵

첫째, 南勞黨 系列이 對南工作의 主導權을 掌握함으로써 黨 系統에서 南派된 間諜들은 全部가 南韓 出身者였다는 點과 集團教育을 받았다는 點.

둘째, 夫婦로 偽裝한 間諜組를 南派시킴으로써 假裝口實이 造成되고 合法活動이 可能하였다는 點과 年少者(15~17세)를 南派하여 毒物散布를 試圖하였다는 點.

셋째, 捕虜收容所內에서의 政治工作.

네째, 街頭接線工作의 出現 및 上向報告를 위한 連絡員 北派.

다섯째, 無電間諜의 南派로서 上·下部線의 迅速한 工作을 展開한 點.

(나) 工作의 失敗 原因

첫째, 集團收容으로 인한 相互認知, 즉 相互間의 黨鬭爭 經歷, 家族 狀況, 越北 以前의 住所, 심지어는 南派時의 指令事項, 活動地域, 假裝方法 등이 露出되어 檢舉되므로써 知面索出工作에 의한 <連鎖的인 逮捕>가 可能하였다는 點.

둘째, 大部分 表面的인 活動으로 이미 身分이 露出되었던 者들이기 때문에 一般 國民과 緣故者의 申告에 의한 檢舉率이 많았다는 點

세째, 工作金品 使用의 결핍, 工作裝備의 貧弱, 通信 및 連絡手段의 缺如.

네째, 浸透地域이 大部分 休戰線이었으므로 陰密浸透에 制約이 많았다는 點.

다. 第3段階 工作의 特徵(休戰~4. 19)

(1) 工作의 特徵 및 失敗 原因

(가) 工作의 特徵

첫째, 平和統一 宣傳 攻勢

北傀는 休戰後 對內的으로는 戰爭으로 焦土化된 北韓을 復舊해야 할 어려운 試鍊을 겪게되자 1953年 9月 19日과 同年 11月 23日에는 소련 및 中共과의 經濟技術援助協定을 締結하고 1954年 4月 20日에는 <戰後復舊 3個年 經濟計劃>의 遂行을 決定하지 않으면 안 될 處地에 놓였었고, 對外的으로는 소련의 「호루시초프」가 平和共存路綫을 提起하여 西方側에 대한 平和攻勢를 展開하게 되므로서 北傀도 對內外情勢에 呼應 平和統一路綫을 採擇하지 않으면 안 될 實情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時期의 對南工作 方向은 表面上 平和統一宣傳을 위주로하게 된 바, 이것은 政治的인 性格으로 볼수도 있지만 北傀 對南工作은 政治工作이 언제나 先行된다는 面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이 時期의 特徵으로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平和統一 攻勢는 소위 南北連席會議에서 보듯이 一種의 利用政策이요 對南心理戰 攻勢의 一端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北勞黨의 工作專擅

休戰後, 南勞黨의 肅清과 同時에 그들의 土臺를 白紙化시키므로서 北傀는 새로운 對南工作의 基礎作業을 해야만 했었다. 이에따라 間諜도 南勞黨系와는 無關한 北勞黨系 사람을 間諜으로 南派하게 되었고, 教育方法에 있어서도 集團教育으로부터 密封教育으로 轉換하고, 大量南派로부터 質的인 小組 南派의 새로운 戰術로 轉換하였다.

세째 親筆 書信 携帶工作

특히 越北者들의 親筆 書信과 近況寫眞을 携帶한 間諜들이 大部分 南派되었다. 이것은 南韓居住 家族들의 情誼를 逆利用한 것으로서 工作土臺 構築과 據點確保를 위한 地下黨工作의 새로운 手法인 바, 이 時期 以前에는 使用하지 않았었다.

네째, 朝總聯에 대한 工作

朝總聯의 對韓工作活動은 1960년부터 本格化되었다. 그것은 北傀의 基本方針에 의거 公開 非公開 手段을 통한 組織의 擴大 및 技術專門化로 第3國의 有利한 條件들을 利用하여 對韓工作을 恣行한 것이었다.

1955年 朝總聯 結成期에서 부터 1959年의 僑胞北送事業 開始 前까지의 主要 事業目標은 ㉠ 第1次的 基本目標인 在日僑胞 60萬 赤化를 위한 組織土臺 整地事業 ㉡ 北傀와의 接線「루우트」 開拓을 통한 組織強化와 對韓工作基地 構築을 위한 僑胞北送 實現運動에 두었다. 그리고 1959年 8月 13日 印

度「칼카타」에서 北送協定이 締結되자 그 後의 朝總聯은 北傀 對南工作活動의 直接的인 非合法 對南浸透基地로 變하게 되었다.

(나) 工作의 失敗 原因

첫째, 平和統一路線을 위주로한 上層部 包攝工作에 失敗한 點.

不法의인 武力南侵으로 北傀의 모든 陰謀가 白日下에 露出된 狀況下에서 偽裝된 平和統一을 내세우고 南北軍縮을 提議하였으나, 이것은 北傀의 陰險한 常套의인 宣傳으로서 軍事力 增強과 再南侵 準備에 狂奔하고 있음을 陰蔽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음이 明白하였다. 이와 같은 平和統一路線은 政治的 次元에서의 工作인데, 이것은 即 北傀가 對南工作의 土藁인 群衆基盤을 度外視하고 過少評價한 것이었으므로 失敗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自首勸告 및 申告에 의한 檢舉.

이 當時의 包攝對象은 南勞黨 時節과 같이 緣故者였으며 그 工作은 이들을 中心으로한 工作土藁 構築이었다. 이와 같이 緣故者를 對象으로 한 工作은 家族들의 自首勸告는 물론이고 특히 住民들의 申告에 의거 檢舉되는 者가 許多하였는데, 이 事實은 北傀 對南工作에 致命的인 打擊을 준 것으로서 工作土藁 構築의 새로운 模索을 隨伴시켰다.

셋째, 美貨(工作金) 携帶로 인한 副作用.

① 交換時 申告 또는 端緒가 되어 檢舉되는 事例가 許多했던 點.

② 檢門檢索에서 美貨所持로 因한 摘發率이 많았다는 點 등으로 工作에 障礙가 되었다.

넷째, 南韓實態 教育의 缺如.

解放後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北傀는 北韓住民에게 참된 現實을 紹介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間諜이 南派되면 自己들의 欺瞞教育이 白日下에 暴露된다는 事實을 自認하면서도 南派 直前의 間諜에게까지도 계속 歪曲된 教育을 시켰다.

다섯째, 南韓出身者에 대한 不信.

北傀는 對南工作에 계속 南韓出身者들을 使用하면서도 南勞黨系列과의 宗派性 때문에 그들을 不信待遇하였었다.

이와같은 現象은 間諜들이 間諜으로 選拔되기 전부터 體驗한 것으로서 間諜으로 南派되는 機會 自體가 歸順의 契機가 될 수 있었고 共產主義者로 부터 變節할 수 있는 누적된 潛在要因이 되었다.

라. 第4段階 工作의 特徵(4·19~5·16)

(1) 工作의 特徵 및 失敗 原因

(가) 工作의 特徵

첫째, 平和統一路線에 依據 革新 및 容共勢力을 糾合하여 第3勢力의 形成을 企圖한 것.

둘째, 4.19 主體層과 基本群衆을 結合시키기 위한 工作으로서 「인테리」 및 低級間諜(下層部 人物)을 混合하여 大量 南派한 것.

셋째, 間諜의 同時 多量南派를 위한 1個 工作船에 2個組 乘船 南派와 歸還時에 復歸間諜을 接受

談送하는 二重工作을 展開한 것.

(나) 工作의 失敗 原因

첫째, 平和統一 宣傳에 대한 上層部 呼應勢力이 全無했다는 點.

北傀는 南北聯邦制를 圍繞한 平和統一宣傳 및 包攝工作을 政府, 政黨, 社會團體 등 各界 各層에 대해 試圖하였으나, 여기에는 上層部 뿐만 아니라 一般 國民大衆도 全然 呼應하지 않았다.

둘째, 對南工作의 基本이 되고 政治的 背景이라 할 수 있는 地下黨組織이 全無하였다는 點.

세째, 上記와 같은 狀況下에서 現地에서의 人員補充이 不可能했다는 點.

4. 最近의 北傀 對南工作 樣相

가. 對南工作 強化 背景

(1) 對南工作 強化에 관한 決議(65. 10. 10. 勞動黨 創黨 20周年)

(가) 南北統一 時期

첫째, 日本과의 軍事協定 締結 以前에

둘째, 金日成의 老衰 以前에

세째, 韓國의 政治, 經濟基盤 安全 以前에

(2) 武裝間諜戰術 強化 決議(66. 10. 勞動黨 代表者會)

(가) 力量의 正確한 測定과 情勢의 慎重한 評價

(나) 革命의 自然發生 期待 不可, 決定的 時期造成코 鬪爭展開

(다) 政治·經濟鬪爭, 暴力·非暴力 鬪爭, 合法·非合法鬪爭 등의 配合 實施

(3) 人民軍黨 4期 4次 全員會議(69. 1)

(가) 金日成 5大 軍事路線

첫째, 軍事偵察 및 破壞攪亂事業 強化

둘째, 山岳遊擊戰에 有利한 輕步兵旅團 創設

세째, 空中浸透를 위한 低空飛行技術 培養

네째, 遊擊戰과 正規戰의 配合

다섯째, 支援要請時 即刻 介入 準備

(4) 第5次 黨大會(70. 11.)

(가) 地下黨 組織 強化

첫째, 統革黨 組織強化(在南 指導部 育成)

둘째, 群衆組織에 革命力量 蓄積

세째, 同調勢力 및 潛在力量 擴大

나. 工作戰術

(1) 地下黨과 遊擊活動 (聯關性)

北傀는 對南工作 指導體制를 金日成 金仲麟(對南事業 擔當 秘書)路線으로 強化하고 南韓에 革命的 群衆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地下黨 建設을 重點路線으로 하고 그 對象을 都市 最下 貧民層에 布陣하려는 企圖가 露出되자 地下黨 指導部 形成에 注力하는 傾向을 나타냈다.

그 底意는 南韓內에서 自然發生的으로 惹起될지도 모르는 混亂 時期에 對備하려는 것으로서 相互 武力鬪爭이 勃發하였을 때, 南派 投入되는 遊擊隊와 現地 地下黨 力量에 의하여 蜂起되는 소위 人民抗爭勢力과의 聯合鬪爭을 劃策하려는 데 있다. 이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時期

正規戰이 勃發되었을 때 即刻 遊擊隊를 投入한다.

4.19와 같은 類似 混亂 情勢가 惹起되었을 때 即刻 投入한다.

둘째, 正規戰과 並行할 경우

戰爭 勃發時 地下黨 力量은 自動的으로 遊擊活動을 展開하여 北傀作戰에 有利한 戰術的 支援을 준다. 이러한 경우 地下組織은 遊擊活動에 一部分을 動員 加擔케 하고 殘餘 組織은 계속 陰蔽시켜 地下活動토록 한다. 地下組織 一部分을 動員 加擔시키는 理由는 戰爭이 北傀의 勝利란을 保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北傀가 敗走할 경우의 對備策으로서, 敗走하게 되면 陰蔽된 地下黨 組織을 계속 殘留活動시키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地下黨 工作地域과 遊擊活動 地域을 嚴格히 區分하려는 것이다.

셋째, 時期 判斷

이러한 聯合戰線 形成의 時期 決定問題는 南派된 工作組나 現地 指導部の 自體判斷에 依據하거나 平壤의 指令에 따라 活動展開 與否를 決定한다.

넷째, 遊擊隊 編成

遊擊組織 및 活動方法에 있어서는 最初 各 工作組나 地下組織이 個別的으로 遊擊組를 1~2名 또는 5~6名으로 編成하여 散發的인 小組活動을 展開다가 北傀의 指令에 依據 이를 統合하여 遊擊部隊와 指揮部를 構成 活動한다. 이와 같이 소위 南半部 指導部가 構成되었을 경우 北傀는 工作指揮責任者를 南派시켜 遊擊活動을 指揮케 한다.

다섯째, 活動方法

遊擊隊는 地下組織이 事전에 物色한 根據地로 移動한다. 根據地는 工作對象 地域에서 가까운 周邊에 樹林이 많은곳, 退路 條件이 良好한 地形, 後方 補給支援 및 現地鬪鬪이 有利한 地域的 條件, 防禦上 有利하고 敵攻擊이 不利한 諸條件들이 具備되어야 한다.

鐵道の 爆破 또는 保護, 重要 軍需工場의 襲擊 破壞, 後方地域內 道路 遮斷 및 橋梁 破壞, 重要 公共施設 및 軍事施設, 兵營, 軍需物資 補給所, 戰略物資 基地廠 등의 破壞로 北傀 正規軍 作戰을 支援한다.

한편 遊擊隊에 加擔치 않은 地下黨組織은 怠業, 罷業을 煽動하고 流言蜚語를 流布시켜 民心動搖를 造成시킨 연후에 暗殺, 拉致工作 등을 敢行한다. 즉 小組活動으로서 「테러」와 破壞工作을 重點的으로 展開할 것이나 地下黨組織이 露出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遂行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2) 地下黨 組織(具體的 풀이)

(가) 地下黨 組織 方案

1) 核心 黨員을 包攝하여 깊숙히 숨기고 秘密이 많은 黨員과 同調 勢力을 넓혀서 北傀가 南侵할 때까지 保存해 준다.

2) 政治人, 官吏, 軍將兵, 學生, 教育者, 記者, 醫師 等を 包攝하여 面·郡·道에 地下黨 指導 部를 組織한다.

3) 가난한 勞動者와 農民을 包攝하여 重點的으로 組織한다.

4) 越北者 家族, 附逆者 家族, 前科者 및 軍 逃亡兵을 包攝 利用한다.

5) 重要的 地域과 重要的 部門에 集中的으로 浸透한다.

첫째, 重要的 地域이란?

① 서울 以北 前方 地域

② 都市 近方 農村

③ 軍 주둔地域, 軍需施設 地域

④ 重要的 基幹産業 地域등을 말한다.

둘째, 重要的 部門이란?

① 철도部門

② 항만部門

③ 체신部門

④ 운수部門

⑤ 教育 및 出版部門

⑥ 大規模 工場 등의 組織機關을 말한다.

(나) 地下黨 鬭爭戰術

地下黨 鬭爭은 時期와 環境에 맞추어 積極的으로 하거나 消極的으로 하는데, 언제나 適切한 여러 가지 戰術을 配合 교묘하게 運營하기 때문에 細心하게 觀察하지 않고는 呑체로 發見하기 어려운데 그 鬭爭 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鬭爭은 반드시 낮은 形態에서 높은 形態로 유도하여 極限鬭爭으로 發展시켜 간다. 이것은 大衆들이 正當한 要求를 하기 위해 地下黨의 背後없이 自然的으로 일어난 것처럼 偽裝하는 것이다.

1) 合法鬭爭이란?

法과 秩序를 違反하지 않는 範圍 안에서 교묘히 鬭爭하는 方法으로서 그 實例를 보면

① 勞動法을 利用한다.

勞動者들의 權益을 위해 있는 勞動法을 利用하여 罷業, 怠業, 示威 등 勞動爭議를 일으켜 勞動者들이 正當한 要求를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大衆들의 共感을 얻고, 群衆心理를 利用 자극시켜 나중에는 政治鬭爭으로까지 發展시키는 方法이다.

2) 半合法鬭爭이란?

社會的인 관습이나 마을 風習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親睦團體와 같이 法에는 明示되어 있지 않은 一般的인 組織을 利用하는 方法이다. 實例를 들어 보면,

① 政治性이 없는 組織을 利用한다.

各種 親睦會나, 契와 같이 純粹한 親睦團體에 間諜을 浸透시켜 主導權을 잡거나 指導的 人物을 包攝하여 이 團體가 共產黨과 손을 잡게끔 하거나 새로 이러한 團體를 만들어서 利用하는 方法이다.

3) 非合法 鬭爭이란?

制定된 法과 制度와 秩序를 無視하고 進行하는 鬭爭이다. 實例를 보면

① 地下 出版物을 發刊 配布한다.

비밀리 숨어서 등사판 같은 印刷機構를 利用하여 共產主義 冊字나 新聞등을 發刊하여 組織을 통해 配布하고 읽게 한다.

② 삐라, 벽보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낙서로서 선전 선동을 한다.

政府나 特定 人物을 非방하고 北傀나 共產主義를 찬양하는 口號를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밀리에 뿌리거나 붙여서 읽게 한다.

VI. 心 理 戰

第 1 章 心理戰 이란

第 2 章 心理戰 活動

第 3 章 北傀 心理戰

1. 對南 心理戰

2. 北韓 住民에 대한 欺瞞 宣傳

3. 對海外 宣傳

第 4 章 韓國心理戰

1. 韓國心理戰의 目標 및 方向

2. 對 心理戰

第 5 章 結 論

第1章 心理戰 이란

오늘날 世界는 全面的인 冷戰, 局地的 戰爭, 高度한 外交戰, 熾烈한 間接侵略戰을 계속하고 있으며 現代人은 不安에 떨고 숨막히는 緊張 속에 살고 있다. 國境에 制限없이 無數하게 넘어 오는 「뉴스」 한 토막에도 現代人의 神經은 몹시 刺戟된다. 高度로 發達된 기묘한 宣傳技術은 우리 思考方式 및 行動樣式에 影響을 주어 輿論을 變更 내지 支配하고 있다.

第2次 世界大戰 이후 原子彈을 비롯한 各種 무서운 破壞力을 가진 核武器의 出現은 過去의 戰爭樣相을 根本的으로 變革시켜 政治戰, 思想戰, 宣傳戰, 謀略戰 등의 方向으로 轉換시켜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現代戰의 樣相은 單純히 對立되는 두 集團間의 全面的 武力衝突 보다는 人間이 가지고 있는 思想과 價値觀의 固守 또는 變化를 위한 鬭爭形態로 發展되고 있다. 따라서 相對方 住民들의 意見을 分裂시켜 自己側에 有利한 行動 (暴動, 「쿠데타」, 叛亂)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混亂, 弱화, 破滅되도록 하는 第3의 戰爭方法에 置重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 心理戰이 그 先鋒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心理戰(Psychological warfare)이라 하면 흔히 戰時에 鬭爭의 한 方法, 혹은 補助手段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 날에는 戰時, 平時를 莫論하고 主體側의 國家安全 保障上 國內外的으로 暗暗裡에 熾烈히 展開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現 冷戰下에 그리고 準戰時下에 武力을 別로 使用하지 않고도 敵을 무찌를 수 있고 敵의 間接侵略을 막아낼 수 있는 基本武器로 活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對外的으로는 敵側 住民들에게 不安感, 焦燥感, 恐怖心, 自己否定 등의 心理的 攻撃을 加하여 士氣 低下, 相互不信, 分裂, 價値觀 破壞, 思想轉換을 劃策함으로써 反政府, 自體分裂, 自體顛覆의 方向으로 誘導하여 스스로 自滅 崩壞케 하는 것이며, 對內的으로는 官民의 團結을 促求하고 生産意慾 增進, 士氣 昂揚, 協調心 및 愛國心 鼓吹, 敵의 間接侵略 沮止 등에 큰 影響을 주고 有事時에 國民들을 統一된 思考 및 團合된 行動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友邦間에 協調 및 親善을 圖謀하고 中立國의 輿論을 我側에 有利한 方向으로 誘導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心理戰이 活潑성을 띠어 發展하게 된 것은 兩次大戰을 契機로 그 重要性이 認識됨으로써 비롯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獨立된 課題로 取扱받아 體系를 갖추게 된 것은 그 歷史가 극히 짧다. 따라서 이와 같은 急激한 發達로 아직도 國家間에 概念의 統一 없이 思想戰(Thought warfare), 間接侵略戰(Indirect aggression), 神經戰(Nerves warfare), 宣傳戰(Propaganda warfare), 政治戰(Political warfare) 등의 각가지 뜻으로 解釋되어 使用되고 있다. 從前에는 心理戰을 戰時 중에 鬭爭의 한 方法으로만 局限시켜 敵에 대한 宣傳攻勢(放送, 傳單, 刊行物, 流言蜚語, 毒筆, 反抗 Slogan 및 口號 등)로 敵 兵士 및 敵側 住民들의 精神과 意志에 打擊을 가한다는 狹義의 活動에만 치우치는 傾向이 있었지만 最近에는 美國에서 까지도 廣範圍한 政治的 Communication 分野를 心理戰

化 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보아 廣義의 心理戰으로 研究 活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廣義의 心理戰이라 하면 戰爭에 대한 心理學의 一切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例컨대,

① 恐怖와 威脅으로 敵側內 心理狀態를 自己에게 有利하게 만든 다음 速戰을 試圖한다는 「히틀러」(Hitler)式의 電擊作戰이라든가

② 現代戰은 어떠한 形態의 戰爭이든 간에 모두 一種의 心理戰 혹은 精神戰이며 心理上의 勝利를 獲得 함으로써 만이 武力에 의한 戰爭이 비로소 效力을 發生할 수 있다는 自由中國의 政治作戰 理論이라든가

③ 共產主義者들이 催眠術 方法으로 사람의 意識을 麻痺 分裂케 하여 思考의 自主能力을 잃게 하는 洗腦工作

④ 相對便의 心理的 弱點을 먼저 把握하고 攻擊한다는 中共 毛澤東의 戰爭方法論(攻擊과 退却, 暴力과 欺瞞, 孤立과 包圍, 浸透와 分化)이나 共產主義者들의 宗教式 麻醉方法(恐怖와 希望)등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좌우간 心理戰이란 주로 非 武力戰의 手段(宣傳, 政治, 外交, 文化, 思想)으로 可能한 한 殺傷을 줄이면서 彼我 國民들의 마음을 征服하고 敵側의 精神과 意志를 制壓하여 勝利를 가져오게 하는 戰爭의 한 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言語的인 手段 以外에도 때때로 心理戰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小規模의 暴力行爲를 驅使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第2章 心理戰 活動

心理戰 活動은 心理戰의 彈丸이라 불러주는 宣傳活動이 大部分 이며 煽動, 謀略, 流言蜚語, 急業, 暴動 등이 그 重要的 補助的 一翼을 擔當하고 있다. 이들 活動에는 眞實을 假裝한 虛偽, 歪曲, 誇張, 欺瞞, 中傷, 捏造 등의 諸要素가 多分히 內包되어 있는 것이며 무서운 毒素을 지니고 段階的이며 漸進的으로 進行된다.

心理戰 活動에는 攻勢的 活動과 防禦的 活動으로 區分되며, 攻勢的인 活動은 我側에서 敵側으로 向하여 展開되는 心理戰 分野(主로 白色宣傳 活動)와 敵側에 浸透된 我側 心理戰 工作員에 의하여 敵側 內部에서 進行되는 心理戰 分野(黑色宣傳, 分裂 및 破壞 活動)가 있고, 防禦的 活動이란 敵의 間接侵略 및 心理戰 攻勢를 막기 위하여 我側內에서 進行되는 心理戰 分野(對 宣傳活動)를 말한다.

1. 宣 傳 (Propaganda)

오늘날 宣傳은 社會統制의 한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다. 말이나 글, 그림 등 象徵的 手段을 計劃的이고 組織的으로 活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態度, 信念 그리고 價値 등에 統制를 加함으로서 豫想했던 方向으로 大衆의 行動을 이끌어 가기 위한 手段이다. 社會가 發達하고

輿論의 重要性이 늘어감에 따라 宣傳이 가지고 있는 機能이나 役割은 점차 커가고 重要視 되고 있다. 宣傳은 어떤 豫定된 大衆의 思想이나 活動을 일으킨다든가 輿論에 影響을 주기 위하여 組織적으로 展開된다.

「뉴스」 解說, 「라디오 프로그램」, 映畫, 新聞論說, 「포스타」, 傳單, 小冊子, 漫畫 등이 宣傳方法 및 宣傳媒介로 登場한다. 共產 獨裁國家에서는 公式적으로 保護된 宣傳이 行해지기 때문에 競爭相對가 되는 다른 宣傳은 있을 수 없으며 報道나 敎育, 그리고 심지어는 科學的인 研究까지도 國家의 要請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排斥된다. 따라서 共產 獨裁國家의 宣傳은 支配層의 口味에 맞도록 被支配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運用되는 것이다. 그러나 自由主義 國家에서는 宣傳自體에 대한 制限 보다도 大衆의 宣傳에 대한 監視를 避하기 위하여 宣傳이 巧妙하게 造作되고 運用되는 것이다.

여하튼 宣傳이 우리 人間의 信念, 感情, 態度, 價値觀, 行動을 左右하느니 만큼 우리 人間에게 끼치는 影響은 莫大하다 아니할 수 없다.

2. 煽 動 (Agitation)

心理戰에 있어서 宣傳은 目標 對象集團의 固定觀念(Stereotype)을 破壞하고 將次 豫期하는 行動을 일으킬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언제 어떤 行動으로 나타날지는 莫然하다. 그러나 煽動은 時期와 機會를 포착하여 大衆 속에서 主體側에 有利한 方向으로 그들을 이끄는 데 즉, 行動化 하는데 直接的이고 決定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煽動이라 함은, 宣傳과 함께 大衆의 社會運動 및 政治運動에서 많이 活用되는 것으로서 주로 大衆의 情緒를 刺戟하여 暴發 시킴으로서 그들의 理性과 判斷을 麻痺시켜 感情化하고 暴動化하여 既存 體制와 社會秩序를 쉽사리 破壞시킬 수 있는 心理戰의 重要한 武器이다. 즉, 大衆의 支持를 獲得하고 大衆을 組織하며 心理戰 主體가 企圖하는 바를 行動化로 이끌 수 있다.

3. 謀 略 (Stratagem)

謀略은 主體側에 不利한 特定個人 및 團體를 누명을 씌워 社會적으로 몰락, 매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相對方의 勢力을 弱화시키거나 團結力을 破壞시키기 위하여 使用하는 政治技術 또는 心理戰術의 하나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計劃적이고 創造의 性格을 띠우고 있다. 元來, 謀略은 支配者들 間에 權力爭取를 위한 內部的 暗鬪의 手段方法 중의 하나였으나, 오늘 날에는 多方面으로 使用되고 있다. 人間은 작은 거짓말에는 銳敏하고 分析的이나 큰 거짓말(想像치도 못한 일)에는 속기 쉽다. 謀略이란 몸직한 거짓말로서 大衆全體를 欺瞞하고 一部 敵對者들을 大衆의 이름으로 糾彈 處罰하여 除去시켜 버리는 것이다.

心理戰에서는 敵對集團의 內紛을 일으킨다든가, 그들의 統一된 힘을 分裂 및 弱화 시킨다든가 權力層間的 相互不信, 反目, 排斥, 暗殺 등 目標 對象集團의 崩壞를 目的으로 暗暗裡에 巧妙히 進行시

키는 바, 특히 工作員 및 協調者들로 하여금 對象集團間에 浸透하여 여러 가지 謀略資料를 提供, 造作, 操縱 함으로서 相互 싸움을 시켜 第3者로서 利益을 얻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謀略宣傳이란 謀略을 可能케 하고 事實化시키는 活動과 더불어 相對方의 心理를 眩惑시키고 相對方의 行動을 動搖케 하여 主體側(實施者)의 陷穽에 빠져 얼떨결에 苦杯를 마시게 하는 心理戰 宣傳의 한 方法이라 할 수 있다. 偽裝宣傳, 欺瞞宣傳, 暴露宣傳 등이 이에 속한다.

4. 流言蜚語 (Rumour)

流言이란 원래 「데마고구」(煽動者, 煽動하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후 風聞, 浪說, 流言蜚語 등의 말로 發展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는 어떤 一定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傳해지고 속삭여지는 形態를 取하는 것으로서 事實無根한 말이 事實인 것 처럼 巷間에 流布된다는 가, 혹은 어떤 事實이 歪曲 誇張되어 널리 퍼져 心理的 刺戟(不安, 恐怖, 憎惡, 希望 등)을 줌으로서 人間의 意思 및 態度를 쉽게 變化시키고 社會輿論 形成에 側面的인 重要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學者들 間에는 '아무 權威없이 流布되는 非公式 이야기', '確實성과 出處가 不分明한 風說' 등으로 解釋되고 있다. 流言은 文書上 記錄을 남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傳播가 빨라서 心理戰에서 가장 오래된 武器이다.

心理戰 流言이란 主體側이 어떤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만들어 지고 퍼뜨리는 들뜬 所聞을 뜻하는 것으로 「데마」(Demagogy)의 概念에 보다 接近된다. 왜냐하면, 流言이 眞僞나 目的에 關係없이 넓은 意味를 內包하는 反面에 「데마」는 煽動政治家의 術策으로 事實이 아닌 報道를 故意的 이고 組織的으로 퍼뜨리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流言은 人間情緒에 影響을 주어 意見 및 態度를 變化시키는 한편 어떤 事實에 대해 大衆의 疑心을 더욱 助長하고 그것을 事實化 내지 確固化 시키며 群衆行爲를 더욱 煽動하는 心理的 機能을 가지고 있다.

第3章 北傀 心理戰

1. 對南心理戰

가. 赤化戰法과 心理戰

北傀는 休戰 후 對南 赤化戰法을 間接侵略戰으로 바꾸어 <다음의 戰爭>인 心理戰을 惡辣하게 그리고 熾烈히 계속 展開해 오고 있다. 즉 心理戰을 통해 南韓國民들을 分裂시켜 社會混亂과 相互不信을 助長하고 韓·美間 및 韓·日間의 離間을 策動하여 韓國政府를 國民으로 부터 孤立化 시킴으로써 弱體化한 다음 組織力의 浸透(武裝間諜 및 「게릴라」)와 地下共產黨에 依한 南韓國民들의 反美·反政府蜂起로서 南韓을 漸次 共產化로 끌어 들이려고 劃策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偽裝戰術이요 欺瞞戰術인 <平和統一>이란 그럴듯한 心理戰的 미끼를 내세워 南韓國民들을 현혹하려 하였다. 그들의

<平和統一 攻勢>란 所謂 韓半島에서 外勢를 몰아내고 같은 同胞끼리 協商에 의해 統一 한다는 것으로서 그 底意는 南韓國民의 손을 빌려 赤化統一의 障害物인 駐韓美軍을 全面 撤收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이 흔히 많이 쓰는 戰法인 聯合戰線 手法을 使用하여 內紛을 圖謀코자 하여 왔던 것이다. 聯合戰線 手法이란, 例컨대 祖國統一戰線, 救國統一戰線, 民族主義 解放戰線 등의 이름 아래 모든 愛國者와 愛國團體를 한 組織 속에 묶어 놓고 反政府鬭爭을 展開시키는 것이다. 이때 共產主義者들은 愛國 및 民族이란 假面 아래 大衆들의 보다 廣範圍한 支持를 얻으려고 自身들은 民族主義, 國家主義로 假裝한다. 여기에 순수한 民族主義 勢力과 眞實한 愛國者, 反政府 不平不滿者들이 말려 들어가게 되기 쉬운 것이다. 여하튼 北傀는 南韓에서 共產主義 革命戰爭을 誘發시킬 것을 目的으로 打倒 對象을 駐韓美軍과 親美勢力 (主로 高級官吏, 大財閥, 反共鬭士, 宗教人, 情報 搜查機關員 등을 뜻함)으로 定하고 南韓內의 勞動者 農民을 革命戰爭의 主力軍으로 하여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는 青年學生, 知識人 (言論, 文化, 藝術人, 大學教授), 小資本家, 其他 不平不滿이 많은 中流層의 協助 및 呼應으로 展開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傀 對南心理戰은 이들 主力軍인 勞動者 農民과 協助 및 呼應勢力인 青年學生, 「인테리」層 그리고 中間階層을 說得, 懷柔, 組織 및 躡起시키기 위하여 모든 努力을 集中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5.16 후 南韓情勢가 점차 安定化 되어 가자 北傀는 초조한 나머지 南韓內部에서 點火시킬 것을 서둘러 武裝共匪를 南派시켜 각가지 天人共怒할 蠻行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言語를 통한 心理戰 活動(宣傳, 煽動, 流言蜚語)에 이제는 行動을 통한 心理戰 活動(「테러」, 破壞, 拉致, 襲擊 등)을 補強시키고 있다. 北傀는 1970年代를 赤化統一의 決定的 時期로 보고 對內外的인 準備를 強行하고 있는 바 그들의 對南活動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南韓內部的 地下共產黨 組織을 主軸으로 赤化革命的 土臺를 닦고 그 勢力을 넓히면서 混亂과 紛亂을 일으키게 하고
- ② 地域別, 職場別, 階層別로 潛在勢力(固定間諜)과 協助勢力을 廣範圍하게 묶어두어 決定的 時期에 呼應토록 하고
- ③ 「게릴라」戰을 展開하여 이를 軍事的으로 支援 挾攻케 함으로서 所謂 革命 情勢를 人爲的으로 造成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은 北傀는 國際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便乘하여 그들이 主張해 왔던 平和統一 攻勢의 樣相을 戰略 戰術的으로 變化시켜 가면서 國內外的인 心理戰 效果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北傀는 南韓에서의 反政府勢力 培養과 駐韓美軍의 全面撤收를 위하여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各界各層 人士, 小市民, 國軍 등을 對象으로 마치 南韓에서 反美意識이 高潮되어 가고 있는 듯이 欺瞞宣傳 하면서 反美·反政府 鬭爭에 動員하도록 종용 煽動하는 한편 南韓內의 混亂과 分裂 그리고 韓國政府의 弱體化, 孤立化를 目的으로 政府의 어떠한 政策이나 施策이 든지 事事件件이 트집 잡고 歪曲 非難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南北離散家族찾기 會談을 벌리면서도 從前과 조금도 變함 없이 多角的인 武力挑發로 우리 國民들에게 不安, 恐怖, 緊張, 그리고 危機意識을 刺戟하여 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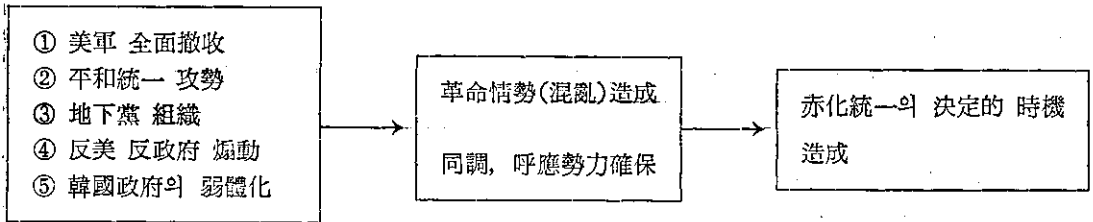
府政策에 대한 積極的인 協助를 妨害하려고 날뛰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北傀는 暴力에 의한 武力 赤化統一의 妄想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모든 心理戰 活動은 언제나 그때 그때의 國際情勢와 南韓情勢에 相應해 가면서 展開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 對南心理戰의 目標 및 方向

北傀는 對南心理戰 活動의 基本目標을 「共產化 統一」에 두고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모든 對南活動(工作, 遊擊戰, 心理戰)을 總 集中시키고 있다. 그리고 段階的 方法으로서 우리 南韓國民들을 反美·反政府鬭爭에 앞 세우고 南韓內에서 混亂과 分裂을 劃策하여 所謂 革命情勢를 造成한 다음 決定打를 쳐서 赤化統一 시킨다는 것이다. 現在 金日成씨는 우리側이 提示한 南 北韓 離散家族찾기 運動에 한술 더 떠서 南北間의 원활한 接觸을 위해서 讓步할 用意가 있다. “共和黨을 비롯한 어떠한 在野人士와도 만나서 이야기 할 用意가 있다.”, “구태여 南韓으로 하여금 社會主義化 하도록 強要하지 않겠다.”는 등 마치 平和統一은 自己側 만이 願하고 있으며 大韓民國의 온 國民이 바라는 바 인데 이것을 妨害하는 것은 오직 美國과 大韓民國 政府인 것 처럼 歪曲 및 欺瞞宣傳을 對內外的으로 며별리고 있는 바 이는 心理戰의으로 볼때 우리 國民들의 關心을 끌고 視線을 돌려 統一에 대한 官民離間을 策動하려는 意圖가 多分히 內包되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그리고 現 國內外 情勢 아래에서 平和統一에 대한 機先을 制壓하려는 術策으로 判斷되며 北傀에 대한 우리 國民들의 敵對感, 憎惡心を 弱화 시키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北傀 對南心理戰의 基本方向은 從前과 다름 없으며 如前히 다음과 같은 目標와 內容으로 展開되고 있다.

目標 및 方向

《基本目標→赤化統一》



宣傳內容

主 要 宣 傳 內 容	① 反美感情 造成	⑥ 施策 非難
	② 韓美 離間	⑦ 經濟計劃 破綻
	③ 士氣 低下	⑧ 越南派兵 非難
	④ 民心 攪亂	⑨ 韓日國交正常化 妨害
	⑤ 官民 離間	⑩ 秩序 攪亂

對象別 宣傳煽動 內容	靑 年	兵役徵集 反對, 反美·反政府 蜂起
	勞 動 者	怠業, 罷業
	農 民	土地改革(共產式)
	學生, 教授	學園淨化(謀利化, 查察中止), 教育制度 改革
	軍 人	反美, 反政府쿠메타
	女 性	教育的 平等, 社會的 平等地位
	科學, 藝術, 知識人	美國文化浸透 反對, 生活條件 改善

다. 北傀 對南心理戰 活動

1) 戰略·戰術 放送

北傀는 平壤 第2放送 (出力 300kw)이 對南心理戰 戰略放送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고 開城, 海州, 陽德, 信川 등의 放送局에서 出力 100kw로 支援하고 있으며 1971年 12月 現在 1日 平均 13餘 時間씩 對南心理戰 放送을 實施하고 있다. 또한 1972年 3月 現在 休戰線 155마일 全域에 걸쳐 作戰 用 96臺, 妨害用 102臺, 都合 198臺의 大小 戰術用 擴聲器를 配置하고 國軍과 隣接 住民들을 對象으로 1日 平均 6~8 時間씩 放送하고 있다. 그 內容은 主로 對政府 離間 助長, 反美感情 造成, 武裝 蜂起 煽動, 그리고 北傀 自體發展相 宣傳과 越北勸誘에 集中하고 있다.

2) 傳單 및 不穩文書

北傀는 季節風을 利用하여 氣球을 띄워 南韓에 不穩傳單을 散布하는 한편 日本, 「홍콩」, 「프랑스」 其他 第3國을 통하여 南韓에 居住하는 著名人士 또는 學生 및 社會團體를 對象으로 不穩文書(便紙, 「팜프렛」, 冊子 등)를 郵送하고 있다. 不穩文書 投入量은 南韓情勢에 相應하여 달라지는 바 해가 거듭될 수록 漸次 激增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不穩文書 中 大部分의 것은 그 出處가 所謂 <反美救國同盟>, <人民革命黨>, <國軍解放同盟> 등 전혀 存在하지 않는 虛偽根源을 造作 및 捏造하여 마치 南韓全體에 自己들의 同調 및 呼應勢力이 많은 것 처럼 假裝하거나 發刊되는 各種 合法紙(新聞, 冊子)의 名稱을 盜用하는 등 우리 國民들을 眩惑시키고 우리 社會의 混亂을 劃策하고 있다.

3) 板門店을 통한 心理戰

板門店은 休戰 후 오늘 날까지 하나의 宣傳場, 謀略場으로 利用되어 왔다. 北傀는 休戰線 一帶에 걸쳐 奇壞, 破壞, 殺傷 등 休戰協定 違反事件을 故意로 發生시키고 이를 虛偽, 捏造, 歪曲, 誇張하여 本會議를 통해 「유엔」 側에게 責任을 轉嫁시킴으로써 마치 「유엔」 側이 侵略者로서 北侵을 劃策하고 있는 것 처럼 內外에 宣傳하는 한편 저들의 蠻行을 음계 또는 合理化 하려는 欺瞞宣傳에 狂奔하고 있다. 또한 北傀는 假裝된 記者를 利用하여 때때로 北傀의 新聞, 嚮報, 物品 등 各種 宣傳媒介物을

「유엔」側 記者나 訪問客들에게 傳達하면서 北傀를 誇張 宣傳하고 反美思想 鼓吹, 韓國政府 非難 등 心理戰 宣傳攻勢를 取하기도 한다. 特히 1971年 8月 以後 南北韓 離散家族찾기 會談이 열리게 되면서 부터 板門店을 더욱 心理戰의 舞臺로 最大限 活用하고 있다.

4) 間諜 및 拉北者를 통한 心理戰

南派된 間諜들은 地下共產黨 組織, 諜報 蒐集活動 以外에도 武力에 의한 破壞, 殺傷, 拉致 行爲를 恣行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治安을 攪亂시키고 恐怖心を 造成시키는 한편 反美宣傳, 平和統一 宣傳, 不穩文書 散布, 不穩 流言蜚語 流布 등 民心攪亂 및 策動에 注力하고 있다. 또한 南韓에 浸透된 北傀 武裝「게릴라」 들은 武力으로 우리 大韓民國 住民들을 威脅하고 懷柔 說得하여 共產主義者들에게 協力해 줄 것을 強要하는 各가지 蠻行으로 不安感, 恐怖心, 危機意識을 불어 넣고 있다. 그리고 拉北漁夫를 비롯한 拉致者들에게는 2~6個月間 標本的인 生産施設의 見學을 통해 北傀의 發展相을 誇張 宣傳하고 共產主義 思想을 注入시켜 歸還 후 北傀를 讚揚하고 反美 反政府 鬭爭에 앞장 서도록 은근히 慫恿하고 있다.

5) 迂迴的 心理戰

그밖에 北傀는 朝總聯과 在日朝鮮人 指導部라는 日本內 韓國人 共產黨組織을 통하여 在日僑胞들에게 共產主義思想을 注入시키며 그들을 包攝 慫恿하여 南韓에 있는 家族이나 親知들에게 不穩便紙를 보내고 不穩冊字를 發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船員이나 日本을 訪問하는 韓國人들에게 온갖 方法으로 心理戰工作을 展開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北傀는 그들의 各種 海外駐在員, 海外公館, 國際共產主義 運動機構를 통하여 迂迴的인 對南心理戰을 展開하고 있으며 海外僑胞, 留學生들에게 心理戰 宣傳文書의 配布를 비롯해서 各가지 교활한 心理戰工作을 展開하고 있다.

(參考 1) 北傀 對南心理戰의 強·弱點

強 點	① 心理戰機構의 一元化 ② 獨立體豫算 ③ 自由로운 南韓 報道內容 利用 ④ 南韓內 反美, 反政府勢力 利用 ⑤ 不平, 不滿者 煽動 ⑥ 民族主義者들에게 呼訴力을 가짐 ⑦ 間諜活動
弱 點	① 南韓國民의 6.25體驗으로 共產主義 惡政이 暴露되었음. ② 越南者 및 歸順, 自首者의 北韓實情 暴露 ③ 現 南韓政府의 強硬한 反共 및 勝共對策 ④ 南韓의 急速한 發展相

(參考 2)

北傀 對南 不穩 宣傳冊子

書 名	內 容	發 行 處
現 代 思 想 選 集	「스탈린」演說集	서 울
不 滅 的 事 實	北傀共產黨史	〃
祖 國	社會主義理論宣傳	〃
四 月 的 星 座	長 篇 小 說	〃
早 春	〃	〃
經 濟 學 批 判	「마르크스」의 資本論紹介	〃
惡 魔 的 叛 徒	3 選 改 憲 反 對	〃
世 上	北傀社會實情宣傳	〃
세 인 은 우 리 러 말 한 다	北傀創建 20 年 史	人 民 出 版 社
너 는 누 구 의 아 들 이 나	共 產 主 義 理 論	
聞 南 見 北	南 北 韓 實 情 比 較	朝 總 聯
自 由 獨 立 的 偉 大 한 기 치	金 日 成 演 說 要 約	先 進 文 化 社
머 드 나 무	小 說	서 울 文 藝 社
希 望 的 冬 天	南 韓 實 情 非 難	서 울
그 는 이 렇 게 살 았 다	統 革 黨 的 鬭 爭 史	〃
바 다 와 漁 民	南 韓 的 漁 撈 政 策 非 難	〃
農 民 과 稅 金	南 韓 的 農 業 政 策 非 難	김 포
뜻 깊 은 명 절	南 韓 社 會 相 非 難	서 울
太 陽 은 三 千 里 를 비 친 다	金 日 成 宣 傳	
누 구 나 배 우 는 세 상	北傀教育政策宣傳	
빨 래 터	漫 畫	
惡 的 化 身	朴 大 統 領 非 難	
靑 年 前 衛	長 篇 小 說	平 壤
3.1 文 學	文 學 雜 誌	
現 代 思 想 入 門	「마르크스」主義哲學	
眞 理 的 大 路	金 日 成 報 告 文	서 울
세 로 운 人 間 像	「마르크스·레닌」主義宣傳	平 壤

書名	內容	發行處
忠 心	短 篇 小 說	서울民主革命社
진 달 래	〃	서울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韓國勞動者·農民生活相	〃
鬪 爭 의 기 치	反美·反政府 宣傳	〃
베 트 남 부 루 스	派越國軍 士氣低下 가요	〃
靑 年 의 노 래	反美 思想 鼓吹	越南地域
내 일 의 設 計 圖	創 作 集	신 흥 사
歸 鄉	〃	향 학 사
洛 東 江 詩	創 作 集	신 흥 사
북 의 先 驅 者	北 傀 生活 相 讚 揚	
指 導 者 와 勝 利		
子孫萬代에 빛 나 리		社會學科社
韓 國 의 社 會 相		民衆出版社
불 타 는 밤		大 衆 社
歷 史 의 證 言		〃
太 陽 光 線		文 化 社
祖 國 의 품		研 究 社
原 子 秘 密		文 友 社

2. 北韓 住民에 대한 欺瞞 宣傳

北傀의 對內宣傳 活動은 北韓 住民들을 確固한 共產主義 思想으로 結束시키고 武裝을 시키기 위한 宣傳과 金日成 偶像化 宣傳, 그리고 社會主義 經濟建設과 國防力 強化를 위한 增產運動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北傀는 1965年11月15日 最高人民會議 第4期 全員會議에서 社會主義 競爭 運動을 展開할 것을 決議한 이후 宣傳·煽動 組織에 總力量을 傾注하는 한편 協同農場을 비롯한 各 事業所, 農業關係機關 別로 熱誠者大會를 開催하는 등 增產運動에 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增產目標을 위해 「千里馬 運動」, 「二重 千里馬 運動」을 한층 強化하면서 統一意慾을 提高시켜 共產化 統一의 時期가 박두한 것 처럼 北韓住民들을 欺瞞 하면서 南韓 接收의 大望을 鼓吹하여 所謂<南朝鮮同胞 救出과 自主統一 實現>이라는 確固한 信念을 注入시키고

있으며 이를 口實로 「남녘동포 돕기 運動」, 「한술 덜 먹기 運動」, 「천삼쁘고 허리펴기 運動」, 「국안먹기 運動」, 「한 뭉 더하기 運動」 등 勞動力 搾取를 위한 積極인 宣傳과 갖가지 形態의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強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傀는 對外情勢의 緊張성과 美軍의 北侵 策動에 對備한다는 虛偽 名目으로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戰時的 轉換>, <革命基地 및 國防力 強化>를 提上 決議하고 「全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裝備의 現代化」를 계속 強要해오고 있으며, 所謂 8·12 自主宣言 이후 對內的으로 <唯一思想 體系 確立>을 위한 政治 敎養事業에 注力하는 한편 각종 學習 讀報會 등을 통하여 階級敎養事業을 強化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金日成 偶像化와 共產獨裁의 合理化를 위한 宣傳에 血眼이 쏘고 있다. 즉 이는 北傀가 7個年 人民經濟計劃에 失敗하자 이를 은폐하고 補完하기 위해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基地 強化를 力說하는 것이며 또 그동안 幹部들의 알력과 反目으로 이따른 肅清과 더불어 動搖되고 있는 北韓住民들의 不平 不信感을 除去시키기 위해 美軍과 韓國軍의 北侵 이라는 虛偽宣傳으로 北韓住民들을 緊張시키고 北韓住民들의 視線과 關心을 밖으로 돌리는 한편 強力한 金日成 偶像化 宣傳으로 忠誠과 團結을 促求하는 것이라 하겠다.

重要 宣傳內容

① 金日成·金英柱 體制 強化에 따른 金日成 偶像化와 關係된 소위 唯一思想 體系 確立을 위해 <全社會의 革命化>, <全人民의 階級化>라는 口號下에 敎養宣傳事業을 가일층 積極化하고 있으며 金日成 抗日遊擊隊 業績에 대한 虛偽, 誇張, 捏造 宣傳을 계속 敢行하고 있다.

② 北傀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대한 虛偽宣傳과 아울러 「프롤레타리아」 國際共產主義의 敎養을 하면서 共產主義의 <취황한 未來>에 대한 妄想을 注入하고 있다.

③ 北傀의 社會主義 建設 成果에 대한 誇張宣傳을 展開하면서 生産能率 提高를 위한 競爭意慾을 鼓舞하고 있다.

④ 1970年代 赤化統一 實現을 앞세운 北韓住民들의 戰時體制 確立과 이를 위한 全 北韓住民의 勞力動員에 最大의 宣傳 및 煽動力을 傾注하고 있다.

⑤ 1人獨裁 體制에 威脅을 주는 소련 및 東「유럽」 共產圈의 自由化 運動에 對備하여 철저한 共產主義 思想敎養 強化에 注力하고 있다.

⑥ 自由韓國의 貧困相, 腐敗相을 虛偽, 歪曲, 誇張, 捏造 宣傳하고 南韓 到處에서 反美·反政府 群衆蜂起가 벌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처럼 欺瞞宣傳하여 北韓住民들로 하여금 赤化統一에 대한 意慾을 鼓吹시키고 있다.

⑦ 大韓民國의 鄉土豫備軍 組織과 大學生들의 軍事訓練, 休戰線 近處에서의 各種 不祥事, 그리고 常例인 韓美 合同訓練 등을 모두 北侵 戰爭準備로 歪曲 惡宣傳하여 北韓住民들에게 危機意識을 불어 넣으면서 이를 對備하여야 한다는 口實下에 南侵準備를 強要하고 있다.

⑧ 南北韓 國民들의 平和統一 念願을 美國과 韓國政府가 妨害하고 있다고 虛偽, 歪曲, 惡宣傳하여 北韓住民들을 欺瞞하면서 共產主義 革命 必勝의 思想을 注入하고 있다.

3. 對海外 宣傳

北傀의 對海外 心理戰 動向은 5.16 이후 亞細亞의 反共體制가 強化되고 韓日國交 正常化, 韓國軍의 越南派兵 등으로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가 顯著히 向上되고 있음에 대해 이를 瓦解 沮止 시키기 위한 反美·反韓國政府 宣傳에 集中하는 한편 社會主義國家들 간의 紐帶強化 및 共同行動의 原則을 提唱하고 反美鬭爭의 國際化 및 世界的 反美輿論 形成을 위한 宣傳·煽動을 展開하고 있다. 또한 北傀는 合法的인 日本의 法 體制下에서 朝總聯 組織으로 하여금 韓日國交 妨害 策動의 一環으로 소위 <民族權利 擁護> 鬭爭運動을 強化하면서 <民族教育 守護 育成> 및 <在日僑胞 北送事業 延長> 運動 등 廣範圍한 社會運動을 展開하고 있다. 그리고 各種 會議와 外交活動 및 文化交流 活動 등을 통해 新生 「아시아」, 「아프리카」 諸國과 「라틴 아메리카」 諸國에 대한 反美·反韓國政府 宣傳을 強化하고 있고 특히 國際 共產主義運動 機構를 통해 傘下 國際團體들에게 各種 反美 및 親北傀 行事를 隨時로 開催하면서 海外駐在 公館 또는 貿易代表部를 통해 隣接地域 浸透을 위한 心理戰 工作을 圖謀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傀의 對海外 心理戰은 國際共產主義戰線 機構를 통하거나 直接的인 外交活動, 貿易活動, 展示會, 試寫會, 體育 및 文化, 藝術 活動의 交換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對海外 心理戰의 重要 媒介手段은 放送, 通信을 비롯하여 各種 新聞, 叢報, 學術誌 등의 刊行물을 郵送하거나 大韓民國 혹은 第3國에서 投入된 것 처럼 假裝하기도 한다. 특히 「멕시코」를 비롯한 中南美 諸國과 「아랍」 諸國에 多量의 宣傳文件을 投入하고 있으며 現地 駐在 韓國公館員, 僑胞, 留學生들에게 까지 붉은 魔手를 계속 뻗치고 있다. 北傀의 對海外 心理戰 宣傳文件은 그 種類만 해도 數百餘種의 數千萬部に 달한다.

그 以外에도 北傀는 「유엔」에서 韓國問題가 論議될 때 마다 常套의인 反美·反韓國的 政治宣傳 攻勢를 取하고 있으며 中立諸國의 著名한 日刊紙나 刊行물을 利用하여 反韓國 謀略宣傳을 敢行하는 등 그 手法은 多樣하다.

이와 같은 北傀의 對海外 心理戰 宣傳은 1960年代에 急速히 向上된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를 低下시키며, 海外僑胞 및 留學生들로 하여금 祖國觀을 흐리게하여 <2個의 韓國觀>을 扶植시키고, 그들의 國際的 孤立化를 모면 해 보자는 것이다. 最近에는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便乘하여 多邊外交와 함께 僞裝된 平和統一 宣傳을 強化하면서 오히려 逆孤立化를 試圖하고 있다.

重要 宣傳內容

- ① 金日成의 民族的 英雄像 내지 指導者像 부각
- ② 駐韓外國軍 全面撤收에 대한 宣傳
- ③ 平和統一 攻勢 (民族自決 原則下)
- ④ 北傀의 發展相 및 社會主義 建設相 誇張
- ⑤ 北傀의 國際的 地位向上 및 自由大韓의 威信 墜落 圖謀
- ⑥ 南韓의 腐敗相 혹은 悲慘狀을 歪曲, 誇張, 捏造 宣傳

⑦ 共產國 내지 國際共產主義 勢力間의 團結 強化

心理戰對象

- ① 海外僑胞
- ② 韓國留學生
- ③ 海外駐在 韓國公館員
- ④ 海外駐在 各種 韓國人 派遣官
- ⑤ 各國 共產主義者 및 組織體
- ⑥ 各國 政府機關 및 學園
- ⑦ 左翼系 書店 및 圖書館
- ⑧ 各國 言論機關 및 言論人

活動手法

- ① 海外公館 및 各種 目的으로 派遣된 北傀 對外駐在官이 直接 對象人物 또는 組織體에 接近
- ② 國際航空郵便에 의한 浸透活動
- ③ 寫眞展示會 및 產業博覽會 開催
- ④ 重要人士의 北傀招請 및 親善使節團 派遣
- ⑤ 親善協會 및 金日成 勞作研究 小組 活用
- ⑥ 北傀 國慶日 및 各種 條約締結 記念日을 契機로 「리셉션」 開催
- ⑦ 現地の 매스콤 包攝 및 言論人 買收 活用

第4章 韓國 心理戰

1. 目標 및 方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傀는 變化하는 國內外情勢에 相應해 가면서 우리의 弱點과 虛點을 놓치지 않고 그때 그때 惡辣하고 교묘한 心理戰 宣傳을 하루도 빠짐없이 끈질기게 展開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 우리가 조금만 放心 한다면 北傀의 魔手에 걸려들 우려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보다 汎國民的이고 積極的인 心理戰對策으로서 北傀의 侵略野慾을 분쇄 하여야 한다.

<基本目標→勝共統一>

(對 北)

- ① 金日成 一黨獨裁體制 崩壞
- ② 北韓內 反抗勢力 擴張
- ③ 北韓內 反戰「무드」造成
- ④ 南侵野慾 粉碎

- ⑤ 北韓內 自由化 暴動 誘導
- ⑥ 人道的 南北會談 與件 造成

(對 海外)

- ① 새로운 自由大韓의 「이미지」 扶植
- ② 北傀에 대한 不信感 造成
- ③ 自由大韓에 대한 信賴度 提高
- ④ 北傀의 宣傳浸透 封鎖 및 無效化
- ⑤ 自由大韓의 統一方案 弘報
- ⑥ 國際的 紐帶 強化

(對 內)

- ① 統一基盤 確保 決議
- ② 汎國民的 勝共姿勢 強化
- ③ 國內 混亂 및 分裂 防止
- ④ 北傀 赤化戰略 警戒
- ⑤ 國論定立 및 統一態勢 強化

2. 對 心理戰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北傀 對南赤化 心理戰 策動에 우리는 어떻게 對處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 對內心理戰 目標 및 方向을 當面課題別로 풀이해서 살펴보고 몇가지 重要的 課題를 中心으로 檢討해 보기로 하자.

- ① 絕對優位の 國力培養 強調 (自主國防, 自立經濟)
- ② 勝共思想 昂揚 및 再強化
- ③ 感傷的이고 性急한 統一論 排除
- ④ 北傀 共產黨의 協商戰略 警戒
- ⑤ 國內輿論 分裂 防止
- ⑥ 北傀의 戰爭準備相 暴露
- ⑦ 北傀의 偽裝된 平和統一 方案 批判
- ⑧ 北傀의 侵略挑發行爲 暴露
- ⑨ 共產主義 正體 暴露 및 共產主義 批判
- ⑩ 民族的, 國民的 團結 促求(國民의 總和 強調)
- ⑪ 對間諜作戰 參與意識 提高
- ⑫ 國家의 未來像 弘報

가. 勝共思想 昂揚 및 再強調

우리 國民들의 大部分은 6.25의 쓰라린 經驗과 北傀 武裝共匪의 各가지 蠻行으로 그들의 殘忍性, 暴惡性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를 意識的으로 避하러 들고 皮膚的으로 싫어하고 憎惡하며 두려워 한다. 共產主義 하면 不安과 恐怖感이 감도는 것도 이에 緣由된다.

그러나 歲月이 흐르고 바쁜 日常生活에 쫓기다 보니까 또 現實的으로 당장 自己皮膚에 닿고 있지 않으니까 6.25의 慘相과 共產主義者들의 殘惡性을 漸次 잊어 버리려는 傾向도 또한 없지 않다. 우리 國民들은 누구나 共產主義를 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北傀는 우리가 願하던 願하지 않던 共產化統一을 劃策하여 우리를 속이기 위한 各가지 巧妙하고 惡辣한 戰法을 驅使하고 있다. 여기에 共產主義者들의 戰略·戰術을 잘 모르는 순박한 一部 國民들은 얼떨결에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現時點에서 勝共思想 昂揚 및 再強調가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다. 그 具體的 方法을 몇가지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生活化

反共 및 勝共은 흔히 一部 特定人 만이 하는 것으로 認識하려는 傾向이 있는 바, 이러한 생각과 態度를 根本的으로 方向을 變更시켜 當面問題, 現實問題로 一般化 및 生活化 시킬 必要가 있다.

우리는 通常 反共 및 勝共思想 昂揚 教育期間 동안만 그리고 武裝共匪 出現이 있을 때에만 잠시 뜨겁하고 그 후엔 잊어버리는 傾向이 있고 또 “政府에서 알아서 하겠지”하는 依存的인 傾向이 있다. 이는 反共教育을 우리 生活 및 生存에 直接 連結시키지 못한 데에도 理由가 있다. 따라서 萬一 赤化된다면 우리의 生命과 財產,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實例를 들어 實感 있게 皮膚로 느낄 수 있도록 強調 함으로서 <反共=愛國하는 길>에 앞서서 <反共=사는 길> 입을 가슴속 깊이 머리속 깊이 깨우쳐 주어 일 할때나 쉬 때나 잠갈 때에도 恒常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繼續的인 教育 및 啓蒙을 통해서 反共을 生活化 시켜야 한다.

情緒化

反共教育 및 講演會에 가보면 住民들이 즐거나 지루해 하는 傾向이 있는 바 이는 方法이 틀린데에도 原因이 있다. 故로 各가지 實例와 實證을 들어 共產主義者들의 殘惡相을 提示 함으로서 귀 뿐 만 아니라 눈과 皮膚를 통해 共產主義에 대한 憎惡心 敵愾心이 불 붙도록 하여야 하며 反共行事を 多樣하게 展開(教育, 講演會, 展示會, 映畫, 演劇, 노래, 글 짓기, 標語 모으기 등)하여 自然스럽게 情緒的으로 反共 및 勝共思想이 住民들의 가슴속에 스며 들도록 하여야 한다. 너무 強制的이고 어렵고 흥미가 없으면 住民들의 心的 負擔만 加增되어 오히려 짜증과 不平을 일으키는 逆效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理論化

그동안 우리는 共產主義를 批判 하는데 ‘외의 肅清’ ‘殺人魔’ ‘一黨獨裁’ ‘家族制度의 抹殺’ 등 주로 感情的인 次元에 置重하여 온 傾向이 있다. 國內外情勢가 變하여 가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제

는 좀 더 파고 들어가서 共產主義의 弱點과 虛點을 理論的으로 파헤쳐 가면서 알기 쉽게 알려주어 自己化 하도록 하여야 한다.

例컨데 “共產主義는 왜 나쁜가?” “우리는 왜 國民總和가 必要한가?” “大韓民國이 赤化되면 우리에게 끼치는 影響은?” “北傀 對南赤化 戰略·戰術의 形態?”는 등의 式으로 體系的으로 繼續 熟知시킬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國民 個個人이 實際로 反共의 意義와 方法을 알게 됨으로서 共產主義者들의 낚시밥에 國民 스스로가 警戒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盲目的인 反共 보다는 共產主義에 대한 體系的이고 理論的인 批判力과 判斷力을 갖는다는 것은 共產主義 間接侵略을 沮止하는 先決問題가 된다는 것이다.

나. 主體(自主)性 確立

後進性을 完全히 脫皮치 못한 大部分의 新生國家들은 先進國의 影響으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들어 왔고 얻어 (援助) 왔기 때문에 國家發展에 큰 利益도 많은 代身 또 그 副產物로 여러가지 좋지 못한 性向을 갖게 되었다. 即 期待增加의 性向과 依他心, 懶怠心, 運命論이 바로 그것이다. 例컨데 “外國人들 처럼 좀더 平安하고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어떻게 되겠지” “누가 도와 주겠지” 하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해서 새물결, 새文化에 眩惑되어 갑자기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無作定 期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的 處地와 生活水準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全部 滿足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不平不滿, 劣等感이 짙게 되고 自拋自棄, 消費性向은 날로 增大된다. 그리하여 着實하고 健全한 前進보다 100원 들여 1,000원을 벌려는 飛躍을 願하게 된다. 여기에 많은 無理와 不作用(不正, 腐敗, 安逸, 詐欺, 買收, 暴力 등)이 생기게 마련이며 “절마하니 나라에서 우리들 굶어 죽게 내버려 두랴!” “사는데 까지 살아 보는 거지” 등의 思考方式이 助長 되기 쉽다. 이것은 自己自身을 害치고 나라를 亡치는 頹廢的인 것이다. 순박한 우리 一般國民들 마저 차츰 이에 물들어 가려는 傾向이 보인다. 이것이 곧 共產主義者들이 노리는 心理的 弱點이요 虛點인 것이다. 事實上 우리 國民들은 6·25의 쓰라린 經驗으로 共產主義者가 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心理的 現象은 反政府 性向을 높이기 쉬워 偽裝된 共產主義運動에 自身도 모르게 利用 當하기 쉽다. 그러면 이러한 좋지 못한 心理現象은 왜 생기는가? 主로 依存的, 從屬的 生活態度에서 많이 생긴다. “나라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잘 안되면 앉아서 不平, 不滿을 한다. 이 나라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우리國民과 個個人이다. 내 살림을 내가 돌보지 않는 限 建設이 있을수 없고 勝共이 있을 수 없다. 결백하고 어진 우리 全體 國民들의 魂이 一部 들떠 있고 몰지각한 亡國的인 分子들에 의해 짓밟히고 물들어져서는 絶對로 안된다. 飛躍에는 限度가 있다. 着實하고 꾸준한 前進만이 우리에게 希望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이다.

現在 우리社會가 多少 安定化 됨으로서 漸次 生活이 윤택해 가는 것은 事實이다. 原來 近代國家의 發展은 最初에는 都市를 中心으로 工業化 하면서 農村으로 뻗어가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그 過度期에 놓여 있다. 自立經濟 自立經濟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를 完全히 脫皮하

지 못하고 있다. 우리 힘으로 個個人이 모두 잘 살게 될 때 나라는 富強해 지고 共產主義자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主體性和 自立性을 가지고 이 過度期를 克服하려는 實際的 努力이 바로 勝共態勢인 것이다. 自拋自棄하고 不滿과 懷疑로서 나날을 보낸다면 누가 우리에게 食事を 提供하여 줄 것인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일자리를 줄 것인가? 옹크리고 앉아서 不平 不滿한다고 누가 알아 줄 것인가? 現實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조금만 게으르고 放心하면 競爭 社會에서 落伍가 된다. 뛰면서 일 하면서 싸우고 開拓해 나아가야지만 이 어려움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主體意識을 確立해서 내 손으로 나 自身을 救하고 나라를 富強시키고 내 아들 딸을 保護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를 主軸으로한 友邦諸國의 協調로 北傀를 막아야 한다.

다. 參與意識 鼓吹

우리는 흔히 國民全體가 未來에 대한 부푸른 希望을 가지고 있고 必勝의 信念과 強力한 鬥志力만 있다면 共產主義의 浸透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實際로 國民들이 勝共隊列에 參與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낱 꿈이요 理想論에 不過한 것이다.

특히 우리 國民들 중에 批判力이 좀 있다고 하는 階層(例컨데 靑年學生, 知識人, 中流層, 地方有志) 中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나 하나 빠진다고 어떨겠느냐”는 식의 極히 微溫의 이고 危險한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部類의 사람들은 大概 只독히 個人主義의 이고 利己의 이기 때문에 勝共隊列에 積極 參與하기를 싫여하는 傾向이 있고 또 共產主義에 沾染되기도 어려운 것은 事實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批判, 反抗, 不信, 外面的 이기 때문에 僞裝된 共產主義運動에 넘어갈 우려는 너무나 짙다. 또한 自己生活에 위축되어 있고 政治에 疏外感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例컨데 下級官吏, 가난한 知識人, 零細商人, 勞動者, 農民 등) 中에는 그저 自己生活과 直接關聯이 없는 問題에는 無關心하기 때문에 때때로 巧妙한 共產主義 術策에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 슬금 빠져들어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反共運動, 地域社會 開發事業, 各種行事(討論會, 座談會, 體育大會 등)에 積極 加擔시켜 그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責任感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責任者가 되어 일해보지 않고서는 일에 대한 熱意, 指導力, 創意力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自己가 直接 해 보아야 그 애를 理解할 수 있고 다른 일에도 積極 協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重要한 것은 努力에 대한 代價와 보람(精神的, 物質的) 반드시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 보고서는 지쳐서 포기해 버리는 事例가 너무나 許多 하였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때 人間은 누구나 意慾을 喪失하고 不信感이 생기고 곧잘 諦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나라를 理解하고 알아주고 혜택을 주는 存在 앞에는 人間은 感激되어 몸을 돌보지 않고 더욱 熱意를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第 5 章 結 論

오늘날 世界는 物理的인 武力戰 優位에서 心理的인 政治戰 優位로 變貌되고 있다. 즉 무서운 破壞力을 가진 各種 核武器의 開發과 그 威脅은 心理戰을 戰爭手段으로 더욱 發展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韓國은 國土가 兩斷된채 國內外的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課題를 앞에 놓고 하루 速히 民族의 宿願인 南北統一을 達成하여야 할 時點에 놓여 있다. 北傀는 호시탐탐 南韓을 赤化시키기 위하여 激動하는 國內外 情勢에 便乘하여 각가지 惡辣하고 巧妙한 手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南侵할 準備를 갖추어 놓고 틈만 노리고 있는바 心理戰으로 우리 國民들을 分裂, 弱화시키고 우리 社會를 混亂에 빠트리려고 狂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더욱 強力한 心理戰 對策을 講究하여 보다 積極的인 方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對外的으로 北傀의 心理戰 攻勢를 封鎖하는 同時에 北傀로 하여금 分裂, 自滅되도록 強力한 心理戰 攻勢를 展開하는 한편 對內的으로는 團結을 促求하여 國民의 總和가 이룩되도록 함으로서 勝共統一의 길로 前進하여야 할 것이다.

VII. 國 防 思 想

—「이스라엘」國防體制—

- 第1章 序 論
- 第2章 「이스라엘」軍의 背景
- 第3章 「이스라엘」의 戰略概念
- 第4章 軍 編成概念
- 第5章 教育訓練 및 士氣
- 第6章 軍需 및 武器體制
- 第7章 豫備軍 및 動員制度
- 第8章 6日戰爭의 教訓
- 第9章 結 論

第1章 序 論

韓半島는 地政學的으로 亞細亞 北方의 大陸風이 南下할 때와 太平洋의 強風이 北上할 때 마주치는 場所로 是認하고 있다. 韓半島 위에서 마주치는 兩風은 韓民族에게 큰 試鍊을 안겨 줄 때도 있었다. 試鍊을 克服하려는 韓民族의 努力과 智慧와 힘이 不足했을 때는 歷史의 他律現狀이라는 矛盾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이러한 歷史의 矛盾은 韓民族의 發展을 크게 沮喪하였다.

歷史적으로 볼 때, 韓民族은 世界에서 가장 빠르게 紀元 7世紀에 이미 民族國家의 統一을 成就하여 어느 民族에 比해서 보다는도 自高意識을 갖는데 손색이 없었다.

7世紀에 實現을 본 民族國家의 統一은 國家의 統一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韓民族이라는 民族的 主體에서 볼 때 三國統一에서 이루어진 民族的 統一은 韓國史의 單一한 主體로서 作用하여 왔다. 新羅 統一以後에 發現한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의 合致는 民族的 價値를 크게 發展시키었다.

이러한 民族的 價値의 發展은 高麗朝가 貴族國家라는 對內的인 制約에도 不拘하고 對外的인 民族 意識과 國家意識을 豊富히 發揚했던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 數없이 밀려와 主從關係를 強要한 北方의 蒙古族에 곳곳이 抵抗하여 그것을 克服한 民族的 底力은 14世紀末 朝鮮朝의 成立後 더욱 確固한 民族國家의 內容으로 發展을 보았다.

이러한 民族國家의 發展은 壬辰倭亂에서 볼 수 있었던 義兵과 같은 民族的 抗拒가 불 붙을 수 있었다.

그러나 韓民族이 지나온 近代史의 文脈을 檢討해 볼 때 異質文化의 受容을 拒否한 文化的인 排他 意識이나, 外勢의 物理的인 挑戰을 물리쳤던 民族的인 排斥意識은 閉鎖性이라는 特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閉鎖性의 問題를 깊이 따져 본다면, 文化的인 自高意識과 民族的 自存思想의 透徹性 때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歷史의 敎訓과 民族意識을 되새겨 볼 必要性을 切感한다. 自高意識과 自存思想은 훌륭했다 하더라도 現實否定은 重大한 錯誤라는 點과, 外勢의 物理的 壓力을 물리치는 때는 그만한 物理的 힘을 蓄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民族은 近代化의 문턱에서 現實否定의 自高意識과 無力한 排斥意識으로 外勢의 侵略을 沮止하지 못한 때문에 마침내는 自主權의 喪失이라는 國家狀態의 停止마저 經驗하였다.

國家의 總力安否가 切實히 要請되는 오늘 날, 우리는 自高意識보다는 現實直視를, 排斥意識보다는 有備無患 意識을 必要로 한다.

異民族의 支配라는 멍에를 벗고 主權의 回復과 民族의 解放이라는 歡喜가 찾아왔을 때, 韓民族體의 分裂이라는 또 하나의 矛盾이 우리에게 試鍊을 안겨 주었다.

歷史의 他律的 矛盾은 同族相殘까지 招來했고, 우리는 언제 어떠한 矛盾이 또 다른 試鍊을 줄지 豫見할 수 없는 現實에서 있다.

20世紀의 後半期の 國際社會는 高速한 變化가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高速의 變化는 多極化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國際秩序를 꾸미고 있다. 多極化는 民族國家의 特性을 否認했던 美소 強大國 中心主義로 부터 벗어나 民族國家 本然의 姿勢로 復元되는 것이라 할 때, 多極化는 韓民族의 所望과 合致하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近100年間 完全한 民族國家를 지탱하지 못한 때문이다.

새로운 民族主義 時代에 對處하고, 韓民族의 傳統的 自高意識과 自存思想에로의 復元을 위해서는 一切의 外部의 矛盾勢力을 排斥할 힘을 蓄力해야 한다.

國民의 이러한 생각이 곧 國防思想이다. 國防은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努力하고 鬪爭하는 것이다.

國家가 安全한 基盤위에 서 있고, 國民이 융성한 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國防이 튼튼해야 한다.

國防, 即 國家安全保障은 民族의 生存에 關係되는 것이다. 民族의 生存問題에 關係되는 安保이기 때문에 總力安保體制가 要請된다.

總力安保體制의 典型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國防體制는 우리에게 많은 教訓의 意味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2千年 동안 겪은 外勢의 壓迫과 迫害는 우리에게 比해 말할 수 없는 試練 그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個人幸福의 最終의 保障者는 國家이기 때문에 國家에 自己를 合理的으로 連結시키고 있다. 또 國家는 國家의 次元에서 能率發揮를 위해 各個人을 統合하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해서 「이스라엘」 國民은 오늘날 祖國을 繁榮發展시키고 굳건히 나라를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國民總和와 總力安保가 切實히 要請되는 오늘 날, 우리의 狀況과 「이스라엘」의 그것이 一致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이스라엘」 國民의 精神的 바탕을 깊이 洞察하여, 우리의 發展策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스라엘」의 國防體制에 대하여 알아 보려고 한다. 다시는 우리 民族의 앞날에 不幸과 試練이 닥쳐 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第2章 「이스라엘」軍의 背景

1. 概 觀

「이스라엘」은 地政學的으로 歐洲, 亞細亞 및 「아프리카」 3大陸이 連結되는 戰略的 交叉路에 位置한 面積 2萬1千 平方「키로」와 人口 270萬의 國家이었다.

1967年 有名한 6日戰爭을 通하여 舊 領土의 4배에 該當하는 地域을 占領하여 現在는 面積이 8萬9千 平方「키로」이며 人口는 300萬에 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周邊은 「이스라엘」의 生存과 存立을 拒否하는 1,140萬 平方「키로」의 넓은 地域에 14個國, 약 1億5百萬의 「아랍」인들이 적대하고 있다.

人的資源에 있어서는 40배를 넘는 敵과 대치하고 있는 셈이나, 質的인 면에서 볼때 「이스라엘」의

문맹을 10% 對 「아랍족」의 문맹을 75%이다.

個人 國民所得은 1,500弗 對 205弗이며, 「이스라엘」은 航空機를 비롯하여 「미사일」까지 生産하는 工業國인데 비하여 「아랍」諸國은 일부 豊富한 石油資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後進 農業國이다.

經濟的 면에서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比率은 6:1로 相對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政治體制는 議會民主主義의 內閣責任制이며, 多數政黨으로 聯立政府를 形成하고 있다. 經濟體制는 資本主義 體制를 原則으로 하는 混合體制이다.

「이스라엘」의 特異性은 世界 各國에서 빈손으로 모여든 移民들이 勞動者 및 農民階層을 形成하면서 建設한 나라라는 點이다. 이 事實은 「이스라엘」의 政治 經濟等 모든 分野에 있어서 큰 影響을 끼치고 있다.

2. 「이스라엘」의 歷史 要約

「여호아」와 하나님의 選擇받은 民族으로서 約束받은 땅인 것과 같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 헤매이면서 부터 始作하여 猶太教 信仰을 土壤로 하는 猶太人의 歷史는 4千年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땅에 「예루살렘」을 首都로 하는 「이스라엘」王國을 建立한 것은 紀元前 11世紀 中葉의 일이다.

한때 繁榮하였으나 強大한 周邊國家의 勃興과 함께 紀元前 6世紀頃부터 繼續적으로 外勢의 侵略을 받아 衰退하였다. 紀元前 43년에는 當時의 全世界를 支配한 大羅馬帝國에 의하여 猶太教 信仰의 象徴인 神殿을 破壞당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追放당해 버림으로써 亡國流浪民(Diaspora)으로 世界 各國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現代的 悲劇이 始作되었다.

猶太人들은 流浪의 生活속에서도 善民意識을 固守하면서 猶太教의 律法과 各種 祭禮를 지키고 自己民族을 保存하는데 各別한 努力을 傾注하면서 他民族속에서 事業에 成功을 이루고 나갔다.

猶太人들은 다시 救世主가 나타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가게 되리라는 굳은 信仰을 이어 내리 왔다. 그러나 11世紀頃부터 外國에서도 猶太人들에 대한 迫害가 始作되었다.

羅馬法王은 異教徒인 猶太人을 公職에서 追放하는 布告를 發布했고, 歐洲 各國에서는 猶太人들에 혹심한 迫害를 加하였다.

1880年代 부터 歐洲 各地에서 反猶太人 運動이 再開 強化되고, 世界 第1次大戰 直前 또는 期間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30萬名의 猶太人을 虐殺하였다. 特히 1933年 以來 世界 第2次大戰 까지 「히틀러」의 「나찌」가 「아우스비치」收容所를 비롯한 여러 「게스」室에서 무려 600萬名의 猶太人을 虐殺한 事件은 人類의 記憶에 새로운 바이다.

이처럼 끔찍한 迫害에 當面한 猶太人들 속에서는 1880年頃부터 祖上의 땅인 「파레스타인」으로 되돌아가 살터를 마련하고 同族들을 끌어드려, 2千年동안 잃었던 내나라를 다시 세워 살자는 이른바 「시온」主義(Zionism)가 일어나게 되었다.

1880年頃의 現「이스라엘」 땅에 猶太人은 2萬5千名 程度에 不遇했고, 大部分이 17世紀동안 뿌리박

고 살아온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다.

第2次世界大戰이 끝나고, 1947年 「유엔」에서는 「파레스타인」 땅을 두 地域으로 分割하여 猶太人나라와 「아랍」인 나라를 세우도록 決意하였으나, 이에 反對한 「아랍」측은 1948年 5月 19日 英國의 委任統治가 終了되고 「이스라엘」이 獨立을 宣稱했을 때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武力으로 占領하려 하였다.

1年에 걸친 戰爭은 「아랍」측의 敗北로 休戰이 成立되었고, 「이스라엘」은 「유엔」에서 分割했던 땅보다 5,900평방「키로」가 더 넓은 地域을 차지 하였다.

「이스라엘」은 1948年 獨立戰爭의 勝利 以後 즐기찬 超人間的 努力을 들여 灌溉施設을 통해 沙漠과 荒蕪地를 沃土化하고 工業建設을 통해 年間 10%의 經濟成長率을 記錄하는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해 놓았다.

한편 「이스라엘」은 海外에 흩어져 있는 1,000餘萬 猶太人의 歸鄉運動, 即 移民政策을 強化하여 第1次 大戰前에 8萬5千에 不過하던 人口가 1948年 獨立當時에는 88萬名으로 增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國防力을 質적으로 強化하는데 心血을 기울여 1967년에는 280餘萬의 國民이 「아랍」측을 相對로 6日間の 戰爭에서 壓倒적으로 勝利를 거두었다.

3. 「이스라엘」軍의 背景

「이스라엘」軍의 創設은 獨立 以前의 猶太人 移民開拓 運動體의 自衛組織에 始源한다.

그러나 名實相符한 軍事組織으로 登場한 것은 第1次世界大戰 以後 秘密軍事 組織體인 「하가나」로부터 起源한다.

「하가나」는 地域別로 職業에 從事하면서 同時에 「아랍」인들의 敵對行爲에 對處하여 스스로 自體 防衛를 相當하는 民兵形式의 組織이다.

이 民兵組織과 아울러 第2次大戰 期間中에는 3萬餘名을 英國軍에 加擔시켜 戰鬥經驗을 얻게 하였는데, 이 英國軍 猶太人旅團 出身이 「이스라엘」軍의 重要한 基幹을 이루었다.

또한 第2次大戰 期間中인 1941年 猶太人들은 「하가나」안에 最初의 常備軍이라 할 수 있는 <팔막호>라 부르는 特攻隊를 組織하였다. 이 特攻隊가 오늘날 「이스라엘」軍의 母胎가 된다.

이밖에 右翼政黨이 組織한 「테러」團體들도 軍隊에 흡수 包含되었다.

이러한 異質要素들이 集畵된 「이스라엘」軍은 豫備軍과 常備軍(現役)으로 分類된다. 豫備軍은 <하가나>의 傳統을 現役은 <팔막호>의 傳統을 계승하여 「이스라엘」市民軍의 兩大 主軸을 이루고 있다.

第3章 「이스라엘」의 戰略概念

國家戰略은 國家目的을 達成하는 要因이다.

國家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戰略形態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중 國家安全保障과 直結되는 것은 防

衛戰略이다.

「이스라엘」軍의 戰略概念을 小考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軍의 戰略概念

가. 「이스라엘」軍의 戰略概念

한 나라의 戰略을 編成함에는 地理的 條件이 큰 比重을 차지 한다.

「이스라엘」도 地理的 條件과 密接한 關係에서 戰略이 編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攻勢的 防禦戰略 概念이다.

「이스라엘」은 國土가 狹少한데다가 幅이 좁고, 南北은 길게 뻗어 있는 形態이다. 「이스라엘」의 3 面은 強大한 敵에 의하여 包圍되어 있어 一端 外部로 부터의 攻擊을 받는다면, 一擊에 致命的인 打撃을 受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主要한 戰略的 後方이 敵의 攻擊으로 부터 不過 10分內의 距離에 位置하고 있어 事實上의 早期警報體制가 不可能한 狀態에 있다.

그리고 強大國들이 「이스라엘」의 安全을 圖謀해 준다는 確實한 保障이 困難하기 때문에 自主國防 體制, 혹은 自主的인 戰略概念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理由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國土內에서 戰爭을 벌인다는 防禦概念이나 戰略的 後退 概念을 考慮할 수 없다. 그래서 攻勢的 防禦概念에 立脚하여 敵의 攻擊이 있기 전에 먼저 先制 奇襲 攻擊을 通하여, 敵의 攻擊을 事前에 막아 國土의 安全을 保障한다는 戰略에 依存하고 있다. 이러한 攻擊的 戰略概念은 우리 나라의 戰略과 크게 差異가 있다.

둘째, 電擊的 戰略이다.

長期間에 걸쳐 戰爭을 벌인다는 것은 經濟的 파탄을 招來하기 쉽다. 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自滅을 가져 올 憂慮마저 없지 않다.

長期戰爭 遂行時, 確實한 것은 外勢介入의 可能性 增大이며, 外勢 特別 強大國의 利益에 따라 犧牲될 憂慮마저 있게 된다는 點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戰略概念의 主軸은 速戰速決主義, 즉 電擊的인 戰略概念이다.

세째,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不利한 條件下에서 敵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不可避하게 모든 分野에 걸쳐 經濟性과 效率性, 量보다 質 優位, 形式보다 實質위주의 政策에 依存한다.

例를 들면, 軍隊는 最少의 常備軍과 最大의 豫備軍 위주로 編成함으로써 平時에는 經濟建設, 戰時에는 戰鬥을 效果있게 遂行하도록 한다.

또한 技術의 優位를 最大限 活用하여 效率的인 武器와 裝備體制를 갖는다.

그리고 強韌한 精神力으로 敵의 莫大한 物量에 對處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1967年 6日戰爭을 통해 明白하게 立證되었다.

네째, 「이스라엘」國民의 透徹한 國防思想이다.

「이스라엘」國民은 千年에 걸친 外勢의 支配와 迫害, 強大國에 의해 背反 當하였던 쓰라린 歷史를 되새기고 있다. 그러므로 外國과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고, 外國援助를 받아드리기는 하되 外勢에 依存치 않고, 또 外勢介入의 機會를 許容하지 않는 自主·自力의 國防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獨自的인 國防體制, 獨自的인 戰略概念, 獨自的인 軍隊編成 및 敎理를 採擇하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外國의 武器를 받아 自己의 興件에 맞도록 改善한 獨自的인 武器體制이다. 獨自的인 武器體制를 維持하고자 온갖 科學, 技術을 動員하고 있다.

다섯째, 「아랍」측의 挑戰에 대하여 大量報復戰略을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平時에 있어서 「아랍」측의 各種 浸透와 挑戰을 받으면 即刻的인 報復과 膺懲力을 行使하여 선불리 「아랍」측이 挑戰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思考와 行動은 當局者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일치하는 國防思想이라 하겠다.

2. 地域防禦 概念

「이스라엘」의 地域防禦 概念은 우리 나라에서 豫備軍이 自己 고장을 지키는 것과 相同한다.

「이스라엘」은 現在의 休戰線인 「스에즈」運河 地域을 除外한 모든 國境地域의 防禦는 主로 現地 住民들의 民防衛組織과 青年戰鬪開拓團(나할)의 自體防禦에 依存하고 있다.

常備軍(現役)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最少限의 人員을 戰線에 配置하고 大部分을 後方에 集結 保有하여 決定的인 反擊作戰에 投入하도록 編成되어 있다.

國境地域의 防禦를 擔當하는 現役아닌 青年戰鬪開拓團에 관하여 간단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軍部는 希望者를 골라 義務服務 期間中 農事技術을 가르치며, 農土를 開墾하고 國境防禦 任務를 遂行토록 하는 特殊部隊를 維持하고 있다.

이 部隊가 青年戰鬪開拓團(나할)이다.

<나할>은 國防上 脆弱한 邊境地域에 100名 內외의 18歲 男女 新兵들로 中隊를 編成 配置하여 農事와 國境防禦 任務를 遂行한다.

<나할>部隊에, 軍部에서는 指揮官을, 政府에서는 農業技術 指導委員長, 그리고 猶太人 機關에서는 所要資金을 提供하여 國境防禦를 하면서 農土를 開墾하여 農場을 만들도록 한다.

<나할>이 개척한 農場이 어느 程度 畦도에 오르면 民間人 集團에 引繼되어 集團農場 또는 協同農場을 만들도록 한다.

「이스라엘」은 現役이 아닌 一般住民과 青年戰鬪開拓團이 國境을 防禦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特有的 戰略이며, 國境防禦의 成果가 極히 優秀함을 볼때 國民의 強力한 國防體制를 엿볼 수 있다.

第4章 軍編成 概念

本項에서 살펴 보려는 軍編成 概念은 具體的인 編制內容이 아니라 國防을 위한 軍編成 政策을 概觀하는 데 있다.

「이스라엘」의 國防政策의 最高 決定機關은 首相, 國防相, 財務相, 外務相 및 其他 必要한 人員, 5名 内外의 閣僚들로 構成된 國防會議이다.

이 國防會議의 性格은 우리 나라의 國家安全保障會議와 類似하다.

어느 나라이건 國防이 가장 重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國防을 더욱 重要視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스라엘」 國防部는 自主國防을 실현하는 다음과 같은 任務을 遂行하고 있다.

첫째로, 武器 및 軍需物資의 生産과 調達이다. 國防部는 直接 航空工業, 電子工業, 兵器工業 등을 運用하여 必要한 武器의 全量을 自體生産한다.

둘째로, 尙大하고 優秀한 研究開發機構를 運營한다. 즉 科學을 國防에 緊密히 連結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第3研究開發「센터」는 國內外 一流科學者(「이스라엘」 사람)를 모아 各種 裝備와 武器를 開發케 하여, 電子 通信裝備, 「컴퓨터」, 信管, 彈藥을 生産한다. 「이스라엘」은 現在 「미사일」과 核을 開發할 수 있는 段階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國防部가 主導한 軍事科學技術의 開發은 「이스라엘」의 科學技術發展을 善導하는 重大한 役割을 遂行하여 왔다.

다음으로, 國防體制에 關하여 말하면 市民軍制度를 維持하고 있는 點이다.

市民軍制度는 男女 모두 18歲부터 義務的인 軍服務를 하게 되는데, 男子는 3年 女子는 2年이다.

軍服務가 18歲부터이므로 高等學校를 卒業하면 먼저 軍服務를 하고, 除隊後에 大學에 進學하거나 就職하게 되어 있다. 軍服務를 마친 다음 모든 男女는 19年間 豫備軍으로, 45歲 以後의 老齡期에는 民防衛 要員으로 活動하도록 編成되어 있다.

그리고 18歲 未滿의 靑少年들에게는 <가드나>라 하여 準軍事的 性格을 띤 團體에 所屬되어 軍事 訓練을 받게 되었다.

<가드나>는 戰時에 軍隊의 補助部隊로서의 機能을 遂行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市民軍 制度를 分野別로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가드나>

<가드나>는 14歲로부터 18歲 未滿의 男女 靑少年들에게 祖國의 歷史와 當面한 現實에 關한 知識을 부여한다.

이들은 祖國愛를 培養하고, 언젠가 國家에 獻身할 수 있도록 忠誠心을 鼓吹한다.

또한 最大限의 忍耐力과 勇氣를 발휘할 수 있도록 體力을 단련하고 射擊術을 研磨하게 한다. 將次 軍人으로서의 任務를 다하기 위하여 野戰에서 어떠한 條件下에서도 適應하고 活動할 수 있는 各種 技術과 能力을 培養하여 훌륭한 市民인 同時에 軍人이 될 수 있는 資質을 養成하는데 <가드나>의 目的을 두고 있다.

<가드나>에 대한 訓練은 文敎部와 國防部의 共同責任下에서 總參謀部 傘下의 <가드나>司令部가 擔當한다.

<가드나>에 대한 訓練內容은 主로 集體的인 軍事訓練과, 各自의 素質과 性向에 따라 空軍, 海軍, 機甲, 空輸 等으로 나누어 實施한다.

<가드나>는 軍事訓練만이 아니고 行軍 및 鄉土旅行을 통하여 史蹟과 「이스라엘」民族의 수난 그리고 矜持를 갖도록 한다.

그런데 <가드나>의 特性은 누구나 射擊成績이 80%未達이면 學校卒業이 不可하며, 追加的인 訓練을 實施하여 80% 以上の 성적을 獲得하여야 한다.

2. 常備軍(現役)

<가드나> 訓練을 마치면 18歲가 되어 現役軍에 入隊한다.

常備軍은 「이스라엘」 國防軍의 核心體로서, 그 規模는 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을 程度의 最少規模로 構成되었다.

「이스라엘」의 常備軍은 世界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特性을 가졌다.

첫째, 「이스라엘」現役은 戰鬪를 主任務로 하지 않는다.

戰爭이 일어났을 때 常備軍은 豫備軍이 召集動員되어 戰鬪에 投入될때까지 戰爭抑制力을 行使하고 緩衝軍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한다.

둘째, 常備軍은 平常時에는 敎育機能을 더욱 크게 발휘한다.

軍隊自體內의 敎育도 重要하지만, 市民에 대한 敎育機能이 더 크다.

「이스라엘」 國民은 人口의 過半數가 世界 坊坊曲曲에서 모여든 移民으로 構成되어 있어, 言語는 勿論 慣習, 環境 等に 낯설어 軍隊가 이들을 하나의 共同運命體로 轉換하는 용광로의 구실을 擔當한다.

그리고 民間敎育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壁地의 住民과 下流層의 市民들에 대한 敎育을 擔當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셋째, 常備軍은 豫備軍의 召集動員, 編成, 訓練 및 軍需機能을 維持한다.

네째는, 軍事敎理와 武器體制의 研究開發과 <나할>部隊를 운영하여 農土를 開拓하는 任務를 맡아 經濟建設에도 이바지 한다.

위의 같은 任務와 機能을 遂行하는 常備軍은 다음과 같이 編成하고 있다.

「이스라엘」軍은 經費 對 效果라는 原則에 따라 陸·海·空軍을 統合指揮하는 單一統合軍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地上軍(陸軍)의 編成原則은 機動性, 融通性 그리고 變化하는 狀況에 適應할 수 있도록 獨立의인 戰鬥任務에 기초하여 編成하고 있다.

「이스라엘」海軍은 小規模이나, 「미사일」이 裝備된 小型 쾌속 함정으로 編成하고 있다.

이들은 國家豫算의 節約, 被喪의 減少 등을 고려하여 迅速한 機動力을 主안으로 海軍을 維持한다. 空軍編成도 最大의 效果를 고려하여 編成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空軍編成과는 달리 飛行團 等の 中間梯隊를 없애고 迅速한 作戰을 위해 飛行大隊로 編成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軍編成에 特別히 指摘해야 할 것은 女軍의 活用이다.

女軍은 高級司令部로 부터 戰鬥의 基本單位인 中隊級에 이르기까지 모든 行政要員으로서 活動한다. 結論적으로 「이스라엘」軍은 經濟성과 效率성에 의거하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第5章 教育訓練 및 士氣

透徹한 軍人精神의 發露와 高度의 團結心 發揮는 民族精神을 바탕으로 한다.

어느 나라의 軍隊를 莫論하고 軍隊는 國民의 一部이니 만큼 軍隊의 強弱은 國民性에 源泉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國民性이 強靱하듯이 「이스라엘」軍隊도 強靱하다.

強靱한 軍隊를 養成함에는, 우선하는 것이 철저한 教育訓練과 士氣의 振作에 力點을 두는 것이다.

「이스라엘」軍은 이러한 原則에 따라 철저한 軍人精神을 부각하고 있다.

「이스라엘」軍의 教育訓練에 관한 特色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軍은 「아랍」側에 比하여 人力 裝備面에서 현저히 劣勢하기 때문에 數的 劣勢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質的 優位를 確保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訓練한다.

「이스라엘」軍은 將校 養成을 위한 士官學校가 없다.

新兵에서 優秀한 者로 部隊長이 評價 추천한 者를 段階別로 教育하여 任官시킨다.

將校候補生이건 下士官이건 實技訓練에 치중하며, 어떠한 地形 및 敵情에서도 勝利할 수 있도록 現地訓練에 중점을 두어 戰時에 地圖없이도 能히 戰鬥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랍」側 軍隊의 弱點이 近接戰鬥과 夜間戰鬥에 있음을 감안하여 訓練時間을 不規則적으로 밤 8時 10時, 또는 새벽 한시, 3시에 도 訓練을 始作한다.

訓練時間은 週當 54時間을 훨씬 超過實施하며 火器를 取扱하는 모든 將兵은 速射의 狀態에서 10% 命中토록 訓練한다. 따라서 火器의 有效射程에서가 아니라 最大射程에서 命中토록 엄한 演習을 實施한다.

軍隊에게 實施하는 精神教育은 國防이 背水の 陣을 친 生存鬭爭이라는 點을 強調한다. 때문에 國

防의 重要性은 家庭과 社會教育에서 부터 徹底히 強調되고 있다. 이와 같이 嚴格한 敎育과 訓練이 實施되고 있는 「이스라엘」軍 敎育의 基本理念으로는 自由와 責任의 調和, 放任과 軍紀의 調和를 強調하고 있음도 하나의 特色이다.

軍의 士氣振作에 必要한 조치로서 給與制度, 休暇 및 外出, 給養에 細心한 配慮를 하고 있다.

그리고 軍에서 必要한 專門化 職責 勤務者들에 대해서는 特別手當을 支給하여 勤務意慾을 鼓吹하는 方法을 採擇한다.

給養面을 살펴보면 「이스라엘」軍은 世界에서 제일 높은 熱量을 섭취한다.

1日 熱量 6,200「칼로리」를 섭취하며, 우리 나라의 3,800「칼로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將兵들의 厚生과 福祉向上에 徹底를 기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側面에서 엿볼 수 있다.

結論으로 말하면, 「이스라엘」軍은 有形的이고 展示的인 面에서 보다는 實質的인 質優位 政策에 最善을 쏟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兵士를 養成함에 있어서 一當百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一當百主義는 量的으로 볼 때는 비록 한 사람에 不過하지만 技術水準이나 鬪志力이나 戰鬪力으로 보아 「아랍」측의 100名을 相對할 수 있도록 訓練함으로써 量的不足을 質的으로 克服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北傀集團이 “우리는 一當百으로 準備되었다”는 宣傳은 所謂 赤化統一이라는 허황된 目的을 達成하려는 意圖로 軍事訓練의 強化를 뜻하는 것이다.

北傀의 一當百主義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精神的 特性을 輸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軍은 「이스라엘」民族의 歷史와 當面한 國家現實에 관한 徹底한 敎育을 통해 各個 兵士들로 하여금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目的意識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어 투철한 軍人精神을 갖는다.

이러한 事實은 지난 1967年 6日 戰爭 當時 「이스라엘」軍의 한 將校가 外信記者에게 말했다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證明한다.

“만일 「이집트」軍이 진격해 온다면, 나는 나의 妻子가 「이집트」인의 손에 떨어지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고 말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나와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었다.

이러한 진술로 「이스라엘」將兵들이 어떠한 目的意識과 鬪志로 戰鬪에 臨하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곧 國防思想이다.

第6章 軍需 및 武器體制

自力·自主國防의 實現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軍需 및 武器의 自體生産 調達이다.

「이스라엘」은 資源이 不足하고 經濟力이 미약하지만, 지난날 처럼 強大國에 의한 干涉과 背信의 쓰라린 經驗을 反復하지 않으려고 自主國防體制의 維持에 全力을 기울인다.

때문에 「이스라엘」軍部는 軍需産業의 育成과 武器의 自體生産을 위한 軍需活動을 積極的이며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自力에 의한 軍需物資를 調達하는 「이스라엘」은 戰爭을 對備하여 언제라도 100% 活用할 수 있도록 緊要物資를 貯藏 管理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戰略概念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速決戰略을 뒷받침하는 戰爭物資 開發에도 最普을 쏟고 있다.

「이스라엘」軍部の 軍需活動 全般에 관한 特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軍需産業

「이스라엘」은 最少限의 特種 武器만을 外交的 考慮에서 外國에 依存하고 모든 것을 自體生産한다는 自力防衛體制의 傳統을 이어 내려 왔다.

이러한 政策의 施行過程에는 적 어려운 點이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거의 完全하리 만큼 自力에 의한 生産能力을 갖게 되었다.

軍需物資의 自體生産 能力은 「이스라엘」의 戰略編成과 軍事敎理面의 發展에 크게 영향을 주어 지금까지 3次의 戰爭을 勝利로 終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國防部는 1964年 「네게브」沙漠의 「다모나」에 出力 24「메가와트」의 原子爐를 建設하여, 年間 4~6키로 그램의 「플로토늄」을 生産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原子爐는 年間 1개의 原子彈을 만들수 있는 潛在力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國防部는 1967年 6日 戰爭 이후 電子産業, 航空工業, 「미사일」産業 등을 계속 擴張해 왔다.

國防部가 벌리는 軍需産業은 「이스라엘」의 國民經濟發展과 工業의 近代化 및 多樣化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現在 「이스라엘」軍部가 運營하는 軍需産業施設에서 生産되는 武器의 種類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지」기관 단총
- ② 박격포 탄약(60m/m, 81m/m, 120m/m, 160m/m)
- ③ 81m/m, 120m/m, 박격포의 砲身分離 製作

- ④ 訓練用「젯트」기 製作(아라바)
- ⑤ 「젯트」전폭기 (製作 可能)
- ⑥ 核武器 및 原子彈 生産 潛在力 保有

이러한 武器를 自體 生産하는 「이스라엘」은 軍需産業의 育成과 關聯하여 技術要員 確保에 多方面으로 努力하고 있다.

技術者의 養成, 確保를 위한 「이스라엘」 軍部の 方策은 다음과 같다.

1966년에 軍에서 직영하는 空軍技術高等學校를 세워 卒業後 軍服務期間은 물론, 除隊 後에도 軍需産業에 從事하도록 保障하고 있다.

또한 高等學校 2學年 學生中에서 本人의 希望과 軍의 所要에 따라 優秀者를 選拔하여 軍에서 財政을 專控, 各種 高等技術學校 및 職業學校에 進學시켜 卒業後 技術要員으로 確保하는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이밖에 軍의 所要에 따라 一部 學生들을 軍 入隊前에 大學에 進學시켜 專門技術을 習得케한 다음 大學卒業 後에 軍에 服務하도록 하는 制度도 採擇하고 있다.

軍에서 必要한 電子工學·兵器工學 分野 要員들은 대개 이 制度를 통하여 獲得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대상 學生 以外에는 高等學校 卒業 後 大學에 進學할 수 없게 되었다.

2. 武器體系

「이스라엘」軍의 武器體系는 強力한 空軍力과 迅速한 機動力, 그리고 높은 性能을 위주로 하여 研究 開發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는 軍 裝備의 現代化 推進에 비상한 關心을 가지고 있으나, 援助로 이루자는 態度보다는 自體生産이라는 問題가 더 重要하다.

한 나라의 國家를 防衛하고, 外敵의 侵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軍의 裝備現代化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軍은 1948년 獨立戰爭 以來 國際關係의 變遷과 關聯하여 多樣한 武器와 裝備를 保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微弱한 經濟力으로 인하여 武器體系의 一元化를 達成하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부득이 多元化된 武器體系를 維持하고 있으나, 多元化된 武器體系를 가장 效率的으로 使用하려는 最大의 努力을 쏟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스라엘」軍部가 國家防衛를 위해 武器의 效率的 運用에 努力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國民들은 다만 軍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全 科學者가 動員되어 스스로 國防에 參與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큰 教訓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지금 超現代化 武器로부터 原始的 家内手工業的 製品에 이르기까지 混成된 武器體系를 維持하고 있다.

戰車의 경우를 보면 美·英·佛·소 4 個國製의 10가지 種類를 保有하고 있는가 하면, 砲에 있어서도 같은 4 個國製의 7가지 種類를 가지고 있다.

小銃에 있어서도 第2次 世界大戰時의 獨逸製와 獨立戰爭에 輸入해 온 「체코슬로바키아」製, 그리고 「이스라엘」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種類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낡아빠진 武器들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技術로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고 우수한 性能을 나타 내도록 改造하여 使用한다는 데 特色이 있다.

또 다른 特色은 낡은 武器와 裝備를싼 값으로 輸入하여 이를 現代化, 高性能武器로 改造하여 使用하는 놀라운 솜씨를 發揮하는 데 있다.

이러한 例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第2次 世界大戰 初期에 使用하던 M-4 「사단」戰車는 76m/m砲를 장비하고 있었는데, 76m/m砲대신에 105m/m砲를 장치하고 内部의 各種 裝備를 最新型으로 대치하는 한편, 軌道도 사막에 適合한 것으로 바꾸어 「벤그리운」戰車라 했다.

② M-48 「페론」戰車도 90m/m砲대신 105m/m砲를 대치하여 使用하고 있다.

③ 168m/m 迫擊砲를 M-4戰車 車體에 탑재한 迫擊砲 裝甲車도 있다.

④ 半軌道 車輛에 高射機關砲를 裝置했었으나, 81m/m, 120m/m 迫擊砲와 高射砲를 裝置하여 砲車로 使用한다. 그리고 半軌道 車輛에 無電機를 장치하여 使用하고, VHF「안테나」를 施設하여 移動用·通信施設로도 活用한다.

⑤ 大部分의 戰車를 휘발유 대신 「디젤」로 使用하도록 「엔진」을 改造하여 莫大한 豫算을 節約하고 있다.

⑥ 「체코」製 舊式 7.92m/m소총도 口徑을 2.2m/m로 改造하여 訓練用으로 使用한다던가, 20m/m 高射 機關砲를 地上用 機關銃으로 改造하여 使用한다던가 하는 實例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科學技術의 發展을 뜻하며, 科學은 國防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軍의 武器體系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1947年의 6日戰爭에서 「아랍」軍으로부터 노획한 武器와 裝備의 活用이다.

「이스라엘」軍은 6日戰爭 當時 1,000臺에 가까운 戰車를 노획하였는데, 이 戰車는 모두 소련製 T-34, T-54, T-55이었다. 「이스라엘」軍은 이러한 소련製 戰車를 一部 改造하여 沙漠과 황무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例는 수 없이 많으며, 심지어는 노획한 武器와 裝備로 1개 師團을 完全히 武裝하기도 하였다.

自主國防을 達成하려는 우리의 努力은 「이스라엘」的 水準에는 到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國民의 思想이 아쉽다.

第7章 豫備軍 및 動員制度

國家防衛에 있어서 豫備軍이 차지하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특히 敵으로부터 後方地域을 교란당한다든가, 共產「계」의 浸透가 豫想되는 狀況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스라엘」의 豫備軍制度는 어느 나라의 豫備軍制度와도 다른 特性을 가지고 있다.

1. 「이스라엘」의 豫備軍 體制

「이스라엘」의 豫備軍制度는 본래 「스위스」의 制度를 土蠶로 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적 傳統과 國家的인 必要에 의하여 오랜 時日을 두고 研究發展시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스라엘」의 豫備軍制度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아랍」圈에 비해 人口가 너무 적고, 國防과 經濟建設을 併行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그리고 國家戰略이 攻勢的인 速決戰略에 기초함으로써 豫備軍制度도 이렇게 編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國土가 狹少하여 全國이 1日 生活圈을 形成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하여 예비군制度를 編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國防이 곧 生存鬭爭이라고 믿는 國民들의 精神的 바탕도 빠질 수 없다.

「이스라엘」軍의 豫備軍制度에 特徵的인 것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나라의 民兵制度는 鄉土防衛와 戰時動員이라는 두 가지 目的中的 하나 또는 두 가지 目的을 同時에 遂行하도록 組織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豫備軍은 根本的으로 戰時動員을 위한 體制에 立脚하고 있다.

그것도 常備軍의 支援이나 補充을 위한 體制가 아니라 戰時에 主戰鬭力을 이루도록 編成되어 있음이 特徵이다. 따라서 鄉土防衛는 民防衛 要員들이 遂行하도록 別途의 編成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男女 國民은 18歲부터, 男子는 36個月間 그리고 女子는 20個月間 現役に 服務할 兵役義務를 지니고 있다.

現役服務가 끝나면 男子는 44歲까지 豫備役 服務를 하게 된다. 39歲까지는 第1豫備役으로 國家狀況에 따라 다소 變動이 있으나 勤務召集 日數는 年間 總 55日이고, 그 以後 44歲까지는 第2豫備役으로 年間 38日間の 訓練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이스라엘」의 豫備軍 指揮體系가 一元化 되었음이 또 하나의 特徵이다.

「이스라엘」의 豫備軍은 現役과 같이 總參謀部가 直接 指揮한다. 人力뿐만이 아니고 動員裝備의 管理도 直接 擔當한다.

總參謀部는 豫備軍만이 아니고 民防衛組織도 直接 運用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民防衛部를 두어 內務部와 緊密한 協助를 맺고 運用한다.

(3) 「이스라엘」의 豫備軍은 地域單位가 아니라 戰鬪態勢를 完備한 部隊單位로 編成되어 있음이 또 다른 特徵이다.

「이스라엘」의 豫備軍은 通常 3,500~4,000名 規模의 旅團 單位로 編成되어 있다.

現役 服務를 마친 모든 將兵은 主特技, 階級, 居住地域을 考慮하여 어떤 한 部隊員으로 固定 補職된다.

(4) 國家 主要 基幹産業에 從使할 一部 必須要員은 後方 緊要 要員部隊에 編成되어 戰時에도 軍需工場이나 電力, 給水, 輸送, 食品 等 分野에서 繼續 勤務하게 된다.

豫備役 將兵이 配置되는 部隊는 순전히 豫備役으로 構成된 豫備役 部隊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空輸, 機甲部隊와 같이 全國的 範圍로 編成되어 있는 部隊도 있으나 通常의 경우 動員을 迅速하고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매개 居住地域 近處의 部隊에 編成된다.

(5) 豫備役 部隊의 編制나 裝備는 現役 部隊의 編制나 裝備와 同一하다.

단 豫備役 部隊에는 平時에 豫備軍의 行政業務와 裝備管理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現役의 行政中隊가 있다.

(6) 豫備軍의 訓練도 部隊 單位로 그 自身이 豫備役인 部隊長 責任下에 實施된다.

教育訓練의 種類는 各個訓練과 部隊訓練으로 區分된다.

各個訓練은 月 1回 1日, 3個月에 1回 3日間 召集되는 날에 주로 動員訓練, 個人別 特技訓練, 裝備機能 測定訓練을 하게 된다.

部隊訓練은 年 1回 31日間 召集되는 期間을 利用하여 年次別 部隊訓練을 實施하는데, 이 訓練을 통해 새로 發展된 戰術敎理를 發展 適用시켜 장차 自己部隊가 遂行할 戰鬪力을 測定한다.

2. 豫備軍의 動員體制

아무리 優秀한 豫備軍 制度를 마련하고 있어도 迅速히 動員하지 못하면 豫備軍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豫備軍 動員을 容易하고 迅速하게 實施하기 위하여 모든 部面에 纖細히 準備를 갖추고 있다.

모든 將兵은 居住地域別로 動員班, 動員區, 動員地域으로 構成된 動員網 속에 들어 있다.

各個 豫備役 將兵은 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住所나 職業이나 身體條件 等に 變化가 생기면 即時 所屬部隊에 連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每 6個月마다 定期報告를 하도록 義務化 했다.

「이스라엘」은 豫備軍 動員을 迅速히 하기 위하여 놀라운 程度의 緻密性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한 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豫備役 旅團의 各大隊는 動員業務를 위해 將校 1名과 女軍 3名이 있다.

이들은 動員令이 내렸을 때 動員召集 令狀을 配布하는데, 動員班長 動員區長이 使用할 「팩」을 準備하고, 動員令은 通常 夜間에 下達됨으로 「후라쉬라이트」를 準備하고, 不在中의 豫備軍에게 連絡하도록 電話用 銅錢까지 準備한 實情이다.

豫備軍 召集 動員令은 두 가지로 區分된다.

첫째는, 公開動員令이다. 公開動員은 內閣 決議에 의해 「라디오」, 新聞, TV等 各種 「매스미디어」를 通하여 公開의으로 動員令을 發表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公開動員令을 下達한 例는 1954年 「시나이」 戰爭때라고 한다.

둘째로, 秘密動員令이다.

秘密動員은 總參謀部에서 地域司令部를 經由 各部隊에 下達된다.

各部隊의 連絡將校는 連絡兵을 通해 動員區의 長에게, 動員區의 長은 動員班의 長에게, 動員班의 長은 各 個人에게 令狀을 下達한다.

秘密動員의 또 하나의 方法은 部隊마다 事前에 約束된 陰語를 「라디오」로 放送하거나, 結婚行進曲, 軍歌를 放送하여 動員하는 方法도 使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動員된 豫備軍의 行政處理 및 裝備의 動員 管理面을 살펴 보기로 한다.

3. 裝備動員 및 管理體制

裝備의 動員과 管理體制를 살펴기에 앞서 豫備軍의 人事管理面을 먼저 알아 보기로 한다.

(1) 豫備軍의 進級, 能率, 評價 등을 包含하는 모든 人事管理 및 人事勤務制度는 現役과 差異가 없다.

그러나 召集動員 되는 期間中의 俸給은 服務補償法에 따라 1個月 以內의 경우는 國立保險會社에서 支給한다. 1個月을 超過하는 分에 대해서는 軍에서 給與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特色은 平時에 自己의 所屬戰場에서 每月 俸給額中의 3%를 國立保險會社에 拂入하게 되는데, 1個月 以內의 경우는 바로 이 保險制度에 의하여 保險會社에서 支給하게 된다.

1個月이 超過되어 國防部에게 支給한 例는 아직 없다는 것을 보아 豫備軍의 動員은 短期間에, 또 戰爭 1個月 以上을 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豫備軍의 裝備는 現役과 同一하다.

그러나 工兵裝備 建設裝備 60%, 輸送裝備 90%는 民間에서 動員하여 使用하도록 되어 있다.

1967年 6日 戰爭때는 電車와 함께 民間用 牛乳配達車, 「아이스크림」車, 一般「버스」가 軍裝備로 轉用되었다.

이렇게 民有裝備를 動員하기 위하여 交通部와 商工부는 民有裝備 現況을 把握하여 總參謀部에 通報한다.

總參謀部는 民有裝備의 現況을 種類別, 形態別로 各部隊와 裝備所有主에게 通報한다. 裝備所有主는 自己의 車輛이 어느 部隊에 所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動員令을 내리면 즉시 所屬部隊에

裝備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民間人 裝備 所有主는 1個月마다 1회의 定期報告와 變動이 있을 때는 隨時報告를 하며, 裝備 移轉時에는 7日 以內에 連絡將校室에 報告하게 되어 있다.

(3) 動員車輛裝備와 建設裝備 이외의 모든 戰鬥裝備 및 補給品은 各部隊 單位別로 集積所에 貯藏해 둔다.

個人裝備는 完전 軍裝으로 自己 所屬部隊의 個人 裝備函에 保管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豫備軍制度를 理解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重要한 것은 모든 市民들이 戰爭이 勃發하였을 때의 自기의 任務와 責任을 熟知하고 있으며, 國防 參與意識과 國家觀에 徹底하다는 것이다.

그 좋은 例는 豫備役 將兵들이 自기 所屬部隊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部隊를 訪問하여 自기의 裝備가 잘 保管되어 있고, 部隊의 變動狀況이 없는 가를 確認하는 것은 언제나 動員될 수 있다는 參與意識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 준다.

第 8 章 6日戰爭의 敎訓

不過 280萬의 적은 國家가 1億을 넘는 「아랍」諸國과 戰爭을 벌여 6日만에 43倍의 敵을 물리치고 勝利를 爭取했다는 것은 分明히 奇蹟이 아닐 수 없다.

6日戰爭의 敎訓은, 人間의 精神이 無窮한 힘을 創造할 수 있다는 것을 證明한 點이다.

아무리 優秀한 科學武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武器를 다루는 個別 兵士의 精神이 確固하지 못하던 쓸데 없게 된다.

우리는 第2次 世界大戰에서 4,000대가 넘는 독일 航空機에 不過 1,000대 남짓한 航空機로 勝利를 爭取할 수 있었던 영국 空軍의 精神을 엿볼 수 있었다.

英國民은 世界 議會民主主義 國家 組織에 偉大한 貢獻을 하였다는 精神的 基盤을 確立한 까닭에 偉大한 힘을 發揮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國民은 流浪民 生活에서 幸福할 수 없었던 過去를 切感한 때문에 國家를 維持해야 한다는 透徹한 精神으로 무서운 힘을 發揮하였다.

6日戰爭에서 「이스라엘」軍은 末端 兵士로 부터 軍 最高首腦에 이르기 까지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目的意識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奇蹟이라는 힘을 내었다.

例를 들면, 戰爭開始와 더불어 「이스라엘」空軍은 50「미터」以下の 低空飛行으로 「아랍」空軍 基地에 接近하여, 「아랍」側의 空軍力을 擊破시키었다. 3時間 以內에 完全히 制空權을 掌握 함으로써 「아랍」側 空軍은 地上에서 떠보지도 못하고 敗北하였다.

50「미터」以下の 低空飛行은 敵의 「레이다」網에 安全하다는 것이다. 이토록 訓練을 하는데 얼마

나 많은 訓練을 쌓았는지 充分히 알 수 있다.

地上軍의 경우는 強力한 空軍의 支援을 받으면서 하루에 무려 30「키로」씩 進擊하여 「시나이」半島를 占領 完了하는데 不過 4日이 所要되었다.

「시나이」地域 作戰에서 「이스라엘」軍은 輕微한 被害를 입는데 반하여 「이집트」軍은 7個의 精銳 師團을 喪失하였다.

이러한 戰果는 戰爭歷史를 通하여 前代未聞의 놀라운 戰果였다.

「이스라엘」軍의 武器 體系를 說明하는데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軍은 6日戰爭에서 노획한 武器로 編制上 1個 師團을 裝備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結果는 軍人만의 透徹한 軍人精神때문이 아니고, 國民全體의 國防思想에서 緣由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스라엘」國民의 國防思想을 잘 나타낸 實例는 「시리아」國境地帶의 「고란」高原 作戰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고란」高原 作戰에서는 「시리아」軍 9個旅團과 「이스라엘」軍 3個旅團, 그리고 現地 住民들의 自衛 組織으로 敵을 물리치고 勝利하여 「고란」高原을 掌握하게 되었다.

내民族과 내國家를 지켜야 하겠다는 불타는 精神이 「이스라엘」國民 個個人에게 顯示 되었기 때문에 勝利로 이끈 것이다.

「이스라엘」國民은 國防이 허물어지면 죽는다는 事實을 알고 있기 때문에 最後의 1人까지라도 國家와 鄉土를 지킬 精神 姿勢가 確立되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北僞의 全面 侵略이 再演 된다면 과연 우리 國民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北僞의 集團이 赤化統一 野慾을 拋棄하지 않고 全面 再侵을 敢行한다면 6.25와 같이 後退나 避難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날 戰爭形態는 速戰速決主義이다.

이제 우리는 避難해야 할 餘裕가 없다. 우리도 내 鄉土 내 祖國을 내가 지킨다는 國防思想을 鼓吹해야 한다.

6日戰爭에서 「이스라엘」이 勝利하게 된 主要因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랍」側은 國際勢力의 作用을 重視한 依存의이고 統一性이 없는 戰略概念으로 戰爭에 臨했고, 戰術에 있어서도 形式爲主이고 融通性이 없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側은 敵의 軍事力 擊滅만이 當面한 唯一한 解決策이라고 判斷하고 先制 攻勢奇襲과 速戰速決 戰略에 士氣를 두어 多樣한 戰術을 展開 했었다.

「아랍」側은 協助되고 統合된 作戰計劃과 努力이 缺如되었고, 數的 優勢에 의한 自體力量의 過大 評價와 「이스라엘」市民軍 戰鬪力의 過少評價라는 錯誤를 했다.

또한 「아랍」側은 沙漠에서의 戰術을 익히지 못하였고, 形式的인 訓練만을 해 왔었다. 兵士들은

無知하고, 團結心이 缺如되고, 戰意가 不足했으며,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目的意識을 갖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要因들에 比해 「이스라엘」軍은 正確하고 優秀한 情報判斷과, 高度로 發展된 動員制度 및 國家力量이 統合된 徹底한 戰爭準備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國民의 愛國心, 國防參與意識 및 協同精神의 結果였다. 平素에 家庭, 社會, 學校教育을 통해 國家防衛에 대한 確固한 精神力을 길렀던 까닭에 戰爭에서 勝利할 수 있었다.

이러한 6日戰爭의 敎訓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나의 것을 지키는 自存思想을 갖추어야 하겠다.

종전 3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第 9 章 結 論

「이스라엘」 國防體制 全般을 精神力, 教育訓練 및 制度의 3側面에서 要約하여 結論을 맺기로 한다.

「이스라엘」軍의 힘의 源泉은 무엇보다도 나라 없이는 살 수 없고, 國防은 곧 生存 鬪爭이요 나와 나의 家族이 살려면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高度의 精神力에 있다.

「이스라엘」軍이 싸운 戰爭은 實際상 人間 對 裝備能力의 對決이었으며, 物量 對 精神力의 싸움이였다.

各級 指揮官이 部隊의 最先頭에 서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指揮한다던가 機甲部隊의 指揮官들이 鎗聲이 날아오는 銃彈을 겁내지 않고 砲塔을 열고 上半身을 露出한채 部隊를 指揮 하였다.

兵士들은 수 많은 敵軍이 버티고 있는 要塞化된 敵陣地 속으로 뛰어들어 戰友의 屍體를 넘어가면서 白兵戰을 벌리었다.

外國에 留學中인 學生들이 祖國에 戰爭의 危機가 감돌자 召集하지 않았는데도 앞을 다투어 歸國하여 戰爭에 參加한다던가 하는 것이 全勝의 要因이었다.

이러한 精神力은 곧 祖上들이 겪었던 쓰라린 歷史를 다시는 되풀이 할 수 없다는 不屈의 精神力에 緣由한다.

「이스라엘」에는 兵役 忌避者나 豫備軍 召集 訓練 忌避者나 戰爭터에서의 卑怯者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者들이 있다면 父母는 그를 子息으로 取扱하지 않고, 職場이나 동네에서는 同僚 親知들의 壓力에 의하여 그 곳에서 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精神力이 어떻게 하여 形成되었는가 하는 問題이다. 물론 하루 이틀에 急造된것은 아니고 長久한 受難의 歷史的 過程속에서 피눈물 나는 努力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方策 및 가지는 우리의 關心을 끌게 한다.

첫째로, 社會教育制度이다.

「이스라엘」에서는 幼稚園이나, 國民學校나, 中高等學校를 막론하고 「나찌」治下의 「유럽」에서 虐殺당한 祖上들의 痛切한 寫眞을 복도에 걸어서 每日 每日의 生活에서 刺戟制가 되도록 한다.

또 <가드나>를 說明한 바와 같이 祖國의 坊坊曲曲을 引率 行軍하면서 先祖들의 빛나는 遺跡과 쓰라린 受難의 歷史를 되새기는 歷史教育을 實施하는데, 이러한 모든 教育은 事實의 傳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를 國家가 當面한 여러 問題의 理解와 더불어 國防思想을 鼓吹하는 面에 重點을 두고 強調한다.

오늘 날 「이스라엘」 國民들의 精神的 밑바탕은 바로 이러한 教育을 통해 具現된 것이다.

둘째로, 軍 精神教育의 日常化이다.

軍에 대한 精神教育은 어느 特定時間에 實施된다기 보다는 食事時間이나 休息時間을 莫論하고 日常生活과 訓練속에서 鼓吹하고 있다.

또한 어느 特定 教育將校에 의해서 實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上級者와 同僚들의 自然스러운 接觸과 對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上下間에 隔意 없는 接觸의 維持, 全軍隊가 하나의 家族과 같이 지내는 慣習 등은 軍 精神強化를 可能케 하는 基礎가 되고 있다.

셋째로, 指導者들의 率先垂範이다.

政府의 閣僚나 軍 高級指揮官을 莫論하고 儉素한 生活態度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나 兵士들의 休憩所, 空軍操縱士들의 待機所 등 各種 娛樂施設을 設備하여 兵營生活의 明朗化를 기하고 있다.

모든 問題에 있어서 上官들은 恒常 模範을 보임으로써 部下들의 尊敬과 信賴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곧 忠誠心과 愛國 愛族의 精神을 發揮케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事實들은 精神力 強化에 直結되는 問題이다.

「이스라엘」軍의 힘이 되고 있는 다른 하나의 源泉은 徹底하고 效率的인 教育訓練에 있다.

軍隊는 무엇보다도 徹底한 教育 訓練過程에서 참다운 軍人像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스라엘」軍은 教育訓練에 效率的이고도 實質的인 訓練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軍의 特徵的 訓練 몇 가지의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量보다 質 優位, 形式보다 實質爲主의 訓練이다.

「이스라엘」은 人口가 不足하고, 資源이 不足하고, 裝備가 不足한 때문에 質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6日戰爭의 敎訓이 바로 量에 대한 質의 勝利, 形式에 대한 實質의 對決에서 勝利한 것이라 하겠다.

<一當百主義 原則>을 強調하는 「이스라엘」軍이 人力과 裝備의 優勢에 依存하고 形式的인 展示 效果와 虛勢만을 자랑삼아 온 「아랍」側을 敗北시킨 것은 理解할만 하다.

「이스라엘」軍은 戰鬪에서 將校와 下士官이 戰死 혹은 負傷 當하여 없다하더라도 最先任 兵士에 의해 훌륭히 部隊가 指揮되었다.

그러나 「아랍」側은 指揮官이 戰死하면 그 部隊는 瓦解되곤 하였다.

兩側을 比較할 때 「이스라엘」軍은 平素에 徹底한 訓練을 통하여 研磨한 各個 兵士들의 卓越한 能力을 길렀기 때문에 수십배의 敵을 敗北시키었다.

6日戰爭이 끝난 後, 어떤 外國의 軍事評論家는 “「이스라엘」軍의 分隊長은 「이집트」軍의 大隊長과 맞먹는 指揮能力과 義務感과 軍事知識을 지니고 있다”고 評價한 바 있는데 이것은 誇張만은 아니다.

둘째, 效率的인 戰術敎理의 開發이다.

오늘 날 戰術敎理의 變遷은 優秀한 科學武器의 出現과 더불어 變化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原始的인 戰爭樣相도 있게 된다.

「이스라엘」軍은 沙漠과 荒蕪地에 適合한 戰術敎理를 多樣하게 實際 狀況에 맞도록 發展시켜 왔다.

이에 반하여 「이집트」軍은 소련軍의 戰術敎理를 模倣하여 安逸하게 依存했다.

이러한 差異는 戰爭에서 쉽사리 優劣이 決定되었다.

「이스라엘」軍은 外國의 敎理를 받아들여, 그것을 自己들의 狀況에 符合하도록 改良하여 使用하고 있다.

「이스라엘」軍은 外國軍의 敎理는 어디까지나 맞을 돌구는 양념에 不過하고 主食인 빵과 고기는 自國의 것이어야 한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戰術敎理의 研究 開發에 努力하였다.

이들의 敎理開發 研究는 莫大한 豫算을 使用하면서 長期的이고 繼續的인 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다.

세째로, 實際狀況에 立脚한 訓練이다.

「이스라엘」軍은 夜間訓練에 置重하고 있는데, 「아랍」側이 夜間戰鬪를 접내기 때문이다. 모든 訓練 演習은 敵의 實質的인 築城 及 防禦 配置, 그리고 實際地形上에서 實施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戰時에 地圖 없이도 作戰할 수 있을 程度로 敵 地形에 익숙 시키도록 訓練하고 있다.

네째로, 軍 入隊前 訓練이다.

<가드나>를 說明한 바 있드시 軍 入隊前의 靑少年들에게 軍事訓練을 實施함으로써 兵士들의 質의 水準을 높이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피눈물나는 國家 總力戰을 기울여, 1948年의 獨立戰爭, 1956年의 「시나이」 戰爭, 그리고 1967年의 6日 戰爭에서 勝利를 거두었다.

「이스라엘」國民이 生存權을 確保하는 「아랍」國과의 對決에서 43배에 達하는 敵을 물리쳤다는 것은, 國防없이 살 수 없다는 民族精神의 跋現이었고 國家觀의 定立이었다 하겠다.

우리도 國家가 安全한 基盤위에서 永遠한 發展을 이루도록 國民의 새로운 價値觀을 定立할 것이 要望된다.

現在 韓國軍은 世界 第4位의 막강을 자랑하고 있으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武器의 自體生産 能力이 없다.

國防科學技術研究所가 設立되어 研究開發에 着手하고는 있으나 自主國防에 必要한 만큼 自體調達에 이르는 데는 아직도 遙遠한 일이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國民의 努力으로, 특히 國防과 科學을 密接히 連結시켜 生存權 確保에 總遵進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奸惡하기 짝이 없는 北傀集團과 對峙하고 있다는 事實을 언제나 記憶하여 다시금 民族的 試鍊이 닥쳐 오지 않도록 우리의 最善을 다해야 한다.

VIII. 民主·共產 對決論

第 1 章 對決의 起源

1. 對決의 理論的 根據
2. 對決의 樣相

第 2 章 北傀의 挑戰

1. 6·25 以前의 挑戰
2. 6·25 動亂
3. 6·25 以後의 挑戰

第 3 章 對決의 展望

1. 民主陣營 對 共產陣營
2. 大韓民國 對 北傀

第1章 民主·共產 對決의 起源

共產主義라는 用語가 처음, 西洋哲學史에 紹介된 것은 西洋 政治哲學의 鼻祖라 할 수 있는 「플라토」가 그의 代表 著書인 〈共和論〉(Republic)에서 哲人王의 政治理論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졌다. 「플라토」의 死後 그의 共產主義 理論은 政治理論이나 實踐 政治面에서 別로 脚光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와의 現實的 對決은 19世紀 獨逸의 哲學者 「칼·마르크스」가 獨逸의 哲學과 「프랑스」大革命 當時의 行動戰略 및 영국의 經濟理論을 配合하며 強力한 勞動運動의 行動綱領으로 發展시켜 오늘 날의 共產主義 理論을 集大成한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即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共產黨 宣言」을 1848년에 發表하고 「마르크스」自身이 主動이 되어 1864年 「國際勞動者會議」(第1 인터네쇼날)을 創設하고 資本主義 經濟秩序와 民主主義 政治制度에 對抗한 運動을 國際的으로 展開한 以後 오늘 날까지 繼續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共產黨宣言」이 發表되고 「第1 인터네쇼날」이 結成된 以後 獨逸 等の 先進 工業國家에서 數次的 共產黨 主導革命이 企圖되었으나 全部 失敗로 돌아갔다. 따라서 民主主義 體制가 正面으로 挑戰을 받은 것은 1917年 後進 工業國家였던 「러시아」에서 「레닌」이 主導하던 少數의 共產主義者들과 이에 同調하는 海軍 水兵이 主動이 되어 「쿠데타」를 敢行하여 成功시키고 「러시아」에 共產主義를 標榜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을 樹立한 以後 부터이다. 「레닌」은 「쿠데타」에 一但 成功을 하자, 「소비에트」 政權을 樹立한 後 國內으로는 白系「러시아」軍과 對戰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를 後援하는 當時의 聯合軍이었던 美·英·佛·日 等 資本主義 國家들의 壓力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레닌」은 共產主義 本來의 「資本主義 消滅論」과 「帝國主義 戰爭論」을 一時的으로 撤回하고 「資本主義 國家들의 社會主義 國家 圍繞政策」을 展開, 「소비에트」 社會主義 國家의 存立을 爲한 鬭爭과 이에 對한 協助을 世界 共產黨員에게 呼訴하였다. 「레닌」의 死亡後 「스탈린」亦是 이와같은 內容의 「一國社會主義論」을 展開하여 唯一한 社會主義 國家인 蘇聯의 國力增強을 爲하여 모든 國家의 社會主義 政黨과 勞動 大衆들은 協力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具體的 方法으로는 資本主義 國家內에서 罷業, 怠業 等を 敢行하여 政府를 弱體化시키고, 그 國家가 蘇聯을 浸攻할 경우에는 全國的 罷業과 示威를 通하여 戰爭의 效果的 遂行을 阻止 시키고 나아가서는 革命을 일으켜야 한다고 宣傳하였다.

그러나, 2次大戰 前夜에 資本主義 國家間的 衝突이 豫見되자 「스탈린」은, 다시 「레닌」의 「帝國主義論」과 「世界革命論」으로 還元하여 資本主義 國家間的 戰爭의 必然性을 力說하였다. 即 「레닌」이나 그의 後繼者들은 國際情勢가 自己들에게 不利하고 資本主義 國家間的 紛爭이 없을 境遇에는 周圍의 資本主義 國家들이 圍合하여 蘇聯을 威脅할 것으로 憂慮하여 國際 共產主義 運動에서 「一國社會主義論」을 採擇하여 蘇聯의 安保를 危하고 一但 國內政治가 比較的 安定되자, 國際적으로 資本主義 國家間的 緊張狀態를 造成하면서 「世界革命論」을 主張함과 同時に 資本主義 國家의 沒落을 主張하였

다.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樞軸國家들과 英·美·佛의 聯合國 間의 緊張이 高造되자, 資本主義 國家間의 消滅戰爭을 期待하는 한편, 1939년에는 獨逸과의 不可侵 條約을 締結, 蘇聯의 安全을 疎하여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꿈은 1941年 「나치」獨逸의 奇襲攻擊에 依하여 一舉에 무너지고 唐愴한 蘇聯은 聯合國과 提携하여 「나치」獨逸을 打倒하는 大名題下에 統合戰線을 形成 2次大戰에 聯合國의 一員으로 參與 하였었다.

2次大戰 中 「스탈린」은 蘇聯의 國家利益을 爲하여 一時的으로 「이데올로기」를 超越, 世界 平和를 爲해 戰後에도 聯合國들과 協助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는 國際聯合 設立에 積極 參與하는 한편, 第2 「인터내쇼날」을 解體시킴으로써 共產主義의 國際的 野欲을 拋棄한 것과 같이 假裝하여 自由陣營의 指導者와 國民으로 하여금 共產主義에의 蘇聯에 對한 警戒心を 弛緩시켰다. 그러나 第2次大戰 終了를 戰後하여 蘇聯은 日本에 對한 宣戰布告를 하는 同時에 滿洲와 北韓을 占據하였으며, 東歐諸國을 席捲하고 그들의 事前計劃에 따라 占領地區에 共產傀儡政權을 樹立함으로써 그들의 勢力을 膨脹시켜 나아갔다. 이에 唐愴한 美國, 英國等 聯合國들은 蘇聯의 南下政策을 阻止하기 爲하여 1947年 「트루만」 聲明을 轉換點으로 對소 및 共產勢力에 對한 政策을 講究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오늘 날 까지 程度의 差異는 있었지만 民主·共產의 兩對 陣營은 줄곧 冷戰과 熱戰을 거듭하여 왔다.

1. 民主·共產 對決의 理論的 根據

「마르크스」가 策大成한 共產主義 理論은 單純한 理論을 爲한 理論이 아니고 革命을 爲한 行動哲學으로서 資本主義 體制와 民主的 政權을 顛覆하고 그위에 「프롤레타리아」獨裁 政權을 樹立하는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의 對決은 下可避 한 것으로서 1917年 「레닌」이 이끄는 少數 武裝團에 依해 革命이 成功하여 「소비에트」共和國이 誕生된 以來 民主·共產의 對決은 切實한 政治問題로서 登場하였다.

이러한 民主·共產의 對決은 過去 世界 政治史에서 볼 수 없는 單純한 國家間의 理解衝突이나 異質 宗教國間의 感情的 衝突과는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할 것이다. 即 民主·共產의 對決은 資本主義 國家와 共產主義 國家間의 모든 理解의 對立이며 政治制度 政治秩序 및 國民의 社會生活을 包含한 完全히 異質的인 社會間의 對立인 것이다. 또 하나의 特徵은 이러한 對立은 對立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이 共產社會 制度를 資本主義 社會에 移植시키기 爲한 武力을 包含한 모든 非合法的 鬭爭을 展開하는데 있다. 1919年 「레닌」이 宣稱한 바와 같이 “우리 人民들은 一個 國家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國家의 聯合體 속에서도 살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과 帝國主義 國家들과의 共存의 長期化는 生覺할 수 없다. 이쪽이나 저쪽 中 어느 하나는 終末에 勝利하여야 한다”는 것이 共產主義의 基本 原理이고, 따라서 끊임없는 鬭爭을 通하여 共產主義의 窮極的 勝利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妥協할 수 없는 目的인 것이다.

이러한 思想은 共產主義의 基本概念인 「辯證法的 有物論」 「資本主義 沒落論」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그리고 特別히 「레닌」의 「國際主義論」 或은 「世界 革命論」에 分明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基本概念의 內容은 大部分 前章에서 詳細히 論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하고 오직 民主·共產의 差異點과 이러한 差異點의 現實的 意味를 中心으로 兩對 陣營의 對決의 不可避成 단을 說明하기로 한다.

첫째로, 共產主義 體制의 基本이라할 수 있는 經濟理論 및 經濟秩序를 資本主義 體制와 比較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資本主義의 가장 根本이 되는 것은 勿論 私有財產權이라 하겠다. 私有財產權에 關한 理論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亦是 自然法 思想이 가장 有力한 것이었다. 즉 私有財產은 國家의 法律 以前의 것으로서 法으로도 侵害할 수 없는 人間의 生命과 더불어 가장 基本的이고 또 聖스러운 人間의 權利이고 이것은 初期 自由 放任主義的 資本主義의 財產權 概念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極端의인 財產權의 主張은 오늘 날 오랜 變化過程을 通하여 修正이 되었으나 역시 지금도 資本主義의 그 基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私有 財產權과 더불어 資本主義 社會는 人間 各自의 最大限의 幸福 追求를 法의 테두리 속에서 許容 乃至는 勸獎을 함으로서 社會 發展을 꾀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共產主義는 私有財產을 無視하고 人間을 奴隸化시키며 「부르조아」階級이 「프롤레타리아」階級을 支配하는 道具로 主張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모든 工業과 農業까지도 國有化하여 勞動者 農民은 勞動을 提供하고 그들의 必要한 生必需品을 비롯한 衣食住를 國家나 國營企業體, 혹은 集團農場에 依하여 保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生産手段은 國有化하고 一般 市民들은 “能力에 依한 供給에서 必要에 따른 需給”으로의 轉換을 目標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者들이 말하고 있는 經濟秩序는 資本主義의 經濟秩序의 完全 破壞위에 새로운 體制로의 轉換을 意味한다. 따라서 資本主義 信奉者들이 그들의 自衛的 保護를 爲한 必死의 對決을 共產勢力과 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오늘 날 수많은 北韓으로 부터의 避難民들의 北傀와 共產主義에 對한 憎惡感이 一般的으로 共產 體制下의 生活을 經驗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強한 理由가 쉽게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兩體制間의 兩立될 수 없는 鬭爭은 政治制度面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西歐式 民主主義가 自由主義의 平等主義 原則下에 立脚하여 國民의 生命財產 및 自由를 守護하는 것을 地上課題로 삼는 「人民에 依한」, 「人民을 爲한」, 「人民의 政府」를 指向하고 있음은 前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다. 또한 모든 國民에게 平等한 參政權을 賦與하고 指導者의 選出은 直接, 自由, 平等, 秘密投票에 依하여 行하여 질뿐 아니라 國家의 權力을 技能面에서 三權分立의 原則을 適用, 政府나 或은 一人의 獨裁를 막는 制度的 保障을 기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 社會의 民主政治 制度를 全的으로 否認하고 資本主義下의 政府는 勞動者階級の 資本階級에 依한 擄取를 助長하는 「메카니즘」에 不過한 것으로 規定, 이의 打倒를 共產主義 運動의 第一名題로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民主主義 國家들은 共產主義 社會와의 理解關係가 없어도 共產主義 理論의 이러한 攻擊的 要因으로 말미암아 自由를 爲한 對立이 不可避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지 賦與하여 둘 것은 共產體制는 階級社會라는

點이다. 卽 共產主義의 初期 形態는 勞動者 階級에 依한 다른 社會階級의 支配를 意味하였다. 따라서 理論的으로는 勞動者 階級을 除外한 모든 社會階層은 共產主義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에 對한 抗擧를 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 된다. 그러나 이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역시 多分히 欺瞞的인 것이다. 「레닌」이 主唱한 所謂 「民主的 中央執權制」(Democratic Centralism)와 「革命前衛 理論」(Vanguard of Revolution theory)에 依하면 大部分의 勞動者 階級은 資本主義의 擄取過程에서 이미 理性을 喪失하고 그들이 欺瞞的 洗腦工作에 빠져 무엇이 過然 그들의 利益이며 어떠한 革命의 進路를 取하여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 無能하기 때문에 革命의 權力을 掌握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民主的 中央執權制」와 「革命의 前衛理論」은 「레닌」이 「소비에트」 共和國을 「러시아」에 設立한 以來 모든 共產國家의 權力體系의 基本理論의 役割을 하여 왔다. 共產主義 國家들은 例外없이 下向式 權力構造를 探擇하고 있는데 國家의 거의 모든 權力이 그 形式的 職位는 여하튼 간에 小數의 黨이나 軍部の 指導者에 集中되어 있고 重要的 下級 公務員 黨職者 및 基幹産業의 任員들도 모두 權力의 核을 이루고 있는 最上部的 集團 或은 個人的 任意대로 任命 乃至 免職되고, 나아가서는 肅清까지 되는 實情이다. 이러한 最高 權力集團의 「멤버」들이나 或은 最高의 獨裁者, 一人의 選出은 莫後의 權力鬭爭을 通하여 實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共產主義의 權力體系는 一人 或은 極小數의 集團에 依하여 左右되는 絕對主義的 全體主義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共產主義의 宣傳과 같이 「프롤레타리아」 階級의 獨裁도 아니며 國民 大多數에 依한 小數의 獨裁는 더욱 아닌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의 侵透는 곧, 모든 國民의 自由와 生命이 小數人의 獨裁體制에 依하여 征服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뜻있는 모든 國民들이 共產體制에 反하여 싸우는 것은 곧 그들의 權利를 守護하려는 避할 수 없는 鬭爭으로 解釋되어야 한다.

세계로, 共產體制下에서는 國家나 民族의 傳統과 社會의 基本 價値觀, 그리고 宗教까지도 自由主義의 遺産이라하여 禁止 乃至는 公公然한 彈壓을 加하고 있다. 中國에서 共產黨 政權이 樹立된 後 過去 中國의 傳統文化였던 儒教思想을 抹消하고 數千年 傳統을 지켜온 社會의 基本價値觀, 因習 등을 一朝에 廢止한 事實은 共產主義의 傳統文化에 對한 價値觀의 抹殺을 雄辯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特別 宗教에 關하여서는 「知的 阿片」이라 하여 더욱 敵對視 하고 있다. 共產主義는 또한 社會의 基本單位인 家庭에 對하여서도 否定的이다. 「마르크스」 自身은 「부르조아」 社會의 家族을 批判하고 家族制度 自體를 廢止할 것을 主張하지는 않았으나 共產國家에서는 家族制度에 對해 많은 規制를 加하였고, 特別 兒童教育面에서 政府의 洗腦教育이 크게 增大되었다. 一般的으로 共產社會는 人間을 「퍼서나(Persona)」 卽 個個人을 自身の 獨立된 「에이전트」(agent)라는, 卽 個性을 賦與하지 않고 集團의 一個 構成分子로 取扱하고 있다. 이러한 共產體制的 社會倫理觀, 道德觀 등은 民主社會와는 妥協할 餘地가 없는 것으로서 兩體制的 對立은 社會面에서도 不可避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로, 共產主義의 國際政治觀 乃至는 帝國主義論 등에 나타나 있는 歷史觀에 基因하는 兩體制的 對立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體制는 內資의 矛盾에 依하여 消滅할 것이라고 豫言하였

으나 資本主義가 그들의 内部的 矛盾을 克服하고 繼續 發展하여 가자 「레닌」은 「마르크스」의 理論에 一部 修正할 必要性을 느끼고 그의 有名한 「帝國主義論」을 提唱하였다. 即 資本主義는 革命을 必然的으로 超來할 内部的 矛盾의 一時的 突破口를 後進國家의 값싼 原料와 勞賃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資本主義 國家들의 剩餘資本은 값싼 原料와 賃金 그리고 生産된 商品을 高價로 消費시킬 수 있는 消費市場을 찾아 全世界로 進出하게 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國家들은 大金融資本의 利益을 守護하기 爲하여 그들의 軍事力을 動員하여 새로운 植民地를 開拓하여 資本家들로 하여금 進出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先進工業國이 帝國主義化 되어가는 過程이며, 그 結果로 資本主義 國家 内部的 革命은 暫定的으로 遲延되게 되나 先進工業國인 強大國들이 地球를 全部 分割 占據할 境遇 새로운 工業國이 登場할 때, 그 國家가 차지할 수 있는 植民地가 없기 때문에 強大國間의 植民地를 둘러싼 帝國主義 戰爭은 不可避하게 된다. 일단 資本主義 國家間의 戰爭이 끝나면 勝戰國에 依하여 植民地의 版圖가 바뀌게 되며 時間이 흐름에 따라 植民地에서, 民族運動이 活潑해지고 本國과 植民地間의 矛盾과 葛藤은 世界革命의 成熟期를 재촉하게 된다. 따라서 世界化한 資本主義는 가장 弱한 곳에서 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革命의 불꽃은 全世界를 휩쓸게 된다”는 것이다. 「레닌」은 또한 “共產革命이 世界 어느 곳에든지 一端 成攻하면 革命은 連鎖反應을 일으켜 全世界에 派及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共產主義者들은 「러시아」 革命을 이러한 觀點에서 보아 러시아에서 革命이 成攻하자 「코민테른」을 組織하여 世界革命에 나섰으며 植民地 國家內에서 일어나는 民族解放運動 역시 世界的 階級鬭爭의 一環으로 보았다.

「레닌」과 그의 後繼者들은 資本主義가 世界的으로 擴大되자 「부르조아」라는 理念과 政治目的을 中心으로 團結된 國際的 社會階級이 存在하고 있으며 西方側 資本主義 國家들은 이 國際的 金融集團에 依하여 調整된다는 神話造作을 流布시키면서 이에 對抗하기 爲해 各國의 「프롤레타리아」階級과 植民地의 民族解放運動 勢力은 모두 團結하여 世界革命을 完遂하자고 부르짖었다.

이와같은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 그리고 國際政治面에서의 共產主義 哲學과 行動綱領은 民主 共產의 對決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2. 對決의 樣相

民主 共產主義의 本格的 對決의 時初는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後進 工業國家인 帝政 「러시아」에서 資本主義의 內在的 矛盾에 依한 崩壞가 아니고 「레닌」이 組織한 武力 「쿠데타」의 成攻으로 「러시아」에서 世界 最初의 社會主義 國家가 誕生한 후에 비롯되었다.

西歐羅巴를 휩쓴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를 排擊하여 오던 帝政 「러시아」는 經濟的 窮乏과 專制的 彈壓에 못이겨 蜂起한 農民과 知識層의 反撥로 因하여 20世紀初에 급기야는 制限된 議會制度를 採擇하여 民主主義를 試圖하려 하였다. 그러나 1914년에 發生한 第1次 世界大戰에서 「러시아」軍의 繼續되는 參敗와 經濟的 不慌은 克度로 紊亂해진 帝政 「러시아」의 政權을 無氣力하게 만들었으며 이 틈을 利用하여 1917年 11月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들이 「쿠데타」에 依하여 「러시아」의 政權을 掌握하였다.

「레닌」은 革命 直後 大規模 肅清을 端行, 舊勢力을 逐出하고 그의 「民主的 中央執權制」의 方式에 따른 共產黨의 絶對的 權力을 構築하는 한편, 舊勢力의 殘餘 對抗 勢力인 白系 「러시아」軍을 粉砕하는 데 全力을 傾注하였다. 그러나 世界 1次大戰 當時 獨逸軍과 싸우던 民主主義 體制 國家들로 形成된 聯合軍은 「러시아」의 共產主義 革命을 결코 歡迎하지 않았다. 聯合軍은 反「볼셰비키」, 白系 「러시아」軍에게 援助를 提供하였을 뿐만 아니라 聯合國들인 佛蘭西, 英國, 美國 및 日本軍들이 「러시아」의 여러 地域에 上陸하여 間接的으로 紅衣軍에게 壓力을 加하여 왔다. 英國, 佛蘭西, 伊太利 등이 「볼셰비키」를 「러시아」의 合法政府로 認定한 것은 革命後 7년이 經過한 후였으며 美國은 그後에도 10년이 더 經過된 後에서야 러시아의 共產政府를 承認하였다.

「레닌」이 領導하는 「볼셰비키」는 內亂에서 漸次로 勝利를 거두는 한편, 內部的으로 政權의 基盤을 確固히 하는 「소비에트」建設作業에 着手하였다.

첫째로, 帝政 「러시아」의 모든 政治, 社會制度는 勿論, 傳統社會의 基本價値觀과 새로이 聳든 民主主義의 諸 要素를 抹殺 시키는데 全力을 加하였다. 새로이 選出된 憲法議會를 解散시키고 帝政 「러시아」의 重要人物들과 革命에 反對하는 人事들을 加차없이 虐殺하였다.

둘째로, 「러시아」全域의 土地와 個人企業體는 모두 國家에 返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國有化 政策은 特別히 農業部門에서 거센 反撥을 받았고 農民들의 非協助와 繼續되는 兇作으로 「레닌」도 第1次 「經濟革命」을 拋棄하고 所謂 「新經濟政策(N. E. P.)」을 採擇하여 剩餘生産에 對하여서는 自由販賣를 多少 許諾하는 資本主義的 色彩를 띤 制度까지도 採擇하였다.

셋째로, 政府의 體係를 갖추기 爲해 名目上으로나마 基本憲法을 1918年 7月 10日에 宣布하였다. 그後 1923年에 이르러서는 좀 더 具體化된 憲法을 制定하고 4個의 聯邦單位로 構成된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聯邦國」을 形成, 有名無實한 存在이긴 하였으나 西歐 民主主義 國家들의 憲法과 類似한 憲法을 宣布하였으니, 이때에는 벌써 蘇聯은 이미 經濟 5個年計劃을 完成하고 確固不動한 獨裁政權의 基盤을 構築하였다.

한편 國際的으로는 蘇聯의 革命을 世界革命의 一環으로 보고 蘇聯의 革命成功의 刺戟을 받아 世界 到處에서 連鎖的 革命이 勃發할것을 期待하였다. 따라서 「레닌」은 國際共產黨(Commintern)을 「모스크바」에 設立하고, 1919年 「레닌」의 指導하에 첫 「國際 共產黨 大會」를 召集하여 共產革命을 世界的으로 波及시키고 西歐諸國의 資本主義 體制를 顛覆시킬것을 目的으로, 모든 國家들의 共產黨들은 聯合戰線을 形成할 것을 強調하였다.

即 “組織的인 烽起를 통해 革命을 成就시킬 것이며 植民地 領土에서는 被壓迫人民들을 烽起시켜 革命을 이룩할 것을 決議하고 世界 各地에서 共產黨 暴動이 發生할 境遇 積極的으로 後援할 것을 決議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레닌」이나 그의 政敵이었던 「레온 트로츠키」와는 달리 早速한 世界革命에 全力을 다하는 것보다는 社會主義를 蘇聯 一國에서 단이라도 確固히 한後 世界革命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一國 社會主義」를 採擇하고, 第1次 5個年計劃에 이어 第2次 그리고 第3次 5個年 計劃을 세

위 특히 重工業을 重心으로 蘇聯國力을 強化시키기에 狂奔하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一國 社會主義」가 革命을 통한 世界共産化의 野望을 拋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스탈린」은 蘇聯의 國力이 貧弱한 동안에는 強力한 世界革命을 主導하기 어렵고 오히려 資本主義 國家에 依하여 蘇聯의 共産政權마저 危脅을 받을 可能性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蘇聯이 軍事的으로나 工業的으로 發展을 期하여 國力을 充實히 한後 에는 「붉은軍隊」를 動員해서라도 世界革命을 支援할 수 있을 것이라는 見地에서 蘇聯 自體 發展을 強調하였다.

또한 蘇聯이 世界共産主義 革命의 基地로 되기 爲하여서는 모든 國家의 共産黨들이 蘇聯에 絶對的인 忠誠을 받쳐야 한다고 主張하고 蘇聯의 利益은 곧 參與 共産國의 利益과 直接的으로 結付된다는 것을 強調, 盲目的인 追從을 強調하였다.

「스탈린」은 「스페인」 內亂(1936—1939) 동안에 共産化劃策을 圖謀하기 爲해 左翼系의 反亂을 物心 兩面으로 援助 하였으나 결국 失敗로 돌아갔다. 極東에서도 蘇聯은 여러모로 共産化 劃策을 꾀하였다. 즉 蘇聯은 1920年 當時 混亂 狀態에 있던 中國 國民黨 政府로부터 承認을 받아 外蒙古에 共産黨政府를 樹立한 後 繼續 中國에 浸透, 1921년에는 中國 共産黨을 設立하는데 도왔고 國民黨內에 共産黨 勢力을 펼칠려고 企圖하였다. 그러나 國民黨內 共産黨勢力의 腐蝕이 失敗로 돌아가고 決局 次後에 烽起할 潜在的 共産黨 勢力만을 確保하여 놓았다. 그 외에도 「유럽」의 各國과 東南亞地域의 印度, 日本 等에도 共産黨 勢力 膨脹을 試圖하여 共産黨員들을 包攝하고 本國에서의 活動을 強調하였다.

蘇聯의 즐기찬 世界革命의 宣傳과 煽動 및 民主社會의 破壞와 顛覆 活動에도 不拘하고 第2次 世界大戰 까지는 별로 이렇다할 膨脹勢力을 講究하지 못하고 蘇聯이 第2次 世界大戰에서 聯合軍의 一圓으로 主軸國家들인 獨逸과 日本에 對抗하여 東部유럽과 極東에 介入할 機會를 얻게 될 때부터 本格的인 膨脹이 始作되었던 것이다.

1945年 5月 「유럽」 戰線에서의 獨逸의 敗亡과 더불어 蘇聯은 이미 2次大戰 前에 征服한 「핀란드」와 「발틱」 3國 그리고 「폴란드」, 東部獨逸을 包含한 東歐 여러 나라와 「항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등의 「발칸」國家들을 占領하였다. 同年 8月까지 日本이 敗戰하기 까지는 이미 極東에서 蘇聯軍은 滿州와 韓半島의 北部를 征服하였다. 이로서 蘇聯의 膨脹은 어떠한 革命에 依한 것도 아니고 또한 國民들의 自由意事に 依한 것도 아닌 오직 「붉은 軍隊」의 가차없는 彈壓과 征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世界 第2次 大戰의 終末과 더불어 平和와 繁榮의 世界를 希望하고 있던 美國大統領 「후렌 크린 · 루즈벨트」를 비롯한 西方指導者들과는 달리 「스탈린」은 그의 共産化 運動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即 우선 征服한 各 地域에는 現地 共産主義 骨髓分子들을 中心으로 傀儡政權을 樹立하였으며 一方的인 勢力權下에 있는 隣接 國家에 對하여서는 社會의 混亂을 틈타 民主政府의 顛覆과 「게릴라」戰을 積極 後援했다. 蘇聯의 隣接國인 「이란」과 「터키」에 對한 危脅, 또한 希臘에서는 「게릴라」戰으로 共産化를 試圖하였다. 1948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마자락」의 民主主義 政府를 「쿠데타」로서 顛覆시키는데 成功하였다.

「스탈린」이 西方側의 警戒心を 解消시키기 爲한 策略으로 1943년에는 「코민테른」을 解體하였지만 2次 大戰에서 蘇聯이 聯合軍의 一員으로 參戰함에 따라 莫大한 軍事·經濟援助를 提供했던 美國은 終戰後 露骨화된 이러한 膨脹主義 政策에 聯合國과 함께 當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年 7~8월에 開催된 「포츠담」 會談에서 蘇聯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 樹立된 傀儡 政權의 政府承認을 美英側에 要求하였다. 이에 對해서 美·英은 그것이 民主主義의 政權이 아님을 指摘 承認을 拒否하였다. 또 分斷된 獨逸 特히 「베를린」 問題 등과 韓半島에서의 美·蘇의 對決은 곧 두 陣營間의 冷戰의 始初가 되었다. 그後 美國은 漸次的으로 擴大해가는 共產浸透에 對하여 聲明書를 通해 「트르만」 大統領은 “少數武裝團과 外部勢力에 對抗, 自由守護를 爲하여 鬪爭하는 모든 國民들을 援助하는 것이 美國의 政策”이라고 宣言하였다. 이 宣言은 共產陣營의 膨脹主義를 抑除하려는 美國의 自由陣營에 對한 公約의 始初가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에 對한 援助에 이어 通稱 「마샬」계획을 樹立하여 第2次 大戰以後 廢虛가 된 西歐 諸國에 經濟援助를 提供하였다. 또 美國의 對蘇共產主義 封鎖政策은 國際적으로 「全美洲 相互援助條約」(1947年 9月 美國과 中南美 20個國間에), 1949年 4월에 北美와 西歐羅巴 15個國間에 締結된 「北大西洋 條約」, 1951년에는 「美·比律賓相互防衛條約」, 「뉴질랜드」 「오스트라리아」間의 「안주스 集團防衛條約」, 「美·日安保條約」 등으로 擴大되어 갔고 더욱 이러한 美國의 積極적인 防衛措置는 極東에 있어 中國 本土에서의 1949年 共產黨 政權의 樹立과 1950年 韓國動亂으로 한층 強化되기에 이르렀다.

蘇聯은 蘇聯어로 共產陣營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1943년에 解體된 「코민테른」의 後繼인 9個國 「共產黨 情報國」(蘇聯을 爲始하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共產黨들로 組織된 것)을 中心으로 1947年 10월에 結定한 各 共產衛星國들과 軍事 및 相互援助同盟을 맺어 共產陣營의 集團體制를 形成하였다. 特히 主目할 것은 「모스크바」에서 1950年 2월에 調印된 「蘇·中共友好同盟相互援助 條約」이다. 中共은 元來 다른 衛星國家와는 달리 中國에서 거의 30년에 가까운 鬪爭을 通해 第2次大戰 後 國民黨 政府의 混亂과 衰亡을 利用 蘇聯이 駐屯한 滿洲를 中心으로 거의 自力으로 1949年 10월까지 全大陸을 共產化하는데 成功하였다. 中共의 이러한 共產化는 東歐의 共產主義國家들과는 달리 始初부터 獨自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以上の 中共의 獨自性은 그後 1956년부터 비롯된 中·蘇分爭의 根本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蘇聯은 「유럽」 共產國家間의 集團安保體制로서 1956년에 蘇聯,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東獨,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等 8個國으로 構成된 「바르샤바」 條約을 締結하고 美國을 爲始한 「北大西洋 防衛條約」機構에 對處하였다. 이리하여 最近 多角的인 國際體制로 轉換되기까지 지난 20年間 美·蘇이 兩大陣營은 對立을 거듭하는 冷戰을 持續하여 왔다. 이러한 冷戰속에서 蘇聯은 世界共產化라는 窮極的 目標을 爲하여 經濟 軍事援助를 中立國에 提供하였고 그들을 共產權內로 吸收하려는 努力을 繼續하였으며 親西邦 民主國家와 非共產 中立國으로서 脆弱政權이라고 認定된 곳에서는 反亂 및 政府顛覆 陰謀를 直, 間接으로 하여왔다.

또 하나의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은 中共의 成長過程과 中共의 共產權 內部 乃至 冷戰에서 한 役割이다. 中國 共產黨은 國民黨政府를 大陸에서 逐出한 後 中共의 指導者들에 대해 共產政權에 充實을

기하도록 하기 爲해 一連의 運動과 肅清을 大的으로 斷行하였다. 中共政權의 整地作業은 土地改革의 斷行으로 絶頂에 達하였으며 土地改革 當時 殺害된 中國人의 數는 非公式統計에 依하면 約 1千5百萬에 이르렀다. 그후 中國의 모든 傳統文化, 價値觀 및 社會制度 全般에 걸친 改革을 斷行하고 그 土台위에 東洋專制主義의 要素를 配合한 絶對權의 共產黨政權을 樹立하였다.

國際적으로는 中共은 1950년에 「리베트」를 侵略하고 1950年 末부터 1953年 韓國動亂의 休戰當時까지, 韓國動亂에 介入하였으며 또한 禁門島 砲擊으로 臺灣 海峽의 緊張狀態를 組成하는 등 自由, 共產陣營間의 冷戰과 熱戰에 直接的으로 參與, 東南「아시아」 共產主義 運動의 後見者 役割을 하여 왔다.

이와 같이 美·蘇·中共을 中心으로 한 兩對 陣營의 對決은 그 程度의 差異는 있었으나 오늘 날까지 世界到處에서 繼續되고 있다.

「스탈린」의 死後 熾熱한 權力鬭爭過程을 通하여 蘇聯의 第一人者로 登場한 「호루시초프」가 資本主義와 共產主義 兩體制間의 戰爭은 宿命的으로 不可避한 것이 아니고 平和共存이나 競爭이 可能함을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對話에서 主張한 후부터는 어느程度 平和共存의 색이 트이는 것 같았으나, 이것이 共產主義理論의 根本的 變質이나 그들의 世界共產化 野望의 拋棄는 決코 아니고, 다만 必要性에 基因하는 戰略의 變化로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1962年 「큐바」의 「미사일」 事件, 越南戰爭, 南美 諸州에서의 共產主義 運動, 中近東 및 「아프리카」에서의 共產勢力의 繼續的 侵透가 證明하여 주고 있다.

第2章 北傀의 挑戰

北傀는 過去 4半世期 동안 對內的으로는 金日成을 神格化시켜 一人獨裁體制를 拘束하고 對外的으로는 韓半島의 完全 赤化統一을 爲해 北韓地域의 全住民을 軍需産業의 奴隸勞動 秩序에 動員시킨 軍國主義의 後進 共產政權으로서 共產國家中에서도 가장 全體主義的이고 外部世界와 完全히 絶緣된 密封社會體制로 維持되어 왔다.

이제 過去 25年間의 韓半島 分斷時期를 北傀의 對南政策을 中心으로 나누어 보면, 解放이 후부터 6·25 動亂까지를 「南侵 準備期」, 6·25 動亂挑發에서 부터 休戰까지의 動亂時期와 4·19의 時期까지를 「平和統一攻勢期」, 4·19義舉後 5·16 革命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所謂 南韓에 對한 北傀의 「革命役量 造成期」 또는 諸般方針을 爲한 「準備期」로 볼 수 있다.

本章에서는 以上の 時期 性格 區分에 따라 北傀의 韓國에 對한 挑戰樣相을 記述한다. 北傀는 解放後부터 6·25 以前까지 主로 蘇聯의 東方政策에 依據하여 北韓의 革命基地를 鞏固히 하는데 主力하는 한편, 南韓에서는 地下黨을 組織하여 罷業, 盟休, 暴動을 助長하고 大韓民國의 政治的 安定을 破壞하며 經濟建設을 沮害하는 등 社會攪亂에 狂奔해 왔다는 點과 6·25를 契機로 南韓을 一據에 赤化하려고 畫策했으나 國際聯合의 集團 安全保障 措置와 韓國軍의 勇戰奮鬪로 武力赤化의 꿈이 깨지고

이 結果 百餘萬名 以上の 人命被害와 北韓全域의 焦土化를 招來했다는 點, 그리고 休戰後 70年代初 까지 一面으로는 平和統一을 口頭禪처럼 내세우면서도 內部的으로는 戰力增強에 狂奔하고 다른面으로는 休戰線에서의 武力挑發, 間諜의 南派와 武裝共匪의 侵透等を 通하여 韓國의 發展을 沮害케 하고 第2의 地下黨 工作을 通해 大韓民國의 政府顛覆을 일삼으면서 國際政勢의 變化에 便乘하여 새로운 平和攻勢를 展開하고 있기 때문에 北傀의 再侵에 對한 우리의 警覺心을 높여야 한다는 點등이 本章의 主要內容이 되고있다.

1. 6·25 以前の 挑戰

가. 內容概要

蘇聯은 第2次 世界大戰에서 日本이 聯合國에 對해 無條件 降伏을 通告하기 7日前인 1945年 8月 8日에야 日本에 宣戰布告를 하고 日本軍 武裝解除를 爲해 臨時軍事 分界線으로 暫定 合議된 38度線 以北에 進駐하여 8月 25일부터 北韓地域에 蘇聯의 軍政을 實施하기 始作했다. 이 때 北韓의 平壤에는 이미 純民間愛國 團體로서 抗日 民族運動 指導者의 한분이신 曹晩植 先生을 中心으로 (平南建國準備委員會 約稱 平南建準)가 組織되어 서울에서 統一獨立政府가 樹立되기를 기다리며 日帝의 敗退에 뒤따른 秩序上의 空白을 메우고 自治活動을 展開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스차코프」大將指揮下의 蘇聯 駐屯軍 司令部는 北韓에 陣駐한지 10日도 못되어 「平南建準」의 解體와 「人民委員會」의 構成을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民主·民族陣營의 人事들과 愛國志士들이 大據 參與한 「平南建準」은 解體되고 蘇聯의 指令에 움직이는 共產徒輩가 過半數를 차지하는 「平南 人民政治委員會」가 組織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蘇聯軍은 그들의 指令과 思想教化속에서 蘇聯軍의 少佐段階에 올라 그들과 함께 北韓에 들어온 金日成(本명: 金成柱)을 傀儡政府의 頭目으로 推戴하기 爲하여 모든 強壓의 手段을 動員하는데 주저치 않았다. 첫째로, 蘇聯은 政治, 經濟, 軍事等 모든 것을 韓國人에게 引繼한다는 美名下에 蘇聯 2世 韓國人 共產黨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指令下에 隸屬시키고 둘째로, 北韓을 漸次的으로 共產化하기 爲해 民族主義者, 民主主義者를 陰陽으로 彈壓 除去하고 그들의 位置를 蘇聯系 共產黨員에게 移管시키고 셋째로는, 軍, 警察, 通信, 私法 系通의 要職에는 蘇聯直系 共產黨員을 補職케 함과 아울러 基幹產業, 鐵道, 運輸, 銀行等 主要 經濟機關을 國有化라는 구실하에 共產黨이 接受케 했던 것이다.

蘇聯이 이같은 北韓地域의 共產化 陰謀가 露骨化 되고 또 그들의 傀儡들이 要職을 掌握하여 北韓의 主要 地下資源, 基幹產業 裝備 및 山林資源을 蘇聯으로 輸送해 가는가하면 到處에서 糧穀 剝奪行爲를 恣行하자 北韓 住民들의 大多數는 처음에 解放軍으로 마지했던 蘇聯軍에 幻滅을 느끼고 蘇聯의 지배와 共產化陰謀에 抵抗하는 鬭爭을 일으켰다. 이 運動은 大都市 中心으로 展開되어 北韓 各地에 派及되었는데 咸興, 新義州, 海州等地的 反共義舉가 代表的 事例이다. 이에 對해 蘇聯軍과 金日成 傀儡는 「항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 運動을 彈壓하든 것과 同一한 手法으로 「탱크」와 大砲, 총칼로서 反共 民族指導者를 무자비하게 彈壓하였다. 1945年 11月の 新義州 義舉에서만도 死傷者

가 8百餘名, 被檢者가 約 2千餘名 그리고 「시베리아」로 流刑된 者가 約 1百餘名에 達했던 것이다.

이같이 蘇聯에 忠誠하고 같은 同胞에게 可酷하게 함으로써 蘇聯의 後援下에 權力基盤을 構築한 金日成은 1946年 3月 30日 沿岸派 共產黨인 新民黨과 合黨하여 38以北의 共產黨을 北朝鮮 勞動黨으로 改稱하고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를 目標로하는 北朝鮮 革命基地路線을 黨의 基本路線으로 確定하고 이 路線의 實踐에 血眼이 되었다.

이어 北朝鮮 人民委員長으로 行勢해오던 金日成은 1948年 9月 9日 人民委員會를 朝鮮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으로 改編 政府를 潛稱하고 段階의 政敵肅清을 敢行함으로써 一人獨裁를 強化하여 北韓 傀儡政權을 한손에 掌握하고 南侵準備를 本格化하기 始作했다.

한편 蘇聯軍 司令部는 金日成을 통해 北韓에 傀儡政權을 세우는데 成功한 後 1948年 10月 15日에는 北傀를 正式國家로 承認하고 同年 12月 26日에는 北韓地域으로 부터 蘇聯이 軍隊를 完全 撤收했다고 公表함으로써 形式的으로 北韓에서의 蘇聯軍政의 完了를 宣言 하였다. 그러나 蘇聯軍의 撤收는 南韓에 美軍이 駐屯할 明分을 弱화시켜 美軍의 南韓撤收를 誘導함으로써 南韓 地域內에 「힘의 空白」이 생길때 武力으로 南韓을 攻擊 赤化하려는 基本目的이 있었다. 특히 이 當時 蘇聯軍의 撤收는 地定學的 觀點에서 볼때 軍隊의 撤收라기보다는 北韓駐屯 蘇聯軍을 豆滿江 건너편으로 移動시킨 蘇聯軍의 再配置에 不過했던 것이다. 蘇聯은 이같이 自國 軍隊를 언제나 韓半島에 即刻 出動할 수 있는 地點으로 撤收하면서도 北韓의 要所要所에는 顧問이란 美名下에 私服차림의 蘇聯軍의 政治工作幹部들을 相當數 配置시켜 重要한 政策決定을 指揮하고 北傀의 南侵準備計劃을 積極 뒷받침하고 南韓으로부터 美軍을 撤收시킬 外交活動을 強化했던 것이다.

北傀政權의 頭目이 된 金日成은 그의 首相 就任式에서 소위 「政府政綱」이라는 것을 發表했는데 그는 이 「政綱」에서 “南韓까지의 國土完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 北傀 北朝鮮勞動黨 規約 第1項에서도 「…最終 目的은 南北全域에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음」을 明白히 함으로써 韓半島의 武力赤化統一을 強調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北韓에서의 諸般 施策을 南韓에서까지 實施하기 爲해 「最大의 鬭爭과 백방의 對策」을 다할 것이라고 力說하였다. 金日成이 힘주어 말한 이 「最大의 鬭爭과 백방의 對策」이 바로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南韓에 對한 武力赤化計劃을 積極 強化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金日成은 이같은 目的下에 하나의 侵略策動으로서 「南朝鮮 人民戰線」을 強化키로 하고 이 方針에 따라 大韓民國의 政府機關은 물론 軍隊, 警察, 工場, 政黨, 社會團體等 各階各層에 共產黨員을 侵透시켜 怠業, 罷業 및 暴動을 主導의 으로 煽動하여 이를 恣行케 했다.

이때 이 課業을 도맡아 一線에서 指揮, 監督, 執行하던 것이 바로 朴憲泳을 우두머리로 하고 李康國, 李承燁, 李舟河, 金三龍을 主要 幹部로 하던 南朝鮮勞動黨(약칭 南勞黨)이었고, 北傀는 많은 工作金을 보내어 이들을 뒷받침했던 것이다. 이러한 金日成徒黨의 끈덕진 侵略策動은 漸次 南韓社會 全域의 混亂惹起工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攻勢는 특히 美·蘇 共同委員會가 結裂되고 韓國問題가 國際聯合에 상정되어 國際聯合 監視下에 南北總選舉에 依하여 韓國統一 獨立政府樹立을 推進키로 決

議하고 1948年 1月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團이 서울에 派遣되는 한편 北韓에서의 選舉實施를 監視하기 爲해 이들이 正式으로 入北要請을 하기에 이름으로써 더욱 激化되었다. 即 北傀는 國際聯合의 韓半島 政策이 民主, 民族陣營에 依한 獨立政府樹立을 뒷받침하는 方向으로 決定되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蘇聯과 補助를 같이하여 韓國問題에 對한 「유엔」 決議를 正面으로 拒否하고, 國聯 韓國臨時委員團의 北韓地域의 出入을 拒否했을 뿐만 아니라 國際聯合 監視下에 南韓에서 實施되는 選舉까지도 이를 不可能하게 할 目的으로 南勞黨에 指令하여 南韓 全域에서 大規模的 暴動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即 北傀는 1948年 2月 7日을 期하여 殺人, 放火, 破壞, 罷業, 盟休 등의 方法으로 南韓一帶에 暴動을 일으킬 것을 南勞黨에 指令하였다. 이것이 共產黨이 소위 「2·7救國鬪爭」이라고 부르는 暴動事件이었다.

國際聯合 韓國臨時委員團이 서울에 到着하여 選舉事務에 關한 討議를 始作한지 얼마 안되는 1948年 2月 7日 아침부터 소위 南韓內의 民主戰線(약칭 民戰)과 南勞黨은 全國勞動者 總評議會(약칭 全評) 傘下의 勞動組合員들에게 總罷業을 開始토록 指令하여 各工場을 비롯한 生産工場, 鐵道, 運輸機關에 從事하는 勞組員들이 罷業에 突入하였으며, 慶北地方에서는 警察署 襲擊, 電信電話線의 絶斷, 電信柱의 絶斷等 破壞行爲가 恣行되었고 鐵道勞組 罷業에서는 日帝가 남기고간 有一한 動力輸送手段이라고 할 수 있는 鐵道機關車를 破壞하고 鐵道の 線路를 埋沒시키는 極히 反民族的 蠻行까지도 서슴치 않고 敢行하였던 것이다. 共產黨의 破壞行爲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解放後 漸次들이 잡혀가는 南韓社會의 市場經濟機能을 麻痺 混亂시킬 目的으로 수만장의 偽造貨幣을 찍어내어 散布하였는 바 이것이 解放後 全 南韓社會와 심지어 美軍政當局까지를 驚악시킨 朝鮮 精版社 事件이었다. 또한 이들은 軍隊안에 浸透한 共產黨 「푸락치」들에게도 指令하여 半島南端의 海上에 位置한 濟州島를 據點으로 「4·3武裝叛亂」을 일으켰는가 하면, 南部의 港口都市 麗水와 順天에서도 叛亂을 일으켰다.

南勞黨이 主動이 된 이 두차례에 걸친 武裝暴動은 被害의 深刻性에 비추어 事件의 背景을 살필 必要가 있다. 當時 南勞黨은 「2·7 救國鬪爭」을 全國에 派及시켜 暴動을 일으켰으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殘虐像이 國民들의 持彈의 대상이 되고 大衆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그들의 運動이 國民大衆들로부터 排斥되는 事態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에 南勞黨 指導部는 그들의 劣勢를 挽回하고 그들의 上層部인 金日成 徒黨과 蘇聯에 南勞黨의 組織力量을 誇示하기 爲하여 軍에 浸透해 있는 그들의 「푸락치」를 利用 特殊한 地理的 條件下에 있는 濟州島의 暴動事件을 企圖하였다. 이 섬은 8.15解放後의 混亂期를 틈타 共產黨 細胞組織이 가장 鞏固히 굳어진 곳이었다. 南勞黨은 5.10 總選舉를 反對한다는 口號下에 島民들을 煽動하여 選舉準備 反對工作을 통해 地下工作을 擴大하는 한편 共產黨 檢據旋風에서 逃避한 一部 逃避分 者들과 不法釋放된者들을 漢拏山에 들여보내 暴動 및 「게릴라」 訓練을 시키면서 「모네포」에 駐屯하는 國防警備隊 第9聯隊의 문상길 中尉外 數名의 黨員을 통해 武器와 彈藥을 供給함으로써 漢拏山 共匪의 母體를 養成하였다.

이렇게 養成된 共匪들은 頭目 김달삼의 指揮下에 1948年 4月 3日 새벽 2時에 일제히 行動을 開始하여 警察支署를 襲擊하는 한편 수많은 愛國人士들을 무차별 殺相하고 放火, 劊奪, 破壞등 갖은 蠻行을 제멋대로 恣行하면서 濟州島 一帶를 阿鼻叫喚의 修羅場으로 만들었다.

濟州島 暴動이 武裝叛亂으로 表變함에 따라 事件이 發生한지 7個月이 지난 10月에도 完全히 掃蕩되지 못했기 때문에 政府에서는 麗水에 駐屯하고 있던 國軍 第14聯隊의 1個大隊를 共匪討伐에 出動하도록 決定했다. 南勞黨은 그들의 「무락치」들이 浸透해 있는 部隊가 濟州島에 出動命令 받은 것을 기회로 그들의 指令을 받은 軍幹部들을 통해 10月 19日 叛亂을 일으키고, 이들을 麗水에 突入케 하여 民間人 共產系列과 合流시켜 각 官公署, 銀行, 警察署등을 襲擊한 後 많은 愛國人事, 警察官, 軍人家族 및 良民을 大量 虐殺하였다. 20日에는 麗水市를 反徒들이 거의 석권한 다음 繼續 附和雷同하는 地方共產分者들까지 武裝시키고 또 그들의 상투적인 欺瞞煽動과 強要로써 약 2,000餘名の 共匪를 確保한 後 이들을 順天市 內에 몰고 들어가 갖은 蠻行을 恣行하였다. 이리하여 順天에서만도 數日사이에 警察官이 約 4百餘名이나 戰死했거나 反徒에게 잡혀 虐殺當했고 特히 民間人 共產暴徒들은 대창과 낫 몽둥이 등으로 殘惡한 行爲를 敢行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붙들려 殺害된 愛國人士, 商人, 良民, 軍警家族들의 500餘名の 屍體들을 가장 非人道的 狀態로 放置되었던 것이다.

叛亂鎮壓作戰에 나선 國軍들은 作戰行動을 開始한지 約 1個月만에 頭目 김지회를 비롯해서 幹部 共匪全員과 主力를 殲滅하고 이 暴動을 完全히 鎮壓하는데 成功했다.

이후 거기에는 赤色 「베러」가 橫行하는가 하면 산중에는 共產 「게릴라」의 殘黨이 出沒하여 僻地의 良民들을 襲擊하여 糧穀을 노략질하거나 警察官 支署를 奇襲하여 僻地治安을 危殆롭게 하는 事態가 비일비재 했다. 北傀의 魔手는 심지어 大韓民國의 制憲國會內에까지 펼쳐 國會議員 노일환, 이문원을 입당케 하는등 抱攝工作을 벌여 그들로 하여금 所謂 「外軍撤收陳言書」를 꾸며 國際聯合 韓國委員團에게 傳達하는 國會 「무락치」 事件도 벌였던 것이다.

以上과 같은 後方攪亂, 秩序破壞, 混亂加重 工作등을 南勞黨을 통해 벌이는 外에도 北傀는 그들의 與件을 利用하여 南韓에 대해 直接的인 經濟攪亂 工作을 試圖했다. 즉 北傀는 1946年 5月 中旬頃에 當時 38度線 以南에 位置한 黃海道의 延白平野에 대한 農業用水의 供給水路를 돌연히 遮斷하겠다고 通告해왔다. 延白平野의 農業用水의 源泉은 38度線 以北에서 始作하여 延白平野를 거쳐 黃海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水門을 세워 用水의 流出을 막아 물을 흘러 보내지 않으면 水門下部의 平野地帶는 灌溉用水를 供給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營農을 할 수 없게 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北傀는 이같이 惡辣한 方法을 使用함으로써 農民들의 民心을 攪亂시키고 물을 안타까와 하는 農民들을 그들의 政治目的에 動員하려고 畫策했던 것이다.

이같은 用水供給 中斷措置를 斷行한 後 北傀는 1946年 12月 2日頃부터 南韓에 대한 北韓으로 부터의 電氣의 送電을 中斷하겠다고 別안간 通告하고 이 通告와 同時에 送電中斷의 전조로서 減電을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北傀는 드디어 同年 12月 14日 正午를 기하여 8. 15以後 처음보는 極惡한 處事로서 北韓으로 부터의 送電을 中斷하였다. 當時 北韓에는 日本 植民地 統治의 特徵인 南農北

工政策의 惠澤으로 수많은 水力發電 施設을 가지고 있었고 이 反面 많은 工業施設이 雲集해 있는 서울 京畿地方은 大體로 北韓에서 오는 電氣를 主要 動力源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事情을 잘 알고 있는 北傀는 一時에 送電 中斷措置를 斷行함으로써 南韓의 產業 生産機能을 麻痺시켜 善良한 國民들을 困境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北傀는 이 方法에 의하여 5. 10總選舉로 樹立된 大韓民國 政府에 初期 國家建設에 있어서 產業經濟面에 큰 打擊을 주는 한편 經濟破綻에 의한 民心攪亂을 誘導함으로써 南韓 國民들을 그들의 支配下에 들어오도록 恐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北傀의 送電中斷措置는 한층 더 南韓國民들로 부터 反發을 사게 되었고 共產黨에 대한 敵愾心과 警戒心を 鼓吹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던 것이다.

6. 25以前에 행해진 北傀의 對南武力 南侵策動과 基盤 造成活動은 비단 이같은 事件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밖에도 大韓民國을 이끌어 가는 民主陣營의 主要人士들에 대한 암살, 「테러」등을 計劃 했던 것이다. 한 例로서 1946年 9月 11일에 있는 李承晚博士에 대한 狙擊事件을 筆頭로 當時 警務部長이던 趙炳玉 博士가 美莊 「그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手榴彈을 投擲하여 殺害하려는 事件이 10月 16일에 벌어졌는가 하면 그후 다시 趙炳玉 博士와 首都警察總監이던 張澤相 先生을 殺害하려는 企圖가 행해졌다. 또한 當時 特別搜查本部長 김호익 總警에 대한 被殺事件은 世上을 놀라게 한 白晝 「테러」사건이었다. 이밖에도 民主陣營에 屬하는 수많은 人士들과 그 家族이 共產「테러」에 犧牲되었던 것이다.

北傀의 이같은 侵略策動과 關聯하여 解放以後 最大의 間諜事件으로는 成時伯의 「무명당 事件」을 提議할 수 없다. 成時伯은 中國에서 中國 共產黨에 加入한 후 서안, 重京, 연안等地에서 活躍하다가 1946年 12月 末頃 海路로 釜山에 上陸하여 서울에서 諸般 準備를 마친후 越北하여 金日成과 北傀 副首相 金斗奉을 만나 前後 5日間の 秘密會談을 가진 후 對南 特殊指令을 携帶하고 1947年 5월에 다시 서울에 潛入한 中共系 北勞黨 巨物이었다. 그는 政治工作에 必要한 資金 獲得을 위해 南北交易으로 總額 1億원이 넘는 物資를 搬入하였으며 이 物資의 販賣代錢으로 工作金を 充當했고 中共과의 密貿易을 통해 總額 3萬8千8百弗의 工作費를 調達했던 것이다.

그는 莫大한 工作金으로 約 3年間に 걸쳐 合法, 非合法의 方法으로 廣範圍한 活動을 벌여 大韓民國 政府顛覆을 위한 「게릴라」戰을 組織하는 一方, 韓國의 各機關과 要路에 巧妙히 침투하여 各種 情報을 蒐集함으로써 北傀의 對南武力南侵 計劃을 樹立하는 資料를 調達했던 것이다. 이 事件 亦是 6. 25前夜를 裝飾한 北傀의 代表的인 武力南侵策動의 一環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듯이 北韓 傀儡集團은 大韓民國 樹立 以前에는 蘇聯의 操縱하에 北韓地域을 南韓에 대한 武力 革命基地로 構築하는 一方, 그들 指令에 움직이는 南勞黨을 통해 破壞, 攪亂, 暴動 및 要人暗殺을 試圖 함으로써 國家建設을 粉粹하려고 했고, 大韓民國 樹立後에는 間諜을 大舉南派하여 山岳地帶에서는 「게릴라」를 育成하여 國內治安을 紊亂케 하고 全國에 걸친 地下黨을 組織하여 南韓 住民을 包圍하거나 危脅으로 黨勢를 伸張함으로써 南韓에 대한 武力赤化統一의 基盤造成에 狂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結局 이들의 破壞의 活動은 一部 極斷的인 共產主義 同調勢力이나 幻想的인 共產社會 憧

憬勢力들을 除外하고는 大多數 國民들로 부터 反發과 警戒心を 자아냈고, 이 結果 南勞黨 組織은 全國到處에서 摘發 粉粹되었고 北傀의 直接的 政府 顛覆陰謀도 挫折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北傀는 그들의 組織을 통한 南韓 顛覆計劃이 限界點에 到達했음을 看破하고 直接 武力侵攻으로 大韓民國을 顛覆하여 共產政權을 樹立하려는 計劃을 치밀하게 樹立하였다. 이 計劃을 蘇聯이 指導하고 物質的 支援을 全擔했음은 너무나 自明한 사실이다.

2. 6. 25動亂

北傀의 魁首 金日成은 蘇聯의 指令과 뒷받침을 얻어 北韓地域에 共產 傀儡政權을 樹立한 以來 하루도 쉬지않고 南韓을 赤化하기 위해 武力南侵 準備를 強化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僞裝 平和攻勢를 일삼으면서 北傀에 同調하는 南勞黨에 指令하여 地下黨을 組織하고 南韓 社會의 秩序攪亂과 混亂誘導를 目的으로 破壞와 暴動을 煽動하거나 脆弱한 黨勢를 強化하기 위해 武裝 「게릴라」를 南派하는등 多角的인 對南攻勢를 취해왔다. 그러나 1945년부터 50年사이에 北傀가 南勞黨을 통해 畫策했던 南韓地域에 대한 合法, 非合法的인 赤化策動은 사실상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恣行한 非人道的인 虐殺과 惡質의인 破壞行動은 南韓地域 國民들로 부터 反發과 敵愾心만을 자아내어 결국 全國民이 憎惡하는 가운데 共產黨活動이 不法化 됨으로써 그들의 存立基盤을 喪失하게 되었다. 이 結果 南勞黨의 主要幹部인 朴憲永 李康國 등은 越北하여 傀儡政權의 要職을 얻고 金三龍 李周夏等 主要幹部는 大韓民國 政府에 逮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金日成 徒黨은 南韓에서 그들의 앞잡이인 南勞黨이 極限鬪爭을 하다가 沒落해 가는 4~5年間의 時期를 利用하여 蘇聯의 軍事援助를 얻어 武力에 의한 南侵準備를 착실히 推進하고 南勞黨의 殘黨을 地上化하여 北傀의 武力南侵에 呼應할 수 있는 勢力으로 成長시키는데 注力하였다.

이같은 南侵準備가 最終段階에 접어들자 北傀의 金日成은 1950年 3月 「모스크바」에서 當時 蘇聯首相 「스탈린」을 만나 南侵計劃을 說明한 후 蘇聯이 이 計劃을 승인해 줄 것을 懇請하여 支援約束을 얻고 돌아왔다. 이로부터 金日成은 本格的인 戰爭準備를 極秘裡에 推進하고 1950年 3月 中旬부터는 38度線에서 5km 以內的 地域에 居住하는 住民들에게 後方으로 疎開하도록 命을 내리고 同地域의 家屋에는 軍隊와 遊擊隊員을 配置시켰다.

또한 4월 中旬頃부터는 蘇聯으로 부터 戰爭武器를 비롯한 軍需物資가 7隻의 大型 貨物船으로 「우라 디보스토크」에서 北韓의 淸津, 羅津等 港口에 搬入되어 極秘裡에 38線 近處의 鐵原, 連川, 북계, 平康, 속칭 等地에 配置되었다. 같은 시기에 戰鬥機도 蘇聯軍 操縱士가 直接 操縱하여 新浦, 美林의 各飛行場에 輸送되어 北傀軍에 引導되었다.

한편, 北傀는 南侵準備에 必要한 戰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農民組合, 女性同盟 民主青年同盟等으로 民族保衛後援會를 組織하여 所謂 飛行機, 電車 獻納 運動等 戰費 捻出運動을 展開하고 工場建設이나 灌漑工事 등의 구실하에 15億圓에 達하는 公債를 發行하고 이 資金을 戰費에 充當하였다. 이밖에 재봉틀을 비롯하여 무명버선 도토리 등에 이르기까지 戰力增強 및 支援에 關聯되는 모든 物資와 用役

強制로 供出하였다. 이러한 供出物資와 武器輸送으로 北傀의 모든 輸送手段은 嚴格히 統制되었고 北韓 主民들의 北韓地域內 通行 및 居住移轉도 철저히 制限되었다. 이때문에 北韓 住民들간에는 金日成徒黨이 南侵準備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惑이 나돌았다. 그러나 金日成徒黨은 北韓 民들에 對해 “南朝鮮의 國防軍들이 北韓에 쳐들어 와서 戰爭挑發을 한다.”고 欺瞞宣傳을 하고 外部世界와 完全斷絶된 狀況에서 南北韓, 實情을 모르는 住民들에게 臨迫한 南侵準備를 이렇게 속였던 것이다. 北傀는 또, 住民들을 이렇게 欺瞞하는 一方 外部世界에 對해서도 그들의 南侵準備活動을 陰蔽하기 爲하여 몇 가지 煙幕戰術을 使用하였다.

그 첫째로, 「祖國의 平和統一」을 提議하였다. 즉 北傀는 6. 25動亂이 일어나기 18日前인 6月 7日 平壤의 所謂「祖國平和統一 民主戰線 中央委員會의 放送」이라하여 ① 南北統一 最高立法機關을 設置하기 爲하여 總選舉를 오는 8月 5일부터 8日사이에 實施할 것과 ② 祖國解放 5週年 紀念日인 8月 15日에 南北 最高立法會議를 서울에서 開催할 것과 ③ 以上에 關한 모든 條件과 節次를 討議 決定하기 爲하여 南北 民主主義 政黨, 社會團體의 代表者會議를 6月 15일부터 17日에 걸쳐 海州 혹은 開城에서 開催하기를 願한다는 內容을 放送으로 提議해 왔던 것이다. 6. 25動亂을 며칠 앞두고 이러한 提議를 해온 것은 그들의 不法的인 奇襲 南侵을 陰蔽하는데 根本意圖가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南侵前夜에 取해진 惡辣한 偽裝 平和攻勢이었다. 둘째로, 北傀는 6月 10日 放送을 通하여 北韓에 監禁되어 있는 民族運動 指導者요, 蘇聯軍에 依해 解體된 「平南建準」의 創設者 조만식 先生과 그 아들을 南勞黨 地下工作을 遂行하다가, 이미 大韓民國 警察에 逮捕되어 있던 南勞黨 幹部 김삼룡, 이주하 두사람과 交換할 것을 提議해왔다. 이 提議역시 南侵準備와 臨迫한 侵攻日字를 앞두고 大韓民國 政府와 國民들의 對北警戒心과 주의를 轉換 乃至 解弛케 하려는 그들의 欺瞞戰術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北傀가 줄곧 蘇聯과 補助를 같이하여 韓半島에서 外國軍隊의 戰面撤收를 내세우고 韓國問題를 “우리 사람끼리 自主的으로 解決짓자”고 한것도 結局 名分論과 政治攻勢로 美軍을 南韓에서 撤收시켜 그들의 南侵에 對한 阻止力을 除去하고 南韓에 힘의 空白이 생기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蓄積된 革命力量」으로서 共產統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打算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北傀의 南侵計劃이 蘇聯의 支授하에 이처럼 宣傳面과 軍事面에서 確實히 推進되는 동안에 美國은 1949年 6月 30日 約 500餘名의 軍事顧問團 단을 남긴채 駐韓 美軍을 撤收시켰고 이어 50年 1月 에는 當時 「트루만」 行政府의 「에치슨」 國務長官이 所謂 「에치슨·라인」으로 알려진 美國의 極東 防衛線에서 韓國을 包含시키지 않는다고 發表했으며, 同年 1月 26日에 縮結된 「韓美 軍事防衛 援助協定」에서 美國이 韓國側의 重武器 要求에 應하지 않았다는 사실등은 北傀로 하여금 南侵準備에 必要한 客觀的 情勢가 成熟했다는 느낌을 갖게했다. 또 大韓民國 警察의 迫擊에 쫓겨 越北한 後 南北勞動黨을 合黨함으로써 北傀의 副首相이 된 박헌영 一派는 南韓에 殘存하는 그들의 黨員(地下黨)이 50萬을 넘는다고 誇張 宣傳함으로써 金日成과 蘇聯 軍事顧問團으로 하여금 前面 武力南侵을 強行하면 南韓各地의 地下黨이 總蹶起하여 暴動을 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戰爭은 2週日이면 끝난다는 確信을 갖게 하였다.

이리하여 北傀는 1950年 6月 18日 傀僞軍 最高司令部 情報本部 司令官으로부터 第4師團長에게 보낸 偵察 命令書 第1號와 50年 2月22日 傀僞軍 第4步兵師團 司令官 이진부의 戰鬥命令書 第1號「北進中에 國軍이 抑留한 證據」에서 밝혀진대로 浸攻에 對한 모든 準備를 6月 22日에 完了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平壤에 있는 蘇聯軍 顧問團은 北傀의 民族保衛省에 命하여 戰鬥命令 第1號를 前方師團長에게 下達하여 1950年 6月 23日 12時까지 이른바 “李承晚 軍隊를 무찌를 수 있는 萬般의 態勢를 갖추라”고 指示했던 것이다.

이같은 措置를 取한 후 마침내 北傀는 當時 日曜日인 6月 25日 未明을 期하여 不法 奇襲攻擊을 開始하였고 對外的으로는 「韓國政府의 國軍北侵에 對한 人民軍의 反擊」이라고 虛傳宣傳을 하면서 일로 南進을 強行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같이 터무니없는 거짓 宣傳은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 國民들과 우리 國民들의 비웃음만을 살 뿐이었다. 當時 南北韓의 軍事力을 比較하여 보면 6. 25當時 北傀의 總 軍事力은 20萬軍隊에 2百50臺의 蘇聯製 戰車, 2百11臺의 飛行機 그리고 2千3百90餘門의 各種砲를 保有하고 있었던 反面에 韓國側에는 한대의 戰車도 없었고 航空機는 連絡機 2臺 總 兵力은 6萬4千名을 超過하지 못한 貧弱한 狀態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與件속에서 韓國側은 獨白의으로 北傀의 南侵을 沮止할 能力이 없었으며 當時 李承晚 大統領과 國會는 유엔과 美國政府에 即刻 이 事實을 報告하고 迅速한 援助를 要請했다. 이 當時 「루초」駐韓 美國大使도 北傀의 南侵事實과 戰況을 美國政府에 通報하였다. 美國政府는 北傀의 南侵이 始作된 직후 日本에 있던 「다글라스 맥아더」元首에게 韓國에 對한 武器援助를 命하는 한편 「트리그브·리」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安全保障理事會를 緊急히 召集하도록 要求했다. 1948年 第3次總會에서 韓國을 韓半島內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한바 있는 國際聯合은 즉시 安全保障理事會를 열고 北傀에 對하여 一體의 戰鬥을 中止하고 侵略軍을 38度線 以北으로 撤收할 것을 要求하는 決議案을 採擇하고 이를 北傀에 通告했으나 金日成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를 全的으로 無視하고 繼續 南進하였다. 이에 安全保障理事會는 6月 27日 美國의 提案에 따라 北傀軍에 對한 軍事的 制裁를 討議했는데 이 會議에는 北傀의 南侵을 支援한 蘇聯이 自己들의 難處해진 立場을 謀免키 爲해 會議參席을 거부했기 때문에 소련의 拒否權에 依한 制約을 받지않고 無難히 北傀에 對한 集團安保措置를 取하기로 決定했다. 이 決議에 依하여 國際聯合은 「맥아더」元首를 國際聯合軍 總司令官에 任命하고 北傀를 擊退할 것을 命하였다. 한편 「리」總長의 制案으로 7月 14日 國際聯合 會員國(이미 軍事援助를 보낸 美國, 英國, 波州等과 이 決議를 反對한 蘇聯, 「유고슬라비아」등 共產附營 5個國을 除外한 加盟國)에 對하여 韓國에 對한 軍事援助의 可否를 照會한 結果 英, 佛, 波, 뉴질랜드等 17個國이 地上軍의 派遣을 申請해 왔고 그밖에 40餘個國이 醫藥品, 軍需支援物資, 戰時救授物資 등의 援助提供을 申請하였다.

戰鬥은 初半期에 있어서는 北傀軍이 優勢하여 韓國軍은 一時 洛東江 流域까지 後退作戰을 했다. 그러나 美國의 軍事援助가 行해지고 유엔軍이 속속 上陸함에 따라 韓國軍의 戰列이 整備되고 戰勢가 회복되자 「맥아더」 원수가 직접 指揮하는 仁川 上陸作戰이 開始되는 것을 契機로 反擊作戰을 迅

速히 展開하였다. 이로서 戰況은 逆轉하여 北傀의 南侵 3個月後부터는 38度線以南의 全地域을 次第로 收復하고 9月 30日부터는 北傀에 對한 迫擊作戰을 벌여 10月 26日에는 韓國軍 6師團 7聯隊가 鴨綠江邊의 초산에 到達하고 美 7師團의 一部는 甲山을 거쳐 11月 21日 咸慶北道의 惠山嶺에까지 到達하였다. 國軍과 「유엔」軍의 이같은 北進으로 南北統一의 悲願은 그 實現을 눈앞에 두게되었다. 그러나 當時 소련의 指令에 따라 滿洲에 集結하고 있던 中共軍이 鴨綠江을 건너 對擘 參戰함으로써 4千萬 同胞의 所願인 國土統一은 成就되지 못하고 「유엔」軍과 韓國軍은 不可避하게 後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中共軍이 韓國戰에 介入하자 國際聯合에서는 中共을 糾彈하는 輿論이 沸騰하였고, 드디어 1月 20日 美國代表가 中共을 韓國의 侵略者로 規定하는 決議案을 國際聯合 總會 政治委員會에 提出하였고 이 決議案은 2月 1日 政治委員會와 總會에서 壓到的 多數로 可決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戰勢는 人海戰術로 攻擊해오는 中共軍과의 對決끝에 逆轉하여 國軍과 國際聯合軍은 水原까지 後退하였고 이 地點에서 다시 反擊을 開始하여 다시 38度線까지 回復한 후 戰況은 38度線을 中心으로 一進一退를 거듭하였다.

38度線에서의 이같은 膠着狀態는 犧牲者數를 激增시키는 가운데 繼續되었으며 北傀는 中共과 蘇聯의 積極支援에도 不拘하고 더 以上 戰鬥을 계속할 능력이 限界點에 달하고 더욱이 停戰이 樹立된 지 1年 남짓밖에 안되는 中共으로서는 數拾萬의 戰力을 消耗하면서 戰鬥을 繼續하다가 國際聯合이 戰鬥을 韓半島에만 局限시킨다는 方針을 變更하여 「맥아더」將軍의 建議대로 滿洲地域까지 擴大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 했다. 萬一 戰爭이 滿洲까지 擴大되면 蘇聯의 參戰도 不可避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境遇 韓半島에서의 戰爭이 美蘇兩大 核保有國間의 衝突도 發展하게 됨으로써 第3次世界大戰을 誘發하게 될 可能性도 內包하게 되었다. 事態가 이 지경에 이르자 北傀와 中共은 蘇聯을 通하여 休戰을 希望하게 되었고 이에 蘇聯의 「유엔」代使 「말리크」는 國際聯合 會員國들을 相對로 休戰을 要請하였다. 당시 國際聯合은 韓國動亂이 早速한 時日內에 解決되기를 希望했고 또 이 戰爭이 第3次世界大戰으로 까지 發展하기를 願치 않았기 때문에 共產側의 休戰提議를 받아들여 休戰協商을 始作하였다. 그러나 休戰協商은 共產主義 特有的 遲延戰術과 宣戰攻勢로 쉽사리 妥結되지 못하고 一方協商과 一方戰鬥이 繼續되는 가운데 約 3年の 時間이 經過한 後 1953年 7月 27日에 韓國政府와 國民들의 줄기찬 反對속에 調印되어 政治的 妥結이 없는 오직 軍事的 休戰만으로 韓國 動亂이 終結되었다. 이 休戰에 對해 우리 政府가 얼마만큼 反對 했는가는 우리가 休戰協定에 調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如實히 證明되고 있다.

金日成은 이 動亂에서 세 가지의 重大한 錯覺을 일으켰다. 그 하나는 南勞黨의 朴憲泳 一派의 過張된 情報과 金日成 個人的 教條主義的인 情勢觀에 根據하여 北傀의 武力에 依한 南侵이 開始되면 地下에 潛伏해 있는 50萬名의 南勞黨員들이 期間이 되어 「南韓에서 人民蜂起」가 일어나 侵略軍에 加勢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였으며, 다른 하나는 美國과 相互防衛 援助條約을 맺은 韓國이 「에치슨」 聲明으로 美國의 極東防衛權에서 韓國을 包含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北傀의 韓國에 對한 不法南侵도

이를 默認하고 韓國을 支援하지 않으리라는 誤判이었다. 또 하나의 錯覺은 創設된지 5年밖에 안되는 國際聯合이 極東의 任務에서 벌어지는 內亂에 即刻 集團安全措置를 取하여 實際로 參戰할 可能性이 없으리라는 錯覺이었다.

이같은 錯覺의 結果 北傀는 戰爭에서 무참히 敗北하여 北韓地域을 焦土化했고 外國의 軍事援助를 얻어 同族相殘의 非劇을 演出한 反民族的 犯罪者가 되고 말았다. 이 戰爭에서 北傀軍은 17萬名以上이 射殺당했고 南北韓을 통틀어 1百50萬名의 死傷者를 냈으며 5百萬以上の 戰災民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 戰爭 敗北로 金日成은 北傀 支配集團과 住民들간에서 自己에 對한 敗戰責任을 물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6.25動亂에 對한 一體의 敗戰責任을 그의 「라이벌」인 沿岸派의 金武正과 南勞黨界의 朴憲泳, 李承燁, 임화, 李康國, 朴光희, 金堧 등에 각각 뒤집어 씌워 이들을 彌淸해버렸다. 특히 朴憲泳一派에 對해서는 그들이 美國 帝國主義 勢力의 「스파이」로서 客觀的 情勢가 充分히 成熟하지 못했음에도 不拘하고 南侵을 勸告했다는 터무니 없는 罪名을 씌워 死刑處分을 내렸던 것이다.

金日成은 이같이 殘忍한 方法으로 南勞黨을 犧牲시킴으로써 自己의 安全을 圖謀하고 그에게 同調하는 蘇聯界 共產黨을 中心으로 自己의 支持基盤을 強化하고 戰爭復舊의 口實下에 또다시 全住民을 強制勞動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으면서 그의 一人獨裁體制를 굳혔던 것이다.

3. 6.25以後의 挑戰

北傀는 6.25의 不法南侵이 國際聯合軍의 強力한 集團安保措置로 失敗로 돌아가고 中共軍의 介入으로 戰況이 겨우 南侵 以前의 狀態로 回復되자 國際聯合軍에 休戰을 提議, 이를 成立시킴으로써 限界點에 達했던 그들의 戰鬥能力上的 危機를 謀面했다는 것은 前節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北傀가 南侵에서 失敗하고 또 聯合國側과 暫定的으로 停戰協定을 締結했다고 해서 武力으로 한반도 赤化를 꿈꾸었던 金日成의 野慾이 추호라도 꺾인 것이 아니고 이 野慾을 뒷받침했던 北傀의 共產體制나 哲學上에 어떠한 變動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休戰은 더 以上 戰鬥을 繼續할 수 없는 狀況에서 取해진 戰術的인 後退를 意味하는 것이고 再侵을 爲한 準備期間을 벌기 爲한 共產主義者들의 常套的인 手法에 不過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北傀는 停戰協定이 締結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戰爭으로 廢墟가 되어버린 共產革命 基地를 復舊하고 再建, 強化하는 作業에 總力を 傾注함과 아울러 또한 對南 浸透, 攪亂, 破壞工作 및 宣傳攻勢를 強化하였다.

北傀가 休戰이 成立된지 不過 9日밖에 지나지 않은 1953年 8月 5日에 北傀 勞動黨 第6次 全員會議을 召集하고 이 會議에서 停戰協定을 締結함으로써 얻어진 平和期間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1分 1秒를 아껴가며 北半部에 強力한 要塞을 建設하는 事業에 全黨員과 全人民의 力量을 總動員해야 할 것이라고 決定한 것은 停戰에 臨하는 北傀의 검은 凶計를 如實히 說明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會議에서 強力한 共產革命基地의 創設은 祖國統一을 한층더 促進시킬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6.25動亂에

서 勝利한 것은 그들이며 이 勝利는 南韓에 革命基地를 事前에 잘 構築해 놓은 德分에 戰取된 것이라고 欺瞞宣傳과 虛勢를 부렸던 것이다.

金日成은 自己의 追從者들에게 이처럼 거짓된 戰爭評價를 하면서 「戰後 人民經濟 再復舊發展 3個年 計劃」을 策定하고 戰禍로 시달린 北韓住民들을 미처 숨들릴 사이도 없이 일터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 計劃은 이미 敗戰에 짓눌려 極限狀況에 處한 北韓住民들의 民生苦 解決은 전혀 考慮하지 않고 오로지 南韓 再侵을 爲한 軍備擴張에만 主案을 두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이 計劃에서 軍需工業, 特히 兵器生産에 主力을 두고 動亂 前에 設置된 65號, 42號 두 軍需工場은 既存施設로서 生産能力을 더욱 높이고 指示하고, 26號 工場은 일부 施設을 다소 補強하여 1953年初의 生産計劃을 두배로 늘리고 命令하는 한편 또, 82號 工場을 新設하도록 하였다. 이와 併行하여 金日成은 傀儡軍의 陸軍用 狙擊武器, 拍擊砲等과 그에 所要되는 彈藥들을 自給自足시키기 爲해 이에 必要한 火藥製造 및 其他 軍需工業을 補強시키도록 하였다.

그후 重工業 優先政策, 特히 武器生産을 助長할 機械工業 育成에 政策의 力點을 두고 蘇聯이나 中共에서 받아들인 援助도 大部分을 住民의 生活向上問題에는 介意치 않고 軍需工業에만 投入하였다. 이리하여 北傀의 全住民은 6.25 以後부터 철골 銃彈製造事業에 傭매인 奴隸 勞動을 強要받게 되었다.

이러한 戰爭準備가 全住民의 犧牲위에 進行되는 時期에 大韓民國에서는 4.19 義擧가 일어나고 뒤 이어 政局이 어수선 해지자 金日成 一黨은 今時 南韓에서 「赤化統一」이라도 이루어 지는듯 南韓地域을 統括할 人的 構成을 서둘러 政治工作 要員을 大據 間諜으로 南派시키고 「偽裝平和統一」攻勢를 強化하여 南北聯邦制 統一方案까지 提議하는等 對韓 心理戰 攻勢를 가해 왔다. 그러나 5.16軍事革命으로 大韓民國의 反共體制가 強化되고 意慾의인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多變的인 國際協力을 基盤으로 跳躍制度를 따라 進行하자 이에 唐慌한 金日成은 1961年 9월에 열린 北傀「勞動黨 第4次 大會」에서 對南政策을 所謂「平和統一」攻勢에서 武力赤化로 方向을 轉換하고 62년에는 所謂 南韓에 對한 武力革命 戰略의 國內路線을 「四大 軍事路線」으로 決定했다. 「四大 軍事路線」이란 곧 「全軍의 幹部化」 「軍裝備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 및 「全國土의 要塞化」 등으로 對南 武力南侵 準備의 積極化를 말하는 것이다.

이 4次 全黨大會에서는 「四大 軍事路線」 以外에도 이른바 「人民經濟 7個年 計劃」을 樹立하고 軍需 産業을 中心으로 하는 重工業 發展에 總力을 傾注했다. 이 7個年 計劃은 1966年 10月 「黨代表者會議」에서 革命基地를 強化한다는 뜻으로 軍事費를 增額, 調達하기 爲해 7個年計劃을 3年 더 延長하였다.

北傀는 北韓地域내에서 그들의 對南 武力南侵 準備를 이같이 強行 推進하는 한편, 南韓에 對해서는 6.25 動亂前에 比해서는 規模는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對南浸透를 強化하고 1968年의 1月 21日 30名의 武裝 共匪를 南派하여 大統領官邸의 襲擊을 試圖하는가 하면 美國 情報艦 「무에블로」號를 拉致하는 海賊行爲를 敢行하고 鬱鎮, 三陟等 主要 産業施設에 共匪를 派遣하고 69年 4月 15日에는 美國의 EC. 121 偵察機를 擊墜하여 機體와 乘務員을 沒殺시키는等 武力挑發行爲를 일으켜 第3共和國의 急速한 經濟成長을 沮害하고 政治的 混亂을 惹起하는데 狂奔하였다.

北傀의 對南攻勢를 時期 및 內容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1954년의 「제네바」會談부터 1961年 5.16革命時까지는 「平和統一」攻勢期로서 이 期間中에는 南北交流, 南北聯邦制, 中立化統一, 國際聯合 監視가 아닌 中立國 監視에 依한 南北 總選舉, 당시 國際聯合에 加入하지 않은 中共을 包含한 國際監視(유관국)下的 南北總選舉 方案等 이루 헤아릴 수 없는 美辭麗句의 平和統一 攻勢를 띄면서 對內的으로는 6.25로 疲弊된 軍事力의 補強에 置重하였으며 5.16軍事革命 後의 時期는 6.25動亂 前에 南韓社會의 顛覆에 活用하던 南勞黨의 役割을 代行할 統一革命黨을 地下에 組織하여 이를 中心으로 한 對南挑發과 武力浸透을 併行시킨 時期였다. 이 期間中에도 平化統一 攻勢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攻勢의 軸점은 南韓政府와 國民을 離間시키는 革命 및 內亂煽動에 集中되었고 同時에 間諜의 大舉 南派에 依한 統革黨의 強化에 攻勢의 主要 目標을 두었다.

그러나 統革黨 陰謀가 失敗로 돌아가고 各種 武力挑發 行爲가 그 所期의 效果를 걸우기는 커녕 國際聯合 韓國統一 復興委員團(언커크)에 依해 國際聯合에 보고되어 國際的인 孤立을 招來하는 事態에 達着하자 第4次 全黨大會가 열린지 滿 9年만인 1970年 11월에 열린 第5次 全黨大會에서 金日成은 “南韓에서의 革命要因이 成熟되었다”고 主張하고 從來의 「民主主義 民族革命」이라는 對南革命路線을 바꾸어 南韓의 革命段階가 「人民民主主義 革命段階」라고 規定한 後 統革黨을 再建하여 南韓人民의 蜂起에 依한 革命政府가 樹立되면 이 革命政府와 直接 協商하여 赤化統一을 斷行한다는 前提下에 南韓內 革命勢力에 對해 武力支援을 包含한 모든 支援을 다할 것을 宣言하였다. 그리고 이 大會에서는 1962년부터 推進된 4大 軍事路線이 成就되어 南韓에 對한 戰爭準備가 完了되었다고 公表했던 것이다.

이 5次 全黨大會에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點은 金日成의 偶像化와 이에 따른 1人 獨裁體制의 構築, 그리고 그들이 公認하는 4大 軍事路線에 依한 戰爭準備 完了等이다.

金日成은 所謂 「蘇聯 2歲派」, 親中共系의 「北滿派」, 「南滿派」等を 背景으로 그의 神格化運動을 全國的으로 展開하여 住民에 對한 모든 思想教育을 金日成 唯一思想에 集中시켰으니 이 偶像化의 程度는 가히 「스탈린」과 毛澤東의 境遇를 훨씬 凌駕했다. 이 方法에 依하여 金日成은 軍部內的 隱微派인 김창봉, 허학봉 등을 肅清하여 그에 追從하는 強硬派로 軍幹部陣을 再編했고 그의 戰爭政策에 懷疑的인 김광협 등 黨僚派를 肅清함으로써 그의 地位를 確固히 強化했다. 軍事面에서 볼 때 北傀는 世界에서 가장 軍國主義的 體制를 갖추고 過去 10年間 約 39億弗에 相當한 豫算을 軍事費에 投入했고 現在는 國民 總生産庫의 約 30億弗의 24퍼센트인 7億弗 以上을 軍事費에 充當하고 있다. 지금 北傀는 在來式 戰爭에 必要한 武器는 「탱크」까지 包含해서 거의 自力으로 生産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日成은 이 大會에서 4大 軍事路線에 依한 戰爭準備完了를 宣言하면서 現在 人民軍隊는 政治思想的으로, 軍事技術的으로 더욱 團練된 一當百의 幹部化 軍隊로 만들고 全體人民이 다 銃을 메고 鎗을 쏘아 온 國土의 모든 地域이 鐵鑿城같은 防衛施設을 쌓아 놓았으며 重要한 生産施設까지도 다 重要化 하였다”고 豪言壯談하고 있다. 또한 山岳戰과 夜間戰鬪, 大部隊 作戰과 小部隊 作戰, 定規戰과 遊擊戰 訓練을 強化하여 定期, 非定期的으로 계속해서 準備態勢를 強化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이처럼 北傀는 神格化된 金日成의 獨裁體制를 根幹으로 하여 과거나 現在나 多름없이 武力赤化 統一 路線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南韓에 對한 浸透, 破壞工作을 推進함과 더불어 再南侵을 虎時耽耽 노리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이러한 戰爭準備 努力은 비단 成人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學校의 어린이들까지 包含해서 實施되고 있고 여기에는 映畫, 演劇, 音樂, 舞蹈, 小說, 詩等 各種 文藝活動까지 動員되고 있다.

金日成의 이같은 戰爭準備는 그 樣相이나 對南攻勢의 手段이 어느모로 보나 6.25 直前의 樣相과 極히 類似하다. 卽 北傀는 對內的으로는 戰爭準備를 完了했으면서도 對外的으로는 아직도 平和統一 攻勢를 繼續하고 있다. 現段階에 나타나고 있는 平和攻勢의 口號는 그들의 表現을 빌 것 같으면 南韓을 強制로 占領하고 있는 美軍撤收, 南北韓 雙方의 兵力을 10萬線으로 減縮할 것, 國際聯合 韓國統一 複興委員團의 解體, 南北韓 相互 不可侵條約 等으로 攻勢의 最終目標은 南韓에 駐屯하는 美軍을 撤收시키고 韓國과 國際聯合과의 關係를 斷絶시킴으로써 南韓을 國際적으로 孤立시켜 南侵의 溫床인 「힘의 空白」을 招來케 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傀의 이같은 平和攻勢가 얼마나 기반적인 것인가는 休戰線을 中心으로한 北傀의 南韓에 對한 실세없는 武力挑發과 間諜의 大量 密派行爲 및 그들의 後方攪亂 및 「테러」行爲에 依해 雄辯으로 立證되고 있다. 북괴가 1966年 1月 以後 68年 1月까지에 저지른 큰 事件만 추려보아도 무려 25건 이나 된다. 예컨대 동명호, 영풍호 拉北事件, 國軍士兵拉致事件, 食糧運搬「트럭」襲擊事件, 國聯軍에 對한 奇襲, 殺傷事件, 북성호 拉北事件, 56艦 被擊事件, 板門店 後放蒜舍襲擊事件, 臨津江邊에서 의 美軍 警備艇 被襲事件, 신광호, 대광호 등 漁船 2百 28隻 拉北事件, 「푸에블로」事件, EC121機 擊墜事件, KAL機 拉北事件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停戰協定을 違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結들여 北傀는 1968年 1年동안에 1千1百42名의 間諜을 南派시켰고, 심지어는 大韓 赤十字社가 南北離散家族 찾기運動을 北傀側에 提案하여 南北赤十字間에 家族찾기를 爲한 豫備會談이 板門店에서 開催되고 있는 期間에도 40日만에 67次에 걸친 間諜南派 및 武力挑發이 있었던 것이다.

現在 南北韓의 軍事力은 空軍面에서 北傀가 優勢하고 陸軍은 韓國이 優勢하나, 海軍이 步合狀態에 있기 때문에 結局 우리는 北傀의 再南侵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비록 國際情勢가 오늘날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展開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核武器를 가진 核 保有國間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現狀이고 地政學的인 面에서 在來式 戰爭이 可能하고 紛爭의 性格도 局地戰으로 評價될 우리의 立場에서는 結局 北傀에 對한 警戒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第3章 民主・共産 對決의 展望

1945年 이래 冷戰과 對立으로 一貫하여 오던 民主・共産 兩 陣營의 極限의 對決은 「호루시초프」 時代에 이르러 平和共存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時期에도 兩 陣營의 對立은 世界到處에서

그 程度의 差異는 있었으나 繼續되어 왔었고 「호루시초프」의 失脚後에도 越南戰爭, 「아랍」·「이스라엘」戰爭 등으로 美蘇를 主軸으로 對決은 繼續되어 왔던 것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特히, 最近美國의 「닉슨」-「키신저」팀의 脫「이데오르키」的 外交의 展開에 따라 兩大陸營의 對立은 國際政治의 多元化와 더불어 緩和되는 듯한 印象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美·中共의 對話가 兩國, 나아가서는 兩體制間의 矛盾의 解決을 意味하는 것은 결코 아님은 明確한 事實이다. 따라서 現 國際情勢의 一般의 解氷「무드」는 時間的으로 暫定的일 수도 있으며 最善의 境遇 民主·共產 國家間의 對決의 戰術의 變化 以上の 것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옳은 判斷일 것이다.

오늘날 民主主義 體制 및 國家들 內에서도 여러가지 內部的 問題가 있으나 共產陣營의 國家들은 여러가지 決定的인 內在的 矛盾과 脆弱點으로 鎭痛을 겪고 있다. 우선 가장 큰 問題로 登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經濟體制, 特히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非能率성과 一部 國家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國民의 生活이 安定된 蘇聯과 東歐의 共產國家에서는 自然發生的인 人間의 自由化 運動이 合法, 또는 非合法的으로 展開되고 있어 共產支配者들을 眩惑케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國際 共產主義 運動에 있어 「마르크스」의 「社會主義 兄弟國論」은 그 色彩를 完全히 잃고 蘇聯과 中共의 共產陣營間의 主導權 爭奪戰은 民主·共產의 兩大陸營의 對決을 無色케 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共產主義 國家들은 그들의 體制內에 潛在하고 있는 脆弱성과 自由化 물결의 進入으로 拍車를 加하고 있는 國內의 自由化 運動, 나아가서는 國際 共產主義의 崩壞로 말미암아 그 速度에는 差異가 있을지언정 窮極的인 體質變化가 不可避한 實情이다.

우리와 對峙하고 있는 北傀의 境遇 全體主義의 性格面에서는 蘇聯은 물론 中共까지도 比較가 되지 않으리 만큼 「팻쇼」적 軍事政權의 體制를 維持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는 큰 變動을 期待하기 어려우나 蘇聯이나 東歐羅巴의 共產 國家들과 같이 終國에는 變化가 올 것으로 期待된다.

1. 民主陣營 對 共產陣營

가. 共產體制的 脆弱點

20世紀 後半의 共產主義 國家들이 갖고 있는 問題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가장 큰 問題中의 하나인 經濟問題를 論及해 보겠다.

共產國의 經濟問題는 大部分이 그 制度的 非合理性에 根據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몇 가지 主要要素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貧困한 經營陣, (2) 勞動者의 意慾不振, (3) 需要와 供給의 不調和, (4) 重工業과 消費工業의 不均衡等을 들 수 있다.

經濟에 있어 오늘날 가장 重要한 것은 말할것도 없이 經營技術이라 할 것이다. 現代의 經濟는 날이 갈수록 複雜하여지고 經營의 技術에 따라 企業이나, 社會의 經濟狀態가 決定的으로 左右된다. 따라서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經營學을 專攻한 專門家들이 오랜 經驗을 土嚥로 企業을 運營해 가고 있는데 反하여 共產社會에서는 經營의 技術도 重要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黨과 政權에 對한 忠誠이

가장 중요한 標準이 되고 있다. 또한 計劃經濟下의 企業이기 때문에 上部에서 指示한 事項만을 無條件 順應하여 企業의 長期的 發展과는 關係없이 運營을 하기 때문에 長期的 經濟發展을 阻害하고 있는 것이다. 두째로, 勞働者 或은 農民의 勞動에 對한 意慾不振이 큰 經濟問題로 登場한다. 資本主義 體制와는 달리 共產體制下의 勞働者, 農民들은 그들 各自의 生産 能力의 高下와는 關係없이 政府에서 指定한 一定量의 反對給付를 받기 때문에 自然 競爭意識이 없어지고 따라서 總生産量이 自然 低下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現狀은 特別 農業面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共產國家의 大部分이 農業政策, 特別 그들의 集團農場制가 全部 失敗에 돌아간 理由中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이러한 競爭意識의 缺如와 勞動에 對한 「인센티브」의 不足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이 共產經濟의 需要와 供給의 不調和이다. 經濟의 原理는 市場의 需要에 依하여 供給과 生産이 決定되는 것이다. 共產經濟에서는 이와는 反對로 一定한 生産量을 定하여 놓고 需要를 이에 맞추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矛盾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部門에 있어서는 需要가 絶對적으로 모자라고 또 다른 어떤 部分에서는 供給이 需要를 凌駕하여 浪費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重工業과 消費工業의 不均衡을 들 수 있다. 共產主義 國家들은 一律적으로 政權을 樹立하자마자 軍需工業을 中心으로 한 重工業에 國力을 기우려 왔다. 蘇聯이나 中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對峙하고 있는 北傀의 境遇 國民總生産量(G. N. P.)의 約 35%를 國防費에 充當하고 그 大部分이 軍需産業에 消費되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共產經濟의 軍需産業 置重度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1970年 11月 北傀의 所謂 第5次 全黨大會에서 金日成이 公然히 認定한 바와같이 戰爭準備로 말미암아 國民들은 그들의 消費生活에서 極甚한 耐乏이 強要되어 왔으며 一般 消費物品 全般에 걸쳐 數十年의 落後 現狀을 招來하였다. 이러한 消費工業과 軍需産業間의 極甚한 不均衡은 오늘 날 蘇聯 및 東歐의 衛星國家에서도 크게 政治問題化되고 있으며, 國民의 不滿을 部分的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하여 消費經濟의 向上을 公約으로 내어 걸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되었으니 經濟적으로는 절름바리 體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經濟問題에 이어서 共產國家들의 큰 問題中의 하나는 共產體制의 維持가 困難한 點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나 「레닌」에 依하면 共產主義의 窮極的 目標은 階級이 完全히 消滅되고 國家마저 없어지는 無政府狀態를 假想하여 그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過渡期的인 現狀으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獨裁가 存在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共產國家의 統治機構인 共產黨의 核心은 이러한 勞働者들로서 構成된 것이라기 보다는 少數의 精銳官僚들로서 組織되어 있으며, 이로서 「마르크스」가 讚揚하였던 無階級 社會가 아닌 더욱 強化된 階級社會의 樣相을 띄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少數 執權者들을 「유고슬라비아」의 前 高位官僚였던 「미로반·지라스」는 新階級이라고 불렀듯이 共產黨은 極少數에 依한 全體主義의 獨裁政權을 共產主義 理念으로 合理化시킨 國民을 搾取하는 特權階級으로 看做할 수 있겠다. 따라서 共產主義 本來의 無階級 社會란 하나의 空念佛이 되었다. 또 한가지 問題는 그들이 말한 國家의 過渡期的 現狀理論이다. 即 共產主義 理論에 依하면 “國家란 보다 高次元의인 社會主義를 成就하기 爲한 하나의 過渡期的인 現狀으로서 國家는 社會主義 成就와 反比例하여 漸次

的으로 消滅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國民의 反撥과 不平을 막기 爲하여 오히려 國家는 점점 肥大하여 가는 奇現狀을 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惡循環의 國家權力의 肥大現狀은 共產體制下에서 國家와 國民間의 對立을 더욱 激化시키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共產主義자들이 人類政治史에서 證明된 獨裁와 彈壓의 限界性を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共產主義가 人類歷史上 最初의 獨裁理論이나 政權도 아니고 또 그들의 政權이 從前의 人類社會에 君臨하였던 어느 獨裁政權 보다 絶對的으로 優秀하다고 할 수 없는데도 不拘하고 民意에 反한 獨裁政治를 強行하고 있으므로 獨裁政權의 時間的 限界성과 沒落의 必然性에 따라 共產主義의 最後를 豫期할 수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彈壓을 避하여 自由陣營으로 避難하여 온 事例을 볼 때 1949年 9月부터 1961年 8月 15日까지(베를린 障壁의 構築時까지) 自由를 찾아 東「베를린」에서 西「베를린」으로 移住해온 數가 無慮 270萬에 達하고 韓國의 境遇에서도 1945年 當時 南北人口가 各各 1,500萬으로 비슷하였으나 1953年 休戰時까지 約 500萬의 北韓 人口가 南韓으로 移住하여 온 事實은 人間의 獨裁에 對한 本能的 嫌惡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1956年 「폴란드」와 「헝가리」의 反共義舉 事件과 1960年代 末期의 捷코의 自由化 運動 및 獨裁者 「스탈린」의 친딸인 「스벳트라나」의 1967年 美國 亡命 等은 共產社會의 將來를 말하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네째로는, 共產 政權의 指導者 選出問題를 中心으로 한 政治鬭爭과 支配階級間에 慢延되어 있는 肅清의 恐怖로 表面的으로는 強한 듯한 印象을 주는 共產支配政權은 그 實에 있어서는 가장 不安한 狀態에 있다는 點이다. 共產國家가 憲法과 또 法이 明示하고 있는 指導者 選出方法은 오직 걸치레에 불과하고 實質的인 指導者 選出은 熾烈한 政權鬭爭과 肅清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後繼者 繼承問題가 擱頭 될 때에는 內紛과 混亂으로 政治的 鎖痛을 依例的으로 겪게 마련이다. 소련의 境遇 「레닌」의 死亡後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政權鬭爭과 피비린내 나는 肅清이나 「스탈린」의 死後 繼承權을 둘러싼 「베리아」의 肅清, 또는 1965년부터의 中共의 文化革命과 1971年 12月에 公布된 「임포」의 肅清等等은, 곧 全體主義 國家에서의 政權交替의 苦痛을 雄辯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特히 中共의 文化革命과 黨內部的 鬭爭은 그 餘波가 支配者階級을 벗어나 國民生活 全般에 걸쳐 莫大限 影響을 미쳤다. 共產 全體主義 體制의 統治方法은 그들의 憲法이 規定하고 있는 바와는 無關하게 一律的으로 下向式 體制를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一旦 上部에 混亂이 생기면 下部의 體制는 自動的으로 機能이 癱痺되게 되는데 文化革命과 같이 그 期間이 長期化 될 境遇 國民의 一常生活과 國家의 經濟全般에 미치는 影響은 深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共產體制의 脆弱點 中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世界의 共通的인 自由化 潮流인 것이다. 共產主義의 教條的 理論과 注入式 思考方式은 오늘날 가장 큰 試鍊期에 處하여 있다. 「체코」를 비롯한 東歐 共產帝國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自由化 運動은 2가지의 側面에서 볼 수 있겠다. 첫째로는, 西歐社會의 自由化 물결의 進入으로 共產國家의 知識人 青年을 中心으로 한 自由化 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며 둘째로는, 經濟發展이 어느 程度 이루어지고 教育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國民의 自由에 對한 憧憬心과 基本權의 主張이 漸次 加熟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內部發生的 自由化 現狀과

西方國家로부터 흘러들어오는 自由化 물결이 配合되어 東歐共產國家에서 自由化運動이 積極化 되었던 것이다. 不幸히도 이러한 運動이 蘇聯의 軍事的 介入으로 挫折되었으나 窮極에 가서는 蘇聯의 「탱크」도 이러한 질긴 自由化潮流를 막지 못할 것이다.

나. 共產 國家間的 紛爭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共產主義 理論中 國際的인 側面은 端的으로 「兄弟社會主義 國家의 團結」이라는 「스로잔」으로 表現할 수 있다. 卽 共產主義는 勞動者 階級을 위한 理論으로서 勞動者의 利害는 國境을 超越하여 一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가 생기기 이전에는 資本主義 國家의 勞動者들은 資本主義 타도라는 大命題下에서 서로 國境을 超越하여 協調하여야 할 것이며 社會主義 國家가 誕生한 然後에는 같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共產主義의 目標達成을 위하여 一致團結하여 資本主義 國家와 對抗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共產主義 原則論的 理論을 내세워 「레닌」과 「스탈린」은 蘇聯을 中心으로 國際共產主義 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蘇聯의 國家利益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2次大戰 終了以前까지 蘇聯이 唯一한 社會主義 國家로 存續하는 동안에는 所謂 「一國社會主義論」을 展開하여 “모든 國家의 共產黨과 共產主義者들은 蘇聯의 存續을 爲하여 協調하여야 한다”고 宣傳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2次大戰 終了後 東歐와 極東에서 그들의 衛星國家를 設立하고 戰後 蘇聯 國力回復을 爲해 이들 國家들을 搾取하였다. 表面的으로는 一時 蘇聯을 主軸으로한 衛星國家간의 協調는 순조로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協調무드는 오래 持續되지 못하고 共產國家間的 理念紛爭 및 理解衝突로 나타났다. 共產國家間的 紛裂의 重要原因을 살펴보면 ① 傳統的 國家意識 및 民族感情이 共產主義보다 더욱 強하게 作用하였고 ② 國家의 利益이 共產主義의 理想論的 目標보다 앞서게 되었으며 ③ 共產主義 理論의 教條의 性格으로 말미암아 理念論爭이 激化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蘇聯의 指導力에 對한 最初의 正面挑戰은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英雄으로 君臨한 「티토」元首에 依하여 1948 年에 비롯되었다. 그후 「티토」와 같이 公共然한 挑戰은 아니었으나 東歐帝國의 共產指導者들은 다같이 蘇聯의 지나친 內政干涉와 經濟的 搾取에 不滿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共產圈의 內部紛裂은 역시 中, 蘇의 理念論爭에서 本格化 되었다고 볼 것이다. 1956年 「호루시초프」가 蘇聯 共產黨會議에서 「스탈린」格下 演說을 하고 「스탈린」式의 支配體制를 排擊하고 나온 後부터 始作된 中·蘇間的 理念論爭은 급기야는 共產圈의 指導權 爭奪 및 國境衝突이라는 現實的 理解關係의 對立, 鬭爭으로 發展되었다. 또 한가지 中蘇紛爭의 한 要因은 中共의 指導者 個人崇拜와 中·蘇의 國家的 및 民族的 自負心의 作用이라 할 것이다. 毛澤東을 崇拜하는 中國共產黨員들은 毛澤東이 「마르크스」와 「레닌」에 버금가는 共產主義의 世界的 指導者로 推戴하는 한편, 現 蘇聯의 指導者들을 황구유아의 後輩로 看做하는 傾向과 東西間的 文化的 差異와 各自의 自負心은 相對方을 侮蔑視하는 傾向으로 變겨 妥協할 수 없는 現實的 利害衝突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다.

이들 두 共產強大國을 둘러싸고 世界的 共產國家들은 두개의 陣營으로 나누어져서 對立하는 形態를 보이고 있다. 東歐의 「알바니아」가 1961年 蘇聯과 國交를 斷絶한 以來, 最近 「루마니아」가 中共에 接近하여 가고있고 「아프리카」와 南美의 共產國家들도 親 中共의 態度를 보임으로서 共產陣營의 이원적

體制를 樹立시키기 이르렀다. 오늘날 中共이 유엔에 加入되고 國際的 地位가 크게 向上된 以來 中蘇間의 紛爭은 더욱 날카로워진 느낌이다. 中共은 棼하 200萬의 大軍을 中·蘇國境線에 集結시키고 印度—「파키스탄」戰爭에 各各 後援國을 支援, 戰爭까지 挑發시키는 등, 兩國間의 關係는 惡化—路를 걸고 있어 最終에는 武力的 對決까지도 想像할 수 있는 實情이다. 이에 反하여 「유고」, 「루마니아」 및 中共과 같은 共產國家들의 西方接近이 現 國際政治의 또하나의 特異性을 이루고 있다. 유고는 1948年 以來 親西方政策을 줄곧 繼續하여 왔으며, 最近에는 루마니아가 1969年 8月 「닉슨」大統領의 「루마니아」 訪問을 契機로 미·「루마니아」 協定을 調印하고 兩國間의 經濟的 協調體制를 驅逐하기에 이르렀으며, 1970년에는 美國과 中共의 劇的인 對話로 國際政治는 冷戰의 새로운 局面에 접어든 느낌이다. 最近에 試圖되고 있는 美·中共間의 對話가 具體的으로 어떻게 發展할 것인가는 아직도 未指數로 남아있겠으나, 이를 契機로 國際政治에 새로운 現狀으로 나타난 것은 所謂 「脫이데오르기 現狀」이라는 것이다. 卽 1945年 以後 줄곧 國際政治와 東西의 冷戰을 最少限 理論的인 面에서라도 支配하여 왔던 「이데오르기」시대가 緩和되기 始作하였다는 것이다. 國際政治는 다시 國家의 利益追求라는 傳統的 價値觀에 立脚한 힘의 均衡政治로 還元하고 있는 듯한 것은 確實히 過去 20年의 冷戰史에 終止符를 찍고 새로운 歷史의 章이 始作되었음을 證明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國內的으로 制度的 矛盾을 內包하고, 政治的 問題를 갖고 있으며, 國際的으로 分裂을 거듭하고 있는 共產國家들의 앞으로의 向方은 果然 무엇이겠는가? 또한 共產主義의 世界赤化 野慾은 拋棄될 것인가? 아니면 紛爭속의 共產權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등의 重要한 質問을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로 共產主義 理論의 內在的 矛盾에서 오는 經濟的 및 政治的 病廢는 自體內的 妥協에 依하여서만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卽 共產國家의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 發展이 封建體制를 脫皮하고 어느 程度 先進 文明國의 地位로 向上되었을 경우, 外部로부터 흘러들어오는 自由化 물결과 合勢하여 國內改革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卽 共產國의 住民들은 보다 큰 政治的 自由를 渴望하게 되고 國民의 基本權 保障과 經營合理化를 통한 效率性 增大와 消費經濟의 發展等を 強力히 要求하게 될 것인바, 共產政權도 이를 部分的으로나마 住民들의 이러한 要求를 受容치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結果는 經濟秩序面에서 資本主義的 方式 특히 私有財產權의 部分的 復活과 自由競爭原則의 一部 適用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政治制度面에서는 民主的 政治制度로의 一步 接近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各國의 共產政權이 國民의 強力한 要求를 拒絶하고 時代的 潮流에 逆行한다면, 國內的으로 거센 反撥을 받고 國際的 壓力으로 政權維持가 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樂觀論은 現在 東歐羅巴 共產諸國의 發展過程을 「모델」로하여 생각하여 본 것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이 과연 世界赤化라는 根本的인 目標을 拋棄할 것인가? 라는 問題를 생각하여 보자. 共產主義 體制가 東獨을 비롯한 여러 共產國家에서 어느程度 緩化되고 있는 傾向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共產主義者들 특히 蘇聯과 中共이라는 強大國의 境遇 世界 赤化野慾의 拋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첫째로, 東歐 共產國家의 修正主義的 現狀은 그 速度에 있어 緩慢한 것으로서 急進的 改革을 뜻하

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該當 國家들의 政治文化와 傳統의 民主의 이었다는 點을 들 수 있겠다.

即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는 比較的 民主傳統이 強한 國家들로서, 住民들의 教育水準이 높고 民主主義에 對한 熱望意圖가 強한 國家들이기 때문에 他 共產國家에 比하여 빠르게 民主化 過程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蘇聯과 中共도 어느 時期에 가서는 現在의 獨裁體制가 弛緩될 것으로 보이나, 그 速度는 극히 느려 그들의 好戰性과 膨脹主義的 侵略性에 비추어 보아 조금도 樂觀을 不許하고 있다. 둘째로는 核武器의 可恐할 破壞力과 이를 運搬할 수 있는 能力의 向上에 따라 蘇聯은 물론 앞으로는 中共까지도 美國을 비롯한 全自由陣營을 相對로 戰爭을 挑發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게 된다는 점이다.

「스탈린」의 冒險主義的 膨脹政策이 「호루시초프」나 그 後繼者들에 의하여 拋棄되고 어느 程度 平和共存의 政策을 恒久化시켜 나아간다고 하지만, 「호루시초프」역시 1962年 「큐바」의 「미사일」事件을 일으켰으며 後進 開發途上國家에 繼續的인 壓力을 加하고 世界到處에서 그들의 勢力膨脹을 위한 鬭爭을 繼續하여 왔고, 最近 蘇聯의 「아랍」圈과 印度洋에로의 進出은 오히려 從前보다도 더욱 強化된 蘇聯의 國際影響權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的 經濟秩序를 標榜하고 있는 民主主義 國家들은 蘇聯이나 中共의 過激한 路線에 대한 境界를 弛緩할 수 없음을 물론, 國家의 모든 人的·物的 資源을 動員하여 共產主義의 不意의 侵略에 對備하는 한편, 이들의 體制的 變質을 促進시키는 自由化 물결을 繼 進入시키고 共產國家내 自由化運動을 積極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2. 大韓民國 對 北傀

前章에서는 民主主義와 共產主義의 對決을 世界的 次元에서 다루었으나, 우리의 問題는 一次的으로 韓半島의 事態를 더욱 重要視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北傀의 共產體制와 우리와의 對決問題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北傀의 金日成은 6, 25 動亂에서 所期의 口의이었던 「南韓 敵化統一」이 水泡로 돌아가자 再南侵을 위한 戰爭復舊事業을 兵器 및 軍需産業을 爲主로 遍成하여 遂行하여 왔다는 것은 前章에서 記述한 바와 같다.

오늘날 北傀는 共產陣營에서도 그 例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軍國主義的 全體主義 政權으로서, 總人口 1,300萬中 定規軍 45萬, 勞農赤衛隊 1百30萬, 最近에 組織된 붉은 青年 近衛隊 70萬 外 相當數의 警察要員을 包含한 約 2百5拾萬을 軍事力으로 動員할 수 있는 組織을 갖추고 있다. 北韓을 統治하고 있는 公式機構인 勞動黨은 1百60萬의 黨員을 자랑하고 있어 人口 比例面에서 볼 때 蘇聯이나 中共까지도 凌駕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가지 添加하여 둘 것은 이 勞動黨의 1百 60萬 黨員은 北韓안의 統治를 위한 要員이 아니고 統一韓國의 4千5百萬 人口를 統治할 要員임을 金日成은 항상 強調하고 있다는 點이다.

思想面에서도 北傀는 「마르크스」, 「레닌」의 共產主義에 보다 忠誠하고, 對內的으로는 金日成 唯一 崇拜思想을 벌려 住民動員의 道具로 使用하고 있다.

그러나 「四大 軍事路線」의 完決로 南侵準備의 完了를 자랑하고 金日成 個人崇拜 思想과 「마르크스」 「레닌」主義로 武裝한 그들이라고 發言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北傀는 많은 內在的 矛盾과 現實的 病弊로 말미암아 鎖痛을 겪고 있다. 그중 몇가지만 擧論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傀 역시 다른 共產主義家들과 같이 經濟的 非能率性和 經營技術의 落後, 需要와 供給間의 不調和, 그리고 消費工業의 前近代의 狀態 등 여러가지 苦衷을 안고 있다. 1971년에 열린 제4차 「社勞背」 總會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오늘날의 北傀는 勞動者의 量的問題 보다 質的向上을 強調하고 있다. 이는 즉 勞動力의 가장 중요한 誘引(Incentive) 構造의 缺如와 더불어 초래되는 非能率性때문에 北韓 經濟 전반에 걸쳐 큰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1967년에 完了될 豫定이었던 7개년 經濟計劃은 3년이 연장된 1970년에야 겨우 公式的으로나마 完了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工業成長率은 년 3% 내지 3.5% 이상을 넘지 못하여 인구 成長率이 2.5%인데 비해 農業增產率은 년 1% 밖에 되지않아 北傀는 食糧難을 비롯한 극심한 經濟不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러한 經濟不進이 住民의 日常生活을 危殆하면서 生活必需品의 不足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1970년도에도 國民總生産量(G. N. P.)의 약 35%를 國防費에 充當하여 住民의 生活을 塗炭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韓國에서는 년 經濟 成長率이 10%를 上廻하고 있으며 重工業, 輕工業 및 生必需品등 工業의 모든 면에서 均等한 發展을 이루고 있으며 조만간 北傀를 壓到할 수 있는 經濟的 絕對 優位의 地位를 確保하게 될 것이다.

北傀의 두번째로 큰 問題는 소위 “金日成 思想”의 虛構性이다. 金日成은 전후 繼續되는 住民들의 強制勞動과 犠牲을 合理化시키는 方法의 하나로 “金日成 唯一 思想”이란 것을 捏造하여 住民들의 思想教育을 시켜 왔던 것이다. 이 “金日成 唯一 思想”은 또한 支配層간에 金日成의 權力을 絕對化시키기 위한 金日成 個人崇拜 思想의 도구로도 이용되어, 오늘날 金日成의 神格化 運動의 騎手의 役割을 擔當하였다. 이러한 金日成 一黨의 教條的이고 交組의인 理論은 住民들의 盲目的 追從을 強要하고 있으나 그 虛構性을 隱蔽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있는 實情이다.

세째로, 北傀의 強硬一邊倒 路線과 急變 하고 있는 世界情勢를 들 수 있겠다. 北傀의 對外關係를 論하기 전에 于先 金日成 일파가 恒常 主張하는 “思想에 있어서의 主體性”이라는 것과 이와 關聯하여 金日成이 부르짖고 있는 民族主義에 관하여 簡單하게 論할 필요가 있다. 金日成이 말하고 있는 所謂 “主體性”이란 單語는 1955年頃부터 그의 演說에서 자주 나타나기 始作하였는데, 當時 蘇聯을 盲目的으로 追從하는 朴昌玉 일파를 맞대어 놓고 말하면서 間接的으로는 蘇聯의 絕對的 影響圈에서 부터의 離脫을 暗示하고 있다. 이와 併行하여 金日成은 「民族自主·民族自決」의 原則을 내세우면서 僞裝 平和統一 攻勢를 취하여 왔다. 表面的으로는 「民族」을 되찾고 「民族文化」를 崇仰하며 「民族的 矜持」를 살리면서 「大國主義」를 止揚하면 蘇聯과 中共으로부터의 自主的 路線을 捉囑하여 왔다. 그러나 그 實際面에 있어서는 1955年頃부터의 蘇聯으로부터의 獨立은 中共으로의 接近으로 代置된데 不過하고 眞正한 意味에서 中共이나 蘇聯으로부터의 同時的 政治的 獨立을 意味하는 것은 결코 아

니었다. 根本적으로 「마르크스」의 共產主義 思想이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이고 民族主義(nationalism)과는 本質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不常用的의 關係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初步的 共產主義者도 알고 있는 事實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韓國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對南 平和攻勢의 攻擊武器로서의 役割 以上の 것은 되지 못하며, 北傀 自身들의 對外政策 면에서 볼 때 中國과 蘇聯의 紛爭에서 自身들의 保護策에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金日成은 以上 말한 「民族主義」 혹은 「主體思想」을 標榜하여 中·蘇의 理念分爭에서 自活의 길을 摸索하려 하였으나, 北傀의 對資本主義 社會에 關한 國際觀은 強硬一邊倒의 것이었다. 特히 美國과 南韓에 대한 政策은 始終一貫 挑發의이며 軍國主義的인 것이었다. 金日成은 “한손에 銃을 들고 다른 한손에 망치와 낫을 들고”라는 口呼를 내걸고 戰爭에 必要한 經濟的 能力을 準備하면서, 全人民을 武裝化 시키고 全國土를 要塞化하여 統一을 爲한 「人民戰爭」을 遂行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北傀의 對南 基本戰略은 大略 다음 3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北韓을 韓國 赤化를 爲한 基地로서 建設하는데 注力을 둔다. ② 韓國赤化를 爲한 補助勢力으로 韓國에 地下勢力을 構築한다. ③ 이와같이 해서 決定的 時期가 到來하면 南北勢力을 總糾合하여 「赤化革命」을 이룩한다.

以上과 같은 세가지 基本戰略을 遂行하기 위한 當面課題로서 北傀는 所謂 「四大 軍事路線」을 完了함으로써 南浸準備을 끝내고 한편 南韓에 武裝共匪를 南派하여 後方을 攪亂시키고 間諜網을 擴張하는 등, 積極的인 對南 工作事業을 組織的으로 遂行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北傀의 後援國인 中共이 유엔에 加入하고 美國과 對話를 나눔으로서 極東 및 世界의 冷戰狀態에 해빙 「무드」를 불어 넣고 있으며 蘇聯은 미·中共의 接近을 妨害하는 한편, 美國과 戰略 武器制限協定問題, 伯林問題 및 中東問題 등에 걸쳐 從前에 비쳐 協助的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急變하는 國際政勢속에서 金日成이 過然 어떠한 態度를 取할 것이며, 萬若 그의 強硬路線을 拋棄 乃至는 일부 修正을 加할 境遇 이러한 修正을 如何히 國民들에게 說得할 것이며, 이러한 變化가 또한 北傀集團의 權力鬭爭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는 金日成에게 안겨진 크나 큰 課題일 것이다.

내제로, 北傀의 權力鬭爭과 金日成의 後繼者 問題가 深刻한 黨內問題로 擡頭되고 있다. 前章에서 말한바와 같이 共產 全體主義 體制下에서는 指導者의 選出은 오직 現存하고 있는 絕對 權力者의 指名의 形式을 取하던지, 或은 權力의 核心에 있는 人物間의 權力鬭爭으로 決定되고 여기서 敗北한 者는 의례히 肅清되는 過程을 밟던지 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다. 그러나 絕對權力者가 生存時 指名한다는 것도 危險한 것으로 中共의 劉少奇의 沒落과 林彪의 肅清이 이를 證明하여 주고 있다. 또한 共產主義 政權鬭爭에는 반드시 名分論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理論論爭인 것이다. 北傀의 경우, 金日成이 南勞黨 以後 모든 海外派들을 肅清할 境遇, 大概是 理念論爭을 展開하여 그들의 肅清을 合理化 시켰었다. 金日成은 6.25 動亂에서 無慘히 敗北한 後, 그 責任을 朴憲永 一派의 南勞黨系 列에게 間諜罪日을 뒤집어 씌워 肅清하여 버린후, 한동안 自身의 偶像化 運動을 抑制한 幾微가 보였으나 곧 親蘇 二世派와 延安派를 肅清하기에 이르렀다. 當時 所謂 「反教條主義」 「反修正主義」 「反

大國主義「反事大主義」를 爲한 鬭爭을 벌렸는데, 이는 곧 金日成의 一人 獨裁體制를 構築하고 反對勢力을 肅清하기 爲한 國內的 必要에 依하여 생긴 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이 一人獨裁를 爲한 手法이 加熱하였던가는 오랫동안 自己派 勢力으로 알려졌고 北韓共產政權內에서 가장 忠誠心이 두터웠던 「甲山派」마저도 1969年 4月을 期해 肅清하고 말았다는 事實로서 證明된다. 現在에는 金日成의 一人獨裁體制가 鞏固히 構築되어 表面的 平穩을 維持하고 있으나 金日成 個人的 影響力이 크면 클수록 그의 有故時 北傀의 混亂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期待할 수 있는 것은 北傀內의 自由化運動이다. 1971年 「社勞靑」總會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北傀는 所謂 頹廢風潮 一掃를 爲한 鬭爭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蘇聯과 東歐를 通하여 흘러 들어 오는 西歐文明의 斷片의 紹介와 在日僑胞의 北送을 通하여 紹介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느 共產國家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閉鎖性을 堅持해 오고 있음이 事實이다. 그러나 北送在日僑胞를 通한 西歐社會의 紹介와 發達된 交通手段과 通信으로 窮極에 가서는 只今の 閉鎖狀態는 무너지고 말 것이며, 그러한 境遇 北韓社會의 混亂은 견잡을 수 없게 될 可能性이 많다.

이러한 여러가지 脆弱點을 內包하고 있는 北韓에서 金日成은 앞으로 어떠한 對南政策을 取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北傀가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對外的으로는 平和統一 攻勢를 強化하고 「決定的인 時期」가 到來하면 「人民戰爭」或은 「統一戰爭」도 불사한다는 것이 그들의 基本戰略임은 從前에 記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國際情勢는 分明히 解氷 무드로 흘러가고 있고 北韓의 內部的 矛盾은 언젠가 爆發點에 達할 것이라는 展望에서, 金日成은 그간의 戰爭準備의 老朽화와 訓練된 兵力의 排出口 問題를 안고 苦惱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國際情勢의 好戰과 解氷무드를 타고 韓半島에도 緊張이 풀릴 것이라는 希望的 見解와는 달리, 오히려 金日成의 南韓赤化野慾을 더욱 捉進시키는 結果를 超來할 可能性마저 있는 것이다. 즉 金日成이 그동안 바라고 있는 「革命의 成熟期」或은 「決定的 時期」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國際情勢나 國內的 與件이 時間이 흐름에 따라 그들에게 不利하여 지고, 또 그들이 그간에 많은 投資를 하여 準備한 飛行機가 重火力 兵器들이 老朽化되는 點等を 勘察하여 오히려 南韓侵攻을 앞당겨 遂行할 可能性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全面 南侵攻擊은 하여오지 못하더라도 1, 21事態때의 武裝共匪와 같은 特殊教育을 받은 數萬名의 「게릴라」들을 南韓으로 増派시켜 後方攪亂을 피하고, 나아가서는 民衆爆動을 惹起시킬 陰謀를 劃策하고 있음은 이미 暴露된 事實이다.

이와 같이 國際情勢는 分明히 解氷무드에 接하여 緊張緩和로 흐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國內적으로는 1950年代의 思考方式을 유지하고 있는 金日成 集團과 對峙하고 있는데, 우리 韓國政府의 苦衷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50年代의 緊張要因에 對備하여 나아가면서 緊張緩和의 國際的 潮流에 有效하게 適應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目標이 있는 것이다.

韓國政府는 1954年 「제네바」會談 以來 두가지 큰 原則을 韓國의 公式的 統一政策으로 採擇, 이를 發展시켜 왔다. 첫째, 韓半島의 再統一은 반드시 平和的 手段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南

北韓의 全國民의 自由意思의 正確한 反映을 保障할 수 있는 「유엔」의 監視下의 南北韓 人口比例에 依한 總選舉를 實施할 것을 要求하여 왔다. 北傀가 1948年 以來 오늘 날까지 「유엔」의 權威權能을 認定하지 않고 韓國側 主張을 正面으로 拒否하면서 駐韓 美軍의 撤收를 前提로 南北協商에 依한 「自主統一」을 主張하고 있다. 韓國이 分斷 自體가 強大國에 依하여 이루어 졌으며 韓國의 再統一 역시 國際政治의 테두리를 完全히 벗어 날 수 없다는 事實을 他們 自信이 더 잘 알면서도 傀儡은 「自主的 協商統一論」이라는 美名下에 非現實的 統一論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의 底意에는 駐韓 「유엔」軍의 撤收時 힘의 空白이 生길때, 이미 侵攻準備을 完了한 軍事力으로 前面 南侵을 敢行 하거나 或은 「人民革命」을 通하여 大韓民國 政府를 內部的으로 顛覆하려는 計劃이 있다는 것은 公知의 事實인 것이다.

이러한 交錯狀態를 打開하기 爲하여 1970年 8, 15 慶祝日에 즈음하여 朴正熙 大統領은 統一問題를 「유엔」의 決議와 北傀의 受諾 時期만을 기다리는 從來의 姿勢에서 進一步하여 「유엔」의 모든 決議를 土臺로 우리 스스로가 統一에 必要한 條件을 自主·能動的으로 造成하여 나아갈 것을 闡明한 바 있다. 또한 1971年 8月 21日 大韓赤十字社가 人道主義의 見地에서 南北韓 離散家族찾기 運動을 北傀 赤十字社에 提案하였을 때, 政府가 이를 積極 歡迎하고 南北赤十字會談을 成功시키기 爲해 모든 必要한 支援을 約束한 것도 우리가 主體的으로 統一을 하기 爲한 基盤造成에 힘쓰고 있는 事實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에 反하여 北傀는 赤十字會談이 始作된 후 40餘日 사이에 무려 167名의 武裝間諜을 南派한 事實은 他們的 「自主的 協商統一」을 反覆하는 他們的 主張의 虛偽性을 如實히 나타내 고 있는 것이다.

北傀의 이러한 政策에 對備하여야 하는 우리의 戰略은 무엇보다도 國際潮流에 順應하여가는 가운데 北傀의 挑發을 凌駕할 수 있는 우리의 姿勢와 國力培養이어야 한다. 大韓民國이 具體的인 役量 比較에서 北傀를 凌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방 「무드」에 接한 國際政勢도 우리에게 有利하게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國內的으로는 北傀를 凌駕할 수 있는 國力培養에 總力を 傾注하는 한편, 北傀에 對하여서는 可能한 限 從來의 徹底한 封鎖政策을 漸進的으로 止揚하면서 北傀密 封體制的 開放化와 自由化로 北傀의 體質의 變質을 誘導할 수 있는 政策에 力點을 두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方仁厚, 北韓「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고대아연, 1967.
- (2)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고대아연, 1967.
- (3) 한국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國際聯合韓國統一委員團報告書, 1949—1953, 국회도서관, 1965.
- (4) 韓國共產主義運動研究와 그 批判, 三省出版社, 1969.
- (5)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戰史編纂委員會, 1967.
- (6) 스칼라피노, 로버트 A. 韓國共產主義運動의 起源, 韓國연구도서관, 1961.
- (7) 문공부, 北韓要覽, 문공부, 1968.
- (8) 徐南源, 北韓의 經濟政策과 生産管理,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6.
- (9) 金幸一, 惡夢 595日(62차 北送僑胞의 脫出記), 寶晉齋, 1968.
- (10) 蘇貞子, わたしが叛逆者か?, 邦亞文化社 1968.
- (11) 韓載德, 씨의 流刑地, 한국반공연맹, 1967.
- (12)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内外文化社, 1965.
- (13) 全斗烈,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崩壞, 新文化社, 1968.

- (14) 崔錫, 한국統一問題에 對한 模索, 新文化社, 1967.
- (15) 서울大商科大學, 經濟問題研究所, 經濟發展과 經濟計劃, 서울大出版部, 1964.
- (16) 評價教授, 韓國經濟發展의 理論과 實際(Ⅱ), 內閣企劃調整室, 1968.
- (17) 韓載德, 金日成과 北傀의 實相, 共產黨問題研究所, 1969.
- (18) 李文永, 北韓行政權力의 變質要因에 關한 研究, 1969.
- (19) 共產主義問題研究所, 統一에 對備한 社會의 諸問題, 共產主義問題研究所, 1969.
- (20) 國土統一院, 북한 관계 자료집, 1970.
- (21) 국방대학원, 安保問題시리즈, (1-4), 국방대학원, 1967.
- (22) 임중문, 심현, 공산주의 100문 100답, 삼일각, 1969.
- (23) 國土統一院 北韓關係資料集, 1970.
- (24) 田中直吉, 美國의 台灣政策, 鹿島研究所出版會, 1968.
- (25) 李範俊, 말라야 共產제 밀라戰研究, 高大出版部, 1968.
- (26) 文公部,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문화공보부, 1969.
- (27) ฟูイファイルト, H. R., アメリカの東南アジア政策, ダイヤモンド社, 1969.
- (28) 岡倉古志郎, アメリカの世界政策, ダイヤモンド社, 1969.
- (29) 國際弘報社, 心理戰, 國際弘報社, 1970.
- (30) 防衛研修所, SEATO とアジアの安全保障, 防衛研修所, 1966.
- (31) Aron Raymond,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66.
- (32) Dallin, David J. The Changing World of Soviet Rus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6.
- (33) Dallin Alexander, Diversity in International Commun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 (34) Dallin, David J.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 1961.
- (35) G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65.
- (36) Fitzgerdd, C.P. Revolution in China, H.Y.: Praeger, 1952.
- (37) Friedrich, Carl, J. Totalitarianism, New York: The university library, 1964.
- (38) Graebner, Norman A. Cold uar Diplomacy: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Princeton, N.J.: vannestrand Co., 1962.
- (39) Hobson J.A., Imperialism, New York: Macmillan Co. 1938.
- (40) Kennan George F. Realiti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
- (41) Jacobs, Dan N. The New Communism, New York: Euanston, and London, 1969.
- (42) Kissinger, Henry, The Troubled Partnership: A Reappraisal of the Atlantic Allian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5.
- (43) Palmer, Norman D. & Homard C. Perkins.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 New York: Norghton Mifflin Co. 1969.
- (44) Pipes R. The Formation of the Soviet Vn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45) Rubinstein, Alvin Z. The Soviet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hanging Policy toward Developing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46) 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47) Seton-Watson, Hugh, The Pattern of Communist Revolution, A Historical Analysis, London, 1953.
- (48) Spanier, John W. American Fareign Policy since World War 2d ed., New York: Praeger, 1965.
- (49) Stranz Hupe, Robert et al A Farward Strategy for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61. The Idea of Colonialism, New York: Praeger, 1958.
- (50) Lenin, V.I., State and Revolution Lenin, V.I., Imperialism: A. Higher Phase of Capitalism.
- (51) Mary, Karl and Engels, Frieclrich, Communist Manifesto.

IX. 統一을 위한 使命

第 1 章 韓國分斷과 統一의 要請

1. 韓國의 分斷
2. 統一의 要請

第 2 章 우리의 統一政策과 使命

1. 統一을 위한 우리의 努力
2. 統一을 위한 基本原則
3. 統一의 與件
4. 우리의 使命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is a complex and multifaceted story that spans centuries. It begins with the early Native American civilizations, such as the Mayans, Aztecs, and Incas, who built sophisticated societies in the Americas. The arrival of European explorers, including Christopher Columbus and John Cabot,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discovery and colonization.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as a nation in 1776, and its early years were characterized by a struggle for independence from British rule. The American Revolution (1775-1783) was a pivotal moment in the nation's history, leading to the sign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States as a sovereign state.

The early years of the United States were marked by westward expansion and the search for new lands. The Louisiana Purchase of 1803, which doubled the size of the nation, was a significant event in this process. The discovery of gold in California in 1848 led to the California Gold Rush, which attracted thousands of people to the West. The American Civil War (1861-1865) was a defining moment in the nation's history, fought over the issue of slavery. The war resulted in the abolition of slavery and the preservation of the Union. The Reconstruction era (1865-1877) followed, during which the nation sought to rebuild and integrate the newly freed African Americans into the social and political fabric of the country.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ere characterized by industrialization and the rise of big business. The Gilded Age, as it is known, was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it was also a time of social inequality and corruption. The Progressive Era (1890s-1920s) was a period of reform and social change, during which many of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the Gilded Age were addressed.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a world power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s role in World War I (1914-1918) and World War II (1939-1945) was pivotal in shaping the modern world.

The mid-20th century was a period of significant social and cultural change. The Civil Rights Movement (1950s-1960s) was a struggle for equality and justice for African Americans, led by figures such as Martin Luther King Jr. The Vietnam War (1955-1975) was a controversial conflict that led to a reevaluation of the nation's role in the world. The 1960s and 1970s were also marked by the counterculture movement and the ris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expand its global influence, and its role in the Cold War (1947-1991) was a defining feature of the era.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ies have been characterized by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globalization. The United States has remained a major world power, and its role in the world has evolved. The 9/11 attacks (2001) were a defining event in the early 21st century, leading to a new era of security and surveillance. The United States has continued to face challenges, such as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ongoing debate over climate change.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remains uncertain, but its history is a testament to the resilience and ingenuity of its people.

第1章 韓國分斷과 統一의 要請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悲劇的인 南北의 分斷이 하루 速히 解決되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國內外의 情勢變化에 따라 統一에의 要請이 오늘처럼 現實的인 意義를 가지고 생생하게 느껴진 때도 없었던 것 같다. 國土統一의 大課業을 具體的으로 遂行해 나가야 할 오늘 그리고 單一民族으로서의 文化傳統을 基盤으로 하는 民主的 統一을 위한 具體的 努力을 傾注해야 할 此際에,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休戰線을 마치 國境線인 양 알고 있고 北韓에 있는 同胞를 外國人과 같이 여기는 疏遠感을 느끼고 있음은, 우리의 宿願인 統一의 길을 오히려 멀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章에서는 우리의 統一國家로서의 歷史的 特性을 살펴보고, 또한 祖國分斷의 背景的 狀況을 아울러 考察해 봄으로써, 우리의 統一要請은 必要不可缺한 條件에서 우리나라의 實情을 分明히 하는데 그 強調點을 두고 있다.

新羅統一 以後 分斷된 일이 없었던 우리 民族은 國際舞臺에 나서게 된 19世紀 末頃 日本, 淸나라 그리고 「러시아」 勢力의 角逐場으로 利用되면서, 우리 나라는 分斷의 危脅을 繼續 받아 왔다. 그리하여 民族의 끈질긴 努力에도 不拘하고 日本에게 나라의 主導權을 빼앗겼지만, 主權回復을 위한 우리 民族의 抵抗은 熾烈하여, 마침내 8.15解放을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련의 極東 進出의 野心이 人爲的인 38線을 만들기까지 이르렀고, 北韓땅에는 傀儡政權이 서게 되면서, 우리는 國土의 兩斷이란 不幸을 避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제 國土兩斷後 4半世紀라는 긴 歲月이 흘렀다. 그 동안 6.25 南侵에 의한 不幸스런 同族相殘의 戰禍를 겪었고, 4.19와 5.16의 兩大 革命을 거쳐 이제야 大韓民國은 中進國의 先頭를 向해 힘찬 발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主體的 力量이 커져가고 있고, 國際政治構造의 變化는 分斷된 國家의 平和的 統一의 可能性을 한결 짙게 하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는 平和的 統一課業을 遂行함에 必要한 國民的 總和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狀況속에 있다. 이와 같은 國民的 總和는 韓國分斷에 關聯된 諸般 事實, 다시 말하면 歷史的, 國際政治的 事實 等에 대한 正確한 理解와 또한 그 不當性을 指摘하는 날카로운 批判에서 나타나야 하며, 不幸한 分斷의 障壁을 깨뜨리고 民族의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切實한 統一에의 熱望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章은 韓國分斷에 關聯된 歷史的, 政治的 事實과 主要 概念, 民主主義를 根幹으로 하는 平和的 統一의 必要 및 그 深刻性을 提示하고 論議하는데 重點을 둔다.

1. 韓國의 分斷

가. 民族統一體로서의 韓國

우리는 우리의 나라 韓國을 생각할 때, 韓國이라는 國土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한 民族이

라는 배달겨베로서의 韓國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 自身은 勿論이고 낯설은 外國人들까지도 韓國은 單一民族이 이루어 놓은 國家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長久한 歷史를 이어오면서 하나의 民族이라는 單一體로 살아왔다.

〈國語大辭典〉을 보면 民族이란 “같은 地域에 살고, 같은 말을 하며, 生活樣式, 心理的 習慣, 文化, 歷史 등을 같이하는 人間 集團”¹⁾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半萬年이란 歲月을 韓半島라는 같은 地域에 살아왔으며, 같은 言語를 使用하고, 生活樣式이나 文化를 歷史的으로 同一하게 繼承 維持해오고 있다. 鴨綠, 豆滿江을 건너서면 거기에는 言語 生活風俗이 전혀 다른 民族이 살고 있으나 韓半島에는 우리 韓民族 外에 다른 種族이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 民族으로서의 韓國은 아득한 옛적부터 民族의 純粹性を 지켜, 統一體를 이어 오려고 줄기찬 努力을 했던 것이다. 漢四郡이 우리 땅에 設置되었을 때는, 온 民族이 이를 몰아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듯 강력한 漢四郡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말았으며²⁾ 高句麗, 新羅, 百濟의 3國이 鼎立해 있을 때에도 新羅가 倭賊의 侵入을 받으면 高句麗, 百濟는 援兵을 보내서 이를 물리쳤다. 그 當時 3國의 鼎立은 뚜렷한 事實이었음에도 오히려 民族은 세 나라가 다 同一하다는 意識을 지녔으며 新羅는 唐의 힘을 빌어 3國을 統一했으나, 마침내는 唐의 勢力을 몰아내고 異質性이 없는 純粹한 民族의 統一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³⁾ 高句麗, 新羅, 百濟의 3國은 言語, 生活風俗이 같은 同一民族이라는 點이 新羅의 統一을 돕는 要素가 되었으며, 統一 後에도 굳센 한 나라로 뭉치는데 容易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新羅의 統一은 滿洲벌판의 高句麗의 옛 땅을 잃는 結果가 되었고, 잃어버린 옛 땅을 回復하려는 意慾으로 일어난 高麗는, 高句麗의 國土收復을 國是로 삼기에 이르렀다.

新羅가 千年의 社稷을 高麗에게 넘겨 준 것⁴⁾도, 結局 民族同一體 意識에서였으며 만일 高麗와 新羅가 各己 다른 民族이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高麗時代를 總括해서 高麗의 政治理念은 統一事業이었고, 高句麗의 領土를 回復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北쪽의 頻頻한 異民族의 侵入을 오랑케라 稱하여 이를 몰아내기에 힘썼다.

高麗의 仁宗은 學者이며 政治家인 金賦式에게 命하여 民族史로서의 〈國史〉를 編纂하게 하였고, 金賦式의 〈三國史記〉에 의하여 高句麗나 新羅, 百濟는 高麗 以前의 王朝로서 한 民族이 이루어진 나라임을 證明하고 있으며, 〈三國史記〉를 編纂케 한 仁宗의 뜻 역시 中國의 歷史보다 우리의 歷史를 알게 하려는 民族意識에 있었던 것이다.⁵⁾

朝鮮時代 亦是 北으로는 오랑케를 몰아내고 南으로는 倭寇를 물리치면서 그렇게 來往이 頻頻했던 中國의 文化나, 南으로 日本의 것과는 같지 않은 民族文化의 形成에 힘써 왔던 것이다. 16世紀에서

1) 李熙昇 編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館, 1966.) P. 1082.

2) 韓愚根, 韓國統史. (서울: 乙酉文化社, 1970.) PP. 51-60.

3) 韓愚根, 前揭書. PP. 88-91.

4) 李秉燾, 韓國史大觀. (서울: 普門閣: 1969.) PP. 150-160.

5) 李秉燾, 前揭書. PP. 158-190.

17世紀初에 걸쳐 일어난 倭亂과 胡亂에서 온 民族의 合心 努力으로 이를 물리쳤고 19世紀에 와서 西歐의 물결이 번져들 때, 大院君의 鎖國政策은 우리 民族에게 損失을 가져오는 結果가 되었지만, 그 根本意圖는 民族文化의 純粹性을 지키려는 思想이었다고 본다.

1910年 日帝에 抗拒하여 일으킨 3.1運動, 그 後의 6.10단체 等 國內外에서의 수없이 많았던 우리 民族의 獨立鬪爭은, 民族統一體로서의 自身을 되찾으려는 鬪爭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줄기찬 努力으로 기나 긴 歷史에서 民族統一體를 지켜 온 우리는 1945年 日帝의 降伏으로 祖國을 되찾게 된 後 붉은 마수에 의하여 民族의 分裂을 招來하기에 이른 것이다.

歷史上 한 때는 列強을 호령하며 君臨하던 強國이, 수십 갈래로 갈라진 民族自體의 分裂로 結果되었음에도, 우리는 언제나 民族의 統一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제 韓國은 그 歷史의인 證明으로 보나 文化傳統의 證據로 보나 南北의 分裂은 도저히 容納될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는 것은 自然法則을 거스린 結果가 되는 것이다.

民族은 民族共同體로서의 運命을 같이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統一體로서의 民族의 再結合을 이루어야만 하는 課題를 앞에 두고 있다.

나. 不幸한 國土分斷

1300餘年前에 新羅가 三國統一을 成就한 以來, 우리 나라는 비록 素朴한 傳統의 形態이기는 했으나 民族統一體로서 今世紀 初에까지 繼續되어 왔다. 이렇듯 民族統一體로서의 오랜 歷史를 維持해오는 過程에서 國內 國外로부터의 許多한 危脅과 試鍊이 있었지만 그러한 試鍊이 우리 民族의 統一에로의 熱望을 屈服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統一을 위한 우리 民族의 그같은 執拗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第2次大戰 終戰을 前後한 冷酷한 國際權力, 政治上的 失手로 인해서 不幸한 國土의 分斷이 強要되고 만 것이다.

韓半島의 分斷은 썩 오랜동안의 國際權力 政治의 背景을 갖고있다. 여기서는 韓國分斷의 歷史的 時代의 背景과 分斷의 經緯 및 問題의 本質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冷酷한 歷史的 事實앞에 統一을 위한 우리의 使命을 再闡明하는 根據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1895年 日本의 「미우라」는 日本과 「러시아」의 國交調整을 위하여, 우리 民族의 意思를 無視한 채, 우리 國土를 日本과 蘇聯이 各己 分割하여 管理할 것을 提議했고, 다시 日露戰 直前인 1904년에는 「러시아」가 分割 管理하자고 日本에 提議하였다.⁶⁾ 이러한 지난 날의 分斷陰謀는, 38度線 또는 39度線을 中心으로 南과 北에서 各己 分斷 占有하자는 것으로서, 38度線 以北에 대한 「러시아」의 野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싹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러시아」의 不凍港政策이었다. 當時의 西方列強은 「아프리카」, 東南「아시아」에서 植民地를 經營함으로써 많은 物資를 거두어 들이는 時代였으나, 外國의 政勢에 어두웠던 韓國은 그 地政學의 위치 때문에 大陸勢力의 東進 또는 南進을 위한 발판이 되어 왔고 海洋勢力의 北進을 위해서는 橋梁의 役割을 堪當하지 않을 수 없어, 주위 列強들의 利害關係를 中心한 國際情勢의 角逐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은 西洋의 文化를 急速

6) 國民倫理教育研究會 編, 勝共論. (서울: 良門閣 1971), PP. 539-546.

度로 導入하여 남·먼저 近代化를 이룩하고 나서 朝鮮을 政治的으로 支配함으로써 經濟侵略의 발판으로 삼고자 1894年 淸나라와 淸·日戰爭⁷⁾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日本은 朝鮮이라는 工業製品의 消費市場에 日用雜品인 실, 바늘, 성냥 등에 이르기까지 浸透시켰고, 農村經濟까지 麻痺시켰다. 이런 狀況에 對處하기 위해, 朝鮮은 淸나라와 交易하여 두 나라 間에 貿易關係가 盛行해지자, 日本은 自己의 市場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淸과의 戰爭을 惹起한 것이다. 이 戰爭은 日本의 勝利로 돌아가고 下關係約⁸⁾으로 朝鮮을 自主獨立國家로 確認한다는 것을 第1條로 했다. 그러나 結果는 朝鮮에 대한 日本의 干涉을 許容하는 情勢로 변했다.

그後 約 10餘年間 日本은 더 심한 經濟的, 政治的 侵略을 恣行하여, 甲午更張과 같은 近代化作業에까지 作用하였고, 乙未年에는 閔妃 殺害事件⁹⁾을 일으켰다. 이에 온 國民은 獨立協會의 自主精神에 呼應하였고, 日本의 侵入에서 벗어나려는 政府는 「러시아」와 急速度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1904년에 日本과 「러시아」가 滿洲에서 일으킨 露日戰爭¹⁰⁾은, 日本과 「러시아」의 勢力權을 決定하는 決定的인 戰爭이었다. 日本은 國家의 興亡을 여기에 걸었으나, 「러시아」의 目的은 韓半島에 그 勢力을 扶植하려는 것이었으며, 「러시아」의 國內事情에 의해 勝利는 日本에게로 돌아갔다. 英國, 美國에서 支援을 얻은 日本은 外交的으로도 實効를 거두어, 韓國에 대한 支配權을 더욱 強化시켰다. 1905年 戰爭이 끝날 무렵에서 부터 舊韓國政府는 日本에게 鐵道, 通信網, 軍隊輸送路를 許容하고, 日本人 政治顧問을 招聘하는 등 一方的인 外交關係로 나가더니, 1905年 乙巳保護條約¹¹⁾에는 保護라는 이름으로, 外交權을 強奪하고, 外交關係는 日本 外務省이 專擔하고 韓國에 統監府를 設置한다는 決定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日本의 植民化된 韓國은, 第2次 世界大戰이 聯合國의 勝利로 끝나면서, 日本 帝國主義로부터 解放되어 獨立을 되찾게 되었으나, 이것은 自力에 의해서가 아니요, 戰勝聯合國에 의하여, 他律的으로 이루어진 國際政治上的 副產物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滿足을 줄 수 있는 것은 못되고 결국 南北韓 分斷이라는 受難을 겪게 되었다.

韓國 地位에 關한 問題는, 第2次 世界大戰의 勃發과 더불어 再論되었었고, 韓國의 獨立은 大戰中이었던 1943년에 美, 英, 中이 共同으로 發表한 「카이로 宣言」에서 「韓國人の 奴隸의 狀態에 留意하여」 韓國을 適當한 時期에 獨立시키겠다는 決議를 國際的으로 公約하였다.¹²⁾ 이 公約은 1945年 「포츠담」 宣言¹³⁾에서 再確認 되었었고, 소련도 同年 8月 8日 對日 宣戰布告를 契機로 하여, 韓國의 解放과 獨立에 대하여, 이 公約에 參與할 것을 宣言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2월에 美, 蘇, 英 3大國이 「알타」에서 會議¹⁴⁾을 열고 蘇聯의 對日參戰과 前

7) 이병도, 前揭書 PP. 508—546.

8) 이기백, 韓國使臣論, (서울: 一潮閣, 1966), P. 129.

9) 한우근, 前揭書, P. 488.

10) 한우근, 韓國通史, PP. 511—528.

11) 한우근, 前揭書, PP. 470—487.

12) 백행걸,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 (서울: 大韓公論社, 1963.), PP. 81—84.

13) 백행걸, 前揭書, P. 82.

14) 國民倫理教育研究委員會, 前揭書, PP. 539—546.

後 處理에 關하여 協議한 바, 當時 日本과 不可侵條約을 맺고있던 蘇聯은 이 會議에서 韓國을 包含한 極東에 있어서의 舊領土 勢力範圍 및 諸 利權의 回復을 確約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때 부터의 傳統的인 南進政策의 뜻을 굳혀왔으며, 이로 因하여 우리 國土가 兩斷되는 原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證據로서는 蘇聯이 前後 日本으로 부터 옛 領土였던 華太와 午島列島를 返還받은 것을 볼 때 「러시아」가 韓半島에서 最大限의 勢力을 떨쳤던 때가 舊韓國 末葉으로, 蘇聯과 日本이 暫時나마 勢力의 均衡을 위해, 38線을 境界로 그 勢力均衡線을 정했던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蘇聯은 이 會議에서 38線을 主張했던 것이다. 大戰의 早期終結을 願하는 美國의 意圖를 事전에 알고서 大韓帝國時代로 부터의 對韓國 南進政策을 目標로하는 蘇聯의 傳統的 對極東政策 具現에 뜻을 두고 參戰한 蘇聯은 38線을 固執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어느 한 強大國에 의한 主導權은 許容될 수 없다는 態度를 가진 聯合國의 利害關係와 結付되어, 우리 民族의 運命은 다시금 列強의 國際權力政治의 犧牲物이 되었다.

美, 英, 中, 蘇 네 나라는 2次大戰 末에 韓國 獨立에 關하여 原則上의 合議는 보고 있었으나, 韓國國內에 駐屯중인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 위한 순전히 軍事上의 必要에 따라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하여, 그 以南은 美軍이, 以北은 蘇聯軍이 進駐하여, 各己 日本軍의 降伏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措置는, 같은해 9月 2日¹⁵⁾ 太平洋 聯合軍 最高司令官인 「맥아더」將軍이 發表한 「一般命令 第1號」¹⁶⁾로써 確認되었다. 이리하여 그해 8月 12日 蘇聯의 韓半島 進駐에 뒤를 이어, 9月 8日에 美軍이 韓國에 進駐하여, 38線 以北과 以南에서 美軍과 蘇聯軍이 各己 日本軍의 降伏을 받고 武裝을 解除하게 되었으나, 蘇聯軍 司令官은 이 降伏線을 利用하여 南韓과 北韓의 經濟交流과 行政의 關係를 끊어버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暫定的으로 軍事上의 目的을 위한 38度線이 우리 國土를 分斷하는 政治的 分割線으로 化해 버렸다.

38線을 分界로 한 美, 蘇 兩軍의 進駐는, 韓半島에 두個의 軍政을 結果하게 했고, 始初부터 軍事的 考慮 以上の 複雜性을 갖게 되어, 마침내 單一民族의 統一을 沮害하는 障壁으로 結果되고 말았다. 美軍司令官은 이와 같은 事態를 是正하기 위해서, 早速한 時日內에 蘇聯軍과의 交渉을 始作했다. 美軍司令官은 蘇聯의 野慾으로 생겨진 38線 中心의 韓國分斷이라는 難關을 美, 蘇 두나라가 解決해야 한다고 報告했다.¹⁷⁾ 이리하여 1945年 12月 21日 「모스크바」協定¹⁸⁾이 마련 되었으며, 이에 依據하여 美·蘇共同會議과 美·蘇共同委員會¹⁹⁾가 서울에서 召集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 蘇 共同委員會는 1946年 10月 16日부터 2月 5日까지, 15차례의 正式會談을 통하여 分劃된 南北韓의 行政 및 經濟의 問題에 대한 政策調整을 論議했고,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

15) 國民倫理教育研究委員會, 前掲書, PP. 541—544.

16) 백행경, 前掲書, PP. 153—159.

17)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1961, P. 4

18) 백행경,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서울: 大韓公論社, 1968), P. 83.

19) The U.S. Department of State, 前掲書, P. 5.

20일부터 1947年 9月 21일까지 두차례에 걸친 會議을 通하여, 韓國 臨時政府 樹立에 關한 節次를 各己 協議하였으나, 本質的인 見解 差異로 決裂되고 말았었다. 美國은 「모스크바」 協定의 信託統治條項에 대한 韓國民의 舉族的인 反對意思를 反映하려 했으나, 蘇聯은 그들이 急히 組織해 놓은 信託統治 贊成 政黨團體에 協議對象을 局限시키려 固執했다.²⁰⁾ 이에 美國은 이러한 狀態에서 韓國問題의 解決이 어려울을 알고, 1947年 8月 26日 再次 「모스크바」 協定 開催를 提議했으나, 蘇聯의 拒否로 挫折되었다. 이로서 美國은 美, 蘇 두나라로서는 韓國問題 協議가 곤란함을 認識하고 1947年 9月 17日 韓國의 獨立에 關한 모든 問題를 「유엔」에 上程, 이의 解決을 위한 새로운 方法을 摸索하려 했으며, 이로서 韓國問題가 「유엔」의 努力과 因緣을 맺는 契機가 되었다. 여기서 부터 「유엔」의 統韓決議에 따라 韓國問題를 解決하려는 美國의 立場과, 戰後處理 問題의 하나로서 「모스크바」 協定에 準하여 韓國問題를 解決하려는 蘇聯側의 立場이 對立되게 된 것이다.

美國의 「마샬」將軍이 韓國問題를 「유엔」本會議에 上程한 것은, 蘇聯과의 妥協이 이미 끝난 것으로 判斷했기 때문이다. “韓民族의 獨立에 關한 緊急하고도 正當한 要求를 그 以上 遲滯시킴을 願치 않음으로…「유엔」 監視下에 南北韓 總選舉를 實施하여, 韓國政府를 樹立하는 同時에, 美·蘇 兩軍의 撤收를 監視하기 위해서, 유엔 韓國臨時委員會團을 設置하자”고 提案하였다. 蘇聯代表는 南北韓 代表를 招請할 것과 美·蘇 兩軍이 同時에 撤收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反對決議案을 提出하였으나 否決되고, 1947年 11月 14日 美國案이 43對 0으로 採擇되었다²⁰⁾.

이 統韓決議案에 따라 「유엔」 韓國臨時委員會團이 設置되었으나, 蘇聯은 豫想했던 대로 이 委員들이 38度線 以北에 入北하는 것을 拒絶했다. 이에 南韓에서는 團長인 印度 代表 「메논」과 협의하여, 이른바 “可能한 地域의 選舉를 實施하자”고 主張하여 「유엔」의 承認을 얻어, 5.10選舉를 치르게 된 것이다. 1948年 8月 15日 드디어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고, 우리 政府는 「유엔」의 決議에 依해서 樹立된 正統政府이며, 韓半島에서 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 「유엔」의 承認을 얻은 것이다.

以北에서는 蘇聯占領軍 司令官이 서둘러 道, 市, 郡의 人民代表者 大會에서 날치기로 支配集團을 組織하여, 蘇聯軍 大尉였던 金成柱를 金日成으로 改名 偽造하여 傀儡政權을 樹立하였다. 行政組織으로 國會議員의 代役을 삼고 黑白選舉로 傀儡政權을 세우는 節次는, 民主主義에 反逆이었다. 6.25 動亂을 挑發하려는 蘇聯의 事前計略이 脚本대로 演出되는 過程이었다. 蘇聯은 即刻적으로 南韓을 侵攻한다면 쉽게 赤化할 수 있으리라는 誤算으로, 重裝備를 갖춘 軍隊를 組織하여 傀儡政權을 세운 지 一年만에 6.25動亂을 挑發하였다. 豫想대로 大韓民國은 軍備가 없었고, 共產軍은 쉽게 首都 서울을 거쳐 南下하였으나, 國際聯合은 合法的인 節次에 따른 우리 政府를 도와, 軍隊를 派遣함으로써 危機를 克服할 수 있었다.

休戰協定과 더불어 南北을 갈라놓은 軍事分界線의 設定으로, 38線에 代置되는 새로운 分斷線이 設置된 後, 오늘까지 그 軍事分界線은 完全히 南·北韓을 갈라 놓는 境界線 役割을 해왔다.

20) 백행걸, 前揭書, P. 83.

20) 백행걸, 前揭書, PP. 86-89.

軍事分界線에 關한 問題는 元來 1951年 7月 10日 開城에서 始作되어 5個月間 論爭을 展開하다가, 同年 11月 27日 30日附 休戰線 妥協으로 一段落되었다. 그러나 休戰協商이 沈滯되어 歲日이 흐름에 따라 “30日 以內로 協商·終結되면, 現 戰線(1951年 7月 27日 區劃線)을 그대로 軍事 分界線으로 한다.”²¹⁾는 30日間 期限附 協定內容은 그 效力을 喪失하고, 後 1953年 7日 9日 休戰協商이 그 終幕을 告하게 되었을 무렵에, 다시 약간의 손질을 더하여 完全히 解決을 보게 된 것이다.

다. 分斷 以後의 大韓民國의 發展

이렇게 하여 우리 民族의 本意에 어긋나게 南·北韓으로 分斷된 以後, 南韓은 南韓대로 戰後 復救 事業에 國民의 總力을 기우렸으며, 나아가서 國家發展課業에 큰 進展을 보아,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그리고 文化的으로 또 政治外交面에서 中進國의 先頭를 바라보는 位置에까지 다달았다. 北傀와의 關係에서도 對話의 길을 模索하는 일에서 부터, 平和的 統一을 爲한 諸般 戰略의 主導權을 쥐고 나갈 수 있을 程度로, 우리의 主體的 能力이 培養되었다는 判斷이 서기 始作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南·北韓으로 우리 國土가 分斷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大韓民國의 發展上을 政治·經濟的인 面, 社會的인 面, 安保의 面, 文化的인 面을 차례로 더듬어 보기로 한다.

먼저 政治的인 面에서, 우리는 民主國家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過程에서 여러가지 힘든 고비를 넘어왔다. 政府樹立後 10年 동안 繼續된 第1共和國 時期에 겪은 여러가지 政治的 鎭痛을 비롯하여 4.19 學生革命과 5.16 軍事革命을 치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차례 政治的 波動을 겪어야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民主憲政의 기틀을 마련하는 오히려 必要했던 經驗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우리의 民主的 政治力量은 繼續 成長할 수 있는 바탕을 잡은 것 같다. 政治的 安定은 經濟發展 및 其他 社會全般의 發展을 爲한 重要한 基盤이 된다.

우리의 經濟는 自由經濟 體制를 維持 發展시키면서 꾸준한 成長을 거듭해 왔다. 特히 過去 10年 間의 經濟成長은 刮目할 만하다. 1,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通하여 지난 10餘年 間 總國民生産 4.5倍, 1人當 國民 所得 2倍, 輸出 21.3倍의 增加라는 高度의 成長을 이루었다. 1969년에는 15.6% 라는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였는데 이것은 1966年의 13.4%보다 2.1%가 높았다. 또한 政府는 70年代의 目標로서 1人當 國民所得 500弗, 輸出規模 50億弗²²⁾로서 中進國 上位圈 進出을 目標함으로써 經濟發展을 通한 近代化에의 執念을 表示하고 있다.

이러한 國民經濟의 成長은 經濟的으로 共產勢力을 凌駕한다는 點에서도 重要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民主的 政治體制에 對한 肯定的인 評價가 된다는 點에서도 또한 重要視 된다.

社會文化的인 面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社會生活의 民主化, 近代化를 向한 努力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 生活樣式의 合理化라는 概念은 우리들의 意識속에 刻깊이 파고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文化·藝術에 있어서는 主體的 文化傳統의 再確認, 鞏固化를 爲해 많은 努力이 傾注되었다.

21) 國土統一院, 國土統一 9. 1971, P.83.

22) 國土統一院, 統一論叢, 1970. 12. 제1권 제2호, P.36.

軍事·外交의인 면에서 볼 때, 60年代 初期까지 繼續되어온 消極的인 外交政策은 대폭 刷新하여, 積極的이고 多變的인 外交政策을 採擇하여 外交活動의 範圍을 擴大하고 急變하는 世界政治 變化에 能動的으로 適應할 수 있는 外交姿勢를 確立하였다. 國防에 있어서는 繼續的인 北傀挑發에 對處할 수 있는 莫強한 軍事力을 保有하게 되었다. 우리의 軍事力은 隣接 友邦國家에 效果的인 軍事的 支援을 할 수 있을 程度로 成長하였다. 이제 우리는 軍裝備의 現代化, 國民의 精神的 武裝化 等 內的 外的인 充實을 爲한 努力으로 이른바 自主國防體制를 더욱 더 確固히 하는 方向에로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러한 國土統一 基盤을 造成하기 爲한 多面的인 努力과 成長에도 不拘하고, 韓國統一의 길은 멀기만 하다. 急變하는 昨今の 世界情勢는 豫測 不可能할 程度로 複雜性을 띠고 있는 바, 70年代에 들어와서 新興 強大國家로서의 日本과 中共의 登場으로 因한 東北「아시아」의 勢力改編 方向은, 韓半島의 國際政治와 勢力均衡의 構造的 內容을 더욱 複雜하게 展開시킴으로서, 韓國의 統一에 對한 새로운 問題들을 追加시키는 印象마저 가져다 주고 있다. 美國과 中共의 接近, 中共의 「유엔」加入이라는 最近 情勢와 더불어, 分斷國 同時 「유엔」加入 等, 所謂 分斷現實化에의 國際政治的 趨勢等으로 볼 때, 우리의 統一의 길은 더욱 더 險難한 것이라는 느낌을 強하게 가지게 하고 있다. 國際權力政治에서 勢力均衡이라는 一般論理를 그대로 適用시킨다면, 分斷國家들을 「유엔」과 같은 國際機構에 連結시켜 둠으로써 分斷 現實을 固定化 乃至는 安定化시키려는 意圖를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強大國들의 國家的 利益追求의 意圖는 더욱 높아져, 理念보다도 國家利益에 沒頭하는 傾向으로 나아가고, 이를 合理化하는 政經分離라는 便利한 概念까지 널리 使用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統一을 爲한 우리의 戰略을 우리가 選擇·決定할 立場에 있으며, 우리의 統一을 우리 民族의 主體的 努力위에 成就할 課業으로 받아들일 段階에 다다른 것이다.

2. 統一의 要請

우리가 勝共統一을 이룩해야겠다는 信念은, 어떻게 統一을 할 것이냐는 方法問題와는 別途의 角度에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世界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韓國의 統一要請에 納得이 갈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음을 認定할 수 있도록, 國際輿論에 呼訴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信念을 굳게하는 理論的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의 統一의 要請은 最少한 네가지 側面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民族團一體로서의 韓國歷史가 너무도 밝히 보여주고 있는 韓國民族의 統一國家 形成 및 保全을 爲한 즐기찬 念願과 決斷이라는 側面에서, 國土統一의 當爲性을 찾게 된다. 둘째는, 現代 民族國家의 概念과 바람직한 國際政治秩序의 角度에서 統一의 要請을 찾을 수 있으며 셋째는,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國家發展의 必要에서 統一이 要請이 強力한 主張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 單一民族主義의 傳統

韓國의 分斷은 우리의 歷史的 傳統으로 보아 도저히 容認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民族은 原來

單一民族으로 構成되어 古代에는 氏族中心의 작은 集團으로 뭉쳐 살아왔고, 氏族들이 모여 部族國家를 形成하고, 다시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으로 古代國家를 形成하여, 서로 競爭적으로 發展해 오다가, 西紀 676年 마침내 新羅가 民族統一을 이룩했던 것이다.

民族에 依한 單一國家成立은 高句麗의 옛 터를 잃은 結果가 되었으나, 統一된 國家로 出發하였다는 데에 뜻있는 過程으로서, 그 때부터 三國의 文化傳統을 이어 받아 單一 國家로서의 모든 體制를 갖추어 나갔다. 그후 高麗·朝鮮時代를 거쳐오면서, 단 한번의 分斷도 없이, 오랜 歷史를 거듭해 왔다. 이는 그 한때 強大한 勢力을 떨쳤던 蒙古나 「아라비아」가 오늘 날에는 산산이 흩어져 한 民族, 한 國家를 이루지 못하는데 比하면 참으로 자랑스런 歷史라 아니할 수 없다.

高麗時代에는 契丹, 女眞, 蒙古의 侵略등 어려운 試鍊을 겪으면서도, 北進 즉 高句麗 領土 回復의 希望을 實現시키려 꾸준히 努力하였고 朝鮮時代에는 倭國이나 淸國의 侵略에도, 國權과 領土를 維持하여 民族의 分裂이나 分斷을 經驗하지 않았었다.

19世紀末에 日本과 「러시아」의 恫정의 對象이 된 때가 있어도, 單一民族이라는 歷史的 事實의 危險은, 分割 占領을 許容치 않았다. 그 한때 日本에게 主權을 잃어, 統治權을 強奪 當하였을 뿐, 民族의 統一性을 喪失하지는 않았다. 日帝에 阿附한 少數의 親日派가 있었다해도 祖國과 同胞에 對한 사랑마저 물랐던 것은 아니었고, 解放後 親日派들에게 지나치게 報復하지 않았던 것도, 同族으로서 理解와 寬容으로 그들의 行動을 容恕하는 同族意識에서였던 것이다.

韓國人の 意思를 全적으로 無視하고, 強大國의 理解關係에 依하여 決定한 37度線은, 「아프리카」 分割이나 「폴란드」 分割 등을 例事로 했던 習性을 가진 強大國의 非人道的인 處事이다. 歷史上에 있었던 強大國의 占領도 政治的 分割이었을 뿐, 文化와 歷史의 單位인 血緣 共同體를 分割하지는 않았는데, 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獨逸, 韓國 그리고 越南 등 民族國家를 分割하는 것을 例事로 삼았다는 데 問題가 있다. 그 中에도 南北韓 單一文化權 形成과 이를 維持해 온 民族統合의 求心力인 言語, 風俗, 人種이 하나로 된 單一民族인 우리는 獨逸과 같이 여러번 分裂의 經驗도 없고, 越南과 같이 여러개의 人種이 모여사는 곳도 아니다.

이렇듯 韓國統一은 歷史的 當爲性이라고 主張할 充分한 根據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平和的인 統一을 爲한 努力을 無로 돌리고,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을 爲해 狂奔하는 北傀의 政治權力 支配者들은 우리의 單一 文化傳統과 民族의 精神遺産에 叛逆하고 歷史를 捏造²³⁾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融合된 民族의 힘으로 統一을 이룩해야 하고 작은 나라의 작은 民族, 그러나 不可分離의 強力한 民族으로서 民族的 統一을 이룩해야 하고, 또 그것은 可能的 것이라는 信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政治的인 側面

韓國統一의 要請은 現代의 國家概念과, 政治秩序의 確立이라는 觀點에서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유럽」의 정치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近代化 乃至는 政治的 近代化 概念은 國家形成 過程과 遊離

23) 勝共 教養讀本, 國土 統一院, 1971. PP. 87-90.

시켜서는 理解하기 힘들다. 國家形成은 本質적으로 前近代의 專制體制의 崩壞에 따르는 市民的 統合과 領土의 設定過程이라 할 수 있다. 이미 韓國은 現代國家 形成의 過程을 充實히 밟아왔고, 民族의 文化的 統一性을 歷史的 傳統으로 이룩해 놓았던 것이다. 韓國은 世界 權力政治의 犧牲이 되지 않았던 들, 이미 現代의 國家로서의 役割을 世界속에서 遂行할 수 있는 基本條件을 갖출 수 있었으며 過去에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우리는 外部勢力에 依해서, 人爲적으로 分斷을 強要 當한 狀으로 國際政治의 基本單位인 民族國家로서의 條件을 剝奪 當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社會에 參與하는 民族集團이 하나의 國家(Nation, State)로서의 自主의 地位를 確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參與는 無意味하거나 不可能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國際政治의 秩序에도 障害要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한 나라의 分斷狀態는 國際權力政治의 잘못된 所産이면서, 그 分斷은 항상 國際的 葛藤의 불씨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可能性이 크다. 그러므로 市民的 統合과 一致되는 領土의 確保라는 見地에서, 同一 民族, 同一 傳統, 同一 文化를 가지는 南·北韓의 統一은 當爲에 屬하는 課題이다. 自主성과 統一性을 지닌 現代國家의 地位와 資格을 가지고 國際社會에 參與해야 한다는 點에서도 韓國統一은 必須不可缺한 일이며, 世界 紛爭의 불씨를 除去한다는 觀點에서도 우리의 統一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要請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國土統一이라는 우리의 課業은 우리 自體의 內的 要因과 國際環境이라는 外的 要因이 倅 같이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國際情勢는 東西和解와 政治的 多元化의 물결을 세차게 일으키며, 「키신저」(Kissinger)의 말과 같이 軍事的 兩極化는 政治的인 多元化를 促進시켜 國際政治의 多元化 時代를 맞게 되었다²⁴⁾.

戰後의 美·蘇의 對立的 體制가 多樣한 挑戰속에 協調的 美·蘇體制로 發展하였었다. 70년에는 第2의 獨占的 美·蘇體制가 유럽에서는 西獨으로, 아시아에서는 中共과 日本이란 新興強國의 登場으로 國際政治의 多元化를 促進시켜 왔고, 自由陣營內에서도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과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에 依한 非美國化 政策으로 새로운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第2次 世界大戰 後에 일어난 新生國家들에게 힘에 겨운 새로운 難題를 가져다 주고 있다. 特別히 東北 「아시아」에서 日本과 中共의 登場으로 國際的 環境에 커다란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勢力均衡의 構造의 再編 現狀은 傳統的 勢力關係의 再現을 露出시키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오늘 날의 事態가 半世紀 前의 國際政治와 恰似한 點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가지게 한다.

日本 亦是 中共 接近을 爲해 政界, 財界, 產業界, 一般輿論 등 比等한 狀態에 있고, 50年代 中共이 이른바 ① 領土主權의 相互尊重 ② 相互不侵 ③ 內政不干涉 ④ 互惠平等 ⑤ 平和共存 등의 「平和5原則」²⁵⁾을 標榜하면서 日本에 接近했던 때와는 달리, 오늘 날은 오히려 日本이 關係改善에 熱을 올려 「平和5原則」에서 「大日本 政治3原則」을 標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統一要請은 우리의 運命을 決定하는 深刻한 것이며, 全 國民의 知慧와 愛國

24) 中央日報社, 中央, 1970년 1월호. P.71.

25) 東亞日報, 1971. 3월 5일자 參照.

하는 精神을 한데 모아 達成해야 할 課題로 되어 있다.

다. 人道主義的 側面

위에서 論議한 바와 그 觀點을 달리해서, 純粹한 人道主義的 觀點에서 볼 때도 우리의 國土統一은 切實한 것이다. 晩時之歎의 느낌을 禁할 수 없으나마 赤十字社의 努力으로, 南·北韓 家族찾기 運動을 爲한 南·北韓의 對話를 開始한 바 있지만, 같은 民族, 單一 文化, 統合된 社會의 特性을 가지고 오랜 歷史를 거쳐오면서 運命을 같이한 한 나라의 國民으로서 外勢에 依한 強制的인 分斷은 家族의 離散, 親族의 分散, 親知 및 同僚의 隔離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 더욱이나 北韓 共產治下에 머물러있는 父母兄弟가, 親戚이, 同僚가, 共產獨裁下에서 人間으로서의 尊嚴性도, 權利도, 自由도, 剝奪 當한채 共產黨獨裁에 屈從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事實을 想起할 때, 이러한 狀態를 더 延長시킬 수 없다는 切迫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統一을 必要로 함은, 統一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國家生活이, 個人的 權利와 自由를 最大限으로 保障하고, 社會 및 國家의 最低 基本單位인 家族의 融和와 繁榮을 保護하고, 나아가 教育받은 市民으로서 自由롭고 創意的인 國家生活에의 參與와 貢獻을 尊重해 줄 것이라는 期待와 믿음에서이다. 여기에 統一의 必要가 있고, 自由民主主義를 國是로 하는 國家統一의 要請이 있는 것이다.

같은 歷史와 生活風俗을 가진 가장 가까운 家族끼리의 만남이, 地球 저쪽에 있는 다른 種族과, 血統 生活風俗이 전혀 다른 外國人을 만나기 보다 더욱 어렵고, 事實上 우리는 지금 먼 外國과의 來往은 自由로울 수 있어도, 흩어진 家族을 數十里 밖에 두고 마주 건너다 보면서 對話의 通路하나 찾지 못하고 4半世紀를 흘려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의 羞恥요, 우리의 運命을 스스로 決定못하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우리의 國土統一이 우리 自信의 內的 條件 外에, 國際情勢라는 外的 條件에 더욱 크게 影響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結果에 對한 責任은 우리 民族 스스로의 것이지 결코 우리 以外の 어느 누구도 責任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結局 韓國의 國土統一은 人道主義的인 要請에서 오는 時急한 우리 民族 自信의 問題로서 우리에게 要請되는 것이다.

라. 國家發展의 必要

우리 나라의 統一의 要請은 國家發展의 見地에서 또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 發展과 文化的 統合성과 國家安全의 保障은, 國家發展을 爲한 基本條件이면서 同時に 目標가 된다.

經濟發展의 見地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南·北韓의 地理的 條件의 差異에서 오는 資源의 不均衡的 分布이다. 南·北韓에 分布된 資源은 相當한 程度로 相補的 役割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南北으로 分斷하는데서 오는 資源活動上的 無理는 이미 分斷 直後부터 深刻하게 經驗해온 事實이다. 이와 같은 資源分布와 關聯되어 北韓 產業은, 初期 資源財 生産에 倚重할 수 있게 되어 있고, 南韓 產業은 最終 消費財의 加工이 中心이 된다. 產業構造上 南·北韓은 分斷이나 對立的 位置에 있기보다는 相互補完과 分業化를 促進시켜 나갈 수 있는 相補的 關係에 있는 것이다.

國家安保의 見地에서 본다면 韓半島의 分斷은 繼續的인 緊張과 國家安全에의 深刻한 危脅의 불씨가 되어 왔다. 우리가 지금까지 繼續 經驗해 왔드시, 北傀는 그들의 共產體의 全體主義的 戰略에

따라 武力에 依한 統一을 窮極 目的으로 戰爭準備에 總力을 競走하고 있는 한편, 遊擊隊 및 武裝間諜의 繼續 南派를 비롯하여, 온갖 宣傳과 戰術을 動員하여 南韓의 破壞와 侵攻에 急急해 오고 있다. 屬稱 「全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要塞化」, 「軍의 幹部化」, 「軍의 現代化」 등의 完全無缺한 戰爭挑發 準備로, 繼續인 危脅과 挑戰은, 이에 對應할 수 있는 우리의 防衛能力 培養을 不可避하게 하고 莫大한 國家豫算을 軍備擴充에 投入하게 할 뿐만 아니라, 政治·經濟·社會 等 여러面에 있어서 우리 國民生活에 障礙를 주고 있음을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緊張과 北傀 挑戰은 國家發展을 深刻하게 沮害할 뿐 아니라, 우리의 統一을 爲한 努力에도 許多한 問題點을 惹起시키고 있다.

國際關係 面에서 보더라도 戰後 美·蘇 兩大國 中心時代에는 東西競爭의 中心이 軍備競爭이었으나 美·蘇 兩大國만이 行使하던 軍事上, 經濟上의 指導力이 여러 나라에 分散되는 多元化 時代에 접어들자, 競爭의 中心은 軍備競爭이 아니라, 經濟競爭으로 바뀌었다²⁷⁾.

이렇게 世界의 趨勢가 理念的인 鬪爭에서 國家利益을 中心으로 하는 經濟的인 競爭으로 바뀌는 때에, 유독 우리만은 經濟發展에 主力할 努力의 大部分을 理念的인 鬪爭을 爲해 消費해야 함으로서 國際的인 競爭場에서 뒤지고 있는 不幸을 甘受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國土가 分斷된데서 오는 結果가 아닐 수 없다.

南·北韓의 相互補完的인 經濟·地理的 條件과 資源을 떠나서 論하더라도, 國土의 分斷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每年 國防에 投入하는 莫大한 豫算을 經濟發展에 投入할 수 있었을 것이며, 世界 어느 나라 못지않은 富強을 자랑하는 國家로 成長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25南侵으로 비롯한 北傀의 武力挑戰은 軍事的, 政治的 側面을 떠나서도 韓國人의 文化的 分斷, 分裂에도 至大한 影響을 주고 있음은 잘 알려진 事實이다. 軍事的 緊張과 對立, 衝突은 南·北韓의 善良한 國民들에게 漸次로 相互 敵對視하는 方向으로 이끌어져 갔고, 이러한 一般的인 風土는 자라나는 世代로 하여금 同族을 敵으로 規定해 버리는 結果를 낳게하고 있다. 이런 現象은 單一族으로서의 우리의 기나지 歷史的 傳統을 破壞해 버리는 무서운 結果를 가져오고 있으며, 歲月이 흐를수록, 더욱 惡化될 것이며, 南, 北韓의 軍事的 緊張이 繼續되는 限, 더욱 深刻해질 것을 考慮할 때 統一의 時急性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第2章 우리의 統一政策과 使命

南北統一은 兩斷의 原因이 어디에서 비롯했건, 이것은 우리 自信의 問題이며, 우리 自信의 努力에 依하여 解決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다. 分斷의 原因이 外勢에 依한 것이었다고 해서 이 問題를 남이 解決해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韓國의 統一問題는 國際平和와 安全에 關聯이 있기 때문에 國際的인 關心사이긴 하나, 國際的인 關心에 따라 韓國統一의 問題가 解決될 것도 아니며, 또

27) 國土統一院. 統一論叢, 1970. 12. 1卷 2號 P. 212.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式으로 解決되기를 期待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主導的인 入場에서 方案을 提示하고 그들의 協助를 請함과 同時에, 統一方案의 實踐을 爲해 繼續的이고 段階的인 努力을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本章에서는 지금껏 우리가 努力해 온 統一을 爲한 努力의 자취와, 또 北傀가 主張하는 統一政策이 무엇인지를 正確히 알고, 이를 批判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統一을 爲한 基本原則을 論議 檢討하여 거기서 統一에 앞서 우리 國民이 갖추어야 할 條件을 抽出하고, 統一方案의 實踐을 爲해 國民이 取해야 할 姿勢를 分析 提示하고자 한다.

1. 統一을 爲한 우리의 努力

가. 大韓民國의 統一努力의 발자취

統一을 爲한 우리의 努力은 國土가 38度線으로 分斷된 그 瞬間부터 繼續되어 왔음을 이미 指摘했다. 信託統治案에 對한 擧族的인 反對로 부터 우리의 統一努力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統一된 民族文化를 基盤으로 하는 自主的 統一國家를 念願하는 韓國民의 擧族的인 反信託統治 意思를 美·蘇 共同委員會를 通해서 貫徹시켜 보려던 美國의 努力도 挫折되고 韓國의 統一問題는 「유엔」에서 그 解決을 摸索하는 方式으로 轉換되었다. 1947年 11月 14日 第2次 「유엔」總會는 韓國獨立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採擇하였고, 이 決議에 依據해서 韓國에서의 自由選舉 實施 및 그 監視를 爲한 「유엔」臨時 韓國委員團의 派遣이 뒤따랐다. 이리하여 南北韓 人口比例에 따른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¹⁾는 우리의 統一政策으로 받아 들여지고, 이를 爲한 우리의 努力도 國際情勢가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부단히 繼續되어 왔다.

은 國民의 念願과 努力속에 統一을 爲한 우리의 方案도 國土分斷 以來 지금까지 多小 變遷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變遷은 國際情勢에 따른 韓國의 位置와 또한 最善의 統一方案을 摸索하려는 努力에서 온 것으로, 오히려 當然하고 바람직한 變遷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國土의 兩新이 國際政治의 副產物이었던듯이 統一을 爲한 우리의 努力으로서 韓國의 統一方案의 變遷도 當時의 國際情勢와 不可分의 關係를 맺어 왔다. 韓國의 解放이나 獨立, 그리고 國土分斷이, 韓國民의 意思와는 無關하게 展開되어 온 것처럼, 韓國의 統一方案 역시 國際政治의 한 斷面으로 찾을 수 밖에 없으며, 韓國은 이에 따라 受動的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初期에는 韓國의 統一이란 「유엔」 第2次 總會의 決議를 拒否한 蘇聯의 妨害를 中止시킴으로서만 實現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²⁾ 蘇聯에 對하여 韓國統一의 方案을 促求하는 것이, 곧 統一論議의 基調였던 것이다. 그러나 진작부터 韓國을 共產化하려는 目標下에 움직여 온 蘇聯은, 이러한 「유엔」의 決議나 「유엔」의 韓國統一 促求에 協調할리가 없었다. 오히려 蘇聯은 北傀로 하여금 民主的인 平和統一論을 내세우게 하고 裏面에서는 北傀를 支援하여 軍備強化에 總力を 기우려, 美蘇兩軍이 韓國에서 撤收한 後, 韓國의

1) 國民倫理教育研究會, 勝共論(서울, 養書閣 1971), PP. 546~549.

2) 國民倫理教育研究會編, 前掲書 PP. 558~569

「힘의 眞空狀態」를 利用하여, 6.25事變을 挑發케 했던 것이다. 이로서 北傀의 「平和統一論」이 「武力統一論」으로 轉換하는 契機가 된 것이다.

武力統一論으로 試圖되었던 6.25動亂은 1953年 7月 27日 休戰調印으로 終結되고, 「유엔」總會는 1953年 8月 28日 休戰協定을 承認함과 아울러 休戰協定 第60項에 依據한 政治會談開催를 贊成하고, 決談을 採擇하여 1954年 4月 26日 韓國 및 16個 「유엔」參戰國과 蘇聯·中共과 北傀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韓國 統一問題를 論議하기 爲해 「제네바」會談을 開催하였다. 이 會談에서 ① 「유엔」에 韓國問題 取扱의 權限과 資格이 認定되고 ② 南·北韓 人口比例代表制에 依한 眞正한 自由總選舉 實施가 決議되었으며, 「유엔」軍은 統一된 民主大韓政府가 樹立되어 「유엔」의 使命을 完遂할때까지 韓國에 繼續 駐屯하여야 한다는 事項들이 決議되었다.

當時의 우리는 休戰을 決死 反對하고 北進統一 또는 「유엔」監視下에 北韓民의 單獨選舉統一을 主張했으나, 政治會談이 成功되고 韓國動亂에 參戰했던 16個國의 勸告로 「유엔」監視下에 南·北韓 總選舉의 統一方案을 公式化 했던 것이다. 北傀도 美軍撤收를 前提로 「自律的 南北韓 總選舉」나, 「南北의 議會聯合」등의 表面的 統一方案을 내세운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北傀가 그 本來의 野慾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고, 韓國을 赤化統一하려는 共產則의 內心은 休戰協定 그 自體가 그들의 假面戰術이었던 것과 같이 「제네바」會談에서 韓國問題 解決에 있어 「유엔」의 어떠한 役割과 權能도 認定치 않는 한편, 「유엔」監視下의 自由選舉라는 方案에는 決死 反對하였다. 이로서 美國과 蘇聯의 「제네바」會談은 決裂되었고, 그 後 韓國의 統一問題에 對한 反應이란 「유엔」側이나 韓國政府, 그리고 北傀가 各기 다른 方案을 主張하게 되었다.

1954年 12月 11日부로 動亂에 參加했던 16個國이 提出한 「제네바」會談에 關한 報告書를 承認한 「유엔」은 代議政治아래 統一民主 大韓民國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고 韓國에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데 「유엔」의 目的이 있음을 다시 確認했다. 이 原則은 「유엔」總會에서 年例行事로 다시 確認되어 왔고 우리側에서는 共產則과의 會談이 쓸데없음을 認識하고, 自由黨政府 時代에는 우리의 主張은 「北進統一」과 「유엔」監視下의 北韓 單獨選舉 사이를 來往하고 있었다.

이러한 統一方案으로 李承晚政權이 輿論의 支持를 얻지 못함을 알자, 北傀는 休戰 直後부터 「戰後 人民經濟 復舊發展」이 當面한 課業으로서, 그 당장에는 統一을 願하는 積極的인 意思가 없으면서도 「平和統一」이란 標語를 내세워 心理的인 效果를 노렸던 것이다.

그들의 平和統一 方案이란 ① 南韓에서의 外國軍의 撤收 ② 中立國 監視下에 南北韓 總選舉 ③ 南北間의 經濟·文化·書信交換 ④ 南北韓 軍隊의 減縮³⁾ 등이 있으나, 이는 단지 假面的인 口號戰術에 지나지 않았다.

4.19革命 以後 既存秩序의 混亂속에 크고 작은 많은 政黨 社會團體가 各기 다른 自己 나름의 統一方案을 들고 나왔다. 이 後에 民主黨政府는 「제네바」原則인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土着人口比例 總選舉 統一」을 公式方案으로 하여 反共統一을 推進한 바 있었다.

3) 國民倫理教育研究會編, 前掲書, PP. 576—579.

5. 16軍事革命政府는 革命直後 革命公約을 發表하고, 革命公約 第1項에서 「反共을 국시의 제일의 로 삼고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號에 그쳤던 反共態勢를 再整備 強化한다」고 했다. 또한 民族의 宿願인 國土統一을 爲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을 培養하기에 全力을 集重기로 다짐하여 지금까지의 統一方案에 對한 分散된 主張을 統一하여 反共態勢 強化를 기하려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유엔」監視下의 南北韓土着人口 比例 自由總選舉의 統一原則」을 1964年 11月 29日 國會의 議決로 確定시켰고 그후 「유엔」의 統韓原則에 依한 統一方案은 해마다 大統領 年頭敎書와 累次의 談話 및 政府 聲明, 그리고 每年 提出된 「유엔」提書를 通하여 確固不動한 政府의 統一方針을 堅持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統一方案은 그때 그때의 國際情勢에 따라 變遷해 왔으나 우리 國民들이 統一을 이룩하기 爲해 바쳐온 努力과 念願은 統一方案의 變遷과는 關係없이 줄기찬 것이었고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욱 뜨거워만 갔다.

6. 25를 終結시키기 爲해 強大國은 休戰協定을 締結했지만 이 休戰協定 自體가 人爲的 障壁인 休戰線으로 國土를 兩斷하는 것임을 미리 알고, 온 國民은 擧族의인 休戰反對로 우리의 統一意志를 強力히 表明했다. 그러나 國際政治의 勢力으로 休戰協定은 이루어 졌고, 그 後 우리는 反共을 基本政策의 方向으로 삼아 統一을 爲한 努力을 傾注했다.

5. 16以後 우리의 統一의 努力은 統一方案의 探索보다는 平和의 統一을 爲한 自體條件의 整備에 重點을 두었고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勝共力量培養論이 國民들 앞에 說得力을 갖기 시작하여 오늘과 같은 統一을 爲한 諸般 準備에 이르게 된 것이다.

政治·軍事的인 면에서 北傀를 凌駕하는 莫強의 軍事力을 갖추므로서, 北傀로 하여금 侵略의 野慾을 拋棄하게 하는 것이, 統一에 接近하는 捷徑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國軍을 世界 第4位의 莫強한 軍事力으로 키웠고, 鄉土豫備軍을 創設하는 등 빈틈없는 防衛態勢를 갖추어 왔다. 政治的으로는 그동안 兩大 革命을 치르면서, 民主憲政을 本軌道에 올려, 安定된 政局을 이루어 對內的으로 對外的으로 韓國政局의 安定을 認定받았다. 1966년에는 國會內에 ‘國土統一 研究 特別委員會’가 設置되어, 統一白書가 發表되었다. 1969년에는 「國土統一院」을 創設 獨立시켜 國家的 次元에서 統一에의 接近을 爲한 體系의인 努力을 傾注하여 科學的인 研究와 接近에 努力하고 있으며, 外國의 韓國問題 專門家를 招聘, 韓國統一을 爲한 多面的인 길을 探索하는 한편, 國民의 統一意識을 鼓吹시키는 등의 學術「심포지움」과 統一方案의 研究에 關係되는 一體의 活動에 그 힘을 傾注해 왔다.

政府는 國際外交面에 있어서도 強力한 國際的인 支持를 얻기 爲하여, 지금까지 外交關係가 樹立되어 오지 않았던 國家들과 새로이 外交關係를 樹立하며 우리와 같은 처지의 나라들을 軍事, 經濟 또 技術的인 援助로 도와 國際舞臺에 韓國의 「이미지」를 浮刻시켜 왔다.

經濟 社會的인 면에서 統一에 接近하는 무엇보다도 빠른 길은 우리가 北傀보다 經濟的으로 優位에 서게 되어야 한다는 課題를 重要視해 왔다. 이를 爲해 우리는 이미 1次, 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成功시켜 刮目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했던 것이다. 지난 10年동안의 國民總生産은 4.5倍였고 1人當 國民所得은 2倍의 增加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韓國의 經濟는 이미 跳躍段階를 지났으며 政

府는 70年代의 目標로 1人當 國民所得 500弗, 輸出規模 50億弗⁴⁾의 中進國 上位圈에의 進出을 企圖하고, 豊饒의 時代를 爲해 끈질긴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또한 은 國民의 統一을 爲한 念願은 大韓赤十字社가 提議한 南北韓 家族찾기 運動과 더불어 1970年 光復 25週年을 맞은 大統領의 慶祝辭에서 平和統一 構想이 發表됨으로서 우리의 統一政策의 새로운 座標가 設定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욱 熱度를 加하여 마침내 政治性을 떠난 純粹한 人道主義的인 立場에서 南北韓 家族찾기 運動을 우리가 먼저 提議하였고, 이런 舉國的인 國民의 努力은 마침내 빛을 보아 數次的 豫備會談을 거치면서 本會談에 이르는 準備를 서두르는 등 4半世紀 동안 막혔던 너무도 무서운 人爲的인 障壁을 뚫는 基礎作業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努力은 우리의 統一을 우리 自身の 問題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 問題를 解決하려는 자랑스런 態度이며 純粹한 民族的 本性, 人道主義에 依한 統一을 向한 걸음인 것이다. 이러한 걸음은 統一을 向한 끈질긴 執念의 土臺위에 繼續的인 우리 自身の 努力으로만 한층 더 재촉될 수 있음이 光復節 25週年을 맞은 大統領의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爲한 接近 方法에 關한 構想에서 더욱 分明해 졌다. 다음 글은 1970年 8月 15日 平和統一 構想을 내용으로 한 大統領 宣言 前文이다⁵⁾.

“親愛하는 國內外 5千萬 同胞여러분! 오늘 우리 民族이 比할데 없는 感激과 歡喜속에 맞이했던 祖國光復 그 날로부터 꼭 4半世紀가 되는 날입니다.

25年前 全國 坊坊曲曲의 거리 거리에서 太極旗의 물결을 繙 놓으며 自由解放 萬歲의 歡呼聲을 소리 높여 외치던 그날, 우리 은 겨레는 정녕 티끌만한 打算도 없는 純粹한 愛國愛族의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民族 再起의 出發을 기뻐하였고, 우리 歷史의 새로운 光榮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抑壓과 隸屬에서 벗어나 잃었던 祖國을 되찾아, 다시는 祖上들이 當했던 不遇한 處地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굳게 盟誓하며, 새로운 繁榮의 民主國家를 建設해 보겠다는 무른 꿈을 펼쳐보던 그날의 벅찬 感激과 불타오르던 情熱은 永遠히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될 不滅의 烽火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로 부터 어언 25년이 經過했습니다. 25년이란 歲月은 한 人間이 幼兒期로부터 靑年期를 넘어서 이제 그 完熟을 눈앞에 바라보는 「한 世代」에 該當하는 時間인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 民族 한 國家에 있어서도 그간의 成長度를 嚴肅히 評價해 보아야 할 歷史上的 里程標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제 成年 韓國의 自랑스런 모습을 內外에 크게 誇示하고 있는 이 時點에서 다시 한번 光復節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感懷는 자못 무량한 바 없지 않습니다.

지난 25年間의 光復 韓國史는 한마디로 말하여 드물게 보는 「激動의 時期」였고, 苦難과 試練의 連續이었읍니다.

光復의 感激과 歡喜가 國土分斷의 衝激과 不幸속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는가 하면, 繁榮의 希望과 期待는 北僞가 挑發한 慘酷한 戰亂속에 한 조각 虛空에 뜬 구름처럼 흩어져 버렸고, 나아가서 政府樹立 以後의 混沌과 停滯는 급기야 두 차례의 政治的 激動의 소용돌이를 치르지 않을 수

4) 國土統一院 統一教育指針書 pp. 402-407

5) 國土統一院, 國土統一 1970. 8, 2호, pp. 1-4

없게 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爭取한 것이 아니라 他力에 依하여 주어진 光復을 分揀·消化할 만한 主體의 力量을 갖추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試鍊과 鎖痛은 避할수 없었던 必然의 結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苦難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悲劇을 當하여 결코 座折되지 않았으며 逆境앞에 끝내 屈하지 않았습니다.

長久한 民族史를 通하여 수없이 많았던 内外의 憂患을 強靱한 意志와 擧族의인 抗爭으로 이겨내고, 祖國의 獨立을 保全하여 왔던 굳세고도 억센 우리民族 本然의 潛在의 力量이 試鍊 克服의 途程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나타내기 始作한 것입니다.

이렇게 싹터 오른 民族的 自覺이 凝結하여 잠자고 있던 生命力과 創造力에 點火되고, 民族中興의 前進隊列을 整備한 歷史的 轉換點을 이룩한 것이 바로 지난 60年代였습니다.

그로부터 8, 9年 우리들은 祖國近代化 課業을 爲해서 온갖 努力을 기우려왔으며 많은 成果를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온 世界는 50年代의 動亂韓國이 이제 新生國發展의 模範國家로 登場했다는 새로운 認識을 가지고 우리 民族에 對해서 羨望과 敬愛의 눈으로 쳐다 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값있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거둔 外形의 成果보다도 이것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우리 民族의 無限한 底力을 再發見하고, 우리의 意志와 우리의 努力으로 어떠한 큰 일도 이룩할 수 있다는 自信과 矜持를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0年代에 着手한 中興課業을 기필코 完遂해야 할 使命의 70年代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4半世紀의 歷史의 章이 始作되려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지난 날의 歷史的 前轍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決意와 우리 後孫들에게는 보람찬 遺産을 물려 주어야 한다는 使命感을 加一層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여러분!

오늘 光復 第25週年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겨레가 너 나 할 것없이 한결같이 가슴아프고 서글프게 生覺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國土分斷의 비극입니다.

統一을 向한 民族의 悲願은 지난 4半世紀 동안 하루도 우리 겨레의 腦裡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으나 한편 統一의 展望은 수많은 難關과 隘路에 가로 막혀 결코 밝다고 말할 수 없는 現實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原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金日成과 그 一黨의 民族 叛逆集團이 北韓땅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狂信的이며 호전적인 共產集團은 祖國光復의 첫날부터 全 韓半島를 暴力으로 赤化하기 爲해서 始終一貫 狂奔해 왔습니다.

6.25南侵의 殘酷한 同族相殘에 이어서 休戰後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7,800餘件이 넘는 武力挑發을 恣行해 왔고, 最近에는 無數한 武裝共匪를 南派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實證입니다.

정녕 金日成과 그 徒黨은 마땅히 歷史와 國民의 峻嚴한 審判을 받아야 할 戰犯者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徒黨은 言必稱, 平和統一 이니, 南北協商이니, 聯邦制니, 南北交流니 하는 등 破廉恥하고 常套의인 宣傳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北傀의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青天白日下에 들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저지른 戰犯行爲와 緊張 造成의 責任을 轉嫁해 보려는 賊反荷杖의 凶計인 것이며, 武裝共匪 南派를 偽裝 隱蔽하고 素朴한 一部 사람들을 眩惑함으로서 感想的 統一論을 誘發해 보려는 奸邪한 術策인 것이며, 國際輿論의 誤道를 노리는 野卑한 속셈인 것입니다.

이 虛僞와 欺瞞에 가득찬 北傀의 作態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地球上에 한사람도 없다는 것을 나는 斷言합니다.

무릇 共產主義의 政治體制는 基本人權의 蹂躪, 鐵의 紀律에 依한 전체주의적 一黨獨裁입니다. 그 中에서도 北傀 金日成 體制는 같은 共產圈內에서조차도 빈축의 對象이 되고 있는 典型的인 極左冒險主義와 歷史偽造를 일삼는 個人神格化가 판을치는 閉鎖社會입니다.

오늘의 북녘땅은 그러한 專橫과 恐怖가 휩쓰는 가운데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하나의 兵營으로 化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듯 歷史와 民族과 天倫과 良心을 外面한 凶惡한 武力挑發集團과 대치하여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狀況에 處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民族의 悲願인 祖國統一의 難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土統一이 아무리 切實한 우리 民族의 至上命令이라 하더라도 同族의 流血을 強要하는 戰爭만은 避하여야 하겠고, 統一의 길이 아무리 險難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忍耐와 最大限의 良識을 發揮해서 平和的으로 解決지어야 할 것입니다.

同時에 우리는 金日成 一派의 戰犯集團들이 끝내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暴力的인 侵略을 敢行하여 왔을 境遇에, 이를 斷呼히 擊退할 수 있는 힘의 培養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點을 깊이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國民여러분! 나는 이미 數次에 걸쳐서 統一努力의 本格化는 70年代 後半期에나 可能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時期에 이르면 우리의 主體力량의 充實과 國際的 與件의 成熟으로 統一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特히, 北韓의 閉鎖的인 社會體制도 時代의 進運인 自由化 물결에 依해 스스로 變質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自由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確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時期를 展望하면서 나는 光復 4半世紀에 즈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平和統一의 基盤 造成을 爲한 接近方法에 關하여 나의 構想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 先行條件이 있는 것입니다. 즉 北傀가 지금과 같은 侵略的이며 挑戰的인 行爲를 繼續하고 있는 限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假面이오, 偽裝이오, 欺瞞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緊張狀態의 緩和없이는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에의 接近은 不

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를 保障하려는 北傀의 明確한 態度表示와 그 實踐이 先行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는 武裝共匪 南派 等の 모든 戰爭挑發 行爲를 即刻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依한 赤化 統一이나 暴力革命에 依한 大韓民國 顛覆을 企圖해 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拋棄하겠다는 點을 明白하게 内外에 宣稱하고 또한 이를 行動으로 實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傀가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依해서도 明白하게 確認될 境遇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 造成에 寄與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의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도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제시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北傀가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爲한 유엔의 努力을 認定하고 유엔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傀가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構想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北傀에 對하여 더 以上 無辜한 北韓 同胞들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的 競爭, 즉, 다시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餘餘를 가진 社會인가를 입증하는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여러분!

今年는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世界에 門戶를 開放한 19世紀 後半의 開化期로 부터 近 百年이 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1世紀, 우리 民族은 落後와 隸屬과 戰亂과 混沌이 겹친 受難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그 試鍊을 용케도 참고 이겨 냈으며,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中興의 黎明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녕 마지막 中興의 機會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가지 記憶해 두어야 할 것은 오늘로서 시작되는 앞으로의 4半世紀를 넘기면 今世紀의 末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 2000年頃의 世界와 그 속에서 우리 大韓民國이 서 있을 座標가 어디 이겠는가 하는 것을 正確하게 豫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의 우리 祖國은,

—國土統一을 이룩한지 이미 오래된 強力한 民族國家로서,

—은 國民이 다 함께 繁榮을 謳歌할 수 있는 豊饒한 先進 福祉國家로서,

—世界史의 主流에 當當히 參與하고 寄與해 나가는

보람찬 모습으로 變貌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着實한 그 準備期間인 것입니다.

1970年代는 이렇듯 過去와 未來를 연결하는 우리 近代民族史의 途程에서 民族中興의 成敗를 가름하는 重要的 位置를 點하고 있는 時期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年代의 中興課業을 成就하는 如否는 우리의 힘을 어느만큼 「生産的」인 目標에 集結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民族의 團結, 힘의 集中, 그것은 정녕 民族 中興의 成敗를 左右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當面課題인 自立經濟와 自主國防을 이룩하는 것도 民族의 團結이며, 民族의 念願인 國土統一을 成就하는 것도 우리의 團結된 힘입니다.

國民 여러분!

25年前 8·15에 謳歌했던 그 感激과 歡喜를 앞으로 기어이 成就할 祖國統一의 그날, 보다 더 เบิก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團結하여 前進합시다.”

8·15宣言文에서도 밝힌 바 있는 統一에 가까워지기 爲한 努力으로 우리는 우리의 精神的 姿勢의 基盤을 民主勝共統一에 두고, 우리의 主體力量을 培養하기 爲해 「自主」, 「自立」, 「繁榮」의 旗幟아래 꾸준한 努力을 해 왔으며, 北傀를 凌駕하는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그리고 또 文化的인 基盤의 터전을 닦아 놓았다.

어떠한 不利한 餘件에서도 統一을 爲한 大韓民國의 努力은 實로 刮目할만 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北傀의 統一政策과 그 批判

1954年 4月 26日 韓國動亂에 參戰한 16個 參戰國家와 蘇聯과 中共, 北傀代表가 모인 가운데 「제네바」 政治會談이 開幕되었다. 당시 韓國側 首席代表는 “統一되고 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할 目的으로 이에 關한 從前의 「유엔」 決議에 立脚해서 「유엔」 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한다”는 것을 主案으로 한 「14個條項의 統一方案」을 提示했다⁶⁾ 그러나 北傀는 當面한 重大問題가 蘇聯 및 東部 「유럽」 圈과 中共의 援助를 依支하여 前後 人民經濟 復舊를 통한 所謂 「民主基地」의 再建이었던 만치, 會談에 臨하는 態度가 無誠意할 뿐 아니라 會談을 宣傳場所로 惡用하려 했다. 그러기에 當時 北傀 外務相 南日은 1954年 4月 27日에 所謂 「平和統一案」이라고 해서 自由陣營이 도저히 受諾할 수도 없는 提案을 해 왔던 것이다. 그들이 提案한 內容의 骨子は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南北韓 政府에게 「全朝鮮委員會」 組織을 勸告한다는것, 다시 말하면 그 委員會로 하여금 立法機關의 總選舉를 準備케 하며 南北交流를 促進시키자는 것이었다. ② 6個月 以內에 外國軍을 撤收시킬 것. ③ 關係國들에게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爲한 條件形成을 認定케 할 것 等이다.

北傀는 6·25와 같은 侵略的인 戰爭을 挑發시켜 놓고서도, 바로 그 戰爭 後에 아무런 부끄럼없이 “和睦스러운 「全朝鮮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南北韓 人口의 3分の 2를 차지하며 國際平和機構인 「유엔」이 認定한 自由選舉로 이루어진 韓國을, 不法政權과 同等하게 取扱하려 하고, 外國軍 撤收를 成就시켜 南韓을 다시 힘의 眞空狀態에 두고 再侵을 試圖하려고 했던 것이다.

(6) 國民倫理教育映畵, 前掲書, P. 588.

또 하나의 關係國 會議을 갖자고 言及한 것 自體도, 「제네바」會談을 無視하는 態度였고, 끝끝내 「유엔」의 監視를 排斥함으로써 「유엔」의 權能을 無視하자는 속셈이었다. 그후 6月 15日 다시 提案한 方案도 外國軍 撤收를 主張한 것과 南北軍隊의 10萬 以下로의 減縮論, 「全朝鮮委員會」促求, 會議參加國들에 依한 統一案件 形成과 援助論 等으로서, 여전히 前번의 平和統一論을 거듭 내세우는 것 밖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네바」會談은 2個月間이나 繼續되었으나 共產側의 宣傳만 되풀이 될 뿐 아무런 進前도 成果도 없이 參戰 16個國은 會談을 終結짓기 爲해 6月 15日字로 共同宣言을 發表했던 것이다. 즉, 「統一된 民主韓國을 樹立할 수 있는 基本原則」으로 첫째, 「유엔」은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爲한 權威와 權能을 갖는다. 둘째, 統一·獨立·民主韓國 樹立을 目的으로 한 國會議員 選出方法은 「유엔」監視 下의 土着人口 比例 南北 總選舉로 한다는 點을 再確認 했다. 또한 이 宣言에서는 萬一 北傀가 南 侵을 再發할 境遇, 即刻 參戰國들이 軍事적으로 對應할 것이라고 警告했다.

그 후 北傀는 戰爭의 後遺症을 벗어 보려고 한동안 統一政策에 對해 極 消極的이라는 人像을 주었다.

1956年 北傀는 前後 人民經濟 復舊 發展 3個年 計劃을 끝내고, 어느 程度 戰爭被害를 回復한 後 平壤에서 第3次 勞動黨大會를 열고 大會 決定書를 採擇, 다시 統一 政策을 強調했다. 主 內容인즉, ① 統一을 爲해서는 南韓에 所謂 反帝 反封建 民主革命이 必要하나, 그 當장의 鬭爭 口呼는 南朝鮮 住民들의 民主主義의 權利를 爭取하는 것이며, ② 統一戰線 結成이 必要하다는 것. ③ 南北交流의 促進과 統一問題를 討議할 「常設委員會」設置. ④ 停戰을 鞏固한 平和에로 發展시키고 轉換시켜야 한다는 것과, 外國軍隊는 即刻 물러가야 하며 國際會議가 召集되도록 諸般 條件을 造成하기 爲해 積極적으로 努力할 것 等을 強調했던 것이다. 이들의 所謂 平和統一案을 分析해 보면 平和統一이란 北傀의 常套의인 宣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明確히 드러난다. 이 統一案은 北傀가 單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蘇聯과 中共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北傀는 平和統一案의 前提로 全朝鮮地域 內에 있는 外國軍隊를 一體 撤收하고, 南北韓은 그 軍事力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中立國 監視하에 總選舉를 實施하기로 하면서, 北韓內에 있는 蘇聯軍과 中共 支援軍을 鴨綠江 건너편에 잠시 옮겨 놓고, 南韓에서 「유엔」軍이 即刻 撤收할 것을 正式으로 要求했던 것이다. 鴨綠江 건너편에 있는 北傀의 支援軍은 수십 분내에 다시 進駐할 수 있는 位置에 있을뿐 事實上的 目的은 南韓을 합친 眞空狀態에 가두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中共軍 撤收를 크게 宣傳하면서 「유엔」軍이 南韓에서 撤收하도록 壓力을 加하고, 「最高 人民會議」와 「內閣」其他 社會團體와 個人 人士의 이름으로 南北交流와 平和統一 問題를 떠버리면서, 南韓은 統一事業에 전혀 無關心하다는 印象을 世界에 宣傳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北傀는 南進統一政策을 繼續 準備하고 있었다. 그 證據로서는 中共軍의 北韓撤去에 對해서 中共과 北傀가 共同聲明을 發表한 9個月後, 北傀의 戰略戰術的인 黨內 文獻에 1958年 11月 20日字로 金日成이 發表한 「全國 市郡黨 煽動員 講習會」에서 <共產主義 敎養에 對하여>라는 演說文을 參考할 必要가 있

다. 다음은 그 演說文의 한 部分이다.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 建設은 나라의 平和의 統一을 達成하는 重要한 擔保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社會主義 建設을 完成하고 漸次 共產主義에 移行할 수 있는 物質的 條件을 하루 속히 準備할 수록 祖國의 平和의 統一은 그만큼 가까와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祖國統一의 任務가 남아 있으며, 統一後에는 또 土地改革, 產業國有化 등 民主改革을 實施하고 社會主義 建設로 넘어간 後에는 南半部도 漸次 共產主義에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演說文에 담겨진, 北傀의 統一에 대한 基本政策은 徹頭徹尾 ‘赤化統一’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統一方案 宣傳에서 「中立國 監視下에 全朝鮮 自由選舉를 實施」하자고 했던 것은, 當時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新生國들이 「유엔」에 加入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北傀의 北傀版 對 「아시아, 「아프리카」外交의 底意가 있었다. 오늘날 共產圈의 어느 國家에서도 北傀가 말하던 自由總選舉에 의해 共產化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그 後 金日成은 8, 15解放 15週年 平壤市 慶祝大會 前夜祭 演說에서 「聯邦制 統一案」을 提議했다. 그 內容인즉 ①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할 것. ② 아직 南朝鮮 當局이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인 措置로서 南北韓 聯邦制를 實施할 것. ③ 만일 위의 提案들을 大韓民國 政府가 同意하지 않는다면 南北朝鮮 實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 것. ④ 南北朝鮮의 文化使節의 來往과 科學, 文化, 藝術, 體育 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를 할 것. ⑤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即刻 撤退를 要求하며 南北朝鮮 軍隊를 各己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할 것. ⑥ 以上の 여러가지 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會談할 것으로 되어있다.

이 提案은 「유럽」에서 東獨政權이 西獨에 비친 바 있었던 것이고, 이것 또한 그들의 一貫된 偽裝 戰術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 證據로서 그들은 武力南侵을 위한 치밀한 計劃을 推進해 온 것이다.

1961年 5, 16 革命이 成功했고, 점차 政治 社會 등 모든 면이 安定을 되찾아 감에 따라 北傀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金日成은 갑자기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10年 期限附로 蘇聯과의 友好協助 및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이라는 이름의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다시 北平에 들러 無期限附로 같은 名稱과 內容의 軍事同盟을 맺었다. 第3次 黨大會 宣言書 〈祖國의 平和의 統一을 위하여〉에서 分明히 祖國의 어떠한 部分도 外國과의 軍事同盟에 이 끌어 넣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해 놓고 스스로 이를 違背한 것이다.

北傀는 蘇聯과 中共과의 關係가 險惡해지자 그 態度를 分明히 하지 못하고 蘇聯 및 東「유럽」 共產圈이 態度를 밝히려는 壓力에 中共便에 加擔하였다. 이와 같이 되자 蘇聯의 援助는 中斷되었다.

金日成의 南韓 共產化 統一策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① 地下黨 建設. ② 그것을 核心으로 한 統一戰線 結成과 政府顛覆 活動의 展開. ③ 南北의 두개 統一戰線 合同形式을 거친 共產化 統一로서 武力 赤化統一 바로 그것이었다. 1965年 4月 金日成은 當時의 「인도네시아」 大統領인 「스카르노」

의 招請으로 「인도네시아」를 訪問, 「알리, 알르함」 社會科學院에서의 講演에서 南朝鮮革命에 가장 큰難關은 南朝鮮에 反共思想이 뿌리깊이 박혀있다는 것이라고 告白하고, 南朝鮮을 共產化 統一하기 위해서 3大力量의 準備가 必要하다고 하면서, 그 3大力量으로는 北韓의 革命基地를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더욱 더 強化하는 것, 南朝鮮의 革命力量을 強化하는 것, 朝鮮人民과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결같은 南朝鮮 武力侵略을 準備하고 力說하면서 7800餘件이 넘는 繼續的인 武裝間諜 南派와 南韓의 顛覆을 試圖하고 있다. 現在 北傀는 ① 散發的인 武裝共匪 南派로 前哨戰을 試圖하면서 内部攪亂을 꾀하고, ② 南韓에 커다란 政治的 混亂이 發生할 境遇 數萬名의 武裝共匪를 一時에 大舉 投入시켜, 所謂 革命的 大事變을 造作하고 世界앞에 所謂 “南朝鮮人民”들의 武裝烽起로 虛偽 宣傳하며, ③ 擊退당할 境遇에는 山中으로 逃避, 長期的인 遊擊戰을 展開하여 越南事態와 같은 事態를 期待하고, ④ 外國軍을 撤收할 것을 輿論化하여 國際的으로 宣傳하고, 共匪들의 支援要請을 받아 들이는 形式으로 適當한 時機에가서 傀儡軍으로 하여금 休戰線을 넘어 大舉 南侵케 하는 일련의 戰略 및 節次를 그들은 堅持해오고 있다. 8, 15宣言이 있는 같은해 11월에 열린 北傀 勞動黨 第5次會議에서 金日成은 “全體 人民은 모두 武裝되고 北朝鮮 全體가 要塞化 되었다”, “全體 人民이 銃을 쏠 줄 안다”는 등의 言辭속에 北傀는 過去 黨路線을 그대로 지켜 武力 赤化統一을 成就시키겠다는 基本政策을 再闡明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의 平和統一 主張의 假裝性은 百日下에 들어난 셈이다.

2. 統一을 爲한 基本原則

가. 民主勝共

우리 나라가 標榜하고 있는 統一原則中 그 첫째가 民主·勝共統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人間의 尊嚴性을 認定하고 人間 基本權利의 尊重을 至高의 價値로 받아드리고, 調和的인 社會發展의 基本으로서 個人의 自由와 責任을 重要하게 여기는 民主主義는 지금까지 人類가 創意 한 理念中 가장 優越하다는 것이 우리의 證明된 信念이기 때문에, 民主主義를 우리 憲法에 國是로 規定하였고, 이 理念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發展을 方向잡고 規定짓는 思想體系의 役割을 하게 된다.

反面에 共產主義는 그 理論的 主張의 虛構性, 矛盾性으로, 理念體系로서의 妥當性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의 盲信的인 侵略 志向성과 獨裁性, 그리고 非 人間主義的 意識構造로 인해서 人間의 基本性向을 拒逆하고, 平和로운 世界의 秩序를 破壞하는 行動으로 一貫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發展을 위해서 選擇할 理念的 方向은 自명한 것이다. 共產主義의 要素를 解消시키고, 民主的 秩序위에 統一된 우리의 祖國을 發展시켜 나가는 일만이, 우리 民族이 오래도록 繁榮할 수 있는 唯一한 條件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民主主義 理念의 土臺위에 民主主義의 跋現을 目的으로 한다는 것이, 民主·勝共統一의 原則인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民主·勝共統一의 原則을 固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民族的 統一

韓國의 統一은 民族主體에 依한 統一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國土分斷이 外勢에 依한 것이었고 過去의 우리의 統一을 爲한 努力도 外勢에 依存하는 傾向이 있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特別히 昨今에 展開되는 國際權力政治의 趨勢가 우리의 分斷狀態를 固定化 乃至는 永久化 시키려는 徵兆까지 보이는 이때, 그렇지 않다해도 統一은 우리의 問題요 우리의 힘으로 解決해야하는 課業이란 點에 비추어 우리는 단연코, 民族的 主體的 努力과 力量에 依한 民族 文化의 統一, 民族意識의 統合을 基底로 하는 統一課業을 遂行해 가야 할 것이다. 特別히 韓國統一은 單純한 機械的인 體制統一으로 그 根本 目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歷史를 通해서 維持되어 왔던 單一 民族 文化의 同一性을 되찾는데 韓國統一의 重要한 意義가 있음에 비추어 볼때, 民族的 統一은 韓國政策의 또 하나의 基本原則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韓國의 統一은 國土統一만이 아닌 바로 民族의 再結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血統과 風俗 習慣의 傳統을 가진 한 民族을 分裂시키려는 北傀의 凶計를 打破하고 새로운 意味의 民族主義에 依한 民族國家建設을 目的하는 것이다. 이것은 現存하는 國際情勢에 있어서 民族의 살길을 찾는 民族的 利益追求의 길이며, 民族的 意思를 尊重하는 것이지 결코 大戰前의 「나치스」式의 民族主義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民族은 共產主義에서와 같은 意味의 民族이 아니다.

우리가 民族的 統一을 말할 때의 民族的 뜻은 높은 次元의 統一을 目標로 하는 歷史的, 文化的 民族 求心點의 確立을 뜻하는 것이다. 共產世界에서와 같이 政治理念이나 民族國家 形成의 基本論理가 아닌, 發展을 念願하고 民族統一을 指標삼는 「비전」(Vision)이다.

우리의 民族的 統一이란 단지 우리의 歷史上 類例없던 民族의 分裂, 그것도 전혀 우리 民族의 意思로서가 아니라 外勢에 依해 強要된 民族의 兩斷을 終結시키고, 統一된 國家에 統一된 民族으로서 歷史를 이어가려는 民族의 念願인 것이다. 여기에 그 어떤 國際政治의 흥정이나 野心도 介在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떤 나라의 利益을 爲해서 民族的 統一이 妨害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複雜하게 展開되는 國際 狀況에서 民族的 利益을 追求하는 民族統一은 未來指向의인 歷史創造의 次元에서 새로운 國民形成의 過程으로 未來를 내다보고 우리가 먼저 그곳으로 向하자는 것이다. 北傀도 반드시 그곳을 向하지 않으면 안될 廣場이 있으며, 그 廣場이 곧 自由福祉 社會이기 때문이다.

結局 우리가 取해야 할 立場은 우리의 民族主義를 가다듬는 데 있는 것이고, 民族國家를 이어 간다는 意味에서 民族的 統一은 우리의 基本原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 平和의 方法

統一을 爲한 셋째의 基本 原則은 우리가 指向하는 統一方法은 平和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意味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도 自명한 原則이다. 우리의 歷代 政府가 標榜해온 統一방침이 그러했고 심지어는 北傀도 內心은 다름없게 宣傳의 目的을 僞裝하여 내세우는 「슬로간」은 역시 平和統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原則은 韓國統一을 要請하는 根本 目的에 일치하는 것이다.

앞서도 言及했듯이 우리의 統一이 緊張解除에서 健全한 競爭으로, 健全한 競爭에서 制限된 對話와

協助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意識構造의 變化를 거친 民族文化를 基底로 하는 高次元의인 秩序와 調和의 確立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統一課業은 平和의 方法에 依存할 수 밖에 없으며, 그 方法과 過程은 比較的인 時間의 適應 期間을 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平和의인 統一方法에 對해서 1970年 8月 15日 光復節 式典에서 朴大統領께서는 慶祝辭를 通해서 平和의인 方法을 通한 統一을 促求하고 民族的 統一을 目標함에 있어서 民族相殘의 부끄러운 行爲는 容納될 수 없다고 闡明했다.

라. 우리의 主導權

우리의 統一에 있어서 우리의 主導權에 關한 問題는 大韓民國 政府의 正統性과 唯一·合法性에 關係되는 問題이다. 第2次 「유엔」 總會의 決議와 蘇聯軍 司令官이 그들의 占領地域 北韓에서의 自由選舉의 拒否로서 「유엔」이 派遣한 「유엔」 臨時委員團은 38度線 以南 地域에서 “選舉 可能 地域에서의 「유엔」 監視下의 總選舉”를 실시함으로써 大韓民國 制憲國會는 6月 21日 北韓同胞를 爲해 議席 100席을 남겨두고 8月 15日 大韓民國의 獨立政府를 內外에 宣布한 바 있다. 即 ① 大韓民國 政府는 그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 韓半島의 主權을 가진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闡明하였고 ② 選舉가 保障된 北韓에서 100席의 空席을 채우기 爲한 自由選舉를 實施하도록 促求했다.

또한 憲法 前文에는 大韓民國은 韓國 民族의 正統性 있는 後繼者임을 分明히 했다.

이에 對하여 北傀의 憲法에는 北傀 自信이 스스로 民族 傳統을 否定하여 傳統에 對해서는 一言의 言及도 없다. 蘇聯 占領軍의 術策으로 만들어진 北傀는 1949年에 「유엔」에 加入을 申請했으나, 「유엔」은 이미 「유엔」의 機能과 權能을 認定하고 「유엔」의 監視하에 이루어진 大韓民國 政府를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的인 政府임을 認定하여 北傀의 申請을 一考의 餘地도 없는 것으로 無視해 버렸다.

또한 「유엔」은 1950年 北傀의 南侵에 對하여 「유엔」 安全保障理事會를 開催하고 이를 不法集團의 侵略으로 規定하고 16個 「유엔」 會員國의 參戰과 5個 會員國의 醫療班을 派遣하였고 이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合法性과 北傀의 不法性을 闡明하였다.

그 외에도 1970年에 報告된 統計에 依하면, 韓國은 韓半島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 29個國에 常駐 大使館을 두고 (北傀는 21個國), 42個國에 兼任 大使館 (北傀는 2), 總領使館 13 (北傀는 9) 그리고 5個國에 領使館, 常駐 代表部 2個國, 兼任 代表部 1個國 (以上 北傀는 없음)의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22個國 (北傀 9), 中東地域에서 5個國, 東南美에서 21國 (北傀는 各기 62個國)과 修交하고 있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서의 充分한 認定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20餘個의 國際機構에 加入하고 있으나, 北傀는 겨우 36個로서 우리의 憂越性의 좋은 證據가 된다. 더우기 1910年 以來 韓國의 主權을 빼앗았던 日本이 1966年 1月 17日에 發效한 大韓民國과 締結한 兩國間의 基本關係條約에서 大韓民國 政府만이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것을 確認하였다⁸⁾.

위와 같은 證據로서 大韓民國 政府의 正統性과 合法性은 너무도 當然한 事實로 널리 認定되고 있

8) 國土統一院, 統一論叢 1970. 12. 第1卷 20號, PP. 144-145.

어, 國土統一에 있어서도 그 主導權은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主導權을 가진 韓國이 土着 人口比例로 南北韓에 걸쳐 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루려는 것은 韓國측의 誠意 있는 最大限의 雅量과 讓步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北傀의 拒否로서 南韓에서는 이미 1948年 5月 10日 「유엔」監視下에 總選舉를 實施하여 「유엔」이 認定하는 政府를 樹立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은 그 唯一한 合法性을 主張할 充分한 理由와 權利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事實上은 北韓에서만 「유엔」監視下의 總選舉를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이 갈라져 있고 國際의 關聯도 考慮하는 現實을 勘案하여, 南北韓에 同時에 總選舉를 實施하자는 우리側の 讓步를 北傀는 充分히 認定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自身은 統一의 主導權이 우리에게 있다는 基本原則 위에 統一課業을 遂行해야 할 것이다.

韓國統一의 大前提가 民主勝共統一이란 點에서 民主主義를 國是로 받아들이고, 이 나라 發展의 座標를 民主主義의 理念에 두는 우리로서 마땅히 統一遂行의 主導權은 우리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世界를 武力으로 赤化하려는 世界共產黨의 한 傀儡에 不過한 北傀에게 우리의 統一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展開되고 있는 南·北韓 家族찾기 運動에 있어서도 우리가 掌握한 主導權은 올바른 南北韓 對話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主導權의 原則은 對國際關係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民族의 問題도, 우리 民族의 運命을 左右하는 統一問題를 列強國들의 勢力均衡을 爲한 國際權力政治의 犧牲物로 더 이상 放置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強力한 民族意識과 歷史의 使命感은, 國際權力政治에서의 韓國統一에 關한 如何한 決定도 우리의 利益과 相反되는 結果를 招來하지 않게 하기 爲해 우리의 모든 知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韓國統一에 關한 如何한 國際的 試圖에서도 우리의 主導權이 明白히 浮刻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主體의 力量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마. 統一成就를 爲한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接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統一의 主導權은 當然히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오늘의 北傀는 그것이 아무런 不法團體라 하더라도 韓國의 安全을 威脅하는 直接的인 힘으로서 成立해 왔기 때문에, 統一을 爲해서 우리는 우리의 主體의 條件을 具備하지 않을 수 없는 同時에 이를 爲해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接近이 더욱 切實히 要求된다. 우리의 統一은 서둘러서 될 수 있는 것이기 보다는 長期間에 걸치는 自主的 能力의 優位性을 基盤으로 하는 對決과 對話의 過程을 着實하게 거쳐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의 統一에의 接近은 體系的이고 組織的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에 따르는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安保態勢의 變化와 美·中共의 接近, 中共의 「유엔」加入은 우리의 安保問題에 對한 새로운 次元에서의 再檢討를 要求하고 있다. 이를 豫見하였던 우리는 먼저 集團安保體制를 構築하기 爲해 “安保外交”를 構想하고 이에 接近 努力하고 있어, 自主 國防力에 多面的인 支援을 試圖하고 있다. 이로서 北傀로 하여금 武力의 侵略을 拋棄하게 하고 國際輿論 造成에 있어서도 非赤性國과의 外交關係 中立國과의 外交樹立으로 國際關係에서의 北傀의 孤立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軍事, 外交, 政治와 關聯해서 北傀에 比하여 우리의 經濟發展도 越等하여야 할 것이다.

經濟發展은 國家의 實利外交와 그 밖에 國內產業의 育成이 問題될 것이다. 北傀를 凌駕하는 經濟的發展이 곧 統一에 接近하는 다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現實의인 問題로서 統一을 云云할 때 우리의 統一理念, 즉 民族的 統一意識의 確立을 때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民族的 統一原則 아래 우리의 “統一의 必要성과 意義”에 對해서 全國民의 合意點에 到達키 爲해 統一意識을 鼓吹시키며, 特히 北傀에게 統一의 必要성을 納得시키는 어려운 課題를 完遂해야 할 것이다.

統一意識 鼓吹에 더하여 우리는 民主主義에 對한 信念과 이 信念을 再確認 하는 것이 必要하다. 民主主義의 優越성을 理解하고 信念을 갖는 일이다. 이것이 곧 政治의 力量培養에 先決되는 것이다.

統一課業을 爲한 接近은 이와같은 多面的인 性格으로 試圖되어야 하고, 어느 特定 分野나 階層에 限한 責任問題가 아닌 以上, 國民의인 合意와 努力을 通하여 보다 科學的인 組織과 體系를 갖춘 接近을 通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內容으로는 統一을 爲한 우리의 使命에서 再論키로 한다.

3. 統一의 與件

가. 國家同一性 確立

民族的 國家觀 또는 國家同一性(National Identity)의 確立을 平和的 韓國統一의 主要한 與件으로 내 세우고 싶다. 民族的 國家觀 또는 國家同一性은 하나의 血統과 文化遺産을 나누어 갖는 民族으로 形成된 國家에의 同一化 意識 乃至는 愛國心을 意味한다. 複雜한 政治的 諸思想을 제쳐 놓고라도 한 나라의 維持와 統一과 繁榮은 그 나라 國民의 「愛國心」에 依存하는 바 至大하다. 反共의 堅固한 基盤의 하나도, 民主·勝共統一 課業의 效果的 遂行을 爲한 基盤도 韓國인이 韓國에 對한 國家同一 意識에서 出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同族, 同鄉이라는 自然主義的인 內集團 感情을 넘어서는 近代的인 意味에서의 愛國心 또는 國家同一性 意識은 쉽사리 아무렇게나 形成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統一의 첫째 與件에 따르는 問題가 있다. 우선 國家同一性 意識은 韓國이 韓國인에게 어떻게 보람있는 榮光된 것으로 보이느냐에서 出發한다. 그러한 意識은 韓國歷史에서 얻게 되든, 國體에서 얻게 되든, 또 國力에 對한 意識에서 얻게 되든, 日常的인 國家生活속에서 겪는 多樣的 經驗에서 얻어 지건 간에, 그것은 一種의 國家榮光觀 또는 國家에 對한 自負心으로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發展, 保障된 國家安全, 政治的·社會的 正義의 高揚은 이러한 榮光된 國家心像을 길러 준다는 見地에서 勝共統一에 直結된 問題가 된다. 國家同一性은 一定한 形式教育을 通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個人的 集團的 生活의 過程에서 培養되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國家同一性 意識은 그것이 強力한 社會的 國家의 結束을 促求해 줄 뿐만 아니라, 國家生活를 해 나가는 各 個人的 國民的 責任意識과 自身의 目的 및 行動方式의 決定에 重要한 作用을 한다는 意味에서, 政府도 學校도 「메스·미디어」(mass media)도 政黨도 그리고 經濟人들도 社會·文化 一般에 걸친 指導者 集團도 한결같이 이 問題의 深刻성을 銘心하고, 健全한 民族國家 同一意識의 培養을 爲한 風土造成에 積極的 參與가 있어야 할 것

이다.

오늘의 韓國 國民들의 國家에 對한 態度로 보아, 여러 가지 面에서 좀 더 積極的인 國家榮光 意識의 發揮가 高調될 必要가 있고, 이러한 必要는 繼續 強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一般的으로 말해서 우리 國民의 國家同一 意識은 比較的 높은 편이라는 判斷이 내려질 수 있는 實證의 證據도 찾을 수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韓國 國民의 國家同一性 確立의 問題는 그 過程의 複雜性에도 不拘하고 各界 指導者들의 指導性 形態 如何에 따라서 比較的 쉽게 成就할 수 있는 與件 이라고 할 수 있다.

나. 民主力量

統一을 爲한 또 하나의 與件으로서 民主力量의 培養을 提示할 수 있다. 우리가 標榜하는 統一을 爲한 重要한 原則의 하나가 民主·勝共統一이며, 이는 곧 民主主義에의 同一化, 民主主義 理念의 內面化, 生活化를 뜻하는 것이며,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과 共產主義 勢力을 이겨 낼 수 있는 精神的 힘을 意味한다. 이것은 곧 思想에 對한 우리의 主體的 選擇에 關係되는 問題이고, 우리의 思想的 同一性 問題이다.

우리는 過去 여러해 동안 全國民의 精神姿勢의 核心을 反共에다 잡는데 努力해 왔다. 그것은 그것대로의 價値가 있었고, 또 그럴 必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反共이라는 말이 內包하는 否定的 同一性의 要素를 問題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反共이라는 말 보다는, 요즘에 와서는 勝共이라는 用語로 바꾸어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勝共이라고 해도 그것이 內包하는 思想的 同一性은 역시 否定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否定的 同一性은 肯定的 同一性보다 保護되고 方向感, 實體感이 나지 않는 것이 普通이다.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이다”라 하면 實體感이 나지만, “나는 ○○가 아니다”라면 意味가 模糊해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民主主義 信奉者”라고 하는 境遇가 “나는 共產主義를 排擊한다”라고 하는 境遇보다 實體感이 있고 方向感이 明瞭해진다.

頻煩한 北傀의 挑戰에 敵愾心을 높이고, 그 非人道性에 對한 批判力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緊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敵愾心과 義憤과 批判은 나 自身の 出發點, 또는 依據點을 가질 때, 한결 意味가 더해진다. 우리는 明白한 反共精神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反共教育의 準據點을 『民主主義 教育』에 두어야 한다. 民主主義에 對한 理解와 價値受容과, 이에 對한 信念 및 決斷이 基底를 이루어야 비로소 反共은 알맹이 있는 強力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方向感이나 實體感이 없는 反共主義者를 길러내는 것이 되고, 이러한 反共主義者는 언젠가는 반드시 自己同一性의 模糊性을 느끼고 危機에 부딪칠 것이며, 그 危機 如何에 따라서는 그 反共精神은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人間의 實存的 慾求是 “나는 무엇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라는 積極的 同一性을 主張하는 것이다. 더구나 思想은 青年期의 特殊한 關心事이며, 青年期의 中心課業은 自己同一性의 發見과 그 形成이 된다. 이런 時期에 否定的인 同一性은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從來에 常套的으로 否定해 왔던 것이 어떤 方向感과 實體感을 주는 것이라면 否定을 反對로 肯定해 보는 수도 있

는 것이다.

이렇듯 民主主義에 對한 理解가 깊고, 그 指向하는 理念의 價値를 認定하고, 그 理念을 內面化, 生活化할 辨단 아니라, 自己가 同一化하는 民主的 理念을 說得力있게 防禦할 수 있는 能力이 具備될 때, 우리는 비로서 反共 乃至 勝共을 爲한 確固한 自己確立이 되었다고 判斷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民主主義는 形式教育을 통해서만 學習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民主主義는 民主的인 狀況속에서 生活하는 眞 生活過程에서, 더 容易하게 그리고 確固히 學習될 수 있다.

民主·勝共統一이라는 莫重한 課業을 앞에 두고, 우리는 民主主義에 對한 正確한 理解와 그 理念에 對한 根據있는 信念과 그것을 防禦할 수 있는 知的, 正義의 能力까지도 아울러 키워 나가야 한다.

民主主義가 우리나라 憲法의 基本理念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制度的으로는 民主的 風土 속에 살 수 있는 機會가 많다. 그러나 民主主義는 制度 그 自體에 보다는 個個人的인 信仰體制와 價値指向과 一般의 生活樣式에 숨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民主的 發展이 日淺한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民主主義에 對해 익숙지 못한 點이 많다.

그래서 民主主義의 土着化의 必要가 더욱 切實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國家同一性 樹立의 境遇에서와 같이, 民主力量 培養을 爲한 風土造成이 必要하고, 이러한 風土를 造成하기 爲해서 모든 國民이 努力하여야 하겠지만, 特別히 各 生活領域의 指導級에 있는 사람들의 民主主義에 對한 學習과 그 理念 및 原則에 따르는 生活의 示範이 切實히 要求된다.

다. 經濟成長

自主的 經濟成長 또한 統一의 與件中 하나가 된다. 앞에서 言及한 國家同一性 昂揚을 爲해서도, 國民經濟의 成長은 요체가 아닐 수 없다. 特別히 一般의 教育水準이 높지 못한 一般大衆을 가진 우리 나라에 있어서 實力으로서의 善意的 競爭에서 國民의 呼應을 받으면서 勝利하려면, 우리의 全 般的 經濟水準이 重要한 基準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思想的 理念의 選擇에서도 그 理念이 支配하는 體制下에서의 經濟的 生活의 水準 如何가 大衆들에게는 重要한 基準이 된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의 自主的 經濟成長은 우리가 내세우는 諸原則에 合致하는 統一課業 遂行에 앞서서,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基本的 條件이 되는 것이다.

過去에 우리는 淸貧을 美德으로 여길만치 가난하게 生活했다. 그러나 이제 貧困 打破는 못견딜 渴望으로 되었다. 過去에는 주어진 與件 때문에 貧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努力만 하면 貧困을 打破할 수 있고, 또한 知的인 努力이 누적하면 豐饒의 社會를 建設할 수 있다는 自信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10年동안의 實績으로 보아, 우리 社會에도 奇蹟이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왔다. 이렇게 하여 남의 나라에 依存하는 狀態에서 벗어나 自立할 수 있는 自信을 얻게 될 것이다.

經濟發展의 窮極的인 目標은 모든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發展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經濟建設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고, 더우기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 經濟建

設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經濟가 어느 程度 發展된 다음에 漸次的으로 社會福祉를 增進시키는 方向으로 努力하게 될 것이요, 經濟가 높은 水準으로 成熟하게 되면, 그 때는 消費가 美德이 될 程度로 國民의 經濟生活 水準이 높아지고 北傀를 훨씬 凌駕하는 經濟的 優位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第1次 및 第2次 5個年 經濟開發 計劃의 積極的인 推進으로 自立經濟의 基盤構築에 成功하고 自立經濟로의 前進를 繼續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바라는 豐饒한 社會에로의 길은 멀다.

社會保障 制度의 實施나 其他 社會福祉 事業은 앞으로 第3次 5個年計劃에 보다 充分히 反映될 것으로 展望된다.

表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經濟成長은 날로 向上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民 生産에 있어서 1961년에 21億 5,300萬弗에 불과하던 것이 1969년에는 60億7,300萬弗에 達하고 있다.

表 1 主要 經濟指標

部 門	單 位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國民總生産	千萬弗	215.3	218.5	241.9	266.6	267.3	332.4	367.8	502.0	607.3
1人當國民總生産	弗	84.8	83.6	89.8	96.4	101.2	114.3	23.5	164.7	195.0
經濟成長率	%	4.2	3.5	9.1	83	7.4	13.4	8.9	13.1	15.9

1人當 GNP(國民總生産)를 보면 1961년에 84.8弗이던 것이, 1969년에는 195弗로 約 2.3倍가 增加되었다. 한편 經濟成長率을 1962년에 3.5%로 부터 1966년의 13.4%에 이르러 當初 計劃期間中에 年平均 7.1%를 達成하려던 것을 8.5%로 超過 達成함으로서, 急速한 發展을 促進시킬 수 있었다. 이런 實績은 1967년에는 8.9%, 1968년에는 13.1%, 1969년에는 15.9%라는 高度의 成長率에 까지 이르는 것이다.

國民總生産 가운데서도 各 產業이 차지하는 構成比를 보면 1960年度에 農林, 水産業의 比重이 36.9%이고 鑛工業이 15.7%, 社會間接資本(鐵道, 道路, 港灣, 서비스 運輸等)이 47.4%였다. 그러나 1960년에 와서는 2次 產業인 農林, 水産業이 36.1%, 社會間接資本의 3次 產業比重이 44.3%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2次 產業이 急速히 發展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서서히 工業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輸出에서 볼 때, 第1次 5個年 計劃이 始作되기 前해인 1961년에 4,200萬弗에 不過하던 것이 輸出增大를 爲한 政府와 國民의 努力의 結果 年平均 44%씩 增加하여 第1次 5個年計劃이 끝나는 해인 1966년에는 6倍가 넘는 2億 500萬弗을 達成하였다. 이러한 輸出의 量的인 增加뿐만 아니라 輸出商品의 內容도 크게 달라졌다. 1961年度만 하더라도 總 輸出品의 大部分이 가공되지 않은 農·水産物 및 鑛山物이었고 工業製品은 不過 22%인 950萬弗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그 比率이 反對로 되어 工業製品이 63%인 1億 6,100萬弗에 達하여 5年間에 工業製品 輸出額은 無慮 17倍로 增加되었다.

輸出 對象國도 1961년에 27個國에 不過하던 것이 1966년에는 70個國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輸出 貿易도 繼續 增加하여 1968년에는 5億弗, 1967년에는 7億弗, 1970년에는 10億弗을 達成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을 이루어 놓았다⁹⁾.

이와 같은 經濟成長을 이룩하게 된 原因을 分析해 보면, 첫째는, 온 國民이 政府와 一致 團結하여 忍耐하고 努力했다는 點과, 政府는 民間企業이 參與하기 어려운 基幹產業이나 其他 重要部分에만 直接 또는 間接으로 參與하고 全的으로 民間人의 自由와 創意를 尊重하였다는 點과 셋째는, 우리의 經濟成長을 沮害하는 重要 要人이 되고 있던 電力, 石炭, 燃料 等の 部分에 대한 優先的인 投資로 이를 打開함으로써 다른 產業의 發展은 支援해 주었다는 點. 넷째는, 農林部門에 있어 어려운 自然條件을 克服하여 生産性을 높일 수 있게한 點. 다섯째로, 遊休 勞動力을 흡수하기 위한 政府의 施策이 効果를 거둔 點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5個年 計劃의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손을 댄 現實化 開放政策 (金利現實化, 貿易自由化, 變動換率制 等)이 成功을 거둔 點을 들 수 있겠다.

라. 自主國防

네째로, 우리의 統一原則과 關聯하여 切實히 要請되는 것은 國家 安保體制의 確立이다. 다시 말해서 國家安保를 위한 自主的 國防能力의 培養이다. 自主國防 能力의 培養을 통한 國家安保體制의 確立은 앞서 例擧한 與件인 國家同一性 昂揚, 自立經濟 成長 그리고 앞으로 說明할 國際關係의 向上 等과 떼어 놓을 수 없는 函數關係를 이루고 있다.

平和의 統一課業 遂行에서 우리가 主導權을 掌握하고 나가기 以前에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與件으로서 安保體制의 確立을 重大視하는 것은, 70年代를 맞은 轉換期的인 狀況에서 北傀는 所謂 70年代를 「決定的 時期」로 못박아 놓고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을 呼聲하며 戰爭準備에 狂奔하고 있고, 한편 美國의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直接的인 波紋으로 「아시아」 太平洋 地域의 安保態勢에 根本的인 變化를 招來시키는 美國은 모든 紛爭解決을 非美國化的 原則으로 解決하기 위해 이들 地域에서 後退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우리는 自主國防力 培養이라는 時急한 課業을 눈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國軍裝備의 早速한 現代化가 時急히 要請되며 軍需產業의 育成, 豫備軍 動員體制의 確立 等の 問題가 당장에 提起된다. 여기에서 經濟建設을 아울러 併行시켜야 할 우리는 참으로 힘에 겨운 課題를 遂行하지 않을 수 없다. 今年度 豫算단 보더라도 一般 財政規模 4,343억 원중 國防費가 3.5%를 차지하고 經濟開發을 위한 政府支出인 投資融資는 32.3%를 차지하는 바, 建設하며 國防하는 우리 政府豫算의 性格을 如實히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莫大한 國防費 補助를 美國으로 부터 받아오고 있었지만 이제 國防費 自擔 增額論이 漸次로 머리를 들고 있다.

經濟建設도 重要하며 우리의 財政投入에 支障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自主國防 態勢를 樹立하는 데는 全 國民的인 安保態勢 確立 또한 重要的한 바, 効率的인 安保外交 等으로 새로운 政勢變化에 適應하는 創意的인 安保體制의 確立이 더욱 時急한 問題인 것이다.

9) 國土統一院, 統一教育指針書 1971, PP. 402-405

마. 社會正義의 高揚

國家同一性의 確立, 民主力量 그리고 經濟成長과 自主國防과 아울러 社會正義를 高揚하는 것이 統一을 위한 또 하나의 要件이 된다. 社會正義는 自由와 平等과 더불어 民主主義의 3대 地主를 이루고 있어 理想的으로 民主主義에 의한 우리의 統一은 社會正義의 高揚이라는 要件을 統一에 對備하여 갖추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認定하고, 最大限의 平等을 保障하는 社會일 수록, 人間關係를 律하는 社會正義가 隨伴되어야 完全한 民主社會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社會正義의 精神은 그 起源을 人間の 尊嚴性에 두어야 하며 社會正義라는 用語가 뜻하듯이 社會가 옳고 바르게 다스려져야 한다는 데서, 統一의 要件으로서 무엇보다도 더 要請되는 要件이 된다. 民主主義가 指向하는 窮極的 目標가 人間の 生活 全體를 道德化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意味에서 民主主義란 하나의 道德革命 運動⁹⁾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을 目的으로서가 아니라 手段으로 利用하려는 非人間的인 社會를 改革하려는 改革運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人間の 行爲를 社會正義로서 다스리고 人間本位의 人間の 尊嚴性을 認定하는 民主社會에서 徹底한 社會秩序 意識과 道德的 責任感을 가지고 統一을 위한 努力에 參與하는 國民的 努力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國際關係의 向上

우리의 國土分斷이 우리의 意思로서가 아닌 國際權力政治의 副產物이란 點은 앞서도 指摘했다. 여기에 우리의 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의 造成이 重要한 要件으로 登場하게 되는 理由가 있다. 여기에 또 韓國統一은 어디까지나 우리 民族의 課業이면서도 國際政治의 影響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強力한 示唆點이 있는 것이다.

이미 韓國分斷에 關한 討議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國際政治의 움직임은 分斷國들의 分斷狀態를 現實化하고, 이를 國際的 次元에서 凍結·固定化하려는 傾向을 길게 나타내고 있다. 이제 中共이 自由中國을 몰아내고 「유엔」에 加入하였고 유엔內의 勢力構造에도 많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韓國問題가 겪어온 核心的인 南北韓 同時 招請案이 앞으로는 繼續해서 우리에게 有利하게 잘 처리될 것인가도 모를 일이며, 過去 오랫동안 繼續 確認된 南·北韓 人口比例에 의한 「유엔」監視下의 總選舉라는 「유엔」의 韓國統一案에 대한 강한 挑戰도 있을 것이 豫想되는 情勢에서, 이미 政府에서 積極 努力하고 있지만 倍前의 努力을 傾注하여, 對 友邦國과의 外交는 물론 對 中立國 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하여 우리를 支持하는 「유엔」會員國들의 數를 보다 많이 確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多角的인 統一-外交와 더불어 앞서 言及한 安保外交를 積極·推進하는 한편, 70年代의 우리의 經濟發展을 뒷바침 할 수 있는 經濟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하는 것이 過去 어느때 보다도 切實해지고 있다. 이미 政府는 이와 같은 積極外交의 必要에 適應하는 政策의 一環으로서 非敵性 共産國과의 通商의 길을 摸索하기 시작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는 複雜하게 激變하는 70年代의 國際情勢 속에서 主體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를 가다

9) 國民倫理教育研究會編, 勝共論 P. 365.

들어, 새로이 展開되어 가는 國際政治 秩序속에 스스로의 位置와 方向을 定立하고 자기 擴張의인 積極外交로서 우리의 自主的 經濟發展을 強力히 뒷바침하고, 自主的 國家安保體制를 이룩하는 일에 創意的 努力을 充分히 發揮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使命

以上에서 概擧한 統一原則과 與件은 個人으로 或은 集團으로서의 우리의 나아갈 길을 明確히 示唆해 준다.

첫째로, 우리는 民族國家를 一次的인 準據集團으로 삼는 普遍精神을 기쁨과 동시에, 確固한 民族的 國家 同一性을 確立하여 民主主義 理念과 價値를 우리의 意識構造와 生活樣式에 內面化 함으로써 統一을 위한 우리의 精神的 姿勢를 確固히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精神的 姿勢는 共產主義 理論과 그 實際와 그것이 우리 나라와 世界秩序에 끼칠 害毒에 대해서 根據있게 批判해 낼 수 있는 訓練된 知的 能力을 갖추어서 思想的 對決에서 勝利할 수 있는 知的 根據를 構築해야 할 것이다.

세계로, 우리는 激變하는 複雜한 國際情勢를 銳利하게 分析 把握함으로써, 強力한 說得力을 지닌 統一方案을 樹立 提示하고 그것을 推進함에 必要한 우리의 政治能力(個人的, 集團的, 國家的) 培養을 國民의 義務로 느끼고 이에 邁進하여야 할 것이다.

自主的 經濟發展, 國家安保體制의 確立, 自己 擴張의 積極外交의 効果의인 展開를 위해, 우리가 國民으로서 갖추어야 할 資質을 培養하는 한편, 우리들의 役割을 理解하고 받아들여 이를 責任있게 遂行함으로써 國民으로서의 待遇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8. 15宣言에서 表明된 우리들의 統一에 대한 強力한 意志를 具現하기 위한 具體的인 方案 樹立에 있어 責任있게 參與함으로써, 앞으로 展開될 統一方案에 대한 보다 強力한 國民的 合意에 到達함으로써 民族의 一體感을 가지고 統一課業 推進의 隊列에 參加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1) 백행걸, 兩斷된 國家의 統一問題, 서울: 大韓公論社 1968
- (2) 이기백, 韓國史 新論, 서울: 一朝閣 1969.
- (3) 이병도, 韓國史 大觀, 서울: 普門閣 1966.
- (4) 이회승연, 國語大辭典, 서울: 民衆書館 1970.
- (5) 한우근, 韓國統史, 서울, 乙類文化社: 1971.
- (6) 國民倫理教育研究會編, 勝共論 서울: 陽文閣 1971.
- (7) 國土統一院, 國土統一 1971.9.
- (8) 國土統一院, 統一論叢 1970. 12. 12. 1卷2號
- (9) 國土統一院, 勝共教養讀本 1971.
- (10) 月刊中央社, 中央 1971. 1號
- (11) 東亞日報社, 東亞日報 1971年 3月 5日字
- (12)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6.
- (13) 이응희, 一般國際政治學, 서울: 博英社 1961.
- (14) 이병도, 韓國史 大觀, 서울: 普門閣 1969.
- (15) 오천석, 民主主義의 참된 모습,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8.
- (16) 한우근, 韓國通史, 서울: 乙酉文化社 1970.

- (17) 國民倫理教育委員會編, 勝共論, 서울:陽書閣 1971.
- (18) 國土統一院, 勝共教養讀本, 1971.
- (19) 國土統一院, 統一教育指針書, 1971.
- (20) 國會 國土統一研究會(特別委員會報告書), 統一白書, 서울 1969.
- (21) 東亞日報, 1970年 2月 20日字
- (22) 東亞日報, 1971年 3月 5日字
- (23) 東亞日報, 1971年 11月 29日字
- (24) 中央日報社, 中央, 1970年 1月號
- (25)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亞細亞 研究, 1970.12.4卷

政刊委 第 31—5—83 審議畢

1972年 5月 20日 印刷

1972年 5月 25日 發行

民主統一論

發行處：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印刷所：서울印刷株式會社

<非賣品>

